

송
암
집

호남 선현문집 국역총서 1

송암집
上

松巖集

기정의 지음
奇挺翼

발간사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권 한국학 진흥과 민족문화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출연한 학술기관입니다. 개원 1년의 성과를 상재합니다.

본원은 그동안 고문서 수집 집성, 근대 문집의 표점 영인, 고문서·일기·선현 문집 국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두 범주로 요약됩니다.

하나, 호남 한국학 기초자료 발굴
둘, 호남 사상·생활 문헌 국역

이상의 연구사업은 서세동점 이후 구학(舊學)·구습(舊習)으로 폄하되었던 전통적 학술 사조와 생활 세계를 탈근대 차원에서 재구성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난 위망과 극단의 세월에 덧씌워진 ‘소국 트라우마’, ‘문명 콤플렉스’와 같은 문화 심리의 질곡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호혜 공존의 생활 지혜, 나아가 범고창신(法古創新)·연구혁신(沿舊革新)의 사유 역정이야말로 당당한 새로운 미래 설계의 자양임을 웅변하고 싶습니다.

2019년 1월

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이종범

일러두기

- * 이 책의 번역 대본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상·하본 2책으로 하였다.
- *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 *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 * 이 책은 번역문과 원문을 함께 실었다.

차례

발간사 | 4

일러두기 | 6

해제 | 15

국역 | 원문

서 序

37 | 429

송암집 제1권

시 詩

무오년 입춘 戊午立春 43 | 433

달밤에 우연히 읊다 月夜偶吟 44 | 433

우연히 읊다 偶吟 45 | 433

그 두 번째 其二 46 | 434

‘래(來)’와 ‘귀(歸)’ 두 글자를 운으로 쓴
서화담의 시에 차운하다 次徐花潭來歸二韻 47 | 434

자평의 시에 차운하다가 동생 자침이 생각나다
次子平韻 仍憶舍弟子瞻 48 | 434

장난으로 짓다 戲題	49 434
김 천총 천주 을 애도하다 輓金千摠 天柱	50 435
김공 형복 을 애도하다 輓金公 亨福	51 435
이군보 세필 의 시에 차운하다 次李君輔 世弼 韻	52 435
이회수의 〈황굴〉에 차운하다 次李晦叟黃橘韻	53 435
유군 찬길 을 애도하다 輓劉君 纘吉	54 436
자립이 보내준 시를 보고 차운하다 次子立見贈韻	55 436
유백인 필수 을 애도하다 輓柳伯仁 必壽	56 436
수미 3수 首尾 三首	57 437
첫째 수	57 437
둘째 수	57 437
셋째 수	58 437
김공 형지 을 애도하다 輓金公 亨祉	59 437
박 상사 광후 를 애도하다 輓朴上舍 光後	60 438
황자평을 애도하다 輓黃子平	61 438
홍 참봉 상원 을 애도하다 輓洪參奉 相元	63 438
강 함양 필주 을 애도하다 輓姜咸陽 弼周	64 439
우암 선생에게 드리다 上尤庵先生	65 439
석지형의 시에 차운하다 연구 次石之珩韻 聯句	67 440
병을 앓은 후 두어 구를 읊어 스스로를 경계하다 病後吟數句以自警	69 440
박공 상순 을 애도하다 輓朴公 尙淳	70 441
박여고 행중 를 애도하다 輓朴汝固 行重	72 442

찰방 족속 진갑 을 애도하다 輓族叔察訪 震甲	74 442
유단 군을 애도하다 輓劉君湍	76 443
김 수재 천서 를 애도하다 輓金秀才 天瑞	78 444

송암집 제2권

서 책

우암 선생님께 올림 上尤庵先生	81 447
우암 선생님께 올림 上尤庵先生	84 448
별지	84 448
우암 선생님께 올림 上尤庵先生	90 450
별지	91 451
우암 선생님께 올림 上尤庵先生	102 455
우암 선생님께 올림 上尤庵先生	104 456
별지	105 456
박 상사 광후 에게 보냄 與朴上舍 光後	113 459
신 안사 익상 에게 답함 答申按使 翼相	116 461
박경초 상현 에게 답함 答朴景初 尙玄	120 462
박경초에게 답함 答朴景初	136 469
박경초에게 답함 答朴景初	139 470
경양에게 답함 答景陽	145 472
이군보 세필 에게 답함 答李君輔 世弼	152 475

집의 윤자인 증 에게 보냄 與尹執義子仁 拯	156 476
윤자인에게 답함 答尹子仁	159 477
윤자인에게 보냄 與尹子仁	174 483
윤자인에게 답함 答尹子仁	178 484
윤자인에게 답함 答尹子仁	182 486
윤자인에게 보냄 與尹子仁	186 487
윤자인에게 답함 答尹子仁	187 487
윤자인에게 보냄 與尹子仁	191 489
윤자인에게 보냄 與尹子仁	193 489
유진경에게 답함 答柳進卿	200 492
유진경에게 답함 答柳進卿	207 494
유진경에게 답함 答柳進卿	209 495
유진경에게 답함 答柳進卿	211 495
유진경에게 답함 答柳進卿	215 497
오옥여 상옥 에게 답함 答吳玉汝 相玉	217 497
황 참봉 신귀 에게 답함 答黃參奉 信龜	218 498
유백인 필수 에게 답함 答柳伯仁 必壽	219 498
조군 근하 에게 답함 答曹君 根夏	221 499
조군에게 답함 答曹君	223 499
변미경 휴 에게 보냄 與邊美卿 然	225 500
변미경에게 답함 答邊美卿	231 502
김군 명하 에게 보냄 與金君 鳴夏	233 503

김너숙에게 답함 答金賚叔	234 503
고 생질 필관 에게 답함 答高甥 必觀	237 504
고 생질에게 답함 答高甥	240 505
고 생질에게 답함 答高甥	243 506
고 생질에게 답함 答高甥	244 507

송암집 제3권

제문 祭文

가묘에 고하는 글 告家廟文	247 511
모암서원에 조 양산과 조 처사를 배향하는 것에 대해 고유하는 글 慕巖書院配享趙梁山 趙處士告由文	248 511
홍에 대한 제문 祭泓文	251 512
장자 호에 대한 제문 祭長子灑文	256 514
종자 형에 대한 제문 祭宗子洞文	258 515
죽은 부인 유인 김씨에 대한 제문 祭亡室孺人金氏文	260 516
왕에 대한 제문 祭汪文	266 519
죽은 딸 처자에 대한 제문 祭亡女處子文	271 520

행장 行狀

양산 군수 조공 행장 처사공 부기(附記) 梁山郡守趙公行狀 處士公附	273 522
---	-----------

해광 처사 송공 행장 海狂處士宋公行狀	281 525
하곡 정 선생 행장 霞谷鄭先生行狀	301 531
선부군 행장 先府君行狀	311 534
가의대부 행 평안도 관찰사 김공 행장 嘉義大夫行平安道觀察使金公行狀	321 537

송암집 제4권

비지 碑誌

절충장군 박공 묘비 折衝將軍朴公墓碑	339 545
숙인 구씨 묘지 淑人具氏墓誌	344 546

서序

소 제주 두산 를 보내는 서 送蘇濟州 斗山 序	348 548
---------------------------	-----------

설說

점옹설 店翁說	355 550
정전에 대한 사사로운 논의 私議井田	358 551
옛 정전법에 의거하여 손익을 추변하다 依古井田推辨損益	360 551

잡저 雜著

역상해 易象解	399 571
---------	-----------

송암집 부록

행장 行狀

행장 行狀

413 | 579

발 跋

424 | 582

호남 산림 기정익의 인내의 삶과 자득(自得)의 학문

이선아 |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1. 기정익의 가계와 생애

1) 기정익이 살았던 승명반청(崇明反淸)의 시대

기정익(奇挺翼)은 인조 15년(1627)에 태어나 숙종 16년(1690)에 타계한 호남의 학자이다. 그가 살았던 17세기는 두 차례의 호란(胡亂)으로 민생이 피폐하고 국기(國紀)가 혼란해진 시대였다. 당시 조선의 사림은 청나라와 굴욕적인 군신관계(君臣關係)를 맺은 현실을 천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존화양이(尊華攘夷)와 승명반청(崇明反淸)의 이념을 품고 복수설치(復讐雪恥)의 시대를 기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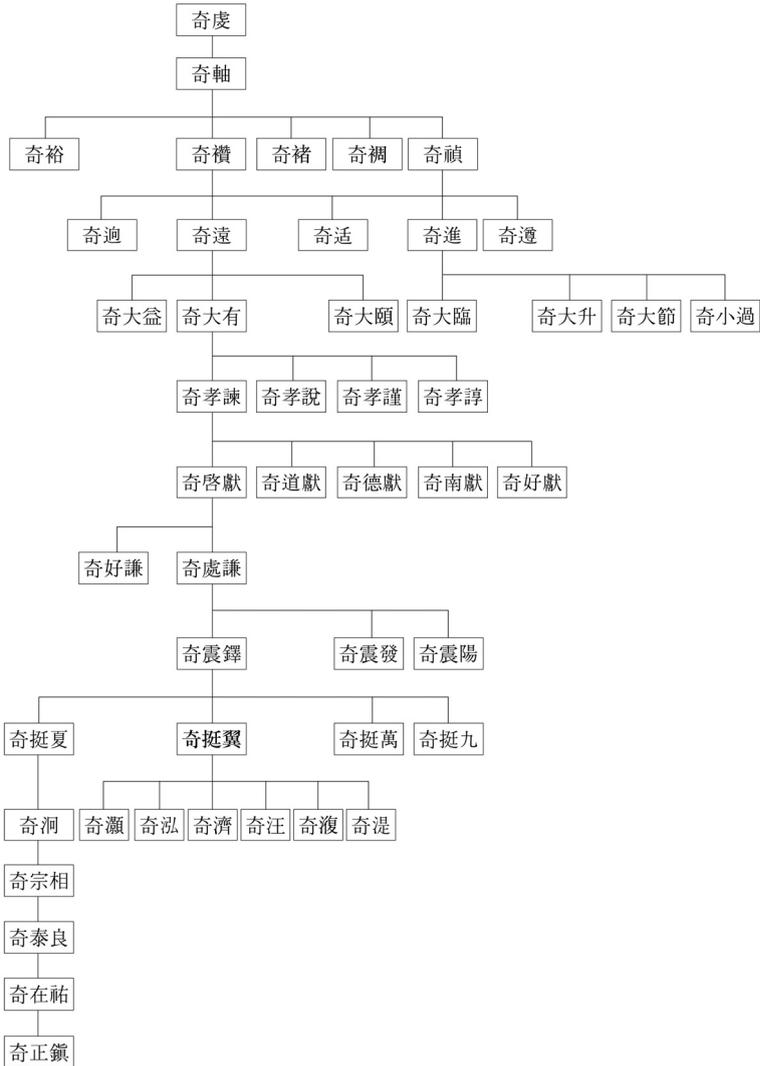
무너진 기강(紀綱)과 예의(禮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송(禮訟)이 일어나고,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서인 내부에서도 회니시비(懷尼是非)로 인한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조선의 정치적, 학문적 지형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붕당의 분화 속에서 지방의 사림도 그 입장과 노선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송시열(宋時烈)을 존송하며 윤증(尹拯)과 교유하였던 기정익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기정익의 선택은 호남의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2) 호남 사림의 맥을 이은 가학(家學)

기정익의 본관은 행주(幸州)이며 조선 초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지낸 기건(奇虔)의 9세손이다. 기건의 출생과 출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현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세종 24년(1442)에 과거를 거치지 않고 학행으로 발탁되어 사헌부 지평(持平)에 임명되고, 연안 부사와 사헌부 집의(執義)를 거쳐 세종 25년(1443) 12월에 제주 목사(牧使)로 부임하여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그는 제주도의 마정(馬政)을 바르게 하고 표류민을 우대하였으며, 부모가 죽으면 구멍이나 언덕에 버리는 풍속을 바로잡아 예절을 갖추어 장사 지내도록 하였다. 기건은 나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나병 환자에게 고삼원(苦蔘元)을 복용시키고 바닷물로 목욕시키는 치료법을 통해 나병 환자를 구호하는 데 기여하였다. 세종 30년(1448)에 전라도관찰사 겸 전주 부윤으로 부임하였고, 세종 31년(1449)에 호조 참판으로 승진하였으며, 세종이 죽자 고부사(告訃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개성부 유수를 지냈고, 단종 원년(1453)에 대사헌이 되었다.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켜 왕위에 오르자 관직을 버리고 두문불출하였는데, 세조가 다섯 차례나 불렀지만 사양하고 끝까지 절개를 지켰다.

기건의 학문과 사상은 그의 5세손 기효간(奇孝諫, 1530~1593)에게 이어졌다. 기효간의 자는 백고(伯顧), 호는 금강(錦江)·인재(忍齋)로 김인후(金麟厚)와 기대승(奇大升)에게 수학하였다. 기효간은 김인후에게서 “우주의 중간에 두 분이 있는데, 공자는 원기(元氣)이고, 주자는 참됨[眞]이다.”라는 글을 통해 도를 전수받았다고 한다. 기효간은 이항(李恒)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김천일(金千鎰), 변이중(邊以中) 등

과 교유하였다. 그는 학문에 전념하여 호남의 '은덕군자(隱德君子)'로 불렸으며, 후진 양성에 주력하여 오희길(吳希吉) 등의 학자를 배출하였다.



기효간의 아들 기계현(奇啓獻)은 기정익의 증조(曾祖)로, 용양위부사과(龍驤衛副司果)를 지내고 호조 좌랑(戶曹佐郎)에 추증되었다. 기정익의 조부 기처겸(奇處謙)은 벼슬하지 않았다. 부친 기진탁(奇震鐸, 1607~1653)은 인조 2년(1624)에 사마시(司馬試)에 입격하였다. 기진탁은 사마시에 입격한 후 과업(科業)에 뜻을 두지 않고 지조와 행실을 지켰다. 그러다가 인조 7년(1629)에 병환이 깊어진 부친의 뜻에 따라 향시(鄕試)에 응시하여 여러 차례 합격하였으나 대과(大科)에 낙방하였다. 그는 부친상을 치르고 모친의 뜻으로 다시 별시(別試)에 응시하여 선발되었다가 과방(罷榜)되는 불운을 겪고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오로지 수양에 전념하였다. 그는 만년에는 이이(李珣)를 흠모하여 말하기를 “해동(海東)에서 임금을 보좌할 만한 재능을 지닌 이는 이이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을 모두 갖춘 《격몽요결(擊蒙要訣)》을 후학들이 항상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진탁의 학문은 그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쳤다.

3) 기정익의 인내(忍耐)의 삶

기정익은 기진탁과 나무춘(羅茂春, 1580~1619)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무춘은 선조 39년(1606)에 사마시에 입격하고 광해군 4년(1612)에 식년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의 학유(學諭)·학록(學錄)·학정(學正) 등을 지냈다. 이이첨(李爾瞻)이 유생 이위경(李偉卿)을 시켜 인목대비의 폐출소(廢黜疏)를 올리자, 한림(翰林) 엄성(嚴惺)과 함께 이위경을 탄핵한 일이 빌미가 되어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그러다가 복직되어 사헌부 감찰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파직되었다.

인조가 즉위한 후 그의 절의(節義)를 존중하여 특별히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다.

기정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성과 우애가 남달랐다고 한다. 그의 형 기정하(奇挺夏)가 공부할 때 옆에서 듣고 기억하였다가 형이 모르면 가르쳐 줄 정도로 총명하였다. 어린 나이에도 어른처럼 엄숙하고 아이들과 놀 때도 말이 간략하고 신중하며 걸음걸이가 차분하고 세심하였기 때문에 놀림을 받곤 하였는데, 기진탁은 오히려 기특하게 여기며 “우리 가문을 크게 할 자는 반드시 이 아이다.”라고 칭찬하였다.

기정익은 학문에 뜻을 두어 부모를 섬기는 여가(餘暇)에 사장(詞章)을 익혔다. 그는 나이 25세에 되던 효종 2년(1651) 이후에 연속하여 식년시와 증광별시(增廣別試)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그러나 부친 기진탁이 병들어 오래도록 낫지 않자 병간호에 진력하며 과업(科業)에 전념하지 못하였다. 그는 부친을 여윈 후 과업을 접고 오로지 성리학에만 정진하며 경전의 뜻을 넓게 궁리하였다. 특히 《주자대전(朱子大全)》을 즐겨 읽으며 침식(寢息)을 잇을 정도로 그 뜻을 완미(玩味)하였다고 한다. 당시 혼탁한 조정에 나가지 않고 재야에서 학문 연마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는 산림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기정익도 산림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기정익은 참판(參判)을 지낸 김여옥(金汝錡, 1596~1662)의 딸과 혼인하여 슬하에 4남 6녀를 두었다. 그는 장인 김여옥의 행장을 직접 지어 그 행적과 학연을 밝혀 두었다. 그의 장녀는 고필관(高必觀)에게 시집가고, 차레로 강덕주(姜德周), 박태헌(朴泰憲), 유익성(柳翊聖)에게로 시집갔다. 그러나 네 아들은 모두 요절하였다. 둘째 아들 홍(泓)과 셋째 아들 제(濟)를 잃고 난 후 장남 호(灑)마저 세상을 떠났다.

기정익의 기대와 사랑을 받았던 막내 아들 왕(汪) 또한 불행히 단명하고 말았다.

기정익은 잇달아 겪은 흉화(凶禍)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호남의 사림의 학맥을 잇기 위해 학문과 수양에 전념하여 자득(自得)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현종 9년(1668) 무렵 일찍부터 평소 존모하였던 송시열의 제자가 되었다. 집안 사정 등으로 문하에서 직접 수학하지는 못하였으나 편지를 통해 의리(義理), 성명(性命), 상수(象數), 명례(名禮) 등과 관련하여 논변하며 자득한 공부를 정밀하게 바로잡았다. 기정익은 송시열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호서의 서인과 교류하고, 율곡과 우암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잇는 호남의 학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리하여 윤순거(尹舜舉)는 ‘호남의 제일인(第一人)’이라고 칭찬하였고, 고창 현감(高敞縣監)을 지낸 신계정(申啓澄)도 ‘만약 남도의 땅에서 제일의 인물을 논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기정익의 학문과 명성이 알려지면서 숙종 7년(1681)에 송시열의 추천으로 제릉(齊陵)과 효릉(孝陵)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특히 기정익은 가학을 이어받아 만년에 《주역(周易)》에 심취하여 정밀하고 오묘한 뜻을 궁구하였다. 그는 일찍이 “《주역》을 보는 방법에는 이(理)와 수(數), 상(象) 세 가지가 있다. 이(理)와 수(數)는 송나라 때 여러 현인이 발명하여 다시 미진함이 없으나, 유독 상(象)은 전수(傳受)한 이가 없으니 지극히 한탄스럽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주역》의 64괘 상사(象辭)에 대한 분주(分註)를 시도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주역》의 상수학(象數學)에 대한 기정익의 학문적 경향은 호남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호남 학풍의 일면

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송암선생문집》의 편제와 내용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은 기정익이 남긴 《송암유고(松巖遺稿)》와 후손이 선조의 유고를 습유하여 정리한 《송암속집(松巖續集)》을 편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사본으로 전하여 내려온 《송암유고》와 《송암속집》을 묶어서 1788년(정조12)에 《송암선생문집》(6권 2책)이 목판 활자본으로 간행되었고, 1955년에 석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송암선생문집》 권1에는 송환기(宋煥箕)가 쓴 서문과 시 28수가 실려 있고, 권2에는 송시열(宋時烈), 박광후(朴光後), 신익상(申翼相), 박상현(朴尙玄), 윤증(尹拯), 유진경(柳進卿), 황신귀(黃信龜), 변휴(邊休) 등과 주고받은 편지 34통이 실려 있다. 권3에는 기정익이 저술한 제문(祭文)과 행장(行狀)이 수록되어 있다. 고가묘문(告家廟文)과 아들과 딸, 조카 등 가족의 죽음을 애도한 제문과 왜란 때 활약한 양산군수(梁山郡守) 조영규(趙英圭), 해광(海狂) 송제민(宋濟民), 하곡(霞谷) 정운룡(鄭雲龍)의 행장을 비롯하여 부친 기진탁(奇震鐸)과 장인 김여옥(金汝鈿)의 행장이 실려 있다. 권4에는 절충장군 박상의(朴尙義)의 묘비문과 변휴의 조모 숙인 구씨의 묘지문이 실려 있고, 제주 목사 소두산(蘇斗山)을 보내는 서(序) 1편과 <점옹설(店翁說)>, <사의정전(私議井田)>과 <의고정전추변손익(依古井田推變損益)>, 《주역》의 상전(象傳)을 풀이한 <역상해(易象解)> 등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으로는 박광일(朴光一)이 지은 행장과 오재순(吳載純)이 지은 발문이 있다.

《송암선생문집》 권5부터 속집에 해당되는데, 시(詩), 소(疏), 서(書), 행장(行狀), 서(序), 발(跋), 상량문(上樑文), 제문(祭文), 통문(通文), 전(箋) 등이 첨부되어 있다. 35수의 시는 대부분 친우와 제자 등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사이다. 소(疏)는 조영규(趙英圭)와 조정노(趙廷老) 등을 배향한 모암서원(慕巖書院)의 사액을 청하는 <모암서원 청액소(慕巖書院請額疏)>, 존주(尊周)의 의리를 내세우며 효종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송시열의 억울함을 호소한 <신구우암송선생소(伸救尤庵宋先生疏)>가 있다.

13통의 편지는 향교의 이건에 대해 관찰사에 보낸 편지와 박수철(朴守哲)이 질의한 성리학설에 대한 기정익의 답장으로, 권2에 수록된 송시열, 윤증, 박상현과 주고받은 '학술 편지'와 함께 기정익의 학문과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이어서 <송조도사구상서(送趙都事龜祥序)>와 <예미정기(曳尾亭記)>가 실려 있다. 장성향교를 이건하며 지은 상량문, 필암서원을 중건하며 지은 상량문과 1680년(숙종6) 평양 감영의 연막(蓮幕)을 지은 <관서순영연막상량문(關西巡營蓮幕上梁文)> 등이 있다.

또한 김인후(金麟厚)의 제자 변성온(卞成溫)의 행장과 왜란 때 장렬히 순절한 송타(宋柁)의 행장, 필암서원에 배향된 양자징(梁子徵)의 아들 양천운(梁千運)의 행장이 수록되어 있으며, 함평의 은덕(隱德) 유여걸(柳汝杰)과 종고조(從高祖) 기효근(奇孝謹)을 위한 묘갈명과 만취당(晩翠堂) 공희성(孔希聖)을 위한 제문, 조영규와 조정노를 모암서원에 추향하지는 통문, 현종의 생일을 축하하는 전문(箋文) 등이 실려 있다.

이외에도 기정익의 학문의 단면과 편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글이 권6에 논(論)과 잠(箴), 책(策), 의(擬)로 실려 있다. 특히 중국의 역사적 사례를 거론하며 시사(時事)에 대해 비판하는 ‘의(擬)’를 통해 기정익의 정치적 입론(立論)을 짐작할 수 있다.

부록에는 김종수(金鍾秀)가 찬한 <송암기공묘표(松巖奇公墓表)>, 이임한(李任漢)과 양진태(梁晉泰)가 지은 만사(輓詞), 송시열·박세채(朴世采)·김수항(金壽恒)·윤증·신익상·조상우·소두산·이세필(李世必)·황신귀·이대(李垚) 등이 보낸 편지가 첨부되어 있다. 주로 상권에 누락된 편지를 수습한, 송시열 등 서인 학자와 기정익의 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족질인 니(彌)가 지은 <송암유허감회(松巖遺墟感懷)>, <송암기(松巖記)>와 여러 족손 및 후학들이 송암운(松巖韻)으로 지은 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6권 2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수	목차	내용	
상권	권1	序	宋煥箕
		詩	28題
	권2	書	34札
	권3	祭文	<告家廟文> <慕巖書院配享趙梁山趙處士告由文> <祭泓文> <祭長子灑文> <祭宗子泐文> <祭亡室孺人金氏文> <祭汪文> <祭亡女處子文> 8篇
		行狀	<梁山郡守趙公行狀處士公附> <海狂處士宋公行狀>

권4		〈霞谷鄭先生行狀〉 〈先府君行狀〉 〈嘉義大夫行平安道觀察使金公行狀〉 5篇	
	碑誌	〈折衝將軍朴公墓碑〉 〈淑人具氏墓誌〉 2篇	
	序	〈送蘇濟州斗山序〉 1篇	
	說	〈店翁說〉, 〈私議井田〉 2篇	
	雜著	〈易象解〉 1篇	
	附錄 行狀	朴光一 撰	
	附錄 跋	吳載純 書	
하권	권5	詩	35題
		疏	〈慕巖書院請額疏〉 〈伸救尤庵宋先生疏〉 2篇
		書	13札
		序	〈送趙都事龜祥序〉 1篇
		記	〈曳尾亭記絕筆〉 1篇
		上樑文	〈長城聖殿移建上樑文〉 〈筆巖書院祠宇上樑文〉 〈關西巡營蓮幕上樑文〉 3篇
		行狀	〈壺巖卞先生行狀〉 〈花庵宋公行狀〉 〈瀛洲梁公行狀〉 3篇
		碣銘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柳公墓碣銘〉 〈贈效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 皆伯君行通政大夫南海縣令奇公墓碣銘〉 2篇
		祭文	〈祭晚翠堂孔公〉 1篇
		通文	〈趙梁山父子追配慕巖書院通文〉 1篇
	箋文	〈大殿誕日箋文〉 1篇	
		論	〈拚飛維鳥〉 1篇
		箴	〈志以道寧箴〉 1篇

권6	擬	〈唐侍御史馬周請如貞觀之初以爲長久之計〉 〈宋左僕射李綱請治張邦昌潛逆之罪以勵中外〉 〈宋婺州處士呂祖泰請丞斬韓侂胄代以周必大〉 〈宋兵部侍郎朱熹請察天理人欲之分以爲用心處士之公〉 〈漢朝群臣賀除挾書律〉 〈漢大將軍霍光謝賜周公負成王圖〉 〈漢孔臧乞爲太常典守家業〉 7篇
	策	〈問心通性情〉 〈問琴〉 〈問知人〉 〈問器量〉 4篇
	附錄 墓表	〈松巖奇公墓表〉 1篇
	輓歌	5題
	諸賢 手札	〈奇上舍經案〉
		〈松巖遺墟感懷〉
〈松巖記〉		
〈松巖韻〉 36首 并序 2篇		
	跋 - 鄭泓采 識	

3. 《송암선생문집》에 담긴 기정익의 일상과 학문

1) 제문(祭文)과 만사(輓詞)에 담은 슬픔

《송암선생문집》 권1에 28수의 시와 《송암선생문집》 권5에 35수의 시가 실려 있다. ‘무오년 입춘[戊午立春]’, ‘달밤에 우연히 읊다[月夜偶吟]’, 도연명의 사시사(四時詞)에 차운한 시와 가을비[秋雨] 등 정취를 읊은 시와 김천주(金天柱), 김형복(金亨福), 유찬길(劉纘吉), 유필수(柳必壽), 김형지(金亨祉), 박광후(朴光後), 황자평(黃子平),

홍상원(洪相元), 강필주(姜弼周), 박상순(朴尙淳), 박행중(朴行重), 기진갑(奇震甲), 유단(劉湍), 김천서(金天瑞), 박행간(朴行簡), 김여순(金汝鎭), 유수함(柳壽咸) 등을 위한 만사가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아들의 친구 유단을 위한 만시는 자식을 잃은 기정익의 애끓는 마음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자신과 같이 자식을 먼저 보낸 친구 유필수의 죽음 앞에 다음과 같은 만시를 남겼다.

맹동야가 세 아들을 잃은 일
천년에 누가 또 겪었으랴
유백인과 기자량이
통곡하며 하늘을 부르네
아! 나의 생은 어찌 그리 잔인한가
죽어서 듣지 못하는 그대가 부러워라
한퇴지가 맹동야 위로하던 말이
무궁한 슬픔에 어찌 위안이 되리

기정익이 만사를 많이 지은 것은 자신이 겪은 흉화(凶禍) 때문일 것이다. 그가 광산 김씨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네 아들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요절하였다. 아들을 잃은 그의 애절한 심정은 권3에 실린 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24세의 나이에 죽은 아들 홍(泓)을 위해 지은 제문에 다음과 같이 비통함을 쏟아내고 있다.

아!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너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며, 너는 나를 떠나 누구를 의지하려느냐. 아! 슬프구나. 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는 진실로 마지못해
그런 것이냐. 너로 하여금 마지못하게 한 자는 누구이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 하늘이로구나, 하늘이로구나.

자식을 잃는 비통(悲痛)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기정익은 둘째 아
들과 셋째 아들을 잃은 후에 큰아들마저 먼저 보냈다. 그는 가족과
친지를 잃은 거둬진 흥화 속에서도 학문과 수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의 슬픔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깊어졌으
나, 그는 제문과 만사로 슬픔을 딛고 다시 학문에 정진하는 삶을 살
았다.

2) 율곡학파의 학술 논쟁과 기정익의 역할

《송암선생문집》 권2에는 송시열과 윤증 등 호서의 서인과 주고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으며, 권5 부록에도 송시열, 박세채, 김수항, 신
익상 등과 주고받은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송시열의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菴)·우
재(尤齋)이다. 봉사(奉事) 송귀수(宋龜壽)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도
사(都事) 송응기(宋應期)이고, 아버지는 사옹원봉사(司饗院奉事) 송
갑조(宋甲祚)이다. 송시열은 아버지로부터 《격몽요결(擊蒙要訣)》·
《기묘록(己卯錄)》 등을 배우면서 주자(朱子)·이이(李珣)·조광조(趙光
祖) 등을 흠모하게 되었다. 그는 생원시(生員試)에서 <일음일양지위
도(一陰一陽之謂道)>를 논술하여 장원으로 합격한 이후 명성을 얻어
인조 13년(1635)에 봉림대군의 사부(師傅)로 임명되었고, 재야의 산
림을 기용한 효종의 부름을 받고 다시 벼슬에 나아갔다. 이후 송시열은

산림의 여론을 주도하는 영수로 활약하였다.

기정익은 현종 9년(1668) 즈음 송시열의 제자가 되었으나 아들의 죽음과 모친의 상사 등 흉화(凶禍)가 이어지고 병까지 얻어 송시열의 문하에서 직접 수학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공부를 하다가 의문스러운 점이 생기면 인편(人便)을 통해 편지로 송시열의 가르침을 받았다. 기정익은 우인(友人) 박상현(朴尙玄, 1629~1693)이 송시열에게 직접 찾아갈 때 편지를 전해 배움을 이어 갔다.

박상현의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경초(景初), 호는 우헌(寓軒)이다. 그는 주자의 학문을 근본으로 삼은 반청송명(反淸崇淸)의 사상에 철저한 학자였다. 그는 병자·정묘호란 이후에 책력(冊曆) 속의 청나라 연호를 모두 지워 버릴 정도로 반청주의자였다고 한다. 현종 8년(1667)에 조정에서 망명한 명나라의 유민들을 체포하여 청나라로 돌려보낸 사건 이후 출사를 접고 광주에 은거하며 학문에 전념하였다. 《태극도설(太極圖說)》·《통서(通書)》·《황극경세(皇極經世)》·《역학개몽(易學啓蒙)》 등의 성리서를 깊이 연구하고, 《음양소장도(陰陽消長圖)》를 저술하였다.

이러한 박상현의 학문적 열정은 송시열과 그 문하에서 진행된 이기설과 인심도심설 등에 대한 ‘율곡학파의 학술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박상현은 숙종 3년(1677) 6월부터 숙종 6년(1680) 6월 즈음까지 송시열과 더불어 ‘미발(未發)’과 ‘기질(氣質)’에 대해 논변하였다. 송시열의 ‘미발이란 오로지 이(理)를 일컫는 것이요, 발한 이후에 기(氣)를 겸한다.’라는 생각에 박상현이 의문을 제기하며 비롯된 ‘미발 논변(未發論辯)’을 통해 송시열의 율곡학파의 종주(宗主)로서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런데 ‘미발 논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에 기정익은 박상현과 성리학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정익이 박상현에게 보낸 편지에는 <음양소장설(陰陽消長說)>, <이설(理說)>, <도기설(道器說)>,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인심도심보설(人心道心補說)>, <성설(性說)>, <논수(論數)>, <태극무극해(太極無極解)>, <독역(讀易)> 등 당시 율곡학파의 학술 논쟁과 관련된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장성에 거주하였던 기정익은 광주에 살고 있는 박상현과 <주역> <계사>의 ‘형이상학(形而上學)’ 등 여러 성리학적 주제에 대해 강론하면서 의견을 조율하였는데,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 스승 송시열에게 문의하여 의문을 풀어 나갔다. 기정익은 송시열을 직접 찾아서 문답을 나누지 못하였지만 박상현은 송시열과 직접 문답하였다. 아마도 기정익은 박상현과의 논변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를 송시열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박상현을 송시열에게 소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정익은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에서 박상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광주(光州)의 박상현(朴尙玄)[경초(景初)]은 저의 벗입니다.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 매우 많고도 오래되었습니다. 전에 여쭙는 것 중에서 형이상하(形而上下)에 대한 설이 바로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혹인(或人)’이라고 칭한 사람은 실로 이 벗을 가리키고 ‘저의 역견(臆見)으로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한 단락도 본래 이 벗을 위해 말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감히 이에 대한 설을 여쭙는 뒤에 삼가 경초가 이 문제를 선생님께 여쭙는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경초에게 가서 경초가 선생님께 얻은 설을 찾아와서 삼가 읽어 보았습니다.

권2에 수록된 기정익이 송시열에게 보낸 편지는 5통이다. 대부분 학술적 주제와 논의에 대한 장문의 편지로, 박상현과 윤증과의 논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스승에게 질정하는 내용이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편지는 권6에 '여러 현인의 편지'라고 따로 묶어 정리되어 있다. 기정익에게 편지는 단순한 소식과 안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답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서 자득의 학문의 편벽과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방편이었다. 율곡학파의 사상적 기반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전개된 학술 논쟁에 참여한 기정익의 주장과 학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호남 산림의 기정익의 역할과 위상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송시열의 문하에서 기정익은 연배가 비슷하였던 윤증(尹拯, 1629~1714)과도 교유하였다. 윤증의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자인(子仁), 호는 명재(明齋)·유봉(酉峰)이다. 성혼(成渾)의 외증손이고, 윤선거(尹宣舉)의 아들이다. 윤증은 인조 25년(1647)에 권시(權諤)의 딸과 혼인하고, 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후 김집(金集)의 문하에서 주자(朱子)에 관해 배웠고, 효종 8년(1657) 김집의 권유로 당시 회천(懷川)에 살고 있던 송시열(宋時烈)에게서 《주자대전》을 배웠다. 효종 말년 학업과 행실이 뛰어나 조정에 천거되었고, 현종 4년(1663) 공경(公卿)과 삼사(三司)가 함께 그를 천거하여 이듬해 내시교관(內侍敎官)에 제수되고 이어서 공조랑·사헌부 지평에 계속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이후 숙종 연간에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모두 사퇴하고 나가지 않았다.

기정익이 윤증에게 보낸 편지에, 박상현에 대해 “이곳에 우인(友人)의 성명이 박상현이라는 자가 있는데, 광주(光州)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사학(斯學)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배움이 고심해서 사색하는 것을 위주로 하여 반드시 경문의 뜻을 자득하려고 합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기정익은 박상현의 학문적 성향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다. 이어지는 내용에도 박상현을 “굳이 정주(程朱)를 깊이 신봉하지 않고 왕왕 자신의 뜻으로 별도의 훈해(訓解)를 만들고, 먼저 자신의 견해를 세워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비평하였다. 기정익은 박상현의 주장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으로 윤증에게 편지로 질의하였고, 윤증은 기정익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박상현과 주고받은 여러 설을 나에게 보여 주었으니 나를 따돌리지 않은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에 이러한 이야기로 서로 강설을 하는 경우가 실로 드물고 오로지 과거 공부에 휩쓸려서 이록(利祿)만을 추구할 뿐이니 어찌 눈을 비비고 보지 않겠습니까. 다만 식견이 고루하고 몽매하여 여기에 참여하기에 부족한 데도 과분하게 이런 배려를 받고 보니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대의 말씀이 정중하기에 끝내 저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하여 따끔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면 나로서도 다행이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의 견해를 일일이 피력하여 별지에다 기록하였습니다.((명재유고》 제17권 <기자량에게 답함>)

기정익은 선뜻 동조할 수 없는 박상현의 논설에 대해 우려하며, ‘호남은 인물이 없어 이 일에 대해 말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혹시라도 후생(後生)과 신진(新進)이 따를까.’ 염려하면서 윤증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윤증에게 <이설(理說)>, <성설(性說)>, <도기설(道器說)>, <장서(長書)>, <무극태극해설(無極太極解說)> 등에 대해 질정하였다. 아울러 변경윤(邊慶胤)과 황신귀(黃信龜) 등 호남의 학자를 소개하는 등 돈독한 교유를 이어 갔다.

호남의 장성에 기거하며 완성된 기정익의 학문과 명성은 서인 관료 박세채, 김수항, 신익상 등과 교류하면서 알려졌다. 박세채는 1682년(숙종8)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정익을 칭송하고 있다.

당신이 율곡 선생에 대하여 논의한 별도의 글을 두어 번 조심스럽게 읽어 보고 연달아 감탄하고 더욱 고명하신 당신의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여진 이를 존경한다는 지극한 뜻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3) 서인의 회니시비(懷尼是非)와 기정익의 선택

기정익과 윤증의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윤증은 현종 14년(1673)에 아버지 윤선거가 사망한 후에 송시열을 찾아가서 묘지명을 부탁하였는데, 송시열이 ‘강도(江都)의 일’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강도의 일이란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윤선거가 처자를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하였다가 진원군(珍原君)의 종자(從者)가 되어 강화도에서 탈출한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강화도에 피신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순절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강도의 일’은 윤선거에게 불명예스럽게 살아남았다는 멩이가 되었다. 게다가 송시열은 윤선거가 윤휴(尹鑄)와

절교하지 않은 일까지 거론하며 박세채(朴世采)의 행장에 의거하여
마지못해 묘지명을 지을 뿐이라고 하는 등 윤선거의 처신에 대해 비
판하였다.

윤선거 사후에 어긋난 송시열과 윤증의 관계는 숙종 10년(1684)에
송시열의 제자 최신(崔愼)이 '신유의서(辛酉擬書)'의 내용을 가지고 윤
증을 스승을 배반한 죄로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분쟁으
로 비화되었다. 윤증의 제자였던 나양좌(羅良佐) 등이 박세채와 함께
윤증을 옹호하고 송시열의 제자들과 조정의 대신들은 윤증을 비판하였
던 것이다. 여기에 윤증이 춘추관에 편지를 보내 윤선거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울곡(栗谷)은 입산한 과오가 있지만, 자신의 부친은 아무
과오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선현(先賢)을 모욕하였다는 비판을 받
았다.

이런 와중에 윤선거와 유계(兪槩)가 함께 저술한 《가례원류(家禮源
流)》를 숙종 37년(1711)에 유계의 집안에서 단독으로 간행하고, 송시
열의 제자 정호(鄭澍)가 발문을 쓰면서 윤증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
다. 송시열과 윤증의 개인적 입장의 차이로 시작된 일에 조야의 인사들
이 관여하면서 급기야 숙종 42년(1716)에 국왕이 개입하여 처분을 내
렸다. 숙종은 송시열은 잘못된 것이 없고 윤증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하
였으며 윤증을 유현(儒賢)으로 대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병신처분(丙申處分)'이라고 하였는데, 이로써 '회니시비'는 공식적으
로 종결되었다.

'회니시비'가 시작되는 즈음에 기정익은 송시열과 윤증 사이에서 중
재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정익은 최신이 윤증을 배척하는 상소를 보고
윤증에게 사실 여부를 묻는 편지를 보냈다. 그는 윤증에게 송시열을

스승으로 섬긴 것이 '사제(師弟)관계'인지, 편지를 주고받는 범범한 '사우(師友)관계'인지 물으면서 해명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윤선거와 윤희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기정익은 '회니시비'에 대한 상소와 편지 등을 얻어 본 뒤에 송시열에게는 윤희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는데, 윤증은 '강도의 비방'을 지나치게 생각한 데에서 일이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기정익은 송시열을 두둔하는 편지를 윤증에게 보냈다.

우옹의 뜻은 오로지 윤희와 절교하지 않은 데에 있는데 편지를 주고받으며 말을 나누다가 날마다 더욱 잘못되어 강도의 일까지 미친 것입니다. 형께서는 강도의 비방을 지나치게 생각하여 중점이 윤희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해 정이 먼저 막히고 의심이 점점 쌓여 강도의 일이 괴이한 줄만 알고 윤희의 일이 비방을 불러오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여 점점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기정익은 윤희(尹鑄, 1617~1680)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기정익은 내종(內從) 아우인 상사(上舍) 나이귀(羅以龜)와 함께 대화하던 가운데 윤희에 대해서 “내가 그 행위를 살펴보니, 그 이름자가 상용하기보다는 국가의 우환이 되니 어찌 법이 있겠는가? 요사이 그의 마음과 행적에서 드러나니 머지않아 반드시 패가(敗家)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윤희의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이다. 아버지는 광해군 때 대사헌을 지낸 윤희전(尹孝全)이며, 어머니는 첨

지중추부사 김덕민(金德民)의 딸이다. 윤희전이 폐모론에 반대하여 경주에 좌천되었다가 사망하였고, 어린 윤희는 김덕민의 슬하에서 초학(初學)을 시작하여 이민구(李敏求)와 이원익(李元翼) 등에게 학문을 익혔다.

두 차례의 호란은 윤희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복수설치(復讐雪恥)’를 꿈꾸며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송시열은 처음에는 이런 윤희의 학문적 성취와 기상을 높이 평가하였다. 윤희는 송시열뿐만 아니라 권시(權詵), 윤문거(尹文學)와 윤선거(尹宣舉) 형제, 송준길(宋浚吉), 이유태(李惟泰) 등 호서의 서인과 교유했다. 그러나 윤희가 《중용신주(中庸新註)》를 저술하여 주자의 권위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을 드러내자 송시열은 윤희를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고 지목하였고, 송시열의 비관은 서인에게 영향을 미쳤다.

기정익도 윤희가 《중용》의 주석을 고친 것을 왕안석이 《춘추》를 배척한 것에 비교하며 예송을 일으켜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하였다. 기정익이 윤희를 예송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여겼다는 점은 유익서(柳益瑞, 1642~1714)와 주고받은 편지에 드러난다. 그는 《의례(儀禮)》 참취장(斬衰章)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해예송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종지설(四種之說)’을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송시열의 윤희에 대한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선거는 윤희를 두둔하며 교우를 이어 갔다. 송시열은 윤선거의 이런 태도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서인 내부에서 윤희에 대한 입장은 노론과 소론이 갈라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정익 역시 송시열이 윤증과 절교한 이유를 ‘윤희를 심하게 공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윤증에게 그 곡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이에 윤증은 숙종 10년(1684)에 기정익에게 편지를 보내 박세채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어 회니시비가 확산되었다고 하면서 허물을 반성하며 자숙하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자신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이후 회니시비가 고착되는 과정에서 기정익과 윤증은 서로 절교하지는 않았지만 소원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기정익은 송시열과 윤증 사이에서 중도적 입장이었지만 사제관계로 맺어진 송시열을 존중하면서 노론의 길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기정익의 선택은 호남의 노론 학맥이 형성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참고문헌

- 《송암선생문집》 해제,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 김용흠, 〈조선 후기 사상사에서 명재 윤증의 위상〉, 《민족문화》 제37집, 2011.
- 이선열, 〈송시열과 박상현의 미발 논변 - 미발과 기질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36집,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 이선열, 〈17세기 율곡학파의 인심도심 논변 - 이세필, 송시열, 윤증의 '氣用事' 논변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제57집, 동양철학연구회, 2009.
- 조성산, 〈17세기 후반 경기 지역 서인 상수학풍의 형성과 의미〉, 《한국사연구》 115호, 한국사연구회, 2001.
- 이선아, 〈백호 유희에 대한 사문난적설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6집, 조선시대사학회, 1998.
- 김순택, 〈기건의 癩管理 현장〉, 《제주도사연구》 제5집, 제주도사연구회, 1996.

서序

우리 선조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시호)께서는 제자가 매우 많았다. 그 가운데 학문이 깊고 덕이 높은 선비가 호남과 호서에 많이 살았는데, 남쪽에 사는 송암(松巖) 기정익(奇挺翼)의 어진 덕행이 그 중에서도 가장 일컬어졌다. 공(公)은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호)의 방계(傍系) 후손으로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의 호) 선생이 도의를 강론한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 남은 향기¹를 계승하여 명성이 대단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학문과 덕행의 자취가 사라지지 않았다.

예전에 나는 선조의 유고를 정리하다가 선조께서 공에게 보낸 편지를 보았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분변하며 힐난한 것이 결코 심상(尋常)한 문답이 아니었으니, 이에 명백하게 분변하지 못하면 멈추지 않는² 공의 독실한 공부를 더욱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이 때문에 공의 저술을 한번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간절하였다.

1 남은 향기 : 원문의 ‘잉복(膺馥)’은 ‘잔고잉복(殘膏膺馥, 남은 기름과 향기)’의 준말로, 문장이 넉넉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신당서(新唐書)》〈문예전 상(文藝傳上)〉 ‘두보찬(杜甫贊)’에 “다른 사람은 부족하지만 두보는 넉넉하여 그 잔고잉복이 후인들에게 많은 은택을 끼쳤다.〔它人不足，甫乃厭餘，殘膏膺馥，沾丐後人多矣。〕”라고 하였다.

2 명백하게……않는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분변하지 않을지언정, 분변하여 명백하게 하지 못하면 멈추지 않았다.〔有弗辨，辨之，弗明弗措也。〕”라고 했다.

하루는 공의 손자 일상(日相)³이 공의 유고(遺稿) 두 책을 가져와 보여 주기에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읽어 보았다. 유고를 한번 읽어 보니 공의 독실한 학문과 넓은 지식이 스스로 궁구하여 터득한 데에서 나왔으며 단지 질문하고 변론함에 그치지 않은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유고에는 공의 심오한 성리설(性理說)과 《주역(周易)》의 이치로부터 의식에 따른 범절(凡節)과 절차, 경륜(經綸)의 규모와 범위, 성력(星曆 천문역법(天文曆法))과 복서(卜筮) 및 의약의 학설에 이르기까지 실리지 않은 내용이 없었다. 비록 두어 권의 적은 분량이지만 진실로 그 학문의 정수⁴를 알 수 있다. 훗날 공의 학문과 지행(志行)에 대하여 천심(淺深)과 시종(始終)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 책에서 근거를 찾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 공은 어려서 스승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들어 백발이 되도록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당시 어진 스승의 기대와 여러 동문들의 추대(推戴)와 인정이 참으로 막중하였다. 공이 긴 편지로 스승에게 질정한 것 가운데 성학(聖學)의 핵심 문제에 관해서는 대략 스승과 서로 뜻이 부합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공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의혹을 지닐까 걱정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공의 자득한 공부의 일단을 볼 수 있으니, 스승의 학설을 돈독히 믿고 따른 정성에 어찌 손상이 있겠는가.

공은 본래 윤증(尹拯)⁵과 돈독한 정을 나누던 사이였다. 윤증이 스승

3 일상(日相) : 《성담선생집(性潭先生集)》 권13 〈송암집서(松巖集序)〉에는 “일상(逸相)”으로 표기되어 있다.

4 학문의 정수 : 원문은 ‘일련(一鱗)’인데, ‘전정일련(全鼎一鱗)’의 준말로, 큰 솥에 끓인 국은 고기 한 점만 맛보아도 그 전체의 맛을 다 알 수 있다는 말이다. 《회남자(淮南子)》 〈설림훈(說林訓)〉에 “한 점의 고기를 맛보고서 온 솥의 고기 맛을 안다.[嘗一鱗肉, 而知一鑊之味.]”라고 했다.

을 공격하는 변(變)을 일으키자 여러 폭의 편지를 써서 그 잘못을 절절하게 책망하였다.⁶ 공은 비록 확연히 배척(排斥)하여 절교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다시 마음을 열어 주지 않았다. 이처럼 사우(師友) 간에 올바른 의리를 지키는 것이 공에게 무슨 특별한 일이 되겠는가. 그렇지만 지금 말세의 세속은 선과 악의 경계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풍조가 판을 치고 있으니, 사람들이 공을 흠모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며 나아가 공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공의 후손이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는 마음이 대단히 정중한데 공의 유고를 편집하는 일은 어리석고 못난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지은 서문이 부처의 머리에 똥칠했다는 야유를 피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공을 공경하고 사모하는 사사로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펼쳤다고 할 수 있다.

5 윤증(尹拯) : 1629~1714. 자는 자인(子仁), 호는 명재(明齋)이다.

6 윤증이……책망하였다 : 원문의 '조과변기(操戈變起)'는 윤증이 스승 송시열을 배반한 일을 말한다. 스승을 배반한 일의 시초는 윤증이 스승인 송시열에게 선친 윤선거의 묘지(墓誌)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자, 송시열이 윤선거가 강화도에서 순절하지 않은 일을 기롱하는 내용으로 묘지에 쓴 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로 인하여 윤증이 스승을 배반하는 데에 이르자 기정익은 윤증에게 여러 번 편지로 잘잘못을 지적하였다. 기정익은 윤증에게 “주고받은 편지를 상세히 읽고 삼가 전말을 다 알았습니다. 이 일의 갈등과 문제는 수백 수천 마디 말로 분변하고 따질지라도 귀결은 다만 강도의 일과 윤희와 절교했는지의 여부, 두 가지 일뿐입니다.〔竊詳往復，謹悉首尾。此事葛藤病敗，雖累百千言辨詰，而其要歸則，只在於江都事及絕齧與否，兩件事而已。〕”라고 말했다.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권2 〈여윤자인(與尹子仁)〉 그러나 송시열과 제자 윤증 사이의 시비는 더욱 결렬해져 서인(西人)은 송시열을 두둔하는 노론(老論)과 윤증을 두둔하는 소론(少論)으로 분열되어 '회니시비(懷尼是非)'의 논쟁까지 이르게 된다.

승정 후 세 번째 무신년(1788, 정조12) 겨울에 덕은(德恩) 송환기(宋
煥箕)는 서문을 쓰다.

송
암
집

제
1
권

詩
시

시 詩

무오년(1678, 숙종4) 입춘

戊午立春

동지가 지난 지도 어언 사십여 일
천지에는 추위가 다 가지지 않았네
하룻밤 봄빛이 몰래 눈을 비추니
내일 아침 날씨는 어떠할지

陽生今過四旬餘
天地陰寒未盡除
一夜春光潛透雪
明朝氣像問如何

달밤에 우연히 읊다

月夜偶吟

버드나무 냇가 봄날의 정취
오동나무 뜰 가 한밤의 달빛
천년의 이 맛을 그 누가 알까
백순¹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네

楊柳川邊春日意
梧桐庭上月三更
此味千秋誰會得
伯淳胸裏最分明

1 백순(伯淳) : 북송(北宋)의 학자 정호(程顥, 1032~1085)의 자이다. 여기에서는 달처럼 온화한 정호의 인품을 말한다.

우연히 읊다

偶吟

분골쇄신하며 천명을 근심 말라

碎身粉骨休愁命

존심양성하면 평탄한 길이니

養性存心是坦途

운명이 빗어낸 영옥은 어찌할 수 없지만

鑪鐵毀成無奈者

재주²의 밝고 어둠은 공부에 달려 있네

淵珠明暗在工夫

2 재주 : 원문의 '연주(淵珠)'는 연못 속에 구슬을 말하나, 여기에서는 숨어 있는 재능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 두 번째

其二

시들어도 남은 부용의 향기 사랑하고	抱香爲愛芙蓉死
우거진 살력 ³ 의 악취 미워하네 ⁴	流臭終嫌檝櫟蕪
높은 누대에 올라 눈을 부릅뜨니 쾌활함을 알겠고	曠目登臺知快活
천리의 산 구름도 모두 내게 안겼네 ⁵	雲山千里摠輸吾

3 살력(檝櫟) : 소인(小人)과 같이 세상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을 말한다. '살(檝)'은 수유(茱萸)나무로서 산초나무[椒] 같으면서도 아니므로, 이는 소인을 말한다. 《초사(楚辭)》〈이소(離騷)〉 '력(櫟)'은 원래는 상수리나무이나, 여기에서는 저력(檟櫟)의 뜻으로,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하였다.

4 시들어도……미워하네 : 훌륭한 명성은 후세에 남기고, 나쁜 이름은 후세에 전하고 싶지 않으려는 마음을 말한다. 전구(前句)는 유방백세(流芳百世)를, 후구(後句)는 유취만년(遺臭萬年)을 뜻하는 말이다.

5 높은……안겼네 : 봄날에 누대에 오른 것처럼 기분이 한껏 고양됨을 말한다. 《노자(老子)》 제20장에 “사람들 마냥 즐거워하며, 푸짐한 잔치상을 받은 듯, 봄날 누대에 오른 듯하네.[衆人熙熙 如享太牢 如春登臺]”라고 했다.

‘래(來)’와 ‘귀(歸)’ 두 글자를 운으로 쓴 서화담의 시⁶에
차운하다

次徐花潭來歸二韻

‘그대 어디서 왔는가’ 묻기에 ⁷	爲問君從何處來
생생 ⁸ 에서 왔다고 답하네	答云來自生生來
생생에 본래 생장과 소멸의 이치 있나니	生生本有消長理
삶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네	不是生從死處來

‘그대 어디로 돌아가는가’ 묻기에	爲問君從何處歸
돌아감이 다하고도 돌아가고 또 돌아간다고 답하네	答云歸盡又歸歸
돌아가고 돌아감에 돌아오는 이치 있다면	歸歸若有還歸理
이부 ⁹ 는 어이해 다시 돌아오지 않는가	尼父如何不復歸

6 서화담(徐花潭)의 시 : ‘화담(花潭)’은 서경덕(徐敬德)의 호이다. 그의 시 <유물(有物)>은 다음과 같다. “有物來來不盡來，來纔盡處又從來。來來本自來無始，爲問君初何所來。有物歸歸不盡歸，歸纔盡處未曾歸。歸歸到底歸無了，爲問君從何所歸。”《花潭先生文集 卷1》

7 그대……문기에 : 서경덕의 원시 마지막 구에서 서경덕이 질문한 내용을 가정익이 받아서 가져온 것이다.

8 생생(生生) : 끊임없이 생성하는 만물, 또는 만물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이치를 말한다. 《주역(周易)》〈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낳고 낳음을 역이라 한다.[生生之謂易]”라고 했다.

9 이부(尼父) : 공자(孔子)에 대한 존칭이다. 공자의 자(字)가 중니(仲尼)이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자평의 시에 차운하다가 동생 자침¹⁰이 생각합니다

次子平韻 仍憶舍弟子瞻

나는 원래 온갖 시름 많은 사람인데	我生元是百憂人
황자평 ¹¹ 이 오기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네	黃子平來意暫伸
내 동생 있는 곳 장사 ¹² 를 돌아보니	回首長沙吾弟在
무슨 일로 핑계 대어 순박한 아우 볼까나	何緣一去見愚淳

10 자침(子瞻) : 기정익(奇挺翼)의 동생 정만(挺萬)을 가리킨다.

11 황자평(黃子平) : 황세기(黃世基, 1628~1680)를 말한다. 본관은 평해(平海), 자는 자평(子平)이고, 호는 취은(醉隱)·해광(海狂)이다. 평해군 황숙경(黃淑卿)의 후손으로, 증조부는 첨정 황처중(黃處中)이고, 조부는 의병장 황이후(黃以厚)이며, 부친은 황종혁(黃宗赫)이다.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이 그 증손자이다.

12 장사(長沙) : 전라북도 고창(高敞)을 가리킨다.

장난으로 짓다

戲題

황상¹³은 한 이불에 아홉 딸이 불렀다는데
나는 일곱 자식 낳아 옷 한 벌 없네
귀천에 따라 풍약¹⁴이 달라지니
유생은 너무나 졸렬하고 오활하지 않은가

黃相一衾九女呼
奇生七子一衣無
從知貴賤殊豐約
不是儒冠太拙迂

13 황상(黃相) : 미상.

14 풍약(豐約) : 풍부하고 절약하는 것을 말한다.

김 천총¹⁵ 천주 을 애도하다

輓金千摠 天柱

온갖 장점 지녀 서생보다 뛰어난데	寧爲百長勝書生
천군을 이끄니 더욱 가볍지 않네	況子提千更不輕
다만 명검 ¹⁶ 의 뜻 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우니	但恨未伸鳴劒志
성조에 부끄러워하며 하늘 이름 두려워했네	聖朝猶愧畏天名

15 천총(千摠) : 1609년(광해군1) 군사훈련을 목적으로 창설한 훈련도감(訓練都監) 관아의 관원인데, 각 군영 대장의 중군(中軍) 밑에 있었던 지휘관으로 영(領) 밑의 부(部)를 지휘하였다.

16 명검(鳴劒) : 중국 신화 시대의 전옥(顛頊)이 썼다는 보검으로, 그 방향을 가리키기만 해도 승리를 거두었고, 칼집 속에 넣어 두면 용호(龍虎)의 울음소리를 냈다고 한다. 《拾遺記 顛頊》

김공¹⁷ 형복 을 애도하다

輓金公 亨福

나의 선친과는 본래 동갑으로
겨우 하루 차이로 태어나셨지
반백 팔순¹⁸에 어이하여 사별인가
만가를 지으려 하나 이루기 어렵네

與吾先子本同庚
前後纔差一日生
半百八旬何迺別
欲題哀輓句難成

17 김공(金公) : 김형복으로 생몰연대는 미상이다. 1603년(선조36)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무과 급제하였으며, 전남 강진(康津)에서 거주하였다.

18 반백(半百) 팔순(八旬) : '반백'은 살아 있는 자신의 나이를 말하고, '팔순'은 죽은 김형복(金亨福)의 나이를 말한다.

이군보¹⁹ 세필의 시에 차운하다

次李君輔 世弼 韻

남에서 온 그대의 기개 절조 꺾여 부러지지 않으니	南來氣節未摧殘
치지 ²⁰ 의 공부 깊음을 비로소 알겠네	始信工深夢覺關
어찌 오늘 여천의 보조개에	肯今當日一黎頰
호전처럼 아홉 길 산이 무너지겠나 ²¹	虧却胡公九仞山

19 이 군보(李君輔) : 이세필(李世弼, 1642~1718)로 숙종 때의 문신이다. 자는 군보, 호는 구천(龜川), 삭녕(朔寧) 군수를 거쳐 형조 참판, 전라도 관찰사 등을 지냈으며, 1717년(숙종43)에 노론 이이명(李爾命)의 전횡을 탄핵하고 사직하였다. 저서에 《악원고사(樂院故事)》, 《소주서(小朱書)》, 《왕조례(王朝禮)》가 있다.

20 치지(致知) : 원문의 '몽각관(夢覺關)'은 《대학장구(大學章句)》경(經) 1장의 "옛날에 천하에 도를 밝히고자 하는 자[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조목의 소주(小註)에 "치지와 성의(誠意)는 학자가 통과해야 할 두 관문이니, 치지는 꿈[夢]과 깨[覺]의 관문이고, 성의는 선(善)과 악(惡)의 관문이다. 치지의 관문을 통과하면 깨어 있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꿈속에 있게 되며, 성의의 관문을 통과하면 선하고 그렇지 못하면 악하게 된다." 하였고, 또 "격물(格物)은 몽각관이요, 성의는 인귀관(人鬼關)이다." 하였다.

21 오늘……무너지겠나 : 이 구(句)는 이세필이 학문은 깊은데, 기생과 노느라 공부를 등한시한 것에 대해 장난스레 읊은 것이다. 원문의 '구인산(九仞山)'은 아홉 길 높이의 산을 말한다. 《서경》〈여오(旅獒)〉에서 "작은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에 누가 되어, 마치 아홉 길의 산을 만들 적에 흠 한 샅대기가 부족하여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다.[不矜細行，終累大德，爲山九仞，功虧一簣。]" 한 데서 온 말이다. '여협(黎頰)'은 보조개[渦]가 예쁜 시기(侍妓) 여천(黎倩)을 가리킨다. 호전(胡鈞)이 간신(奸臣) 진희(秦檜) 등을 참수하자고 주청한 일로, 귀양 갔다가 풀려나 돌아오는 길에 집 후원에서 여천과 술을 마시면서 "임금의 은혜로 다시 풀려나 이곳에서 한번 취했는데, 옆에 있는 너의 뺨 조그만 보조개가 귀엽네.[君見許歸此一醉，傍有黎頰生微渦。]"라는 시를 지어 주었다. 두 사람이 이내 사랑하자 여천의 남편이 와 호전에게 말머리로 쓰는 콩깍지를 주면서 "너는 짐승과 같은 놈이니,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자 콩깍지를 먹었다는 고사가 전한다. 《鶴林玉露》

이회수²²의 <황골>에 차운하다

次李晦叟黃橘韻

성세에 어찌 <자지가> ²³ 를 부르랴만	聖世那堪歌紫芝
청산은 점옹 ²⁴ 에게 줌이 마땅하네	靑山只與店翁宜
황혼의 눈 속에서 누가 그 귀함을 알까	雪裏黃昏誰識貴
보내준 골 함께 맛보며 임금의 은혜 감사하네	感君把贈共嘗時

22 이회수(晦叟) : 회수는 이일로(李逸老, 1578~1637)의 자이다. 본관은 합천(陝川), 호는 송포(松圃)이다. 병자호란 때 분조(分朝)의 관원으로 종묘와 사직(社稷)의 신주를 지키다가 오랑캐가 갑자기 닥쳐오자 사람들은 도망가려 하였으나, 공은 즉시 절구 한 수를 남겨 놓고 송정포(松亭浦)에서 자결하였다.

23 자지가(紫芝歌) : 상산사호(商山四皓)가 불렀다는 은자(隱者)의 노래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막막한 상락 땅에 깊은 골짜기 완만하니, 밝고 환한 자지로 주림을 달랠 만하도다. 황제와 신농씨의 시대 아득하니 내 장차 어디로 돌아갈까? 사마가 끄는 높은 수레는 그 근심 매우 크나니, 부귀를 누리며 남을 두려워하느니 차라리 빈천하더라도 세상을 깔보며 살리라. [漠漠商洛, 深谷威夷, 曄曄紫芝, 可以療飢. 黃農邈遠, 余將安歸? 駟馬高蓋, 其憂甚大, 富貴而畏人, 不若貧賤而輕世.]”

24 점옹(店翁) : 기정익(奇挺翼)의 호이다. 동구산(東龜山) 아래 마을에 산다고 하여 자신의 호를 점옹이라고 하였다. 《松巖先生文集 卷3 店翁說》

유군 찬길 을 애도하다

輓劉君 繼吉

공의 가문 삼대가 이어 상을 당했는데
손자와 더욱 친분이 가장 깊었네
두 무덤이 한 무덤을²⁵ 차마 어찌 보랴
송암산²⁶ 초승달만 찬 숲에 갇혀 있네

公家三世連三喪
況是孫郎分最深
孤墳兩阡那忍矚
松山新月鎖寒林

25 두 무덤이 한 무덤을 : '두 무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무덤을 가리키며, '한 무덤'은 유찬길(劉繼吉)의 무덤을 가리킨다.

26 송암산(松巖山) : 기정익의 고향 마을 송암리(松巖里) 뒷산을 가리킨다.

자립²⁷이 보내준 시를 보고 차운하다

次子立見贈韻

요사이 마음이 불편하여	邇來意不適
앞 시냇가도 가지 않았네	不出前溪濱
아이가 자라나니 늙어 감을 알고	兒大知年老
아내가 근심하니 가난함을 아네	妻愁認屋貧
그 누구에게 쌀을 보내달라 할까	人誰乞米送
다행히 그대 시도 자주 부쳐 주네	君幸寄詩頻
가장 사랑하기는, 포산 ²⁸ 아래에서	最戀浦山下
한가로이 거처하며 수양하는 그대라네	閑居且養神

27 자립(子立) : 사촌 동생 기정연(奇挺然, 1627~?)의 자이다.

28 포산(浦山)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 군포산(軍浦山, 弓浦山)을 가리킨다.

유백인 필수 을 애도하다

輓柳伯仁 必壽

맹동야가 세 아들을 잃은 일 ²⁹	東野失三子
천년에 누가 또 겪었으랴	千年誰更同
유백인과 기자랑 ³⁰ 이	伯仁與子亮
통곡하며 하늘을 부르네	慟哭呼蒼穹
아! 나의 생은 어찌 그리 잔인한가	嗟我生何忍
죽어서 듣지 못하는 그대가 부러워라	羨君死不聽
한퇴지가 맹동야 위로하던 말 ³¹ 이	退之寬孟說
무궁한 슬픔에 어찌 위안이 되리	何足慰無窮

29 맹동야(東野)가……일 : 동야는 당(唐)나라 시인 맹교(孟郊, 751~814)의 자(字)이다. 그는 연달아 세 아들을 낳았으나 그때마다 며칠 만에 아들을 잃었다고 한다.

30 유백인(柳伯仁)과 기자랑(奇子亮) : 원문의 '백인(伯仁)'은 유허수(柳必壽)의 자(字)요, '자랑(子亮)'은 기정익의 자이다.

31 한퇴지(韓退之)가……말 : 한유(韓愈)가 아들을 잃은 맹교(孟郊)를 위로해 준 시 〈맹동야실자(孟東野失子)〉를 가리킨다. 한유는 〈맹동야실자〉에 “위로 하늘에 소리 쳐도 들리지 않고, 땅에 떨어진 눈물이 샘까지 흐르네. [上呼無時聞, 滴地淚到泉.]”라고 했다. 《五百家注昌黎文集 卷4》

수미 3수

首尾 三首

첫째 수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어	天下無人知我心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길게 읊조리네	無人知處且長吟
보감을 연마하려면 차라리 숨어 살아야 하고	爲磨寶鑑寧容隱
명주를 알려거든 깊은 것도 꺼리지 않아야지 ³²	要識明珠不憚深
한번의 착한 일이 왕도 펼치는 것 ³³ 과 어찌 같으랴	一善那堪如撻恥
샘을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힘을 쏟아야 하네 ³⁴	半塗宜守及泉箴
원래 이 일이 참으로 마치기 어려우니	元來此事誠難畢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네	天下無人知我心

둘째 수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어	天下無人知我心
------------------	---------

32 명주(明珠)를……않아야지 : 원문의 '명주'는 좋은 옥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재능을 인정받고 인도를 받아 마침내 부끄럽지 않게 문장의 기예를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33 한번의……것 : 이윤(伊尹)이 “내가 나의 임금을 요순처럼 만들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처럼 내 마음이 부끄러울 것이요, 한 사나이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한다면 이는 또한 나의 죄라고 할 것이다.[予弗克俾厥后爲堯舜 其心愧恥若撻于市, 一夫不獲 則曰時予之辜.]”라고 하였다.

34 샘을……하네 :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맹자(孟子)》〈진심상(盡心上)〉에 “함이 있는 자는 비유하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으니, 우물을 아홉 길이나 팠더라도 샘물에 미치지 못하면, 오히려 우물을 버림이 되는 것이다.[有爲者辟若掘井, 掘井九仞而不及泉, 猶爲棄井也.]”라고 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크게 읊조리네	無人知處爲高吟
하늘은 높고 바다는 넓어 가슴이 확 트이고	天空海闊恢恢度
달 밝고 바람은 화창하여 마음이 깨끗하네	月霽風光淨淨襟
인(仁)이 가슴에 가득하니 나와 만물이 하나 되고	生意滿襟吾與物
덕이 절로 드러나니 ³⁵ 옛날과 지금이 같네	英華盡背古猶今
남아의 내세울 일 오직 여기 있는데	男兒能事惟茲在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네	天下無人知我心

셋째 수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어	天下無人知我心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부질없이 읊조리네	無人知處爲漫吟
정신은 생장하고 소멸하는 《주역》의 이치에 두고	神存義易消長運
귀는 치국과 망국의 《시경》의 소리를 순하게 듣네	耳順詩經理亂音
우러러보는 정자의 멋진 흥취와 같고 ³⁶	佳興與同程氏仰
흠모하는 소옹이 세상에 숨은 것을 따라 하였네	卷懷成美邵雍欽
시대를 구하고 천명을 편안히 여기는 일 먼저 깨달았지만	
	救時安命皆先覺
세상에 내 마음 아는 이 없네	天下無人知我心

35 덕이 절로 드러나니 : 원문의 '양배(盎背)'는 덕이 있는 사람의 자태를 가리킨다. 《맹자》〈진심 상〉에 “군자는 타고난 본성인 인의예지의 덕이 마음에 뿌리박혀 있어서 그 드러나는 빛이 맑고 윤택하게 얼굴에 나타나고 넉넉하며 두텁게 등 위에 나타난다.〔君子所性，仁義禮智根於心，其生色也，睟然見於面，盎於背.〕”라고 했다.

36 우러러보는……같고 : 송(宋)나라 학자 정호(程顥)의 〈추일우성(秋日偶成)〉의 흥취를 말한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閑來無事不從容，睡覺東窗日已紅。萬物靜觀皆自得，四時佳興與人同。道通天地有形外，思入風雲變態中。富貴不淫貧賤樂，男兒到此是英雄。”《二程文集 卷1》

김공³⁷ 형지 을 애도하다

輓金公 亨祉

대현 ³⁸ 의 뒤로 마침내 가문이 침체한데	大賢之後竟陵遲
하늘이 이 사람을 앗아가니 더욱 서글프네	天奪斯人又可悲
선조의 숨은 덕 많이도 밝혀내니	闡發幽光多少事
부지런히 애쓴 뜻 누구보다 지극했네	辛勤至意更誰爲
시초와 거북 ³⁹ 잃어 그대 집에 액운이 들고	蓍龜已失君家厄
약과 침을 도울 이 없어 내 병이 위태롭네	藥石今無我病危
두텁고 깊은 정을 시로 다하지 못하니	厚意深情題未盡
부질없이 슬픈 눈물만 그대 상여에 뿌리네	空將哀淚灑靈輶

37 김공(金公) : 김형지(金亨祉, 1621~1675)로, 자는 자수(子綏), 호(號)는 맥촌(麥村)이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 등 여러 선비와 교유하였다. 선조인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를 천양(闡揚)하는 사업에 매진했고, 호조 좌랑(戶曹佐郎)에 추증되었다.

38 대현(大賢) : 하서 김인후를 말한다.

39 시초와 거북 : 원문의 '시귀(蓍龜)'는 점칠 때 쓰는 시초와 거북인데, 여기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곧 김형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박 상사⁴⁰ 광후 를 애도하다

輓朴上舍 光後

호남 우도 ⁴¹ 청년의 당당한 자태는	妙年湖右堂堂姿
호기와 굳센 마음 모두 빼어났네	豪氣剛腸兩屈奇
거대한 담론은 세속의 귀를 놀라게 하고	談論偉然驚俗耳
웅대한 마음은 눈썹을 추켜 기쁘게 했네	胸襟磊落喜軒眉
늘그막 인생행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晚將行路難中事
수신하여 하학상달 ⁴² 이루어 갔네	擬向修身學上推
어찌하여 하늘은 이리도 모질어	天意如何終不假
자식과 어미의 장례를 동시에 치르게 할까	忍令子母葬同時

40 박 상사(朴上舍) : 박광후(朴光後, 1637~1678)로,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사술(士述), 호는 안촌(安村)이다. 할아버지는 진사(進士) 박창우(朴昌禹)이며, 부친은 충의위(忠義衛) 박천용(朴天用)이다. 송시열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고, 시문집으로 《안촌집(安村集)》이 전해진다.

41 호남 우도(右道) : 원문의 '호우(湖右)'는 원래 충청남도를 가리키나, 여기에서는 전라도를 말한다.

42 하학상달(下學上達) : 공자(孔子)가 실천을 통한 수양으로 인과 의에 통달하는 것이 참다운 배움이란 것을 강조한 말이다. “아래로 인사(人事)를 배운 뒤에 위로 천리(天理)에 도달한다.[下學而上達]”라고 했다. 《論語 憲問》

황자평을 애도하다

輓黃子平

어려서는 <행로난> ⁴³ 을 슬피 노래하더니	小少悲歌行路難
늙어서야 비로소 <고반> ⁴⁴ 의 편안함 알았네	衰遲始覺考槃安
어두운 세상 뒤엉킨 현실에서 달아나고 싶어	昏冥只欲逃紛挐
궁궐의 국열 ⁴⁵ 은 끝내 멀리하였네	麴蘖終違住渥丹
고래 등에서 넋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 ⁴⁶	鯨背吟魂招不得

43 행로난(行路難) :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읊은 악부가사(樂府歌辭)의 이름이다. 진(晉)나라 때 포조(鮑照, 414?~466)가 처음 지은 뒤로 많은 작품이 나왔는데, 그중에 당(唐)나라 시인 이백(李白, 701~762)이 지은 장편 고시가 널리 알려졌다. 《李太白集 卷2 行路難》

44 고반(考槃) : 은자가 소요하기 위하여 만든 은거지(隱居地)를 말한다. 《시경(詩經)》 <고반>에 “고반이 시냇가에 있으니, 석인의 마음이 넉넉하네. [考槃在澗, 碩人之寬.]”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서 “고(考)는 이론다는 뜻이고, 반(槃)은 서성거린다는 뜻이다.”라고 했다.

45 국열(麴蘖) : 재상이 국정을 수행할 때의 비유로 쓰이는 말이다. 《서경》 <열명 하(說命下)>에 은 고종(殷高宗)이 부열(傅說)을 재상으로 임명하면서 “내가 술이나 단술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그대가 누룩이 되어 주고, 내가 술에 국을 끓이려 할 때는 그대가 소금과 매실이 되어 주오. [若作酒醴 爾惟麴蘖 若作和羹 爾惟鹽梅.]”라고 부탁한 내용이 나온다.

46 고래……없으니 : 원문의 ‘경배음혼(鯨背吟魂)’은 이백이 일찍이 술에 취해 채석강(采石江)에서 뱃놀이를 하다 물속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뛰어들었다가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말한다. 송(宋)나라 매요신(梅堯臣)의 시 <채석월증곽공보(采石月贈郭功甫)>에 “채석강 달빛 아래 적선을 찾으니, 한밤중 비단 도포로 누숫배에 앉아 있네. 취중 강 밑에 매달린 달 사랑하여, 손으로 달을 희롱하다 몸이 뒤집혔다 오. 굽주린 교룡 입에 떨어지진 않았을 터, 응당 고래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리라. [采石月下訪謫仙, 夜披錦袍坐釣船. 醉中愛月江底懸, 以手弄月身翻然. 不應暴落飢蛟涎, 便當騎鯨上青天.]”라고 했다. 《古文眞寶前集 卷5 采石月贈郭功甫》

낚시하며 취한 듯 보낸 인생 꺼낼 수도 없구나 漁磯醉夢說無端
백발 오랜 벗의 정분 그 누가 비슷할까 舊遊白髮情誰似
옛날을 슬퍼하고 지금은 서러워하며 눈물 흘리네 愴古傷今涕淚瀾

홍 참봉⁴⁷ 상원 을 애도하다

輓洪參奉 相元

요사이 외삼촌 ⁴⁸ 생각 견디지 못하던 차에	年來不勝渭陽思
이종형 애도하니 슬픔이 배가 되네	哭我姨兄一倍悲
부모를 일찍 여의고 풍수지탄 함께했거늘	風樹幾同孤露感
이승과 저승으로 문득 생사가 갈리었네	幽明奄作死生離
도연명 ⁴⁹ 처럼 미관말직 사양하였고	小官靖節辭中事
강후 ⁵⁰ 처럼 높은 의리 후대에 드리웠네	高義康侯立後時
백발에 깊은 병 들어 상여를 부여잡고	白首病深遠執紼
부질없이 슬픈 눈물 애사에 흘뿌리네	空將哀淚灑哀詞

47 홍 참봉(洪參奉) : 홍상원(洪相元, 1621~1680)으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회백(會伯), 호는 삼익당(三益堂)이다.

48 외삼촌 : 원문의 '위양(渭陽)'은 '외삼촌'을 가리킨다. 진(秦)나라 강공(康公)이 외삼촌인 진 문공(晉文公)을 전송할 적에 돌아가신 자기 모친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위양에 이르러 "내 외삼촌을 전송하여, 위양에 이르렀노라.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 노거와 노란 말 네 필이로다.[我送舅氏, 曰至渭陽 何以贈之, 路車乘黃.]"라고 했다. 《詩經 國風 渭陽》

49 도연명(陶淵明) : 원문의 '정절(靖節)'은 중국 진(晉)나라 때의 은사 도잠(陶潛)을 말한다.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면서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을 지어 스스로 비유하였고, 세칭 '정절 선생(靖節先生)'이라고 한다. 《晉書 卷94 陶潛列傳》

50 강후(康侯) : 송(宋)나라 고종(高宗) 때의 문신 호안국(胡安國, 1074~1138)의 자이다. 호안국은 평생 경학(經學)에 독신했는데 특히 《춘추(春秋)》를 20년 동안 전공하여 마침내 천자의 인정을 받았고, 아울러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을 지었다. 시호는 문정(文定)이다.

강 함양⁵¹ 필주 을 애도하다

輓姜咸陽 弼周

그대의 재주는 옛적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君才非古亦非今
만금의 뛰어난 재주라고 칭송받았네	英妙人稱直萬金
홀로 대궐을 바라본 지 몇 해던가	獨對丹墀知幾歲
백발에 부질없이 불평하는 마음을 품네	空懷白首不平心
세상을 돌아보며 괴로이 읊조리고	回看世上吟長苦
험난한 인생길에 자주 술잔 마시네	行路難中酒數斟
애석하다 그 이름 한 고을에 아름다운데	可惜身名休一郡
바닷가 갈매기와 백로의 원망 ⁵² 은 얼마나 깊을까	海亭鷗鷺怨何深

51 강 함양(姜咸陽) : 강필주(姜弼周)이다. 유학(幼學)으로, 본관은 진주(晉州)이다.

52 갈매기와 백로의 원망 : 원래 이 말은 '갈매기, 백로와의 맹세'라는 고사에서 나왔다. 《열자(列子)》 황제편(黃帝篇)에 "해상에 어떤 사람이 갈매기와 벼를 삼았다."라는 말이 있으니, 자연에 은거하여 갈매기를 벼삼아 지내겠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 갈매기와 백로가 원망한다는 의미이다.

우암 선생에게 드리다

上尤庵先生

삼가 들으니, 선생께서 성은을 입으신 곡절⁵³에 대하여 석연치 않게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한두 가지로 여쭙어볼 수 없어 삼가 4운시를 지어 올립니다. 그러나 평생 운문을 알지 못하기에 정성 어린 마음을 펼 수 없으니 식은땀을 흘리며 올립니다.

훌륭한 덕은 애당초 죽음을 면하는 계책 없었는데 盛德初無爲免計
광읍 사람들은 다행히도 하늘을 어기지 않았네⁵⁴ 匡人何幸未違天
선생은 의기투합⁵⁵을 후회하고⁵⁶ 先生悔矣嚶鳴義

53 성은(聖恩)을 입으신 곡절(曲折) : 송시열(宋時烈)이 임금의 은혜를 입은 곡절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추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674년(현종15) 효종 비의 상으로 인한 제2차 예송에서 송시열의 예론을 추종한 서인들이 패배하자 예를 그르친 죄로 파직, 삭출되었다. 1675년 정월에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가 뒤에 장기(長鬢)·거제 등지로 이배(移配)되었다. 유배 기간에 남인들의 가증처벌 주장이 일어나, 한때 생명에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1680년(숙종6) 경신환국으로 서인들이 다시 정권을 잡자, 유배에서 풀려나 중앙 정계에 복귀하였다. 그해 10월 영중추부사 겸 영경연사(領中樞府事兼領經筵事)로 임명되었고, 또 봉조하(奉朝賀)의 영예를 받은 일로 추정된다.

54 광읍(匡邑)……않았네 : 노(魯)나라 양호(陽虎)가 일찍이 광읍을 침공한 일이 있었다. 공자(孔子)가 광읍을 지나가자 공자의 모습이 양호와 비슷하므로 광읍 사람들은 양호로 착각하고 공자의 일행을 5일 동안 에워쌌다가 양호가 아님을 알고 풀어준 일을 말한다.

55 의기투합 : 원문의 '앵명(嚶鳴)'은 일반적으로 친구가 서로 의기투합하는 것을 말할 때 쓰인다. 《시경(詩經)》〈벌목(伐木)〉에 “간절히 우짖는 저 새소리는, 함께할 벗을 찾는 소리. 미물인 새들을 살펴봐도, 오히려 벗을 찾아 올거늘. 하물며 사람이

후학은 <낭발편> ⁵⁷ 다투어 말하네	後學爭嘍狼跋篇
머리 위에 분명하니 -원문 빠짐- 어렵고	頭上明明難可□
가슴속에 명백하니 누가 옮길 수 있으랴	胸中白白孰能遷
모든 사람이 얼마나 대단히 우러러보는가	十 ⁵⁸ 看更何人皆仰
임금의 은혜가 시종 온전하기를 축원하네	只祝弘恩始末全

되어서, 어찌 벗을 찾지 않을까.[嚶其鳴矣，求其友聲。相彼鳥矣，猶求友聲。矧伊人矣，不求友生。]”라고 했다. 여기에서 '의기투합'은 윤선거와의 교우관계를 말한다. 후일 윤선거가 죽자, 아들 윤증은 우암에게 아버지 윤선거의 묘문을 부탁하였다. 이때 우암은 윤선거가 강화도에서 자결하지 않은 일을 묘문에 거론하여 제자 윤증과 서로 시비가 엇갈려 결국 노소분당을 야기하였는데, 우암이 의기투합을 후회하는 일은 이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56 후회하고 : 저본에서는 '矣'가 결자(缺字)이나, 《송암유고(松巖遺稿)》 권8 <시(詩)>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57 낭발편(狼跋篇) : 어려운 일을 당하였으나, 홀롭게 처신하였다는 《시경(詩經)》 <빈풍(邶風)> '낭발(狼跋)'을 가리킨다.

58 저본에서는 '十'이 결자이나, 《송암유고》 권8 <시>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석지형⁵⁹의 시에 차운하다 연구⁶⁰

次石之珩韻 聯句

마을 남쪽과 북쪽에 눈이 석 자 쌓였는데 村南村北雪三尺
술도 없고 안주도 없으니 어찌할까 無酒無肴可奈何
자침(子瞻)

달빛 어린 청산 오늘 밤 좋은데 帶月青山今夜好
시절에 상심한 노인이 여기에 많다네 傷時白髮此中多
자량(子亮)

시를 지움에 꾸미는 재주는 취하지 않으며 題詩不取才彫飾
검법 논하매 장대한 기운 건디기 어렵네 論劔難堪氣壯峨
태수(太綏)

중국⁶¹을 돌아보니 소식이 아득한데 回看神州消息渺

59 석지형(石之珩) : 1610~?. 본관은 화원(花園), 자는 숙진(叔珍), 호는 수현(壽峴)이다. 1633년(인조11) 진사가 되고 이듬해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 뒤에 형조 좌랑이 되었다. 횡성 현감(橫城縣監)으로 재직 중 김해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 나와 오랫동안 강화부 교수(江華府教授)를 지냈다. 저서는 《수현집(壽峴集)》 2권, 《남한일기(南漢日記)》 4권이 있다.

60 연구(聯句) : 두 사람 이상이 돌아가며 차례대로 2구 1운(二句一韻)으로 지어 한 편의 시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61 중국 : 원문의 '신주(神州)'는 중국, 또는 경도(京都)를 가리키는 말로, 여기에서는 중국 청나라를 가리킨다.

우두커니 서서 황하가 맑아지길 기다리네⁶²

佇看他日一清河

대명(大鳴)

62 우두커니……기다리네 : 원문의 '청하(清河)'는 '백년하청'으로 많이 쓰이는데, 황하는 본래 흐린 강이어서 맑아질 리가 없으므로, 부질없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병을 앓은 후 두어 구를 읊어 스스로를 경계하다

病後吟數句以自警

하늘은 생생의 도로 마음 삼나니 ⁶³	天以生爲心
선이 아니면 어찌 만물이 있으리	非善曷有物
사람은 하늘의 마음을 받았거늘	人稟天之心
불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不善何從出
하늘이 기로써 형체를 부여하니	天以氣賦形
청탁이 자연스레 구별되네	清濁自然別
착한 본성이 기에 가리면	性善爲氣掩
어질고 어리석음 확연하게 나뉘네	賢愚乃懸絕
다만 기는 변화할 수 있는데	惟氣可以變
성은 진실로 불어나거나 없어지지 않네	性固無生滅
성현의 천만 마디의 말이	聖賢千萬言
모두 기질 변화를 가르치네	都訓變氣質

63 하늘은……삼나니 : 성리학에서 《주역(周易)》에 근거하여 인(仁)은 생명을 끊임없이 낳는 생생불식(生生不息)의 천도(天道)라고 해석하며, 사람의 마음에 인이 보존되어 있음을 곡식의 씨앗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끊임없이 낳는 것을 ‘역(易)’이라 말한다.[生生之謂易]”라고 했으며, 건괘(乾卦) 상전(象傳)에서는 “하늘의 운행은 꾸준하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노력하며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 自彊不息.]”라고 했다.

박공⁶⁴ 상순 을 애도하다

輓朴公 尙淳

지난 기축년 ⁶⁵ 에	往在己丑間
그대와 함께 경저 ⁶⁶ 에 묵었지	與君宿京邸
기나긴 밤에 나눈 말	永夜何所言
남아의 기상이 지극히 날카로웠네	男兒氣太銳
뱃속에는 경서가 가득하고	孜孜滿腹經
지략은 사람을 기쁘게 했네	鬱鬱軒眉計
그때 나는 나이가 젊어	我時年少少
상황에 따라 대처할 줄 몰랐네 ⁶⁷	逐浪昧厲揭
어느덧 이십사 년이 흘러	忽焉二紀餘
풍진 속에 뜻이 많이 어그러졌네	風塵志多戾
나를 거둬 밖에 노닐지 않고	斂我倦遊迹
백발에 문을 닫고 홀로 지내네	白首門獨閉

64 박공(朴公) : 박상순(朴尙淳, 1618~1678)이다. 부친은 박영림(朴榮林, 1602~1656)이고, 벼슬은 진사(進士)이다.

65 기축년 : 1649년(인조27)을 말한다.

66 경저(京邸) : 서울에 있는, 중앙과 지방 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 보던 곳을 말한다.

67 상황에……몰랐네 : 시대의 상황을 잘 헤아려 처신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논어(論語)》〈현문(憲問)〉에서 공자(孔子)가 위(衛)나라에서 경쇠를 두들기고 있는데, 삼태기를 메고 가던 사람이 말하기를 “물이 깊으면 옷을 벗어서 들고 건너고, 물이 얕으면 옷을 걸고 건너야 한다.[深則厲, 淺則揭.]”라고 했다. 이 말은 《시경(詩經)》〈패풍(邶風)〉 ‘포유고엽(匏有苦葉)’에서도 보이는데, 원래는 남녀 간에 예의를 지켜야 함을 말하나 여기서는 상황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이른다.

그대가 와서 곤궁한 근심 위로하니	君來慰窮愁
마음 강개하여 더욱 힘썼네	慷慨心猶勵
나는 그대에게 그만두라 했지	我言君且休
청운의 꿈은 인력으로 이루기 어렵다고	靑雲難力逮
빙그레 나를 향해 웃으며	嘻然向我笑
관 뚜껑 덮을 때를 기다린다고 ⁶⁸	直待蓋棺歲
돌아가 휘장을 내리니 ⁶⁹	歸去因下帷
눈 서리가 머리에 가득	霜雪滿懸髻
공명을 세우는 일 아름답다 하나	功名固云好
천명은 행해지고 행해지지 않음이 있네	天命有行廢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고	光陰不貸人
물처럼 거세게 흘러간다네	飄然流水逝
일곱 질의 책 서글퍼라	哀哀七帙書
육십 인생 초라하네	草草六旬世
평생의 회포 많아	生平多少懷
공연히 상여 앞에서 눈물을 뿌리네	臨輓空灑涕

68 관 뚜껑……기다린다고 : 박상순이 기정익의 “청운의 꿈은 이루기 어렵다.”라는 질문에, 인물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정당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라고 답한 말이다. 《명사(明史)》 권182 <유대하열전(劉大夏列傳)>에 “인생은 관 뚜껑을 덮어야 결론이 나는 법이니, 하루라도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 하루만큼 아직 책임이 끝나지 않은 것이다.[人生蓋棺論定, 一日未死, 卽一日憂責未已.]”라는 말이 나온다. 두보(杜甫)의 시 <군불견간소혜(君不見簡蘇溪)>에도 “장부는 관 뚜껑을 덮어야만 일이 비로소 정해지는 법이다.[丈夫蓋棺事始定]”라는 구절이 보인다. 《杜少陵詩集 卷18》

69 돌아가 휘장을 내리니 : 원문의 ‘하유(下帷)’는 한(漢)나라 동중서(董仲舒)가 ‘휘장을 내리고 방 안에 들어앉아 글을 강독하면서[下帷講誦]’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3년 동안이나 밖을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精進)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깊이 들어앉아 독서에 전념하는 것을 비유한다.

박여고⁷⁰ 행중 를 애도하다

輓朴汝固 行重

이 고을의 훌륭한 선비	一鄉有善士
자가 여고라네	平生字汝固
정직하고 신실하여 천품이 훌륭하고	直諒天稟好
어질고 두터운 건 가풍에서 왔네	仁厚家風素
나와 같은 마을에 살며	與我同里閨
나이는 열두 살 차이	一紀差年數
두 집안이 대대로 인척인데	兩家世敦嫻
가엾게도 우리 집에 재앙이 거듭 있었네	憐我荐禍故
문상 와서 험한 일 마다하지 않고	匍匐不憚險
밤낮으로 노력을 다하였네	努力窮晨暮
가엽게 여기는 진심을 담으니	惻怛真心存
고상한 식견을 더욱 잘 알았네	益覺高識趣
말과 얼굴에 드러낸 적 없으나	何曾出言面
나는 마음속에 새겨 두었네	而我銘肝肺
이 정의(情義)에 유래 있거늘	此義有由來
전후를 갖추어 말하기 어렵네	前後難具論
그대는 지금 세상을 뒀고	君今不得壽

70 박여고(朴汝固) : 박행중(朴行重, 1621~1689)으로, 본관은 태인(泰仁), 자는 여고, 호는 매헌(梅軒)이다. 《頤齋遺藁 卷15 梅軒處士朴公墓誌銘》

나는 고질병으로 노쇠하네	值我衰病痼
백에 하나도 은덕은 갚지 못하니	報德百未一
빈 골짜기에 황금을 버린 격이네 ⁷¹	虛牝黃金誤
더구나 훌륭한 인재를 잃게 되었어도	況值茂實喪
재앙을 하늘에 호소할 수 없네	凶禍天難籲
매곡 마을 ⁷² 돌아보니	顧瞻梅谷里
참혹함에 비바람도 놀라네	悽慘驚風雨
내 마음을 글로 다하지 못하니	我懷題不盡
옛 산길에서 통곡할 따름이네	痛哭舊山路

71 빈 골짜기에……격이네 : 원문의 ‘허빈(虛牝)’은 텅 빈 계곡을 말하고, ‘오(誤)’는 미혹되었음을 말한다. 한유(韓愈)의 <증취립지평사(贈崔立之評事)>에 “가련하다. 쓸모없이 정신만 허비할 뿐, 황금을 텅 빈 계곡에 던지는 것과 같네.[可憐無益費精神, 有似黃金擲虛牝.]”라고 했다. 《韓昌黎集 卷4》

72 매곡 마을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매곡 마을을 가리키는데, 박행중이 이곳에서 태어났다. 《이재유고(頤齋遺藁)》 권15 <매헌처사박공묘지명(梅軒處士朴公墓誌銘)>에 “1641년(인조19) 11월 12일 매곡리 집에서 태어났다.[崇禎辛巳我仁祖十九季十一月十二日, 生于梅谷里第.]”라고 했다.

찰방 족속⁷³ 진갑 을 애도하다

輓族叔察訪 震甲

우리 가문은 옛날 매우 창대했거늘	吾宗昔甚昌
지금은 왜 나날이 쇠퇴할까	今何日陵替
흰칠한 팔 척 장신으로	頽然八尺身
당당히 후손 가운데 솟구쳤네	堂堂振末裔
출세는 바라지 않았는데	興衰固非望
파격적으로 기용되었네	起廢因拔例
역참 말단 관직에 간혀서	一官困弊郵
많은 재주 조금도 펼치지 못했네	少試負多藝
무예는 평소 뜻이 아니라	弓劍非素志
알현하였으니 임금과 뜻이 어긋났네	抵謁如鑿柄
임천에 묻혀 지낸 대장부	林泉一丈夫
유유자적하며 남은 생애 보냈네	偃息百年計
어찌 그리 대밭 너머	如何竹塢外
무덤은 적막한가	寂寞佳城閉
족질 정익도	族姪挺翼者
운명이 크게 어그러졌네	命道還多盤
명예 실추하니 불효 부끄럽고	荒墜愧不孝

73 찰방 족속(察訪族叔) : 기진갑(奇震甲, 1624~1669)으로, 호는 산은(散隱)이다. 찰방은 역참(驛站)을 관리하는 종6품의 관직이다.

위태로움 야기하여 죄만 더했네
만년에 의지하던 이를 잃으니
하늘을 우러러 눈물만 뿌리네
이승과 저승의 넘치는 한을
오늘 이루 말할 수 없네

陆危增罪戾
暮年失相依
仰天挥吾涕
幽明多少恨
今日未品第

유단⁷⁴ 군을 애도하다

輓劉君湍

옛날에 우리 아들과 놀던 너	爾昔從吾兒
나이는 조금 차이 있었지	行年小參差
우리 아들이 일찍 명성을 얻자	吾兒早有譽
너는 문득 스승으로 섬겼지	爾却師事之
불행히도 아들의 명이 짧아	不幸兒短命
너와 이별하던 말 지극히 슬펐네	訣爾辭極悲
내게 와서 배우라고 권하니	勗爾來學我
아들의 마음 너는 응당 알았네	兒情爾當知
내가 우리 아들 잃고부터	自我失吾兒
너를 보니 아들 본 것 같았지	見爾如見兒
내 곁에 온 너를 보니	爾來在吾傍
순박하고 진실하며 기특하더구나	淳實頗有奇
내가 홀아비로 홀로 사니	我時鰥且獨
밤낮으로 부지런히 받들어 주었지	夙夜勤扶持
아버지 모시듯 정성을 다했으니	誠深視猶父
어찌 글만 배웠으리	豈獨文字爲
어찌하여 병이 네 몸을 휘감았는지	爾何病纏骨
나는 오묘한 -원문 빠짐- 다하였구나	我卽窮妙□

74 유단(劉湍) : 미상. 기정익(奇挺翼)의 죽은 아들의 또래 아이로 보인다.

생사의 기운을 대강 아는데
너의 병은 고치기 어렵구나
나는 너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고통을 차마 더하지 않았네
자식 같던 너를 저버리고
지금 이렇게 통곡하네
삶과 죽음 사이의 무한한 뜻이
종이 한 장 만사에 있는 듯하네

粗知生死氣
爾病實難醫
吾令爾歸家
不忍增險巖
遂負視猶子
慟矣今至斯
幽明無限意
有如一紙辭

김 수재 천서 를 애도하다

輓金秀才 天瑞

내가 세 아이를 잃은 뒤로	自吾哭三兒
자식 잃은 남의 슬픔 견디지 못하였네	不堪人喪子
너는 왜 오래 살지 못하고	君何不得年
네 아버지 애타게 하느냐	又使乃翁燬
네 아버지 애타는 마음이 나와 같으니	乃翁之燬與我同
한 명 잃고 세 명 잃은 게 무엇이 다르랴	一哭三哭幾何異
네가 돌아가 우리 아이를 만나면	君歸正逢吾家兒
손잡고 두 아비의 슬픔 말해 보아라	握手相說二爺悲
두 아비의 슬픔	二爺悲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說不盡
세모에 눈바람만 아득히 날리네	風雪茫茫歲暮時

송
암
집

제
2
권

書
서

서 書

우암 선생님께 올림

上尤庵先生

정익(挺翼)은 머리를 조아리며 재배(再拜)하고 말씀드립니다. 시운(時運)에 관계된 바라 선생님의 대도(大道)를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용릉(春陵)의 각혈(脚血)은 참으로 부주(涪州)의 자발(髭髮)보다 못하지 않고,¹ 경원(慶元) 연간의 상황은 결국 또 여철(余嘉)의 상소에 서 극에 달하였으니,² 하늘에도 물을 수 없고 귀신에게도 따질 수 없

1 용릉(春陵)의……않고 : 송시열(宋時烈)이 1675년(숙종1)에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服制) 문제로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다가 장기(長鬢)로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으니, 머나먼 유배길을 떠도는 고초를 말한다. 용릉의 각혈(脚血)은 송(宋)나라 채원정(蔡元定)이 위학(僞學)으로 몰려 호남(湖南) 도주(道州)로 귀양을 가다가 용릉에서 죽었는데, 도주로 가는 3,000리 길을 걸어가느라 발꿈치가 온통 피투성이가 된 고사를 말한다. 부주(涪州)의 자발(髭髮)은 송나라 정이(程頤)가 부주로 유배 갔는데, 온갖 고초를 겪고서도 돌아올 때에는 용모를 비롯해 수염과 모발(髭髮)이 그전보다 더 좋아진 고사를 말한다. 《宋史 卷434 儒林列傳 蔡元定》《心經附註 卷2 正心章》

2 경원(慶元)……달하였으니 : 현종이 승하하고 숙종이 송시열에게 현종의 묘지문을 위촉하자, 진주(晉州) 유생 광세건(郭世健)이 기해년 예송(禮訟) 때 효종을 서자로 여겨도 좋다는 예론을 주장했다는 점을 들어 묘지문을 다른 사람에게 짓도록 상소한 사실을 가리킨다. 이 일로 송시열은 덕원으로 유배되었다. 《肅宗實錄》即位年 9月

습니다. 게다가 배필을 떠나보낸 애통한 소식³이 또 이 즈음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평소에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는데, 선생님의 이러한 슬픔은 정리(情理)로 볼 때 더욱 절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삼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의 건강은 지금 어떻습니까? 애통한 마음을 안정시키려면 더욱 마음을 편안하고 차분하게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무신년(1668, 현종9)에 제자가 되었고, 기유년(1669)에 편지를 올린 뒤에 바로 함장(函丈)께 달려가 직접 가르침을 받는 효과가 있기를 바랐지만 불행히도 1~2년 동안 연이어 두 아이를 잃었습니다. 신해년(1671) 여름에 홀연 어머니를 여의었고, 계축년(1673)에 또 큰 아들을 곡(哭)하였고, 을묘년(1675, 숙종1)과 병진년(1676)에 기공(莠功)의 상(喪)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해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비통한 흉화(凶禍)는 실로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겪지 못한 바이니, 이미 목석(木石)이 아닌 이상 어떻게 형체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실성(失性)하여 쓰러져서는 병이 골수에 퍼져서 좌하(座下)께 한 번도 정리(情理)와 예의(禮儀)를 표할 길이 없었습니다. 또 시절이 어렵고 도(道)가 막혔을 때⁴에는 발을 싸매고 뒤따라 모시는 일을 어찌 남보다 뒤처지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병이 낫지 않아 스스로의 힘으

25日, 1年 1月 13日 기사 참조. 경원은 송나라 영종(寧宗)의 연호(1195~1200)이다. 주희가 당시의 권신(權臣)인 한탁주(韓侂胄)를 탄핵하자 그의 사주를 받은 심계조(沈繼祖)와 여철(余嘉) 등이 글을 올려 주희를 참(斬)하여 위학(僞學)을 근절시키라고 청하였다. 《宋史 卷37 寧宗本紀1》 《朱子大全 附錄 卷12 辨誣錄》

3 배필을……소식 : 송시열은 장기(長鬢)에 유배가 있는 동안 1677년(숙종3) 3월 22일에 부인 이씨(李氏)의 상을 당하였다.

4 시절이……때 : 우암이 귀양 다니며 떠돌던 것을 이른다.

로 가기 어려웠으므로 배개를 어루만지며 눈물 흘리며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조금 생기가 돌아서 때때로 옛 편지를 보며 더더욱 스승의 의범(儀範)을 흠모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몸을 일으켜서 안부를 여쭙고 또 숙원(宿願)을 만에 하나라도 풀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소생이 마음에 새겨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위가 닥쳐 도로 그 마음이 움츠러들었으니 이른바 “어찌할 수 없다.”⁵라는 상황입니다. 마침 우인(友人) 박군(朴君)⁶이 선생님께 간다기에 도(道)를 구하는 정성이 이미 병들고 용렬한 저에 비할 바가 아님을 매우 부러워하면서 감히 그 편에 편지를 부쳐 안부를 여쭙니 송구스러운 마음 이길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삼가 바라건대 더욱 몸을保重하시는 데 힘을 쓰셔서 송(宋)나라에 복을 내리는 하늘⁷에 답하소서.

5 어찌할 수 없다 : 형편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논어》〈위령공(衛靈公)〉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찌할 수 없다.[不曰如之何如之何者，吾末如之何也已矣.]”라고 한 말을 원용한 것으로, 원래는 무슨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深思熟考)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는 사람을 꾸짖는 말이다.

6 박군(朴君) : 박상현(朴尙玄, 1629~1693)을 말한다. 박상현의 자는 경초(景初)이고, 호는 우현(寓軒)이며,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전라도 광주(光州)의 진곡(眞谷)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아들 박광일(朴光一)을 송시열에게 보내 학문을 배우게 하였고, 그의 문집인 《우현집(寓軒集)》에 송시열과 주고받은 편지가 여러 편 있으며, 기정익(奇挺翼)에게 보낸 11편의 편지도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성리학의 격물, 이기, 태극에 관한 내용이다. 《韓國文集叢刊解題 4輯 寓軒集, 遜齋集》

7 송(宋)나라에……하늘 : 남송(南宋) 말기 원(元)나라의 침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천우신조(天祐神助)하여 송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나타낸 말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운이 융성하기를 비는 뜻으로 쓰였다.

우암 선생님께 올림

上尤庵先生

사문(斯文)의 다행으로 성상의 은혜를 입어 선생의 도체(道體)가 절서(節序)에 따라 경사와 복이 있을 것이니, 멀리서 삼가 위로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소생(小生)의 신세가 또한 가없지 않습니까? 평생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남보다 못하지 않지만 중간에 10년 동안 상(喪)을 당해 곤란을 겪어 문하(門下)에서 공부하지 못한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병이 더욱 악화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른 것이 여러 차례입니다. 서신(書信)으로 안부를 여쭙는 것도 보통 사람만 못한 데다 용감하게 달려가 함장(函丈)을 모시려는 계획마저도 이미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되었으니, 도(道)를 구하는 정성이 부족하여 하늘이 혹여 그렇게 만든 듯합니다. 그러니 제 신세를 돌아보면 또한 가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생(金生)이 가는 길에 대신 안부를 여쭙니다. 별지로 여쭙 것은 또한 주제넘고 경솔한 줄은 알지만 직접 뵈고서 여쭙 계획이 어긋났기에 감히 먼저 편지로 번거롭게 여쭙니, 삼가 바라건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삼가 건강이 더욱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별지

《주역》〈계사(繫辭) 상(上)〉에 이른바 “형이상(形而上)을 도(道)라

고 하고 형이하(形而下)를 기(器)라고 한다.〔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라는 말은, 그 대의(大意)가 이(理)와 기(氣)의 오묘함을 형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음양(陰陽)은 모두 형이하이고 그 이치는 도이다.”라고 하였고 정자(程子) 또한 “형체가 있는 것은 모두 기(器)이고 형체가 없는 것은 도(道)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자와 주자의 말을 근거해 보면 공자가 말씀하신 뜻을 절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정자와 주자도 형이상과 형이하의 자세한 내용을 분명하게 해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배우는 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심지어 “형이상은 건(乾)을 말하고 형이하는 곤(坤)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도(道)와 기(器) 자를 건과 곤으로 보려는 자가 있으니, 그 천착(穿鑿)함이 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생님께 논변(論辨)할 것이 없지만 제가 감히 억견(臆見)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혹인(或人)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이므로 말이 쓸데없이 장황합니다.-

다음처럼 논하였습니다.

‘형이상은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하고, 형이하는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형체가 없다고 하고 형체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형이상은 본래 소리와 냄새가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라고 하고, 형이하는 모두 형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而上)과 이하(而下)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상(上)은 상승(上昇)의 상이 아니고, 하는 하강(下降)의 하가 아니며, 또한 재상(在上)의 상이 아니고, 재하(在下)의 하가 아니며, 또한 절반 이상(以上)의 상이 아니고, 절반 이하(以下)의 하가 아니며, 상면

(上面)의 상이 아니고 하면(下面)의 하가 아니며, 천상(天上)의 상이 아니고 지하(地下)의 하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사물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록 형체는 있으나 그 이치는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것을 형이상이라고 하고, 비록 형체는 없으나 그 사물은 형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용할 수 있는 것을 형이하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형이상(無形而上)’, ‘유형이하(有形而下)’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유(有) 자와 무(無) 자를 놓는다면 사람들이 무형을 유형 밖에서 찾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형(形) 한 글자만 놓아서 도와 기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 오묘함을 밝혔고, 또 상(上) 자와 하(下) 자로 유형과 무형을 구분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견해를 집의(執義) 윤증(尹拯)에게 질문하였더니, 윤증이 답하기를 “상면의 상과 하면의 하가 아니다.”라고 한 말은 이는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상하 두 글자를 상면과 하면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겠습니까?”라고 하였고, 또 “무형이상, ‘유형이하’라고 한 것도 이 또한 온당치 못합니다. 대체로 형(形)은 사물이니, 상면에 비어 있는 것이 도(道)이고 하면에 꼭 차 있는 것이 기(器)일 뿐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견해처럼 이(理)가 위에 있고 기(氣)가 아래에 있어 판연(判然)히 두 가지로 나뉜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저 사람이란 도(道)와 기(器)를 건과 곤으로 간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해 제가 또 답하기를 “주자가 이(理)를 말한 부분에서 또한 ‘상면’과 ‘하면’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였으니, 형이 ‘상면에 비어 있는 것이 도(道)이고 하면에 꼭 차 있는 것이 기(器)이다.’라고 한 말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으로 ‘이상(而上)’과 ‘이하(而下)’의 글자를 해석한다면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이러한 견해대로라면 경문(經

文)에서 마땅히 ‘형지상(形之上)’, ‘형지하(形之下)’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근자에 우연히 인가(人家)에서 책자(冊子) 하나를 보았는데 바로 《어록해(語錄解)》⁸였습니다. 그 본(本)은 바로 한 글자부터 여섯 글자까지 분류해서 해석하였습니다. 중간에 퇴계의 해석, 미암의 해석, 그리고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선생의 해석을 인용하였는데, 그 가운데 형이상하(形而上下)에 대해 해석하기를 “형체가 있기 전에는 다만 이(理)만 있을 뿐이고, 형체가 생긴 뒤에는 기(器)라는 명칭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선생님께서 해석하신 책자입니까?

삼가 살펴보건대 해석한 것들이 정밀하고 합당한 점은 다른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닌 듯하니 선생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잘 알겠습니다. 삼가 형이상하에 대한 해석을 자세히 음미해 보았는데 지극히 통쾌하였으니, 또한 후학들에게 은혜를 끼치신 한 가지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작은 의심이 없을 수 없었는데, 의심이 생기면 진실로 물기를 생각해야 하기에 숨겨 둘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석하신 대로라면 ‘전(前)’과 ‘후(後)’라는 글자는 바로 ‘상’과 ‘하’를 풀이한 것입니다.

8 어록해(語錄解) : 퇴계 이황(李滉)과 그 제자들이 송(宋)나라 이래의 문헌에 나타나는 구어체(口語體)의 어휘인 어록(語錄)을 풀이한 책이다. 1652년(효종3)에 정양(鄭養)이 이황과 유희춘(柳希春) 등의 해석을 종합하여 편찬하여 다시 간행한 바 있고, 그 후 현종 때 남이성(南二星)이 왕명으로 다시 교정·증보, 1669년(현종10) 송준길(宋浚吉)과 함께 1자류(一字類)로부터 6자류로 분류하여 주를 달아 중간한 것이 있는데, 주 밑에 계훈(溪訓), 미훈(眉訓)을 표시하여 각각 이황과 유희춘의 해석임을 나타냈고, 다른 사람들의 주에는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아 구별하기 쉽도록 편집하였다. 활자본이며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뜻은 바로 이(理)가 먼저이고 기(氣)가 나중이라는 말이므로, 태극(太極)이 양의(兩儀)를 낳는 이치에 근거해 본다면 진실로 의심할 것이 없으니, 어찌 명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경문 및 주자의 해석으로 고찰해 본다면 아래 구절의 해석은 십분 타당하지는 못한 듯합니다. 경문에 “형이하를 기(器)라고 한다.”라는 말은 형기(形器)를 선후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경문에 또 “형은 바로 기를 말한다.”라고 한 것이니, 주자의 해석 또한 어찌 형기를 음양(陰陽)으로 여기고 음양의 이치를 도(道)로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체가 생긴 뒤에 기라는 명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형과 기는 분명 선후가 있게 되어, 경문에서 ‘형이하를 기라고 한다.’라고 한 말과 말뜻이 대략 같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자세히 분석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반복해서 일깨워 주셔서 저의 우매함을 제거해 주신다면 주께 감사하고 경솔한 논의는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질 것이고, 집의 윤증의 견해 또한 반드시 오류로 판명날 것입니다. 아울러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전(經傳)의 뜻은 정자와 주자가 밝혀내고 제시한 뒤로는 해와 별처럼 밝고 큰길처럼 평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말학(末學)은 줄곧 우매하였고 남쪽 지방에는 또 사우(師友)가 없어서 늘 이 때문에 괴롭고 답답하였습니다. 간간이 한두 명의 동지(同志)들과 이 문제에 대해 편지로 논변한 것이 있지만 또한 각자가 내세운 명목이 적지 않게 다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의 윤증과 논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 또한 많았지만 그 가운데 기수(氣數)에 대한 논의는 윤증의 견해와 끝내 합치되

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질정(質正)하기 위해 허다한 명목은 제외하고 기수에 대한 한 가지 논의만을 또한 하나의 작은 책자로 엮었습니다. 삼가 요즘 조용히 보양(保養)하시는 여가에도 사람을 상대하느라 필시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장황한 말을 하여 존엄(尊嚴)하신 선생님을 감히 번거롭게 하지 못합니다만, 이 또한 하학(下學)이 지극히 한스러워하는 점입니다.

우암 선생님께 올림

上尤庵先生

국상(國喪)⁹에 두렵고 황송한 마음을 어찌 말로 하겠습니까. 삼가 선생님께서 이미 성상의 명을 받고 조정에 나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안거(安車)¹⁰를 타고 추위를 무릅쓰고 가셨을 것인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삼가 만복(萬福)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태평한 운세가 다시 돌아왔으니 아주 미친한 사람도 축하할 뿐만이 아닙니다. 임금과 백성들이 선생께서 큰 책임을 맡아 주기를 더더욱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이는 제가 사사로이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소생(小生)은 병으로 폐인이 되어 예전처럼 피폐함이 여전히 심하므로 문하에서 공부할 계획이 이로부터 더욱 막히고 끊기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화양동(華陽洞)에서 선생님의 훈계를 받을 수 있기를 공손히 기다리려고 합니다. 전에 올린 별지는 매우 주체념고 경솔하여 삼가 스스로 대죄(待罪)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으니 더욱 두렵습니다.

이치에 어긋난 저의 글을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올렸으니 참으로 선생님께서 덕음(德音)을 내려 주기에는 부족하지만, 매번 선생님에

9 국상(國喪) : 1680년(숙종6) 10월 26일에 있었던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상(喪)을 말한다. 인경왕후는 숙종의 원비(元妃)로, 20세의 나이에 경덕궁(慶德宮)에서 승하하였다. 《肅宗實錄 6年 10月 26日》

10 안거(安車) : 앉아서 탈 수 있는 작은 수레로, 국가의 원로나 중망(重望) 있는 인사를 불러들일 때 조정에서 안거를 보내 예우하였다.

게 글을 올린 자를 살펴보면 진실로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또한 구애받지 않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또 의심나고 답답하여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품목(稟目)을 만들어 서원의 유생이 가는 길에 부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듣기로 선생님께서 소명(召命)에 달려갈 때에 중간에 하룻밤을 묵고 출발하신다고 하였는데, 마침 그리로 가는 인편이 있기에 감히 이렇게 옮겨 부쳐 삼가 도체의 안부를 여쭙니다. 엄동설한에 도(道)와 국가를 위해 반복하시고 몸 보중하시기를 더더욱 바랍니다.

별지

광주(光州)의 경초(景初) 박상현(朴尙玄)은 저의 벗입니다. 예전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이 매우 많고도 오래되었습니다. 전에 여쭙는 것 중에서 형이상(形而上)과 형이하(形而下)에 대한 설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혹인(或人)’이라고 칭한 사람은 실로 이 벗을 가리키고 ‘저의 의견(臆見)으로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한 단락도 본래 이 벗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감히 이에 대한 설을 여쭙 뒤에 삼가 경초가 이 문제를 선생님께 여쭙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경초에게 가서 경초가 선생님께 얻은 설을 찾아와서 삼가 읽어 보았는데, 과연 저번에 말씀드린 《어록해》의 내용과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견해와 부합하였으므로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 그지없었으니, 정자(程子)가 “손으로 찹추고 발로 구르며 뚫다.”¹¹라고 한 말이

11 손으로……뚫다 : 매우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다. 《논어집주(論語集註)》〈서

참으로 헛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리(條理)가 명백(明白)하고 통창(通暢)한 점은 전혀 제가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높고 오묘하며 무겁고 탁한 것으로 상하(上下) 자를 해석한 것¹²은 더욱 명확한 견해를 알겠습니다. 저의 견해에 비하면 더욱 한층 궁구하여 심분 지극하니, 감히 이를 받들어서 평생 가슴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다만 《어록해》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젊었을 때의 견해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견해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겠으니, 삼가 바라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또 박군(朴君)이 그동안 선생님께 얻은 글 및 품목을 기록하여 완성한 하나의 책자를 이 기회를 통해 다 읽어 보니, 그 허다하게 여쭙 것은 모두 저와 예전에 강론하였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그가 여쭙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그의 의문에 대해 논변한 것이 비록 매우 외람되지만 또한 경문(經文)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지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도 대략이나마 부합하지만 저의 신세가 미천하고 말이 경솔하여 끝내 신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가 보건대 선생님께서 간곡하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이처럼 명백하고 절실하니, 상현(尙玄)으로서는 단비를 맞은 생물처

설(序說)에 “논어를 다 읽고 나서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춤을 추고 발을 구르며 뛰는 이들도 있다.[有讀了後，直有不知手之舞之足之蹈之者也.]”라고 한 정자의 말이 보인다.

12 높고……것 : 송시열이 형이상하의 설에 대해 박상현에게 답한 편지에 “이른바 상(上)은 높고 오묘해서 형기(形氣)에 소속되지 않는 뜻인 듯하고, 이른바 하(下)는 바로 무겁고 탁해서 공허하고 아득함이 없는 것을 말한 듯하다.[所謂上者，似是高妙不屬形氣之義；所謂下者，似是重濁無如沖漠之.]”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宋子大全 卷130 答朴景初》

림 기쁘지 않겠습니까. 경초와 떨어져 지낸 지 오래입니다. 그가 선생님께 여쭙 것이 이렇게 많지만 저는 10년 동안 상(喪)을 당해 곤란을 겪었으므로, 당시 서신을 주고받으며 가르치실 때에 말석(末席)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한데 또한 선생님의 성대한 일에 해를 끼쳤으니 한탄스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설 가운데 미발지중(未發之中)¹³ 한 단락은 의심스럽습니다. 선생님께서 반복해서 경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으니, 비록 지극히 정밀하여 더 보탬 것이 없지만 제 견해와 끝내 다 합치되지 않아 반복해서 궁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맞기도 하였다가 맞지 않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흐리멍덩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저처럼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가르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의심을 쌓아 둔 채로 억지로 따르지 못하겠기에 삼가 한두 가지를 뒤에다가 자세히 여쭙니다. 참람한 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또한 스스로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저의 견해가 형편없다고 질책하지 마시고 다시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듯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박군(朴君)이 여쭙 글의 말미에서 “벗과 《중용》을 강론하였습니다.”라고 한 말은 저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내용 중에 “미발지중의 중(中) 자는 본래 성(性)의 덕(德)이므로, 중과 성은 둘로 나뉘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성이 있는데 중은 성의 덕이니, 이 중을 또한 어찌 사람마다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발(發)하기 전에

13 미발지중(未發之中)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장의 “희로애락이 발하기 이전을 중이라고 한다.[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는 진실로 중도에 맞지 않음이 없다가 발한 뒤에는 화(和)와 불화(不和)로 나뉩니다. 그러므로 자사(子思)께서 글을 지으실 적에 발하기 전의 중(中)의 상태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없다가 발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개(皆)’ 한 글자를 놓았으니, 그 뜻을 절로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제가 시종 지켜 온 견해입니다. 내용 중에 “미발지중은 본래 성입니다. 사람이 하늘에서 성을 품부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인(衆人)은 기질이 뒤섞여 대본(大本)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모두 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박군이 시종 지켜 온 견해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박군의 뜻은 ‘중은 비록 성의 덕이지만 기질 속에 떨어진 뒤에 물욕(物欲)과 탁기(濁氣)가 용사(用事)하면 성 또한 뒤섞이기 때문에 사람은 비록 성이 있지만 중은 사람마다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견해는 분명 성 가운데 중이 있거나 없는 것은 사람의 기질의 청탁(淸濁)으로 인하여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는 말이니 어찌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중용장구(中庸章句)》에서 말한 것을 보면 중인(衆人)은 중이 없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이른바 대본(大本)은 바로 천명지성(天命之性)을 말하고, -주자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전의 설에서 방원(方圓)을 천지(天地)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¹⁴라고 하였으니, 중화(中和)를 성정(性情)으로 여겨서는 안 될 듯하지

14 이전의……잘못되었다 : 주희가 호광중(胡廣仲)에게 답한 편지에서 중화(中和)와 체용(體用)에 대해 설명하기를 “나의 이전 설의 잘못은 바로 중화를 체용으로 삼은 것이니 이는 방원을 천지라고 한 것과 같다. 근래 이러한 뜻으로 이전의 말을 개정하였다. [熹前說之失，便以中和爲體用，則是猶便以方圓爲天地也。近已用此意改定舊語.]”라고 하였다. 《晦庵集 卷42 答胡廣仲》

만, 《중용장구》에서 곧바로 대본을 천명지성으로 여겼으니 《중용장구》의 뜻을 중시해야 할 듯합니다. 그에 대한 설은 아래에 자세히 보입니다.- 또 미발을 성으로 여겼으니, 중과 성을 둘로 나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性)이 성(性)이 될 수 있는 것은 중(中)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제가 백성에게 중(中)을 내려 주었다.[上帝降衷于民]”라고 하였고, “사람이 천지의 중을 받았다.[民受天地之中]”¹⁵라고 하였고, “천연적으로 본래 중이 있다.[天然自有之中]”¹⁶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중이 아니라면 성은 성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중이 성의 덕이 되는 이유이고, 성이 선하지 않음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성에 중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성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이 없는 사람은 있지 않고 중이 없는 성은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이 있지 않음이 없다.[莫不有性]”¹⁷라고 하였고, “사람의 성은 모두 선하다.[人性皆善]”라고 한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중을 총괄하는 명칭이고 중이라는 것은 선의 다른 명칭입니다. 비록 기질과 물욕 가운데라도 이 성이 있지 않은 적이 없고, 비록 어둡고 뒤섞인 가운데라도 이 중이 성과 떨어진 적이 없었

15 사람이……받았다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성공(成公) 13년조에 “백성은 천지의 중(中)을 받아 태어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명(命)이다.[民受天地之中以生, 所謂命也.]”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16 천연적으로……있다 : 《이정유서(二程遺書)》 권17에 “모든 사물에는 다 천연적으로 중(中)이 있어서 사람이 안배할 필요가 없다.[事事物物上, 皆天然有個中在那上, 不待人安排也.]”라고 한 말을 축약한 것이다.

17 성이……없다 : 《근사록(近思錄)》 권1 <도체(道體)>에 “모든 물건은 성(性)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으나 통하고 가리고 열리고 막히기 때문에 사람과 물건의 구별이 있고, 가리움에 후박(厚薄)이 있기 때문에 지우(智愚)의 구별이 있는 것이다.[凡物莫不有是性, 由通蔽開塞, 所以有人物之別, 由蔽有厚薄, 故有智愚之別.]”라고 한 횡거(橫渠)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습니다. 중이 만약 성과 떨어진다면 성은 텅 빈 하나의 이(理)가 없는 사물이 되니, 어떻게 “성은 선(善)하다.”라고 하겠으며, 어떻게 “성의 덕(德)이다.”라고 하겠으며, 어떻게 “성은 중리(衆理)를 갖추었다.”라고 하겠습니까. 성에는 모두 중이 있고 사람에게는 모두 성이 있으니, 이 이치는 매우 분명하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에도 중은 어둡지 않으니, 어두운 것은 기(氣)입니다. 뒤섞일 때에도 중은 뒤섞이지 않으니, 뒤섞인 것은 기입니다. 기는 비록 어둡고 뒤섞이지만 하나의 중의 이치는 혼연(渾然)히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축이 없으면 희로애락에 치우치는 바가 없게 되고, 이미 치우친 바가 없으면 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의 체단(體段 골자)이면서 천하의 대본이 됩니다.

“대본을 세운다.[立大本]”라는 말은 본래 이러한 이치가 없으면서 홀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다.[中也者 天下之大本]”라고 하였는데, 주자가 해석하기를 “대본이라는 것은 천명지성이다.”라고 하였으니, 성은 본래 있는 것이고 “세운다.”라는 말은 단지 기질을 변화시키고 물욕을 씻어 없애면 본래 있는 이치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니, “털끝만큼도 보태지 않아도 모든 선(善)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성 가운데 다시 이 중이라는 한 글자를 세우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대본을 세우는 것은 성인만이 할 수 있지만, -《중용》 32장의 “입대본(立大本)”의 주(註)에서 이러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중인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공부를 극진히 하면 또한 중과 화를 지극히 할 수 있으니 이른바 “공(功)을 이루는 것은 똑같다.[成功則一也]”라는 것입니다. - 대본은 지극히 어리석고 미천한 사람이라

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에게는 모두 성이 있고, 사람의 성은 모두 선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단연코 사람은 모두 미발지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삼가 상고해 보건대 선생님께서 경초에게 답한 편지에 “발하지 않았을 때에 언제 뒤섞인 적이 있었겠는가.”라고 하였고, 또 “성악(性惡)이라는 것은 또한 발할 때 그 기가 강(強)하거나 유(柔)함에 따라서 발하는 것이 중도에 맞지 않은 것이지, 또한 아직 발하기 전에 선성(善性)과 상대하여 성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고, 또 “만약 보내온 편지에서 말한 대로라면-박균의 설에 “중이라는 것은 성인의 성(性)이고 화(和)라는 것은 성인의 정(情)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인만이 오직 중화의 덕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그 앞에 이른바 계구신독(戒懼慎獨)¹⁸은 무릇 학자를 위해 말한 것인데 모두 쓸데없는 빈말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항목은 저의 견해와 딱 들어맞으니, 저의 어리석은 견해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 뒤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중인은 정(靜)할 때가 있지 않다.”라는 주장에 또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항목은 또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 항목과 같지 않습니다. 내용 중에 “중인은

18 계구신독(戒懼慎獨) : 《중용장구(中庸章句)》 1장(章)에 보이는 구절로 “도라는 것은 잠시도 떠날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지 않을 때에도 조심하고, 듣지 않을 때에도 두려워한다.[道也者, 不可須臾離也, 可離非道. 是故君子戒愼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라고 하였고, 바로 뒤에 “숨겨진 것보다 잘 드러난 것이 없고 작은 것보다 잘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그 홀로를 삼가는 것이다.[莫見乎隱, 莫顯乎微. 故君子愼其獨也.]”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정할 때가 있지 않다. 정할 때가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미발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으로 비유하셨고, 또 “《중용》에서 처음에는 천명지성(天命之性)과 술성지도(率性之道)를 말하였고, 다음으로 존양성찰(存養省察)의 요점을 말하였다. 그러한 뒤에야 미발(未發)에 대한 설을 말하였으니, 미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군자가 공부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지, 사람마다 모두 이와 같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이는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나머지 사람들은 중화의 덕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주장과 같지 않습니다.- 또 “마음이 종일토록 물욕에 번뇌하여 차분하고 고요한 적이 없으면, 비록 야기(夜氣)¹⁹라 할지라도 또한 맑게 할 수 없고 잠자는 때조차도 전도(顛倒)되는데, 어찌 외물(外物)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발이라는 것은 반드시 순수하여 어지럽지 않고 환하여 어둡지 않아서 비록 귀신이라도 엿볼 수 없는 뒤에야 미발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한 “무릇 학자를 위해 말한 것인데 모두 쓸데없는 빈말이 되어 버린다.”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도리어 십분 큰 의심이 생깁니다.

제가 비록 주제넘고 망녕되지만 어찌 감히 대뜸 선생님의 가르침이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세 항목에 대한 주장은 모두 연평(延平)과 주자가 장(張), 임(林)²⁰과 강론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니

19 야기(夜氣) : 사람이 외물을 접하기 이전인 밤의 맑은 기를 말하는데, 이때는 사람의 타고난 착한 마음이 발현된다고 한다. 《孟子 告子上》

20 장(張), 임(林) : 장남현(張南軒)과 임택지(林擇之)를 말하는 듯하다. 장남현은 장식(張栻)으로 악록서원(嶽麓書院)에서 주희와 《중용》의 뜻을 놓고 토론을 벌였고,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주자와 장, 임이 강론한 내용을 고찰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끝내 그 설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중용》 첫 장의 장구를 가지고 반복해서 깊이 생각한 뒤에야 황홀하게 요령을 얻은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 한두 가지 다시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용》의 첫 편을 차례대로 말해 보면, 가장 먼저 천명지성-곧 미발지중(未發之中)입니다.-과 솔성지도-곧 발이중절(發而中節)입니다.-를 말한 뒤에 곧바로 계구신독을 말하였으니, 계구신독은 바로 성도(性道)²¹의 공부입니다. 그 뒤에 ‘중화(中和)’라고 한 것은 성도 외에 별도로 존재하는 중화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사가 이 부분에서 중화를 제기한 이유는 단지 천명지성과 기발지정(既發之情)의 체단(體段)이 이와 같음을 밝혀서 동(動)할 때와 정(靜)할 때에 각각의 공부가 있다는 뜻을 증명하 뒤에야 비로소 치중화(致中和)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자가 통틀어 논하기를 “가장 먼저 도(道)의 큰 근원이 하늘에서 나와 바뀔 수 없는 것과 그 실체(實體)가 자기 몸에 갖추어져 떠날 수 없는 것을 밝혔고, 다음으로 존양성찰의 요점을 말하였고, 마지막에는 성신(聖神) 공화(功化)의 지극함을 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더 이상 중화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의 조리와 의미를 상세히 살펴보면, 천명지성과 미발지중은 본래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자가 존양성찰을 곧바로 성도의 공부로 삼았고, 존양성찰한 뒤에야 비로소 중화를 얻는다고 더 이상

임택지는 임용중(林用中)으로 주희와 중화(中和)에 대해 논의한 편지가 있다.

21 성도(性道) : 《중용》 제1장의 천명지성(天命之性)과 솔성지도(率性之道)를 줄인 말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평이 “먼저 신독(愼獨)을 말한 뒤에야 중화에 미칠 수 있다.”라고 한 말과 선생님께서 “존양성찰한 뒤에야 미발의 중이 있다.”라고 한 말이-정자가 “경(敬)하여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중이다.”라고 한 말은 다만 중을 지극히 함을 말한 것일 뿐이지 중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닌 듯합니다.- 자사와 주자의 뜻에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중용》에서는 존양성찰을 중화를 지극히 하는[致中和] 공부로 삼았는데, 연평은 도리어 중화를 얻는[有中和] 공부라고 하였으니 전도되어 차서가 뒤바뀔을 면치 못한 듯합니다. 이 때문에 증인은 중이 없다고 말하고, 또 발하고 발하지 않는 논의에 얽매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존양성찰을 중화를 얻는 공부로 삼아, 반드시 마음이 순수하고 환하기를 기다려 귀신이라도 엿볼 수 없는 것을 미발이라고 한다면 바로 공부를 다 해 버린 것인데, 어찌 굳이 다시 치중화를 말하였겠습니까.

제 생각에 성이라고 하면 바로 미발입니다. 그러니 증인은 미발이 있지 않다는 말은 지극한 논의가 아닌 듯합니다. 미발이 있지 않으면 성도 있지 않은 것이고, 성이 있지 않으면 무릇 희로애락이 절도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서 발(發)할 수 있겠습니까.-삼가 바라건대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연평의 이 설은 시종 의심스럽지만 주자께서 이 설을 취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주자가 장, 임과 강론한 말은 모두 거의 같은 시기에 한 말이니,-임에게 준 편지에서 매번 남헌(南軒)을 거론하였으니, 거의 같은 시기에 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건도(乾道) 7, 8년 사이입니다. 이때 주자의 나이는 겨우 40여 세이고, 그 뒤 20년이 지나 비로소 《중용장구》를 확정 지었는데, 당시 강론했던 것과 그 뜻이 같은 것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40세 때의 견해가 오히려 의심이 없는

60세 때의 견해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자가 남헌과 강론할 때 심(心)을 이발(已發)로 여겼다가 그 뒤에 비로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을 논할 때에 인심을 영위(營爲)하고 모려(謀慮)하는 것으로 말한 것은 <중용서설(中庸序說)>과 같지 않으며, 또 스스로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의심이 없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의 견해는 감히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또 당시의 논의를 모두 따를 수 없다고 여긴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써서 보여 주신 것은, 주자가 서언장(徐彦章)에게 답한 편지에 "미발은 단지 사물과 응하지 않았을 때이니 하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러한 때가 있다."²²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이 또한 필시 만년에 가까운 소견일 테지만 그래도 《중용장구》에서 곧바로 전체(全體)를 가리킨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로지 《중용장구》를 기준으로 삼고 싶지만 오히려 선생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기에 감히 참람함을 잊고 이렇게 자세히 여쭙니다. 삼가 바라건대 선생님께는 제 말을 잘 헤아려 주시고 연평을 비판한 죄는 그래도 《중용장구》를 독실하게 믿은 것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바로잡아 가르쳐 주십시오.

22 미발은……있다 : 서언장(徐彦章)은 서환(徐煥)으로, 주희의 문인이다. 이 글은 《주자대전(朱子大全)》 권54 <답서언장(答徐彦章)>에 보인다.

우암 선생님께 올림

上尤庵先生

봄날이 화창하고 따뜻한 이때에 삼가 선생님의 체후(體候)가 두루 평안하고 신의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빛나는 도덕(道德)을 우리러보니 어느 날 어느 밤엔들 감히 잊겠습니까. 소생은 겨우 위태로운 목숨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난가을과 동짓달 사이에 연이어 여쭙는 편지를 보내고서 날마다 가르침을 바랐었는데 지금까지도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인편을 통해 번거롭게 여쭙는 것이 회답해 주시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겠으니 도리어 더욱 송구합니다. 옛사람은 좋은 말을 듣고 실행하지 못했으면 다른 좋은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는데,²³ 게다가 지금은 전혀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감히 다시 가르침을 청하겠습니까. 의심난 것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찾아뵈고 제거할 길이 없으니 이 또한 운명인가 봅니다. 서원의 유생이 이제야 찾아간다고 합니다. 저의 설이 전 편지에 갖추어져 있으니 이번에는 더 이상 감히 번거롭게 여쭙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삼가 선생님의 도체가 나라와 도를 위해서 진중하시고 더욱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서원의 유생이 이번에 가져다 올린 2개의 책자는 바로 모암서원

23 옛사람은……두려워하였는데 : 《논어》〈공야장(公冶長)〉에 “자로는 좋은 말을 듣고 실행하지 못했으면 행여 다른 좋은 말을 들을까 두려워하였다.[子路有聞, 未之能行, 惟恐有聞.]”라고 한 말이 보인다.

(慕巖書院)의 절효(節孝) 서 선생(徐先生)²⁴의 언행(言行)과 배향된 조양산(趙梁山) 부자²⁵의 행장(行狀)입니다. 서 선생이 저술한 것은 십훈(十訓)²⁶뿐인데 책자에 실려 있고, 그의 효덕(孝德)과 지행(至行)은 이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 박사암(朴思庵)이 찬술한 비명(碑銘)이 있지만 사림(士林)들은 오히려 서 선생의 덕을 드러내 밝히지 못한 것을 크게 한스러워합니다. 바라건대 서문(序文)을 써 주십시오. 조양산 부자의 일에 대해서는 고을 사람들이 저에게 부탁하여 행장을 짓게 하였는데, 지금 이 글이 어찌 후대에 전할 만한 것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선생님께서 한번 붓을 휘둘러 바로잡아 주시되 만약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본고에 따끔하게 고쳐 주시고, 아울러 권의 첫머리에 한마디 말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 모암서원(慕巖書院)의……서 선생(徐先生) : 모암서원은 1578년(선조11)에 전라도 장성군(長城郡) 서삼면(西三面) 모암리(慕巖里)에 건립된 서원으로, 절효공(節孝公) 서릉(徐稜)을 모신 사당이다. 이외에 효와 충, 청백리로 알려진 정운룡(鄭雲龍)·김우급(金友偈)·조정로(趙廷老)·조영규(趙英圭)·최학령(崔鶴齡)·박수량(朴守良) 등을 배향하였다.

25 조양산(趙梁山) 부자 : 양산 군수(梁山郡守)를 지낸 조영규(趙英圭)와 그의 아들 조정로(趙廷老)로, 모두 모암서원에 배향되었다.

26 십훈(十訓) : 거가십훈(居家十訓)을 말한다. 고려 고종(高宗) 때 서릉(徐稜)이 유교적 생활 습관과 덕목을 제시한 글로서, 그 내용은 부식삼강(扶植三綱), 돈서오륜(惇敍五倫), 관이어하(寬以御下), 예이사상(禮以事上), 임상치애(臨喪致哀), 당제치경(當祭致敬), 지심이공(持心以公), 처사이의(處事以義), 교자이정(教子以正), 대인이서(待人以恕)이다.

우암 선생님께 올림

上尤庵先生

정익은 재배하고 아뢰입니다. 저의 집안이 불행하여 아내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났으니, 비통하고 괴로운 심정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늦봄쯤에 삼가 선생님께서 전후로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서 체후(體候)가 두루 평안하심을 알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 뒤로 여름과 가을이 다 지났는데 기거(起居)에 형편은 어떻습니까? 침모(瞻慕)하고 존앙(尊仰)하는 마음 조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재앙이 이미 쌓이고 상화(喪禍)가 끊이질 않아 작년과 올해 두 해 동안 연이어 세 번의 상(喪)을 당하였으니, 아내의 죽음이 슬플 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 겪은 일은 지금에 비하면 더욱 참혹하였으니, 모두 10년 동안 아울러 있었던 상입니다. 비록 목석(木石)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더라도 또한 태연히 흔들리지 않기가 어려울 것인데, 이렇게 기운이 꺾이고 마음이 무너지니 애써 자애(自愛)하려고 하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외람되어 품었던 향학(向學)에 대한 의지는 지금 문득 남김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옛사람도 이렇게 불행하고 참혹한 상황을 당하여서 공부를 잘하신 분이 있습니까? 장자(莊子)는 배워서 안 되고 자하(子夏)도 경계로 삼아야 하니,²⁷ 이른바 “바른 성정

27 장자(莊子)는……하니 : 장자의 일은, 장자가 일찍이 아내의 상(喪)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 혜자(惠子)가 조문을 가 보니, 곡을 하는 대신 두 다리를 뺀고 앉아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고사를 말하고, 자하(子夏)의 일은, 자하가

(性情)을 얻었다.”라는 경지에 이르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경(敬)’ 한 글자는 진실로 상하(上下)를 꿰뚫고 시종을 관통하므로, 근심과 상심이 아주 심할 때에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 도리어 근심과 상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기고 말았으니, 이는 평상시 내면에 축적된 것이 없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천명(天命)을 아는 것은 성현(聖賢)만이 능한 일이니 하학(下學)인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경이 아니면 또한 감정을 절제할 수 없으니, 혹 더러 억지로 힘을 내서 공부해 보려고 하지만 엽등(躑躅)의 폐단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경 공부를 도외시하고서 천명을 구하겠다고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대해 삼가 별지를 갖추어 올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별지

제가 그동안 저의 천박한 학문으로 우러러 질문한 것이 너무 어리석고 주제넘지 않습니까? 저는 기질(氣質)이 어둡고 탁하여 애당초 감히 사학(斯學)에 뜻을 두지 못하였고 과장(科場)만을 기웃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여의고서는 피폐하고 곤란하여 망녕된 뜻으로 슬픔을 잊기 위해²⁸ 주제넘게 치지(致知) 공부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학문의 바른길을 잃고는 또한 흐리멍덩하

아들을 잃고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시력을 잃었다는 고사를 말한다. 《莊子 至樂》
《禮記 檀弓上》

28 망녕된……위해 : 불법(佛法)에 의지하여 슬픔을 잊는다는 뜻으로, 한유(韓愈)의 〈조무시어소화불문(吊武侍御所畫佛文)〉에 “망녕된 것으로써 슬픔을 잊는다.〔以窳塞悲.〕”라고 한 데서 온 말인데, 여기에서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치지 공부를 먼저 한 것을 말한다.

게 지내느라 본원상(本原上)의 거경(居敬)과 함양(涵養)의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른바 근본이 없고 차서를 잃은 것이니, 어찌 초학(初學)의 말석에나 있는 저와 논의할 것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데다 더욱 어리석은데 이것을 뉘우치지 않고 지난번 봉우 간에 논의한 일로 인하여 함부로 성명(性命)에 관한 설로 존엄(尊嚴)하신 선생님을 번거롭게 해 드렸는데도 또한 제 말이 더욱 참람되고 망녕됨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삼가 선생님께서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겨 살펴 주시고 자상하게 깨우쳐 주어 미천한 저의 공부를 함양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깜짝 놀라 스스로 반성하여 제가 올린 글의 초본을 가져다 읽어 보니, 논한 바의 시비(是非)와 득실(得失)은 차치하고 그 말투에 있어서 매우 주제넘어 거의 거리낌 없이 크게 소리치는 듯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평소에 거경과 함양의 공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경계하여 꾸짖고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반쯤 죽은 벌레의 상태를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부자(朱夫子)가 “평소 함양 공부를 빠뜨리면 사기(辭氣)가 들뜨고 경박하다.”라고 한 말이 바로 후학(後學)을 깊이 염려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선생님께서 오늘 어리석은 저를 위해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시니 실로 주부자와 전후로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록 매우 어리석고 형편없지만 감히 종신토록 가슴에 새기지 않겠습니까. 다만 주자 또한 말하기를 “하학(下學) 공부에 앞을 지극히 하되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는 것이 실로 곤지(困知)와 면행(勉行)의 공부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전에 여쭙 미발(未發)의 가르침에 대해 배우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끝까지 가르쳐

주십시오.

보내주신 편지 가운데 이른바 약유항성(若有恒性), 습여성성(習與性成), 성무불선(性無不善), 성상근(性相近), 성무위(誠無爲), 기성착의(其性鑿矣)²⁹에 대해서는 삼가 가르침을 잘 들었습니다. 소생은 본래 미발 상태는 기(氣)가 용사(用事)하지 않고 혼연(混然)히 일리(一理)인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기질 가운데 나아가 이(理) 한쪽만을 가리켜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성은 선(善)하지 않음이 없고 성은 중도에 맞지 않음이 없으니, 미발의 때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약유항성, 성무불선, 성무위와 같으니, 말씀하신 “처음을 근거하여 말한 것이다.”라는 것에 해당합니다.

대체로 발(發)하게 하는 기입니다. 미발의 때에는 기가 용사(用事)

29 약유항성(若有恒性)……기성착의(其性鑿矣) : 약유항성은 《서경》〈탕고(湯誥)〉에 “위대한 상제께서 백성들에게 중(中)을 내려 주시어, 그 떳떳한 성을 가지게 하였다.〔惟皇上帝，降衷于下民，若有恒性。〕”라고 한 데서 온 말이고, 성무불선(性無不善)은 《근사록(近思錄)》 권2 〈위학(爲學)〉에 “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고 사람이 똑같이 얻은 것이다.〔性無不善，人所同得。〕”라고 한 것과, 《근사록》 권12 〈경계(警戒)〉에 “성(性)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기질(氣質)에 국한되고 이욕(利慾)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작게 여기기 때문이다.〔性無不善，而局於氣質，汨於利慾者，自小之耳。〕”라고 한 데서 온 말이고, 성무위(誠無爲)는 《통서(通書)》에 “성(誠)은 함이 없고, 기미에는 선악이 있다.〔誠無爲，幾善惡。〕”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습여성성(習與性成)은 《서경》〈태갑 상(太甲上)〉에 태갑(太甲)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자 이윤(伊尹)이 그를 쫓아내면서 “이 의롭지 못한은 습관이 천성과 더불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茲乃不義，習與性成。〕”라고 한 데서 온 말이고, 성상근(性相近)은 《논어》〈양화(陽貨)〉에 “성품(性稟)은 서로 비슷하나 습관(習慣)에 의하여 서로 멀어지게 된다.〔性相近也，習相遠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고, 기성착의는 《근사록》 권2 〈위학〉에 “감정이 이미 성해져 더욱 방탕해지면 그 본성을 잃게 된다.〔情既熾而益蕩，其性鑿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앞의 세 가지는 모두 본연지성(本然之性)과 본체로서의 성(誠)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뒤의 세 가지는 모두 기질지성(氣質之性)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하지 않으니, 미발의 성이 어찌 기와 뒤섞여서 중도에 맞거나 또는 중도에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中)은 가운데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는 명칭입니다. 기에 따라 감발하면 비록 요순(堯舜)의 성(性)이라도 중도에 맞지 않고, 기에 감발되지 않으면 비록 중인의 성이라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해 본다면, 사람은 모두 미발의 중이 있지만 중인의 기는 뒤섞여 늘 동(動)하여 정(靜)하지 않으니, 늘 동하면 기만 오로지 용사하는 것입니다. 이(理)가 이미 기를 타고 있는 이상 미발이라고 말할 수 없고, 미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 어찌 중도에 맞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바로 습여성성, 성상근, 기성착의와 같으니, 말씀하신 “성도(性道)에 폐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사가 존양성찰(存養省察)의 공부를 붙여 넣은 것이 어찌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말해 본다면, 모두 미발의 중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늘 동하여 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기이지 성의 본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동하여 정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 본체를 구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는 이치가 어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없다고 한다면, 지금 사람 중에 종일 토록 광패(狂悖)한 자가 혹 자신을 돌이켜 구할 수 있으면 곧 화(和)한 기운이 나올 것이니 이것이 어찌 본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부자가 호문정(胡文定)의 “백 번 일어나고 백 번 사라져도 그 본체는 그대로 있다.”라는 말을 깊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천도(天道)로 말해 보면, 원형이정(元亨利貞)의 이치는 본래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지만 더러 추위와 더위가 때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기가 그렇게 한 것이지 이(理)의 본연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

중도를 잃었을 때에 본연의 체를 구한다면 본연의 체가 어찌 있지 않은 적이 있겠으며 또한 어찌 중도에 맞지 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 소생은 항상 이러한 뜻을 고수하여 “사람이 진실로 존양성찰하고 그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대본(大本)을 수립하여 중(中)을 지극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컨대 이러한 견해로 “사람들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실증한 것인데, 말을 하고 글을 짓는 과정에서 도리어 존양성찰과 기질을 바로잡는 하나의 큰 관건(關鍵)을 소홀히 하였으니, 그 조리가 영성하고 잘못된 병통에 대해 어찌 선생님의 눈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든 뒤로 마침내 마음에 새기고 돌이켜 구하여 거의 하학(下學)의 말석에라도 걸 수 있었지만, 진실로 알고 있는 것이 이미 잘못되었으니 또한 어두운 밤길에서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³⁰ 삼가 바라건대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보내주신 편지 가운데 “성(性)은 비록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이지만 기질(氣質)과 인욕(人欲)에 가리워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존양성찰의 공부로 이어받았고, 이미 존양성찰의 공부를 한 뒤에는 성이 중도에 맞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또 ‘희로애락이 미발한 것을 중이라고 한다.’라는 말로 이었으니, 그 차서(次序)가 이처럼 정연하여 어지럽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질과 인욕에 가리워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존양성찰의 공부로 이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았습니다. “이미 존양성찰의 공부를 한 뒤에는 성이 중도에 맞지

30 어두운……없습니다: 원문의 ‘명행(冥行)’은 캄캄한 밤에 맹인(盲人)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길을 찾는다 뜻인데, 여기에서는 학문의 나아갈 길을 잘 모름을 비유한 말이다. 양웅(揚雄)의 《법언(法言)》〈수신(修身)〉에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밤길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을 뿐이다.[攬地索塗, 冥行而已.]”라고 하였다.

않음이 없기 때문에 또 미발의 중으로 이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선생님께서 비록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말씀하셨지만, 주자가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11권 〈답여자약(答呂子約)〉 제30번째 편지에 보입니다. - “앞의 4구는 중화(中和)를 분별한 것임을 모름지기 알아야 하니, 성인의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도리(道理)의 명색(名色)과 차원이 이와 같음을 범범하게 말한 것이다. 그리고 뒤에 ‘치중화(致中和)’를 말한 것은 공부하는 것을 말한 곳으로 오직 성인만이 다할 수 있다.”라고 한 말과 상응하지 않은 듯합니다.

또 《중용혹문(中庸或問)》에서 여씨(呂氏)의 설을 논박한 첫 장 제1권(圈) 아래에 보입니다. -과 같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여씨는 다만 ‘사람이 비록 천지의 중(中)을 받아 태어났지만 형체(形體)에 속박을 받고 또 사의(私意)와 소지(小智)에 흔들리기 때문에 천지와 같지 않고 발하여도 절도에 맞지 못하게 된다. 반드시 하늘에서 받은 것을 잃지 않은 뒤에야 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른바 도는 닭은 이후에 있는 것으로 도리어 교(教)를 통해 얻어진다는 말이다. 자사와 정자가 가리킨 인육이 싹트기 전에 자연히 발현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존양성찰한 뒤에야 성이 중도에 맞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미발의 중으로 이었다.”라고 한 것은, 여씨의 뜻과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며 주자가 앞에서 두 항목으로 말한 것과 어긋난 듯합니다. 이에 제자의 의혹이 더욱 커집니다.

소생(小生)이 이전 편지에서 “대본을 세우는 것은 성인만이 능히 할 수 있지만 대본은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모두 있다.”라는 견해는 쉽게 씻어 버릴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미혹(迷惑)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상달(上達)을 함부로 구한다고 깊이 꾸짖으시니 두려운 마음으로 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자가 치지(致知)를 하학(下學)의 공부로 삼으셨으니, 지금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은 다만 주재님께 치지 공부를 하려는 것일 뿐 감히 상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헤아려 살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감히 여쭙 것이 있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의례(儀禮)》 자취 삼년장(齊衰三年章)의 부졸즉위모조(父卒則爲母條)에 대한 소(疏)의 내용에서, 〈내칙(內則)〉의 ‘여자허가(女子許嫁)’ 한 단락을 인용하여 아버지의 상(喪)에 대한 복(服)이 끝나려고 할 때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을 근거로 삼으면 참조할 수 있으니,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의 상을 당하면 장기(杖期)³¹를 마친 뒤에는 비록 심상(心喪)을 하지만 또한 시집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칙〉에 “여자가 나이 15세가 되면 비녀를 꽂고, 20세가 되면 시집가니, 사정이 있으면 23세에 시집간다.[女子十有五而笄 二十而嫁 有故二十三而嫁]”라고 하였는데, 가공언(賈公彦)의 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그 연월(年月)과 때를 아주 자세히 논변하여 밝혔습니다. 그 내용에 “가령 여자의 나이가 20세이고 2월이 시집가는 달인 경우, 시집가려 할 때에 1월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다면 그 다음 해 1월까지가 13개월째가 되는 소상(小祥)이 되고, 또 그 다음 해 1월에 이르면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여자의 나이가 22세이고 2월에 시집가려고 하는데 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면 그 다음 해 1월에 이르러 13개월째가 대상이 된

31 장기(杖期) : 일 년 동안 입는 상복을 말한다.

다. 그러므로 여자가 23세에 시집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해 보면 이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의 상을 당하면 장기(杖期)를 하는 것과 같지만, 시집갈 때에 심상(心喪)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사대부 중에 더러 이에 따라 행하는 자가 있으니 과연 근거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또 《의례오복도(儀禮五服圖)》를 고찰해 보면 <내칙>의 이 항목을 주자에게 물었는데, 주자가 답하기를 “조금 늦더라도 1년에 지나지 않으니, 24세에 시집가더라도 또한 늦은 것은 아니다.”³²라고 하였습니다. 주자의 말이 이러하니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주자는 본래 아버지의 상중(喪中)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를 근거로 해서 말하였을 뿐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면 아버지가 살아 계신 것이 중요하니 어찌 <내칙>을 근거로 정론(正論)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년 동안 거듭 중상(重喪)을 당하여 가족의 혼사(婚事)가 지체되었는데 이제 또 이렇게 아내의 상을 당하여 혹여 윤리를 폐하는 변고를 저지를까 염려가 되어 이렇게 미리 여쭙니다. 모두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작년에 삼가 보내주신 편지를 받은 뒤에 즉시 답장을 썼지만 끝내 그리로 가는 인편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처 고치지 못해 또 두 항목의 말미가 중복됨을 면치 못하였고 또 매우 지리하니, 지극히 죄송한 마음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32 조금……아니다 : 《의례집편(儀禮集編)》 권22 ‘부졸즉위모조(父卒則爲母條)’와 《회암집(晦庵集)》 권63 ‘의례부재위모조(儀禮父在爲母條)’에 보인다.

박 상사³³ 광후 에게 보냄

與朴上舍 光後

〈하서 연보(河西年譜)〉는 제가 애당초 지어서는 안 되는데 장령 박세채(朴世采)가 행장을 고쳐 지을 때 다시 형지씨(亨祉氏)³⁴에게 선생의 유사(遺事)를 요청하자, 형지씨가 저에게 선생이 남긴 행적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감히 사양할 수 없었지만 어떠한 체례(體例)로 기록해야 할지 난감하였습니다. 주자의 〈염계선생사실기(濂溪先生事實記)〉와 〈이천연보(伊川年譜)〉의 체례를 모방하자니 이미 이전의 행장(行狀)과 보유(補遺)가 있어서 쓸데없이 덧붙여 참람한 죄를 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애공(西崖公)이 지은 〈퇴계연보(退溪年譜)〉를 가져다 살펴보니 강목(綱目)의 체례를 사용하였고 일을 기록한 것도 매우 자세하여 마침내 그 체례를 본받아 지었습니다.

지을 당시에 근거할 만한 글들을 매우 많이 수집하여 사항에 따라 고찰하여 기록을 완성하였지만, 장령 박세채의 요청에 급히 응하느라 미처 수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형지씨가 이 초고(草稿)를 여러 사람에게 두루 보여 주었고 또 수찬 조근(趙根)에게 질정한다면 다음 연보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만류하면서 말하기

33 박 상사(朴上舍) : 박광후(朴光後, 1637~1678)이다.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사술(士述), 호는 안촌(安村)이다. 24세에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문하에 들어가 문인이 되었고, 30세에 생원, 곧 상사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이후 벼슬길에 나갈 뜻을 접고서 오로지 성현의 학문에 전심하던 중 42세의 나이에 생애를 마쳤다. 문집으로는 《안촌세고(安村世稿)》가 있다.

34 형지씨(亨祉氏) : 하서(河西)의 증손인 김형지(金亨祉)를 가리킨다.

를 “이것은 훌륭한 작자(作者)가 채택해서 글을 완성하는 데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감히 사양하지 않겠지만 곧바로 연보로 만든다면 제가 어찌 감히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기록은 잠깐 사이에 고거(考據)하고 수시로 적은 것이라 글이 대부분 두서가 없으니 훗날의 군자(君子)를 천천히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대략 수정하였으되 다 마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차 간행하려 한다는 말을 또 들으니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형이 찌를 붙여 바로잡아 준 것을 보니 저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성대한 뜻을 알겠습니다. 형이 표시한 곳은 23곳뿐입니다. 그중 8곳은 곧장 형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제 견해로 고쳐 정한 곳이 또한 두어 곳이고 중간에 더러 문집 가운데 본문을 잘못 필사한 곳이 있으니 살펴 바로잡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따를 수 없는 곳이 반이 넘는 데, 더러 문체가 적당하지 않거나 사실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화담(花潭)에게 차운(次韻)한 시의 끝 구절은 선생께서 차운한 시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하 비슷한 부류는 마땅히 같은 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한 말은 저도 일찍이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고치지 못하였는데 지금 무신년(1548, 명종3) 아래에 옮겨 기록하였습니다.

선조의 이름을 휘(諱)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지 ‘기금강(奇錦江)’³⁵이라고 한 것은 본래 온당치 못하고 형의 가르침 또한 온당치 못한 듯합니다. 제가 만약 작자(作者)로 자처하고 또 이 글을 후세에

35 기금강(奇錦江) : 금강은 기효간(奇孝諫, 1530~1593)의 호이다. 기정익의 고조부(高祖父)로, 김인후(金麟厚)와 이항(李恒)의 문인이며, 기대승(奇大升)의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전할 단안(斷案)으로 삼으려 한다면, 삼가 주자가 지은 〈연평행장(延平行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위재(韋齋)³⁶를 일컬은 부분에서 ‘모(某) 선군자(先君子) 이부 부군(吏部府君)’이라 하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일컬을 때는 곧바로 그 이름을 썼으니, 다른 사람에 대해 이름을 칭한다고 해서 휘(諱)해야 할 대상을 휘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 외조부 축확(祝確)에 대한 글³⁷에서 또 위재를 ‘선군자’라고 하였으니 압존(壓尊)한다고 해서 휘해야 할 대상을 휘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조를 휘할 때에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따져서는 안 될 듯합니다. 이는 많이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선생의 문집과 행장 끝에 모두 선조의 이름이 있고, 또한 선조가 저술한 글과 보유(補遺)에도 그 호(號)를 칭하였으니, 후인들이 더러는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 선조를 휘하지 않았습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편지에서 운운한 것은 감히 이 연보를 후세에 전할 글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선 성(姓)과 호를 써서 입언자(立言者)가 개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또 연보의 기사에는 모두 서발(序跋)이 있고 곧바로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만약 이 연보를 그대로 간행하게 한다면 마땅히 ‘모 선조 금강공’이라고 고쳐야 하겠지만, 우선 감히 후세에 전하는 것으로 자처하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점이 있으면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36 위재(韋齋) : 주희의 부친인 주송(朱松)의 호이다. 이부랑을 지냈다.

37 외조부……글 : 《회암집》 권98에 실린 〈외대부축공유사(外大父祝公遺事)〉를 가리킨다.

신 안사³⁸ 익상 에게 답함

答申按使 翼相

예전에 《석담일기(石潭日記)》³⁹를 보았는데 그 본(本)에 끝 권(卷)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경연일기(經筵日記)》 2편이 바로 《석담일기》에서 빠진 부분이니, 실로 본은 하나이지만 명칭은 둘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이 일기는 바로 선생께서 부득이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죄주는 뜻⁴⁰이 있지만 그 체례(體例)는 《춘추(春秋)》의 필법과 다르고, 사관(史官)이 사실을 기록하는 방법에 의탁하였지만 그 직임은 끝내 사관이 아닙니다. 다만 당일의 일기 형식을 빌려 대략 역사를 기록하는 법에 붙여 야사(野史)의 체례로 지

38 신 안사(申按使) : 신익상(申翼相, 1634~1697)으로,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자는 숙필(叔弼)이고, 호는 성재(醒齋)이다. 1680년(숙종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대거 숙청된 후 도승지가 되었고, 이어 이조 참판, 전라도 관찰사, 부제학, 평안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682년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 시에 《울곡집(栗谷集)》의 《속집(續集)》과 《별집(別集)》을 전주(全州)에서 판각하였다. 저서로 《성재집(醒齋集)》이 있다.

39 석담일기(石潭日記) : 울곡(栗谷) 이이(李珣)가 정리한 경연 참석 때의 일기를 말한다. 1565년(명종20)부터 1581년(선조14)까지의 내용으로, 《경연일기(經筵日記)》라고도 한다. 《울곡전서(栗谷全書)》 권28~권30에 실려 있다. 석담은 이이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 머물던 곳으로, 황해도 해주(海州)에 있다.

40 나를 알아주고……뜻 : 선생을 알아주고 선생을 죄주는 것이 모두 《석담일기》를 통해서라는 말이다. 공자가 주(周)나라 왕실이 어지러워지자 《춘추(春秋)》를 지어 난신적자(亂臣賊子)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는데, 《춘추》는 천자(天子)가 하는 일이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알아주는 것도 오직 《춘추》이며 나를 죄주는 것도 오직 《춘추》이다.[知我者, 其惟春秋乎; 罪我者, 其惟春秋乎.]”라고 하였다. 《孟子 滕文公下》

있을 뿐입니다. 선생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부득이해서이지만 그 뜻은 당대에 간행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석담(石潭)에 보관해 두고 세상에 내지 않았는데, 저는 《석담일기》가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온 것을 매번 의심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외집(外集)에 붙여 당대에 간행한다면 선생의 본의가 아닐 듯하고 또 근거할 만한 예도 없으니, 아마도 모르는 자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허위로 모함하여 우리 선생의 대공지정(大公至正)한 마음에 누를 끼칠 듯합니다. 그러니 또 어찌 유자광(柳子光) 같은 자가 몰래 다시 화란(禍亂)을 일으키지 않으리라 보장하겠습니까.⁴¹ 의리(義理)만을 보고 훗날의 화복(禍福)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비록 군자의 떳떳한 도리지만 치밀하지 못할 경우 잘못되기 마련이며, 괘낭무구(括囊無咎)⁴² 또한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주관하는 자가 장구하게 고려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선 선생의 본래 뜻대로 석실(石室)에 보관해 두고서 다만 훗날에 알아볼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사문(斯文)의 중대한 일이라 대략 저의 소견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삼가 판단해 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한(李漢)이 《창려문집(昌黎文集)》을 편차(編次)할 때에 《순종실록(順宗實錄)》이 사서(史書)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문집에 실지 않

41 유자광(柳子光)……보장하겠습니까 : 유자광이 1498년(연산군4)에 《성종실록(成宗實錄)》의 사초(史草)에 실린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문체 삼아 김종직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김일손(金駟孫) 등 신진 사류를 제거한 무오사화(戊午士禍)를 일으켰듯이, 《석담일기》를 문체 삼아 울곡 이이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42 괘낭무구(括囊無咎) : 《주역(周易)》 <곤괘(坤卦) 육사(六四)>에 나오는 말로, 마음속에 감추어 두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있는데 여러 본도 이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자가 비난하기를 “당시 상황에 근거하여 말해 보면 매우 옳은 것은 아니다. 게다가 여러 본은 공이 살던 시대와 더욱 멀고 당시의 사체(事體)와 비교해서 같지 않다. 그러니 모두 수습해서 실추시키는 일이 없게 해야 하고 구차한 논의로 한정을 지어 빠뜨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⁴³라고 하였습니다. 주자의 뜻은 ‘한공(韓公)은 당시의 사관(史官)이니 그의 직필(直筆)이 반드시 당시 사람들에게 구차하게 꺼리는 바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훗날의 여러 본도 더욱 꺼릴 것이 없다.’라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선생께서 사관의 직임을 맡았다면, 후학은 마땅히 주자가 “꺼릴 것이 없다.”라고 한 말을 따라야 하지만, 선생은 당시 사문(斯文)의 종장(宗匠)으로서 단지 《춘추》의 유법(遺法)에 의거해서 이 일기를 서술하여 훗날의 단안으로 삼으려는 뜻이 있었고, 감히 스스로 사관의 직임을 행하지 않았으니 또한 이른바 “정상이 애처롭다.”⁴⁴라는 것입니다. 선생의 지위와 당시의 형세가 하나같이 공자(孔子)와 같았다면 지금 간행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종사(從祀)의 청을 허락 받은 뒤로부터 선생의 흠을 잡는 자가 날이 갈수록 참독(慘毒)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미리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43 당시……된다 : 이한(李漢)의 설에 대해 주희가 평한 말로, 《별본한문고이(別本韓文考異)》 권48에 보인다.

44 정상이 애처롭다 : 이이가 사관이 아닌데도 《석담일기》를 통해 사관의 직무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공자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오직 《춘추》이며 나를 죄주는 것도 오직 《춘추》이다.”라고 하였는데, 호안국(胡安國)은 이에 대해 공자가 지위가 없이 남면(南面)의 권세를 가탁해서 난신적자(亂臣賊子)로 하여금 횡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정상이 애처롭다고 풀이하였다.

차라리 몇 개의 본(本)을 정서(淨書)해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 교정한 다음 각각 본원(本院)에 보관하여 훗날 이 책임을 맡을 자를 기다리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초 상현 에게 답함

答朴景初 尙玄

음양소장설(陰陽消長說)

《음양소장도(陰陽消長圖)》와 그에 대한 설은 이해하였지만, 그 설 가운데 ‘굴신(屈伸)’ 이하는 불씨(佛氏)의 윤회(輪廻)의 뜻이 있는 듯 하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굴신’ 이하를 보면, 말은 순하지만 뜻은 막혀 있습니다. 음양이 굴신하는 것은 이미 굽힌 것을 가지고 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간 것은 지나가고 오는 것은 이어지기 때문에, 옛날이 또 돌아와서 지금이 되거나 지금이 또 돌아가서 옛날이 되는 것이 아니며, 죽음이 다시 돌아서 삶이 되거나 삶이 다시 돌아서 죽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나간 것은 사라짐(消)이 되고, 내일 오는 것은 자라남[長]이 되는 것이 바로 소장(消長)의 이치입니다. 불씨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윤회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설(理說)

이설에 대해서는 대략 이해하였지만 “이(理)는 사물의 묘용(妙用)이다.”라고 한 말은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이(理)를 사물의 주재(主宰)라고 말한다면 옳으나 묘용이라고 말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밑의 체용(體用)에 관한 논의에서 명확한 의미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기설(道器說)

형이상하(形而上下)에 대한 설은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형

이상(形而上)은 무형(無形)을 말하고 형이하(形而下)는 유형(有形)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형과 유형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형체로부터 이상은 소리와 냄새가 없기 때문에 ‘무형’이라고 하고, 형체로부터 이하는 모두 형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而上)’과 ‘이하(而下)’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상(上)은 상승(上昇)의 상이 아니고 하(下)는 하강(下降)의 하가 아니며, 또한 재상(在上)의 상이 아니고 재하(在下)의 하가 아니며, 또한 상면(上面)의 상이 아니고 하면(下面)의 하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사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록 형체는 있으나 그 이치는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것을 ‘형이상’이라고 하고, 비록 이치는 있으나 그 사물은 형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용할 수 있는 것을 ‘형이하’라고 합니다. 그 뜻은 ‘무형이상(無形而上)’, ‘유형이하(有形而下)’라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유(有) 자와 무(無) 자를 놓는다면 사람들이 유형 밖에서 무형을 찾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형(形)’ 한 글자만 놓아서 도(道)와 기(器)가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밝혔고, 또 상(上) 자와 하(下) 자로 유형과 무형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자가 “기(器) 또한 도(道)이고, 도 또한 기이다.”라고 하셨고, 또 “유형은 모두 기이고 무형은 도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경문(經文)을 고찰해 보고 선각(先覺)에게 질정해 보면 해와 별처럼 그 이치가 분명하여 본래 의심할 것이 없는데, 형은 도리어 “형이상은 건(乾)을 말하고 형이하는 곤(坤)을 말한다.”라고 하니 무슨 의견이 있어서입니까? 경문으로 고찰해 보아도 원래 상하의 문세(文勢)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자의(字義)로 미루어 보아도 고금의 논설에 근거한 바가 없으니 참으로 의혹스럽습니다. 한퇴지(韓退之)가 “위에

형체가 있는 것을 천(天)이라고 하고, 아래에 형체가 있는 것을 지(地)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형(形)’자로 곧바로 천지(天地)를 지칭하였기 때문에 그 말이 참으로 병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명(高明)의 견해는 도기를 건곤으로 여기고 건곤을 곧바로 천지의 형체로 간주하니, 무슨 견해입니까?

건곤이라는 것은 천지의 성정(性情)이니, 공자가 어찌 형이상하를 건곤이라고 말하였겠습니까. 천지의 성정을 형체로 말할 수 있다면 사람의 성정도 형체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게다가 형이 인용한 이른바 “건곤이 열(列)을 이룬다.[乾坤成列]”⁴⁵라는 말은 분명 건과 곤을 괘(卦)로 그은 명칭인데 형은 이를 원용하여 천지의 형체로 삼고 이로 인하여 형이상하로 명명하고자 하니 또 무슨 뜻입니까? 형이 일전에 ‘이상(而上)’과 ‘이하(而下)’ 네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허다한 다른 견해를 만들어낸 것이니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제 견해가 비록 비루하지만 형이상하에 관한 설로 말하자면 매우 분명한 듯하니, 모쪼록 사람이 형편없다고 좋은 말까지 버리지 마십시오. 만약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다시 가르쳐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주자가 말하기를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은 하나일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주자가 과연 마음을 두 마음으로 여겼겠습니까? ‘혹원(或原)’과 ‘혹생(或生)’이라는 말⁴⁶을 가지고 두 마음으로 간주한다면, 경

45 건곤이 열(列)을 이룬다 : 《주역(周易)》〈계사전 하(繫辭傳下)〉에 보인다.

46 혹원(或原)과 혹생(或生)이라는 말 : ‘혹원’과 ‘혹생’은 〈중용장구 서(中庸章句序)〉에 “혹은 형기(形氣)의 사사로움에서 생기고, 혹은 성명(性命)의 바름에 근원한

문에 이른바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라는 것도 또한 두 마음으로 간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심을 형기(形氣)에 소속시키고 도심을 성명(性命)에 소속시킨 것은 형기와 성명의 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이지만 동(動)하는 곳을 가리키면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형기에 감응하여 동하는 것을 인심이라고 하니 인심은 형기가 있기 때문이고, 의리에 감응하여 동하는 것을 도심이라고 하니 도심은 의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성명에 근본하지만 동하는 곳에 따라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사(私)’라고 하고 ‘정(正)’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방촌(方寸)에 섞여 있다.”라는 말은 바로 공과 사 두 가지인데, 이것을 가지고 두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형기의 사사로움은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위태롭다고 하고 성명의 이치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은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일(精一)의 공부를 한 뒤에야 위태로운 것은 안정되고 은미한 것은 드러나니, 어찌 명칭과 의미가 뒤섞인 것이 있겠습니까. 선성(先聖)께서 주고받은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후성(後聖)께서 서로 전한 것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주부자(朱夫子)가 그 이치를 훤히 보고 밝게 분석하였으므로 아주 조금도 의심할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은 도리어 이것을 믿지 않고 감히 별도로 유위무위(有爲無爲)의 설⁴⁷을 세운 것은 어째서입니까?

형이 유위무위의 설로 스스로 천고(千古)에 전해지지 않는 오묘한

다.[或生於形氣之私, 或原於性命之正.]”라는 말을 줄인 것이다.

47 유위무위(有爲無爲)의 설 : 박상현의 《우헌집(寓軒集)》에는 이에 대한 설이 보이지 않으나, 기정익과 윤증이 박상현의 설에 대해 논한 편지를 참고해 볼 때, 율곡 이이의 “기는 함이 있고 이는 함이 없다.[氣有爲而理無爲]”라는 주장을 말하는 듯하다.

이치를 터득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설이 과연 경문의 뜻에 합치되며, 마음의 이치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발하기 전의 상태에 있을 때는 참으로 유위한지 무위한지 볼 수 없다가 발한 다음에는 모두 유위합니다. 효심(孝心)은 아버지를 위해 발하고 충심(忠心)은 임금을 위해 발하니, 인의예지가 모두 유위해서 발하는데 도심을 과연 무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심과 도심은 모두 유위해서 발하고 공과 사는 이(理)와 기(氣)가 하는 바에 따라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쉽게 알 수 있는 이치인데 형이 도리어 이러한 견해를 세우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아마도 고명(高明)이 본체(本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오히려 한 겹의 막(膜)이 가로막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형의 견해에서는 새로운 뜻을 찾을 수 없고 주자의 설을 더욱 독실하게 믿을 뿐입니다.

장남헌(張南軒)이 말하기를 “목적한 바가 없이 행하는 것은 의(義)이고 목적한 바가 있어 행하는 것은 이(利)이다.”⁴⁸라고 하였으니, 이는 행(行)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지 본래 마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은 잘못 알고 주장하여 인심과 도심의 논의에 끌어다 붙인 것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경문의 뜻에 더욱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아울러 남헌의 뜻과도 다르게 됩니다. 형은 어찌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십니까? 도(圖)에서 동(動)을 인심에 소속시키고 정(靜)을 도심에 소속시킨 것은 더욱 잘못되었습니다. 그 의미와 형상이 모두 정밀하고 합당하

48 장남헌(張南軒)이……이(利)이다 : 《근사록(近思錄)》 권7 〈출처류(出處類)〉 ‘맹자변순척지분(孟子辨舜跖之分)’의 주(註)에 보인다. 장남헌은 주희(朱熹)의 벗으로, 주희, 여조겸(呂祖謙)과 함께 동남(東南)의 삼현(三賢)으로 일컬어진 장식(張栻)을 가리킨다.

지 못한 이유는 모두 본지(本旨)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니, 더 이상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심도심보설(人心道心補說)

다시 도(圖)의 의미와 편(篇)에 실려 있는 “인심은 동(動)을 주장하고 도심은 정(靜)을 주장한다.”라는 등의 말로 고찰해 보면, 이른바 ‘유위무위(有爲無爲)’라는 것을 바로 동정에 소속시켜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유위무위에 대해 논의한 것이 도리어 고명(高明)의 병통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 또한 제가 그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이지만, 이제야 고명의 병통이 과연 나정암(羅整庵 나훈순(羅欽順))의 견해에서 나왔음을 알겠습니다. 나정암이 처음 이러한 견해를 내세워서 인심과 도심을 곧바로 성(性)과 정(情)에 소속시켰고, 노소재(盧蘇齋 노수신(盧守愼))가 깊이 이 설을 취하였는데, 퇴계(退溪)와 고봉(高峯)이 이미 힘써 논변하였으니, 저로서는 다시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형이 이미 도심을 정(靜)에 소속시키고 인심을 동(動)에 소속시켰는데, 또 어찌하여 유미(惟微)와 유위(惟危)⁴⁹를 일심(一心)의 병통으로 나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일심의 동과 정이 모두 병통이 있게 됩니다. 이른바 도는 원래 동정에 관계가 없으니, 성인께서 어찌하여 도(道) 자를 심(心) 자 앞에 붙였겠습니까. 만약 정(靜)만을 귀하여 여겨 반드시 도(道) 한 글자를 붙인다면, 이는 정(靜) 한쪽만 도가

49 유미(惟微)와 유위(惟危) : 《서경》〈대우모(大禹謨)〉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다.[人心惟危, 道心惟微.]”라고 한 말을 줄인 것이다.

있게 되고 동(動) 한쪽은 원래 도가 없는 것이 됩니다. 비록 성인의 마음으로도 반드시 정(靜)할 때에야 성인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이미 동(動)한 뒤에는 중인(衆人)의 마음과 똑같게 되니 이것이 어찌 이치에 맞겠습니까. 또 정일(精一)과 집중(執中)은 모두 마음이 동한 뒤의 공부와 공효(功效)인데, 형은 도심을 정에 소속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동하지 않을 때 정일과 집중의 공부를 장차 어디에 귀결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발(發)하기 전에 중(中)을 구할 수 없다.”⁵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아직 동하기 전에 유독 ‘정일’이라는 글자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한 “마음은 하나인데 동하는 곳을 가리키면 두 가지 명칭이 있다.”라는 말과, “마음은 성명에 근본을 두지만 동하는 데 있어 공과 사로 나뉜다.”라는 등의 말을 보면, 인심과 도심을 해석하는 데 있어 병폐가 없어서 이른바 정일과 집중의 공부를 귀결시킬 수 있을 듯합니다. 바라건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理)는 지각할 수 있지만 기(氣)는 지각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를 기로 인식하고 기를 이로 인식한 것이니 매우 우려가 됩니다. 여러 설 가운데 말의 병통이 여기에 그치지 않지만 병통마다 다시 말할 겨를이 없고, 저의 주장도 필시 병통이 더욱 많을 것인데 제 스스로 알지 못하니 한탄할 뿐입니다.

50 희로애락(喜怒哀樂)이……없다 : 《이정유서(二程遺書)》 권18 <이천선생어(伊川先生語)> 82조에 “희로애락이 발하기 전에 존심양성(存心養性)한다고 말한다면 괜찮지만, 희로애락이 발하기 전에 중(中)을 구한다고 말한다면 불가하다.[若言存養於喜怒哀樂未發之時則可, 若言求中於喜怒哀樂未發之前則不可.]”라고 하였다.

성설(性說)

성에 체용(體用)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취[迹]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체(體)라고 하겠습니까? 성(性)에 인(仁)의 이치가 있고 의(義)의 이치가 있고 예(禮)의 이치가 있고 지(智)의 이치가 있으니, 통합해서 말하면 선(善)한데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를 체라고 합니다. 무엇을 용(用)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자(父子)간에 감응하여 인이 발하고, 군신(君臣)간에 감응하여 의가 발하고, 부부(夫婦)간에 감응하여 예가 발하고, 장유(長幼)간에 감응하여 지가 발하니, 인의예지가 발하여 만선(萬善)이 되는데 이미 발한 상태를 용이라고 합니다. 저의 견해는 이러한데, 이른바 자취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형의 성(性)에 대한 논의가 또한 그다지 어긋나지 않지만 굳이 인의예지를 성의 자취라고 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자취라는 것은 발의 흔적의 명칭인데, 성에 언제 자취가 있었습니까. 인의예지가 성의 자취라고 한다면, 이는 성 가운데 본래 인의예지의 이치가 없다가 성이 사물에 발한 뒤에야 홀연히 인의예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옳겠습니까. 정자가 말하기를 “귀신(鬼神)은 조화(造化)의 자취이다.”⁵¹라고 하였으니, 조화의 오묘함이 음양의 기(氣)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 가운데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理)를 성의 자취라고 한다면, 이는 응당 가계 마련인 발의 이치를 가지고 곧바로 발의 흔적으로 여기는 것이니 이것

51 귀신(鬼神)은 조화(造化)의 자취이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6장에 공자가 “귀신의 덕이 성대하다.[鬼神之爲德, 其盛矣乎!]”라고 한 데 대한 정자의 주석에 “귀신이란 천지(天地)의 공용(功用)이요 조화의 자취이다.”라고 하였다.

이 어찌 이치이겠습니까. 또 “원형이정(元亨利貞)은 도의 자취이다.”라는 말도 모두 옳지 않으니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형이정은 천도(天道)의 떳떳함이고 인의예지는 인성(人性)의 버리이다.”라는 말이 참으로 지극한 말입니다.

사단(四端)에 대해 논해 보면, 인의예지는 사단의 체(體)이고 사단은 인의예지의 용(用)입니다. 중선(衆善)에 대해 논해 보면, 인의예지는 중선의 큰 버리이고 중선은 인의예지의 작은 버리입니다. 사단과 중선은 모두 인의예지에 근본을 두는데 인의예지는 단지 하나의 성(性)일 뿐입니다. 성은 하나의 이치이지만 하나의 이치 가운데 온갖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의예지만 사단의 근본이 되고 중선의 버리가 되어 정(靜)하면 체가 되고 동(動)하면 용이 되어 천하만사가 모두 그 가운데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형의 “인의예지의 이치가 네 가지가 있는 적이 없다.”라는 말이 옳겠습니까, 그르겠습니까? 형은 다만 성은 하나의 이치라는 사실만 알고 하나의 이치 가운데 곧 온갖 이치가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금 없는 저울이요 치수 없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합하여 말하면 하나의 이치이고, 나누어 말하면 네 가지 성일 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어 털끝만큼도 흠결이 없는 것이 성입니다. 이와 같은 성의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수(論數)

정자가 성(性)에 대해 논하기를 “성(性)을 논하고 기(氣)를 논하지 않으면 조리가 갖추어지지 않고, 기를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조

리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그대와 사우(士佑)⁵²가 수(數)를 논의한 말에 대해, 또한 ‘수를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았으니 조리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기를 논하고 수를 논하지 않았으니 조리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우의 견해는 기를 논하고 수를 논하지 않았고, 고명(高明)의 견해는 수를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한쪽으로 치우쳐 서로 합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우의 견해대로라면 자공(子貢)이 영민(英敏)한 자질로 시종 공자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끝내 성인(聖人)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과연 형이 논한 것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어찌 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명의 견해대로라면 자공이 처음에는 재산을 불렀는데 나중에는 성(性)과 천도(天道)를 듣기까지 하였으니, 한 사람의 수(數)인데 처음에는 어찌 재화를 불리는 일에 종사하였다가 결국에는 어찌 성과 천도를 듣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기질이 변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물건이 태어난 것은 모두 기(氣)와 수(數)인데, 수는 바꿀 수 없지만 기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기는 변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理)는 기(氣)를 타고 행하고 기는 이를 태우고 움직이니, 이가 기의 주체가 되고 기가 이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천리(天理)를 따르고 사욕(私慾)을 막을 수 있으면 흐린 기품(氣稟)이 점차 맑게 변합니다. 그러므로 집안 살림살이를 때려 부순 자가 결국에

52 사우(士佑) : 유세익(柳世翊)의 자이다. 본관은 서산(瑞山)으로 광주 동곡(東谷)에 살았고, 호는 회와(梅窩)이다. 서산 유씨 유익서(柳益瑞)가 기정익의 매부였던 까닭에 일가가 모두 기정익의 문인이 되었다. 문집으로 《회와유고(梅窩遺稿)》가 있다.

는 군자(君子)가 되었고,⁵³ 사냥을 좋아하던 자가 결국에는 대현(大賢)이 된 것입니다.⁵⁴ 그렇다면 어찌 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기는 수에 의지해서 행하고 수는 기에 의해 정해지니, 기가 비록 작용하더라도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물건이 태어나서 한번 수에 국한되면 끝까지 그 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성(亞聖)의 현인(賢人)도 결국 가난하게 살다가 요절하였고,⁵⁵ 하늘이 내신 성인(聖人)도 끝내 필부(匹夫)가 된 것입니다.⁵⁶

53 집안……되었고 : 여조겸(呂祖謙)의 사례를 말한 것이다. 《심경부주(心經附註)》 권1 <징분질육장(懲忿窒慾章)>에 주희가 여조겸에 대해서 “그는 젊었을 적에 성질이 거칠고 사나워서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언짢게 여겨 집안의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곤 하였는데, 뒷날 오래도록 병을 앓으면서 단지 《논어(論語)》 한 책을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익숙히 보다가 ‘자기를 책망함은 후하게 하고 남을 책망함은 적게 한다.’라는 대목에 이르러 홀연히 마음속 생각이 한순간에 평온해짐을 깨달아서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분노를 폭발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기질을 변화시키는 법으로 삼을 만하다.〔說少時性氣粗暴，嫌飲食不如意，便打破家事，後日久病，只將一冊論語，早晚閑看，至‘躬自厚而薄責於人’忽然覺得意思一時平了，遂終身無暴怒，此可爲變化氣質法。〕”라고 평한 말이 있다.

54 사냥을……것입니다 : 정호(程顥)의 사례를 말한 것이다. 《심경부주》 권1 <천선개과장(遷善改過章)>에 “내가 16, 17세 때에 사냥을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이 버릇이 없어졌다.’라고 하였더니, 주무숙(周茂叔, 주돈이)이 이르기를 ‘어찌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가. 단지 그 마음이 밑에 숨어서 발하지 않은 것일 뿐이니, 어느 날 싹터서 일어나면 다시 처음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뒤에 저녁에 돌아오다가 전야(田野)에서 사냥하는 자를 보고는 나도 모르게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니, 과연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予年十六七時，好田獵，既而自謂已無此好。周茂叔曰“何言之易也？但此心潛隱未發，一日萌動，復如初矣。”後十二年暮歸，在田野間，見田獵者，不覺有喜心，方知果未也。〕”라고 한 정호의 말이 있다.

55 아성(亞聖)의……요절하였고 : 안회(顏回)의 사례를 말한 것이다. 《사기(史記)》 권61 <백이열전(伯夷列傳)>에 “안회는 자주 굶주렸으며 술지게미조차 배불리 먹지 못했으나 일찍 죽었다.〔回也屢空，糟糠不厭而卒蚤夭。〕”라는 말이 있다.

56 하늘이……것입니다 : 공자(孔子)의 사례를 말한 것이다. 자공(子貢)이 공자에 대

어떻게 기는 변할 수 있지만 수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봄이 변하여 여름이 되고 가을이 변하여 겨울이 되며 목화금수(木火金水)가 서로 미루어 변하지만, 1·6의 수는 1·6에 국한되므로 변하여 2·7이 될 수 없고, 3·8의 수는 3·8에 국한되므로 변하여 4·9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 기후가 만 가지로 변하지만 12시(時) 100각(刻)의 수는 끝내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악(惡)은 변하여 선(善)이 될 수 있지만 명(命)은 길흉(吉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논한다면 또한 조리가 갖추어지고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태극무극해(太極無極解)

이(理)를 어찌하여 태극(太極)이라고 하겠습니까? 태(太)는 '심대(甚大)'의 뜻이고, 극(極)은 모든 사물의 지극히 높은 부분으로, 이것을 모두 극이라고 합니다. 이(理)의 지극히 높은 부분은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태극'이라고 하니, 그 뜻은 '심대한 극'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무극(無極)이라고 하겠습니까? 비록 심대한 극이라도 형체와 그림자가 없고 소리와 냄새가 없어 이른바 극이 없기 때문에 '무극'이라고 하니, 그 뜻은 '무형(無形)의 극'과 같습니다. 무극과 태극에 대한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러한데, 형은 도리어 '다함이 없이 생겨나고 생겨나는 것(生生不窮)'을 무극이라고 하니 이는 무슨 견해입니까? '불궁(不窮)' 자를 '무극' 자로 해석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극(極)' 자

해 "진실로 하늘이 내려 성인이 되게끔 하신 분이다.[固天縱之將聖]"라고 하였다. 《論語 子罕》

의 뜻은 ‘궁(窮)’ 자의 뜻이 되는데, 태극을 또한 ‘태궁(太窮)’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주부자의 《태극도설주해(太極圖說註解)》를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또 주부자가 일찍이 사람을 가르칠 때에 “경문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문의(文義)를 알아야 한다. 문의의 해석에 통달한 뒤에야 경문의 뜻을 알 수 있으니, 문의를 알지 못하면 애당초 성인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는데 성인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주자의 말씀이 대체적으로 이러하니 이것이 어찌 경문을 읽는 지극한 요령이 아니겠습니까.

근간에 형이 경문을 읽고 지은 설을 살펴보니, 대체로 문자를 아는데 얽매어서 문의가 두루 통하지 않는데도 지레 다른 견해를 세워 이전 사람이 터득하지 못한 이치를 터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리어 바른 견해에 대한 큰 흠입니니다.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에서는 ‘인(人)’과 ‘도(道)’ 자의 뜻을 살피지 못하였고, <도기설(道器說)>에서는 ‘이상(而上)’과 ‘이하(而下)’ 자를 살피지 못하였으며, <성설(性說)>에서는 ‘적(迹)’ 자를 잘못 놓았고, 이제 또 <태극해(太極解)>에서는 ‘궁(窮)’ 자를 가지고 ‘극(極)’ 자를 해석하였습니다. 만약 ‘불궁’ 자를 결코 ‘무극’ 자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 설에 관한 의혹이 결국에는 점차 풀릴 것입니다. 형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극’을 과연 ‘태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태극’을 ‘태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무극’을 ‘무궁극(無窮極)’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태극과 무극의 ‘극’ 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결코 감히 형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독역(讀易)

《주역》은 읽기 어렵고 연구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고 말하기 어려우니, 몽매한 제가 감히 함부로 논의할 수 있는 바가 아니지만, 형이 달리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논의할 것이 있어 끝내 그 만들 수 없습니다. 《주역》은 상수(象數)에서 생겨났는데 지극한 이치가 담겨 있고, 점결(占決)에 사용되었는데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러므로 성인께서 괘(卦)에 말을 붙인, 예컨대 문왕(文王)의 단사(象辭), 주공(周公)의 효사(爻辭), 공자의 전(傳) 같은 경우는 각기 그 격식이 있어, 의리(義理)로만 말한 것이 있고, 상(象)으로만 말한 것이 있으며, 점결로만 말한 것이 있고, 수(數)로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역》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지극한 이치로서 하나라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전(程傳)은 의리로만 해석하였고, 본의(本義)는 점결로만 해석하였으며, 소강절(邵康節)은 그 수(數)를 터득한 자이지만 상수역(象數易)만은 전해지지 않았고, 왕필(王弼)과 순상(荀爽)은 《구가역(九家易)》을 남겼지만 지금은 고찰할 수 없습니다. 《주역》을 배우는 자가 정전을 위주로 하여 그 의리를 터득하고, 본의를 위주로 하여 그 점결을 터득하고, 소강절의 학설을 위주로 하여 그 수(數)와 점(占)을 터득하면, 모두 충분히 《주역》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역》을 읽을 때에는 하나의 격식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이치를 따르고 의리를 통하게 하여 경문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면, 각기 표방한 격식을 위주로 읽는 것이 바로 《주역》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정자와 주자의 해석이 비록 같지 않은 곳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극한 논의가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자와 주자의 설로 읽어도 통하지 않으면 우러러

생각하고 고개 숙여 책을 읽되, 끝내 이해하지 못한 뒤에야 이전의 견해를 버리고 새로운 견해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의심해서는 안 될 부분에서 지레 먼저 의심해서 이른바 별도의 신기한 견해를 찾는다면 정학(正學)에 가장 큰 해가 될 것입니다.

선갑후갑(先甲後甲)에 대한 설⁵⁷은 저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형이 이해한 것 또한 문의(文義)에 합치하는지 알 수 없으니, 이 부분은 바로 우러러 생각하고 굽어 책을 읽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건괘(乾卦) 구삼(九三)과 고괘(蠱卦) 초육(初六)은 모두 의심해서는 안 되는데 의심하였습니다. 관괘(觀卦) 단사(象辭)에서 ‘불(不)’ 자를 ‘비(丕)’의 뜻으로 보는 것⁵⁸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른바 신기한 것을 찾는 병통이니 모두 옳지 않습니다. 무릇 제사를 지낼 경우에 손만 씻고 제수(祭需)를 올리지 않았을 때에는 성의(誠意)가 한결같다가 제수를 올린 뒤에는 성의가 올리기 전과 절로 같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자가 “강신주(降神酒)를 따른 뒤부터는 보고 싶지 않다.”⁵⁹라고 탄식하신 것은, 비록 노(魯)나라의 임금과 신하

57 선갑후갑(先甲後甲)에 대한 설 : 선갑후갑은 《주역》〈고괘(蠱卦)〉괘사(卦辭)의 “갑으로 먼저 3일이요, 갑으로 뒤에 3일이다.[先甲三日, 後甲三日.]”라는 말을 해설한 것인데, 선갑삼일(先甲三日)은 십간(十干)의 순서상 갑일(甲日)을 기준으로 그보다 3일 전인 신일(辛日)에 해당하고, 후갑삼일(後甲三日)은 갑일보다 3일 뒤인 정일(丁日)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58 관괘(觀卦)……것 : 《주역》〈관괘〉에 “손만 씻고 아직 제수를 올리지 않으면 믿음이 있어서 공경한 마음으로 우러러볼 것이다.[盥而不薦, 有孚顒若.]”라고 하였는데, 박상현은 ‘관이불천(盥而不薦)’을 ‘관이비천(盥而丕薦)’으로 보아 “손을 씻고 성대하게 제수를 올리면”이라는 뜻으로 풀이하였다는 말이다.

59 강신주(降神酒)를……않다 : 《논어》〈팔일(八佾)〉에 “체(禘) 제사는 강신주를 따른 뒤로부터는 나는 보고 싶지 않다.”[禘自既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라고 한 공자의 말이 보인다.

들이 오로지 성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강신주를 따른 뒤부터는”이라고 한 것을 보면, 강신주를 따르기 전에는 오히려 불만한 성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존경한다.[有孚顒若]”라는 말은 바로 손을 씻고 제수를 올리지 않았을 때의 상(象)인데 형은 무슨 견해로 이렇게 ‘비(조)’의 뜻으로 보십니까? 이와 같은 곳은 작은 병통이 아니니 속히 고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그 나머지 견해는 또한 하나의 격식에 구애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마땅히 어떤 것으로 지어야 한다.’라는 곳이 너무 많으니, 모두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병통일 뿐입니다.

예전에 이계현(李啓玄)이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상수역을 공부하여 그 해석이 매우 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격식으로 몇 권을 읽어 보았더니 더러 터득한 곳이 있었는데 뒤에 제가 근심 때문에 학문을 폐기하여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사람과 때때로 《주역》을 논한다면 응당 크게 유익할 것이니 어찌 옛날 대나무 껍질을 벗기는 노인⁶⁰의 부류가 아니겠습니까.-그러나 이 사람은 바로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논의가 정자와 주자의 정로(正路)에 근본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잘못된 견해도 이 사람이 열어 준 것입니까?-

60 대나무……노인 : 《주역》에 매우 정통하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을 말한다. 정자(程子)의 아버지 정향(程珦)이 촉(蜀) 땅의 광한 태수(廣漢太守)로 있을 때, 형제가 성도(成都)에 나갔는데 대껍질을 벗겨서 대통을 만드는 자가 《주역》을 끼고 있었다. 그 사람이 《주역》〈잡괘전〉에 나오는 말을 풀이해 정자 형제가 환하게 깨달았다. 뒤에 원자(袁茲)가 《주역》에 대해서 물어보니 정자가 역학(易學)은 촉 땅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大明一統志》

박경초에게 답함

答朴景初

가르쳐 주신 성리(性理)에 대한 글은 미처 잠심(潛心)해서 완미(玩味)하고 체득해서 연구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 대지(大旨)는 삼가 이미 파악하였습니다. 그중에 실로 제 생각과 합치되지 않은 것이 있기에 대략 이렇게 한두 가지 말하니 형은 살펴 주십시오. 형이 “맹자(孟子)는 양(陽 선(善)을 말함)을 위주로 하여 말하였고, 순자(荀子)는 음(陰 악(惡)을 말함)을 위주로 하여 말하였고, 양자(楊子 양웅(揚雄))는 음양을 겸하여 말하였다.”라고 한 말은 분명치 않은 듯합니다. 형은 “맹자는 양 한쪽만 보았고, 순자는 음 한쪽만 보았고, 양자는 음양을 겸하여 보아서 이렇게 입언(立言)하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의 견해는 결국 양자의 견해와 합치되는데 또 주재(主宰)가 없다고 비판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형이 또 부자(夫子)가 말한 계선성성(繼善成性)⁶¹에 대해 성(性)을 논한 것이 지극하고 극진하다고 하였는데 저도 지극하고 극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지만 형은 “계선할 때에는 양만 있고 음은 없다가 성성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음양이 모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61 계선성성(繼善成性) : 계선은 음양의 도를 계승하고 발휘하여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을 말하고, 성성은 도에 의해서 태어난 사물은 도의 본성을 갖추고 있음을 말한다. 《주역(周易)》〈계사전 상(繫辭傳上)〉에 “한번 양(陽)하고 한번 음(陰)하는 것이 도이니, 이것을 계승하는 것이 선(善)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성(性)이다. [一陰一陽之謂道, 繼之者善也, 成之者性也.]”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양은 사물을 낳은 것을 주장하니 사물을 낳는 이치가 어찌 선(善)이 아니겠는가?”라는 말로 궁구해 보면 형은 확실히 “사물을 낳을 때에는 양만 있고 음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이치에 맞겠습니까. 저는 “음양이 모두 갖추어진 뒤에야 사물을 낳을 수 있고 사물을 낳은 음양은 모두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은 선하고 음은 악한데 모두 선하다고 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천지가 사물을 낳는 마음은 바로 이(理)입니다. 이는 음양의 주재가 되기 때문에 사물을 낳은 음양은 원래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말하기를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하니, 계속하는 것은 선이고 이루는 것은 성(性)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을 이룬 뒤에 선악이 있는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이(理)는 순선(純善)한데 음양의 청탁(淸濁)은 만 가지로 같지 않습니다. 사물을 낳은 처음에는 이가 음양을 타고 있는데 그 음양이라는 것이 또한 사물을 낳은 음양이므로 그 기 또한 선하니, 이른바 “계속하는 것은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물이 기를 받을 때에 이르러서는 바로 각각 성명(性命)을 바르게 하는 때이므로 각기 품부받은 기의 청탁과 수박(粹駁)이 분분하여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또한 선악이 있는 것이니, 이른바 “이루는 것은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는 비록 일정하지 않지만 기를 타고 있는 이는 또한 선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기질의 선악 중에 성(性)만을 가리키면 원래 선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맹자가 말한 성선(性善)과 정자(程子)·장자(張子)의 □□□의 논의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형이 논한 성리의 대지를 모두 간과할 수 있습니다. 형이 논한 바 이러한 말의 병폐는 진실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견해가 이러하

다면 매우 염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전에 문답한 것을 가지고 집의 윤증(尹拯)에게 물었더니 형의 견해의 문제점을 모두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형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요즘 정신이 매우 혼란하여 베껴 쓸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초고를 보내니 또한 그가 말한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께서 이렇게 할 말을 다한 편지를 받고서 비방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박경초에게 답함

答朴景初

그동안 보내준 2통의 편지에 대해서는 마땅히 즉시 답장해야 하나, 별도로 형에게 말해 주는 것이 2통의 편지에 답하는 것보다 긴요한 듯하니 일단 천천히 답하겠습니다. 대체로 학문의 도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知)와 행(行)일 뿐입니다. 지는 이것을 아는 것이고, 행은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이 외우고 말할 꺼리가 되기에 불과할 뿐이고, 행하기만 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행하는 것이 비루하게 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데 있어서 지와 행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양 날개와 같아 어느 한쪽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성문(聖門)에서 말한 박문약례(博文約禮), 격치성정(格致誠正), 지인용(知仁勇)⁶²은, 그 말은 비록 다르지만 모두 덕성(德性)을 높이고 학문(學問)을 말미암아서 지극한 지와 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이른바 지(知)는 반드시 소이연(所以然)의 이치를

62 박문약례(博文約禮), 격치성정(格致誠正), 지인용(知仁勇) : 박문약례는 글을 통하여 지식을 넓히고 예를 통해서 행동을 검속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논어》〈옹야(雍也)〉에 “군자가 글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요약한다면 또한 도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라고 한 공자의 말을 축약한 것이다. 격치성정은 《대학》 팔조목(八條目) 가운데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을 말한다. 지인용은 천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얻은 덕을 말하는 것으로,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지인용 세 가지는 천하의 달덕이다. [知仁勇三者，天下之達德也.]”라고 하였다.

참으로 알아서 십분 분명한 곳에 끝까지 이르러 털끝만큼도 미진한 점이 없어서, 정추(精粗)와 본말(本末)로 하여금 참과 거짓이 뒤섞이지 않게 한 뒤라야 이른바 지(知)가 비로소 지의 실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行)이라는 것은 선(善)은 행해야 하고 악(惡)은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참으로 알며 또한 털끝만큼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없어서, 표리(表裏)와 은현(隱顯)으로 하여금 티끌만큼도 허물이 있지 않게 한 뒤라야 이른바 행이 또 비로소 행의 실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와 행에서 실상을 갖는 것이 귀한 이유입니다.

비록 그렇지만 이른바 지(知)와 행(行)은 실상을 귀하게 여기나 그 지와 행을 실현하는 데 있어 어찌 근본이 없겠습니까. 이 때문에 성인께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소학》부터 먼저 가르쳐 성경(誠敬 성실과 공경)을 익히게 하였고, 방심(放心)을 거두고 덕성(德性)을 기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 힘쓴 뒤에야 비로소 《대학》에 나아가 이른바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공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아는 것이 바로 지와 행을 실현하는 근본이 되니 이를 먼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옛사람이 학문을 할 때 반드시 차례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성경을 주장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이른바 학문이란 반드시 《소학》을 먼저 공부한 뒤에야 비로소 의거할 만한 근본이 있을 것인데, 훗날의 학자들은 불행하게도 이미 《소학》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장성하여서는 《대학》에 곧장 나아가 공부하려고 하니, 밀가루 없이 수제비를 만드는 것⁶³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다행

63 밀가루……것 : 원문의 '무면지불탁(無麵之不托)'은 근본적인 요소가 준비되지 않

스럽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誠)일 뿐이고 경(敬)일 뿐입니다. 만약 성경에 대해 먼저 공부를 한다면 또한 막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정자와 주자 두 분의 글에서 이에 대한 설을 보았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해 깜깜하여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저의 학문으로도 또한 성경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이 있었지만 감히 남에게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형이 나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고 학문의 도리에 대해 함께 논의해 주니 매우 부끄럽지만, 또 불행히도 형의 견해와 저의 견해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저의 견해와 크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또 성현(聖賢)과도 크게 차이가 나니 이는 매우 놀랍습니다.

그동안 편지를 주고받고 직접 만나 강론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지만 형은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굳게 고집하여 더는 남의 의견을 따르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대화할 때에 그 말투와 태도를 몰래 살펴보았더니, 그 병폐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형과 논쟁하던 것을 모두 놓아두고 비로소 형에게 이 두 글자에 대해 물었더니, 형은 과연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진실무망(眞實無妄)의 교훈⁶⁴은 거론하지

고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로, 《회암집(晦庵集)》 권26 <상재상서(上宰相書)>에 보인다.

64 주일무적(主一無適)과 진실무망(眞實無妄)의 교훈 : 성(誠)과 경(敬)의 개념을 설명하는 말이다. 주일무적은 마음을 전일(專一)하게 하여 다른 잡념이 없게 한다는 말로 경(敬)을 말한다. 《논어》 <학이(學而)>의 '경사이신(敬事而信)'에 대한 주희의 집주(集註)에 "경은 주일무적을 의미한다. [敬者, 主一無適之謂。]"라는 말이 나온다. 진실무망은 진실하여 망녕됨이 없다는 말로 성(誠)을 말한다. 《중용》 제16장에 "무릇 은미한 것이 나타나니, 성을 가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다. [夫微之顯, 誠之不可揜, 如此夫!]"라고 하였는데, 주희가 '성(誠)' 자를 이렇게 풀이하였다.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형의 굳세고 과감한 기질을 보면 이미 세속 사람들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데, 어찌 유독 학문상에는 오히려 성경을 먼저 구할 줄 모르고 함부로 ‘지(知)’ 한 글자에 치달려 가는 것입니까? 진실로 능히 안다면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아는 것이 이미 크게 어긋났으니 행하는 것이 어찌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정자와 주자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이치를 알 수 있겠으며, 정자와 주자를 경시한다면 무슨 도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러하나 형이 하루아침에 문득 깨달아서 성경을 안다면, 비로소 정자와 주자를 알게 되어 알지 못할 이치가 없을 것이고, 비로소 정자와 주자를 높이게 되어 행하지 못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이 어찌 끝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말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知)와 행(行)은 반드시 성경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라고 한 말은 또한 제가 역견(臆見)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치지는 경을 근본으로 한다.”⁶⁵라고 하였고, 공자가 달도(達道)와 달덕(達德)을 말하면서 “행하는 것은 하나이다.”⁶⁶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근거가 될 만합니다. 만약 정자를 믿지 못하겠거든 먼저 공자가 한 말을 가지고 공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65 정자가……한다 : 《회암집(晦庵集)》 권15 <경연강의(經筵講義)>에 “도를 배우는 것은 지(知)를 우선으로 하고, 앎을 지극히 하는 것은 경(敬)을 근본으로 한다.〔學道以知爲先, 致知以敬爲本.〕”라고 한 주희의 말이 보인다. 기정익이 정자가 한 말로 착각한 듯하다.

66 공자가……하나이다 : 《중용장구》 제20장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가, 천하의 달도(達道)가 다섯이고 달덕(達德)이 셋이라고 하면서 달도와 달덕을 행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하나란 바로 성(誠)을 가리킨다. 달도는 오륜(五倫)을 말하고 달덕은 지인용(知仁勇)을 말한다.

그동안 보내준 2통의 편지에 대해서는 형이 성경을 능히 수용한 뒤에 조목조목 말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그러한 소식이 들리기를 기다립니다.

전날 형의 주장과 저의 논의를 가지고 윤희(尹兪)에게 분별을 요청하니 그에 대한 답신이 비로소 왔습니다. 그런데 보낸 날짜를 살펴보니 바로 5월 기망(既望)⁶⁷이었는데, 지난달 26일에야 비로소 도착하였으니 지체되지 않기 어렵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의 별지를 드려 형을 깨우쳐 주는 것이 좋겠지만 형의 견해를 배척하고 비난한 것이 제가 한 말보다 더욱 준엄하여 심지어 형을 이단(異端)이라고 공격하려고 하니, 더 이상 제가 간곡하게 형을 두둔하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의 기상(氣象)을 말한 부분이 도리어 형을 깎아내리는 꼴이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또 “복을 쳐서 성토(聲討)해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형이 갑자기 본다면 어찌 크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옛날부터 도를 논의하는 자들이 선철(先哲)을 업신여기는 이론(異論)을 보면 반드시 그에 대한 논의를 부월(斧鉞)보다 엄격하게 하여 도를 보호하는 정성을 그치지 않았으니, 어찌 상심할 것이 있었습니까. 형이 만약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면 제가 말한 성경의 공부가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을 것인데, 형은 어찌 혈기(血氣)의 분노를 함부로 분출할 것이 있었습니까.

67 5월 기망(既望) : 1674년(현종15) 5월 16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윤희(尹拯)이 기정익에게 이설(理說) 등에 대해 답한 편지가 《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 권17 <답기자량(答奇子亮)>에 보인다.

그가 저의 주장을 치밀하게 공격한 것을 보면 또한 대부분 그의 견해가 정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기설(道器說) 중에 유형무형(無形有形)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말하자면 그 논의가 너무 고루합니다. 또 기수설(氣數說)에서 기와 수를 두 가지로 본다고 비판한 것은 도리어 형의 견해와 그 깊이가 비슷하니, 이는 매우 놀랍습니다. 다시 논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고 싶지만 저의 주장을 기록한 초본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 일전에 형에게 드린 글이 훼손되어 없어지지 않았다면 진경(晉卿)이 오는 길에 부쳐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경양에게 답함 성명은 빠져 있다

答景陽 姓名缺

‘정심장(正心章)’에 대한 주장은 그동안 말씀드린 것에 자세히 갖추어 졌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안(龍安)⁶⁸이 논한 것을 보건대 바로 일가(一家)의 심법(心法)으로서 참으로 이렇게 뛰어난고 정밀하니, 어찌 감히 다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아는 것이 이것과 다른 점이 있기에 논의를 끝내 그만 두지 못하고 대략 이전의 설을 다듬어 질정(質正)을 구합니다.

삼가 듣건대 경전(經傳)에서 입언(立言)한 것은 대개 준칙(準則)이 있다고 합니다. 합체용(合體用) 한 가지 예로 말해 보면, 성탕(成湯)이 “상제(上帝)께서 충(衷)을 내리고 그 도(道)에 편안하게 하였다.[上帝降衷 克綏厥猷]⁶⁹”라고 한 말과, 《예기(禮記)》〈악기(樂記)〉에 “사람은 태어나면서는 고요하고 외물에 감응하여서는 움직인다.[人生而靜 感物而動]”라고 한 말과, 공자가 말한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다가 외물에 감응하여 마침내 천하의 일을 통한다.’라고 한 말과 《중용》에 ‘천명솔성(天命率性) 및 미발(未發)의 중(中)과 중절(中節)의 화(和), 그리고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 등의 이러한 입언(立言)들이 바로

68 용안(龍安) : 전라북도 익산의 옛 지명인데, 여기에서는 용안에 사는 경양(景陽)을 가리키는 듯하다.

69 상제(上帝)께서……하였다 : 《서경》〈탕고(湯誥)〉에 “홀륭하신 상제가 백성들에게 충(衷)을 내려 주어 순히 하여 떳떳한 성(性)을 소유하였으니, 그 도(道)에 편안하게 하는 이는 군주이다.[惟皇上帝, 降衷于下民, 若有恒性, 克綏厥猷, 惟后.]”라고 한 성탕의 말을 축약한 것이다.

이른바 합체용이니, ‘정심장’에서 먼저 마음의 병통을 말한 것⁷⁰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 병통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바른 상태를 얻지 못한 것을 말하니 병통이 동(動)에 속하느냐 정(靜)에 속하느냐는 분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의 병을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 병은 정입니까? 아니면 동입니까? 제 생각에 혈기(血氣)가 화평(和平)한 상태가 정이고, 객기(客氣)가 침해(侵害)한 상태가 동입니다. 이른바 객기는 풍한서습(風寒暑濕)⁷¹ 같은 외부에서 감촉한 것뿐만 아니라 혈기가 화평한 상태를 잃은 것을 모두 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기가 화평한 상태를 잃은 것을 이미 동이라 하고 보면, ‘정심장’에서 말한 마음에 있는 네 가지 감정이라는 것이 바른 상태를 얻지 못한 것과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세 가지 병통⁷²을 동이라고 하여 용(用)에 소속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동이라고 하여 용에 소속시켰다면 그

70 정심장에서……것 : 성냄, 두려움, 좋아함, 근심 이 네 가지의 병통이 있으면 마음이 바른 상태를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대학장구》 전(傳) 7장에 “이른바 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마음에 성내는 바가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바가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는 바가 있으면 바름을 얻지 못한다.[所謂修身在正其心者, 心有所忿懣,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라고 하였다.

71 풍한서습(風寒暑濕) : 한의학에서 풍, 한, 서, 습은 병을 일으키는 외부의 사기(邪氣)를 가리킨다. 이 사기가 인체에 들어와 병을 일으키는 것을 각각 중풍(中風), 중한(中寒), 중서(中暑), 중습(中濕)이라 한다.

72 마음이……병통 : 세 가지 병통은 시(視), 청(聽), 식(食)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장구》 전(傳) 7장에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라고 하였다.

병을 제거하는 방법을 또 어찌 동에 소속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심(正心)의 뜻은 바로 부정(不正)한 것을 바로잡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바로잡아 바르게 하는 것은 바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을 가지고 체(體)를 겸한 것에 소속시킨다면, 바로 병을 치료하는 자가 약석(藥石)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보고 약석까지 겸하여 몸이라고 하는 격이니, 이것이 어찌 이치에 맞겠습니까. 이것으로 반복해서 생각해 보면 '정심장'의 뜻을 거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 발명(發明)한 것은 이전 편지에서 다 말씀드렸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는데, 이제 용안 존형의 허다한 논의를 보니, 이전의 설로 그대에게 질정을 구하기 어렵겠습니다. 게다가 용안 형이 《주자어류》 가운데 이른바 “마음(心)은 전체를 대상으로 말한 것이고, 뜻(意)은 그 안에서 발한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正心)은 《중용》의 보지 않고 듣지 않을 때에도 조심하고 삼가는 것과 같고, 뜻을 성실히 하는 것(誠意)은 《중용》의 홀로를 삼가는 것과 같다.”⁷³라고 한 여러 항목을 가지고 합체용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니, 저와 같은 말학(末學)은 더욱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자의 이 말은 심(心)은 의(意)의 체(體)임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성의(誠意) 이후에 정심(正心)으로 이은 것은, 바로 체용에 모두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을 말한 것일 뿐이지, '정심장'은 바로 체의 공부이고 '성의장'은 바로 용의 공부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73 마음은……같다 : 주희가 《대학》과 《중용》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한 말로, 《주자어류》 권15 <대학(大學) 2>에 보인다.

다만 정심은 《중용》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戒懼)과 같다고 말하고 정심이 바로 계구 공부라고 곧바로 말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은 가장 융통성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심장’은 마땅히 계구의 뜻이 있어야 하는데, ‘정심장’ 내에 어떤 말과 어떤 글자가 계구의 의미를 띠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자의 뜻은 바로 성의와 정심의 공부를 서로 이어서 하는 데 있을 뿐이지, 성의와 정심이 실로 《중용》의 체용을 나누는 공부와 같다고 말한 것이 아님은 대단히 명백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자가 어찌하여 “오직 자사(子思)만이 미발의 중을 말하였다.”라고 하고 더 이상 ‘정심장’을 함께 거론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자가 늘 스스로 말하기를 “일생의 정력을 《대학》에 다 쏟았다.”⁷⁴라고 하였는데, 체용설을 말하는 데 있어 되려 ‘정심장’을 빠뜨렸다는 것을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자가 일찍이 배우는 자들을 경계하기를 “경서를 읽을 때는 좌우를 가로막고 전후로 끌여다가 구절에 따라 이해하여 마디 위에 가지가 돋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의리가 너무 많게 되어 도리어 본래 경서의 뜻에 어긋나게 된다.”⁷⁵라고

74 일생의……쏟았다 : <독대학법(讀大學法)>에서 주자는 “사마온공(司馬溫公)이 《통감》을 짓고, ‘평생의 정력이 모두 이 책에 있다.’라고 하였는데, 나도 《대학》에 있어 또한 그러하다. [溫公作通鑑, 言平生精力, 盡在此書, 某於大學亦然.]”라고 하였다.

75 경서를……된다 : 《회암집(晦庵集)》 권48 <답여자약(答呂子約)>에 “옛사람의 글을 읽을 때에는 바로 마음을 비우고 배포를 크게 가지며 눈을 높이 뜨려고 해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상응하게 됩니다. 만일 좌우로 가로막고 전후로 끌여다가 말에 따라 이해하여 마디 위에 가지가 돋게 한다면 다시 만권의 책을 읽더라도 또한 쓸데가 없을 것입니다. [讀古人書, 直是要虛著心, 大著肚, 高著眼, 方有少分相應. 若左遮右攔, 前拖後拽, 隨語生解, 節上生枝, 則更讀萬卷書亦無用處也.]”라고 한 말이 보이는데,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작자가 여기저기에서 본 것을

하였으니,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계속해서 누누이 말한 것일 뿐만이 아닙니다.-이 가르침은 후학들이 공부하는 데 대하여 깊고 간절하게 드러내 밝혔다고 할 만하니, 실로 어리석은 저의 오늘날의 고질병을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말을 공경히 외었는데 이제 또 그대에게 말씀드립니다.- 감히 용안형도 이러한 병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대와 서로 면려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전 편지에서 “용(用)을 말하여 체(體)에 미쳤다. [言用以及體]”라고 한 말에 대해 그대가 논변하기를 “격치장(格致章)에서 어디에 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격물치지하면 마음의 체가 밝아지니 이것이 용을 말하여 체에 미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살펴 주십시오.

물격(物格)에 관한 설은 퇴계(退溪)와 고봉(高峯)으로부터 이미 이에 대해 논변하였습니다. 비록 퇴계의 정밀하고 자세한 분석으로도 후인(後人)들이 끝내 다 밝게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뒤에 여러 설이 분분하게 흩어져 나와 왕왕 웃을 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는 경문의 ‘물격’ 두 자는 간명하고 심오한데 장구(章句)에서 ‘물리지극처무부도(物理之極處無不到)’라고 한 문의(文義)⁷⁶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해

한데 끌어온 듯하다.

76 장구(章句)에서……문의(文義) : 경문의 ‘물격(物格)’에 대해 주희는 《대학장구(大學章句)》에서 ‘물리지극처무부도(物理之極處無不到)’라고 풀이하었는데, 이 구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논의가 있었다. 하나는 ‘물리지극처(物理之極處)가 무부도(無不到)라는 해석이고, 하나는 ‘물리지극처에 무부도라는 해석이다. 전자는 ‘물리의 극처가 이르지 않음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물의 지극한 이치가 내 마음에 이른다는 말이고, 후자는 ‘물리의 극처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라는 뜻으로 내 마음의 지(知)가 사물의 지극한 이치에 이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의 설을 수용하였다.

석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행히 울곡(栗谷)의 “물리가 극처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物理無不到極處]”라는 설을 일찍 보고는 황홀하여 요령을 얻은 듯하였는데, 《대학혹문》의 “각각 그 극처에 나아갔다.[各有以詣其極]”라는 말을 보고 나서는 주자의 뜻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평소 물격설에 의심이 없었는데 다만 《대학혹문》과 울곡설로 《대학장구》에 적용해 보니 결국 《대학장구》의 문세(文勢)가 막혀 순하지 않음을 깨달았고, 또 격물을 ‘욕기극처무부도(欲其極處無不到)’라고 해석한 것을 상고해 보면 그 문세가 물격에 대한 해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물격에 대한 해석은 문세가 비록 이와 같지만 마땅히 《대학혹문》에서 해석한 대로 읽어야 하고, 격물에 대한 해석으로 말하자면 중요한 것이 ‘궁지사물(窮至事物)’에 있으니, 마땅히 ‘내가 궁구한 것으로 극처에 이르하고자 한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한다면 글은 같지만 뜻은 다른 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이는 “당신의 주장 가운데 끝부분에서 《대학혹문》 상하의 구두를 현토 ‘에(厓)’와 ‘이(伊)’로 나눈 뒤에야 말뜻이 비로소 통하게 된다.”라고 한 말과 대략 같습니다. 지난번에 만나 이야기할 때에 처음에는 대략 이 뜻을 거론하였고 중간에 다시 자세히 말하려고 하였으나 말뜻이 분명하지 못해 제가 주장을 바꾸었다고 그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는데 해가 저물어 끝내 해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지(小紙)를 보니 여전히 이렇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또 저를 신척하는 듯하니 우습습니다.-

지난번에 오묘한 이론을 들은 뒤부터는 비록 그 문의가 모두 순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오히려 《대학혹문》의 해석과는 합치되지 않음을 의심하였습니다. ‘보망장(補亡章)’의 “모든 사물의 표리(表裏)와 정조(精粗)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라는 글을 들어

서 “극처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極處無不到]”라는 뜻에 적용하였다는 말을 들은 뒤에야 고명의 견해가 과연 근거한 바가 있고, 그 지의(旨意)가 긴요함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이는 《대학혹문》의 “극처에 이르다.[詣其極]”라는 뜻과 모두 꼭 합치되고, 문의가 《대학장구》를 읽은 것보다 모두 순하니, 이는 실로 고명이 자득한 것입니다.

대체로 주자는 학자들이 《대학장구》의 문의를 쉽게 알지 못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대학혹문》에서 다시 한마디 말을 전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학혹문》이 《대학장구》와 차이가 없다는 것만 알고 《대학장구》의 문세가 의심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학장구》의 문세가 애당초 모두 순하다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고명이 정밀하고 타당하게 이것을 해석한 것을 보고 깊이 탄복하였습니다.-격물을 “극처에 이르지 않음이 없다.”라고 해석한 것은 또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돌아간 뒤로는 비록 지은 글을 보지 못하였지만 매우 다행스럽게도 거의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대가 지은 글을 받으니 그 논리가 분명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더욱 알겠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다만 보내신 글의 문의는 모두 지극하지만 그 가운데 ‘유력(有力)’과 무력(無力)’ 자는 뜻은 비록 옳지만 말에는 병통이 있으니, ‘득중(得重)’이라고 쓰고 ‘득경(得輕)’이라고 쓴 것을 ‘유력’과 ‘무력’ 자로 고친다면 좋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세필 세필에게 답함

答李君輔 世弼

옛사람은 진실로 도(道)가 같으면 비록 만나지 못한 사이라도 또한 서로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그대의 높은 절조와 맑은 풍모를 흠모한 것이 참으로 남에게 뒤지지 않지만 병으로 죽을 뻔한 지가 여러 차례였습니다. 이미 여관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고 또 감히 도가 같다고 여기지 못해, 한 통의 글을 보내 성명(姓名)을 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봉우들 사이에서 그대의 시(詩) 한 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이 시를 읊조리노라니 그 당한 일이 담암(澹庵)과 서로 비슷하였지만 그 득실은 자별(自別)함을 깨달았습니다.⁷⁷ 그래서 시 공부할 하지 못한 것을 문득 잊고서 경솔하게 차운(次韻)하였는데⁷⁸ 감

77 그 당한……깨달았습니다: 담암(澹庵)은 송나라 때의 명신(名臣) 호전(胡銓)의 호이다. 담암은 당시의 간신(奸臣)인 진회(秦檜) 등을 참수하자고 주청하여 해외(海外)로 유배되었다. 그 뒤에 10년 동안 조정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매계(梅溪)의 호씨원(胡氏園)에서 묵었는데, 그 집의 가기(歌妓)인 여천(黎倩)에게 추파를 던졌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크게 모욕을 당하였다. 《鶴林玉露》 권12. 이세필은 1674년(현종15) 제2차 복상(服喪) 문제로 송시열(宋時烈)이 삭직당하자, 분개하면서 선비들을 설득해 상소하여 송시열의 원통함을 호소하다가 전라도 영광(靈光)에 유배되었다. 여기에서는 담암과 이세필이 직간(直諫)하다가 유배 간 일은 똑같지만 이세필은 여색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78 차운(次韻)하였는데: 기정익이 이세필에게 차운한 시에 “남쪽으로 와서도 기개와 절개 꺾이지 않으니 몽교관의 공부가 깊음을 비로소 알겠네. 어찌 당일 일개 하찮은 미인으로 하여금 호공의 절조 완성시키지 못하게 했단 말인가. [南來氣節未摧殘, 始信工深夢覺關. 肯令當日一黎頰, 虧却胡公九仞山?]”라고 하였다. 《松巖先生文集》 上 卷1 次李君輔》

히 그대에게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우(李友)가 전송(傳誦)하여 알려 준 뒤로 죽하가 손뻐를 치며 비웃지 않고 도리어 이처럼 자상하게 가르침을 내려 줄지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매우 어리석고 비루한 저는 성품이 실로 질박하고 곧아서 평상시 봉우들 사이에서 비록 간곡하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도움은 주지 못하였지만, 아침하고 유약한 병통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당일(當日)의 지조(志操)를 우러른다.”라는 구절은 그대가 진실로 천지가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절조를 온전히 보전하고 잃지 않았으니, 진실로 공경(恭敬)과 방종(放縱), 천리(天理)와 인욕(人欲) 사이에서 공부한 자가 아니라면 능하지 못하고, 또 선배가 절조를 잃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구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하께서 도리어 끊임없이 자상하게 가르쳐 주니, 마치 《시경》에 “저 죄가 있는 사람을 네가 도리어 놓아주는구나.[彼宜有罪 女覆說之]”라고 한 구절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또한 작은 성취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곧바로 원대한 도리를 향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이 제가 그대의 풍모를 듣고 더더욱 공경히 옷깃을 여미는 이유입니다.

비루하고 용렬한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만에 하나라도 도움을 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하가 자신의 병통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렇게 지성스러운 것은 어째서입니까? 참으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저 담담을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학문과 조예가 정대(正大)하고 고명(高明)한 점은 손색이 없지만 정미(精微)하고 굳건한 경지에는 오히려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눈이 녹으니 풀이 자란다.”라고 한 주자양(朱紫陽)의 비관⁷⁹을 피하지 못하였으니, 모르겠습니다만 죽하가 오늘날 자처(自處)하

는 의리는 답암에 비해 어떻습니까?

저는 “여색⁸⁰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지만 의리의 경지로 말해 본다면 오히려 조금 부족한 듯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족하는 비록 답암이 능하지 못한 것에 능하지만 답암이 능한 것에 족하가 진실로 능하지 못하겠습니까. 족하의 ‘실약허(實若虛)’의 뜻⁸¹으로 한번 발돋움하면 그 경지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족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점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답암이 이른 경지를 가지고 족하를 위해 축하하지 않으니, 족하 또한 학문에 절차탁마하는 데 마음을 두어 늘 “눈이 녹으니 풀이 자란다.”라는 말을 경계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뜻은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는데 병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예전에 배운 것은 남은 것이 없고 새롭게 안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비록 족하가 저의 게으르고 나약함을 경책하여 함께 강론하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건대 감당하기 어려울 듯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가르쳐 줄 것이 있으면 때때

79 눈이……비판 : 원래는 “눈이 녹기도 전에 풀이 돌아난다.[雪未消草已生]”라는 말로 겨울이 다 가기도 전에 풀이 자라나듯이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생기는 인욕(人欲)을 금계(禁戒)해야 한다는 뜻이다. 《회암집(晦庵集)》 권5 <재답택지(再答擇之)>에 “그대처럼 전전공공하면서 가벼이 처신하지 않았지만, 세상일 분분하니 어느 곳에 마음 쓰리오. 응당 오묘한 경 공부에 그 뜻이 무궁하리니, 눈이 채 녹기도 전에 풀이 이미 돌아난다오.[兢惕如君不自輕, 世紛何處得闕情. 也應妙敬無窮意, 雪未消時草已生.]”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80 여색 : 원문의 ‘여협(黎頰)’은 ‘여천(黎倩)의 보조개’라는 뜻으로 여색을 가리킨다.

81 실약허(實若虛)의 뜻 : 자신의 지식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한다는 뜻으로, 증자(曾子)가 안연(顏淵)을 칭찬하면서 “지식이 가득 찼어도 마치 빈 것처럼 여겼다.[實若虛.]”라고 하였다. 《論語 泰伯》

로 덕음(德音)을 내려 주어 끝까지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면 그 다행스러움을 또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집의 윤자인 증 에게 보냄

與尹執義子仁 拯

이곳에 성명이 박상현(朴尙玄)이라는 벗이 있는데 광주(光州)에 살고 있고 이미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사학(斯學)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심(苦心)해서 사색(思索)하는 것을 위주로 한 그의 학문은 반드시 경문의 뜻을 자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정자와 주자를 깊이 신봉하지 않고 왕왕 자신의 뜻으로 별도의 훈해(訓解)를 만들고, 먼저 자신의 견해를 세워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으로 자득한 재미가 있다고 여겨 입으로 발설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내용을 책으로 쓰니 이것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 기상(氣象)과 의미(意味)를 살펴보면 꼭 정자와 주자를 반대하여 이단의 학설을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품부받은 기질이 영오(穎悟)한 면이 부족하고 과감한 면이 더러 지나치며, 순후(淳厚)한 근본이 없고 경솔한 병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서를 읽고 강해(講解)할 때에 애초에 주자의 견해를 근본으로 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면 대뜸 이치가 이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억지로 다른 견해를 세웁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고심해서 대략이나마 통하는 하나의 길을 우연히 찾으면, 대뜸 천고(千古)토록 전해지지 않는 묘리(妙理)라고 믿고서는 선철(先哲)들을 배반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는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각각 불복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그의 강경(剛勁)하고 부박(浮薄)한 기품(氣稟)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입심(立心)과 조행(操行)으로 말하자면 깨끗하고 곧아서 세속의 선비들이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잠심해서 완미하고 체득해서 연구하여 또한 경전(經傳)에 득력(得力)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가 《대학》을 읽은 것을 보면 《대학장구(大學章句)》를 독실하게 신봉하여 직접 스승께 배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할 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체득해서 연구한 것이 애초에 선각(先覺)을 의심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학문하는 방법이 비록 큰 병통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단이라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일전에 그가 저술한 10여 편의 글을 우재(尤齋 송시열(宋時烈)) 노선생님께 질정하였는데, 선생님께서 미처 두루 살펴보고 회답하지 못하였을 때 문득 시사(侍史)⁸²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선생님께서 다시 그에게서 찾았는데 그가 다시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일전에 제게 보여 주었는데, 저는 학문에 있어서는 귀머거리와 같은 자여서 20여 세 때에 이 학문에 대해 대략이나마 들었지만 그 뒤에 상사(喪事)로 분주하고 과장(科場)을 쫓아다니느라 수십 년 동안 흐리멍덩하게 살다 보니 지금은 백발의 부유(腐儒)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학문을 논한 글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편지를 보내 온 뜻을 헛되어 저버릴 수 없었으나 그가 우연히 터득한 견해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넘게 물음에 답하여 서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가 또 배척하고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누차 서로 만나 그때마다 종일토록 논변(論辨)하였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저의 논의

82 시사(侍史) : 옆에서 모시면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처리하던 사람을 말한다.

가 단지 구이지학(口耳之學)처럼 천박하였기 때문에 제 말이 설득력이 없어 그의 견해를 돌려놓지 못한 것이며, 변론하여 말한 것도 필시 대부분 자신이 술에 취했으면서 취한 사람을 나무라는 꼴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스스로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잘못을 구제하여 설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약 도(道)가 있는 형이 분명하게 변론하여 바로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가 애써서 공부한 것이 헛수고가 될까 안타까울 뿐만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호남(湖南)은 인물이 없어 이 일을 말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혹여 후생(後生)과 신진(新進)들이 점차 이 설을 따를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그 폐해가 어찌 적겠습니까. 조목조목 공격하여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듯 분명하게 가르쳐 줄 책임을 형은 사양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저의 견해를 지적하여 평생 수용(受用)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게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윤자인에게 답함

答尹子仁

이설(理說)

제가 논변한 것이 인정을 받았으니 기쁘고 다행입니다. 고명(高明)이 다시 그의 설을 공격하여 논파(論破)한 것이 지극히 정밀하고 합당하고, 저의 생각과 가장 합치되니 더욱 다행입니다.

성설(性說)

대체적으로 저의 설이 옳다고 하니 또한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다지 어긋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저 또한 당초에 그가 한 말이 무엇 때문에 실상을 잃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성을 논한 것이 오히려 ‘일리(一理)’자의 의미를 잃지는 않은 것 같군요.⁸³ 그를 가볍게 꾸짖는 것 또한 무방하지만 이치를 변론할 때에 이처럼 어물어물해서는 안 되는데 깊이 후회가 됩니다. ‘기(紀)’는 ‘목(目)’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그대의 말⁸⁴은 매우 타당합니다. 정랑 김극형(金克亨)에

83 그가……같군요 : 김극형(金克亨)이 성(性)을 체(體)로 삼고 인의예지를 용(用)으로 삼는 주장에 대해 윤증이 “이른바 일리(一理)가 바로 인의예지이니, 인의예지 이외에 따로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는데, 기정익은 윤증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明齋先生遺稿 卷17 答奇子亮 性說》

84 기(紀)는……말 : 김극형이 윤증에게 “중선(衆善)은 인의예지의 기이다.[衆善爲仁義禮智之紀]”라고 하였는데, 윤증이 ‘기’를 ‘목(目)’으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한 말을 가리킨다. 《明齋先生遺稿 卷17 答奇子亮 性說》

대해서는 예전에 그 이름은 들었지만 그 학문의 수준은 자세히 알지 못하였는데, 지금 보내준 편지를 받고서 또한 그 대략을 알았습니다. 그가 말한 ‘재설성(纒說性)’ 부분을 공격하여 논파한 것⁸⁵은 참으로 좋습니다.

도기설(道器說)

상면(上面)과 하면(下面)의 가르침은 삼가 잘 알았습니다. 주자가 이(理)를 말한 부분에서도 ‘상면’ 자를 사용하였으니, 고명이 “상면에 비어 있는 것을 도(道)라고 하고 하면에 꼭 차 있는 것을 기(器)라고 한다.”라고 한 말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도기를 범범하게 칭한 부분은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만 ‘형이상하(形而上下)’ 자를 해석한 부분은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그대의 말대로라면 경문에 ‘형의 위[形之上]’, ‘형의 아래[形之下]’라고 해야 하지만, 굳이 ‘이(而)’ 자를 놓았으니 고명의 주장과 같지 않은 듯합니다. 제가 ‘무형이상(無形而上)’, ‘유형이하(有形而下)’라고 한 것으로 말하자면 감히 ‘형(形)’ 자 위에 ‘유(有)’ 자와 ‘무(無)’ 자를 보탠 것이 비록 의거한 데가 없는 듯하지만, 저의 생각은 반드시 이렇게 말한 뒤에야 그 뜻이 비로소 드러나고, ‘이상(而上)’과 ‘이하(而下)’ 자가 비로소 귀결될 곳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정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여 또한 말하기를 “형체가 없는 것은 도

85 그가……것: 재설성(纒說性)은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는 성이라 말할 수 없고, 성이라 말할 수 있을 때는 이미 성이 아니다.[人生而靜以上, 不容說, 纒說性時, 便已不是性也.]”라는 구절을 이른다. 《近思錄 卷1 道體》 김극형은 앞의 ‘성(性)’ 자와 뒤의 ‘성’ 자를 모두 본연지성(本然之性)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윤증이 이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明齋先生遺稿 卷17 答奇子亮 性說》

(道)이고 형체가 있는 것은 기(器)이다.”라고 하였으니, ‘유’자와 ‘무’자를 놓은 것은 저의 억설(臆說)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저의 이전의 주장과 이러한 뜻을 다시 바로잡아 저의 어리석음을 제거해 주기를 지극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과 그 보설(補說)에 대해서 별도로 따끔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의 주장에서 이미 무위(無爲)와 유위(有爲)를 곧바로 동(動)과 정(靜)에 소속시켰는데, 저의 주장 가운데 유위와 무위를 논한 부분이 모두 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남헌(南軒)의 설을 잘못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인심도심 및 보설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고 동정을 논한 부분에 대해 따끔하게 가르쳐 줄 수 없겠습니까?

수설(數說)

가르쳐 주신 것이 매우 자세하니 제가 의론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요(壽夭)와 궁달(窮達)은 모두 수(數)로써 말할 수 있는데, 유독 선악(善惡)만큼은 수로 돌릴 수 없는 것은 이(理)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맹자가 ‘성(性)에 달려 있어 명(命)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한 말은-선악부터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저의 생각과 합치됩니다. 다만 윗 문장과 이어서 읽어 보면 바로 ‘이(理)’ 한 글자를 빼고, 수요와 궁달 가운데 또 ‘명에 달려 있어 성이라 하지 않는다.’라는 의사 한쪽을 폐기한 듯합니다. 그 말이 좋기는 하나 아주 좋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이렇게만 말한다면 이(理)가 유독 수요와 궁달에 있지 않게 됩니다. 맹자는 진실로 “성에 달려 있어 명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또 “명에 달

려 있어 성이라 하지 않는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맹자가 성(性)과 명(命)을 두 가지로 나눈 적이 없는데도 오히려 “성이지만 명에 달려 있다.[性也有命]”라고 하고, “명이지만 성에 달려 있다.[命也有性]”라고 이렇게 나누어 말하였습니다. 이는 앞의 다섯 가지⁸⁶는 바꿀 수 없다고 여긴 것이고, 뒤의 다섯 가지⁸⁷는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니, 또한 기(氣)와 수(數)를 나누려 하지 않는 형의 견해와는 다릅니다. 저 또한 기와 수를 둘로 나눈 것은 아니지만 그 주장이 같지 않기 때문에 또 장서(長書)를 갖추어 올리니 다시 바로 잡아 가르쳐 주십시오.

장서(長書)

기수(氣數)에 관한 설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지만 성현(聖賢)께서 기수를 가지고 혹 변하거나 변하지 않는 오묘함에 대해 지적해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제님은 제가 경솔하게 그에 대한 설을 처음으로 내세우자, 이를 보는 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게다가 박군(朴君)

86 앞의 다섯 가지 : 맛, 색깔, 음악, 냄새, 안일(安佚)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본성을 말한다. 《맹자(孟子)》〈진심 하(盡心下)〉에 “입이 맛에 있어서와 눈이 색깔에 있어서와 귀가 음악에 있어서와 코가 냄새에 있어서와 사지(四肢)가 안일에 있어서는 본성(本性)이나, 명(命)에 달려 있다.[口之於味也, 目之於色也, 耳之於聲也, 鼻之於臭也, 四肢之於安佚也, 性也有命焉.]”라고 한 맹자의 말이 보인다.

87 뒤의 다섯 가지 :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천도(天道)로,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命)을 말한다. 《맹자》〈진심 하〉에 “인이 부자간(父子間)에 있어서와 의가 군신간(君臣間)에 있어서와 예가 빈주간(賓主間)에 있어서와 지가 현자(賢者)에 있어서와 성인이 천도에 있어서는 명이나, 본성에 달려 있다.[仁之於父子也, 義之於君臣也, 禮之於賓主也, 智之於賢者也, 聖人之於天道也, 命也有性焉.]”라고 한 맹자의 말이 보인다.

은 원론(原論)의 시비와 득실은 놔두고 오로지 제가 기(氣)와 수(數)를 나눈 것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공격하였으므로 저 또한 누차 변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말이 막히기도 했지만 마음으로는 더욱 굴복하지 않아 저는 매우 답답하였습니다. 지금 따끔한 가르침을 받으니 또한 박군의 생각과 약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감히 잠깐 사이에 만들어낸 지극히 어리석고 비루한 견해를 가지고 또 고명과 시비를 다투려 하겠습니까.

다만 논의를 그만둘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찌 저를 공격하는 자들의 말처럼 “기와 수는 다른 곳에 나뉘어 있어 각자 변동(變動)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비록 지극히 어리석지만 또한 기와 수는 원래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불초(愚不肖)가 변하여 현지(賢智)가 될 수 있고 수요(壽夭)와 궁통(窮通)이 끝내 변할 수 없는 것을 경전(經傳)에서 고찰할 수 있으니, 전후의 성현들이 비록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뜻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분별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대뜸 저의 견해를 버리고 우리 형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것이니, 한두 가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理)가 있는 뒤에 기(氣)가 있고 기가 있는 뒤에 상(象)이 있고 상이 있는 뒤에 수(數)가 있다.”라고 한 말은 참으로 그대의 견해와 같습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말해 보면, 기와 수뿐만이 아닙니다. 이·기·상·수 네 가지 모두 빈틈없이 혼합되어 있어 떨어트리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자(周子)가 말하기를 “오행(五行)은-상과 수를 결합 개념입니다.- 하나의 음양이고, 음양은 하나의 태극(太極)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理) 밖에 기가 있고 기 밖에 상이

있고 상 밖에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섞일 수 없다는 관점에서 말해 보면, 기와 수뿐만이 아닙니다. 이·기·상·수 네 가지 모두 이는 그대로 이이고, 기는 그대로 기이며, 상은 그대로 상이고, 수는 그대로 수이니, 구별 없이 뒤섞어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미 도(道)와 기(器)를 나누었고, 주자(朱子) 또한 말하기를 “태극이라는 것은 상수(象數)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 이치가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의 명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이가 기와 섞이고, 기가 상과 섞이고, 상이 수와 섞일 수 있겠습니까. 이·기·상·수가 원래 분리되지도 않고 또한 서로 섞이지도 않는 오묘함이 대체로 이리합니다.

이른바 기와 수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기는 수에 의지하여 행하고, 수는 기로 인하여 정해지니, 기는 진실로 수에서 분리될 수 없고 수도 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는 유행(流行)하는 것이고 수는 국한(局限)된 것입니다. 유행하는 것은 본래 변통(變通)할 수 있지만 국한된 것은 옮기거나 바꿀 수 없으니 이는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한번 사람에게 부여된 것을 가지고 말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기와 수가 합하여 형질(形質)을 이루니, 지우(智愚)·현불초(賢不肖)의 기품(氣稟)과 수요(壽夭)·궁통(窮通)의 명(命)이 애당초 어찌 판연(判然)히 두 가지로 나뉘어져 피차(彼此)가 서로 다르겠습니까. 그러한데도 사람이 받은 우불초(愚不肖)의 기품은 결국 변하여 현지(賢智)가 될 수 있지만, 이른바 수요와 궁통은 변하지 않으니, 이는 어째서이겠습니까?

단지 하나의 이(理)가 그 가운데 주재하여 기와 수를 타고 있는데, 기는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理)도 유행하는 기를 타서 변하지만, - 맹자의 “성(性)에 달려 있어서 명이라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 수는 바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理)도 일정한 수에 올라타서 국한됩니다.-맹자의 “명에 달려 있어서 성이라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보면 기와 수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理)의 명령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가 이의 명령을 따르면 탁한 것이 변하여 맑게 되고 잡박한 것이 변하여 순수하게 되고, 수가 이의 명령을 따르면 또 도리어 일정한 이가 됩니다. 그래서 맹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人皆可以爲堯舜]”라고 하였고, 예로부터 성현들이 반드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으니, 이것이 기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백우(伯牛)의 임종(臨終)에 “명(命)이로다.[命矣夫]”⁸⁸라고 하였고 또 얻고 얻지 못하는 것은 모두 “명이다.”⁸⁹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수는 바꿀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나누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구분 없이 뒤섞고자 한다면, 선과 악 사이에 수 또한 일정하여 성인께서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모두 허공 속의 공언(空言)이 되고, 수(壽)와 요(夭) 가운데 기 또한 변할 수 있어 성인께서 반드시 “명에 달려 있다.”라고 한 말이 실로 거짓으로

88 공자가……명이로다 : 백우는 공자의 제자인 염경(冉耕)의 자이다. 염경은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도 특히 덕(德)으로 일컬어진 사람인데, 그가 일찍이 악질(惡疾)에 걸려 젊은 나이로 죽게 되었을 때 공자가 문병을 가서 “명이로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병이 있게 되다니,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병이 있게 되다니.[命矣夫! 斯人也, 而有斯疾也, 斯人也, 而有斯疾也.]”라고 하면서 그를 대단히 애석해하였다. 《論語 雍也》

89 얻고……명이다 : 공자가 위(衛)나라에 있을 때 안수유(顔鬻由)의 집에 머물렀는데, 자로(子路)의 동서인 미자(彌子)가 자신의 집에 머물면 위나라의 경(卿)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공자는 “명에 달려 있다.[有命]”라고 하고 거절하였다. 《孟子 萬章上》

만들어낸 망언(妄言)이 되니, 이것이 어찌 이치에 맞겠습니까. 정자(程子)가 자식의 묘지명에 “내 아이는 정일(精一)한 기(氣)를 얻었지만 수(數)는 국한되었구나.”⁹⁰-제가 이미 기와 수를 나누어 논변하였는데 뒤에 이 말을 보고서 박군에게 보여주었더니 박군이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나눌 수 없는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명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나누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저의 견해가 큰 잘못이 없을 수 있는 것은 명도(明道)의 이 한마디 말 덕분이고 그 이치 또한 그렇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한 것이니 실제로 모두 성현의 뜻이지 저의 착견(鑿見)이 아닙니다. 그런데 형이 굳이 그르다고 한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설은 진실로 이기호발(理氣互發)의 견해와 다르지만, ‘이무위기유위(理無爲氣有爲)’, ‘이무불선기유선악(理無不善氣有善惡)’, ‘이통기국(理通氣局)’-이는 기수 이전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통(通)하는 것이고 기는 기수 가운데 막혀 있기 때문에 국한된 것입니다. 기가 국한된 것은 수 때문이지만 변할 수 있는 것은 유행하기 때문이고, 수가 정해진 것은 기 때문이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의 말과 요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형은 우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오묘함을 대강 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빈틈없이 혼합하여 선후(先後)가 없고 시종(始終)이 없는 것이 이(理)와 기(氣)만 한 것이 없지만 선현이 만드시 유위(有爲)와 무위(無爲), 유선악(有善惡)과 무불선(無不善), 국(局)과 통(通)으로 나누어 말한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만약

90 정자(程子)가……국한되었구나 : 《명도선생문집(明道先生文集)》 권4 <정소공묘지(程邵公墓誌)>에서, 정호(程顥)가 아들 정단각(程端慤)이 뛰어난 자질을 지녔으나 요절한 것을 애통해하며 한 말이다.

이와 기, 기와 수가 오묘하게 합한 것이 서로 같지 않다고 말한다면 저 또한 할 말이 없지만, 만약 같다고 여기면서도 오히려 나눌 수 없다고 말한다면, 저는 수요(壽夭)와 궁통(窮通)이 바뀌지 않는 것을 어디에 귀책시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의 뜻으로 고찰해 보면 수요와 궁통을 기와 수에 같이 맡겨 두고 기와 수를 분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와 수가 청탁(淸濁)과 수박(粹駁)만 변화시키고 장단(長短)과 통색(通塞)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저는 청탁과 수박은 기가 행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 장단과 통색은 수가 정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도(道)를 도모하고-기는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수는 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학문을 하는 데도 녹(祿)이 그 가운데 있고 농사를 짓는 데도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으니, 군자는 도를 근심하고 가난을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두 기와 수로 보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먹는 것 또한 도모할 수 있는데 어찌 유독 도모하지 않겠으며, 농사를 지으면 굶주리지 않는데도 어찌 유독 도리어 굶주리겠으며, 가난도 근심해야 하는데 어찌 유독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또 “몸을 닦아 천명을 기다린다.”라고 하였고, “구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바뀌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변하는 것은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니 또한 변(變)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이 구하는 것이 무익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하다.”⁹¹⁾라는 등의 가르침은 모두 나누어 말한 뜻이겠습니까, 혼합하여

91 이 구하는……하다 :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구하면 얻고 버리면 잃는다. 이 구함은 얻음에 유익하니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구함에 도리가 있고 얻음에 운명이 있다. 이 구함은 얻음에 무익하니 밖에 있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말한 뜻이겠습니까?

또 상고해 보건대, 주자가 말하기를 “높은 기를 품부받으면 귀(貴)하게 되고, 두터운 기를 품부받으면 부(富)하게 되고, 긴 기를 품부받으면 장수하게 된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요절하게 되는 것은 이것과 반대이다.”라고 하였고, 또 “인의예지의 성(性)과 귀천수요(貴賤壽夭)의 명은 모두 하늘이 명한 것이다.”⁹²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명(命)’ 한 글자만 논하였기 때문에 남에게 근원만을 말해 준 것이니,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이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뜻이 이와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모두 하늘이 명한 것이지만, 만약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논한다면 또 뒤섞여 합치는 것을 좋아하고 나누는 것을 싫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다시 논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고자 한다면 끝까지 가르쳐 주기를 참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혹자가 “인용한 ‘학야(學也)’, ‘경야(耕也)’의 말에서 ‘복(祿)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한 것은 빈부는 바꿀 수 없다는 주장과 어긋난 듯합니다.”라고 의심하자, 대답하기를 “이 두 구는 가장 융통성 있게 보아야 합니다. 위 구는 ‘학(學)’ 자에 중점이 있고 아랫 구는 ‘뇌(餼)’ 자에 중점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求則得之, 舍則失之, 是求有益於得也, 求在我者也. 求之有道, 得之有命, 是求無益於得也, 求在外者也.]”라고 한 말을 축약한 것이다.

92 인의예지의……것이다 : 《주자어류》 권4 <성리1>에 “공자는 명(命)을 드물게 말씀 하셨습니다. 인의예지 등 오상(五常)은 모두 하늘이 명한 바이니 귀천(貴賤), 사생(死生), 수요(壽夭)의 명과 같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주자가 ‘모두 하늘이 명한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問 “子罕言命, 若仁義禮智五常皆是天所命, 如貴賤死生壽夭之命有不同, 如何?” 曰: “都是天所命.”]”라고 한 말을 축약한 것이다.

앞에서 제가 논변한 것은 또 매우 용렬하고 비루하니 심력(心力)만 낭비하고 실로 분명한 의미가 없다고 할 만합니다. 또 허다하게 인용한 성현의 말씀은 모두 고명이 이미 묵묵히 알고 체득해서 행한 것이니, 더더욱 고명의 이목(耳目)을 다시는 번거롭게 해서 안 되겠지만, 제가 새롭게 세운 견해는 그 뜻이 애당초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고명이 가르쳐 준 것 중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진술하여 선각(先覺)의 재결(裁決)을 들으려고 한 것일 뿐, 감히 장황하고 현란하게 말할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기와 수는 또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형은 다만 똑같다고 하니, 저는 형의 견해가 “이(理)와 기(氣)는 일물(一物)이다.”⁹³라는 견해와 같을까 염려됩니다. 비록 하나이지만 주장하는 것이 다르니 실제로는 둘이고, 비록 둘이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으니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자공(子貢)이 만년에 학문이 진보된 것은 바로 기질(氣質)을 변화시켜서이니, 과연 수(數)를 위주로 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자(顏子)가 이른 나이에 죽은 것은 바로 목숨의 길고 짧은 것이 수에 달려 있어서이니, 과연 기를 위주로 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난냉한(溫煖涼寒)을 가리켜 수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일이삼사(一二三四)를 가리켜 기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제가 “위주로 하는 것이 같지 않다.”라고 한 말이 이와 같습니다.

93 이(理)와 기(氣)는 일물(一物)이다 : 정암(整菴) 나흠순(羅欽順)이 한 말이다.

무극태극해설(無極太極解說)

주자 또한 이치를 논할 때 무슨 말을 놓아야 할지 어렵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제넘은 제가 당초 논변할 때 그의 설을 공격하여 논파하는 데 급하여 다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글을 아주 길게 썼으므로 말이 대부분 타당하지 못하고 경솔하였습니다. “글자의 뜻을 몰랐다.”라는 말은 바로 제 스스로 그 병폐를 말한 것이니 뒤늦게 후회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다만 예전에 고봉(高峯)의 태극(太極)에 관한 설 중에 ‘심대(甚大)’와 ‘극고(極高)’ 등의 말을 보았는데, 당시에는 그 풀이가 마땅한지 궁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변론하는 글을 지을 때 경솔하게 고봉의 설을 썼는데 지금 다시 고찰할 수 없지만 그가 말한 부분이 아마도 저의 잘못된 견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태(太)’를 ‘심대’라고 한 것이 아마도 잘못된 것인가요? ‘태’는 ‘대(大)’에 비해 더욱 크고 심하다는 의미가 있으니 ‘태’를 ‘심대’라고 풀이하면 또한 문제가 없을 듯하고, ‘극(極)’은 ‘지극’과 ‘표준’이라는 명칭이니 ‘태’에 ‘극’을 보태면 극을 꾸며 주는 것이 될 듯합니다. 그런데 형이 굳이 ‘극지지(極之至)’라고 한 것은 말이 도치되어 순하지 못한 듯하고, 또 ‘태’로 ‘극’을 꾸며서 보텐 말로 여기지 않는다면 ‘태’ 자가 ‘극’ 자 위에 있는 것이 결국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주장에 “사물이 태허(太虛)에서 변화하는 것은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횡거(橫渠)의 설⁹⁴에서 이치

94 횡거(橫渠)의 설 : 형체가 파괴되면 본원(本原)으로 돌아간다.[形潰反原]”라는 설을 가리킨다. 《근사록(近思錄)》 권1 <도체(道體)>에서 장횡거가 “형체가 모이면 물건이 되고 형체가 파괴되면 본원으로 돌아가니, 이것은 바로 혼(魂)이

를 깨닫고서 독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양소장설 가운데도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의 주장을 몇 줄의 말로 공격하여 논파하였는데 마침 형이 지금 논한 것과 부합하니 개인적으로 다행이지만 그가 또한 따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의론들은 처음에 박군(朴君)을 위해 사사로이 변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대에게까지 전해졌으니, 제 설이 고루(孤陋)하여 그대의 큰 가슴과 큰 안목으로 시비를 판정하는 데 있어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복해서 가르쳐 주니 매우 다행입니다. 게다가 이 기회를 통해 돌아가신 선생⁹⁵의 가르침을 받들고 더욱 탄복(歎服)하여 삼가 계속해서 읽어 보았습니다. 박군을 지적한 것이 지극히 준엄한데, 도를 지키는 정성은 이러해야 하니 어찌 크고 작은 견해를 가리겠습니까. 다만 제가 사사로이 어울리는 것은 그에게도 취할 만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초년(初年)에 과거 공부를 하다가 표류(漂流)해 온 사람들을 연경(燕京)으로 압송한 사건을 보고서는 분개하여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도를 구한 자입니다.⁹⁶ 그러나 사우(師友)가 없어서

떠돌아다녀 변하는 것이다.[形聚爲物，形潰反原者，其遊魂爲變乎.]”라고 하였는데, 정자가 누차 그 잘못을 분변하였다. 박상현의 주장이 횡거의 ‘형쾌반원(形潰反原)’의 설과 같다는 말은 《명재선생유고》 권17 <답기자량(答奇子亮)>의 태극무극해(太極無極解)에 대해 말한 내용에 보인다.

95 돌아가신 선생 : 윤拯(尹拯)의 부친인 윤선거(尹宣舉, 1610~1669)를 말한다.

96 표류(漂流)해……자입니다 : 1668년(현종9)에 중국의 천주(泉州)와 장주(漳州)의 주민 1백여 명이 표류되어 제주도에 닿았는데, 당시 조정에서는 그들이 표류해 온 일이 청(淸)나라에 누설될까 두려워서 그들을 포박하여 청나라로 압송하였다. 《顯宗改修實錄 8年 6月 22日, 7月 14日, 10月 3日》이 일을 보고 박상현은 세상에

학문의 문로(門路)를 얻지 못해 처음에는 《계몽(啓蒙)》을 읽고 다음에는 《노자(老子)》와 《장자(莊子)》를 읽으면서 이치를 훤히 깨닫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습니다. 또 《정몽(正蒙)》을 공부하여 횡거(橫渠)의 뜻을 고찰하고 찾는 데 힘쓰다가 결국 경건한 마음으로 넉넉하고 함양하는 공부를 하지 못해 끝내 허다한 큰 병통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를 몰랐는데 그의 이러한 면을 듣고서 서로 만나서 그의 견해를 되돌려 정도(正道)로 돌아가도록 청한 지 지금까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들어 오지도 않았는데 그의 주장을 따라서 공박(攻駁)하고 지금은 또 쫓아냅니다.⁹⁷ 비록 형의 지극한 가르침으로도 그를 되돌릴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행히 저의 책자(冊子)를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보았다고 하니 저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는 지극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사우(士佑)는 바로 유세익(柳世翊)입니다. 광주에 살았고 사람됨이 걸출하였습니다. 초년에 과거 공부를 할 때에는 온순한 면이 매우 부족했는데 중년(中年)에 이 학문에 뜻을 두어 견해가 매우 진보

뜻을 꿰고 진곡(眞谷)에서 두문불출하며 경학(經傳)을 연구하였는데 이 일이 연보에 보인다. 《韓國文集叢刊解題 寓軒集》

97 그가……쫓아냅니다 : 이단의 사상을 주장한 박군의 견해를 유학의 정도(正道)로 되돌리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다. 《맹자》〈진심하(盡心下)〉에 “목적에게서 도피하면 반드시 양주에게로 돌아가고 양주에게서 도피하면 반드시 유가로 돌아오니, 돌아오면 받아들이기 뿐이다. 그런데 지금 양주 목적과 변론하는 이들은 마치 도망친 돼지를 쫓는 것같이 하여 이미 우리로 들어왔는데도 다시 발을 묶어 놓는다. [逃墨, 必歸於楊; 逃楊, 必歸於儒, 歸斯受之而已矣. 今之與楊墨辯者, 如追放豚, 既入其苙, 又從而招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하였고 언론(言論)과 풍격(風格)이 세상 선비들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작고(作故)한 지 지금 5년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에 일찍이 돌아가신 선생의 문하에 찾아가 보았다고 합니다.

남쪽 지방에는 함께 학문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곳에 변휴(邊休)가 있고, 광주(光州)에 유익서(柳益瑞), 김진우(金震羽) 등 몇 사람이 있는데, 모두 자질이 훌륭하여 사학(斯學)에 뜻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김군 같은 경우는 효행(孝行)이 두드러지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모두 과거 공부에 골몰하는 것이 불행히도 저와 같습니다. 남원(南原)에 황신귀(黃信龜)가 있는데 과거 공부를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여 일찍이 유진석(柳晉錫), 김지백(金之白) 두 사람과 학문을 논하였는데 저는 그를 직접 만나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그가 논한 것을 듣고 한두 가지 내용을 편지로 묻고자 하였는데 미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윤자인에게 보냄

與尹子仁

송조(宋朝)에 복왕(濮王)의 논의⁹⁸에 대해서는 당시 제현(諸賢)이 갖추어 논의하고 다투어 변론하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단지 복왕의 후사왕(後嗣王)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지만 그 칭호는 끝내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천(伊川)이 팽중승(彭中丞)을 대신하여 주의(奏議)한 내용을 주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니,⁹⁹ 또한 결론을 내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한기(韓琦)와 구양수(歐陽脩) 등 여러 사람이 ‘황고(皇考)’라고 칭한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합니다. 다만 인용한 《의례》 본문과 《오복연월칙(五服年月勅)》에 모두 “남의 후사가 된 자와 그 부모를 위해 복을 입는 자가 부모라고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 이 항목의 말이 매우 좋습니다. 온공(溫公)은 “사친(私親)을

98 복왕(濮王)의 논의 : 송나라 영종(英宗)이 인종(仁宗)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뒤 자신의 생부 복왕(복안의왕(濮安懿王)) 조윤양(趙允讓)을 추존하려고 할 때 발생한 논의를 말한다. 이 논의가 일어났을 당시 사마광(司馬光)과 왕규(王珪) 등은 “임금의 후계자가 된 사람은 그 임금의 아들이 되는 셈이니, 사친을 돌아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복안의왕을 ‘황백(皇伯)’으로 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기(韓琦)와 구양수(歐陽脩) 등은 “생부를 백(伯)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황고(皇考)’라고 칭해야 한다고 하여 의견이 분분하였다. 《宋史 卷245 濮王列傳》

99 이천(伊川)이……하였으니 : 복왕의 논의에 대해, 정이(程頤)가 “비록 정통(正統)에 뜻을 다해야 하지만 사사로운 은혜를 끊어 버릴 수 없으니 복왕을 복국태왕(濮國太王)이라고 칭한다면 특수한 칭호로써 등급을 달리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중승(中丞) 팽사영(彭思永)을 대신하여 상소를 지었는데, 주희는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二程文集 卷6 代彭中丞論濮王稱典親疏》 《朱子語類 卷127》

들어볼 수 없다.”라고 오로지 주장하였기 때문에 또 이를 그르다고 하였지만, 주자가 이 항목에 대해 추후에 논하기를 “이를 인용하여 증거로 삼았지만 지금의 사대부들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 이는 예경(禮經) 중에 부모라고 말하지 않으면 별도의 호칭이 없음을 모르고 단지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¹⁰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자신을 낳은 부모(所生父母)를 칭할 때 절대로 ‘부모’ 자를 제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아부(亞父)가 복왕의 논의를 물은 데 대한 답서에 “지금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가 있는데 어느 날 양자로 입적한 아버지(所後父)와 친생부(所生父)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경우 그 자식이 와서 양자로 입적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또 친생부를 끝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¹⁰¹라고 하였으니, 이는 똑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자 또한 복왕의 논의에 대해 시비만을 바로잡았고 그 명호(名號)는 바로잡은 적이 없으니, 후학들이 어디에서 기준을 삼아야겠습니까.

생각건대 친생부의 칭호는 천자(天子)부터 서인(庶人)까지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복왕의 논의가 있기 이전에는 참으로 상고하기 어렵고 복왕의 논의가 있는 뒤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고금에 남의 후사가 된 자가 친생부모를 부를 때 끝내 정해진 호칭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다.[有物必有則]”라고 하였으니 천하의 이치로 볼 때 어찌 이러함을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늘

100 이를……것이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87에 보인다.

101 지금……없다 : 《주자어류》 권127 영종조(英宗朝)에 보인다.

말할 때 모두 아버지라고 혼칭(渾稱)하고 혹은 양자로 입적한 아버지를 ‘양부(養父)’라고 부르니 이속(俚俗)은 말할 것이 못됩니다. 주자의 뜻으로 고찰해 보면 비록 똑같이 아버지라 불러서는 안 되지만 또한 부모라는 호칭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국제(國制)에 사대부(士大夫)가 사조(四祖)를 쓸 때에 친생부를 ‘생부(生父)’라고 쓰는데 이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주자의 뜻은 이미 ‘생(生)’ 자를 덧붙였으니 그 호칭이 절로 구별되고, ‘부(父)’ 자를 그대로 남겨 두었으니 사은(私恩)이 여전히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물며 ‘친생부[所生父]’ 자가 《의례》에 근거함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의 제도에 ‘생부’라는 호칭이 어떤 사람에게 근거를 두었으며 어느 때에 시작되었습니까? 혹 대명(大明)도 이 호칭을 썼으니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지금 사람들이 평상시 부를 때 또한 이 예에 근거하고 고유문(告由文)에도 ‘생부’라고 칭한다면, 위로는 예경(禮經)의 본의에 어긋나지 않고 아래로는 주자의 논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양자로 입적한 아버지와 친생부가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세상에서 아버지라고 하면 생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생부라고 칭하고, 사당에 고유문을 지어 올릴 때도 생부라고 칭한다면 또한 무방할 듯합니다.-

주자가 아부에게 답한 글에 “이보다 앞서 인종(仁宗)이 조서를 내리기를 ‘짐의 황형(皇兄) 복안의왕(濮安懿王)의 아들은 짐(朕)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 뜻이 분명하니 당시에 이것만으로 근거를 삼았어도 충분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영종(英宗)도 이것을 근거로 삼았다면 응당 어떠했겠습니까?

연릉계자(延陵季子)가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서 봉분(封墳)을 돌았는데 주자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곧 노장(老莊)의 뜻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¹⁰² 어깨를 드러내고서 도는 것을 무엇 때문에 노장의 뜻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까?

채씨(蔡氏)가 지은 《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篇)》의 수(數)는 어떻습니까?

102 연릉계자(延陵季子)가……하였습니다 : 연릉계자는 춘추 시대 때 오(吳)나라 계찰(季札)이다. 연릉계자가 제(齊)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아들이 죽어 장사를 지냈는데 봉분(封墳)한 다음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으로 봉분을 세 번 돌자, 공자가 이 모습을 보고 예에 맞다고 하였다. 《禮記 檀弓下》 이에 대해 주희는 “노장(老莊)의 뜻이 있다.”라고 하고 또 “여행 중의 예는 단지 이와 같으면 되고 변례(變禮) 또한 단지 이와 같으면 된다.〔旅中之禮, 只得如此. 變禮也, 只得如此.〕”라고 하였다. 《朱子語類 卷87 禮四》

윤자인에게 답함

答尹子仁

‘유행(流行)하는 것, 국한(局限)하여 정(定)하는 것, 변통(變通)할 수 있는 것, 이역(移易)하기 어려운 것은 기(氣)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

[답] 대략적인 면을 말하면 천하 만물은 기가 아닌 것이 없지만 정밀한 면을 말하면 천하 만물은 모두 이(理), 기(氣), 상(象), 수(數)가 있고 각각 주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는 행하고-이(理)와 기를 보면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되며, 기와 수를 곁하여 보면 기는 행하고 수는 국한되니, 무엇보다도 융통성 있게 보아야 합니다.- 상은 국한되고 수는 정하되-상과 수를 곁하여 보면 상은 국한되고 수는 정합니다.- 행하게 하고 국한되게 하고 정하게 하는 것은 이(理)입니다.-이것은 각각 성명(性命)을 바로잡은 뒤의 일이니 극치(極致)를 무엇보다도 체험(體驗)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찌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이 굳이 하나의 기(氣)자만을 들어 그 나머지를 모두 없애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대략적인 면만을 이해한 듯합니다.

‘길거나 짧거나 통하거나 국한되는 것은 모두 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만 수가 그 안에 갖추어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

[답] 수가 그 안에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렇습니다만 유독

“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고 “수가 주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어째서입니까. 이미 “한 가지 사물”이라고 하였으니, 어찌하여 다시 수가 갖추어져 있다고 말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미 “수가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였으니 천하에 어찌 주관하는 것이 없는 사물이 있겠습니까.

‘박(駁), 탁(濁), 유(柔), 우(愚)가 변화되기를 구하는 것은 이(理)이고, 수(壽), 요(夭), 궁(窮), 통(通)이 변화되기를 구하는 것은 이가 아니다.……말하지 않은 것뿐이다.’라는 것에 대해.

[답] 제 생각에 박, 탁, 유, 우는 변할 수 있는 이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기를 구하고, 수, 요, 궁, 달(達)은 변할 수 있는 이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기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구하게 하는 원리는 이(理)이고 변화되기를 구하지 않게 하는 원리도 이이니, 이것이 바로 불변의 상리(常理)입니다. 이를 알면 수명을 연장한다는 명도(明道 정호(程顥))의 말이 본래 상리를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천지 사이의 일개 도적이 조물주의 천기를 훔친다¹⁰³는 것을 정론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상리라면 명도가 어찌하여 이처럼 준엄하게 배척하였단 말

103 천지……훔친다 : 어떤 사람이 정호에게 신선이 되는 설이 있는지 묻자, 산림에 살면서 형체를 보존하고 기(氣)를 단련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있다고 답하였다. 또 그 사람이 성인도 이러한 일을 하는지를 묻자 “이는 천지 사이의 한 도적이다. 만약 조화의 기를 도둑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는가. [此是天地間一賊, 若非竊造化之機, 安能延年?] 만일 성인이 즐겨 하셨다면 주공(周公)과 공자(孔子)가 하셨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近思錄 卷13 辨別異端》

입니까. 보내신 편지에서 하신 말씀은 그 이(理)가 정말 이러하는데도 성인이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긴 듯합니다. 그렇다면 성현은 이치상 당연한 것에 대해 일부러 감추며 숨기고, 도리어 이치상 없는 것으로 사람을 기만하고 세상을 속인 자가 됩니다.

‘이와 기는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없고, 기와 수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답] 형의 견해가 어긋난 원인은 전부 이 한 단락에 있습니다. 기와 수는 《주역》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된 곳이 없습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에서 셋을 취하고 땅에서 둘을 취해 수를 만들고, 음양에서 변화를 관찰하여 괘(卦)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한 가지로 간주하여 말한 것입니까? 또 이르기를 “대연(大衍)의 수는 50이다.”라고 하였으니, 50은 진실로 음양의 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음양의 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河圖)와 낙서(洛書)도 그러하니, 이런 곳을 모두 한 가지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품부받은 기가 맑고 짧은 경우 그 사람은 현명하고 요절한다……
주(注)에서 말한 박군(朴君)의 말’까지에 대해.

[답] 형께서는 ‘맑고 짧은 것[淸而短]’으로 명도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도의 말에서 ‘수지(數之)’¹⁰⁴ 두 글자를 반드시

104 수지(數之) : 〈답윤자인(答尹子仁)〉 두 번째 편지의 장서(長書)에서 인용한 정호

지워 버린 다음에야 거의 말이 됩니다. 그리고 짧은 것과 국한되는 것 역시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 <정소공묘지(程邵公墓誌)>에 “내 아이는 정일한 기를 얻었지만 수는 국한되었구나.[吾兒其得氣之精一，而數之局者歟.]”라는 구절을 두고 한 말이다.

윤자인에게 답함

答尹子仁

1년에 겨우 편지 한 통만 써서 간신히 수개월 뒤에야 편지가 도달하는데,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답장도 이렇게 수개월 뒤에 도착하게 하니 이는 모두 외진 곳에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또한 성의가 적은 것을 탄식합니다. 정월 그믐에 보내신 편지는 지금 마침 도착하였는데 여러 차례 읽어 보고 매우 기뻐오니, 저를 잊지 않으시는 후한 뜻에 더욱 감동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때의 체후가 아주 좋았음을 알아 이 때문에 더욱 마음이 위로되고 후련합니다. 편지를 보내신 뒤에 많은 날이 지났는데, 계절에 맞게 더욱 무탈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병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뜻이 날마다 더욱 쇠해지니, 사람의 꼴이 아닙니다.

기(氣)와 수(數)에 관한 설에 대해 멈추기를 권유하는 말씀을 누차 받았지만,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진실로 멈출 줄 모르는데도 시종일관 그치지 않고 가르침을 내려 주시니 또한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 만합니다. 다만 기, 수 두 글자를 각각 자기 자리로 돌려놓으면 수 역시 주관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 지금 또 제가 논한 “기는 국한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한다.”라는 말을 통틀어 하나의 설로 만들어 전부 기 한쪽으로 귀결시키고 수 한 글자는 빼 버려 다시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국(局) 안에도 수(數)가 있고 변(變) 안에도 수가 있다면 비록 간단하여 논할 것이 없지만 애매모호하여 분별이 없는 데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겨우 수에 관한 학문을 한다는 배척에서 벗어났지만 또 너무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으니, 또한 각각 자신의 주장을 지키면서 깨달은 사람을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

이곳에서 떠난 서생(徐生)은 마을의 호인(好人)인데, 일 때문에 상경한 김에 찾아가 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몸을 부축받아 대신 편지를 쓰게 합니다.

이번에 《어록해(語錄解)》 한 권을 얻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우재(尤齋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풀이한 것이라고 하니, 그렇습니까? 그중에 ‘형이상(形而上)’을 풀이하어 “아직 형체가 있기 전에는 이(理)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고, ‘형이하(形而下)’를 풀이하어 “형체가 있는 뒤에 그릇[器]이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형의 풀이와 저의 견해와는 모두 다르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록해》의 풀이는 한 글자에서 여섯 글자까지를 분류하여 풀이하었는데 중간에 퇴계(退溪)의 훈고(訓詁)와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의 훈고를 인용하였습니다.

변자하(邊紫霞)¹⁰⁵는 장성 사람이고 시대도 멀지 않은데 제가 견

105 변자하(邊紫霞) : 변경윤(邊慶胤, 1574~1623)으로, 자하는 그의 호이다. 자는 자여(子餘)로, 이산해(李山海)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올립하려던 유영경(柳永慶)을 몰아낸 처사를 들어 이산해·이경전(李慶全) 부자와 정인홍(鄭仁弘) 등 대북파(大北派)를 극렬히 비판하다 파직되었다. 1618년(광해군10)에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비 사건을 주동한 병조 판서 유희분(柳希奮)에게 대의(大義)를 논하는 글을 전하였다가 가산이 적몰되었다. 전라도 장성의 봉암서원(鳳巖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이 적어 그의 사적을 자세히 듣지 못하였습니다. 변휴(邊休)에게는 종증조가 되는데 그의 집에도 기술(記述)한 것이 없습니다. 일찍이 《우계집(牛溪集)》 안에 그에게 써서 보여 준 편지¹⁰⁶가 있는 것을 보고서야 그가 배우기를 청한 뒤에 선생이 편지를 보내 말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대가 보낸 편지에서 문인이라고 단정하신 것은 필시 상고한 곳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의 손자 변광재(邊光載)가 서울에 있으니, 그의 집에서 변자하의 행장을 구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자하의 선친은 휘(諱)는 이중(以中)이고, 호(號)는 망암(望庵)입니다.¹⁰⁷ 마을 사람들이 그의 행의(行義)를 자못 칭송하니, 저도 들어서 압니다. 변휴에게 고조, 변광재에게 증조가 되는데 변휴의 집에 행장의 초고가 있고, 우계(牛溪 성혼(成渾))와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를 왕래했다고 들었습니다. 형께서 만약 이 행장을 구하려고 하신다면 훗날 변휴에게 청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휴가 편지를 받고 감사해서 이번 봄 과거로 인해 상경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뵈고자 하였는데 마침 매우 바쁜 일로 만나 뵈지 못해서 매우 아쉬웠다고 하였습니다.

106 그에게……편지 : 《우계집(牛溪集)》 권6에 〈서시변생(書示邊生)〉이 실려 있다.

107 변자하의……망암(望庵)입니다 : 변이중(邊以中, 1546~1611)의 자는 언시(彦時)이다. 이이(李珣)와 성혼(成渾)에게 배웠다. 1592년(선조25) 전라도 소모사(全羅道召募使)가 되어 군비(軍備) 수습에 힘썼다. 그 뒤 조도어사(調度御使)가 되어 전공을 세우고, 화차(火車) 300량을 제조하여 순찰사 권율(權慄)에게 주어 행주대첩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으며, 장성의 봉암서원(鳳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에 《망암집(望庵集)》이 있다.

이일재(李一齋 이항(李恒))의 문인에 대해서는 모두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건문의 천박함이 너무 심합니다. 마땅히 찾아 묻고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호남에서 함께 학문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경지에 오른 자로 말하면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황신귀(黃信龜)는 공부한 지가 자못 오래되었습니다. 종종 그의 논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매양 찾아가 교류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그가 저술한 《대학차의(大學筭疑)》를 얻어 읽어 보니 중간에 한두 군데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지만 대체로 견해가 매우 정밀하였습니다. 그제야 호남에도 이런 인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형께서는 그의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있으며 혹여 편지를 주고받은 일이 있으십니까?

윤자인에게 보냄

與尹子仁

저의 가문이 불행하여 또 박씨(朴氏)에게 시집간 셋째 딸이 죽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잃은 지가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재앙이 이미 쌓이고 하늘도 무정하니, 간장이 끊어질 듯이 애통하고 슬프지만 오히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습니다. 다만 죽음만이 하늘에 답할 만하니 늙은이의 슬픈 눈물이 또한 다시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지난가을 이군(李君)을 통해 정다운 편지를 받고 학문하는 체후가 아주 좋음을 알았습니다. 편지의 말씀이 지성스럽고 간절하니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고 위로되는 데다 저를 버리지 않은 후한 뜻에 감동하였습니다.

장모(丈母)의 상(喪)은 형께서 이미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례는 다음 달 28일인데 처음에는 장례에 참석하고자 찾아가 뵈어 지극한 바람을 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죽은 딸의 상여가 돌아오는 날도 그때이니, 슬픔과 애통이 아울러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당초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윤자인에게 답함

答尹子仁

제가 당한 재앙은 사궁(四窮)보다 극심하고¹⁰⁸ 받은 죄는 삼천 개의 형벌 중에 으뜸입니다. 귀신의 주벌이 아니라면 필시 하늘이 내린 형벌일 터이니, 따질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형께서는 오히려 그렇다고 여기지 않고 곧바로 매우 정다운 편지를 보내주었으니 대단히 간곡하였습니다. 이는 이른바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전할 인편이 전혀 없어 여태껏 감사의 답장을 올리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더욱 죄스럽고 두렵습니다. 여쭙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쓸데없는 말은 줄이겠습니다.

근간에 막 형을 배척한 최신(崔愼)의 상소¹⁰⁹의 대략을 보았는데 내용이 저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습니다. 형께서 진실로 이런 말로 우옹(尤翁 송시열(宋時烈))을 곧바로 배척하였다면 어찌 고명(高明)한 식견

108 당한……극심하고 : 사궁은 환(鰥)·과(寡)·고(孤)·독(獨)을 말한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독', 어려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라고 한다. 《孟子 梁惠王下》 참조. 《송암선생문집》 권4에 있는 여러 제문에 의거하면 부모와 처자식을 모두 잃은 이후여서 이런 말을 한 듯하다.

109 최신(崔愼)의 상소 : 최신은 송시열의 문인이다. 이른바 '신유의서(辛酉擬書)'에서 윤증이 "왕도와 패도를 아울러 쓰고, 의와 이를 같이 행한다.[王霸並用, 義利雙行.]"라는 말로 송시열을 비난하였는데, 최신이 이를 두고 상소하여 윤증이 스승 송시열을 무함한 것에 대해 시비를 가려 주기를 청하였다. 《明齋遺稿別集 卷3 擬輿懷川書, 韓國文集叢刊 136輯》《承政院日記 肅宗 10年 4月 28日》

으로 십분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전해 듣건대, 이 말은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에게 보낸 형의 편지에 있는데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도 독맞아 사림(士林)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현석과 서로 강론한 말 중에 있는 것이니, 모르겠습니다만 현석도 이를 그르다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또 모르겠습니다만 형께서 우옹을 스승으로 섬긴 것이 옛사람의 사제관계처럼 과연 우옹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분수와 의리를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편지를 주고받으며 의심스러운 곳을 질정하고 어려운 곳을 물으면서 범범하게 사우(師友)로 대한 것입니까? 앞의 말대로라면 지난 옛날에는 스승을 이단이라고 배척한 일이 없었고, 뒤의 말대로라면 처음에는 투합했다가 나중에 갈라서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무수합니다. 다만 돌아가신 선생(윤선거(尹宣擧))과 우옹께서는 애초에 모두 윤휴(尹鑄)를 칭찬하고 인정하였다가 우옹은 곧바로 그의 거짓을 깨닫고는 즉시 관계를 끊고 선생께도 절교하라고 권유하였는데 선생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현석이 지은 선생의 묘지(墓誌)에 ‘태산북두(泰山北斗)’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우옹이 이를 옳다고 여기지 않아 누차 문자(文字)에 드러내었습니다. 우옹이 북쪽으로 귀양 갈 때¹¹⁰ 현석이 전송하는 자리에서 충고를 청하자, “어찌하여 속히 노서(魯西 윤선거)의 묘지문을 고치지 않는가.”라고 답하셨으니, 이 소문 역시 보태거나 빠진 것이 없습니까? 이는 온공(溫公), 문정(文定)의 일¹¹¹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처

110 북쪽으로……때 : 1675년(숙종1) 갑인환국(甲寅換局)으로 인해 송시열이 덕원(德源)으로 유배되었을 때를 말한다.

111 온공(溫公), 문정(文定)의 일 : 온공은 사마광(司馬光)의 시호이고, 문정은 호안

림 깊이 배척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형께서 이를 들었다면 마땅히 놀라고 두려워 또한 아버지와 스승 사이에서 스스로 처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형을 위해 계책 하나를 내어 보자면, 형께서 선친의 뜻을 해명하였는데 끝내 우옹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면 물러나 들은 것을 고수하면서 온공과 문정의 일로 위로는 선친의 뜻을 위로하고 아래로는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형께서 굳이 자신의 불만을 마음에 담아 두고 상대의 잘못을 엿보아 자신의 편지에 드러내어 남을 통해 우옹께 알려지게 한다면 이 또한 선친을 위해 원한을 갚는 것이지만 좋은 도리는 아닙니다. 게다가 영강(永康)¹¹²을 끌어와 우옹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면 너무 맞지 않은 듯하고 공정한 태도로 갚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본령(本領)이 이미 어긋났으니, 어찌 다시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형께서는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만약 분수와 의리가 끝내 편치 못한 점이 있고 또 편지에서 한 말이 스승을 곧바로 배척한 것이 아니라 일을 논하고 말을 만드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끌어들었음을 깨닫는다면 급히 힘을 다해 해명해서 일을 잘 수습하여 평생의 학력(學力)을 보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애초

국(胡安國)의 시호이다. 온공, 문정의 일은 사마광이 《춘추》를 배척한 왕안석(王安石)과 친하고, 호안국이 간신(姦臣) 진희(秦檜)와 사이가 좋았던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112 영강(永康) : 남송(南宋) 때의 학자인 진량(陳亮, 1143~1194)을 말한다. 자는 동보(同甫), 호는 용천(龍川)이며 무주(婺州) 영강 사람이다. 왕(王), 패(霸)와 의(義), 이(利)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주희(朱熹)를 비판하여 왕, 패와 의, 이를 함께 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에 곤장 배척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제 다시 일마다 끝까지 잘못을 저지른다면 제가 알 바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림(士林)이 장차 분란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만약 스승을 배신했다는 말이 더해지면 형께서는 장차 무슨 말로 해명하시겠습니까? 현석은 이에 대해 어떠하다고 하였습니까? 만약 이러한 도리를 힘쓰지 않는다면 또한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또 우옹이 형의 집안을 아박하게 대우한 것도 타인에게 전해 듣고서 깊이 의심했던 일이므로 감히 평소 서신을 주고받았던 의리를 믿고 편지 한 통을 써서 끝까지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편이 없어 보내지 못해 그전에 답장이 오기를 몹시 기다리면서 삼가 《정성서(定性書)》의 “확연히 크게 공정하니 사물이 오면 순히 응한다.[廓然大公物來順應]”라는 글귀를 오늘날의 상황에서 깊이 토론하고자 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형께서는 또한 이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니 만약 내버려두지 않고 답하려고 하신다면 고씨(高氏)나 양씨(梁氏) 집의 심부름꾼에게 속히 부탁하여 편지를 급히 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 하루 노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편지를 써서 고씨 집 큰아들에게 전해 부쳤는데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윤자인에게 보낸

與尹子仁

지난달 답장을 받고 형의 말씀에 감사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석(玄石)에게 보낸 형의 편지 및 최(崔)의 상소와 박(朴)의 상소를 보고 전후 사정을 대략 안 뒤에야 비로소 제가 들은 것이 사실과 다른 것이 많음을 알았으니, 저의 고루함이 진실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허다한 사정들도 대부분 상세히 모르니 이는 쉽게 묻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직 형께서 목천(木川)의 일¹¹³을 가장 심하다고 말씀하신 것만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우옹(尤翁)은 필시 들은 것이 있을 터이나 그대는 마침내 근거가 없어 알아내기 어렵다고 결론을 지었으니, 공론의 단안(斷案)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형께서 이전에는 용인했다가 마침내 그 뒤에 일을 꺼낸 것은 사리의 시비를 살피는 데에 부족한 듯합니다. 또 “정의(情意)가 이미 막혔다.”라고 한 형의 말은 진실로 이 일 때문에 나왔으니, “의리가 이전과 다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말과 둘로 나누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형께서 일의 가장 중요한 관건에 잘못된 것은 다만 이 한 가지 일로 인해서일 뿐입니다.

113 목천(木川)의 일 : 1674년(숙종 즉위년)에 이산(尼山)의 노강서원(魯岡書院)에 윤선거를 배향하기 위하여 각 고을에 통문을 보내자, 목천 유생들이 “강도(江都)에서 청나라 군대의 포로가 되었던 윤선거를 서원에 배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는 통문을 각 고을에 돌렸다고 하는 송시열의 주장을 말한다. 이 때문에 노강서원 측에서 통문을 조사하였으나 송시열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통문은 없었다. 《국역 명재유고 명재연보 제1권 55년 입술》

인(仁)을 주장하는 것과 의(義)를 주장하는 것은 비록 각각 방식은 다르지만 또한 의가 미진한 인은 아직 없었으니, 형께서는 반드시 인과 의를 극진히 하는 데에 힘쓰고 사소한 사의(私意)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만약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면 다시 답장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번거로워 감히 다 쓰지 못합니다.

윤자인에게 보냄¹¹⁴

與尹子仁

지난겨울 돌아온 변우(邊友)를 통해 10월 4일에 보내신 답서를 받았습니다. 저를 소원히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너그러이 대해 주시니, 보잘것없는 사람까지 포용하는 큰 도량을 더욱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우해 주셨으니 곧바로 다시 한두 가지를 여쭙어야 합니다만 그대가 “(나의) 속내를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 씀하시고, 그 다음 내용은 마음에 편안하지 않은 일이 있어서 곁가지로 언급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또 주고받은 편지와 김(金)과 조(趙)의 세 번째 상소를 모두 실었으니, 그것을 보고 이 일은 이미 수습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별 볼 일 없는 얇은 식견으로는 함부로 그 사이에서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침내 이렇게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뒤에야 깊이 생각해 보니 당초 어리석은 저의 논의는 본래 시비가 얽히고설킨 사안에 함부로 끼여든 것이 아니라 다만 평소 존모하고 경애하는 마음으로 벼슬 돕는 의리에 부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허다하게 구애받는다고 하여 너그러운 대우와 총애로 베푼 보답을 받은 뒤에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것은 본심이 아니니, 다시 한마디 말을 올려 형의 결정을 들은 뒤에 그치겠습니다.

114 윤자인에게 보냄 : 박광일(朴光一)이 지은 <송암기공행장(松巖奇公行狀)>에 따르면 1684년(숙종10) 무렵에 쓴 편지이다.

주고받은 편지를 상세히 읽고 삼가 전말을 다 알았습니다. 이 일의 갈등과 문제는 비록 수백 수천 마디 말로 분변하고 따져도 귀결은 다만 강도(江都)의 일¹¹⁵과 윤희(尹鑄)와 절교했는지의 여부 두 가지 일에 있을 뿐입니다. 이는 제가 우옹(尤翁 송시열(宋時烈))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한번 여쭙고자 했던 이유이고, 망녕된 생각으로는 형께서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한 데에 근심을 풀지 못해 그치지 않고 재차 분수 넘게 논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온공(溫公 사마광(司馬光))과 문정(文定 호안국(胡安國))의 일¹¹⁶을 들었는데 형께서는 이를 옳다고 여기지 않았고, 나중에 목천(木川)의 일을 논하였는데 형께서는 또 듣지 않고서 매번 제가 곡절을 자세히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이른바 별다른 곡절이 필시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우옹께 여쭙지 못하고 삼가 그 곡절을 전부 듣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주고받은 편지에서 얻은 사실로 생각해 보면 그 곡절은 실로 양쪽이 서로의 생각을 자세히 모르는 데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우옹의 뜻은 오로지 선생(윤선거)이 윤희와 절교하지 않은 데에 있는데 편지를 주고받으며 말을 나누다가 날로 더욱 잘못되어 강도의 일까지 미친 것입니다. 형께서는 강도의 비방을 지나치게 생각하여 중점이 윤희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해 정이 먼저 막히고 의심이 점점 쌓여 강도에 대한 비방이 괴이한 줄만 알고 윤희와의 관계가 비방을

115 강도(江都)의 일 : 1636년(인조14) 병자호란 때 윤선거가 강화도로 피신하였는데 강화도가 함락된 뒤에 순절(殉節)하지 않고 탈출하였다. 윤선거가 죽은 뒤 윤증이 송시열에게 선친의 묘지를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송시열이 묘지에서 이 일을 기롱하는 내용을 썼다.

116 온공(溫公)과 문정(文定)의 일 : 자세한 내용은 186쪽 주111 참조.

불러오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여 점점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 일의 요점은 또한 전과 다르지 않으니, 청컨대 이전 편지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약 강도의 일로 말한다면 우옹이 제기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시끄럽게 떠든 것인지를 막론하고 선생께서 자처하고 자숙한 것을 사람들이 모두 우러른 것은 천지 귀신에게 증명받을 수 있으니, 제 생각에 이는 일시적인 남의 말이 어지럽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효심으로 하나 하나 해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제가 지난번에 말한 “사리의 옳고 그름을 살피는 데에 대단히 부족한 곳인 듯하다.”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하물며 지금 우옹께서 이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였으니 형의 효심에 어찌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윤희와 절교하지 않은 일로 말하면 애초에 이미 대략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옹이 선생을 흠잡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이니, 이는 바로 후학이 정밀하고 극진히 생각하여 질정을 받을 곳입니다. 성현은 도(道)가 다르니, 백이(伯夷)와 유하혜(柳下惠)가 이런 경우입니다.¹¹⁷ 그러므로 송(宋)나라의 제현(諸賢)도 일찍이 도가 달랐으나 모두 백세의 스승이 되는 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 윤희가 《중용》의 주석을 고친 것은 왕안석(王安石)이 《춘추(春

117 백이(伯夷)와……경우입니다: 백이는 섬길 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않으며 악한 사람의 조정에 서지 않으며 악한 사람과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 유하혜는 더러운 군주를 섬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작은 벼슬을 낮게 여기지 않아 조정에 나아감에 어짐을 숨기지 않았으며 벼슬길에서 누락되어도 원망하지 않으며 곤액을 당하여도 근심하지 않았다. 《孟子 公孫丑上》

秋》를 배척한 것¹¹⁸과 비교해 보면 어떠합니까. 당시에 명도(明道 정호(程顥))도 오히려 드러내 놓고 배척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성인(聖人 공자(孔子))의 뜻에 아무 해로움도 없다 하여 스스로 끊게 하도록 두어서가 아니겠습니까. 윤희가 예송(禮訟)을 앞장서서 일으켜 흉악한 짓을 저지른 것은 왕안석이 옛 법을 바꾸고 어지럽혀 거의 조씨의 송(宋)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일과 비교해 보면 어떠합니까. 그전에 온공이, 왕안석이 끝내 이런 극심한 지경에 이르게 될 줄 깨닫지 못한 것은 그의 행실이 깨끗하여 온공을 기만하기 충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악함이 드러나기 전에 온공이 또한 어찌 반드시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정(文定)이 진회(秦檜)를 칭찬하고¹¹⁹ 울곡(栗谷)이 정여립(鄭汝立)을 잘 대우한 것¹²⁰이 모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선생은 윤희에 대해 명도가 마음먹은 것과 온공이 속은 것처럼 마음으로는 절교하였으나 일로는 배척하지 않은 것이니 진실로 성덕(盛德)과 대절(大節)에 손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118 왕안석이……것 : 《춘추》를 학관(學官)에 넣지 못하게 하고, ‘조각조각 잘려진 조정의 기록[斷欄朝報]’이라고 폄하한 것을 말한다. 《宋史 卷327 王安石列傳》

119 문정(文定)이 진회(秦檜)를 칭찬하고 : 송나라 휘종(徽宗)과 함종(欽宗)이 금나라로 끌려갈 때 진회가 따라갔는데, 몇 년 뒤에 돌아와서 자신을 감시하던 금나라 군사들을 죽이고 도망쳤다고 주장하였다. 호안국은 평소 진회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 일을 칭찬했는데, 호안국이 죽은 뒤 진회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금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하고 악비(岳飛)와 같은 명장을 죽이는 등 악행을 저질렀다. 《宋史 卷473 姦臣列傳 秦檜》

120 울곡(栗谷)이……것 : 정여립은 원래 이이(李珣)의 문인이었는데 이이가 죽자 동인(東人)에 붙여 이이를 비난하여 홍문관 수찬 자리를 얻었다. 선조(宣祖)가 이를 불쾌히 여기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고, 1589년(선조22) 모반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안악 군수(安岳郡守) 이축(李軸)이 고변(告變)하여 관련자들이 차례로 잡히자 죽도(竹島)로 도망갔다가 관군에 포위되어 자살하였다.

형의 뜻을 삼가 헤아려 보면, 필시 드러내 놓고 절교해서 이런 갈등을 초래하였다고 여기실 것이니, 이는 충선(忠宣)은 혹 문정(文正)에 대해 다 알지 못했는데 구양공(歐陽公)은 도리어 알았던 일¹²¹과 비슷한 듯합니다. 그러나 준엄하게 편벽된 행실을 막고 부정한 말을 그치게 하는 우암의 뜻이 어찌 정도(正道)를 지키기를 그만둘 수 있었겠습니까. 저것도 하나의 도이고 이것도 하나의 도이니, 도는 다르지만 모두 바름으로 귀결되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형께서 만약 일찍부터 이런 의리를 지켰다면 애초에 해명하는 데에 힘쓸 것이 없었을 것이고 이후에 변론하지 않는 것도 무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일은 지금 우옹께서 고집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또한 더 이상 말을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고 다만 효심으로 스스로 편안하게 하여 백세 뒤의 공론(公論)을 기다리면 됩니다.

‘왕패병용(王霸竝用)’과 ‘의리쌍행(義利雙行)’의 설로 말하면, 형께서 만약 우옹의 학문과 출처(出處), 절의와 언행을 보았다면 또한 곧장 사실에 근거하여 하나하나 조목별로 개진하고 여쭙어 스승의 의도를 알게 되는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께서 또한 스스로 “혹여 사의(私意)에 가려진 듯하다.”라고 한 것은 이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121 충선(忠宣)은……일 : 충선은 송나라 범순인(范純仁)이고, 문정은 범순인의 아버지 범중엄(范仲淹)이며, 구양공은 구양수(歐陽脩)이다. 범중엄이 승상 여이간(呂夷簡)과 사이가 나빴는데, 황제 앞에서 여이간과 공박하다가 모두 좌천되었다. 여이간이 다시 재상이 된 뒤 범중엄을 발탁하자 범중엄도 그와 함께 국사를 다스렸다. 범중엄이 죽은 뒤 구양수가 그의 비문에 두 사람이 만년에 원한을 풀었다고 썼는데, 범순인은 아버지가 여이간과 화해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쓴 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 하여 비문에서 그 구절을 빼 버렸다. 《晦庵集 卷38 答周益公書》

현석이 이른바 “우옹께 사과하십시오.”라는 것은 부득이한 일인 듯 하지만 또한 어찌 유독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 꺼려하십니까. 형의 학식과 덕량으로 우연히 이 점에 대해 보지 못하여 이렇게 분분한 병폐를 초래하였으니, 이는 제가 형에 대해 개탄스러워 계속 혀를 차게 되는 이유입니다. 형께서 선친을 위해 변호한 글을 읽으면 저도 모르게 뼈가 시리고 마음이 슬퍼져 눈물이 줄줄 흐르고, 형께서 스승에게 개탄스러워하는 글을 읽으면 저로 하여금 뜻이 꺾이고 말이 막혀서 정신이 평온하지 않게 만듭니다.-함부로 거리낌이 없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형께서는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부하고, 생각을 바꾸어 아버지와 스승 사이에서 양쪽 다 잘못되지 않는 쪽으로 잘 처신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 형께서 이전에 한 지적과 나중에 함부로 한 말은 비교적 잘못이 무거웠어도 배신하려는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우옹께서 지레 먼저 형과 절교한 이유가 어찌 오로지 여기에 있겠습니까.-아마도 오로지 윤희를 심하게 공박하지는 않은 데에 있을 것입니다.- 아, 형께서 절교를 당한 것은 비록 배신한 것과 다르지만 어찌 편안히 받아들이고 그 사이에 다시 힘을 쏟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바라는 것은 형께서 이상 두 가지 일로 먼저 마음을 편안히 하고, 이하 두 가지 일로 자신을 돌아보고서 승복하고 사죄하여 반드시 윤희를 심하게 공박하지 않은 곡절에 대해 극력 해명하여-매번 ‘아무개(某人)’라고 일컫은 것은 심하게 공박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신다면 이 어른도 어찌 끝내 뜻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형의 집안을 위해 우옹께 변호하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였는데, 지금 만약 형의 답장 한마디가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어찌 변호

해 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른바 “인의(仁義)가 극진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과 거의 가까워, 세도(世道)의 큰 분쟁과 풍파가 장차 반드시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이니,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형께서 만약 이전의 견해를 고수하여 다시 합의할 뜻이 없다면 저도 어찌할 수 없으니, 마땅히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

제가 전후로 보낸 편지 두 통은 말이 짧고 뜻이 부족하여 무례한 잘못이 매우 무거운데 쓸데없이 큰 논란을 일으켰으니, 저를 탓하는 말이 날마다 이릅니다. 그러나 제가 형을 위해 근심하고 아껴서 돌아보는 뜻을 끝내 스스로 억누를 수 없어서 염치를 무릅쓰고 억지로 말씀을 올려 스스로 그칠 줄 모르니, 지극히 어리석고 망녕됩니다.

유진경¹²²에게 답함

答柳進卿

학문이 영성한 내가 어찌 감히 함부로 예(禮)를 의논하겠는가. 그러나 그대가 백인(伯仁 유평수(劉必壽))을 위해 예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인해 염치를 무릅쓰고 시비가 뒤얽혀 있는 문제에 끼어들어 소견을 대략 말하지 않을 수 없네.

지금 보낸 편지를 받고서 더욱 놀랐네. 가공언(賈公彦)의 소(疏)¹²³가 이미 예가(禮家)의 척도이고 박장령(朴掌令 박세채(朴世采))도 당세의 명유(名儒)이니, 내가 어찌 감히 경솔하게 지적하겠는가. 다만 삼정(三正)과 수례(輅), 면류관은 모두 성왕(聖王)의 제도인데도 공자(孔子)는 각각 취사(取捨)하셨고,¹²⁴ 공자는 은(殷)나라가 연제(練祭)를 마친 뒤에 부제(祔祭)하는 것을 좋게 여기셨는데도 《서의(書儀)》와 《가례(家禮)》¹²⁵는 주(周)나라의 예를 따랐으며, 주자(朱子)가 더러

122 유진경(柳進卿) : 유익서(柳益瑞, 1642~1714)로, 진경은 그의 자이며, 호는 나옹(懶翁)이다. 기정익의 매부이다. 《敬庵先生遺稿 卷11 學生柳公行狀, 韓國文集叢刊 188輯》

123 가공언(賈公彦)의 소(疏) : 당(唐)나라의 경학가 가공언이 예학(禮學)에 정통하여 《주례소(周禮疏)》, 《의례소(儀禮疏)》, 《예기소(禮記疏)》 등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서는 《의례소》를 말한다.

124 삼정(三正)과……취사(取捨)하셨고 : 삼정은 하(夏)나라, 은(殷)나라, 주(周)나라의 정삭(正朔)을 말한다. 《논어》〈위령공(衛靈公)〉에 안연(顔淵)이 공자에게 나라 다스리는 방도를 묻자 “하나라의 달력을 쓰고, 은나라의 수례를 타며, 주나라의 면류관을 써야 한다.”라고 한 일이 보인다.

125 서의(書儀)와 가례(家禮) : 《서의》는 북송(北宋)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예서(禮

이천(伊川)을 따르지 않자 동래(東萊)가 주자를 논박하고 비판한 것이 많았네. 옛날부터 성현은 본디 때에 따라 취사하였으니, 또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가공언의 소는 비록 중히 여길 만하나 성인의 경전만 못한 듯하고 박장령의 견해는 비록 높일 만하나 또한 어찌 정견(正見)에 하나의 잘못도 없겠는가.

삼가 살펴보건대, 참취장(斬衰章)¹²⁶ 경문(經文)에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해 입는다.[父爲長子]”라고 한 것은 성인이 글을 쓰셨으니 따질 것이 없네. 전(傳)에 “선조(先祖)에게 정(正)과 체(體)¹²⁷가 되고, 또 존중할 사람이기 때문이다.[正體於上, 又乃將所傳重]”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선조에게 정과 체가 된다.”라는 것은 장자를 가리켜 말한 것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가리켜 말한 것인가?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가리켜 말했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장자를 가리켜 말했다고 한다면 장자를 위해 참취복을 입어 주는 경우 마땅히 그 장자의 정(正)과 부정(不正), 체(體)와 불체(不體)를 논해야지, 또 어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과 체의 여부를 미루어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또 “서자인 아버지는 자신의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으니 할아버지를 계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庶子不得爲長子三年 不繼祖也]”라고 하였는데, 이른바 “계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서자를 가리

書)로, 서식(書式) 1권, 관의(冠儀) 1권, 혼의(婚儀) 2권, 상의(喪儀) 6권 등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마서의(司馬書儀)》라고도 한다. 《가례》는 주희(朱熹)가 편찬한 책으로,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예절을 모아 엮은 것이다. 통례(通禮)·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의 5장으로 되어 있다.

126 참취장(斬衰章) : 《의례》〈상복(喪服)〉에 보인다.

127 정(正)과 체(體) : 정은 장자(長子)를, 체는 소생(所生)을 말한다.

켜 말한 것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가리켜 말한 것인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가리켜 말했다면 그만이지만 만약 서자를 가리켜 말했다고 한다면 장자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 경우 마땅히 자신이 할아버지를 계승했는지의 여부를 논해야지, 어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계승했는지의 여부를 미루어 따질 수 있겠는가. 지혜로운 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러한 이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현(鄭玄)의 주석에서는 다만 “아버지의 후사가 된 사람인 뒤에야 장자를 위해 삼년복을 입는다.”라고만 말하고 다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정과 부정, 체와 불체의 설을 쓸데없이 말하지 않은 것이네. 전과 주의 설은 이 정도로 그치면 충분하네.

가공언의 소에서 이른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위에서 적자에서 적자로 서로 계승하였다.[父祖適適相承於上]”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 3대와 4대의 장자[祖父身三世 四世長子]”라고 한 것은 경문에서 상고하면 그러한 뜻을 볼 수 없고 전과 주로 참고해도 근거할 만한 것이 없으니, 과연 지엽적인 문제를 만든 것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대가 적자와 적자가 서로 계승한다는 설을 정현 주의 “선조에게 정과 체가 된다.”라는 한 구절을 풀이하었다고 한 것은 마치 “선조에게 정과 체가 된다.”라는 한 구절을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네. 글을 이처럼 보면 애초에 논할 만한 것이 없지만 만약 ‘정’자와 ‘체’자를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자신에게 무게를 두어 본다면 장자를 위해 참최복을 입는 것을 풀이하기 위해 문장을 쓸 때 장자의 정과 체에 먼저 무게를 두지 않고 도리어 먼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정과 부정, 체와 불체에 무게를 둘 수 있겠는가.

요컨대 장자에 근거하여 말해 보면, 아버지의 장자가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선조에게 정과 체가 되고, 할아버지의 장손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선조에게 정과 체가 되는 것이네. 이른바 “선조에게 정과 체가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매우 분명하니, 어찌 장자가 선조에게 정과 체가 되는지를 제쳐 두고 굳이 먼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선조에게 정과 체가 되는지를 거슬러 논하여 ‘어찌하여 삼년복을 입는가?〔何以三年〕’ 아래로 이어서야 되겠는가. 이는 사람들이 비웃을 만하네.

그대는 또 정과 체의 풀이가 사종(四種)¹²⁸에 상세히 있다고 하는데, 사종설 가운데 이른바 ‘체이부정’, ‘정이불체’라는 것은 과연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가리켜 말한 것인가? 나는 또한 장자나 장손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 생각하네. 이것도 가공언의 소이니, 가공언의 뜻을 또한 알 수 있네. “선조에게 정과 체가 된다.”라는 한 구절을 풀이한 것입니다.”라는 그대의 말은 가공언의 뜻까지 아울러 잘못 본 것이네. 또 사종설로 말하면 경문과 전(傳)에 비록 분명한 글은 없지만 그 조리가 어긋나지 않으니, 또 어찌 부족한 점 때문에 좋은 점까지 취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무릇 예는 천리에 근본한 것이니, 주(註)와 소(疏)가 비록 번다하기는 하나 오직 이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보고 취사한다면 누가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 지금 참취를 가지고 말하면 집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

128 사종(四種) : 가통(家統)을 이은 아들이라도 부모가 그를 위해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를 말한다. 첫째는 ‘정과 체이지만 전중을 하지 못한 것〔正體不得傳重〕’으로 적자에게 폐질이 있어서 종묘를 주관할 수 없는 경우, 둘째는 ‘전중은 했으나 정과 체가 아닌 것〔傳重非正體〕’으로 서손(庶孫)이 뒤를 이은 경우, 셋째는 ‘체이기는 하지만 정이 아닌 것〔體而不正〕’으로 서자를 후사로 삼은 경우, 넷째는 ‘정이기는 하지만 체가 아닌 것〔正而不體〕’으로 적손(嫡孫)을 후사로 삼은 경우이다. 《儀禮疏 卷29 喪服》

은 아버지이고 복제(服制)에서 가장 중한 것은 참최복이니, 중한 참최복은 본래 아버지를 위한 것이네. 그러므로 자신이 아버지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을 때는 본래 아버지가 적자인지 아닌지를 감히 논할 수 없고 아들이 나를 위해 참최복을 입을 때에도 내가 적자인지 아닌지를 어찌 감히 논할 수 있겠는가. 나로부터 위로 미루어 나가면 비록 백대가 되더라도 모두 그러하고, 아들로부터 아래로 미루어 나가면 무궁한 후세에 이르기까지 역시 똑같네. 이렇다면 아버지를 위해 참최복을 입을 때 내가 아버지의 적자 여부를 감히 논할 수 없는데, 장자를 위해 참최복을 입을 때는 도리어 아버지의 적자 여부를 감히 거슬러 논한다는 것이 이치로 볼 때 어떠한가? 경문과 전에서 상고해도 이미 저와 같고 이치로 미루어 보아도 이와 같으니, 지엽적인 문제를 만들었다고 가씨를 기롱한 것은 아마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 듯하네.

나의 견해는 이러한데 그대는 선유(先儒)를 경솔히 논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노선생의 근신하는 방도로 실증하니,¹²⁹ 비로소 함부로 말한 죄를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달았네. 다만 선생이 수의(收議)할 때 진실로 “가씨는 명유(名儒)이고 또 면재(勉齋)가 《통해속편(通解續編)》에 수록하였습니다.”¹³⁰ 라는 말이 있고, 그중에도 가지 위의 가지라는 말이 있다고 얼핏 기억하니, -헛수가 오래되어 상세히 알지 못하니, 혹여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듯하네. - 그 뜻도 혹여 이 한마디를 가리키는 듯하네. 그렇지

129 노선생의……실증하니 : 노선생은 송시열을 가리킨다. 송시열이 예송논쟁으로 귀양을 갔다가 해배(解配)된 뒤에 누가 자신에게 예에 관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듯하다.

130 가씨는……수록하였습니다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26 <대왕대비복제의(大王大妃服制議)에 보인다. 면재는 송(宋)나라 황간(黃幹, 1152~1221)의 호이고, 《통해속편》은 황간이 지은 《의례경전통해속편(儀禮經傳通解續編)》을 말한다.

않다면 소에서 말한 것이 어찌 당일 쟁론했던 하나의 큰 명증(明證)이 아니겠는가마는 선생이 끝내 이를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증명하지 않았으니, 그 뜻을 또한 알 수 있네.

“지엽이라는 말은 소를 본 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것은, 저쪽이 옳은 것이 아니면 이쪽이 반드시 옳은 것이니 많이 변론할 필요가 없네. 만약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답장을 보내게.

과거에 관한 논의 또한 삼가 다 알았네. 순상(巡相)의 관문(關文)을 아직 듣지 못했을 때는 사사로이 집안 동생과 조카 및 글을 배우러 온 한두 사람과 함께 선비 된 자의 과거 응시와 출처(出處)에 관한 의리를 대략 논하고서 이번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시장(試場)을 열기 7, 8일 전에 비로소 관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이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체로 전하는 자들은 모두 응시하고 싶지만 감히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네. 관문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 모두 ‘소색(疏色)¹³¹은 방면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말하기를 꺼리고 매번 관문의 뜻이 지극히 엄준하다고 하였네.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공공연히 “근래에 북도(北道)에 발생한 상재(霜災)로 그 동안의 소두(疏頭)가 모두 방면되었다.”라고 하였네. 그러므로 조카 연(淵)이 과거에 응시하려는 뜻이 있었고 나도 허락하였네. 그러나 끝내 응시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집에는 기정구 자용(奇挺九子用)이 있고, 글을 배우는 사람 가운데는 박세대(朴世大)와 김명학(金鳴鶴) 두 사람이 있었네. 여러 사람이 과거에 응시한 뒤에 비로소

131 소색(疏色) :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게시된 관문을 보고서는 그제야 소색은 방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방(榜)을 걸지 않았음을 알았네. 그러나 그 관문을 보고 용감하게 물러난 자는 친구 가운데 김기하(金器夏) 한 사람이 있었네.

나는 과거에 응시한 유생이 돌아온 뒤에야 비로소 소색이 정거(停擧)¹³²된 일과 소두가 방면된 일을 들었는데 매우 허무맹랑하였네. 가만히 틀어박히고 병들어 노쇠한 폐단이 마침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차 누구를 탓하겠는가. 또 을묘년(1615, 광해군7) 광옥(光獄)¹³³을 오늘날에 건주는 것은 일의 체모가 본래 다르니 소상히 말할 겨를이 없네.

132 정거(停擧) :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한다는 뜻이다. 과장(科場)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유생들의 집단 상소 혹은 성균관 유생이 권당(捲堂)을 한 경우 소두(疏頭), 재임(齎任) 등에게 정거의 벌을 시행하였다.

133 을묘년 광옥(光獄) : 어떤 일인지는 미상이다.

유진경에게 답함

答柳進卿

매년 이맘때는 소식을 전하기가 갑절이나 어려우니 인간 세상의 잡스러운 일들이 몸을 얽어매기 쉬움을 몹시 깨닫게 되네. 문을 닫고 글을 본다고 밝은 식견이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던 것이 아니니, 세간의 모든 일이 진심이 아닌 것이 많음을 알겠네. 게다가 격론(激論)을 모으는 것은 성현이 자신을 수양하는 기상과 거리가 있으므로 감히 함부로 이런 일들을 일삼지 않았네. 그러나 오늘날에 가만히 틀어박혀 우직함을 고수하는 것은 사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니, 어찌 초연한 경지에 올랐다고 스스로 자부하겠는가.

실제보다 지나치다는 말은 도리어 더욱 등에 땀이 나게 하네. 그대가 오늘날 스스로 처신하는 것은 아마도 또한 쉽지 않을 듯하니 출처는 오직 의(義)를 따를 뿐이네. 의로 판단하되 먼저 진심으로 종사하지 않으면 이른바 의로는 끝내 처신을 바르게 할 수 없네. 애초에 이미 의로 볼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면 내가 진실로 하는 것이 의이고, 끝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았다면 다만 나의 진심을 지키고 물러나는 것이 바로 의이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옹(尤翁 송시열(宋時烈))은 충주(忠州)에 이르러 앓던 병이 몹시 위중해지셨네. 천의(天意)로 보나 인사(人事)로 보나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안부를 묻고 위로할 방법이 없으니 한갓 스스로 통탄하고 개탄할 뿐이네. 요사이 차운한 시를 보았는데 결구(結句)가 가장 맛이 있으니 나로 하여금 찬탄하게 하네.

조(趙)의 상소 내용은 아직 듣지 못했는가? 어찌할 수 없으니, 어찌
해야 하겠는가?

유진경에게 답함

答柳進卿

근래 더욱 무료한데 엄한 스승은 바랄 수 없고 외우(畏友)는 더욱 얻기 어려워 매번 그대가 가르침을 내려 주기를 바란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지금이야 바라던 바를 크게 얻었네. 그대의 따끔한 가르침이 내가 만난 상황과 처신의 잘못에 꼭 들어맞으니, 이른바 외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일세. 지금 이후로 거의 화(禍)를 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진실로 다행스럽네.

다만 은거는 내가 어찌 감히 할 수 있겠는가하는 일이 국가의 존망과 사문(斯文)의 흥망에 관계되어 있네. 목욕재계한 뒤의 청¹³⁴과 둔괘(遯卦)가 나온 소장(疏章)¹³⁵은 모두 벼슬하지 않을 때 있던 것이니 그렇다면 사림(士林)의 유사(有司) 임무를 외람되이 맡고서 눈치를 보면서 그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뒤늦게 상소 내용이 비굴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미처 내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청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곧바로 사술(士述 박광후(朴光後))에게 글을 전해서 추궁

134 목욕재계한 뒤의 청 : 춘추 시대 제(齊)나라 진성자(陳成子)가 제 간공(齊簡公)을 시해하자, 공자(孔子)가 이미 치사(致仕)한 상황에서 목욕재계하고 조정에 나아가 노 애공(魯哀公)에게 그를 토벌하자고 청하였다. 《論語 憲問》

135 둔괘(遯卦)가 나온 소장(疏章) : 주희(朱熹)가 66세 때인 영종(寧宗) 1년에 고향에 있으면서, 한탁주(韓侂胄)의 모함으로 영주(永州)로 귀양 간 재상 조여우(趙汝愚)의 억울함을 변론하는 내용과 한탁주의 간악한 짓에 대해 소장을 지어 올리려 하였다. 문인들이 만류하고 짐을 쳐서 결정하라고 청하여 짐을 쳐 보니, 둔괘가 동인괘(同人卦)로 변하는 괘가 나와 소장을 태워 버렸다. 《朱子大全 附錄 卷6 年譜》

하였는데 그의 답장은 아직 오지 않았네. 내가 “진경과 사술 등 여러 사람은 그 책임을 마다할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혹여 내게 혐의가 있다고 꾸짖을까 염려되니, 이에 내가 지은 것을 두 벗에게 망녕되이 보인 까닭이네. 보내준 편지에서 박(朴)이 실없는 짓을 했다고 한 것도 이를 가리키는 것인가? 대개 소견이 이처럼 다르니, 만약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할 수가 없네.

유진경에게 답함

答柳進卿

편지를 받고 나서 어버이를 모시며 지내는 것 외에도 기술이 모두 잘 지내는 것을 알았으니, 마음이 매우 위로되고 풀리네. 그런데 그대가 이미 ‘그가 어찌 알겠습니까[渠何知]’라는 세 글자로 잘못을 억지로 판정하고, 또 ‘교만[驕]’이라는 한 글자로 나의 못난 성품을 나무라면 서도 오히려 차마 딱 잘라 버리지 못해 다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네. 별 볼 일 없는 사람까지 포용하는 성대한 도량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 그지없네. 다만 그대의 뜻을 엿보면 혹 사실이 어떠한지 자세히 모르면서 도리어 과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사람의 해명을 막고 은연중에 스스로를 유리한 쪽으로 두려고 하니 어떻게 생각 하는지 모르겠네.

‘유씨기(劉氏基)’라고 한 것은 글자는 비록 잘못되지 않았으나 ‘양묘(兩墓)’라고 한 것은 말이 이미 잘못되었으니, 그 사이에 진짜 실상을 모른다는 것을 여기에 근거하여 알 수 있고, 그대도 자세한 사실을 모른다고 의심하였네. 그러므로 이전 편지에서 의아하다고 한 말은 평정심에서 나온 듯한데 지금 분명하지 않은 말을 분연히 꺼낸 것은 혹여 분노로 평정을 잃은 듯하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대개 그 사이의 일은 애초에 이미 진실로 잘못된 바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뒤늦게 후회하고 있네. 그러나 지적한 두 가지 일로 말하면 저쪽이 험난하자 내가 모두 사과하여 서로 따지는 것이 전혀 없네. 어디에서 들었기에 이처럼 사실과 다른가? 번거로워 감히 말하지 못하니, 사실

을 알고서 다시 말해 주기를 바라네.

만약 언책(言責)을 맡은 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논한다면 일찍이 조정에서 벼슬하다가 지금 산림(山林)에 있으니, 서로의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굳이 이상하다고 여긴다면 이천(伊川)은 18살에 궐하(闕下)에서 상소하여 정사의 잘잘못을 면전에서 진달하고¹³⁶ 화담(花潭)은 상제(喪制)가 옛 법도에 맞지 않다고 효릉(孝陵 인종(仁宗))에게 올리려고 한 상소를 지었네.¹³⁷ 천민(天民)인 은일(隱逸)과 성세(聖世)의 은자도 이러하였으니, 아마 이를 살피지 못한 듯하네. 여기에 근거한다면 내가 상소에 참여한 것도 혹 큰 잘못은 아닐 것이네.

이미 그 상소에 참여하였고 보면 마땅히 상소 내용에 간여해야 하는데 정도를 넘어서 부적절해서도 안 되고 낮추고 유약하여 부실해서도 안 되었네. 그러므로 함부로 내 뜻으로 잘못된 내용을 만들어낸 탓에 감히 소청(疏廳)에 올리지 못하고 두 벗에게 질정을 구하였으니, 이는 과연 성심으로 두 벗을 대한 것이고, 그대가 이미 영성하고 대략적이어서 무용하다고 지적하였으니, 이것 또한 성심으로 나를 대하는 데에서 나온 것이네. 그러니 어찌 해가 되겠는가.

그대가 비굴한 상소를 준용한 것으로 말하면 작은 혐의가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감히 사술(士述)을 비판하는 이유 또한 이름이 상소 안에 있는데 상소의 뜻이 본래 마음과 크게 어긋나기 때문이네. “내

136 이천(伊川)은……진달하고 : 1049년 정이(程頤)가 아직 벼슬하지 않았을 때 올린 <상인종황제서(上仁宗皇帝書)>를 말한다. 《二程全書 卷6》

137 화담(花潭)은……지었네 : 《화담집(花潭集)》 권2 <의상인종대왕논국조대상상제 불고지실소(擬上仁宗大王論國朝大喪喪制不古之失疏)>를 말한다. 화담은 서경덕(徐敬德)의 호이다.

몸도 아까운데 남의 비방을 어찌 신경 쓰겠는가.”라는 이 글귀를 그대가 듣고 도리어 상소에 참여해서는 안 되었다고 질책하고 또 상소 내용이 비굴하여 시류에 영합할까 염려하니, 비굴함을 준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네.

영성하게 글을 지었다고 지적한 그대의 말은 진실로 밝게 살펴 주었는데 또 내가 질정을 구한 것을 나무랐네. “남에게 다듬지 않은 원목을 보여 주었습니다.”라는 말은, 모르겠네만 내가 보여 준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 지금 남을 나무라는 사람이 “나는 첩부(妾婦)의 도를 따르니 네가 만약 나를 따른다면 너도 첩부가 될까 두렵다.”라고 한다면 어떠한가? 또 어떤 사람이 성심으로 질정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그릇을 인정하고는 도리어 나무라면서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다듬지 않은 원목을 보여 주는가?”라고 한다면 또 어떠한가? 또 사술을 비판하는 때가 늦은 것은 바로 그대가 나를 가르쳐 준 때가 늦은 것과 같네. 붕우 사이는 간절하고 자상히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니 시기를 어찌 따지겠는가마는 저것으로 이것을 나무라서는 안 될 듯하네.

이 몇 가지를 가지고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대의 말은 화평한 마음에서 전부 나오지는 않은 듯하네. 그러므로 지금 그대의 본원에 대해 작은 의심이 없지 않으니 혹여 서로 물어야 할 점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 두 사람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평범한 말을 살핀다[察邇]’의 ‘살핀다’는 것은 옳은 것도 따르고 그른 것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양 극단을 잡고서 절충한다.”라고 하였네. 어리석은 나의 생각으로는 약은 비록 복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병을 치료하는 약제를 구해야 할 뿐이네. 그대의 소견은 문을 닫고 구멍을 막아 신부의 모습처럼 심신을 단속해야 유자(儒者)가 된다고 하지만 나의 소견

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일 것이네. 그러나 견해가 잘못된 것은 많이 근심할 필요가 없고 본원의 병통은 진실로 치료하기 어려운 법이니 다시 살펴보게. 내가 혹 이리저리 변명하면서 잘못을 가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교만하다고 끊지 말고 끝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떠한가?

북쪽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 이(李)에게 답장을 보낸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혹여 중도에 유실되었을까 염려 되네.

유진경에게 답함

答柳進卿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날씨가 다시 추워지려고 하는 이때 고질병은 여전한데 뜻밖에 그대의 심부름꾼이 들려서 편지 한 통을 전하니, 두풍(頭風)이 낫는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네.¹³⁸ 다만 또 집안의 상(喪)을 당했음을 알았네. 그대 집안의 여러 우환은 이미 충분히 마음에 걸리는데 또 이렇게 상을 당하였으니 나로 하여금 놀라고 탄식하게 하네.

지난번 하룻밤 동안 나누었던 담론은 얻기 쉽지 않은 일인데 병중에 터무니없는 말을 사안마다 전부 쏟아내었네. 추후에 생각해 보면 기상이 두려워할 만하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 그 중에 본령이 그다지 잘못되지 않은 곳은 단속과 절제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해 생긴 것으로 후회가 그치지 않는데 지금 받은 편지에는 한마디도 나무라고 가르치는 말이 없네.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이 진실로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영암(靈巖)에 머물 때의 편지 16통은 지금 아직 보지 못했지만 생각 건대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대의 말이 모두 종이에 있었을 것이네. 이번에 점한(店漢)으로 자호(自號)한 설¹³⁹ 몇 줄을 지었는데 미처 써서

138 두풍(頭風)이……말이네 : 조조(曹操)가 두풍을 앓고 있었는데 진림(陳琳)이 지은 격문(檄文)을 보고 나왔다고 한다. 《三國志 卷21 魏書 陳琳傳》 보통 훌륭한 글을 예찬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서신을 받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뜻으로 쓰였다.

주지 못하였네. 조카 아이는 문장과 글씨가 모두 훌륭하니 우리 아이보다 자못 낫네.

지난번에 말한 것은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병통이 아니겠는가. 근래 학문하는 자를 보면 오히려 격물(格物)과 물격(物格)의 설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견해가 갈리는데도 무리를 지어 주장을 세우니 웃음거리도 되지 못하네. 이는 모두 격물과 처지를 실천한 적이 없기 때문일 뿐이네. 그 이름만 듣고 그 실상을 보지 못한 자들은 모두 이런 부류이니, 한탄스럽네.

139 점한(店漢)으로 자호(自號)한 설 :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권5 〈점옹설(店翁說)〉을 말한다.

오옥여 상옥 에게 답함

答吳玉汝 相玉

편지를 받고서 노년에 술을 벗 삼아 지내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술은 다만 얼굴만 아는 벗이니 본성을 해치는 것을 어찌 가까이하십니까? ‘지기(知己)’라고 하지 말고 ‘손해를 주는 벗[損友]’으로 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이름이 천리(天理)인 어떤 벗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 주정을 부릴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가존(家尊)께서 만약 술을 끊으신다면 나는 마땅히 그 사람(천리)을 권하여 보낼 터이니,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태연히 대처한다.”라는 말에 해당할 것입니다. 어찌 좌우에서 내쫓고 물리치는 수고로움이 있겠습니까.

황 참봉 신귀 에게 답함

答黃參奉 信龜

큰형님께서 근래 우정(郵亭)에 오셨으니, 이 김에 한번 뵙는 것이 편하겠네. 매번 편지를 주고받을 때 벗의 자랑스럽게 하는 말을 미리 기대하였는데, 지금 편지 한 통을 받으니 연전(年前)에 보낸 것임을 알았네. 내가 찾아가지 못한 것을 꺼리지 않고 종이 한가득 정다운 말을 꼭진하게 담았으니, 이는 또한 내가 감사하고 송구스럽게 여기는 바일세. 게다가 편지를 전한 사람을 통해 형제간에 우애 좋게 지낸다는 소식을 알았네. 일찍이 듣고 싶었던 소식을 지금 문득 알게 되었으니, 진실로 빨리 달려가 만나고 싶지만 죽은 딸의 운구가 돌아오는 날이 멀지 않았네.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일에서 벗어나기 어렵기에 아직은 애써 가지는 못하네. 그러나 만약 만날 기일을 조금 늦춘다면 때를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 만나 필원(筆院)에서 이틀 정도 묵으면서 사모하는 지극한 마음을 펴겠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네.

유백인 필수 에게 답함

答柳伯仁 必壽

저는 오한을 앓고 있다가 이제 겨우 나았는데 온갖 여증(餘症)이 날마다 생겨 위독해질 때가 있기에 답장을 아직 쓰지 못하였습니다. 형은 오늘에, 저는 작년에 오히려 한번 위로의 편지를 쓰지 못했으니, 인정이겠습니까?

편지에서 말씀하신 의심스러운 예(禮)는 모두 곡절이 있으니, 저처럼 무식한 자가 어찌 감히 함부로 논하겠습니까. 다만 적자(嫡子)와 적자가 서로 계승한다는 설은 가공언의 소(疏)에 근거를 두니, 가공언의 소를 주장하는 사람은 장령 박세채(朴世采)입니다. 임실(任實)의 신계징(申啓澄)이 이를 논박하였으나 아직 그의 견해에 대해 회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문(斯文) 황신귀(黃信龜)가 박세채의 견해를 의심하여 유보(柳普)를 시켜 저에게 물었는데, 저는 박세채의 설은 따를 수 없을 듯하다고 답하였으니 자주(子周 유보)가 일찍이 그 본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유진경(柳進卿 유익서(柳益瑞))이 왔을 때 제가 그 일을 대략 말해 주고 또 “다만 가공언의 소가 이처럼 명백하니, 박세채의 설도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의례(儀禮)》의 해당 장(章)을 보여 주고, 유진경이 다 읽은 뒤에 제가 “가공언의 소에 있는 내용은 원래 의심스러운 곳이 많으니 여기서 그치고 끝내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진경이 가공언의 소대로 형의 집안에서 행할 예를 경솔하게 단정하고 또 저에게 들었다고 책임을 회피

하였다고 하니, 유진경이 제가 이상에서 말한 내용을 잘못 알아듣고서 그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경(經)에는 분명한 문구가 없어 어느 하나를 전적으로 따르기 어렵습니다. 형께서 말씀하신 “경에서 말하였다.[經曰]”라는 것도 경이 아니라 바로 주소(註疏)입니다.

나머지는 마땅히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유진경의 편지도 며칠 전에 도착했는데 병 때문에 아직 답장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축을 받고 일어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조군 근하 에게 답함

答曹君 根夏

반복해서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는 말을 받고서 학문이 넓고 성품이 단아하며 예를 좋아하는 훌륭한 마음을 알았으니, 매우 다행스럽네. 다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어머니의 상(父在母喪)은 아버지가 주관하네. 그러므로 모든 제사는 반드시 아버지가 주관하는 법이네. 만약 말한 대로라면 곧 아버지가 처를 위해 대상(大祥)을 치른 뒤에 그대로 궤연(几筵)을 받드는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전에 말한 대로 부제(祔祭)를 지낸 뒤 초하루와 보름에 별도로 신주를 내어 제사를 지낸다면 주관자는 누구로 해야 하겠는가. 마땅히 아버지가 주관하더라도 특별히 처의 신주를 꺼내 은전(殷奠)을 지내는 것은 의(義)로 볼 때 어떠한가. 만약 “아들이 주관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내가 들은 바가 아니네. 비록 후한 쪽을 따르려고 해도 혐의가 없을 수 없으니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상(狀上)’의 ‘장’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게 통용하는데, 피봉(皮封)에 ‘장상’ 자를 쓰면 끝에 ‘근장(謹狀)’을 쓰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조부모 상을 위로한 어떤 사람의 장문(狀文)에 답할 때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장’ 자를 쓰는데, 만약 그대가 말한 대로라면 이 ‘장’ 자는 또한 높은 사람에게는 ‘소(疏)’ 자로 고쳐야 할 것이네.

아침 일찍 일어나 채소와 과일을 마련할 때에는 참배하는 예가 없네. 정월 초하루, 동지, 매달 초하루와 보름뿐만 아니라 시제(時祭)에도 없네. 다만 시제를 지낼 때는 신주를 받들고 신위(神位)에 나아간 뒤에 먼저 참배하고 그 뒤에 내려오고, 참배할 때는 먼저 내려갔다가 그 뒤에 참배하네.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참배하고, 참배할 때는 참배가 주가 되기 때문에 먼저 내려가는 것일 것이네. 그러나 이는 -원문 빠짐- 지나치다는 질책이 없을 수 있겠는가.

조군에게 답함

答曹君

《의례(儀禮)》 경문(經文) 장기조(杖期條)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다.”라고 하였고, 전(傳)에서도 경문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으니, 《가례(家禮)》에서 드러내지 않은 것은 과연 당시 왕의 제도를 따라서일 것이네. 13개월째에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궤연(几筵)을 치우니, 무릇 제사에 다른 것을 따를 수는 없네. 삼년상을 치르는 경우 감정으로는 비록 차마 궤연을 치우지 못하지만 선왕(先王)이 제정한 예에 따라 감히 기간을 지나쳐서는 안 되네.

초하루와 보름에 참배하는 예는 가묘(家廟)와 같다는 설은 옳네. 심상(心喪)의 절목(節目) 및 상제를 마친 후의 복색은 《의례》와 《예기》에 보이지 않네. 대저 심상이란 마음은 비록 상을 지내도 복제(服制)는 없는 것이네. 이미 복제가 없다면 복색은 성인이 언급할 필요도 없네. 그러나 몸은 비록 복제가 없더라도 진심으로 상을 치르므로 비록 15개월째에 담제(禫祭)를 지낸 뒤라도 갑자기 순길복(純吉服)을 입지 못하고 삼년상을 거쳐 27개월째에 길제(吉祭)를 지내는 날이 된 뒤에 평상복을 입으니, 이는 사로(沙老 김장생(金長生))의 뜻이네.

이른바 길복(吉服)이란 옛날의 예에는 현관(玄冠)에 조복(朝服)이 바로 순길복이고, 섬관(織冠)에 소단(素端), 황상(黃裳)이 바로 미길복(微吉服)이었네. 우리나라 풍속에 사대부는 이러한 복제가 없기 때문에 평소 복제가 없는 자는 현관에 흑대(黑帶)와 백포(白袍)를 갖추 뿐이었으니, 그렇다면 담제를 지낸 사람에게 무슨 순길과 미흉(微凶)

의 구별이 있겠는가. 다만 참흑포립(黦黑布笠)과 조금 거친 백포로 옛날의 섬관과 소단에 비겨야 할 것이네.

참배에 관한 논의는 스스로 이전 편지에서 다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대가 다시 물었네. 대저 참배와 참신(參神)은 같은 일인데, 평상시의 참배는 향만 피우네. 정월 초하루,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하는 참배는 술과 과일을 진설하고 시제(時祭)에 하는 참배는 채소와 과일을 진설하고 신주를 모신 뒤에 참배하네. 하나의 일인데 두 번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서(禮書)에도 이렇게 기술한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미(未)와 말(末)은 주자(朱子)의 편지에서 대부분 '미유(未由)' 자를 쓴 것을 보았으니, '미'를 '말(末)'로 쓰는 것은 세속의 잘못된 관행이네. 박(朴)의 설이 옳네.

변미경 휴 에게 보낸

與邊美卿 然

베껴서 보낸 예조의 관문(關文)을 보았네. 저번에 윤 집의(尹執義 윤증(尹拯))에게 보낸 별지(別紙)에서 내가 주제넘게 논할 때는 다만 벗들 사이에 서로 전하는 말만 들었는데, 마침 이산(尼山)¹⁴⁰으로 돌아가는 인편이 매우 바쁜 때와 맞물린 탓에 들은 것만을 근거하여 서둘러 편지를 써서 부쳐 보냈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벗이 전하는 소식을 얻고서야 일찍이 들은 것은 태반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으니, 어설프고 멋대로 행동한 죄를 피할 곳이 없음을 스스로도 잘 알겠네. 그러나 뜻을 함부로 논한 것이 또한 오늘날 말해 볼 만한 사안에는 어긋나지 않으니, 저쪽(윤증)이 필시 나의 주제넘음을 버리고 의미만을 취하리라 생각하네.

방금 베껴서 보낸 관문의 예제(禮制)를 보니, 비록 당초 예를 의론할 때 정한 뜻은 상세히 모르겠지만 또한 군신 상하(君臣上下)가 변제(變除)¹⁴¹하는 의절(儀節)을 알 수 있네. 《의례(儀禮)》〈상복(喪服)〉 장기조(杖期條)에는 비록 천자나 제후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아래 해당 경문의 소(疏)와 부장기조(不杖期條)의 소에 분명하게 천자와 제후는 절복(絕服)하거나 강복(降服)¹⁴²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네. 또 《예기》

140 이산(尼山) : 윤증이 사는 곳을 말한다.

141 변제(變除) : 상복(喪服)을 바꾸어 입는 일로, 소상(小祥) 뒤에 연복(練服)으로 갈아입고, 대상(大祥) 뒤에 상복을 벗는 것을 말한다.

142 절복(絕服)하거나 강복(降服) : 절복은 죽은 사람을 위해 입는 상복이 없는 것이고

〈소기(小記)〉와 〈단궁(檀弓)〉, 〈복문(服問)〉 중에도 모두 분명한 문구가 있네. 게다가 역사서를 가지고 말하면 《춘추좌씨전》과 《진서(晉書)》가 모두 근거가 될 만하니, 조정에서 어찌 절복하거나 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복제를 마친 예를 한단 말인가.

지금 관문에서 말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른바 “전하(殿下)께서는 13일째에 최복(衰服)을 벗고, 30일째에 복제가 끝납니다.”¹⁴³라고 한 것은 필시 한(漢)나라 권제(權制)¹⁴⁴의 뜻을 따른 것이네. 그렇다면 윤 집의에게 보낸 별지에서 내가 주제님께 논한 것은 오로지 절복하거나 강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말한 것이니, 또한 굳더더기라는 것을 알겠네.

지금 또 한나라의 권제를 따른 한 조목을 가지고 말하면, 우선 큰 근본이 바르지 않음은 차치하고 한 문제(漢文帝)의 유조(遺詔)를 지금 또한 상고할 만하네. 그러므로 주자(朱子)께서 “한 문제가 자신을 장사지낸 뒤에 세 번 복을 바꾸어 36일 만에 상복을 벗도록 한 것은 처음 상을 당한 때로부터 곧 27일을 계산하여 상복을 벗는 후세의 예제보다 진실로 낮습니다.”¹⁴⁵라고 한 것이네. 한나라의 상제(喪制)와 주자의

강복은 원래 정해진 복제에서 등급을 낮추어 입는 것이다.

143 전하(殿下)께서는……끝납니다 : 1680년(숙종6) 10월 26일 숙종 비(妃) 인경왕후(仁敬王后) 김씨(金氏)가 천연두를 앓다 죽었는데 숙종이 인경왕후를 위해 입을 복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144 한(漢)나라 권제(權制) : 복상(服喪) 기간을 단축하여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는 이일역월제(以日易月制)를 가리킨다. 한 문제가 임종할 때 자기가 죽으면 전국의 관민(官民)들에게 3일만 조곡(弔哭)한 뒤에 상복을 벗도록 하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과 제사·음주·식육 등을 금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또 장례를 지낸 뒤에는 대공(大功) 9월복은 15일로, 소공(小功) 5월복은 14일로, 시마(總麻) 3월복은 7일로 단축해서 행하도록 명하였다. 《史記 卷10 孝文本紀》

의론은 모두 통상의 상례를 가리켜 말했으니, 장기(杖期)까지 미루어 나가면 다름이 없어야 하네. 한나라는 본래 장사 지내기 전이라 하여 곧바로 복을 벗지 않았고, 주자는 처음 상을 당하고 바로 역월(易月)하는 것은 더욱 근거할 만한 것이 없다고 통렬히 비판하였네. 그렇다면 지금 곧이 장사 지낸 뒤에 복을 벗는 한나라의 예제를 버리고 유독 처음 상을 당하고 바로 역월하는 후세의 예제를 따르는 것은 다시 무슨 근거가 있는가. 만약 주부자가 이를 논한다면 어찌 조금 낫다고 평가하겠는가.

만약 “후비(后妃)를 위한 복은 통상의 상례와는 다르기 때문에 장사 지내기 전에 복을 벗는 예제를 쓰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진 무제(晉武帝)가 준양릉(峻陽陵)에 원황후(元皇后)를 장사 지낼 때 황제와 신하들이 상복을 벗고 길복을 입자, 박사(博士) 진규(陳逵)가 논의하여 “지금 거행하는 것은 한나라 황제의 권제입니다. 태자는 국사(國事)를 돌보지 않으니, 스스로 상을 다 마쳐야 합니다.”라고 하였네. 그렇다면 비록 후비라도 반드시 장사를 지낸 뒤에 비로소 권제를 쓰는 것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박사도 오히려 온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이네. 그렇다면 후비라도 장사 지내기 전에 권제를 쓰는 것이 잘못임은 공박하지 않아도 저절로 논파되는데 당당한 성조(聖朝)에 유독 진규 같은 사람 한 명이 없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다면 오늘날 권제는 설사 순수하게 한나라의 예제를 썼더라도 본디 귀하게 여길 것이 못 되는데 하물며 도리어 한 문제도 달갑게

145 한 문제가……낫습니다 : 《주자대전》 권63 〈답여정보(答余正甫)〉 두 번째 편지에 보인다.

여기지 않을 후세의 더욱 야박해진 예제로 강등하여 쓰니, 성명(聖明)의 시대에 이런 예제가 있을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오늘날 조정에 대해서는 비록 감히 논하지 못하지만 성세(聖世)의 전례(典禮)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어떠하며, 천하 후세에 대해 무어라고 할 것인가?

한 문제가 상기(喪期)를 줄인 것은 천고의 극심한 죄인데, 그 뒤에 제왕이 잘못된 예제를 답습하고 바로잡지 못하였네. 유일하게 송 효종(宋孝宗)이 단연히 스스로 옛 법대로 행하여 역월하는 예제를 벗어나 오히려 통상의 상례를 치르자, 주자께서 “천고를 초월하는 성덕(聖德)을 지니셨다.”라고 하셨네. 그 뒤에 영종(寧宗)이 황위를 계승하여 역월한 뒤에 마침내 칠사관(漆紗冠)을 쓰자 주자가 차자(筓子)를 갖추어 극구 논하니, 황제도 이를 따랐네.¹⁴⁶ 이후 제왕들이 비록 옛 예제를 다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통상의 상례를 거행한 것은 모두 효종과 주자의 힘이네.

우매하고 지극히 천한 나는 비록 조종조의 고사(故事)를 감히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통상의 상례를 가지고 말한다면 300년 동안 한나라의 비루한 제도를 썼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네. 하물며 한나라 이후 더욱 야박하고 쇠퇴해진 풍조를 따른단 말인가. 다만 모후(母后)를 위한 장기상(杖期喪)은 혹 조종조에서도 오늘날의 권제를 썼는지 모르겠네. 송 신종의 상이 아직 끝나기 전에 백관들이 장차 동지라 하여

146 영종(寧宗)이……따랐네 : 영종이 할아버지 효종(孝宗, 1127~1194)이 죽었을 때 병환이 있는 아버지 광종(光宗)에게 왕위를 선양받아 아버지 대신 상주가 되어 초상을 주관하였는데, 이때 칠사관과 천황복(淺黃服)을 착용하였다. 이에 주희가 계빈(啓殯)과 발인 때에는 초상(初喪)의 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朱子大全 卷14 乞討論喪服筓子》

표문을 올려 경하하려 하자 정자(程子)가 상주하여 논하기를 “조종의 고사라도 진실로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사안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모두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이는 옛날에 미처 만들지 못한 것을 지금 다시 만들 수 없고, 예전에 온당하지 않았던 것을 훗날에 다시 바로잡을 수 없어서 조정의 일을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도리가 없게 됩니다.”¹⁴⁷라고 하였네. 그렇다면 오늘날의 예제는 비록 조종의 고사라도 진실로 온당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신하 된 자가 상소로 논하여 바로잡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되네.

삼가 듣건대, 우로(尤老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화살을 맞은 새¹⁴⁸라고 사양하면서 상소하여 논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또한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네. 삼가 생각건대, 선생께서 일찍이 이 일로 극심한 화를 당해 한번 죽을 위험에서 살아 돌아와 이제 겨우 서울로 들어왔는데 다시 이런 일을 당해 처신을 신중히 하시니, 화살에 맞았다고 사양하는 것 또한 인정상 필연일세. 그러나 조정의 중대한 예가 필경 잘못된다면 또한 선생께서 끝내 말씀하지 않으시겠는가?

선생께서 만약 끝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상소로 논할 법한 자는 윤 집의(윤拯(尹拯))와 박 집의(박세채(朴世采)), 이군보(李君輔) 이세

147 정자(程子)가……됩니다: 정이(程頤)가 송 철종(宋哲宗) 원우(元祐) 2년(1087)에 올린 상소이다. 《二程文集 卷7 論開樂御宴奏狀》

148 화살을 맞은 새: 《전국책(戰國策)》〈초책(楚策)〉에 “한번 화살에 부상을 당한 새는 시위 소리만 듣고도 높이 난다.〔傷弓之鳥，聞弦音而高飛。〕”라고 하였는데, 한번 화란을 겪은 사람은 화살에 부상한 새처럼 매사에 놀라고 조심함을 비유한 말이다. 송시열이 갑인환국(甲寅換局)으로 인해 덕원(德源)으로 유배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쓴 것이다.

필(李世弼)가 모두 가능하네. 이 세 현자는 모두 세신(世臣)으로서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았네. 벼슬하지 않았다면 비록 감히 의론할 수는 없으나 나라에 중대한 예가 있으면 일개 필부처럼 침묵하면서 좌시해서는 안 되네. 하물며 이렇게 예를 의론하는 일은 분수상 사양해서는 안 되는데, 앞에는 두려워할 만한 것이 없고 뒤에는 혐의할 것이 없으니, 한번 소견을 올리고서 다시 벼슬을 버리고 물러난다면 누가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

나는 박 집의와 이군보 두 사문과는 모두 평소 교분이 없고 오직 윤 집의와는 서로 알고 있네. 그러므로 지난번 별지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여 상소하기를 힘써 권하였는데, 별지에서 한 말은 전해 들은 것이라 사실과 다르니, 저 사람이 장차 한번 웃고 무시할 것이네. 그대가 이미 현강(玄江 박세채)과 서로 알고 있으니 어찌하여 이런 뜻으로 별도로 편지 한 통을 써서 물어보고 또 상소로 논하기를 권하지 않는가? 모르겠네만, 제현(諸賢)은 말하지 않고도 훗날의 비난이 없을 수 있겠는가. 아, 한탄스럽네.

변미경에게 답함

答邊美卿

상고하여 보여 준 여러 예는 비록 본 적은 있으나 자세히 생각하고 헤아려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감히 쉽게 답하지 못하였네. 하물며 지금 국상(國喪)이 난 뒤 사상(私喪)에 대해 스스로 때에 맞게 연제(練祭)와 대상(大祥)을 지내는 것과 졸곡(卒哭)을 한 뒤 추후에 행하는 것으로 유현(儒賢)의 의론을 나누었으니, 더욱 감히 경솔하게 말할 수 없네. 그러나 어리석은 나의 생각에 <증자문(曾子問)>은 경문(經文)의 의미가 매우 분명하니 경문의 의미에 맞지 않는 주석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네. 그러므로 일찍이 편지를 보내 물은 내용에 이것으로 답하면서 모두 담제(禫祭)가 없다고 말하였네. 나의 뜻은 연제와 대상 같은 큰일은 추후에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담제 한 가지는 때를 넘기더라도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뜻이지, 사로(沙老 김장생(金長生))의 “흉사를 당했을 때 길례를 행하는 것은 차마 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닐세.

상중인 김(金)에게 담제가 없음은 분명하지만 길제(吉祭)라면 국제(國制)의 졸곡 뒤에 크고 작은 제사를 모두 허락하고, 또 때를 넘긴 것에 혐의가 없으니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지 모르겠네. 다시 상세히 살펴보게.

근래에 또 집안 친족인 기진상(奇震相)은 대상이 본래 3월에 있었는데 이번 달에 뒤늦게 행하였네. 담제는 마침 5월에 있는데 나는 5월에

담제를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두 잘 살펴
주기를 바라네.

김군 명하 에게 보냄

與金君 鳴夏

그동안 편지를 보낼 때면 반드시 좋은 시구와 차까지 함께 보내주었으니, 매우 다정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매번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한번도 감사의 답장을 쓰지 못하였네. 노쇠하고 병이 든 사람의 인사는 진실로 나무랄 것도 없지만 자네가 이를 허물로 여기지 않고 지금 또 예전처럼 선물을 보내니 나로 하여금 더욱 기쁘게 하네. 또 운문(韻文)에 숨씨가 없고 근래 병으로 정신이 매우 흐릿하여 화답시를 보내지 못하니, 이는 감히 거만해서가 아니네. 산중에서 천성을 기르면서 시를 읊조리며 성정(性情)을 화평하게 하고 시원히 피기를 바라네. 이것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김뇌숙에게 답함

答金賚叔

서자(庶子)와 중자(衆子)는 본래 명칭이 다릅니다. 전(傳)에서 말한 서자는 ‘중’과 ‘서’의 명칭이 같기 때문에 혼용해서 일컫은 것이 아니라 적자(嫡子)와 현격히 구별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서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 자는 비천하게 여기는 명칭이 아니라 바로 ‘중’ 자의 의미입니다. 호칭은 같고 실상은 다른 것이 적처(嫡妻)의 소생인 것에 무슨 문제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해당 조(條)에서 서자라고 칭한 것은 모두 이런 예를 쓴 것이니 어찌 사종(四種) 중에서 서자만 유독 첩자(妾子)이겠습니까?

부장기장(不杖期章) 적손조(適孫條) 아래에 “무릇 아버지는 장차 후사가 될 자에게는 장자가 아니면 모두 기년복이다.”라는 정현(鄭玄)의 주¹⁴⁹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삼가 주의 뜻을 살펴보면 “모든 아들로서 장차 후사가 될 자”라고 한 것은 첫째 순위 장자인데 이 장자가 죽으면 마땅히 적손을 세우고, 없으면 서손(庶孫)을 세우고, 없으면 그제야 둘째 순위 아들을 세우고, 없으면 셋째, 넷째, 다섯째 순위 아들을 세우고, 없으면 이에 첩자(妾子)를 세우니, 이를 “장차 후사가 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자가 아니면 모두 기년복이다.”라고 하였으니, 둘째 순위 장자부터 아래로 첩자까지는 비록 장차 후사가 될 자라도 모두 기년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9 부장기장(不杖期章)……주 : 《의례》〈상복(喪服)〉에 보인다.

만약 “다만 첩자를 말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모두’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만약 “적손과 서손을 아울러 말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서 “비록 승중(承重)을 했어도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한 것은 이 주에 근본한 것이어서 학설을 세우는 자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례(儀禮)》의 예가 마땅히 이 예의 단안(斷案)이 되어야 할 듯하여 삼가 우옹(尤翁 송시열(宋時烈))의 의론 아래에 이 주를 붙여서 그 홀로 비방을 받게 하지 않고자 합니다.

유울지(庾蔚之) 소(疏)에서 이른바 “‘서자위후’는 적모(嫡母)의 후사가 됨을 말한다.[庶子爲後 謂爲嫡母後]”¹⁵⁰라고 한 것은 바로 정현 주의 문세를 풀이한 것이지, “범서자위후”라고 한 것은 모두 첩자를 적모의 후사로 삼는다는 것이다.[凡庶子爲後云者 皆以妾子爲嫡母後]”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를 통례(通例)와 정론(定論)으로 삼는 것은 매우 온당치 않은 듯하니, 다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경문(經文)에서 중자(衆子)라고 일컬은 것은 모든 기년상에서 천자와 제후는 상복이 없고, 대부는 강등(降等)하여 입고, 사(士)는 해당하는 상복을 입는데 사에 있어서는 처첩 소생 아들과 아울러 동일합니다. 경문에서 만약 서자라고 하면 다만 첩자를 말하는 것일까 의심스럽고, 만약 아들이라고만 하면 이미 현격히 구별하지 않았고 또 병

150 유울지(庾蔚之)……말한다 : 《예기주소(禮記註疏)》〈상복소기(喪服小記)〉 위자모후자조(爲慈母後者條)의 소주에 보인다.

칭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곧장 중자라고 말하여 현격히 구별하고서 적자와 서자를 아우른 것입니다. 경의 뜻이 이처럼 분명한데 “사는 현격히 구별하지 않은 것이다.”¹⁵¹라고 한 정현의 주는 본래 의심스럽고, 여기에 의거하여 “사종(四種) 가운데 서자는 사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한 형의 말씀도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장자조(長子條)의 전(傳)과 기(記)에서 일컬은 서자도 위아래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와 소가 이처럼 크게 다른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니 다시 가르침을 청합니다.

151 사는……것이다 : 《의례》〈상복〉 부장기조(不杖期條)에서 ‘위중자(爲衆子)’의 주에 “사는 중자라고 말하는데 현격히 구별하지 않은 것이다.〔士謂之衆子 未能遠別也〕”라고 하였다.

고 생질 필관 에게 답함

答高甥 必觀

뜻밖에 심부름꾼이 도착해서 자못 놀라고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 과연 딸아이에게 병이 있었구나. 이는 비록 대단치는 않지만 신음하고 괴로워하면서 오랫동안 누워 있는 것은 그 뿌리가 매우 오래되었다. 집안 아이들이 참혹한 기년상을 슬하게 겪어 매양 소식(素食)을 하면서 번번이 1년을 넘겼다. 세월을 계산해 보면 십여 년 이상 거상했으니, 기운이 허하고 쇠함이 늙거나 어리다고 어찌 다르겠느냐. 지금 비록 약제 한 첩을 지어 보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효과를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임기응변하는 방도는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어찌하겠느냐.

예설(禮說)은 애초에 식견이 적은 내가 강론할 만한 것이 아니며, 근래에는 병과 우환으로 오랫동안 책을 읽지 못해 매번 내게 묻는 것이 있으면 일찍이 책을 살펴 근거로 삼지 않고 경솔하게 함부로 답하였으니, 분수를 넘은 것 중에서도 분수를 넘었다고 할 만하구나. 다만 보내 온 편지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모든 길제(吉祭)와 흉제(凶祭) 때 우설(右設)¹⁵²하는 것을 옳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饋食례(饋食禮)>¹⁵³에서

152 우설(右設) : 제사상을 차릴 때 밥을 오른쪽에, 국을 왼쪽에 차리는 것이다. 산 사람에게 대한 예절이다.

153 饋食례(饋食禮) : <의례> <특생饋食례(特牲饋食禮)>와 <소뢰饋食례(少牢饋食禮)> 두 편을 병칭한 것이다. 두 편이 이름과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이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굳이 오른쪽이라고 특별히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른쪽이라고 특별히 말한 까닭은 바로 우제(虞祭) 전에 생전의 모습을 형상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예기》에서 “전을 올리는 것을 우제로 바꾼다.[以虞易奠]”라고 하였으니, 처음에는 귀신으로 섬겨서 좌설(左設)¹⁵⁴하는 것도 그 사이에 있는 하나의 예절임을 알 수 있다.

또 이전에 ‘음양(陰陽)’·‘길흉(吉凶)’·‘강약(強弱)’·‘상변(常變)’이라고 한 것은 각각 해당하는 것이 있음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만 한 가지 일만을 가리켜서 여덟 글자로 전부 개괄하는 뜻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굳이 ‘강약’ 자를 들어 습(襲)하고 염(殮)할 때 망자의 옷섭을 왼쪽으로 여미는지 오른쪽으로 여미는지에 해당시키려고 한 것은 아마도 옳지 않은 듯하다. 내 생각에는 왼쪽으로 옷섭을 여미는 것은 오히려 다시 풀 수 없다는 뜻에 꼭 맞지는 않으니,¹⁵⁵ 이른바 상례와 변례로 판단하는 것이 낫다. 습을 할 때 옷섭을 오른쪽으로 여미는 것은 아직 평상시 예절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고, 염을 할 때 비로소 왼쪽으로 여미는 것은 평상시 예절에서 변한 것이다. 우제(虞祭) 전에 우설하고 우제 후에 좌설하는 것도 이와 같다. 네 개의 상례와 변례는 모두 차마 망자를 죽었다고 여겨 귀신으로 섬기지 못하는 의미가 있어서 살아 있는 사람

154 좌설(左設) : 밥을 왼쪽에, 국을 오른쪽에 차리는 것이다. 죽은 사람을 제사할 때의 예절이다.

155 왼쪽으로……않으니 : 《예기》〈상대기(喪大記)〉에 “소렴과 대렴에 모두 옷섭을 왼쪽으로 여미고 효를 묶되 고를 만들지 않는다.[小斂大斂祭服不倒, 皆左衽結紱不紐.]”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疏)에서 “살았을 때는 옷섭이 오른쪽을 향하는데, 왼손으로 띠를 뽑아 풀기 편하게 함이다. 죽으면 옷섭을 왼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다시 풀 수 없음을 보임이다. 살았을 때는 띠와 함께 굽힌 고를 만들어 쉽게 뽑아 풀 수 있게 하지만, 죽으면 다시 풀 의미가 없으므로, 묶어서 매듭을 짓고, 고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으로 대하고 죽은 사람으로 대하는 도리¹⁵⁶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다시 풀 수 없다.”라는 것은 고[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에 해당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렇다면 또한 감히 확실히 단정해서 따를 수는 없다. 지난날의 소견도 이러하였다. 마침 손님이 왔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 급히 쓴다.

156 살아……도리 :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공자(孔子)가 “죽은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서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는 어진 마음이 없는 것이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죽은 사람을 보내는 데 있어서 산 사람에 대한 예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였다.

고 생질에게 답함

答高甥

편지 심부름꾼이 그동안 빠짐없이 왔는데 지금 또 농사가 바쁜 와중에 이 건장한 장정을 보내니, 농사에 문제가 없겠느냐. 도리어 불안한 마음이 늘어난다. 다만 안부를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삼을 뿐이다.

이곳에서 노인의 곤궁한 삶은 전적으로 집 몇 칸에 달렸는데, 많은 시간을 바쁘게 일해도 들어가 거처할 날이 아직도 요원하다. 재력에 전혀 여유가 없으니 걱정으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그동안 앓았던 병이 비록 찾아들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지러움이 많다. 낙토(樂土)의 상황이 이 병으로 무너지니, 진실로 천명이다. 어찌하겠느냐.

예설(禮說)은 지난 편지에서 삼가 다 말하였는데 돌아오는 인편이 없어 아직 몇 마디 답장을 받지 못하였다. 궁리(窮理)와 예학(禮學)은 애초에 두 가지가 아니니, 이치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예는 의미 없이 행해지지 않는다. 너는 내가 일찍이 예를 배운 적이 없는 것만 보고, 이치를 궁구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모르니 우습구나. 이치를 궁구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소견에 막히는 것이 많고, 소견에 막히는 것이 많으면 예에 대해서 어찌 하겠느냐.

편지에서 말한 은전(殷奠)과 상식(上食)¹⁵⁷은 모두 생전의 모습을

157 은전(殷奠)과 상식(上食) : 은전은 초하루와 보름에 성대하게 갖추어 올리는 제사이고, 상식은 매일 조식으로 케연(几筵)에 밥상을 올려놓고 분향하고 곡을 하는 것이다.

형상한 것이니, 그렇다면 3년 안에는 평상시 예절에서 변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공자께서 이른바 “산 사람으로 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¹⁵⁸라는 말이 또한 돌아볼 가치가 없겠느냐.

“옷섶을 왼쪽으로 여미고 고를 하지 않는다.[左衽不紐]”는 본래 한 문장인데 이른바 “다시 풀 수 없다.”라는 것은 다만 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에만 해당하니, 옷섶을 왼쪽으로 여미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왼쪽으로 여미는 것도 풀 수 있고 오른쪽으로 여미는 것도 풀 수가 있다. 왼쪽으로 여미는 것에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면 유독 좌설(左設)을 의심하는 것은 또 어떠한 뜻인가.

‘음양(陰陽)’·‘강유(剛柔)’에 관한 의논을 살펴보면, 다만 <곡례(曲禮)>의 진찬(陳饌)에만 의거하고자 하는 것은 또한 치우친 듯하다. 네가 궁리격물(窮理格物)에 힘쓰지 않는 것이 내가 예학에 힘쓰지 않는 것과 꼭 같다. 동일한 병통을 앓고 있으니, 소견이 합치되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모쪼록 그동안에 한 말을 반복해서 생각해 보고, 그래도 소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우선 이 일은 차치하고 다시 다른 도리를 논하는 것이 어떠하냐?

“개장(改葬)할 때 복제(服制)에서 나머지는 모두 조복(弔服)에 가마(加麻)를 한다.”라고 한 것은 《예경(禮經)》에서 나왔으나 “마(麻)는 시마복(總麻服)을 입을 때의 질대(經帶) 차림이다.”라는 것은 바로 소(疏)의 말이다. 또 《예경》에서 “집에 있을 때는 질(經)을 하고 외출할 때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소에서 “시마복에 질대를 착

158 산 사람으로……못하다 : 자세한 내용은 237쪽 주156 참조.

용하는 것 또한 조복이다.”¹⁵⁹라고 하였다. 여기에 의거하면 마는 요질(腰絰)이고 수질(首絰)이 아님이 매우 분명하다.

조복은 지금 제도에 정식(定式)이 없다. 보낸 편지에서 이른바 “흰색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의 뜻을 잃지 않은 듯하다. 두건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는 예에서 상고하지 못하였으나 ‘현관(玄冠)’이라는 말로 미루어 보면 또한 마땅히 흰색을 써야 한다. 우리 집에서 개장할 때 일찍이 흰색 옷과 두건에 가마하는 복제를 썼다. 그 당시에는 근거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 그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이처럼 병으로 정신이 어두우니, 한탄스럽구나.

159 집에……조복이다 : 《예기대전(禮記大全)》〈단궁 상〉에 보인다.

고 생질에게 답함

答高甥

지난번 편지는 이미 살펴보았으니 지금 말할 것은 없다만, 며칠 사이의 소식을 알게 된 것으로도 충분하다. 학문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의 국량을 크게 해야 하니, 그런 뒤에야 진보할 곳이 있게 된다. 만약 심량이 크지 않으면 천협(淺狹)해서 포용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니, 훌륭한 말과 선한 행실을 또한 어디에 의거하여 할 수 있겠느냐. 또 이택(麗澤)의 유익함¹⁶⁰도 바랄 수 없다. 봉우는 바로 오륜(五倫)에 속한 것인데 마음의 국량이 없는 자는 봉우가 없다. 그러므로 《주역》에서 이택을 봉우의 유익함으로 여겼으니, 택은 수용하는 형상을 취한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한 뒤에야 학문을 할 수 있으며 봉우가 찾아올 것이다.

160 이택(麗澤)의 유익함 : 이택은 서로 붙어 있는 두 개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봉우 간에 서로 도움을 주며 학문을 토론하고 덕을 닦음을 말한다. 《주역》〈태괘(兌卦)〉 상(象)에 “두 못이 붙어 있는 형상이 태(兌)이니, 군자가 이를 보고서 봉우 간에 강습한다.”라고 하였다.

고 생질에게 답함

答高甥

해가 지나 머리는 희어지고 추위가 심해 병은 새로 생겼는데 매우 다행스럽게도 심부름꾼이 편지를 전하니 곤궁한 나의 시름에 조금 위로가 되는구나. 여자들은 편지에서 가난하다고 고하니, 가난이 심하면 아녀자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나무랄 만한 게 못 된다. 그러나 장부가 가난에 처하면 어찌해야 알맞게 처신할 수 있겠느냐. 아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콩이 절반이 섞인 밥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극한 성인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눈앞에서 처자식이 울부짖으면 아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이는 내가 옛날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지금은 비록 이렇게 되고 싶어도 또 어찌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너는 잘 생각해서 대처하기를 바란다.

송
암
집

제
3
권

行 祭
狀 文
장 문

제문 祭文

가묘에 고하는 글 호가 장가들 때 종자 형으로 하여금 고하게 하였다
告家廟文 灑娶時 使宗子洞告

당제(堂弟) 호는 올해 스물 일곱인데 아직 부인을 얻지 못하였으니, 처음에는 상(喪)을 당했기 때문이고 나중에는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저도 상을 당했는데 연제(練祭)를 지낼 날이 되기 전에 혼사를 주관하게 되었으니, 모두 예(禮)에서 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도(常道)를 지키고자 하면 반드시 장가들지 못할 것이니, 고하지 않고 아내를 맞이한 일¹을 미루어 보면 마땅히 권도(權道)를 행해야 합니다. 호는 다음 달 무술일에 창평현(昌平縣)의 진 별좌(別坐) 김방(金芳)의 따님을 맞이합니다. 예는 본래 변례(變禮)가 있지만 마음은 진실로 편치 않으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더욱 매우 애통합니다. 삼가 고합니다.

1 고하지……일 : 《맹자(孟子)》〈이루 상(離婁上)〉에 “순이 어버이에게 고하지 않고 장가든 것은 후사가 없게 될까 염려해서였다.[舜不告而娶 爲無後也]”라고 한 일을 가리킨다.

모암서원에 조 양산과 조 처사를 배향하는 것에 대해 고유하는 글

慕巖書院配享趙梁山 趙處士告由文

아, 두 사람의 덕은 대소(大小)가 있으나 충효(忠孝)는 같고, 태어난 때는 선후가 다르나 행의(行義)는 혹 서로 가깝습니다. 조공은 이름이 영규(英圭)이니 저와 같은 추로지향(鄒魯之鄉)²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그에게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의 훌륭한 사적을 이쪽저쪽에서 구하였습니다. 일찍부터 병서(兵書)를 좋아하여 무예로 출세하였으나 유학으로 마음을 잡았고, 군현(郡縣)을 두루 맡으면서 정사는 청정(淸靜)하고 담박함을 숭상하였습니다. 개를 보내 모친의 안부를 물으니³ 사람들이 효성에 감응한 것이라 칭송하고, 관직을 마친 뒤에는 쌓은 재산이 없으니 세상이 청백함에 탄복하였습니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섬나라 오랑개의 대군이 침입하였는데 공은 당시 양산 군수로 있었습니다. 적에게 분노하고 용기는 넘쳤으나 의지할 탄환이 없으니 누구를 깊이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동래부(東萊府)에 가서 의탁하니 송공(宋公)⁴이 공과 함께 적과 싸우기로 약속하

2 추로지향(鄒魯之鄉) :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고 맹자는 추나라 사람이니, 즉 공맹의 고향이란 뜻으로, 여기서는 예절과 학문이 높은 곳을 일컫는다.

3 개를……물으니 : 조영규(趙英圭)가 용천 군수(龍川郡守)로 있을 때 모친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개의 목에 걸어서 고향 집에 보냈는데 그 개가 편지를 전해 주고 모친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일이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권4 〈양산군수조공행장(梁山郡守趙公行狀)〉에 보인다.

4 송공(宋公) : 송상현(宋象賢, 1551~1592)을 말한다. 자는 덕구(德求)이고, 호는 천

였습니다. 모친과 작별하고 자식을 부탁한 것은 생(生)을 버리고 의(義)를 취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앞장서서 함성을 지르면서 포위를 뚫고 성으로 들어가니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두 명이 수양성(睢陽城)을 한마음으로 사수한 것과 같은데⁵ 하늘이 이치에 순응하는 이를 돕지 않아 같은 날 순사(殉死)하였습니다. 위대한 공의 절개는 하늘이 증명할 수 있는데 충성은 똑같으면서도 포장(褒獎)은 달랐으니 공의(公議)가 오랫동안 잘못되었습니다.

공의 아들 정로(廷老)는 충성을 바친 가문의 효자입니다. 급히 부친의 명을 받고 조모를 고향으로 모시고 갔다가 조공과 함께 적진에 달려가기 전에 부친의 죽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성은 싸움이 끝난 뒤라 원수를 갚을 곳이 없고, 전장에는 잔해가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지라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습니다. 초혼(招魂)하고 통곡하며 돌아와 슬픔을 다하고 예를 극진히 하였는데, 복제(服制)는 마쳐야 하는 기한이 있기에 예제(禮制)로 마음을 곱혀 따랐습니다.

상복은 비록 벗었더라도 여전히 심상(心喪)을 하여 죽을 마시고 소식(素食)을 하니, 부친을 잃은 슬픔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흙집을 쌓아 몸을 가리고 샷갓을 만들어 얼굴을 가리고서 복수하지도 못하고 부친을 따라 죽지도 못해 하늘을 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펄쩍와

곡(泉谷)·한천(寒泉)이며,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동래 부사였는데 조영규와 함께 항전하다가 순사하였다. 이조 판서·찬성에 추증되고, 동래 안락서원(安樂書院)과 충렬사 등에 제향되었다.

5 장순(張巡)과……같은데 : 장순과 허원은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의 충신이다. 안녹산(安祿山)이 반란을 일으켜 수양성을 공격했을 때 장순과 태수 허원이 몇 달 동안 수양성을 방어하였으나 구원병이 오지 않아 성이 함락되어 모두 전사하였다. 《舊唐書 卷187 張巡列傳》여기서는 조영규와 송상현이 동래성을 지키다가 죽은 것을 말한다.

비방을 모두 돌아보지 않고 종신토록 부친을 사모하기를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것처럼 하여 이 흠집에서 나오지 않고 생을 마쳤으니, 지극한 효성입니다.

조공 부자의 충과 효는 집에서나 국가에서나 똑같았으니 길이 변치 않을 강상(綱常)입니다. 향인들이 공경하고 감복하여 사실을 자세히 기록해 누차 조정에 아뢰었으나 정려(旌闈)하고 녹훈(錄勳)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사림(士林)을 개탄스럽게 하여 답답한 채 풀리지 않았는데, 선생을 사당에 모시게 되었으니 혼이 반드시 이곳에 의지할 것입니다. 공자께서 증점(曾點)을 허여하고 증삼(曾參)을 부르니⁶ 천년 동안 똑같이 추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서원에 올려 들여 좌우로 배향합니다. 이 정결한 제사를 살피시거든 부디 흠향하기를 바랍니다.

6 증점(曾點)을……부르니 : 증점을 허여한 것은 공자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포부를 말해 보라고 했을 때 증점이 “늦봄에 봄옷이 이루어지거든 어른 대어섯 사람, 동자 예닐곱 사람과 함께 기수(沂水)에서 목욕하고 무우(舞雩)에서 바람 쐬고 시를 읊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자, 공자가 “나는 점을 허여하노라.[吾與點也]”라고 한 일이다. 증삼을 부른 것은 공자가 증삼을 불러서 “나의 도는 하나의 이치로써 모든 일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자, 증삼이 곧장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일을 가리킨다. 《論語》〈先進〉, 〈里仁〉 참조. 증점과 증삼은 부자(父子) 관계로, 조영규(趙英圭)와 조정로(趙廷老)를 비유한 것이다.

홍에 대한 제문

祭泓文

정미년(1667, 현종8) 11월 신축 삭(朔) 3일 계묘에 아버가 죽은 아들 홍의 영령에 이별을 고하노라.

아,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너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며, 너는 나를 떠나 누구를 의지하려느냐. 아, 슬프구나. 너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는 진실로 마지못해 그런 것이냐. 너로 하여금 마지못하게 한 자는 누구이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 하늘이로구나, 하늘이로구나. 어찌하여 너를 태어나게 하고 어찌하여 너를 죽게 만들었느냐.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너를 낳게 하고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너를 잃게 만들었던 말이냐. 하늘이여, 하늘이여. 나는 하늘의 마음이 끝내 어떠한지 모르겠다. 아, 슬프구나.

네가 어미 배 속에 있을 때 네 어미가 선조(仙鳥)를 얻고는 매우 기뻐하다가 그 새가 곧바로 죽는 꿈을 꾸었는데 네 어미가 매우 근심하여 매번 나에게 이 꿈을 말해 주면서 네가 요절할까 두려워하였다. 나는 이를 듣고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나는 지금 너를 잃은 뒤에야 비로소 이 꿈에 느낀 바가 있다.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나도 젊은 나이라 비록 부자(父子)의 정을 알기는 하였지만 또한 너를 안아 주고 업어 주면서 자식을 사랑하는 도리를 다하지는 못하였다. 네가 조금 자란 뒤에는 자질이 자못 경준(輕俊)하였기에 내가 매번 꾸짖으면서 제지하였다. 무릇 아이의 마음은 만약 부모의 노기와 꾸짖음을 받으면 반드시 잠깐이나마 원망하고

미워하기 마련인데 너는 유독 말이나 얼굴에 드러나는 기미가 없었다. 이것이 너의 자질이니 진실로 얻기 쉽지 않은 것이었다.

네가 학문을 하게 되었을 때는 《사기(史記)》 한 편을 읽자마자 바로 스스로 해석하고 구두를 꿰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나는 네게 학문에 힘쓰라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도 너는 스스로 진보할 수 있었으니, 이것이 너의 재능으로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드문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매번 네가 경준하여 정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였기에 너의 재능을 인정한 적이 없었다.

중간에는 상(喪)을 당해 곤궁하여 편하게 지내지 못했기에 나는 네게 책을 읽으라고 권할 겨를이 없었고 너도 마음을 안정시켜 학업을 닦지 못하였다. 지난해 초봄 나와 너는 역병을 피해 각각 산사(山寺)에 떨어져 있었다. 그때 네가 지은 〈승려를 보내는 서문〉을 보았는데 이를 읽고 놀라서 네가 지은 글이 아니라고 의심하였다가 과연 스스로 지은 글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그 서문이 너의 유집(遺集)에 있을 테지만 나는 차마 찾아서 보지 못하겠다.

이때부터 문사(文辭)가 일취월장하였지만 나는 오히려 선비가 위기(爲己)의 학문에 힘쓰지 않으면 비록 문사가 뛰어난들 무엇하겠느냐고 여겼다. 너는 자못 이 학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작할 방법을 몰라, 내가 그제야 〈태극도설(太極圖說)〉을 너와 네 아우에게 주었다. 너와 네 아우는 〈태극도설〉을 자못 좋아하여 마침내 책상을 같이 쓰며 강론하고 궁구하였는데 네가 먼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비로소 이기(理氣)의 설이 있음을 알아 마침내 《소학》에 전념하고, 이어 《논어》를 읽고서 정자(程子), 주자(朱子), 율곡(栗谷)의 글을 널리 궁구하였는데 《소학》과 《격몽요결(擊蒙要訣)》을 더욱 높이고 믿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공책 하나를 가져다 《격몽요결》을 스스로 썼는데 아직 반도 쓰지 않았을 때 병이 생겼다.

병들기 전에 이미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를 잘 행하여 저녁에 잠자리를 살피고 아침에 문안을 드리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봉양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병든 뒤에도 여전히 게을리하지 않아 심한 추위와 한창 더위에도 몸에는 온전한 옷을 걸치지 못하고 반드시 고집스럽게 봉양하였으니, 네 병의 근원은 태반이 이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아, 슬프구나.

내가 네 병이 고질이라는 것을 알아 독서를 멈추게 하니, 너도 내 말을 따랐다. 그러나 간혹 몸이 조금 나아지면 번번이 책을 읽고, 심신을 가다듬는 것도 날마다 부지런히 하였다. 일찍이 내 곁에서 《의례문해(疑禮問解)》를 두루 살펴보다가 간간이 의심스러운 점을 나에게 질정하였는데 나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1년 안에 진취된 공부가 진실로 많았으니 기질이 변하여 안정되고 중후해져서였다. 대개 품부받은 기가 맑고 빼어난 사람은 사장(詞章)과 암기의 수고로움으로 맑고 빼어난 기(氣)가 오랫동안 가려져 있지만 한번 바른 길로 들어가면 그 천기(天機)가 저절로 동(動)한다. 내가 이 때문에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자부하고 오직 질병에 걸리는 것만을 근심하였다. 아, 그런데 24살도 되지 않아 갑자기 요절하여 나로 하여금 오늘날에 기대하던 바를 잃어 끝없는 애통함을 품게 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아, 울곡이 말하기를 “기가 맑은 사람은 견고하기 어렵고, 기가 빼어난 사람은 완전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는데, 나는 일찍이 이 말과 관련해 우리 집안에 깊이 느낀 바가 있다. 옛날 우리 선친께서는 품부받은 자질이 매우 맑고 빼어나 15세에 이미 여러 경서와 제자서(諸子書)를

통달하고, 20세에는 문장과 행실이 세상 사람들을 탄복시킬 수 있었으며, 3~40세에는 완전히 정인군자(正人君子)가 되었으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47세에 돌아가셨다.

그 후 당제(堂弟) 정규(廷奎)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특출하여 15~6세에 문장에 능하니, 세상 사람들이 바야흐로 원대하게 클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올해 나이 27세에 요절하였다. 나는 일찍 부모를 여읜 슬픔을 당한 때부터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며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정규가 있어서 함께 학업을 닦고 강마하여 거의 가업을 무너뜨리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정규도 불행하게 단명하였으니, 나의 기대는 진실로 너에게 있었다. 너는 작년부터 총명함과 재주와 식견이 거의 정규와 비등하였기에, 하늘이 수명을 더 주었다면 학문을 성취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아, 그런데 너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

“기(氣)가 맑은 사람은 견고하기 어렵고 기가 빼어난 사람은 온전하기 어렵다.”라는 율곡의 말이 우리 집안에서 더욱 증명되고, 네 어미가 꿈 선조(仙鳥)의 꿈이 진실로 너의 생사에 감응한 바가 있는 것이다. 네가 어찌 나를 버리고 떠나려 했겠느냐. 네가 진실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것은 진실로 네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게 만든 것은 하늘이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네가 하늘에 어찌할 수 있겠으며, 나도 하늘에 어찌할 수 있겠느냐.

처음 네가 막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조금 의술을 안다는 이유로 처음으로 약을 처방하였는데 너는 곧바로 믿고 복용하였다. 오랜 뒤에도 병이 낫지 않아 누차 약을 바꾸었지만 네가 싫어하고 괴로워하지 않은 것은 네가 만에 하나라도 약의 영험한 효과를 기대해서였는데 내가 처방한 약은 시종일관 잘못되었다. 네가 약을 감당하지 못해 더러 곧바

로 들이키지 못할 때는 내가 번번이 노하여 꾸짖었다. 병이 위독해졌을 때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러 약 처방을 더욱 잘못된 탓에 너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다. 진실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비록 네가 시종일관 약을 거부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차마 한번이라도 노하여 꾸짖지 못했을 것이다. 하물며 너는 내가 잘못 처방한 약을 믿고 복용했는데도 나는 더러 노하여 꾸짖었으니, 이것이 더욱 애통하다.

아, 너의 나이가 스물이 된 뒤에 관례도 치르지 못하고 부인을 맞이하지도 못해 처자식을 둔 즐거움을 모르고 남은 피붙이도 없다. 지하든 인간 세계든 부모를 버리고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그러므로 바라보이는 가까운 곳에 너를 매장하여 너의 혼으로 하여금 거의 밤낮으로 와서 의지하게 한다. 또 마땅히 땅 한 곳을 골라 너의 형제로 하여금 결국 나를 장사 지낼 곳에 너를 매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니, 훗날 부자간에 거의 유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변고는 또한 예정하기 어려우니 아, 애통하구나. 이승과 저승으로 헤어졌으니 만약 나에게 의지하지 못하겠거든 위로는 나를 섬기듯이 나의 선친을 섬기고, 아래로는 형제처럼 정규와 강학하거라. 이 또한 죽었을 때나 살았을 때나 한가지 이치이다. 아, 애통하구나.

네가 병이 들었을 때 너는 나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차마 너의 병든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네가 죽고 이제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차마 너의 영구를 보지 못하겠으니, 너는 내 마음을 아느냐? 아, 애통하구나. 내가 명에 어찌할 수 있겠느냐. 아, 슬프구나.

장자 호에 대한 제문

祭長子灝文

아, 오늘이 바로 네가 죽은 날이구나. 너는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아느냐. 처음 홍(泓)과 제(濟)가 죽었을 때 나는 그래도 네가 살아 있는 덕분에 천명을 혹 기대할 수 있고, 이치를 혹 믿을 수 있고, 가운(家運)을 혹 바랄 수 있고, 내 몸을 혹 지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유독 불안해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수긍하지 않았으나 내 앞에서 그런 마음을 차마 곧바로 말하지 못하였다. 내가 매번 이를 괴이하게 여겨 네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았는데 오늘의 변고를 네가 과연 확실히 밝게 보고서 자신이 장차 죽을 것을 한스럽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신세를 지극히 애통해한 것이다.

나는 네가 죽고 사는 것에 동요된다고 여겨 매번 그것을 금하게 하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천명을 편안히 받아들이게 하였는데 너는 비록 내 말을 따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 신세가 끝내 험난해질 것이라는 데에 꺼림직한 마음이 풀리지 않은 것은 시종 똑같았다. 아, 슬프구나. 너의 식견이 과연 이처럼 밝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일이 닥친 뒤에야 나는 네 병을 치료할 수 없어 하늘에 기대할 수 없고, 이치를 믿을 수 없고, 가운을 바랄 수 없고, 내 몸을 지탱할 수 없음을 알았다. 어찌 이뿐이겠느냐. 무릇 일의 시비와 이치의 당부(當否)에 대해 네가 말했지만 내가 믿지 않은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 어긋나지 않았으니, 너의 식견이 과연 이처럼 밝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아, 슬프구나. 홍(泓)과 제(濟)는 자질이 모두 아름답고 효성스러우

며 우애가 있었으니, 그들이 죽었을 때 매우 애통하고 지극히 애석하였다. 너의 평소 모습을 너의 두 아우와 비교하면 모두들 자품이 각각 뛰어난 점이 있지만 일을 보는 밝음과 이치를 헤아리는 지혜는 내가 과연 아우들보다 한층 낫다. 주자(朱子)가 이른바 “처음에는 이런 시어를 쓸 수 있을 줄 몰랐다.”⁷라는 것이 내 처지와 가깝구나.

아, 슬프구나. 너는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아느냐. 죽고 사는 것은 상리(常理)이고 장수와 요절은 수(數)가 있지만 내가 너에게 무한한 애통함이 있는 이유는 내가 모두 먼저 알았기 때문이니,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목숨을 보존할지 못할지 네가 후사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저승에 있는 너의 묵묵한 헤아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또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 슬프구나. 너는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아느냐. 자식을 꼭하는 것은 성현도 면치 못했지만 각각 제 도리를 다하여 죽은 자와 산 자가 유감이 없었다. 나는 유독 너에게 아직 제 도리를 다하지 못하였으니, 아, 슬프구나. 너는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아느냐. 말로는 마음을 다 펼 수 없으니, 다만 너는 흠향하기를 바란다.

7 처음에는……몰랐다 : 주희(朱熹)가 아들 주숙(朱塾)이 화려한 습속에 빠질까 염려하여 시문(詩文)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주숙이 죽은 뒤에 주희가 그의 시권(詩卷)을 보고 “처음에는 이런 시어를 쓸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이것을 보니 눈물이 그치지 않아 차마 다시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朱子大全 卷83 題嗣子詩卷》

종자 형에 대한 제문

祭宗子洞文

모년 모월 모일 중부(仲父) 아무개는 병에 걸린 뒤 더욱 기가 쇠한 탓에 너의 종상(終喪)에 몸소 가서 곡하지 못하고 멀리서 제철 음식을 갖추어 약(漉)으로 하여금 대신해서 수재(秀才)인 죽은 조카 형(洞)의 영령에 고하게 하노라.

아, 슬프구나. 처음 나는 한유 퇴지(韓愈退之)의 《제십이랑문(祭十二郎文)》⁸을 읽고 슬퍼하였다. 또 일찍이 네게 가르쳐 주고 읽게 하였는데 너도 그 말이 슬픈 것을 알았다. 아, 지금 너의 죽음이 십이랑과 가깝고 나의 슬픔이 한유와 같을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느냐. 네가 나의 슬픔을 모르셨다면 그 제문에 담긴 슬픔을 행여 기억해 보면 나의 슬픔을 알 것이다. 저 한유는 벼슬살이로 오래 떨어져 지내고 또 장사에 참여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으니, 이는 나에게 없는 일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연이어 세 아들을 잃어 네가 놀라서 안정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을 애통하게 여기니, 이는 한유에게 없는 일이다. 그러니 끝없는 슬픔이 절로 넘쳐난다.

비록 그렇지만 나의 슬픔은 또 한유의 슬픔보다 더 슬픈 것이 있다. 한유는 열 살 된 아들의 성취를 기대할 수 없음을 슬픔으로 여겼으나 너는 이미 우리 선인(先人)을 계승할 한 명의 후사도 없으니, 나의

8 제십이랑문(祭十二郎文) : 당(唐)나라 한유가 조카 한성로(韓成老)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제문이다.

슬픔이 어찌 한유의 슬픔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또한 네가 스스로 슬퍼 하면서 눈을 감지 못하는 까닭이 또 어찌 다만 한십이랑의 슬픔과 같겠느냐.

아, 네가 죽을 때 후사를 세우는 일을 나에게 부탁하려고 하였는데 내가 갔을 때에는 너는 이미 말을 하지 못하였다. 지금 비록 너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 연(淵)은 지금 아직 아들이 없고 약(渫)은 아직 장가들지 않았고 성(潏)은 어리니, 내가 장차 너의 뜻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 내가 장차 후사로 내세우기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느냐. 아, 슬프구나. 아, 슬프구나. 연이 이미 너의 상을 주관하고 있지만 4대의 종사(宗祀)는 네 뒤를 이을 사람이 태어나기를 기다릴 수 없으니, 그렇다면 그 형세상 연이 장차 후사로 들어가 기다릴 것이다.

아, 나는 너의 부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이 더욱 슬프다. 아, 슬프구나. 한상(韓湘)과 한방(韓滂)은 바로 십이랑의 아들인데 한방은 또 한백천(韓百川)⁹의 후사가 되어 한씨의 후손이 더욱 번창하였다. 우리 가문에도 한상이나 한방과 같은 이가 네 뒤를 이어서 한씨처럼 더욱 번창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미리 헤아리기는 어려우니, 이를 더욱 슬퍼한다. 아, 슬프구나.

9 한백천(韓百川) : 한노성의 형으로, 일찍 죽어 후사가 없었다. 《東雅堂昌黎集注 卷 35 韓滂墓誌銘》

죽은 부인 유인 김씨에 대한 제문

祭亡室孀人金氏文

아, 슬쁩니다. 유인이 죽은 지가 지금 이미 1년이 되었는데 내가 여태껏 방황하면서 잊지 못한 이유는 아마 의(義)가 중하고 정(情)이 도타웠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무릇 의로는 부부이고 정으로는 금슬과 같으니, 사람 중에 누가 여기에 소홀히 하겠습니까. 이는 나도 남들과 진실로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마음에 기억하는 까닭은 오로지 여기에 있지는 않고 유인의 덕행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슬쁩니다. 유인이 시집오기 전에는 부모님께서 안락하셨고, 시집은 뒤에는 시부모께서 편안히 여기셨으니, 형제의 말과 기문의 칭찬에 모두 거짓이 없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지극한 정으로 말하면 부부로 지냈던 자라야 참으로 알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상세히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유인이 내게 시집온 뒤부터 항상 내게 말하기를 “부모는 은혜로 맺어진 관계이고, 시부모는 의로 맺어진 관계이니, 정리상 은혜를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는 경중을 따질 마음이 없습니다. 이는 필시 천리로 볼 때 당연한 바이고 인정으로 볼 때 마지 못하는 바일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이미 귀해지셨으니, 멀리 떨어져서 부모님을 그리는 것이 제가 견디지 못하는 일이지 부모님을 봉양할 맛있는 음식 같은 것은 저의 급선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집은 그다지 풍족하지 않고 또 녹봉도 없으니, 아침저녁으로 봉양하는 것이 저의 근심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일을 계획하고 물건을 장만할 때는 반드시 시부모 봉양에 우선권을 두어 힘이 닿는 데까지 정성을 지극히 하여 도모하고 마음을 다하여 갖추었습니다. 불초한 나는 무능하여 그 일을 같이 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부모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드신 적이 많았습니다. 만약 시부모가 원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뜻을 봉양하여 모두 흡족하게 해 드렸습니다. 간혹 시부모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반드시 주선하고 여쭙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 봉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인이 처음 시집을 적에 비단이 많이 있었으나 남김없이 쓰면서 동서들에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또한 자기 물건을 함께 쓰다가 해지는 것에 유감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선조비(先祖妣)께서는 매우 고령이셨는데 유인이 또한 매우 잘 섬겼으니, 그 마음 씀이 거의 시어머니에게 젓을 먹이는 정성¹⁰에 못지않았습니다. 일찍이 말하기를 “옛사람처럼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시할머니께서 강녕하여 진지를 잘 드시는 것을 제가 감히 하지 못할 뿐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선조비께서는 항상 신부의 은혜를 보답할 수가 없다고 칭찬하고, 임종 때에도 칭찬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를 받드는 일로 말하면 남들이 잘하기 어려운 것을 더욱 잘하여 세속 사람들이 조심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정성과 공경을 더욱 지극히 하였습니다. 집안 재정이 동이 났을 때도 조금도 난처한 기색 없이 미리 비축한 물건과 그때그때 마련한 것들을 모두 살아 계실 때

10 시어머니에게……정성 : 최관(崔瑄)의 조모 당부인(唐夫人)이 시어머니인 장손부인(長孫夫人)에게 아침마다 젓을 먹여서 장손부인이 밥을 수년 동안 먹지 못했는데도 강녕하였다. 《小學 卷6 善行》

럼 갖추어 제사 받는 분이 반드시 흠향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 유인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것이 지극하다고 할 만한테 나는 매우 좋아하면서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유인은 처음에 자녀가 많았습니다. 매번 임신할 때마다 번번이 태교하기를 조금도 어긴 적이 없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반드시 바른 도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유인은 비록 글을 읽고 문장을 짓지는 않았지만 고금의 서사(書史)를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가르치는 지극한 가르침과 바른 도리에 모두 환히 통달하여 밤낮으로 항상 외며 가르쳤습니다. 내용 가운데 감동이 되는 언행에 이르면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아, 이미 요절한 세 아들이 이 덕분에 혹 바르게 자랄 수 있던 것이요, 타고난 성품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찌하여 내 현처(賢妻)에게 복을 내리지 않아 세 아들을 차마 요절하게 하였던 말입니까. 아, 유인이 자식을 가르침이 바른 도리를 얻었다고 할 만한테 나는 이를 매우 기뻐하면서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애초에 비록 옛사람의 글을 읽었지만 마음을 단속하고 행실을 조심하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나를 흥기하고 감동하게 하는 유인의 내조가 아니었다면 아마 만분의 일이라도 스스로 힘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성질이 편벽된 것이 많아 유인이 매번 일마다 간하였습니다. 내가 분노한 것을 보면 너그러움으로 풀어 주고 내가 남을 욕하는 것을 들으면 충후함으로 고해 주었습니다. 나의 인색한 성품을 염려하여 자애와 은혜로 권면하고 나의 고집스런 뜻을 경계하여 겸손과 억제로 말해 주었습니다. 친족들을 친애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였으나 다만 나에게 조금

식견이 있다는 이유로 나를 믿어 어기지 않고, 조금 돈후하다는 이유로 받들어 게을리하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뻐하여 따르고, 바르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라서 순종하였습니다. 차분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윤리를 바로잡고 은애(恩愛)를 후하게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아, 유인의 부도(婦道)는 옛날에서 찾아도 드문 것인데 나는 매우 기뻐하면서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아, 이는 모두 유인이 마음에 보존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일로 나타난 것으로 중대한 윤리 강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감히 잠깐이라도 유인을 잊지 못하는 점입니다.

아, 내가 부여받은 운명이 너무 험난하고 기구하지 않습니까. 이미 일찍부터 아버지를 여의어 애통하고 절박하여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그 후 수십 년 동안 어머니와 세 아들의 죽음이 서로 이어졌습니다. 인간 세상의 3대 중에 나 한 몸만 남았는데 곧이어 유인과 함께 안주하지 못하고 떠돈 것은 다만 남아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였는데 울부짖으며 슬피하다가 유인이 먼저 병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인의 홀어머니께서 서울에 계셔서 모녀가 떨어져 지낸 지가 거의 30년이 되었는데도 유인이 지성으로 강녕하기를 구한 것은 하늘도 울 만하고 땅도 감동할 만합니다. 내가 만약 세간이라도 보낼 수 있는 조금의 힘이라도 있었다면 어찌 차마 유인의 마음을 움직여 그 지극한 바람에 부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유인도 나의 마음이 이처럼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형편이 위태롭고 급박하여 이미 어찌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에 나에게 조금도 성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사모하는 유인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었는데, 유인의 병이 위독할 때 천 리에서 부고가 날아들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박씨 집안

에 시집간 딸도 따라서 죽었습니다. 아, 애통합니다. 나의 험난하고 기구한 운명이 마침내 이런 지경에 이르러 유인으로 하여금 생사의 사이에서 애통함은 끝이 없고 눈은 감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인이 죽은 지 또 얼마 되지 않아 다섯째 딸도 죽어 버렸습니다. 아, 애통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딸이 아직 죽기 전에 유인이 내 꿈에 나타나 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완전히 평소의 모습 같았으나 딸이 꿈에서 죽었으니 나는 오히려 믿지 않고 다만 사생애 개의치 않는다는 나의 뜻을 굳게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아, 애통합니다. 이 딸의 죽음이 마침내 그 꿈대로 되고서야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똑같음을 깨달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은 망자를 애도하는 나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어느 과부 덕분에 아직 쇠잔한 몸을 보존하면서 우리 두 딸을 기르고 우리 어린 아들을 길렀는데 네 명의 남은 혈육이 혼백이 놀라 없어질 만큼 불안해하여 내게 이사하기를 청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딸을 유인의 무덤 곁에 빨리 장사 지내고서 이 과부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이사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유인이 더 이상 내 꿈에 나타나지 않았으니, 평소의 지극한 바람대로 묵묵히 저승에서 돕고 여러 자식을 길이 보호하여 더 이상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꿈으로 일러 준 말을 믿지 않는 나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아 비록 길하거나 흉한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내게 일러 주지 않는 것입니까? 앞의 말대로라면 유인이 평소에 품었던 지극한 정(情)이고, 뒤의 말대로라면 당일에 나에게 일러 준 뜻이 아니니, 이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 슬픕니다. 유인의 신세가 또한 슬프지 않습니까. 가난으로 고생 하면서 살고, 혈육의 죽음으로 애간장이 끊어지고, 질병에 걸린 채로 나이를 먹고, 근심과 괴로움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선한 사람에게 보답 하는 이치를 진실로 믿기 어려우니,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행실을 깨끗하게 한들 마침내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이것이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유인을 잊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아, 슬픕니다. 녀은 이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왕에 대한 제문

祭汪文

아, 슬프다. 내가 아들을 잃은 지가 모두 몇 번인데 지금 너마저 잃어 남은 아들이 없게 되었다. 처음 아들을 잃었을 때는 셋이 있는 것에 의지하였고 두 번째로 잃었을 때에도 오히려 둘이 있었는데 끝내 네 큰형이 죽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화가 다시 네 숙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거의 다 죽어 버렸구나. 나는 슬픔을 달래고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다. 다만 네가 겨우 이같이 할 나이에 기(氣)가 매우 맑았기 때문에 하늘의 마음은 꼭 내 아들을 멸절시키지는 않기를 바라고 또 절대 이유 없이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리라 믿었다. 그런데 너의 뛰어난 자질 때문에 이미 화를 피하게 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너를 데리러 왔다.

아들 셋을 연달아 잃은 극심한 슬픔을 추스른 지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아, 금일에 너는 또 나를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늘이 우리 집안에 화를 내리고도 후회하지 않는 것이냐, 나의 운명이 박하고 재앙이 극심해서이냐? 아니면 귀신이 몹시 어질지 않아 사라지지 않는 것이냐, 부정한 세상의 음특한 기운이 해쳐서이냐?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하여 하늘이 애초에 너를 우연히 태어나게 하지 않았는데 네가 원대하게 자랄 길몽을 내려 주고는 끝내 징조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냐.

이른바 길몽이란 무슨 말인가. 너를 배었을 때 네 어머니는 용꿈을 꾸고 아버지는 노담(老聃)이 나오는 꿈을 꾸었다. 아직 태어나기 전에는 -원문 빠짐- 또 기린이 네 어머니의 배 속으로 숨었다가 나왔다가 하는

꿈을 꾸었으니 이것이 원대하게 자랄 길한 징조가 아니었겠느냐.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로 말하면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두 살인데도 바로 장유(長幼)의 차례를 알아 윗사람을 범하는 사람에게 성을 내었으니, 누차 시험해 보아도 반드시 그렇게 하였다. 세 살에는 문자를 알아 글자를 쓰면 자못 솜씨가 좋았다. 네 어머니가 잘못해서 그릇을 떨어뜨리자, 손을 다쳤을까 놀라서 울부짖으며 와서 부축하고 다치지 않았음을 안 뒤에야 그쳤다. 내게 천인(天人)의 이치를 물을 때면 반드시 그치지 않고 끝까지 물었는데 나는 더러 대답하지 못하였다.

예닐곱 살에는 문장을 잘 지어 왕왕 남들을 놀라게 하는 글귀가 있었다. 여덟 살에 사서(史書)를 읽다가 동한(東漢) 때 환관을 주살한 일에 이르렀을 때는 수염이 없어서 잘못 죽은 것을 슬퍼하여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긴 문장을 읊조려 조리가 있는 문장이 되었으니 무려 수백 글자였다. 그 대의는 만약 천하가 태평하였다면 반드시 함부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잘못 죽이는 폐단이 없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그때 곁에서 들었는데 문리가 분명하였는데도 오히려 미처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써서 나오게 하였는데 마침내 또한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였다.

아홉 살에 나의 표숙(表叔)¹¹의 집에 역병을 피하러 가 있다가 열한 살에 돌아왔는데 수년 동안 문장도 증진되지 않고 별다른 일도 없었다. 나는 네가 총명함을 잃은 것을 괴이하게 여겨 기삼백주(笄三百註)¹²로

11 표숙(表叔) : 아버지의 외종사촌이나 고종사촌 동생이다.

12 기삼백주(笄三百註) : 《서경(書經)》〈요전(堯典)〉의 “기는 삼백육십육 일[笄三百有六旬有六日]”이라는 글귀에 대한 채침(蔡沈)의 주석을 말한다. 역법(曆法)을 설명하였는데 문장이 매우 난해하다.

시험했는데 한번 들고는 바로 이해하고 구두를 매우 자세하게 끊으니, 내가 스스로 명확히 안다고 여겨 수차례 읽게 하였는데, 나중에는 학문 하는 단계가 잘못될까 염려하여 우선 그 책을 빼앗았다. 그러자 다시 《계몽(啓蒙)》을 가져다 괘효(卦爻)를 그려 방원(方圓)과 도상(圖象)을 이해하였다. 나는 또 너무 이르다고 금지하고서야 지난 수년 동안 그다지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은 타지에서 지내는 슬픔과 괴로움이 너의 의지를 꺾어서임을 깨달아 우선 글을 읽게 하였다.

열서너 살부터 몸에 비로소 병이 많아지니, 나는 두려워서 독서를 멈추게 하였다. 이때부터 수척해져 병이 되니, 예로 몸을 단속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탄식하였다. 그러나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은 비록 나라도 얼마나 깊은 경지에 나아갔는지 알지 못했는데, 매번 나의 논설을 들을 때마다 따져 묻는 것이 매우 많았다. 신유년(1681, 숙종7)에 어미가 죽자 거상(居喪)을 감당하지 못해 병이 더 심해졌는데 몸은 지쳤어도 지각은 또렷하였다. 나는 이때 미발중(未發中)의 설을 봉우간에 토론하고 있었는데 내가 평소 글씨를 잘 쓰지 못해서 매번 너를 시켜 대신 쓰게 하면 종종 내가 드러내지 못한 부분을 드러내고 정미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았다. 나아가 사람을 응접하는 것은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인데 너는 잘하였다. 내가 매번 일에 임해 잘못할 때마다 너의 간언을 듣고 고친 적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 홀연 스무 살도 안 되어 갑자기 요절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네가 원대하게 자랄 길한 징조를 하늘이 내린 것이겠느냐.

아, 네가 이미 죽었으니 내가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느냐. 받은 죄는 삼천 개의 형벌 중에 으뜸이고 당한 재앙은 사궁(四窮)보다 극심하니,¹³ 너보다 앞서 죽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너는 나의 뜻을 알아 죽을 때 나에게 부탁하여 후처를 들이라고 권하면서 다시 내 아들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아, 이는 비록 일반적인 이치는 아니지만 극진한 정성이니 또한 감통(感通)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 공자께서 “낳고 낳는 것을 역(易)이라고 한다.”라고 하셨으니, 이역(移易)하고 변역(變易)하는 것이 바로 음양의 이치이다. 지금 위에 있는 충만한 너의 기(氣)가 진실로 음양 조화의 근본으로 돌아갔으니 지성으로 인한 감동으로 다시 네 아버지에게 태어날 이치가 어찌 없겠느냐. 이것으로 음양의 헤아릴 수 없는 신묘함을 증명할 수 있으니, 이른바 ‘낳고 낳는 것’과 ‘이역’, ‘변역’이란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훗날 품부받는 생명은 더욱 뛰어나고 전날 몇 번의 꿈이 비로소 이유 없이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과 꼭 맞아서 비로소 원대하게 자랄 것이다.

하늘이 이미 화를 끼친 것을 후회하고 나도 명(命)을 따르며, 귀신이 헤치기 못하고 부정한 것이 어지럽히지 못한 것이니, 너의 극진한 정성을 돌아보면 어찌 뜻하지 않게 감발하여 다시 태어나지 않겠느냐. 다만 내가 후처를 들이는 것은 또한 때와 명이 있다. 원컨대 정성이 맺힌 너의 영령이 더욱 전일한 정성을 모아 때를 기다려 내려와 처음과 같은 부자 사이가 된다면 내가 또 무엇을 슬퍼하겠느냐. 이보다 큰 경사가 없을 것이다. 이에 제철 음식으로 곡을 마치니, 가눌 수 없는 마음은

13 당한……극심하니 : 사궁은 환(鰥)·과(寡)·고(孤)·독(獨)을 말한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독’, 어려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고’라고 한다. 《孟子 梁惠王下》 참조. 《송암선생문집》 권4에 있는 여러 제문에 의거하면 부모와 처자식을 모두 잃은 이후여서 이런 말을 한 듯하다.

모두 말로 할 수 없구나. 혼령이 지각이 있다면 훗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흠향하기를 바란다.

죽은 딸 처자에 대한 제문

祭亡女處子文

가문의 극심한 화가 이런 지경까지 이르러 작년 오늘에 너도 죽었다. 4남 3녀 중에 누군들 애통하고 절박하지 않겠느냐마는 곡하고, 염하고, 장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은 너에게 더욱 박하였다. 너와 왕(汪)이 동시에 병이 심해졌는데 좌우에서 병을 돌보고 출입할 때마다 마음이 타는 듯하였다. 네가 죽고 왕이 위독했을 때에도 오히려 한번 낮기를 바라서 왕이 몸소 너를 염하고자 하였는데도 나는 병이 더 심해질까 염려하여 부인에게 명해 염을 살피게 하고 친족의 힘을 빌려 무덤을 만들었다. 죽은 사람은 그만 어쩔 수 없는지라 창황히 왕을 구하려고 집을 허물고 이사하였으니 참혹하고 처절함을 형용하기 어렵구나. 신주를 미처 만들지 못하고 제사도 지낼 겨를이 없었는데 왕도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푸른 하늘이 있으나 나는 돌아갈 곳이 없어, 외로이 세상에 남은 처지가 가련하구나. 왕에게는 무엇이 두렵다고 신주를 만들어 제사 지내고, 너에게는 무엇이 박하다고 오히려 차마 매장을 하였단 말인가.

궐연을 하나로 합쳐 설치하기에는 혐의가 있고 청(廳)을 둘로 나눠 설치하기에는 물력이 없다. 이미 만든 것은 철거하지 못하고 아직 만들지 못한 것은 세우지 못한 채로 차마 지금에 이르고 또 국상(國喪)을 만났다. 집이 가난하여 물력이 부족하니 제사도 임시로 실행하였다. 돌아보건대 가문이 당하는 화가 자손이 멸절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두 해를 기다려 가사(家事)가 혹 안정되거든 추후에 신주를 세우

는 것도 올바름을 잃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혼백(魂帛)¹⁴에 합사(合祀)하니, 너는 우선 이를 편안히 여기도록 해라.

너는 정성과 효도를 다하였는데 나는 자식으로 대해 주지 못하고, 너는 유순하고 올곧음을 지켰는데 나는 너를 성취시키지 못하였다. 술 한잔에 변변찮은 제수를 올리니 눈물이 다해 마르고 애간장이 끊어지는구나. 혼은 와서 나의 마음을 살피라.

14 혼백(魂帛) : 신주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모시나 명주를 접어 영위를 모시어 놓은 자리에 봉인하는 신위이다.

행장 行狀

양산 군수 조공 행장 처사공 부기(附記)

梁山郡守趙公行狀 處士公附

공의 휘(諱)는 영규(英圭)이고, 자(字)는 국경(國敬)이다. 공은 어릴 때부터 기상이 영특하고 뛰어나며 성품도 지극히 효성스러워 사람들이 모두 비범하게 여겼다. 장성한 뒤에는 또 절륜한 힘이 있었는데, 벼슬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겨 갑인년(1554, 명종9)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니 당시 나이가 겨우 스물이었다. 지조가 이미 비범하여 세속을 따라名利(名利)를 다투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급제한 지 6년 뒤에 비로소 훈련원 초관(哨官) 자리를 얻었고 사복시 주부와 판관을 거쳤다. 지방으로 나가 제주 판관과 무장 현감(茂長縣監)을 지냈는데, 무장에 있을 때 부친상을 당해 관직을 그만두었다.

공은 비록 무예로 벼슬하였으나 마음가짐과 몸가짐은 유학으로 이름난 자라도 모두 미치지 못하였다. 청렴과 절검이 바로 공의 천성이었기 때문에 정사를 할 때는 절로 엄격하고 공정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봉양을 지극히 하니 부모가 안락하였고,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쌓아 둔 재물이 없었다. 훗날 만경(萬頃), 영암(靈巖), 용천

(龍川), 낙안(樂安), 영해(寧海) 등의 군을 다스렸는데 군수로 있는 동안은 모두 무장에 있을 때와 같았다. 변방 군에 있을 때는 국법상 모친을 모시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공이 매번 한스럽게 여겼다.

용천 군수로 있을 때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친의 마음을 더욱 슬피 여겨 비록 마음을 다해 인편을 보내 안부를 물었지만 자주 관인(官人)을 수고스럽게 하고 폐를 끼치는 것을 근심하였다. 기르던 개 한 마리가 그때 평상 곁에 있다가 공의 근심하는 말을 듣고는 주변을 돌고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이 마치 공의 명을 들으려는 듯하였다. 공이 이에 편지를 써서 목에 매어 주면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집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또 노모의 편지를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자, 개가 곧장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가 얼마 뒤에 과연 공이 명한 대로 하였으니, 용천에서 장성(長城)까지는 무려 천여 리였다. 이때부터 명을 받으면 게을리하지 않고 왕래하니 공이 이에 용덕(龍德)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효성에 감응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만력(萬曆) 임진년(1592, 선조25)에 양산 군수가 되었는데 얼마 뒤 왜적의 대군이 침입하여 먼저 부산(釜山)을 함락시키고 첨사(僉使) 정발(鄭撥)은 전사하니, 왜적이 이에 곧바로 동래(東萊)를 공격하였다. 당시 변방은 허술하고 기강도 없어, 병사(兵使) 이각(李瑋)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침입해 오는 왜적은 날로 많아지는데 공은 홀로 양산(梁山)에 있으면서 분연히 사수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외로운 성과 자신밖에 없어 함께 왜적을 막을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동래 부사 송상현(宋象賢) 공이 성에서 수비하면서 계책을 내는 것이 많다는 것을 들었다. 공이 곧바로 달려가서 송공을 보고 “국사(國事)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공은 장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묻자, 송공이 “마땅히 이 성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저도 한번 죽을 계책만 있을 뿐이니, 공과 함께 지키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자, 송공이 즉시 손을 잡고 크게 기뻐하였다.

공이 또 개탄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공과 함께 사수하는 것은 지금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모께서 군(郡)에 계시니, 청컨대 돌아가서 작별한 뒤에 약속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송공이 허락하였다. 공이 즉시 군으로 돌아가 울면서 모부인과 작별하면서 대의가 있기 때문에 사은(私恩)을 따를 수 없다고 아뢰고, 또 송공과의 약속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자 모부인도 허락하였다. 공이 즉시 아들 처사 공 정로(廷老)에게 명하여 노모를 모시고 장성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병화를 피할 계책을 매우 주밀하고 상세하게 알려 주었다. 그리고 곧장 동래부로 달려 돌아왔는데 성의 포위가 매우 거세었다. 공이 마침내 크게 함성을 지르면서 포위군의 한 면으로 돌격하니 이 때문에 포위가 조금 풀리고, 송공도 공이 왔다고 확신하고 곧바로 성문을 열어 맞이해 들였다.

공이 마침내 송공과 함께 천지에 맹세하고 힘을 다해 싸운 지 수 일 뒤에 성이 함락되어 왜적이 성에 들어왔는데 송공은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있고 공은 그 곁에 있으면서 끝내 조금도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송공이 호상에서 내려와 북향하여 재배하니 공도 함께 절하고 또 장순(張巡)의 “살아서 적을 토벌하지 못하면 죽어서 악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거론하면서 순사할 때의 저주로 삼으니, 공과 송공이 마침내 같은 날에 죽었다. 성이 함락된 지 한 달 남짓이 지난 뒤에 처사공이 이를 듣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곡을 하고 왜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처사공의 휘는 정로(廷老)이고, 자는 태경(台卿)이니, 양산공의 적자(嫡子)이다. 가정(嘉靖) 기미년(1559, 명종14)에 태어났는데, 후에 마을 사람들이 그의 행의(行義)를 흠모하여 처사라고 일컬었다. 처사공은 태어나서 매우 효성스러워 남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행하였고, 장성해서는 아버지를 섬김에 한결같이 지성스럽게 하였다. 매번 부친을 따라 군(郡)에 있었는데 부친이 관아에 나온 것을 살피고 번번이 관아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외가 엄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양산에 있을 때는 울면서 부친의 명을 받고서 조모를 모시고 장성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왜적이 이미 양남(兩南)에 가득했기 때문에 낮에는 숨고 밤에 길을 가면서 위험을 무릅쓴 지 한 달 남짓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장성에 도착하였다. 병란을 피할 곳을 골라서 조모를 숨겨 놓고 나와서 동래부의 상황을 탐문하니, 비로소 성이 함락되었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에 공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마침내 단신으로 걸어가서 적진으로 쳐들어가 죽겠다고 맹세하였다. 동래부에 이르렀을 때는 왜적은 이미 철수하여 이동하였고 쌓인 시신은 성에 가득하여 부친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해 다만 스스로 초혼(招魂)을 하고 돌아와 3년 동안 몹시 애통해하였다. 제사에는 정성과 예를 극진히 하였고, 상제(祥祭)와 담제(禫祭)를 지낸 뒤에는 곡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사람의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한 채 구차하게 목숨만 이어 가면서 여전히 원수와 같은 하늘을 이고 있으니,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곧장

심상(心喪)을 하니, 처음 초상을 치를 때처럼 죽을 먹고 낮빛이 검어져 마침내 겨우 몸 하나만 들어갈 만큼의 토실(土室)을 쌓아 항상 그곳에서 거처하였다.

또 샷갓 하나를 깊고 움푹하게 만들어 얼굴과 눈을 가리고, 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측간으로 가는 길을 덮어 해를 가렸으니 차마 적과 더불어 같은 하늘을 함께 일 수 없고 또 깊이 스스로를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사람이 더러 만나 보기를 청하면 사절하여 나오지 않았고, 혹여 계속 청하면 스스로 만든 샷갓을 쓰고 나와 소나무 처마 아래에 앉은 채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 않으니, 그 사람도 감히 오래 머무르지 못하였다. 또 노비를 부리지 않으며 말하기를 “나는 사람의 자식 된 직분을 행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서울 언저리의 집터를 팔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 그가 와서 값을 치르자 이에 사양하며 말하기를 “나는 이른바 천지간의 한 죄인이니, 그대는 나의 죄를 가증시키려고 하는가?” 하고 그를 만나 보려 하지 않았다. 처사공은 시종 토실에 거처하여 매서운 추위와 무더운 여름에도 잠시라도 떠나지 않았다. 온몸에 벼룩과 이가 있어도 이를 괴롭게 여기지 않았고, 오직 제사할 때가 되면 매우 정결하게 씻어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였다. 만력(萬曆) 임자년(1612, 광해군4)에 병으로 토실에서 죽으니, 향년 54세였다.

아, 자고로 나라를 위해 순사한 사람은 하나가 아니지만 혹은 창졸간에 적을 만나 싸움에 불리하여 패배해 죽은 자도 있고, 혹은 두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싸우라고 독촉하는 명령에 내몰려 퇴각하지 못하고 죽은 자도 있다. 양산공이 군수로 있을 때로 말하면 왜적의

예봉과는 오히려 멀었는데도 기필코 적과 맞서 싸우려고 동래부에 가서 송공과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기를 약속하였으니 창졸간에 죽은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돌아가 모친과 작별하고 다시 동래부로 달려갔을 때 세 겹으로 포위되어 있고 성문은 닫혀 있었는데 기필코 포위를 뚫고 성으로 들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남한테 내몰린 것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다.

처사공의 효로 말하면 그 정성과 마음이 더욱 슬프다. 옛날에 왕위원(王偉元)은 종신토록 서쪽을 향해 앉지 않았고 <육아(蓼莪)>를 읽을 때마다 번번이 울었으며,¹⁵ 하자평(何子平)은 평생 죽을 먹었고 지붕을 덮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¹⁶ 이 두 사람을 우리 처사와 비교하면 누가 낫고 누가 못하겠는가. 내 생각에 토실에 거처한 것은 하자평에게 없던 일이고 하늘의 해를 본 것은 왕위원도 면하지 못한 것이다.

아, 조공 부자의 충효는 옛날에도 겨우 있는 것이니, 양산공처럼 그 죽음이 구차하지 않은 자가 얼마나 되는가. 효에도 보통 상황과 변고가 있으니, 보통 상황에 처했을 때의 효는 쉽고 변고에 처했을

15 왕위원(王偉元)은……울었으며 : 왕위원은 진(晉)나라 왕부(王夔)를 가리킨다. 부친 왕의(王儀)가 사마소(司馬昭)에게 죽임을 당하자, 평생 서쪽을 향해 앉지 않으므로써 조정의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으며, 학생들에게 《시경(詩經)》을 가르칠 때 <육아(蓼莪)>의 “슬프고 슬프다 우리 부모여, 나를 낳아 기르느라 얼마나 애쓰셨나.〔哀哀父母，生我劬勞。〕”라는 구절을 접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晉書 卷88 孝友列傳王夔》

16 하자평(何子平)은……않았다 : 하자평은 남조(南朝) 송(宋)나라 사람이다.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당시 전쟁과 흉년 때문에 8년 동안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다. 이에 낮밤으로 곡하고 겨울에는 솜옷을 입지 않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가지 않았으며, 항상 죽을 먹었다. 거처하던 집의 지붕이 바람과 햇빛을 가리지 못하자 형의 아들 백흥(伯興)이 지붕을 수리하려고 하니, 하자평이 자신은 천지의 한 죄인이므로 지붕을 덮을 수 없다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小學 卷6 善行》

때의 효는 어렵다. 처사공처럼 변고에 처했으면서도 정성은 금석을 꿰뚫을 수 있을 만큼 전일하고 절개는 밝은 해를 비출 만큼 빛나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다.

왜적이 물러난 뒤에 조정에서 동래에서 사절(死節)한 사람을 녹훈(錄勳)하고 포상할 때 송공이 과연 가장 으뜸가는 포상을 받고, 다른 사람도 모두 차례대로 정려(旌閭)되고 녹훈되었으나 유독 양산공은 애초부터 녹훈에 포함되지 않아 은전을 받지 못하였다. 당시는 창졸간이라 기록이 자세하지 않아 공의 절개를 백세토록 드러나지 못하게 하였으니 식자들이 이를 한스럽게 여기고, 장성의 인사들은 더욱 이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하였다. 또 처사공의 지극한 효를 끝내 민멸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모두 관에 보고하고 조정에 아뢰는 것이 여러 번이었으나 마침내 은전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송정(崇禎) 정미년(1667, 현종8)에 많은 선비들의 의론을 따라 절효(節孝) 서 선생(徐先生)의 사당¹⁷에 모두 배향하였고, 그 뒤 기유년(1669)에 동춘당(同春堂) 송 선생(宋先生 송준길(宋浚吉))이 공의 사실을 연석(筵席)에서 진달하여 정려되었다.

양산공은 아들이 하나뿐이니 바로 처사공이고, 딸 하나는 진사 신성준(申成準)에게 시집갔다. 처사공은 아들이 없고 측실이 낳은 아들이 있으니, 이름이 사은(思闇)이다. 사은에게는 인결(仁傑), 인남(仁男), 인후(仁厚)라는 아들이 있다. 인결의 아들은 덕성(德成), 봉성(鳳成)이고, 인남과 인후는 모두 아들이 없다. 신성준의 아들은 숙(淑)이고, 숙의 아들은 한주(漢柱), 한상(漢相)이니 한상은 직장(直長)을 지냈

17 절효(節孝) 서 선생(徐先生)의 사당 : 절효공 서릉(徐稜)을 모신 모암서원을 말한다. 1578년(선조11) 전라도 장성군 서삼면(西三面) 모암리(慕巖里)에 건립되었다.

다. 서자는 한계(漢桂), 한추(漢樞), 한과(漢科), 한권(漢權)이다.

조공 부자의 사실은 마땅히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터인데 이미 적사(嫡嗣)가 없고 가승(家乘)도 없다. 다만 향인들이 관에 보고할 때 작성한 초본만이 세상에 전한다. 하루는 벗 변휴 미경(邊休美卿)이 선친이 기록한 사실 한 본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 주며 말하기를 “조공 두 부자의 일을 어찌 민멸시켜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행장을 써서 길이 전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나는 알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양하였으나 변미경이 억지로 권하기에 사양할 수 없어 삼가 그 일을 이상과 같이 차례대로 서술하여 입언(立言)하는 군자를 기다린다.

승정 기원후 경술년(1670, 현종11) 가을 7월 기망에 덕양(德陽) 기정익(奇挺翼)은 삼가 행장을 쓴다.

해광 처사 송공 행장

海狂處士宋公行狀

공은 휘(諱)가 제민(濟民)이요, 자(字)는 이인(以仁)인데, 후에 이름을 제민(齊民)으로, 자를 사역(士役)으로 바꾸었다. 대개 애초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뜻이 있어 제민(濟民)이라 이름 지었었는데, 후에 뜻을 이루지 못해 마침내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또한 강과 바다를 두루 유람하며 일찍이 해광(海狂)이라 자호(自號)하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친 게 아니라고 여겼다.

그 선조는 홍주(洪州) 사람이었는데 중간에 담양(潭陽)의 대곡리(大谷里)로 이사하였다. 증조부는 휘가 기손(麒孫)이고 관직은 현감이었으며, 조부는 휘가 구(駒)이고 관직은 사헌부 감찰에 그쳤는데, 모두 음보(蔭補)로서 이른 것이다. 선고(先考)인 정자공(正字公)은 휘가 정황(廷篁)으로 애초에 문사(文辭)로서 명성이 있었다. 또 효도하고 우애하는 행실이 있어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김 선생이 그를 칭송하였다. 처음에 권귀(權貴)를 거슬러서 자신의 역량에 비해 낮은 관직인 교서관(校書館)에 분속(分屬)되니, 사람들이 이를 억울하게 여겼는데 후에 괴원(槐院, 승문원(承文院))으로 부서를 바꾸었다. 광산(光山) 김씨에게-윤경(允敬)의 여식이자 현감 익(翊)의 손녀- 장가들어 가정(嘉靖) 연간 기유년(1549, 명종4) 12월 26일에 공을 낳았는데, 정자공이 그 소리를 듣고 탄식하여 말하기를 “안타깝구나!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겠지만, 운명(運命)이 기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은 중동(重瞳)¹⁸이고 기개와 도량이 있었으며, 7~8세 때부터 이

미 자잘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았고 간간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하였다. 공이 9세에 이르렀을 때 정자공이 갑자기 먼 지방에서 돌아가 시자 공은 서럽게 울부짖으며 말에 멍에 메우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즉시 달려갔다. 하인이 즉시 말에 채비를 하여 십 리 밖까지 쫓아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인과 말이 다 지쳐서 마침내 걸어서 먼 길을 갔다. 도착할 즈음에 공은 이미 닷새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오히려 어른처럼 집상(執喪)하였다. 삼년상을 마치자 공은 더욱 탁월하고 호방해졌으며, 스스로 구차하고 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잠시도 머물지 않았다.

공의 백부(伯父)인 휘 정순(廷筮)¹⁹ 또한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금산 군수(錦山郡守)에 보임(補任)되었다. 일찍이 금산공이 그 선고(先考)인 감찰공의 비석을 새기면서 이수(麟首)²⁰를 사용하였는데, 공이 유제(踰制 정해진 제도를 벗어남)라고 여겨 고치려고 하였다. 금산공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자, 공이 어느 날 무덤에 올라가 몽치로

18 중동(重瞳) : 하나의 눈에 눈동자가 두 개씩 있는 것을 말하는데, 쌍동(雙瞳) 또는 중화(重華)라고도 한다. 순(舜) 임금이 중동이었던 고사에서 유래하여 '중동'이라 함은 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큰 인물에 비유되기도 한다.

19 정순(廷筮) : 송정순(宋廷筮, 1521~1584)은 조선 중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중립(中立), 호는 물염(勿染), 본관은 홍주(洪州)이다. 1558년(명종13)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춘추관 박사를 거쳐 무안 현감·구례 현감·영암 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재직 중에 청렴결백하고 덕으로 정사를 살피 이름이 높았다. 을사 사화를 당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동복(同福) 창랑(滄浪)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에 물염정(勿染亭)을 짓고 이곳에서 여생을 마쳤다. 담양의 구산서원(龜山書院)에 제향되었다.

20 이수(麟首) : 건축물이나 공예품에서 뿔 없는 용의 서린 모양을 아로새긴 형상을 말하는데, 주로 종정(鐘鼎)이나 궁전의 섬돌·인장(印章)·대구(帶鉤)·비석의 머리 부분 등에 쓰인다.

이수를 깨부셨다. 금산공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달려가서 보니, 공이 이미 백 장(丈)이나 되는 소나무 꼭대기의 가지에 올라가 있었다. 공의 생각은 비석이 이미 유제이므로 이를 때려 부순 것이니, 백부가 만약 노하여 공을 벌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소나무에서 떨어져 죽고자 했던 것이다. 금산공이 그 뜻을 알고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잘 타일러 공이 나무에서 내려오도록 하였다. 공은 내려와서도 태연하여 안색이 달라지지 않았다.

금산공이 항상 자기 지식처럼 잘 돌보아 길렀고, 공의 남다른 점을 알아 속례(俗例)로 공의 본성을 구속하지 않았다. 공이 조금 성장하자 경전과 사서(史書)와 제자서(諸子書)에 힘을 쏟았는데 독서할 적에 몇 번만 읽어도 바로 외웠고, 문장을 지을 적에는 종이와 붓을 잡고서는 바로 완성하였다. 그 사이에 선배와 장자(長者)를 종유(從遊)하여 비로소 유학(儒學)이 있음을 알게 되어 성현의 서책에 전심(專心)하였다. 《주역》에 더욱 힘써서 토정(土亭) 이 선생(李先生)²¹을 따르며 질정(質正)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드디어 왕래하여 스승으로 섬겼다.

공은 애초에 과거 공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강권(強勸)하므로 그제서야 과시장(科試場)에 들어갔는데 거자 정식(舉子程

21 토정(土亭) 이 선생(李先生) : 이지함(李之菡, 1517~1578)으로, 토정은 그의 호이다. 또 다른 호는 수산(水山)이며, 자는 형백(馨伯)·형중(馨仲)이다. 본관은 한산(韓山)이고, 시호는 문강(文康)이다. 생애의 대부분을 마포 강변의 흙담 움막집에서 청빈하게 지내 토정이라는 호가 붙었다. 서경덕(徐敬德)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경사자전(經史子傳)에 통달하였고, 스승의 영향을 받아 역학·의학·수학·천문·지리에도 해박하였다. 포천 현감과 아산 현감으로 재직할 때에 민생 문제의 해결에 큰 관심을 가졌다. 주자의 성리학만을 고집하지 않는 사상적 개방성을 보였고 조선 시대 도가적 행적을 보인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式)²²을 가져다 한번 보고서는 바로 과시체(科詩體)를 터득하여 드디어 발해(發解)²³하였다. 또다시 회시(會試)에 응시하려 하지 않자 공의 장인어른이 권유하였는데,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서 역병(疫病)에 걸린 벼를 만나 드디어 병소(病所 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따로 거처하는 방)에 머무르며 치료해 주었고, 끝내 경사(京師)에 들어가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후에 드디어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다.

토정 선생을 따른 지 오래되자 토정 선생은 공이 터득한 것이 있음을 알고선 하루는 말하기를 “한 글자가 만변(萬變)하는 이치가 있는데 그대는 아는가?”라고 하니, 공은 처음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서석산(瑞石山 무등산)에서 노닐다가 비로소 깨닫고선 말하기를 “내 예전엔 스승님의 가르침에 답변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이야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낙서(洛書)>²⁴의 수(數)이다.”라고 하였다.

공은 천성이 생업(生業)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신의 사는 형편이 변변치 못함을 편안히 여겨서 그 오막살이 거처는 언제나 험하니 쓸쓸하였으며,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개의치 않았다. 또한 강과 바다를 좋아하여 흥이 나면 문득 무안현(務安縣)에 갔었다. 그곳에 총사(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가 있었는데, 총사에는 매우 오래된 소나무가 있어 이를 베어다 배를 만들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그 소나무가 신이하다고 여겨 베는 것을 다투어 저지하였다. 공이 마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

22 거자 정식(擧子程式) : 과거시험 문체의 규칙을 기록해 놓은 책인 듯하다.

23 발해(發解) : 과거(科擧)의 1차 시험인 향시(鄕試)에 합격함을 가리킨다. 향시에 합격하면 회시(會試)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24 낙서(洛書) : 중국 하(夏)나라의 우왕(禹王)이 홍수를 다스릴 때에, 낙수(洛水)에서 나온 거북의 등에 씌어 있었다는 마흔 다섯 개의 점으로 된 아홉 개의 무늬이다. 《서경(書經)》의 홍범구주(洪範九疇)와 팔괘(八卦)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지 않고 바로 배어 버리자 갑자기 역부(役夫)들 대부분이 바로 죽었다. 공이 즉시 글을 지어 꾸짖어 말하기를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드는 것은 그 제도가 현원씨(軒轅氏)²⁵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니,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시 살아났다. 바로 나무를 쪼개어 이를 타고 바다로 들어가 두루 돌아다녔다. 비록 뜻에 맞는 기이한 경치를 구경하였지만 간혹 풍랑을 만나 거의 전복될 뻔하였던 것이 여러 번이었다. 숨어 있던 온갖 영괴(靈怪)들이 황홀하게 번갈아 나타나거나 섬에 사는 많은 맹호(猛虎)들이 무리 지어 울부짖으며 공에게 다가와도 공은 태연히 앉아 있으면서 신기(神氣)가 거의 변하지 않으니, 매양 바람이 그치자 호랑이가 떠나가고 영괴들은 물속으로 숨어 버렸다.

언젠가 배가 부서져 가까스로 섬에 내렸는데, 길이 끊어져 있었다. 음식을 먹지 못한 지 7일이나 되어서 삼주(尗)²⁶를 캐내어 장(腸)을 채웠지만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홀연히 배 한 척이 멀리서부터 와서 구해 주었지만, 공 또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공의 절조는 이와 같았지만 때때로 바람에 날리는 쑥대처럼 정처 없이 돌아다녀서 거의 훌륭한 상인이 좋은 물건을 간직하고 있는²⁷ 듯하였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공을 잘 아는 자가 없었다.

25 현원씨(軒轅氏) : 삼황오제(三皇五帝) 중의 한 명이다. 현원의 언덕에서 낳았기 때문에 현원씨라 한다. 배와 수레를 만들어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백성들에게 문명의 이로움을 일깨워 주었다. 당시指南車(指南車)를 만들어 포학작란(暴虐作亂)하던 치우(蚩尤)를 쳐서 평정하니, 제후가 천자로 받들어 신농씨(神農氏) 뒤를 잇게 되었다. 또한 토덕(土德)의 서기(瑞氣)가 있다고 하여 황제(黃帝)라 불리기도 한다.

26 삼주 :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산지의 건조한 곳에서 자란다. 뿌리줄기는 굵고 길며 마디가 있고 향기가 있다. 한방에서 뿌리줄기를 창출(蒼朮)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식욕 부진·소화 불량·위장염·감기 등에 사용한다. 어린순을 나물로 먹는다.

27 훌륭한……있는 : 《사기(史記)》〈노자전(老子傳)〉에 나오는 ‘양고심장(良賈深藏)’

그 의리지변(義理之辨)과 정대지론(正大之論)의 경우는 모두 자신의 학문적 역량으로 터득한 것이지만, 세상에서는 더욱이 헤아려 알 수가 없었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노(倭奴)가 쳐들어와서 대가(大駕 임금어 타는 수레)가 서쪽으로 파천(播遷)하자, 공이 드디어 개탄하며 우선 금성(錦城 나주) 사인(士人) 양산용(梁山龍)²⁸·양산숙(梁山疇)²⁹ 등과 함께 창의(倡義)하여 의병 약간 명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전(前) 부사(府使) 김공(金公) 천일(千鎰)³⁰도 창기(倡起)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는 드디어 가서 그를 만났다. 여럿이 함께 김공을 추천하여 대장으로 삼자, 공은 스스로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

과 같은 의미이다. 즉 장사를 잘하는 상인은 좋은 물건을 밖에 내놓아 진열하지 않고 깊이 간직한다는 뜻으로, 지덕(知德)이 높은 사람은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 28 양산용(梁山龍) : 1552~1597. 조선 선조(宣祖) 때의 의병장으로, 자는 우상(宇翔),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의병장 양산숙(梁山疇)의 형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송제민(宋濟民)·양산숙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김천일(金千鎰)의 막하에서 활약하였다.
- 29 양산숙(梁山疇) : 1561~1593. 조선 선조 때의 의병장으로, 자는 회원(會元), 시호는 충민(忠愍), 본관은 제주이다.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여 경학(經學)뿐만 아니라 천문·지리·병학에도 뛰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과 의병을 일으켜, 진주(晉州)에서 싸우다가 죽었다.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고, 나주(羅州) 정렬사(旌烈祠)와 진주 창렬사(彰烈祠)에 배향되었다.
- 30 김공(金公) 천일(千鎰) : 1537~1593.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이다. 자는 사중(士重), 호는 건재(健齋)·극념당(克念堂)이고, 본관은 언양(彦陽),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1573년(선조6) 학행이 알려져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관직에 나아갔다. 임진왜란 때 나주에 있다가 고경명(高敬命)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왜적에게 점령된 서울에 결사대를 잠입시켜 싸우고,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의 군대를 도왔으며,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수원부(水原府)에 이르러 주둔하였다. 조정에서 이를 듣고 김공을 판결사(判決事)에 제수하고 ‘창의(倡義)’라는 호(號)를 하사하였으며,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투를 감독하고 격려하도록 하였다. 당시 도성(都城)에는 도적들의 형세가 여전히 성하였고, 또 청진(淸鎭) 지역에 군대를 나눠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논은, 고군(孤軍)으로 적(賊)과 겨루어 보았자 사기(事幾)만 그르칠 뿐이니, 다시 호서 지역의 군사와 말을 모집하고 양호(兩湖 호남과 호서) 지역을 통제하여 이로써 저지할 형세를 구축하는 것만 못한데, 이는 송 아무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에 공이 호서 지역으로 가서 사병(士兵)과 천병(天兵 명나라 군사)을 연결하고, 의병을 불러 모으자, 20일 사이에 무리가 2천 명에 이르렀다.

또 전 도사(都事) 조공(趙公) 헌(憲)³¹을 천거하여 좌의장(左義將)으로 삼고, 전 찰방(察訪) 박춘무(朴春茂)³²를 천거하여 우의장(右義將)으로 삼았다. 두 사람은 모두 토정의 문인(門人)이었는데, 공은 그들의 충의(忠義)가 의지할 만함을 깊이 알고 있었다. 공은 양쪽 군영

31 조공(趙公) 헌(憲) : 1544~1592.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義兵將)이다. 자는 여식(汝式), 호는 중봉(重峯)·도원(陶原)·후율(後栗)이고, 본관은 배천(白川)이다. 이이(李珣)·성혼(成渾)의 문인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승병(僧兵)과 합세해 청주를 탈환하였다. 이어 전라도로 향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금산전투에서 분전(奮戰)하다가 의병들과 함께 모두 전사하였다.

32 박춘무(朴春茂) : 생몰연대 미상.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으로, 호는 화천당(花遷堂), 시호는 민양(愍襄),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임진왜란 당시 창의사(倡義使)가 되어 의병을 일으키고 조헌(趙憲)과 함께 호서 지방을 지켰다. 침구술(鍼灸術)이 뛰어나 의관(醫官)으로도 활약하였다. 임천 군수와 부평 부사 등을 역임하였고, 관계(官階)가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이르렀다. 참찬(參贊)에 추증되고, 저서에 《화천당집(花遷堂集)》이 있다.

(軍營)을 주선하였는데, 일을 반쯤도 처리하지 못했을 때 초토사(招討使) 고공(高公) 경명(敬命)³³이 금산(錦山)에서 패배하여 전사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들었다. 공은 대단히 개탄하며 드디어 말을 돌려 남쪽으로 돌아갔으니, 고공의 의병이 아직 흩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의병을 소집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공이 은진(恩津)에 당도하자 군사가 이미 흩어져 어찌할 수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공은 이에 호남으로 격문(檄文)을 보냈으니, 하나는 이미 일어난 이들을 다시 창의하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들을 격동시키려는 것이었다. 그 격서에 있던 문장은 미처 거두어 모으지 못하였다.

조공(趙公)이 또 전사하고, 창의사(倡義使 김천일)가 적을 추격하다가 진주(晉州)에 이르러 또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에 공은 기로(岐路)에서 방황하며 그저 혼자서 피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당시 충용장(忠勇將) 김덕령(金德齡)³⁴은 모친상(母親喪)을 당해 집에

33 고공(高公) 경명(敬命) : 1533~1592.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이다.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霽峰)·대헌(苔軒)이고, 본관은 장흥(長興),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이 한양을 점령하고 전라도 관찰사 이광(李洸)이 이끄는 관군 5만 명이 패배하자 담양(潭陽)에서 의병을 일으켜 싸웠는데, 금산전투에서 곽영(郭嶸)의 관군과 함께 왜군에 맞서 싸우다가 작은이들 고인후(高因厚)와 함께 전사하였다.

34 김덕령(金德齡) : 1567~1596. 자는 경수(景樹)이고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형 김덕홍(金德弘)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고경명(高敬命)의 막하에서 전라도 경내로 침입하는 왜적을 물리치기 위해 전주에 이르렀다. 그때 돌아가서 어머니를 봉양하라는 형의 권고에 따라 귀향하였다. 1593년(선조26) 어머니 상중에 담양 부사 이경린(李景麟), 장성 현감 이귀(李貴) 등의 권유로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켜 세력을 크게 떨치자, 선조로부터 형조 좌랑의 직함과 함께 충용장(忠勇將)의 군호를 받았다. 1596년 홍산(鴻山)에서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군했다가, 이미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이몽학과 내통했다는 무고로

있었는데, 그는 공의 중표제(中表弟)³⁵이다. 공은 국난(國難)을 우선으로 하고 사적인 상(喪)을 뒤로하는 것은 오직 이때가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김덕령에게 급히 가서 기병(起兵)할 것을 권면하였고, 또 제주도에 들어가서 준마를 구해 주었다. 충용장 김덕령이 의병을 일으키자 적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충용장이 또 참소 때문에 죽자 공은 더욱 어찌할 수 없었다.

정유년(1597, 선조30)에 적들은 충용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선 감히 대거 다시 쳐들어왔는데, 우선 호남 지역을 유린하고자 하였다. 명나라 장수인 총병(總兵) 양원(楊元)³⁶이 당시 남원성(南原城)을 지키고 있었는데, 공이 남원으로 가서 양원을 만나 보고선 적의 침입을 막을 책략을 말하자, 양원은 공을 왜적의 첩자(諜者)로 의심하여 해치려 하였다. 공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자 양원은 참으로 그를 기이하게 여겼다. 때마침 민공(閔公) 현래(掬來)³⁷가 군영(軍營)에 있었는데 급히 양원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동국(東國)의 고사(高士) 송아무개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양원은 크게 놀라서 직접 자신이 결박을 풀어 주고 이끌어 앉게 하고선 계책을 물었다. 이에 공이 말하

체포되어 20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옥사하였다.

35 중표제(中表弟) : 중표는 내외종(內外從)의 사촌 동생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외종 사촌 동생을 가리킨다.

36 양원(楊元) : 중국 명(明)나라 신종(神宗) 때의 무신이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부총병(副總兵)으로 이어송(李如松)을 따라 참전하였다.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남원성(南原城) 전투에서 이복남(李福男)·오응정(吳應井) 등의 군사와 연합하여 왜적과 맞서 싸웠다가 중과부적으로 패배하여 남원성이 함락되었는데, 양원은 함락 직전에 서문을 통해 달아났다.

37 민공(閔公) 현래(掬來) : 누구인지 미상이다.

기를 “병법에서는 지형적인 이로움을 얻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 이 부(府)는 물가에 가깝고 성(城)이 낮으니 서둘러 형세가 좋은 곳으로 옮겨 진(陣)을 쳐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양원은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패하였고, 적들은 드디어 호남 지역을 크게 노략질하였다. 공의 세 아들은 모두 전사(戰死)하였고, 공만이 겨우 죽음을 면하였다.

대개 공은 일개 필부로서 국가가 위태로워졌는데도 스스로 힘쓸 수 없자 다만 의병을 불러 모으고, 건재(健齋) 김천일과 중봉(重峯) 조현을 격려하고 권면하여 일분(一分)의 충의라도 바치기를 거듭 바랐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두 공이 연이어 전사하였다. 공은 몸소 의병을 모집하느라 군영을 떠나 있어서 두 공과 함께 전사하지는 않았다. 그 후에 충용장이 또 참소에 걸려들어 죽고 저 양공(楊公)은 함께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 이에 공도 그만둘 만하였는데 오히려 능묘(陵廟)의 변고(變故)³⁸와 왜적과 화친하는 수치를 참을 수 없어 비분강개(悲憤慷慨)하여 《와신기(臥薪記)》³⁹를 지어 한 책자(冊子)를 완성하였다.

이때 마침 임금이 신하의 직언(直言)을 구하는 전교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 때문에 수만 자의 상소문을 지어 올렸다. 상소문의 앞부분은, 나라의 원수는 신하의 수치이니 이에 천경지의(天經地義)⁴⁰로써

38 능묘(陵廟)의 변고(變故) : 임진왜란 때 왜적이 성종(成宗)과 중종(中宗)의 능을 파헤친 일을 가리킨다. 《練藜室記述 卷16》〈宣祖朝二陵之變〉

39 와신기(臥薪記) : 《와신기사(臥薪記事)》라고도 한다. 송계민이 임진왜란 당시의 병장 김덕령(金德齡)의 의병군에 가담했다가 김덕령이 옥사(獄死)하자 종일 통곡하고 이 책을 지었다. 그 내용은 일본이 원수의 나라임을 잊고 수호(修好)한 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백성을 보호하고 병사를 기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으며, 간간이 남다른 계책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만세에 반드시 깊어야 한다는 것을 위주로 하여 위쪽에 예(禮)와 공자(孔子)를 인용하고 중간에 구천(句踐)⁴¹에 대해 말하고 마지막은 문왕(文王)과 요순(堯舜)으로 마무리하였다. 그 의리는 바르고 일은 진실하니, 예나 지금이나 다만 귀로 듣고 입으로 떠드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소문의 끝 부분에서는 공이 《와신기》를 지은 의도를 말하고, 이 책이 잘 배껴져 봉진(封進)되어 을람(乙覽)⁴²에 대비하게 되길 바랐다.

상소문이 이윽고 완성되자 임금에게 올릴 것을 방백(方伯 관찰사)에게 요청했지만, 방백은 기휘(忌諱)에 저촉되는 말이 많다는 이유로 물리쳤다. 그리하여 공은 비로소 산과 바다에서 거처할 만한 곳을 다시 구하였고, 그 속에서 편안하고 한가롭게 잘 지내며 밭 갈고 우물 파는⁴³ 가르침을 일로 삼았다. 그 후에 《와신기》는 불에 타 버려 세상에 전해

40 천경지의(天經地義) : 천지간에 변할 수 없는 바른 도리나 이치를 의미하는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5년조에 “대저 예(禮)는 하늘의 경(經)이요 땅의 의(義)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41 구천(句踐) : 중국 춘추 시대 말기 월(越)나라의 임금으로, 오(吳)나라 왕 부차(夫差)에게 패하여 회계산(會稽山)에서 항복하였다. 이후에 지모가 뛰어난 참모 범蠡(范蠡)의 도움으로 20년 동안 부국강병을 도모하며 절치부심하였다. 마침내 부차에게 복수하여 회계의 치욕을 씻었다.

42 을람(乙覽) : 을야지람(乙夜之覽)의 준말로, 임금이 밤에 독서하는 것을 가리킨다. 임금이 낮에는 정사를 돌보고, 취침하기 전인 을야(乙夜, 21시~23시)에 책을 읽는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43 밭 갈고 우물 파는 : 원문은 ‘경작(耕鑿)’인데, 원래는 태평시대를 구가한다는 뜻이 담겨 있지만, 여기서는 자급자족하며 안빈낙도의 삶을 누린다는 의미로 쓰인 듯하다. 요 임금 때, 어떤 노인이 지었다는 <격양가(擊壤歌)>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면서, 내 샘을 파서 물 마시고 내 밭을 갈아서 밥 먹을 따름이니,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라는 구절이 있다.

지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서 공은 병이 위독해지자 서찰로 표제(表弟)인 최공(崔公) 상중(尙重)⁴⁴에게 후사(後事)를 부탁하고, 집안사람에게는 염습(殮襲)을 검소하게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는 뜻을 펼쳐 나라에 보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얼마 안 되어 부축을 받아 앉아서 의관을 정돈하고 북쪽을 향해 공손하게 꿇어앉아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바로 임인년(1602, 선조35) 2월 27일이고 향년 54세였다. 그해 담양 대곡리 비차동(飛釵洞)의 산에 있는 선영(先塋) 곁에 장사 지냈다가 경자년(1660, 현종1)에 광주(光州) 서석산 이점(梨岾)의 동북쪽 언덕에 개장(改葬)하였다.

공은 천성이 뛰어난게 훌륭하였는데 젊어서부터 세상을 경영할 뜻을 품고 있었다.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만일 내가 뜻을 얻는다면 성왕(聖王)의 다스림이 오늘날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만약 뜻을 얻지 못한다면 맞닥뜨리는 상황을 편안히 여길 것이니, 어찌 급급(汲汲)하겠는가? 즉시 훌쩍 떠나 멀리 가서 강호(江湖)에 자취를 의탁하는 것이 바로 나의 바람이다.”라고 하니,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듣고 비웃는 자가 제법 많았다. 공은 늘그막에 더욱 자신감이 넘쳤으며 물욕

44 최공(崔公) 상중(尙重) : 1551~1604. 송제민(宋濟民)의 고모의 아들이다. 그의 자는 여후(汝厚), 호는 미능재(未能齋), 본관은 삭녕(朔寧)이다. 1589년(선조22) 증광 문과(增廣文科)에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원수 권율(權慄)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었다. 1602년 사간(司諫)을 마지막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갔다. 효성이 지극하였고,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호남을 내왕할 때 쌀을 가지고 다니며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도승지에 추증되었다가 아들 연(筵)의 공으로 대사헌이 가증(加贈)되었으며, 남원의 노봉서원(露峰書院)에 제향되었다.

을 초탈했으니, 한 점 티끌이 흉중을 막거나 끼어들지 못하였다. 또한 사생(死生)과 득실(得失)에 그 마음이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인민(仁民 백성을 사랑함)과 애물(愛物 사물을 아낌)을 내면에 뿌리박았고, 평생 함부로 살아 있는 것을 죽이지 않았다. 공이 항상 말하기를 “저 초류(麴類)⁴⁵도 천물(天物)인데 하물며 우리 동포이겠는가? 진실로 인애(仁愛)하는 마음이 있다면 일분(一分)의 은혜라도 마땅히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러 벼들이 의론하여 의국(醫局)을 설립하자, 몸소海道(海島)에 출입하여 그 섬에 있고 없는 것을 따져 다른 섬과 물건을 유통하였는데, 공급하고 구활(救活)하는 데 항상 마음을 다하였다.

김씨에게 장가들었는데 물 길는 어린 계집종이 맨발로 서리를 밟고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선 드디어 직접 신을 삼아서 주었다. 난리를 당해 백성들이 병들고 흉년이 들자, 해채(海菜)와 잡곡과 나무 열매 따위의 물건을 싣고 와서 이것들로 구제하니 살린 사람이 아주 많았다. 또한 평상시 가난하여 안장을 갖춘 말이 없어 매양 출입할 적에 걸어 다녔는데, 간혹 말을 빌려 탈 적에는 오랫동안 타고 다니면서도 개의치 않았다. 근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사인(士人) 한 명이 공에게 말을 빌려 주자, 공이 이를 타고 멀리 떠났다. 공이 여러 달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그 말이 길에서 쓰러져 죽었다. 공이 또다시 말을 빌려 타고 돌아와서 곧장 말을 빌려 준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은 나루터에 있었다. 공이 나루를 아직 건너가지 않았는데, 말을 빌려 준 사람이

45 초류(麴類) : 먹을 것을 씹어서 먹는 종류라는 뜻으로, 사람과 길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멀리서 바라보니 공이 탄 말이 떠날 때 탄 말이 아니었다. 이에 공을 불러서 자신이 빌려 준 말의 생사(生死)를 물었다. 공은 즉시 답변하지 않고 채찍을 돌리며 말하기를 “저 사람은 가축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천하게 여겨서 나에게 대해 먼저 물어보지 않고 말에 대해 먼저 물어보는 구나.”라고 하고, 이 때문에 그와 절교하였다. 그 후에 공이 또 사문(斯文) 유평(柳珩)⁴⁶의 말을 빌렸었는데, 또 그 말이 병들어 죽었다. 돌아와서 유공(柳公)을 만나보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공은 말이 죽은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유공도 말에 대해 물어보지 않다가 작별하고 말에 올라타려 할 적에 비로소 말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때문에 공은 유공을 더욱 친하게 여겨 신임하였다.

또 일찍이 아내가 습렴(襲斂)⁴⁷을 미리 마련하겠다고 요청함에 답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우주처럼 광대하였다. 사람들이 공의 이와 같은 면모를 보고선 공이 노장(老莊)의 무리라고 의심하였고, 또 토정(土亭)에게 배워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만 그 가행(家行 가풍(家風))이 심히 반듯하여 무릇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사례(四禮)를 반드시 주문공(朱文公 주희(朱熹))의 제도에 의거하여 새벽에 사당을 참배하

46 유평(柳珩) : 1577~1645.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의병장으로, 자는 화보(和甫), 호는 송암(松庵), 본관은 서산(瑞山)이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성리학에 전념하였다. 광해군 시기에는 세상과의 인연을 모두 끊었다. 1624년(인조2) 갑자식년 사마시(甲子式年司馬試)에 합격하고, 이후 천거되어 참봉(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괄(李适)의 난이 발발하자, 창의도유사(倡義都宥司)가 되어 난을 평정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의병장이 되어 청주까지 진군하였다가 강화도의 화의(和議) 소식을 듣고 귀향하여 두문불출하였다. 뒤에 경렬사(景烈祠)에 배향되었다.

47 습렴(襲斂) :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에 수의(壽衣)를 입히고 염포(斂布)로 묶는 일로, 염습(殮襲)과 같다.

고, 제사를 지낼 때는 직접 제수를 마련하였으며 조상의 신이 있는 듯이 정성을 한결같이 지극히 하였다. 모부인(母夫人)을 섬길 적에는 온화함과 공경심을 갖추었는데, 상(喪)을 당하자 지나치게 슬퍼하여 병에 걸렸으며, 장사 지낼 적에는 흙을 깊어져 날라 봉분(封墳)을 만들었고, 시묘(侍墓)하면서 3년 동안 죽을 마셨다. 출입할 적에는 부인과 서로 절하며 영송(迎送)하였다. 내외(內外)를 분별함이 심히 엄격하여 남녀 하인들 또한 서로 섞여 있게 하지 않고 장랑(長廊 줄행랑)을 만들어서 널빤지를 이용해 분리해 놓았는데, 널빤지의 높이가 한 장(丈)이나 되었고, 위쪽에 넓은 널빤지를 설치해 놓아 음식을 먹을 때에 여자 하인이 밥을 널빤지 위에 올려놓으면 남자 하인이 밖에서 가져다 먹었다.

자식을 가르침에는 엄함을 위주로 하여서 비록 여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소학(小學)》·《효경(孝經)》·《열녀전(列女傳)》을 통달하게 하였다. 셋째 딸은 권공(權公) 필(韉)에게 시집갔는데, 어린 시절 한밤중에 제멋대로 편하게 앉아 있으니, 곧바로 매섭게 혼내며 말하기를 “어두운 곳에서도 나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교리(校理) 최상중의 모친은 바로 공의 고모로 남원 땅에 살고 있었는데, 공이 항상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보살폈다. 금산공의 딸은 나덕용(羅德用)에게 시집갔는데, 나공이 문둥병에 걸리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그를 피했지만 공은 가서 그를 치료해 주었다. 사람들이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공의 가행(家行 행실과 품행)이 이와 같았으니, 사람들이 또한 공을 노장(老莊)의 부류가 아니라고 믿었지만 어떤 사람은 토정(土亭)의 정맥(正脉)이라 여겼다.

내가 들은 것으로 판단해 보면 공은 하늘이 헛되이 태어나게 한 자가 아니라고 이를 만한데도 끝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배운 것을 실행하지

못하여 공을 아는 자가 적고 모르는 자가 많은 것은 어째서인가? 한번 공의 그동안의 명자(名字)와 자호(自號)를 가지고 반복하여 논의해 보겠다. 예로부터 항소(抗疏)하여 일을 논하는 자도 있었고, 책을 지어 뜻을 말하는 자도 있으며, 개탄하며 스스로 부르짖은 자도 있는데, 그 말과 뜻을 충실하게 실행한다면 성인과 현인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못미처도 영웅준걸은 되니 능히 천하의 일을 담당할 수 있고 능히 스스로 한 시대의 책무를 완수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할 수 있고 그 뜻을 바꾸지 않을 자는 대체로 적다. 그런데 한번 이해(利害)와 사생(死生)과 영욕(榮辱)의 갈림길에 맞닥뜨리게 되면 문득 평소의 지조를 놓아 버리고 혹 전도(顛倒)되거나 낭패하게 되니, 평소에 스스로 다짐했던 그 언사 및 뜻과는 연월(燕越)⁴⁸처럼 현격히 차이 날 뿐만이 아니다. 어째서 그런가? 실질(實質)은 없으면서 다만 자신이 위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니 비록 자신의 말과 뜻을 실천하고자 하더라도 텅 빈 골짜기에 떨어진 것 같다.

지금 공의 상소문을 살펴보면, 그 말한 바는 애초에 도습(蹈襲)한 것이 아니고, 또 터무니없는 빈말이 아니다. 대륜(大倫)을 떠받치고 당세(當世)를 구제한 것은 마치 바둑알을 바둑판에 펼쳐 놓고 손을 놀리며 귀신같이 헤아리는 것과 같아 절로 기축(機軸 중요한 핵심)이 있으니, 마치 약이 병에 따라 신묘한 화제(和劑 약방문(藥方文))와 기이한 처방이 각각 좌사(佐使)⁴⁹로 나누어지는 것과 같다. 또한 모든 것이

48 연월(燕越) : 연(燕)과 월(越)은 춘추전국 시대 나라 이름이다. 연나라는 황하의 북쪽, 지금의 북경 근처에 있었고, 반면 월나라는 남쪽의 절강(浙江) 지역에 있었다. 이 때문에 거리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수준 차이가 현격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사용된다.

타고난 천성을 지키는 충정(衷情)에 근본을 둔 것이요, 사람들이 말만 거창하게 하고 실상은 없는 것과는 같은 게 아니다. 그러므로 왜노들이 득실거리자 일찍이 발분(發憤)하여 창의(倡義)하였고, 국궁진취(鞠躬盡瘁)⁵⁰하여 다만 죽은 후에야 그만두려고 하였으니 또한 그 뜻과 행동이 일치한 대략을 볼 수 있다.

당시에 만약 공을 기용(起用)할 수 있었다면 마침내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여 큰일을 행하였을 것이요, 아버지가 처음 지어 주신 제민(濟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아마 저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쓰이지 못하여 호연(浩然)히 돌아감에 미쳐서는 또 이로부터 편호(編戶 호적에 편입됨)의 한 백성으로, 이름 가운데 ‘제(濟)’ 자를 ‘제(齊)’ 자로 바꾸었으니, 또한 어찌 속인 것이겠는가? 강해(江海)에 자취를 내던져 미쳤다고 자처함으로 말하자면 또 은미한 뜻이 있었으니, 이는 모두 공이 평소에 늘 말하면서 스스로 기약했던 것이요, 또 상소문 중에도 뚜렷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그 말을 실천한 한 징험이었다. 그렇다면 저 말만 크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와 비교해 보면, 그 우열이 어떠한가? 아! 그 뜻이 하도 높아서 고인(古人)에 대해 말하지만 그 행동을 살펴보면 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⁵¹ 애초에 공이 바라던

49 좌사(佐使) : 한약 처방 조성의 구성 원칙에 군·신·좌·사(君臣佐使)라는 말이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임금과 신하 등이 있듯이, 병을 다스리는 데에도 군·신·좌·사의 역할을 하는 각종 약재들을 잘 배합해야 한다. 병환의 증상을 치료하는 핵심 약재를 군(君), 보조 약재를 신(臣)이라 하며, 약재의 지나친 독성을 희석시키는 약재를 좌(佐), 여러 약재들을 중화하여 조화시키는 약재를 사(使)라 한다.

50 국궁진취(鞠躬盡瘁) : 국궁진력(鞠躬盡力)과 같은 말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라에 충성한다는 의미이다. 제갈량(諸葛亮)의 <후출사표(後出師表)>에 “신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라에 보답하다가 죽은 뒤에야 그만둘 결심을 하고 있다.[臣鞠躬盡力 死而後已.]”라는 구절이 있다.

것이 아니요, 그만두라고 말하면서 초택(楚澤)에서 봉(鳳)을 노래하는 것⁵²도 공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으니, 공이 스스로 미쳤다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대개 니부(尼父 공자)가 뗏목을 타려 했던 뜻⁵³을 은근히 사모한 것인데 성인은 중정(中正)에서 멈추어서 결행하지 않았지만, 공은 바로 결행하였으니 스스로 미쳤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토정(土亭)은 공자를 배웠지만 잘못된 자이고, 나는 토정을 배웠지만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지극히 따져 보면, 이른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공이 스스로 겸사(謙辭)한 것이요, 토정의 정맥(正脈)이 된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말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공은 처음엔 중원(中原) 박씨에게 장가들었는데, 이분은 놀재(訥齋) 박상(朴祥) 선생의 손녀이자 감역(監役) 박민고(朴敏古)의 딸이다. 아들 한 명과 딸 두 명을 두었는데, 아들은 타(柁)이고 사위는 양원용(梁

51 고인(古人)에……것은 : 《맹자(孟子)》〈진심 하(盡心下)〉에, 증점(曾點)을 공자가 말한 광(狂)의 대열에 포함시키고는 “광이란 뜻이 하도 높아 옛사람을 곧잘 말하곤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의 행동을 살펴보면 말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其志嚶嚶然曰：‘古之人古之人，’ 夷考其行，而不掩焉者也。〕”라고 맹자가 평한 내용이 보인다.

52 봉(鳳)을 노래하는 것 : 춘추 시대 초(楚)나라의 광인(狂人) 접여(接輿)가 난세(亂世)에 도(道)를 행하려고 애쓰는 공자를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마침 공자의 걸을 지나가게 되었을 적에 “봉이여, 봉이여! 어찌 그리도 덕이 쇠했느냐. 지나간 일은 타할 수 없거니와 앞으로의 일은 고칠 수 있으니, 그만돌지어다, 그만돌지어다.〔鳳兮鳳兮! 何德之衰。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已而已而。〕”라고 노래했다는 구절이 《논어》〈미자(微子)〉에 보인다.

53 뗏목을……뜻 : 《논어(論語)》〈공야장(公冶長)〉 편에, 공자가, 도가 행해지지 않아 뗏목을 타고 바다에 떠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때 자기를 따를 사람은 아마 자로(子路)일 것이라는 말이 있다.

愿容)과 김극순(金克純)이다. 나중에 울산(蔚山) 김씨에게 장가들었는데, 이분은 무공랑(務功郎) 김대형(金大亨)의 딸이자 목사 김응두(金應斗)의 손녀이다. 아들 세 명을 두었는데, 장(樞)·익(楨)·즙(楫)이고, 사위는 권필(權驥)과 양효용(梁孝容)이다. 여러 손주와 외손은 다 기록할 수 없다. 송타와 송장과 송익은 왜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송타와 송장은 모두 의열(義烈)과 효행을 드러내었다. 당시 권필(權驥)은 이를 위하여 <명행기(名行記)>를 지었는데, 권필은 바로 세상에서 칭송되던 석주(石洲)이다. 공은 석주가 화(禍)를 벗어날 수 없음⁵⁴을 알았는데, 후에 과연 그러하였다. 공은 사장(詞章)이 사람의 마음을 해친다고 여겨서 평생 저술한 것이 없었다.

공이 돌아가신 후 지금 80여 년인데, 비로소 박현석(朴玄石)의 전(傳)을 얻었고⁵⁵ 우재(尤齋) 선생은 또 공을 위해 비문을 지었다.⁵⁶ 이는 모두 석주가 기록한 것에 근거하였는데, 끝내 행장이 없는 것이 애석하였다. 공의 증손 숙(塾)은, 공이 나[奇挺翼]의 외가 쪽 방친(旁親)이고, 또 나는 공의 인척의 후손이기 때문에, 공에 대해 다른 사람들

54 석주가……없음 : 광해군 때에 유희분(柳希奮) 등의 방종을 임숙영(任叔英)이 <책문(策文)>에서 공격하다가 광해군의 뜻에 거슬려 삭과(削科)된 사실이 있었는데, 권필(權驥)이 이를 듣고 분함을 참지 못해 <궁류시(宮柳詩)>를 지어서 풍자, 비방하였다. 그러자 광해군이 대노하여 시의 출처를 찾던 중, 1612년(광해군4)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에 연루된 조수륜(趙守倫)의 집을 수색하다가 그의 시가 발견되어 친국(親鞫)과 고문을 받은 뒤에 귀양길에 올랐다. 귀양 가던 중 동대문 밖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주는 술을 폭음하고 이튿날 죽었다.

55 박현석(朴玄石)의 전(傳)을 얻었고 : 현석(玄石)은 박세채(朴世采)의 호이다. 그의 문집인 《남계선생 박문순공 문정집(南溪先生朴文純公文正集)》 권83에 <처사해광송공전(處士海狂宋公傳)>이 실려 있다.

56 우재(尤齋)……지었다 : 우재는 송시열(宋時烈)의 호이다. 그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93에 <해광처사송공묘표(海狂處士宋公墓表)>가 실려 있다.

이 들어 보지 못한 것을 더 들었다고 여겨서 나에게 찾아와서 행장을 지어 달라 청하였다. 나는 감히 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지만 결국 거절할 수 없어 삼가 행장을 지었다. 정묘년(1687, 숙종13) 3월 12일.

하곡 정 선생 행장

霞谷鄭先生行狀

선생의 휘(諱)는 운룡(雲龍)이요, 자(字)는 경우(慶寓)요, 하동인(河東人)이다. 휘 손위(遜位)가 고려조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지례부(知禮部)에 이르렀고, 그 손자 숙첨(淑瞻)은 평장(平章)이었는데, 이로 부터 대대로 이름난 성씨가 되었다. 조부 휘 장손(章孫)은 감찰(監察)이었고, 선친 휘 집(緝)은 주부(主簿)였다. 선비(先妣)는 음성 박씨 사예(司藝) 휘 곤(鯤)의 딸인데, 임인년(1542, 중종37) 정월 27일 장성현(長城縣) 사동촌(社洞村)에서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어린 시절 모친을 여의고 외가에서 양육되었다. 재기(才器)와 도량이 남달라서 외조부 회재(懷齋) 박공(朴公) 광옥(光玉)이 그를 사랑하고 가르쳤는데, 문사(文詞)가 날마다 발전하였다. 처음에 향해(鄉解 향시(鄉試))의 양장(兩場)에 모두 합격하였지만 끝내 회시(會試)에 나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공이 말하기를 “과장(科場)은 신체를 훼손시키기 쉽고 뜻을 잃게 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공의 나이 18살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라 여겼다. 당시 고봉(高峯) 기 선생[기대승(奇大升)]이 고향에 있으면서 후진(後進)을 가르치고 있었으므로 공이 드디어 가서 기 선생을 따랐고, 심학(心學)의 요체에 대해 듣고서는 이에 나아가 배웠다. 공이 마침내 학문에 힘써 게으름 피우지 않자, 명성과 칭찬이 또한 드러났다.

사암(思庵) 박상공(朴相公)이 벼슬을 그만두고, 나주(羅州)로 귀향

하다가⁵⁷ 장성(長城)에 이르렀는데, 이튿날 마침내 도어(徒御 거마(車馬)와 종복(從僕))를 사절하고 마승(馬乘 네 필의 말)을 명하여, 곧장 개천(介川)에 살고 있는 공에게 나아갔다. 사암이 이르렀을 때 공은 바야흐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 정취가 매우 담박하였다. 사암이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다고 공을 책망하자, 공이 정색하며 말하기를 “상공께서 나라의 대신(大臣)이니 하사(下士)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인데 도리어 어찌 만나 보러 오지 않은 것을 책망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사암이 드디어 경복(敬服)하였다. 공은 후에 참봉(參奉)에 제수되었지만 학문이 아직 증진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사방지지(四方之志 천하 사방을 돌아다니려는 뜻)가 있어서 파산(坡山 파주(坡州)) 시냇가에 살고 있는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을 가서 만나 보았다.

이보다 앞서 공은 장성과 정읍(井邑) 두 고을 사이에 한 승지(勝地)를 얻어 서실(書室)을 지어서 고봉 선생의 여산(廬山 덕유산(德裕山)의 별칭) 초당(草堂)과 구역을 나누었다. 대개 고봉 선생이 강학(講學)하던 뜻을 따른 것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공은 그곳의 경치를 우계에게 갖추어 말하였고, 우계는 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기상(寄想)의 자료로 삼았다. 사암은 시로써 이를 찬미하였다.

57 사암(思庵)……귀향하다가 : 사암은 박순(朴淳, 1523~1589)의 호이다. 자는 화숙(和叔)이고, 본관은 충주(忠州)이다. 1561년(명종16)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敎)로 있을 때 임백령(林百齡)의 시호 제정 문제에 관련하여 윤원형(尹元衡)의 미움을 받고 파면되어 향리인 나주로 돌아온 적이 있다. 이듬해 다시 기용되어 한산 군수(韓山郡守)로서 선정을 베풀었다.

풍진 세상에 호남아 많은데	風塵多少好男兒
그 누가 물욕의 집착함에서 벗어나리오	誰免勞心逐物移
아득히 홀로 산길 찾아가니	杳杳獨尋山路去
만 그루 소나무 아래 띠풀 집 한 채 ⁵⁸	萬株松下一茅茨

또 편지로 권면하기를 “운림(雲林)에 초가집 짓고 조용히 앉아 강송(講誦)하니, 이 맛을 아는 자 드물 것이다. 그대 홀로 이것 독차지함을 탄식하도다.”⁵⁹라고 하였다. 개천정사(介川精舍)는 매우 소쇄(蕭灑)하여 공은 스스로 이를 즐거움으로 삼았고, 사암(思庵)과 우계(牛溪) 두 선생은 이와 같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다.

공은 또 송강공(松江公 정철(鄭澈))과 친하여 항상 그의 술병(酒病)을 경계하였는데, 송강은 매양 공을 외우(畏友 존경하는 벗)로 여겼다. 처음에 공이 정여립(鄭汝立)⁶⁰과 서로 알고 지냈는데, 무자(戊子) 연간(1588, 선조21)에 이르러 그의 심적(心跡)이 꾀비(詭秘 속이고 비밀스러움)한 것을 알고 비로소 절교하고자 하였다. 때마침 정여립이 이발(李

58 풍진……채 : 이 시는 《사암선생문집(思庵先生文集)》 권1에 실려 있는데, 제목은 <송정수재운룡남환(送鄭秀才雲龍南還)>이다.

59 운림(雲林)에……탄식하도다 : 이 내용은 《사암선생문집》 권4에 실려 있는 <답정운룡서(答鄭雲龍書)>에 보인다.

60 정여립(鄭汝立) : 1546~158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인백(仁伯), 본관은 동래(東萊), 전주(全州) 출신이다. 체격이 좋고, 통솔력이 있으며, 두뇌가 명석하여 경사(經史)와 제자백가서에 통달하였다. 1567년(명종22) 진사가 되었고, 1570년 식년 문과에 급제한 뒤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촉망을 받았다. 본래 서인(西人)이었으나 수찬이 된 뒤 당시 집권 세력인 동인(東人) 편으로 돌아서서 서인을 공격하는 데에 앞장섰다. 이로부터 임금 선조의 미움을 받아 중앙에서 관직을 얻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기축옥사의 장본인이 되어 동인의 정치권에 큰 타격을 주었다.

潑)⁶¹을 만나기 위해 개천을 지나가다 선생을 방문했는데 선생이 피하고 만나지 않으니, 정여립이 가동(家僮)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 날에 돌아올 것이니 너의 참봉 어른께 머물러 기다리라고 알려라.”라고 하였다. 정여립이 왔는데 선생이 또 만나 주지 않자, 그는 화가 나서 가 버렸다.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절교하고자 한 지 오래되었는데, 이제는 됐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즉시 편지를 보내 절교하여 말하기를 “공이 학문으로 자신을 수양한 것을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았는데, 지금은 함께하는 자들이 모두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과 영원히 절교하려 합니다.”라고 하였는데, 문인(門人) 오희길(吳希吉)을 시켜 편지를 보냈다.

얼마 안 되어 지주(地主 장성 현감(長城縣監)) 이공(李公) 계(啓)⁶²가 선생에게 말하기를 “공은 정여립을 아십니까? 저는 평소 친분이 없는데, 징색(徵索 돈이나 곡식을 강제로 요구함)이 아주 지나칩니다.”라고 하자, 선생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처음엔 서로 알고 지냈는데, 지금은 이미 절교하였습니다. 하필 다시 논하십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서로 함께 정여립의 마음이 바르지 않음을 말하였다. 그 후에 선생은 이공(李公)에게 용인(龍仁) 땅에 있는 작은 별장을 빌려 달라고⁶³ 청하면서

61 이발(李潑) : 1544~158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경함(景涵), 호는 동암(東巖)·북산(北山)이며,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1568년(선조1) 생원이 되고, 1573년 알성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역임하였다. 동인의 영수였는데, 1589년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일어나서 서인들이 집권하게 되자, 관직을 사퇴하고 교외에서 대죄(待罪)하던 중 잡혀가 두 차례 모진 고문을 받고 장살(杖殺)되었다.

62 이공(李公) 계(啓) :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경담(景膽)이고, 용인 출신이다. 좌의정을 지낸 이정귀(李廷龜)의 부친이다. 1589년 장성 현감(長城縣監)으로 재임할 당시에 개천정사(介川精舍)를 세워 정운용(鄭雲龍)을 선생으로 초빙하여 선비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말하기를 “제가 아는데 정여립은 필시 끝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그와 절교했으니 멀리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이공이 즉시 허락하였다. 당시 적(賊 정여립)은 자신을 굽혀 선비들과 교류하여 자신의 세력 넓히는 것을 그치지 않았는데, 반란의 정상(情狀)은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다.

월사공(月沙公 이정귀(李廷龜))은 바로 이공의 맏아들인데, 선생의 지나친 생각을 의심하여 간혹 이를 사람들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정여립이 복주(伏誅)되자 사람들이 모두 비로소 선생의 선견지명(先見之明)에 감복(感服)하였다. 선조(宣祖)가 적(賊)의 가서(家書)를 친히 열람하다가 선생의 절교하는 편지글을 본 뒤 수상(首相 영의정) 박□□에게 물어보자, 박□□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바로 남쪽 지방의 고사(高士)인데, 학행(學行)으로 시속(時俗)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 상(上)이 가상히 여겨 장려하는 내용으로 하교(下教)하고 특별히 왕자의 사부(師傅)에 제수하였는데, 공이 명을 듣고 숙사(肅謝)⁶⁴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구가 갑자기 이르자 대가(大駕)가 파천(播遷)하였다. 당시 본도(本道 전라도) 감사 이광(李洸)⁶⁵이 군사를 진

63 이공(李公)에게……달라고 : 정운룡(鄭雲龍)은 정여립(鄭汝立)과의 만남을 피하기 위해 전라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잠시 가 있으려고 하였는데, 마침 친분이 있던 장성 현감 이계(李愷)의 고향이 경기도 용인이므로 그에게 머물 곳을 부탁한 듯하다.

64 숙사(肅謝) : 사은숙배(謝恩肅拜)의 준말로, 관직의 임명을 받은 자가 처음으로 출근할 때에 먼저 궁중에 들어가서 정숙(靜肅)하게 사례(謝禮)하는 것을 말한다.

65 이광(李洸) : 1541~160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사무(士武), 호는 우계산인(雨溪散人),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 감사로서 충청도 관찰사 윤선각(尹先覺), 경상도 관찰사 김수(金晔)와 함께 관군을 이끌고 북상해

군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기꺼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려 하지 않고, 의병을 시기(猜忌)하여 다방면으로 저지하고 기개를 꺾었다. 자신의 군대가 궤멸되어 달아나게 되자 앞장서서 유언비어를 떠들고 다녔으니, 당시 호남의 군사가 무너진 것은 모두 이광이 군사의 사기를 꺾었기 때문이다. 선생은 분개함을 견디지 못하여 진사 박종정(朴宗挺)·유사경(柳思敬) 등과 함께 상소문을 올려 이광의 죄를 극력(極力)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통절(痛切)하였다. 무인(武人) 박희수(朴希壽)를 발탁하여 파견하였는데, 그가 행궁(行宮)에 도달하자 이광이 이미 복죄(伏罪)되어 민심(民心)이 숙연(肅然)해졌다. 행조(行朝 피난 중의 임시 조정)에서 특별히 공을 고창 현감(高敞縣監)에 제수하자, 공은 시사(時事)가 매우 위급하다고 여겨 억지로 힘을 내어 부임하였는데, 이듬해 5월에 갑자기 병에 걸려 공사(公舍)에서 돌아가셨다. 향년 52세였다.

선생은 20세 때부터 이미 학문에 뜻을 두었고, 또 능히 스승을 섬겨 가르침을 받고 벗과 교제하였다. 그의 학문은 사서(四書)를 근본으로 하고, 아울러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여러 서책들에 통달하였으니, 당시의 명유(名儒)와 달사(達士)가 모두 그를 인정하였다. 성품이 또한 지극히 효성스러웠는데, 계모(繼母) 이씨는 성질이 엄혹(嚴酷)하여 선생을 도리에 어긋나게 대우하였으니, 자못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서울을 수복할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4만의 군사를 이끌고, 조방장(助防將) 이지시(李之詩)를 선봉으로 하여 임천(林川)을 거쳐 전진하였다. 하지만 도중에 용인의 왜적을 공격하다가 적의 기습을 받아 실패하자 다시 전라도로 돌아왔다. 그 뒤 전주와 금산 지역을 공격해 온 왜적을 격퇴시키기도 했지만, 용인 패전의 책임자로 대간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어 백의종군하였고, 의금부에 감금되어 벽동군으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우계집(牛溪集)》이 있다.

정도였다. 하지만 공은 능히 자식 된 도리를 다하여 일찍이 조그만 실수도 하지 않았다. 닭이 울면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서 혼정신성(昏定晨省)⁶⁶을 게을리하지 않자, 이씨는 마침내 깊이 느끼고 깨달아 자신이 낳은 자식인 덕룡(德龍)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형을 능히 배우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라고 하였다. 덕룡이 술주정하며 여색에 빠져 살자, 사람들이 모두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도 선생의 우애가 극진하자, 향당(鄉黨)에서 선생의 효성과 우애가 아울러 지극한 것을 칭찬하였다.

선생은 바로 절효공(節孝公) 서 선생(徐先生)⁶⁷의 외손인데, 하늘을 감동시킨 서공(徐公)의 효성을 추모하여 모암(慕巖)에 사우(祠宇)를 창립(倡立)하였다. 제향할 때 그 행적의 대략을 사상(思相)에게 명(銘)할 것을 청하고 이를 비석에 새겨서 옛 고을의 동쪽에 세워 놓았는데, 이 역사(役事)에 선생이 실제로 주관하였다고 한다.

선생은 두 번 장가들었는데, 첫째 부인 이씨는 부사 이장영(李長榮)의 딸로, 아들 한 명과 딸 두 명을 낳았다. 아들은 성일(聖一)인데,

66 혼정신성(昏定晨省) :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 인사를 드린다는 뜻으로, 자식이 아침저녁으로 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禮記 曲禮上》

67 서 선생(徐先生) : 고려 시대 고종 때 사람인 서릉(徐稜)을 가리킨다. 그는 장성군 북일면 작동마을에서 태어났고, 약관(弱冠)의 나이에 문과 급제하였으며, 벼슬이 시중(侍中)에 이르렀다. 또한 그는 하늘을 감동시킨 효자로서 《고려사열전(高麗史列傳)》 효우 편(孝友)의 서문에 따르면 “고려 오백 년간에 효자로서 사서(史書)에 족표(族表)된 예는 10명에 불과한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절효공(節孝公)으로서 전라도 인물로는 유일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효행 사실은 장성 지방 유림들 사이에 흠모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 1578년(선조11) 그의 효행정신을 찬양하기 위하여 장성 북일면에 모암서원(慕岩書院)을 건립하여 제향하였다.

불행히 젊은 나이에 죽었다. 첫째 딸은 군수 정홍록(丁弘祿)에게 시집 가고, 둘째 딸은 사인(士人) 김극순(金克純)에게 시집갔다. 둘째 부인 김씨는 참봉 김사흠(金士欽)의 딸로,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을 낳았다. 아들은 성유(聖兪)·성민(聖敏)인데 모두 찰방(察訪)을 지냈다. 딸은 사과(司果) 이시행(李時行)에게 시집갔다.

성일은 처음에는 현감 유형진(柳亨進)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나중에는 봉사(奉事) 최선(崔宣)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모두 후사(後嗣)가 없었다. 그래서 성유의 아들 지한(之翰)을 취해 후사로 삼았다.

성유는 처음엔 참봉 김홍원(金弘遠)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한 명을 두었다. 그는 바로 지한인데 문학으로 당대에 이름이 났다. 또한 성유는 나중엔 주부(主簿) 최몽남(崔夢男)의 딸에게 장가들어 지흠(之翕)과 지혁(之翹) 두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처사(處士)로서의 행실이 있었다. 서출(庶出)은 지상(之翔)이고, 딸은 조형구(曹亨耆)에게 시집갔다.

성민은 양사민(楊士敏)의 딸에게 장가들어 지숙(之翹)과 지우(之羽) 두 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은 김윤(金潤)에게 시집갔다. 성민의 서출 아들은 지훤(之翹)이고, 딸은 이우장(李友樟)에게 시집갔다. 지한(之翰)은 나경(羅暵)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후사가 없다가 나중에 아들 원백(元伯)·원항(元恒)·원주(元柱)를 두었고, 원백을 세워 적사(嫡嗣)⁶⁸로 삼았다. 또 지흠은 진사 김백생(金伯生)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을 낳았는데, 아들은 원귀(元龜)와 원교(元喬)이고, 딸은 이장하(李長夏)에게 시집갔다. 지혁은 홍준(洪僞)의 딸에게

68 적사(嫡嗣) : 한 가문을 이어 갈 적출(嫡出)의 아들을 가리킨다.

장가들어 아들 여섯 명과 딸 한 명을 두었는데, 아들은 원필(元弼)·원서(元瑞)·원좌(元佐)·원표(元杓)·원기(元基)·원승(元昇)이고, 딸은 어리다.

선생의 유해를 장성현(長城縣) 서쪽 8리 모암(慕巖)⁶⁹ 선영(先塋)의 동쪽 좌묘(坐卯)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아! 말세의 인물로서 비록 타고난 자질이 훌륭한 자는 있지만, 능히 학문에 뜻이 있는 자는 대체로 적다. 비록 학문을 한다고 지칭하더라도 능히 학문의 실력을 얻은 자는 더욱 드문데, 선생의 경우는 완고한 계모에게 효성스럽고 오만한 동생에게 우애로웠으며 귀하거나 천한 사람과 교제할 때도 능히 지조를 지켰다. 또한 선견지명으로 세상을 속인 음흉한 적과 절교하고, 충성을 바쳐 나라를 저버린 늙은 간인(奸人)을 배척하였다. 이것들이 비록 학문의 힘으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믿지 않으니 혹시 이른바 바른 도리를 들으면 곧바로 실행하는⁷⁰ 자가 아니겠는가. 필시 독실하게 논의하는 군자가 이를 분별할 것이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온 집안이 정유년(1597, 선조30)의 난리에 망가져서 집안의 기록물들이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선생의 언행에 대한 자취가 사라져 버린 지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래되었다. 지난 갑진 연간(1664, 현종5)에 공의 손자 지한(之翰)이 분명하게 유전(流傳)되는 것들을 입수하여 초고(草稿)를 만들어 나에게 와서 보여 주었다. 나는 삼가 그 초고 중에서 문의(文意)가 분명하지 않은 곳을

69 모암(慕巖) : 현재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서삼면(西三面)에 모암리(慕巖里)라는 지명이 있다.

70 바른……실행하는 : 원문은 ‘문사행지(聞斯行之)’인데, 《논어(論語)》〈선진(先進)〉에 나오는 구절이다.

대략 고쳐서 바로잡아 돌려보냈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24년 남짓 되었다. 나는 잘못된 곳이 있을까 마음속으로 염려하여 그 집에 원고를 요구하였는데, 지한의 아들인 원백이 이로 인해 그 원고를 고쳐 주기를 청하고, 이를 후세에 전할 자료로 삼으려 하였다. 나는 감히 크게 사양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삼가 편차(編次)한다. 송정(崇禎) 기원(紀元)후 기사년(1689, 숙종15) 4월 10일.

선부군 행장

先府君行狀

부군(府君)의 휘(諱)는 진탁(震鐸)이고, 자(字)는 선명(善鳴)이며, 그 선조는 행주인(幸州人)이다. 행주 기씨(奇氏)는 실제로 은사(殷師)⁷¹에서 시작되었는데, 후손이 갈리어 기씨 성을 얻었다. 휘 순수(純祐)는 고려조에 벼슬하여 관직이 평장사(平章事)였는데, 바로 그가 행주 기씨의 비조(鼻祖)이다. 그 후손이 더욱 이어져 내려와서 평장사 휘 수전(守全), 상장군(上將軍) 휘 필선(弼善), 아조(我朝)의 판중추(判中樞) 정무공(貞武公) 휘 건(虔)은 모두 매우 유명하다. 휘 효간(孝諫)은 김하서(金河西 김인후(金麟厚))를 스승으로 섬겼고, 학행(學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을사문망(乙巳文網 을사사화(乙巳士禍))을 경계로 삼아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벼슬하지 않았는데, 후자가 발탁하여 천거하려고 권면했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 죽어서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었다. 호(號)가 금강(錦江)인 분은 부군에게는 증조부가 된다. 조부의 휘는 계헌(啓獻)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호조 좌랑(戶曹佐郎)에 추증되었다.

부군의 선친은 휘가 처겸(處謙)이다. 선비(先妣)는 파평(坡平) 윤씨인데, 그 선조가 또한 매우 혁혁하였다. 만력(萬曆) 35년 정미년(1607, 선조40) 4월 16일 무신일(戊申日)에-축시(丑時)- 부군을 장성현(長城縣)의 소곡리(小谷里)에서 낳았다.

71 은사(殷師) : 은(殷)나라 태사(太師) 기자(箕子)를 가리킨다.

부군은 타고난 기운이 청명(淸明)하고 총오(聰悟)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어려서부터 독서하여 날마다 수천만 자를 기록하였다. 13~4세에 이미 사자(四子)⁷²·《시경(詩經)》·《서경(書經)》 및 《소미통감(少微通鑑)》을 통달하여 모두 한두 번 읽고 나면 바로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았다. 매양 새해의 책력(冊曆)을 보면 겨우 한 번 열람하고 한 해가 다가도록 다시 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절기(節氣)의 차례와 달(月)의盈虛(盈虛)를 물어보면 아주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다. 무릇 사람의 관계(貫系)와 이력(史歷) 및 고금의 현사(賢邪)·시비(是非)·득실(得失)을 남김없이 모조리 꿰뚫었는데, 아직 성동(成童 15살의 사내아이)이 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하였다. 이윽고 조수죽(曹數竹)⁷³-홍립(弘立)에게 《역서(易書)》를 배웠는데, 수죽은 당시에 문성(文聲)이 있어 제자들이 자못 많았지만, 일찍이 부군을 칭송하고 감탄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너의 스승이 될 수 없으니, 정자용(鄭子容)⁷⁴에게 나아가거라.”라고 하였다. 당시 기옹(畸翁)은 혼조(昏朝) 광해

72 사자(四子) : 사자서(四子書)의 준말로, 공자·증자·자사·맹자의 언행록이라 할 수 있는 《논어(論語)》·《대학(大學)》·《중용(中庸)》·《맹자(孟子)》를 가리킨다.

73 조수죽(曹數竹) : 조선 중기의 문신인 조홍립(曹弘立, 1558~1640)을 가리킨다. 수죽은 그의 호이다. 자는 극원(克遠),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1588년(선조21) 식년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 병조·형조의 정랑 등을 역임하였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한 뒤 대북파의 전횡이 심하여지자, 벼슬을 단념하고 고향에 내려갔다가 1623년(인조1) 인조반정(仁祖反正) 뒤에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부교리가 되었다. 노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후학 양성에 힘썼다. 1637년 80세에 우로(優老)의 특전에 따라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위계에 올랐다.

74 정자용(鄭子容) : 조선 중기의 문신인 정홍명(鄭弘溟, 1582~1650)을 가리킨다. 자용은 그의 자이다. 호는 기암(畸庵) 또는 삼치(三癡), 본관은 연일(延日)이다. 부친은 우의정 정철(鄭澈)이고, 송익필(宋翼弼)·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다. 인조반정 후에 여러 청요직(淸要職)과 부제학·대사성·김제 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정치

조(光海朝))를 만나 창평(昌平)에 폐거(廢居)해 있었는데, 수죽(數竹)과 증유(從遊)하면서 문장을 논하였다. 기옹도 여러 번 부군(府君)의 문사(文辭)를 물어보면서 말하기를 “이 아이는 참으로 세상에 드문 기재(奇才)이다.”라고 하였다.

얼마 안 되어 부군은 갑자년(1624, 인조2)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당시 기옹이 기폐(起廢 면관(免官)시킨 사람을 다시 기용함)되어 발탁된 상태였는데, 부군의 시고(試稿)를 서둘러 찾아 읽으면서 말하기를 “이 글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하였다. 이윽고 급제자의 방(榜)이 나왔는데, 높은 등급을 얻지 못하자 기옹은 탄식하며 말하기를 “세상에 안목을 갖춘 자가 없구나.”라고 하였다. 당시 부군은 나이가 막 18세가 되었는데, 함께 과거 급제한 벗들 중에는 자못 자신들을 훌륭하다고 여기는 자가 있었지만, 부군은 홀로 묵묵히 그 가운데 있었다. 이미 사은(謝恩)하고 바로 화동(花童)을 물리치고 필마(匹馬)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신은(新恩 문과에 새로 급제한 사람)하여 득의(得意)한 태도를 보이지 않다가 대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잔치를 베풀어 이를 영광스럽게 여겼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부군의 기특함을 칭찬하고 그의 원기(遠器 원대한 기량)를 인정하였다.

대개 부군은 어린 시절부터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장성해서는 더욱 스스로를 단속하고 절제하였으며, 장난치고 방종하며 부화(浮華)

적으로 인조 초의 공신 김류(金瑬)의 권력에 대한 소장 관인들의 비판에 참여하여 ‘소서(少西)’의 일원으로 지칭되었다. 병자호란 후에는 척화파를 두둔하였다. 총명하여 제자백가서에 두루 정통했으며, 고문(古文)에도 밝았지만, 김장생의 영향으로 경전(經傳)을 으뜸으로 삼았고, 예학에도 밝았다. 저서로는 《기옹집(畸翁集)》·《기옹만필(畸翁漫筆)》이 있다. 좌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하는 버릇이 없었다. 그러므로 묘년(妙年 20살 안팎의 꽃다운 나이)에 과거 급제의 명성이 있어도 그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 그 후에 더욱 벼슬길에 조금씩 나아가려는 생각이 없어서 일찍이 과업(科業)에 뜻을 둔 적이 없고, 고요함 속에서 유유자적하며 지조와 행실을 고결하게 하였으니, 마을의 장로(長老)들이 모두 부군을 경외(敬畏)하였다.

기사년(1629, 인조7)에 이르러 선조고(先祖考)께서 극심한 병에 걸려 한 해 내내 낫지 않자, 부군은 아침저녁으로 애써서 초취해졌고 의원과 약제를 찾아 분주히 돌아다녔다. 이로부터 부친의 병환이 비록 위독함을 벗어났지만 여러 해 동안 침석(寢席)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부군은 스승이나 벗들과 종유(從遊)할 수 없었다. 부친의 뜻에 따라 의례적으로 향시(鄉試)를 보아서 비록 여러 번 합격하였지만, 번번이 정대(庭對)⁷⁵에서 떨어지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탄식하며 애석해하였다. 하지만 부군은 도리어 스스로 개의치 않았다.

계미년(1643) 겨울 부친상을 당해 상례(喪禮)를 극진히 하여 차가운 마루에 거적을 깔고 자면서⁷⁶ 우사(虞事)⁷⁷에 이르렀는데, 일찍이 한번도 따뜻한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집안사람들은 추위에 몸을 떠는 것을 참지 못하였지만 부군은 끝내 병이 나지 않았다. 어찌 신명(神明)

75 정대(庭對) : 대과(大科)의 최종 시험인 전시(殿試)에서 답하는 책문(策文)을 가리킨다.

76 거적을 깔고 자면서 : '침점침초(寢苫枕草)'라는 말이 있는데, 거적자리를 깔고 풀을 베개 삼아 눕는다는 뜻으로, 부모의 상을 당한 자식이 아버지가 흙 속에 묻혀 있음을 슬퍼하여 아주 검소해야 함을 이르는 말이다.

77 우사(虞事) : 장사를 지낸 뒤 죽은 이의 혼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장사 지낸 당일에 지내는 제사는 초우(初虞), 다음 날 지내는 제사는 재우(再虞), 그다음 날 지내는 제사를 삼우(三虞)라 한다.

이 도운 바가 아니겠는가.

이미 복(服)이 끝나자 더욱 힘써 스스로 수학(修學)하였고, 또한 자신을 자랑하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길 구하지 않았다. 모친께서 살아 계셨기 때문에 개연(慨然)히 병술년(1646, 인조24) 별거(別舉)⁷⁸에 나아가 과연 선발되었는데, 태학사(太學士)가 출제한 것이 기휘(忌諱)를 범하자 상(上)께서 그 방목(榜目)을 파하라고 명하였으므로 끝내 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부군은 더욱 시명(時命 시절의 운수)을 알아서 드디어 다시는 과거를 보지 않았고,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정신을 수양하는 것을 일로 삼았다. 일찍이 한번도 고관대작(高官大爵)의 집에 이르지 않았고, 벼슬을 구하는 선비를 보면 마음속으로 심히 비루하게 여겼다.

임진년(1652, 효종3) 겨울에 처음 병에 걸리고, 계사년(1653)에 더욱 심해져 오랫동안 낫지 않다가 7월 3일 임시 처소에서 임종하니 향년이 겨우 47세였다. 숨이 끊어지려 할 무렵에 신기(神氣)가 더욱 또렷해져 만아들 정하(挺夏)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봉제사(奉祭祀)에 정성을 극진히 하여라. 내가 너에게 맡기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두 아우와 이별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늙으신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눈을 감지 못하겠다. 그대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잘 섬기게.”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선 돌아가셨다.

부군은 타고난 성품이 빼어나고 밝았고, 재기(才器)와 도량(度量)이 올바르고 단정하였으며, 심기(心氣)가 화평하고 용모가 엄정(嚴整)하였다. 일찍이 학문으로 자임한 적이 없었으나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

78 별거(別舉) : 식년시(式年試) 이외에 특별히 치르는 과거를 가리킨다.

을 절제함에 있어서는 속유(俗儒)들이 엿보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당시에 종유(從遊)하던 제장(諸丈)들은 일찍이 부군의 한정 없음을 뒤미처 애석하게 여기지 않음이 없었다.

언젠가 말하길 “마음에 사특함이 없고 행함에 반드시 바르며 일에서 올바름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치이다. 내가 지키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나면 어디를 가더라도 뜻을 펼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사람의 불선(不善)함은 반드시 윗사람에게 대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진실로 윗사람에게 대들기를 좋아하면 바로 거스르게 되니, 가지고 있는 덕이 비록 훌륭하고 올바르지만 도리어 바르지 않게 되어 패려긋고 망녕된 언행으로 끝낼 것이다. 그러므로 유자(有子)가 말하기를 ‘윗사람에게 대들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亂)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괴이한 것을 좋아하는 자는 그 마음이 반드시 바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을 절대로 벗으로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 괴이한 옷차림새를 한 자 또한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사람으로 간사한 짓을 하여 죄과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부모가 어찌 일찍이 불선을 하도록 시킨 적이 있겠는가? 이는 자기의 불선함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니, 어찌 그런 짓을 차마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욕(利欲)의 해로움은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게 한다. 내가 골육(骨肉) 사이에 이קות을 다투어 소송을 일으키는 자를 보면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는 공이 자식들을 훈계하시던 말씀이다.

또한 자식들이 어리석고 게으른 것을 근심하였으나 부자(父子) 사이

의 은혜를 해칠까 염려하여 굳이 엄격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자식들이 이욕(利欲)에 입을 여는 것을 보면 문득 소리 내어 꾸짖고, 또한 여러 날 동안 말씨와 얼굴빛을 낮추지 않았다. 무릇 깨달아 터득한 것을 마치 마음을 쓰지 않은 듯이 하였지만 일찍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으며, 일을 조처하여 행함에 대체로 거의 합당(合宜)하여 일찍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항상 잊지 않았지만 그에게 비리(非理)가 있다면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질문하면 반드시 의리(義理)로써 깨닫게 하였으며, 결코 자신의 뜻을 굽혀 다른 사람에게 아첨하여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세상과 화합을 잘하지 못하였지만 사람들이 또한 감히 그를 미워하지 못하였다.

항상 말하기를 “사람이 충신(忠信)하지 않으면 일에 모두 진실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내달려 추구하는 곳을 삼가고 피하였으니, 그 실상을 모르면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괜찮겠는가? 게다가 가령 고금에 이른바 현자(賢者)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자인데, 옛날 양웅(揚雄) 같은 자는 현자라고 할 수 없으니 진실로 《주자강목(朱子綱目)》에서 특별하게 적어 놓지 않았다면⁷⁹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우리 동방의 오천(烏川)⁸⁰에 대해서는 충성(忠誠)과 의열(義烈)을 논할 것도 없고, 아은(治隱 길재(吉再))이 수립한 것도 뛰어나

79 양웅(揚雄)……않았다면 : 양웅은 중국 전한(前漢) 말기 성제(成帝) 때의 학자이자 문인으로 명망이 높았는데, 후에 왕망(王莽)이 왕위를 찬탈하여 세운 신(新)나라의 대부가 되었다. 이에 주희는 그의 《통감강목(通鑑綱目)》에서 양웅을 폄하여 “왕망의 대부 양웅이 죽었다.[莽大夫揚雄死]”라고 썼다.

80 오천(烏川) : 경상북도 포항시 인근에 있는 영일(迎日 또는 延日)의 옛 지명이다. 연일 정씨(延日鄭氏, 또는 迎日鄭氏)인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를 가리킨다.

다 이를 만하다. 이외에 고려조에 이른바 순유(純儒)가 몇 분 있었다. 본조(本朝)에서는 퇴계(退溪)의 기상(氣象)과 경지가 진실로 이른바 덕이 있는 자이고, 참으로 우리 동방 이학(理學)의 종정(宗正)이다. 고봉(高峯)의 재능과 식견은 혹 퇴계가 이해하지 못한 곳에 도달하였다. 그의 언론(言論 말과 글)과 사기(詞氣 문장에 드러난 기품)의 천심(淺深)을 살펴보면, 공자와 맹자 사이에 있는 것 같다. 항상 '하서(河西)의 타고난 기품이 가장 뛰어나니 비록 그가 성취한 것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그 기상(氣象)은 명도(明道 정호(程顥)) 선생에게 근접하였다.'라 칭송하였다……"라고 하였다.

만년에는 더욱 울곡(栗谷)을 흠모하여 매양 말하기를 “해동(海東)에서 그동안 재능과 덕성을 검비하여 임금을 보좌할 만한 인재를 논해 본다면, 이문성(李文成 이이(李珣))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격몽요결(擊蒙要訣)》을 가리켜 말하기를 “다만 이 책은 약간의 문자 중에 문득 소학(小學)과 대학(大學)이 갖추어져 있으니 후학(後學)들이 항상 읽어야 한다. 그 가운데 제사 의식에 관한 부분은 고금을 미루어 헤아리고 국속(國俗)을 참조했으니 이를 따라 실행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그 이후에 하나하나 그 의제(儀制)를 따랐다.

기사년(1629, 인조7)에 부친께서 병환이 있으신 후로부터 부군은 독서하고 글을 지을 수 없었고, 다만 간간이 성현의 서책을 상고(詳考)하여 열람하였다. 그래서 일찍이 지은 것으로는 정식(程式)의 문책(文策) 2편과 부(賦)와 표(表) 약간 수(首)뿐이다. 집안에서는 한결같이 청빈(淸貧)하고 은혜와 의리를 아울러 실행하며, 선비(先妣)와는 서로 손님처럼 대우하였다.

선비는 성이 나씨(羅氏)인데 계통이 금성(錦城)이다. 선비의 조부

덕용(德用)은 일찍이 의(義)를 실행하여 알려졌는데 젊은 나이에 죽어 벼슬하지 못하였다. 선비의 조비(祖妣)는 문과 급제한 군수 송정순(宋廷筍)의 딸인데 정렬(貞烈)로 정려(旌閭)되었다. 선비의 선고(先考)는 휘가 무춘(茂春)⁸¹이고, 명경과(明經科)에 합격하였지만 광해군(光海君)이 폐모(廢母)할 때에 절개를 세워 관직이 삭탈(削奪)되었다. 그 후에 겨우 감대(監臺 사헌부 감찰(監察))가 되었지만 돌아가셨다. 인조(仁祖)가 그의 절의(節義)를 익히 들었으므로 즉위하여 특별히 예의(禮議 예조 참의(禮曹參議))에 추증하였다. 비(妣 나씨의 모친)는 이천(利川) 서씨(徐氏)인데, 절의를 세운 가문에 시집와서 선비(기정익의 모친인 나씨)를 낳았다. 선비는 유순하고 아름다운 덕이 있었고, 17세에 부군에게 시집왔는데 부부간의 강함과 부드러운 능히 배필이 될 수 있었으며, 공경히 일을 처리하면서도 음식으로 공양함에 어긋남이 없었다. 선비께서는 만력(萬曆) 34년(1606, 선조39) 정월 11일-자시(子時)-에 태어나서 승정(崇禎) 기원후(紀元後) 신해년(1671, 현종12) 4월 10일 66세에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셨다. 부군이 돌아가신 지 18년 후이다.

처음 부군을 장사 지낼 적에는 좋은 땅을 얻을 수 없어서 장지(葬地)가 모래와 자갈과 지하수에 닿아 있었고, 재차 묘(墓)를 옮겨 선비(先

81 무춘(茂春) : 나무춘(羅茂春, 1580~1619).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대년(大年), 호는 구봉(九峯)·구화(九華)·기지(耆之)이다. 1612년에 (광해군4)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의 학유(學諭)·학록(學錄)·학정(學正) 등을 지냈다. 같은 해 이이첨(李爾瞻)이 유생 이위경(李偉卿)을 시켜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출소(廢黜疏)를 올리자, 한림(翰林) 엄성(嚴愷)과 함께 이위경을 탄핵하였는데, 양사(兩司)의 반발 때문에 관직을 삭탈당하고 나주의 향리로 돌아갔다. 3년 뒤 복직되어 감찰을 지냈으나, 다시 파직되었다.

妣)의 묘와 합장(合葬)하였지만 이곳은 마야흐로 우지(虞地 좋지 않은 땅)라서 또 불길(不吉)함이 끝도 없었다. 아들 네 명이 있는데, 장자(長子)는 정하(挺夏)이고, 그 다음은 정익(挺翼)·정만(挺萬)·정구(挺九)이다. 딸은 두 명인데, 장녀는 방명섭(房明燮)에게 시집갔고 막내딸은 유익서(柳翼瑞)에게 시집갔다.

아! 부군의 행의(行誼 의리에 맞는 행동)는 의당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불초고(不肖孤)는 항상 스스로 부친의 행적을 기록하여 입언(立言 훌륭한 글을 후세에 남기는 것)을 구하고 명문(銘文)을 요청하려 했지만, 도리어 지식이 얇고 짧으며 문사(文辭)가 둔하고 졸렬하여 아주 조금이라도 실상에 미치지 못하고 지나치게 미화하여 저승에 계신 부친에게 죄를 얻을까 두려웠다. 그러므로 삼가 견식이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려 될 수 있는 대로 죽기 전에 이를 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불행히 타고난 운명이 기박(奇薄)하여 가화(家禍)를 혹독하게 당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급한 상황이 갑자기 닥쳐서 지극한 바람을 이룰 수 없을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일찍이 마음에 새겨 두었던 약간의 사실들을 삼가 서차(序次)하여 행장을 지었다. 임술년(1682, 숙종8) 5월 기망(既望 16일)에 불초고 정익(挺翼)이 근장(謹狀)하다.

가의대부 행 평안도 관찰사 김공 행장

嘉義大夫行平安道觀察使金公行狀

공(公)의 휘(諱)는 여옥(汝鉦)이고, 자(字)는 군수(君粹)이며, 광산인(光山人)이다. 애초에 신라 왕자인 김흥광(金興光)이 종사(宗社)가 장차 망할 것을 알고선 광산(光山)의 서쪽⁸²으로 와서 터를 잡아 살았었는데, 자손들이 이 때문에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고려가 번성했을 때에는 대대로 평장사(平章事) 벼슬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마을을 평장(平章)이라 불렀는데, 평장의 김씨는 대대로 문벌가(門閥家)가 되었고 공은 그 후손이다.

흥광의 후손인 평장사 휘 책(策)은 해동(海東)의 명신(名臣)이 되었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그의 손자 문하시중(門下侍中) 휘 양감(良鑑)은 또 학문과 덕행으로 한 시대를 감복시켰고, 희령(熙寧) 연간 갑인년(1074, 문종28)에 송(宋)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그곳의 태학(太學)을 모사(摹寫)하였다.⁸³ 귀국할 때 소동파(蘇東坡)가 시를 지어 그에게 주었는데, 그 시가 《동파집(東坡集)》 안에 실려 있다. 시호는 문안(文安)이다. 이분은 공(公)의 18대 조(祖)이고, 그 전후로 명경

82 광산(光山)의 서쪽 : 광산은 지금의 전라남도 광주(光州) 지역을 가리키며, 광산의 서쪽은 지금의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를 가리키는 듯하다.

83 태학을 모사(摹寫)하였다 : 태학의 제도를 모방하였다는 말이다. 김양감은 이뿐만 아니라 송나라 태묘(太廟)의 제도도 살펴보고, 경(經)과 전(傳)을 모아 가지고 돌아와 성현의 연원(淵源)을 계승하는 데 힘썼다. 또 자신의 집에 공자의 사당을 세워 봄가을로 봉향(奉享)했으니, 우리나라 문묘(文廟)의 제도가 이때 창시되었다고 한다.

(名卿 이름난 정승)이 대대로 없지 않았다. 문숙공(文肅公) 주정(周鼎)과 충숙공(忠肅公) 심(深)은 또 몇 세대에 걸쳐 매우 유명하였고, 휘 백균(伯均)은 아조(我朝)에 들어와서 절도사(節度使)가 되었다.

또 2세대를 지나 휘 승조(崇祖)는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었는데, 관직은 사간(司諫)에 그쳤으며,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이었던 휘 기(紀)를 낳았다. 이분은 공에게 고조(高祖)인데, 대궐을 출입하며 시종(侍從)하여 임금의 총애가 매우 지극하였다. 그런데 불행히 젊은 나이에 죽자 임금이 장례와 제사를 특별히 내려 주었다. 이분이 공조 좌랑(工曹佐郎) 휘 경우(景愚)를 낳았고, 경우는 두 아들을 낳았다. 장자(長子)는 휘 대성(大成)인데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차남은 휘 대진(大振)인데, 이분이 참봉(參奉) 휘 우급(友弼)을 낳았고,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승지공에게 아들이 없자 참판공으로 후사를 삼았다. 이분이 공의 선친인데, 이른 나이에 문사(文辭)로 이름이 났고, 늦은 나이로 병오년(1606, 선조39)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며, 더욱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써 칭송받아 남쪽 지방 사림(士林)의 으뜸이 되었다.

혼조(昏朝 광해조(光海朝)) 계축년(1613, 광해군5), 폐모(廢母)하자는 논의에 견강부회(牽強附會)한 자들이 다투어 와서 끌어들이려고 하자, 참판공은 매양 엄한 말로 이를 거절하였다. 하지만 저들은 공이 반드시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자 하였다. 당시 참판공은 향거(鄉擧 향시)에 합격하여 전시(殿試)에 나아갔는데, 태학(太學)에서 그 학적(學籍)을 삭제하고 즉시 서찰을 보내 이르기를 “한번 와서 보면 삭제된 학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참판공은 즉시 서찰의 뒷면에 답장을 써서 이르기를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집으로 돌아와 다시 과거에 나아가지 않자, 사론(士論)이 그를 아름답게 여겼다. 참판공은 인조조(仁祖朝)에 목릉 참봉(穆陵參奉)에 제수되었지만, 병 때문에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서산인(瑞山人) 유경진(柳景進)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바로 금호(錦湖) 임형수(林亨秀) 선생의 외손이다. 이분은 부도(婦道)를 제대로 행하였고, 만력(萬曆) 병신년(1596, 선조 29) 11월 23일에 광산(光山) 창교리(蒼橋里)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습이 범상치 않아 집안 친척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장성함에 지학(知學)과 재기(才器)가 동년배들보다 뛰어나자, 참판공은 공이 가문을 이을 수 있다고 여겨 학업의 일과(日課)를 매우 엄격히 하였고, 공이 조금이라도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문득 회초리를 들었다. 혹 피가 흐를 정도에 이르더라도 공은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다. 나이 겨우 15세에 문예가 점점 나아지고 신기(神氣)가 수려하였다. 사문(斯文) 팔송(八松) 윤황(尹煌)이 영광 군수(靈光郡守)가 되었을 적에 공의 이름을 듣고 와서 본 뒤 매우 칭찬하고, 이름이 알려진 선배들이 모두 김씨 집안에 훌륭한 후손이 있다고 칭송하였다.

무오년(1618, 광해군10)에 발해(發解 과거의 초시(初試))에서 일등을 하였고, 그 후에 연이어 향시(鄉試)에는 합격하였지만 복시(覆試)에는 여러 번 실패하자,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하였다. 갑자년(1624, 인조 2)에 비로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이어서 그해 명경과(明經科)의 병과(丙科)에 올라 성균관에 분속(分屬)되었다. 당시의 의논이 모두 공이 자신의 역량에 비해 낮은 관직을 얻은 것이라 여겼지만 공은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았다. 병인년(1626)에 광흥창(廣興倉)과 내섬시(內贍寺)의 봉사(奉事)로서 학록(學錄)을 겸하였고, 12월에는 봉사

시(奉常寺) 봉사로서 예문관(藝文館)에 전입(轉入)하여 검열(檢閱)이 되었는데, 당시는 천계(天啓) 6년(1626, 인조4)이었다.

다음 해인 정묘년(1627) 정월에 북쪽 오랑캐가 크게 들고일어나 발호(跋扈)하자, 조야(朝野)에서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당시 종루(鍾漏)에도 땀이 나는 변고가 있자, 상(上)은 근심과 두려움이 더욱 깊어져서 밤이나 낮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떤 재신(宰臣)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종루에 땀이 흐르는 것은 죽히 괴이하지 않습니다. 지난겨울의 심한 추위도 봄이 되면 바야흐로 풀려서 얼었던 것이 녹아 물이 됩니다. 이는 재이(災異)가 아닌데 어찌 이상하게 여기십니까?”라고 하자, 상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였다. 공이 바야흐로 사관(史官)으로 입시(入侍)하였다가 분개함을 이기지 못해 붓을 던지고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소인(小人)입니다. 한양이 국도(國都)가 된 지 지금 2백여 년이 지났는데, 어찌 1년 동안의 심한 추위가 지난겨울과 같은 날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종루가 얼었다가 녹아 물이 되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감히 재앙을 가리켜 상서롭다고 하여 군부(君父)에게 하늘의 경계를 소홀히 하는 뜻으로 아뢰었으니, 이 사람은 참으로 소인입니다.”라고 하였다. 상이 두세 번 고개를 끄덕이자, 그 사람은 머뭇거리다 물러났다. 이 사람은 바야흐로 화의(和議)를 주장하고 국사(國事)를 천단(擅斷)한 자인데, 매양 음험한 수단으로 공을 모함하려 했지만 또한 꾀할 만한 틈이 없었다. 하지만 시종일관 공을 가로막았고, 청현직(淸顯職) 인사(人士)들이 모두 그의 수하(手下)에서 나왔다.

11월에 대교(待敎)로 예승(例陞) 규례에 따라 벼슬을 올림)하고, 숭정(崇禎) 무진년(1628) 6월에는 대교로서 춘추관(春秋官)을 겸하고, 기사

년(1629, 인조7) 5월에는 봉교(奉敎)로서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미년(1631)에는 예조 좌랑(禮曹佐郎)에 제수되고, 5월에는 병조(兵曹)로 자리를 옮겼다. 임신년(1632)에 병조에 제수된 것이 또 두 번이고, 8월에 기주관(記注官)을 겸하고, 9월에 병조정랑(兵曹正郎)에 이배(移拜)되었다. 계유년(1633)에 모친의 병환 때문에 벼슬을 내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아 관복을 벗고 편히 쉬지 못하였다.

6월에 모친상을 당해 애훼(哀毀)함이 예제(禮制)의 정도를 지나쳤다. 참판공이 살아 있었으므로 연(練)⁸⁴에 이르러 응당 궤연(几筵)⁸⁵을 거두어야 했는데, 공이 울면서 참판공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자식의 평상시 행기(行己 몸가짐이나 행동)는 예법을 모두 따를 수 없습니다. 다만 부친이 살아 계신데 모친상을 당하면 1년 만에 궤연을 거두는 절차에 대해서는, 정(情)을 억누르고 예를 따르는 것이 실로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삼년상을 치르고픈 마음을 따라 예를 어길 수는 없으니, 예법에 의거하여 상(喪)을 치르고 삼년상식(三年上食)⁸⁶을 거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참판공이 가없게 여겨 이를 허락하였다. 이는 예법에 지나친 것이지만, 상을 당해 차라리 슬퍼함[寧戚]⁸⁷을 잃지 않은 것이니, 대개 그의 효성이 그러하였다.

84 연(練) : 사람이 죽은 후 일 년 만에 지내는 제사로, 소상(小祥)이라고 한다.

85 궤연(几筵) : 죽은 이의 혼령을 위하여 차려 놓은 영궤(靈几)와, 영궤에 딸린 모든 물건을 가리킨다.

86 삼년상식(三年上食) : 부모의 상(喪)에 3년 동안 거상(居喪)하면서 망자(亡者)의 신위 앞에 밥을 올리는 예를 말한다.

87 상을……슬퍼함 : 상을 당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애통함을 의미한다. 《논어(論語)》〈팔일(八佾)〉에 “상례(喪禮)는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픔이

을해년(1635, 인조13) 8월에 상제(喪制)가 끝나자 9월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병 때문에 체직(遞職)하였다. 10월에 또 지평에 제수되고 성균관 직강(成均官直講)을 지냈으며, 12월에 병조 정랑(兵曹正郎)에 이배(移拜)되었는데, 휴가를 청하여 귀근(歸覲 부모를 뵈기 위해 귀향함)하였다. 승정(崇禎) 9년 병자년(1636) 3월에 또 지평에 제수되었는데, 체직을 당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해 12월에 북쪽 오랑캐의 난(亂)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대가(大駕)가 남한산성으로 출수(出狩 파천(播遷))했지만, 적의 예봉은 이미 한강 남쪽을 막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들려왔다. 공은 관리로서의 직책이 없고, 또 이미 길이 막혀 혼자서 병란에 달려가기 어렵게 되자, 바야흐로 의병을 불러 모아 왕실을 위해 충성을 바칠 것을 논의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사문(斯文) 정홍명(鄭弘溟)을 추대하여 장수로 삼자,⁸⁸ 공은 참모(參謀)로서 일하였다. 이때 정공은 바야흐로 격문(檄文)을 초(草)하고 있었는데, 장차 방백(方伯)에게 통제를 받는 듯한 내용이 었다. 공이 “이는 의병장의 위엄 있는 품모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격문의 내용을 바꾸라고 청하자, 정공이 달가워하지 않았다. 또 정공과 의견이 대부분 합치되지 않자, 공은 이를 걱정하였다.

다음 해 정월에 체부(體府)⁸⁹의 종사관(從事官) 김공(金公) 광혁(光燾)⁹⁰이 공에게 임시로 함평(咸平)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공은 의리상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야 한다.[喪與其易也寧戚]”라는 말이 있다.

88 정홍명(鄭弘溟)을……삼자 :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학자인 정홍명은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전라의병장으로서 공주까지 올라왔으나 전쟁이 끝나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정홍명에 대해서는 앞의 〈선부군(先府君) 행장〉의 주석 참조.

89 체부(體府) : 조선 시대에 체찰사(體察使)가 지방에 나가 일을 보던 관아를 말한다.

사양할 수 없어 즉시 함평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함평에는 여러 달 동안 수령이 임명되지 않아 수령이 없었고, 갑자기 병란(兵亂)을 당해 조정의 명령이 막혀서 모든 일이 어수선하였다. 공이 함평 지역에 이르렀을 적에 공의 명령에 복종하는 아전이 한 명도 없었다. 공이 즉시 관아의 노비를 부리며 위엄을 떨치고 명령을 펼치며, 백성들을 불러서 달래고 안정시키니 아전들이 자못 와서 모였고 백성들이 그를 믿고 의지하였다. 공이 드디어 군정(軍政)을 정돈하고 병기(兵器)를 연습시키니 적을 저지할 계책이 겨우 실마리가 잡혔다. 그런데 난이 마침내 평정되어 공은 곧 집으로 돌아왔다.

조정에서 공을 장령(掌令)에 제수하자, 공은 왕실이 이제 막 난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명을 받들어 곧장 나아갔다. 당시 삼사(三司)에서 바야흐로 강도(江都)를 지키지 못한 죄를 논의하였는데, 공(公)도 대부(臺府 사헌부)에 연이어 들어가서 더욱 강직한 언사(言辭)를 펼쳐 논의가 그치지 않았다. 상이 마침내 공이 아뢰는 말을 윤택하여 김경징(金慶徵)⁹¹을 복주(伏誅)하였다.

90 김공(金公) 광혁(光赫) : 1590~1643.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자는 회경(晦卿), 호는 동림(東林),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1623년(광해군15) 참봉이 되었고 이듬해 알성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이후에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등을 거쳐 헌납(獻納)·수찬(修撰)을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 당시 체찰사(體察使)의 종사관으로서 호남 지방을 순찰하였으며, 이듬해 이조 정랑이 되었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91 김경징(金慶徵) : 1589~1637.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선응(善應), 본관은 순천(順天)이다. 부친은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鑾)이다. 1623년 인조반정 때 세운 공으로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이 되고, 순흥군(順興君)에 봉해졌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도검찰사에 임명되어 강화도 방어의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섬에 피난 온 대군이나 대신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한 강화를 금성철벽(金城鐵壁)으로만 믿고 아무런 대비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매일 술만 마시는 무사안일에 빠졌

공이 또 귀근(歸覲)을 청하였는데 9월에 또 장령으로 부름을 받고 조정에 나아가니, 대부(臺府)에서 윤방(尹昉)⁹²을 탄핵하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당시 윤방은 김경징에게 통제를 받아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지금 윤방이 목숨을 바치지 않았다는 죄 때문에 김경징과 같이 '일을 실패하고 나라를 그르쳤다는 율(僨事誤國之律)'로 처벌받는다면 '위협에 복종하여 죄를 범한 자는 다스리지 않는다.[脅從罔治]'라는 뜻의 거의 상실한 것이며, 또한 대평(臺評 사헌부·사간원의 평론)은 강도(江都 강화도)를 지키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배척하였지만, 남한산성에서의 주화(主和)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임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공이 단독으로 왕에게 아뢰기를 “적병이 날듯이 건너와 섬 전체가 와해되고, 온 조정이 좌임(左衽)⁹³을 하게 되면 백 년이 되지 않아 오랑캐가 될 것입니다.-정원(政院)에서 이 8자를 삭제하였다.- 윤방은 자신이 대신이면서도 김상용(金尙容)⁹⁴의 자결을 본받지 않았으니 목숨을 버

다. 그러다가 청나라 군사가 침입하자 군사가 부족해 해안의 방어를 포기하고 강화성 안으로 들어와 성을 지키려 하였다. 그런데 백성들마저 흩어져 성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나룻배로 도망해 마침내 성이 함락되었다. 대간으로부터 강화 수비의 실책에 대한 탄핵을 받았는데, 인조가 원훈(元勳)의 외아들이어서 특별히 용서하려 했으나 탄핵이 완강해 사사(賜死)되었다.

92 윤방(尹昉) : 1563~164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가회(可晦), 호는 치천(稚川)이고, 본관은 해평(海平),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영의정 윤두수(尹斗壽)가 그의 부친이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묘사제조(廟社提調)로서 40여 신주(神主)를 모시고 빈궁(嬪宮)·봉림대군(鳳林大君)과 함께 강화로 피난하였다. 하지만 신주 봉안에 잘못이 있었다는 탄핵을 받고 1639년 연안에 유배되었다가, 2개월 후 풀려나 다시 영중추부사에 기용되었다.

93 좌임(左衽) : 옷깃을 왼쪽으로 여민다는 뜻으로, 미개한 오랑캐 나라의 풍속을 가리킨다.

리고 의(義)를 취하는 도리에 있어서는 참으로 부끄러워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임금의 두 아드님, 묘사(廟社)와 비빈(妃嬪)은 순식간에 일이 장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잠시나마 살아서 사태의 변화에 따라 잘 대응하여 처리하였으니, 정세(情勢)가 혹 용서할 만합니다. 남한산성과 강도(江都)는 그 정세가 비록 다르지만, 결국 명분과 절의가 모두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과 저쪽을 구별하여 한결같이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이, 신(臣)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대간(臺諫)은 공이 군부(君父)를 탄핵했다고 여겨 ‘크게 불경스러움[大不敬]’으로 논의하자, 양사(兩司 사헌부와 사간원)의 장관이 공의 의견을 높여 내보낼 것을 청하였는데, 대관(臺官)이 또 장관을 탄핵하였다. 왕이 비답(批答)하기를 “남한산성의 일은 과인(寡人)에 해당하니, 김 아무개가 이 일에 대해 논하는 것은 비록 그 죄가 과중(過重)하지만, 대각(臺閣)에서도 이런 의논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자, 대평(臺評)에서 공을 벌주는 것을 드디어 그만두었다.

그 후에 공을 시기하여 미워하는 자가 끝내 공이 임금을 꾸짖고 옥당(玉堂)의 의견을 저지하였다고 하자 공이 마침내 실직되었다. 그러나 곧 전첨(典籤)에 제수되었다. 무인년(1638, 인조16)에 종부시(宗簿寺) 정(正)으로 승진하고, 기묘년(1639)에 사간(司諫)에 제수되었는데, 병 때문에 체직(遞職)되었다가 사예(司藝)가 되었다. 얼마 안 되어

94 김상용(金尙容)의 자결 : 1561~1637. 자는 경택(景擇), 호는 선원(仙源)·풍계(楓溪)·계옹(溪翁),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좌의정 김상헌(金尙憲)의 형이다. 병조·예조·이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묘사(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빈궁·원손을 수행해 강화도에 피난 갔는데, 이듬해 성이 함락되자 성의 남문루(南門樓)에 있던 화약에 불을 지르고 순절했다고 한다.

또 사간(司諫)에 제수되고, 6월에 사성(司成)으로 이배(移拜)되었다.

경진년(1640, 인조18)에 종부시 정에서 집의(執義)로 이배되고, 3월에 사간에 제수되고, 5월에 통훈(通訓)에 가자(加資)되었다. 10월에 여산 군수(礪山郡守)로 나갔는데, 청렴결백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간약(簡約)함으로 정사(政事)를 다스리니 아전들이 책임을 다하고 백성이 편안해져 임기 4년 만에 훌륭한 정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해마다 흉년이 들자 공은 진구(振救)를 급선무로 삼았다. 당시 방백(方伯)이 숙모(叔母)를 위해 수연(壽宴)을 성대하게 베풀자, 공은 흉년에 잔치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음을 대략 말하였는데, 방백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방백은 과연 이 때문에 대평(臺評)을 당하게 되었다. 공이 자신의 허물을 떠벌렸다고 방백이 의심하자, 공이 말하기를 "아래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였으니, 내 장차 떠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병을 핑계로 떠나겠다고 청함을 마지않았다. 방백이 마침내 화를 내며 말하자, 공이 즉시 인끈을 던져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해 3월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을유년(1645)에 복상(服喪)이 끝나자, 8월에 필선(弼善)에 제수되었는데 세자를 책봉한 경사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품계를 통정(通政)으로 한 단계 올려 주었다. 병술년(1646) 4월에 밀양 부사(密陽府使)에 제수되었는데 장차 치적(治績)이 드러나려고 하였는데, 다음 해 가을에 또 방백과 뜻이 맞지 않아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당시 조정에서는 마야흐로 '관직을 버린 율[棄官律]'을 준용(準用)하여 공을 오랫동안 서용(敍用)하지 않았다. 기축년(1649) 4월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사신으로 청의 북경에 다녀왔으며, 7월에 또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오르고, 8월에 황해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당시 효종은

초복(初服)⁹⁵이었는데, 나라에 대상(大喪)이 있고 북쪽 오랑캐의 협박이 더욱 방자해졌다. 공은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운 때 임무를 받아 심력(心力)을 다하여 병폐를 물리치고, 상주(上奏)와 복역(復逆)⁹⁶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상이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김 아무개가 병이 많은데도 근래에 진계(陳啓)하여 폐단 고치는 일을 매우 부지런히 하였다고 하니, 내 이를 심히 가상히 여긴다.”라고 하였다.

조정에서 바야흐로 우리나라 처녀를 징발하여 청나라에 보내는 일이 있어, 각 도에 시녀(侍女)의 선발을 맡기자 공이 시사(時事)를 개탄하며 상심하였다. 처녀 선발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차마 엄격하게 수괄(搜括)할 수 없었고, 백성들은 대부분 딸자식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선발하여 진상하는 일이 다른 도(道)에 뒤쳐져서 거의 기한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엄교(嚴敎)가 여러 번 내려오자, 공이 즉시 치계(馳啓)하여 말하기를 “향곡(鄉曲)에서 땀나무를 베는 처녀에게 월나라 여인의 미모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분칠한 여자를 만나는 대로 말에 올라타고 달려가 쫓아 보아도 형편상 기한에 미칠 수 없었으니, 신의 직책을 파해 주소서……”라고 하였다. 상이 크게 노하여 즉시 공을 잡아오라고 명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공이 위태롭다고 여겼지만 공은 자술서를 내고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상이 공을 풀어 주라고 명하였는데, 사람들은 공이 어리석어 자신을 망쳤다고 여겼다.

경인년(1650, 효종1)에 또 충청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신묘년(1651)에 조정에서 대동신법(大同新法)⁹⁷을 강행하였는데, 공은 논의

95 초복(初服) : 임금이 처음으로 정사(政事)를 펼쳐 교화를 베푼다는 말이다.

96 복역(復逆) : 임금에게 아뢰어 그 일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하다 의견이 맞지 않는 자가 있자 관직을 내려놓고 떠났다.⁹⁸ 그해 10월에 호군겸도총부부총관(護軍兼都摠府副摠管)에 제수되고, 12월에 형조 참판에 제수되었다. 임진년(1652, 효종3) 5월에 광주 부윤(廣州府尹)에 제수되고, 갑오년(1654)에 호군겸총관(護軍兼摠管)으로 복귀한 것이 두 번이었고, 형조 참판에 제수된 것이 또 두 번이었다.

을미년(1655)에 장례원 판결사겸부총(掌隸院判決事兼副摠)에 제수되었다. 이때 상(上)이 각 관청의 노비들이 많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암행어사를 네 번이나 파견하여 대대적으로 수팔(搜括)하게 하였는데, 혹 양민(良民)인데도 문건에 마구 기입되고 혹 사가(私家)의 노비가 혼록(混錄)되어 근심과 원망이 길거리에 가득 찼다. 상이 장례원으로 하여금 일의 실상을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는데, 공이 대부분 평반(平反)⁹⁹하고 그 실정을 전부 파악하자 백성들이 이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유년(1657)에 강화 유수(江華留守)에 제수되고, 무술년(1658)에 일 때문에 체직되어 집으로 돌아왔다가 또 판결사(判決事)에 제수되었다. 공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나라에 도움이 된 것은 없고, 다만 송사(訟事)를 결단함은 다른 사람처럼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때 이르러 거듭 판결사를 맡게 되었는데, 장례원에 마침 매우 번잡스러운 사송(詞訟 민사(民事)의 소송)을 처리하게 되자, 공은 정신을 허비하여

97 대동신법(大同新法) : 조선 시대에 공물(貢物, 특산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제도이다.

98 공은……떠났다 : 김여옥(金汝鉦)은 대동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여 의정부의 논의를 처음부터 반대하다가 체직된 적이 있다.

99 평반(平反) : 억울함을 다시 조사하여 무죄로 하거나 감형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고달프고 지쳐 병이 날로 점점 깊어졌다. 이로부터 항상 실의하여 마음 이 즐겁지 않아 마치 이 세상에 아무런 뜻이 없는 사람 같았다.

기해년(1659, 효종10) 윤(閏) 3월에 공을 평안도 관찰사에 제수하였는데, 임금의 명이 내려지던 날에 공은 가슴속의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서 더욱 상심하였다. 하지만 두 조정에서 거둬진 은혜를 받았기에 극지(劇地 일이 많고 바쁜 자리)를 사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서둘러 부임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병이 날로 더욱 깊어지고 정신이 날로 더욱 소모되었다. 신축년(1661, 현종2)에 직책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오다가 파산(坡山 경기도 파주)의 전장(田莊)에서 병을 치료하고 서울로 들어왔다. 임인년(1662) 6월 28일에 주자동(鑄字洞)의 우저(寓邸 임시 거처)에서 임종하였는데, 향년 67세였다. 임금이 부음을 듣고 사제(賜祭 임금의 죽은 신하에게 제사를 내려 줌)하라 명하였다. 그해 모월 모일 우봉현(牛峯縣) 모향(某向)의 언덕에 장례 지냈는데, 장차 좋은 땅을 골라 개장(改葬)하려 하였다.

공은 별좌(別坐) 남궁명(南宮冥)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이분은 부사(府使) 제(悌)의 손녀이고,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의 외손인데, 부녀자의 범절이 있어 집안에서 매우 칭송하였다. 지금 집에 있는데 강녕(康寧)하고, 아들 두 명과 딸 네 명을 낳았다. 장남은 재광(再光)인데 공보다 먼저 요절하였고, 차남은 일광(一光)이다. 첫째 딸은 현감 고두기(高斗紀)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사인(士人) 서문기(徐文起)에게 시집갔으며, 셋째 딸은 기정익(奇挺翼)에게 시집갔다. 넷째 딸은 윤식(尹拭)에게 시집갔지만 일찍 과부가 되어 후사(後嗣)가 없다. 재광은 종부시(宗簿寺) 주부(主簿) 한명길(韓命吉)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낳았는데, 아들은 회영(會英)이고 딸은

기정규(奇挺奎)에게 시집갔다. 일광은 부사 박정(朴淳)의 딸에게 장가 들었는데, 지금까지 아들이 없다. 고두기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가익(可翼)·가인(可寅)이고 한 명은 어리다. 딸은 세 명인데, 첫째 딸은 윤담(尹檀)에게 시집갔고, 둘째 딸은 곽제항(郭齊恒)에게 시집갔으며, 셋째 딸은 백광호(白光瑚)에게 시집갔다. 서문기에게는 아들 네 명이 있는데, 아무개·아무개·아무개·아무개이다. 기정익에게도 아들 네 명이 있는데, 호(灑)와 20세에 요절한 홍(泓)과 제(濟)이고, 한 명은 어리다. 딸 여섯 명도 모두 어리다. 회영은 조성귀(趙聖龜)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기정규(奇挺奎)는 요절하였지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리다.

공은 타고난 성품이 순수하고 아름다웠는데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훌륭한 가문에 장가들 무렵에는 더욱 스승과 벗에게 힘입었다. 심지(心地)가 맑고 깨끗하며 몸가짐이 간소하고 소박하였다. 지조를 지키는 굳세고 확실하며 일을 처리함이 명쾌하였다. 참판공이 평소 질병이 많아 고기반찬이 아니면 목구멍으로 삼킬 수 없었다. 그래서 공이 매양 아침저녁으로 그물을 가지고 개울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조리(調理)하여 올리고 물리나서 독서하였다. 우연히 강 안쪽에서 바위 구멍 하나를 발견했는데, 구멍에 금린어(錦鱗魚 쏘가리)가 숨어 있어 그물로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 그 후에도 그 바위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그곳에 가서 곧바로 물고기를 잡았다. 대개 그 바위 구멍은 단지 물고기 한 마리만을 용납할 정도였다. 아침에 가서 물고기를 가져오면 해 질 무렵에 다른 물고기가 그곳에 와서 자리 잡고 있어서 저녁에 이를 취하고 아침에 또 이처럼 하였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었다. 만약 공이 타향에서 벼슬

살이하게 되면 두 아우를 지도하여 그곳에 가서 공이 했던 것처럼 물고기를 취해 오게 하였다. 참판공이 돌아가신 후에 공은 다시 그 바위에 가지 않았다. 지금 사람들이 날마다 가서 그 바위 구멍을 엿보지만 끝내 물고기를 얻을 수 없다고 한다.

그 아우 여상(汝鏞)·여간(汝鏞)과 더불어 매우 화락(和樂)하게 지내 일찍이 빠른 말투로 말하거나 거슬리는 얼굴빛을 한 적이 없었다. 제사는 반드시 엄숙하고 공경스럽게 하고 상사(喪事)는 반드시 슬퍼함을 다하였으며, 꾸미거나 걸치레하지 않고 그 진심에 맡겼으며, 일찍이 도도하게 뽐내거나 교만하고 방자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를 낮추었다. 그래서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사람 할 것 없이 항상 그 집에 그득하였다. 고향에서 지낼 적에 항상 몸소 빗자루를 잡고 집안을 청소하였는데, 먼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지위가 경(卿)의 반열에 이르러서도 오히려 그렇게 하였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공이 말하기를 “이는 사람의 마음이 마찬가지다.”라고 하였다. 또 나막신을 신고 동네에서 걸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사람들이 그를 마주쳐도 그가 달관(達官)인 줄 몰랐다. 공의 평탄(平坦)하고 간이(簡易)함¹⁰⁰이 대체로 이와 같았으니 대개 그 성품이 그러한 것이다. 파직되었을 때 집에 한 항아리의 쌀도 없고, 서울과 시골에 집이 없어서 지금 그 가족들은 거처할 곳이 없다.

불초(不肖)하고 무상(無狀)한 나 정익(挺翼)은 선생의 문하를 출입한 지 20여 년 동안 가만히 공의 평생을 엿보았다. 일광(一光)이 울면

100 평탄(平坦)하고 간이(簡易)함 : 마음 상태가 편안하고 고요하며 간결하고 까다롭지 않은 것을 말한다.

서 말하기를 “선친이 돌아가신 지 지금 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가짐과 행하신 일의 자취가 오래되면 사라져 버릴까 염려되어 다만 가서 청하였습니다. 지금 문인으로 선친의 행장을 쓰는 것을 사양하지 않은 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친에 대해 자세하고 사실대로 기술(記述)할 수 있는 자는 의당 우리 형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형은 선친의 행장을 쓰는 데에 정성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못난 내가 공의 행동과 일을 기술하기에 부족하지만, 만일 자세하고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이라면 사양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외람됨을 잊어버리고 선 그 사적을 다 갖추어 엮어내었다. 저 재정(裁正)하여 발휘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입언(立言)할 군자를 기다린다.

송암집

제 4 권

雜著 說 序 碑誌

절충장군 박공 묘비

折衝將軍朴公墓碑

옛날에 장자방(張子房)¹이 《적정경(赤霆經)》을 지어 감여법(堪輿法 풍수지리)에 대해 극진히 말하였는데, 상고 시대 성현들의 근원을 추구하였다. 그 후손 동현(洞玄) 장자미(張子微)²가 이를 계승하고, 게다가 그 술법을 확장시켰다. 주부자(朱夫子)가 그 훌륭한 점을 칭송하고, 채서산(蔡西山)³이 장자방과 장자미를 통해 이어진 감여법의 숨겨진 뜻을 펼쳐서 드러내었으니, 지술(地術)⁴은 진실로 또한 우리 유

-
- 1 장자방(張子房) : 한(漢)나라 때의 개국공신이자 군사가인 장량(張良)을 가리킨다. 자방은 그의 자이다. 소하(蕭何)와 함께 책략에 뛰어나 한나라 창업에 힘썼다. 그 공으로 유후(留侯)에 책봉되었다. 이후 벼슬과 녹(祿)을 마다하고 적송자(赤松子)를 따라 신선이 되려고 하였다.
 - 2 장자미(張子微) : 장자방의 32세손(世孫)으로, 송(宋)나라가 천도(遷都)했을 당시에 국사(國師)였다고 한다. 저서에 《지리옥수진경(地理玉龍眞經)》이 있다.
 - 3 채서산(蔡西山) : 송(宋)나라 때의 유학자인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을 가리킨다. 서산은 그의 호이다. 자는 계통(季通)이고, 시호는 문절(文節)이다. 벼슬에 나가지 않고 학문과 강학에 몰두하였다. 많은 책을 섭렵했고, 의리(義理)를 깊이 연구하였다. 주희의 이학사상(理學思想)을 계승·발전시킨 인물이다. 악률(樂律)에 조예가 깊었고, 상수학(象數學)과 의리학(義理學)을 종합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주희와 함께 《역학계몽(易學啓蒙)》을 지었다.

자(儒者)가 마땅히 언급해야 할 학술이다.

우리 동방에는 이에 대해 이름이 알려진 자가 없었는데, 다만 우리 고향의 박공(朴公)이 이것을 매우 잘 알아서 이따금 《적정경》과 장자미의 유법(遺法)에 부합되는 것이 있었다. 혹시 주자와 채서산으로 하여금 박공을 보게 한다면 반드시 빙그레 웃을 것이 분명하다.

공의 휘는 상의(尙義)요, 자(字)는 의보(宜甫)인데, 처음에는 그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다. 임진년(1592, 선조25)에 명나라 장수 경리(經理) 양호(楊鎬)⁵가 접반사(接伴使) 이공(李公) 덕형(德馨)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에 푸른 옷을 입은 적(青衣賊)이 동문(東門)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나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공이 임금에게 아뢰어 박공으로 하여금 나와서 양호를 만나 보게 하였다. 대개 공이 수년 전에 이를 말했지만 믿지 않다가, 이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비로소 깜짝 놀라 받아들였다. 양호가 박공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대는 호산(狐山)의 정기(精氣)이니 응당 술법(術法)으로 크게 명성을 드날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대개 호(狐)는 바로 박공의 조상 땅 이름이다.

경리 양호는 이로 말미암아 박공을 군중(軍中)에 머물러 있게 하고 실행할 일에 대해 물어보고 결정하였다. 하루는 군사가 행진하는데, 술개가 위에서 날고 있었다. 양호가 말하기를 “이는 군사가 행진하는

4 지술(地術) : 풍수지리설에 근거를 두고 지리를 살펴 밋자리나 집터 따위의 좋고 나쁨을 알아내는 술법을 말한다.

5 양호(楊鎬) : ?~1629. 중국 명(明)나라 말기의 무신이다. 1597년(선조30)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경략 조선 군무사(經略朝鮮軍務使)가 되어 참전했다가 울산(蔚山) 도산성(島山城) 싸움에서 대패하여 병사 2만 명을 잃었다. 그런데 이를 승리로 보고했다가 탄로나 파직되었다.

것에 어떤 징조입니까?”라고 하자, 박공이 답하기를 “이롭지는 않지만 패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얼마 있다가 과연 그렇게 되자 양호가 더욱 박공을 기이하게 여겼다. 이로부터 박공의 술법이 더욱 알려졌다. 지금 고관대작(高官大爵)의 집에서는 대체로 모두 일찍이 그 술법을 이용하였는데, 마침내 바로 징험되니 신기하다고 일컬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월사(月沙) 이 상공(李相公 이정귀(李廷龜))은 가장 먼저 이를 알고 있었다.

만력(萬曆) 무술년(1598, 선조31)에 사재감 주부(司宰監主簿)가 되고, 이후에 군직(軍職)을 지냈다. 정사년(1617, 광해군9)에 80세로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오르고, 천계(天啓) 신유년(1621) 2월 6일에 집에서 고종(考終)하였는데, 향년 84세였다. 장사(葬事)는 공이 스스로 택한 부(府)의 북쪽 용문동(龍門洞) 선영(先塋) 아래 계좌(癸坐)터의 언덕에 하였다.

공이 비록 재예(才藝)로 이름이 알려졌지만, 그 아우 상지(尙智)와 더불어 매우 우애로워서 분가(分家)할 적에 대부분의 재산을 그 아우에게 주고 자신은 황폐하고 척박한 토지를 취하였으니, 옛사람이 했던 바와 같았다. 후에 상지가 그 의리에 감동하여 좋은 밭 약간을 공의 아들에게 돌려주었다.

공의 선친은 휘가 사순(士珣)으로 어모장군(禦侮將軍)이고, 조고(祖考)의 휘는 수온(守溫)으로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이며, 증조고(曾祖考)의 휘는 종원(宗元)으로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선비(先妣)는 연일(延日) 오씨(吳氏) 학생(學生) 세심(世諶)의 딸이다.

하동 정씨(河東鄭氏)에게 장가들어 딸 넷을 낳았는데, 이한룡(李翰龍)·김우옥(金友玉)·이심(李潯)·기문헌(奇文獻)이 그 사위이다. 김우

옥·이심·기문현은 모두 후사(後嗣)가 없고, 다만 이한룡이 후사가 있어 아들 윤감(允鑑)을 하나 낳았는데, 선교랑(宣敎郎)이다. 윤감은 처음엔 고흥 유씨(高興柳氏)에게 장가들고, 다시 황주 변씨(黃州邊氏)에게 장가들어 아들 네 명과 딸 네 명을 낳았다. 행간(行簡)·행경(行敬)·행민(行敏)·행중(行重)은 그 아들이고, 기경(奇憬)·김극표(金克杓)·김기양(金起楊)·박후(朴垆)는 그 사위이다. 장남과 장녀는 유씨가 낳고, 나머지 자녀는 모두 변씨가 낳았으며, 행문(行文)과 행일(行一)은 측실(側室)이 낳았다. 행간에게 아들 다섯 명이 있는데, 정화(鼎華)·태화(泰華)·승화(升華)·겸화(謙華)·진화(晉華)이다. 행경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는데 태화(台華)이다. 행중에게 아들 다섯 명이 있는데, 지화(至華)·선화(先華)·시화(始華)·대화(大華)·형화(亨華)이다. 선화는 행민의 후사(後嗣)가 되고, 증화(增華)는 행문의 아들이며, 처화(處華)는 행경의 측실이 낳았다. 적증손(適曾孫) 정화(鼎華)는 일찍 요절하여 후사가 없어서 승화의 아들 제(璿)를 후사로 삼았다. 내외의 증손(曾孫)과 현손(玄孫)이 거의 백수십 명에 이르러 전부 기록할 수 없다.

공은 이미 재예가 있고 게다가 장수하였으며 자손도 많았으니, 법식에 따라 명을 짓는 게 마땅하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이 무덤은	惟茲原
공이 스스로 점지한 곳	公自扞
처음엔 바꾸려 했지만	初欲改
만년에 하늘로 돌아갔네	晚歸天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地而天
술법에 뛰어난리니	於術賢

공을 본받는 사람
의당 앞서는 바 있으리
고로 이처럼 명을 새겨
만년에 전하리

學公者
宜所先
故刻此
詔萬年

숙인 구씨 묘지

淑人具氏墓誌

장성(長城) 고을의 선생인 망암(望庵) 변공(邊公)⁶에게 현손(玄孫) 휴(然)⁷가 있는데, 나[挺翼]의 벗이다. 장차 조모(祖母) 숙인 구씨(淑人具氏)를 장사 지내려고 종부제(從父弟)인 진사(進士) 수(脩)에게 행장(行狀)을 전해 주면서 말하기를 “사람이 그 선조를 기록하는 것은 대개 찬미하려는 것인데 실제 모습을 중시하지 않으며 멀리서 사적을 구하고 친히 내왕하며 정성스럽게 지냈던 사실을 버리니, 부화(浮華)하고 과장하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이웃의 벗인 기정익(奇挺翼) 씨는 비록 일찍이 사람들의 부탁에 응하여 묘지(墓誌)나 묘갈을 지은 적이 없지만 지금 묘지에서 만일 사실을 기록하고 과장

6 망암(望庵) 변공(邊公) : 변이중(邊以中, 1546~1611)이다. 망암은 그의 호이고, 자는 언시(彦時), 본관은 황주(黃州)이다. 1568년(선조1) 사마시에 합격하고, 1573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관직에 있다가 1605년 사직하고 고향 장성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냈다. 학문을 좋아하고 선행을 즐겨하여 성혼(成渾)과 이이(李珣) 등 제현(諸賢)에게 인정받았다. 군사전략에도 밝아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큰 공을 세웠다. 그가 지은 <총통화전도설(銃筒火箭圖說)>과 <화차도설(火車圖說)>에 의거하여 화차(火車)를 제조하여 행주대첩에 기여하였다. 이조 참판에 증직되고, 장성 봉암서원(鳳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에 《망암집(望庵集)》이 있다.

7 휴(然) : 변휴(邊然, 1640~1699)는 조선 인조 때의 학자로, 자는 미경(美卿), 호는 청류당(聽流堂), 본관은 황주(黃州)이다. 전남 장성(長城) 출신으로, 망암(望庵) 변이중(邊以中)의 현손이다. 일찍이 학문에 밝아 당대의 명유(名儒)인 송준길(宋浚吉), 박세채(朴世采), 윤증(尹拯) 등과 교유하였다. 모암서원(慕岩書院)의 사액(賜額)을 청원하는 소(疏)를 올려 이를 성사시켰고,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조영규의 충신 정려(旌閭)를 조정에 청하였다. 사헌부 지평에 추증되었고, 장성을 장안리의 봉암서원(鳳巖書院)에 배향되어 있다.

되지 않으려면 거의 이 사람이 가까울 것이니, 가서 청하여라.”라고 하였다. 수(脩)가 이에 그 말로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사양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가 그 행장을 살펴보건대, 숙인의 계통은 능성(綾城)으로 인조(仁祖) 외가의 관향(貫鄉 시조(始祖)의 고향)이기 때문에 승격되어 주(州)가 되었다. 삼중대광 검교 상장군(三重大匡檢校上將軍) 휘(諱) 존유(存裕)가 바로 비조(鼻祖)이고, 좌승지(左承旨)에 추증된 휘 연수(延壽)와 단천 군수(端川郡守) 휘 응서(應瑞)가 숙인에게 증조(曾祖)와 조부(祖父)이다. 선고(先考)는 휘가 의중(義中)인데 일찍 돌아가셨고, 선비(先妣)는 참봉 휘 질순(質純)의 딸이다.

숙인은 만력(萬曆) 신축년(1601, 선조34) 5월 13일에 태어나 승정(崇禎) 기원후(紀元後) 을축년(1685, 숙종11) 3월 26일에 돌아가셨다. 숙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차분하고 조용하며 온화하고 유순하였다. 참판 구의망(具義綱)이 바로 숙인의 종조부(從祖父)이고, 또 내외 족당(族黨)이 모두 고관대작의 집안이다. 숙인은 눈에 고운 비단이 익숙하였지만 성품은 본래 검약하여 혼인하기 전에 사사로이 쌓아 두지 않았다. 나이 19세에 망암공(望庵公)의 손자인 주부(主簿) 휘 아무개에게 시집가서 부도(婦道)를 실천하였다. 일찍이 집안의 어떤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나치게 따져 가며 살림을 꾸리지 않으니, 시어머니 허씨(許氏)가 숙인을 편안히 여겨 항상 그 덕(德)을 칭송하였다. 지아비를 공경으로 섬기고 자식을 의(義)로써 가르쳤는데, 모두 온화하고 유순함을 위주로 하였다. 그 서출(庶出)인 아들과 딸을 어루만져 사랑하여 자신이 낳은 자식과 차별하지 않았다. 또 일찍이 남녀 하인을 모질게 부린 적이 없어서 비록 사나운 계집종과 완악한 사내종이라도 모두

숙인을 부모처럼 여겼다.

주부공(主簿公)이 과업(科業)을 공부하여 능히 문명(文名)이 있었지만 여러 번 예부시(禮部試 회시(會試))에 실패하였다. 처음 벼슬하여 감역(監役)이 되었는데 충익공(忠翼公) 이시백(李時白)이 실로 공을 천거한 것이다. 숙인은 공을 따라 한사(漢師 한양)로 가서 주부공의 종부제(從父弟)인 군수 명익(命益)의 집에 우거(寓居)하였다. 군수의 모부인(母夫人)은 바로 연평군(延平君) 이귀(李貴)의 딸인데 주부공에게는 큰어머니이다. 숙인은 그분을 어머니처럼 섬겨서 조금도 기심(機心 속이거나 책략을 꾸미는 마음)과 황급한 기색이 말과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 부인이 이에 사람들에게 알려 말하기를 “질부(妊婦)는 마음과 행실이 매우 순하여 그와 더불어 9대가 모여서 함께 살 만합니다.”⁸⁾라고 하였다. 이 부인은 세상에서 그 규문(閨門)의 범절로 칭송하는데도 오히려 숙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였다. 숙인은 일찍이 두 아들을 잃어 비록 상심(傷心)하며 애통하였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여 편히 해 드리기 위해 밤에 곡(哭)을 하려 들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주부공의 상(喪)을 당했을 적에 숙인의 나이는 이미 70세였지만 오히려 피눈물을 흘려 실명(失明)하였으니 숙인은 덕을 삼가고 행실에 힘썼다고 말할 만하다. 향년 85세이다. 5월 2일 주부공의 묘소 아래에 합장하였는데, 지세(地勢) 때문에 광(壙 피 구덩이)을

8 9대가……만합니다 : 원문은 ‘九世同居’이다. 장공예(張公藝)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4왕조, 즉 북제(北齊), 북주(北周), 수(隋), 당(唐)에 걸쳐 살며 장수한 인물로, 한 집에서 9대가 함께 살았다. 당나라 고종(高宗)이 태산(泰山)에 봉선(封禪)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집에 행차하여 어떻게 하면 친족이 화목하게 모여 지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장공예가 참을 인(忍) 자 100여 자를 써서 올렸더니, 고종이 훌륭히 여겨 비단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小學 卷6 善行》

달리하였다.

아들 네 명과 딸 두 명이 있는데, 장남은 세기(世機)인데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은 세노(世老)이고, 셋째 아들은 세추(世樞)인데 요절하고, 넷째 아들은 세구(世耇)이다. 정재성(鄭載誠)·김회경(金會慶)은 사위이다. 내외 증손과 현손은 무려 4, 50명이니 여기에 전부 기록할 수 없다. 적손(適孫) 휴(休)는 세기가 낳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짓는다.

살림 꾸리고 덕 실행함에	經理與德行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천하랴	孰貴孰賤
숙인이 취하고 버린 것 때문에	而淑人取舍
오래 살고 후손 번창하였네	遐壽蕃裔
은혜 베풀 때 차별하지 않았으니	報施不差
행실에 근본을 두어서라네	而本於行也
숙인의 행실을	淑人之行
내 광중에 새겨서	我銘其竈
후세에 알리노라	而以告來者

서序

소 제주⁹ 두산 를 보내는 서

送蘇濟州 斗山 序

귀천(貴賤)과 영욕(榮辱)과 득실(得失)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오직 실득(實得)한 군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요, 외적인 것을 사모하고 명성을 좋아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소후(蘇侯)를 알게 된 것은 바로 경자년(1660, 현종1) 봄이었다. 처음에 나는 사림(士林) 사이에서 그가 논의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기모(氣貌 풍채와 용모)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았는데, 오히려 만나서 이야기도 해 보지 못하고 파하였다. 이해 가을에 내가 또 한양에 올라가 있었는데, 소후는 이미 과거에 일등으

9 소 제주(蘇濟州) : 소두산(蘇斗山, 1627~1693)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망여(望如), 호는 월주(月洲),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1652년(효종3)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660년(현종1) 식년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제수되었고, 1663년 사간원 정언·사헌부 지평이 되었다. 직언 때문에 권신의 비위에 거슬려 외직을 전전하였다. 1672년 나주 목사로 있을 때 진흥책을 잘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1675년(숙종1)에 제주 목사로 부임하였고, 이후에 강릉 부사·의주 부윤 등을 거쳐 1688년 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듬해 기사환국으로 서인이 실각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고, 울분하다가 끝내 병사하였다.

로 합격하여¹⁰ 명성이 한양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온 나라 사람이 다 투어 그를 알고 지내고자 했지만 나는 망녕되이 이를 구하지 않았다.

당시 마침 그의 관사(館舍)¹¹와 나의 숙소가 이웃해 있고, 나의 벗 윤무숙(尹武叔)이 소후와 또한 연고(緣故)가 있었다. 무숙이 소후의 말로 인하여 와서 나에게 만나 보기를 권하였다. 이에 나는 무숙을 따라가서 가만히 그 관사에서 소후를 엿보았는데, 그 용모가 수수하여 마치 평소에 알고 지낸 사람 같고, 그 말씨가 온화하여 마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원문 빠짐-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자태가 있고¹² -원문 빠짐- 난초와 지초가 사람을 엄습하는 풍취가 있어 드디어 서로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그 관사에 모여서 날마다 그와 함께 있었다.

그 후에 나는 과거에 낙방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고, 소후는 이미 대성(臺省)에 출입하였다.¹³ 그런데 소후의 벼슬살이는 아버이를 위해서였으므로 결양(乞養)¹⁴하여 오산(鰲山)¹⁵을 다스리게 되었고, 3년이 지나

10 과거에 일등으로 합격하여 : 소두산(蘇斗山)은 1660년(현종1) 3월에 반시(泮試)에서 일등으로 합격하고, 4월에 전시(殿試)에서도 일등을 하였다.

11 관사(館舍) : 성균관(成均館)을 가리키는 듯하다. 소두산은 1660년 식년 문과에 일등으로 합격한 후에 바로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임명되었다.

12 소나무와……있고 : 《논어(論語)》〈자한(子罕)〉에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알 수 있다.[歲寒然後, 知松栢之後彫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13 대성(臺省)에 출입하였다 : 소두산은 1660년 6월에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제수되었다.

14 결양(乞養) : 조선 시대 때 문과에 급제한 사람으로서, 노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고향의 수령이 될 것을 주청(奏請)하던 일을 말한다. 결군(乞郡)이라고도 한다.

15 오산(鰲山) : 전라도 장성현(長城縣)의 이칭이다. 현재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에

나주 목사가 되었다. 나는 오산의 백성이었는데 나의 거주지가 또 나주와 이웃하고 있어서, 소후가 그동안 아버이를 영화롭게 잘 봉양한 일을 내가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아버이의 심지(心志)를 받들고 아버이의 구체(口體)를 섬김에 모두 극진히 하였지만 일찍이 한 터럭이라도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높은 자급(資級)으로 이어지고,¹⁶ 부친은 나이가 80세를 채우자 특은(特恩)으로 초계(超階)되었다.¹⁷ 이에 소후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이의 장수를 영광스럽게 여겨서 특별히 한번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전에 비해 한층 호사스러웠다. 고관대작을 널리 초청하고 오랜 벗들을 정성스럽게 예우(禮遇)하였다. 화기(和氣)와 상광(祥光)이 춘당(春堂)에 차고 넘치자 우재(尤齋 송시열의 호) 노선생(老先生)이 실로 그 일에 대해 서(序)를 지어 찬미하였다.¹⁸ 아! 지극하도다.

그러나 소후는 부친의 연세가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보고 이 때문에

‘오산리’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 16 높은 자급(資級)으로 이어지고 : 소두산(蘇斗山)의 문집인 《월주집(月洲集)》 권5의 연보(年譜)에 따르면, 나주 목사로 재임할 당시에 흉년이 들었는데 진휼(賑恤) 정책을 잘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고 한다.
- 17 부친은……초계(超階)되었다 : 《월주집》 권5의 연보에 따르면, 1668에(현종9) 소두산의 부친 소동명(蘇東鳴)은 시종신(侍從臣)의 아비라는 이유로 은사(恩賜)를 받았는데, 이에 소두산은 은사연(恩賜譚)을 베풀고 송시열(宋時烈)에게 <은연도서(恩譚圖序)>를 청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669년에 상소하여 부친의 가자(加資)를 청하였다. 시종신의 아비로 70세 이상인 자에게 가자하는 일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 18 우재(尤齋)……찬미하였다 : 《월주집》 권5의 연보에, 소두산은 42세 때인 1668년에 그의 부친이 시종신의 아비라는 이유로 은사를 받자, 은사연을 베풀고 송시열에게 <은연도서>를 청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한편 《송자대전》 권137에 <찰방소공은연도서(察訪蘇公恩譚圖序)>라는 글이 있다.

즐거워하지 않고, 경한(驚汗 놀라고 두려워 흘리는 땀)을 경계로 삼아 드디어 인끈을 던져 버리고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다음 해 봄에 과연 부친상을 당하였다. 사람들은 더욱 이 때문에 소후를 훌륭하게 여겼다. 또 나주에 있을 적의 노고(勞苦) 때문에 품질(品秩)을 더해 주었는데, 복(服)이 끝남에 미쳐 또 일질(一秩 일등급의 품질)로 기용(起用)하니, 화려한 옥정자(玉頂子)와 황금띠의 젊은 나이에 경(卿)이 된 것은 영광스러웠다. 전후의 은총을, 누군들 소후가 얻은 것이라 여기지 않겠는가마는, 소후는 이에 그 노고를 공적(功績)으로 여기지 않고, 조정에서 상(賞) 주는 격식을 그르쳤음을 크게 한스러워하였으며, 더욱 부극(拮克 조세를 함부로 받아내어 백성을 착취함)을 구실(口實)로 삼는 것을 근심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소(疏)를 갖추어 자핵(自劾 자신의 죄를 스스로 들어 보이며 책망함)하고자 하였는데, 올릴 만한 틈이 없었다. 사람들이 혹 소후를 지나치다고 여겼다.

지금에 이르러 시사(時事)가 한번 변화였는데, 소후가 일찍이 사사(師事)한 분과 동지들은 모두 외화(外禍)에 배척당하고, 게다가 이 법망에 저축될 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차례로 법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때 소후는 제주(濟州)를 다스렸는데,¹⁹ 제주는 암읍(巖邑 사방이 바윗들로 둘러싸인 험준한 고을)이요, 소후는 위태로운 처지였으나, 제주 목사로서 거의 화를 면하였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는 비록 그가 먼 밖에 있는 것을 근심하였지만, 아는 자는 혹 그를 축하하였다.

19 소후는 제주(濟州)를 다스렸는데 : 소두산(蘇斗山)은 1675년(숙종1) 6월부터 1676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제주 절제사로 재임하였다.

소후가 개탄하며 말하기를 “근심하는 것은 참으로 말할 나위도 없고 축하하는 것도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다만 벼슬길에 나아가든 나아가지 않던 간에 절조를 한결같이 할 뿐이다. 내 이미 죄를 얻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그 뜻을 같이하고 그 진퇴(進退)를 함께하였다. 저들이 모두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 홀로 편안히 집에 있었다면 나는 참으로 부끄러웠을 것이다. 지금 다행스럽게 이 외딴섬에 있게 된 것은 바로 나의 바람이었지만 여전히 한스럽게도 관직을 띠고 있어 부끄러워할 만하다. 암움을 맡게 된 것을 나를 위해 근심해 주고, 화를 면한 것을 나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일어나 감탄하여 말하기를 “후(侯)께서 귀함을 잊고 저를 상대하면서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미천함을 잊고 후의 평상시를 살펴보고서는, 귀천(貴賤)과 영욕(榮辱)과 득실(得失)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이라 여겼는데 이제 더욱 이를 징험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 이른바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후께서는 능히 해내셨지만, 후께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인이 이른바 “성(省)의 낭관과 경조윤을 반드시 몸 구부려 줍는다[俯拾]”²⁰라는 것을 후께서는 이미 능가하셨지만, 또 이것을 행운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맹렬한 바람과 거센 파도 같은 놀랄 만한 재앙의 조짐이 일어남을 엿보고, 사망과 위욕(危辱)이 아침저녁으로 닥쳐오는데도 오히려 구

20 성(省)의……한다: 두보(杜甫)의 시 작품인 <입주행(入奏行)>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 ‘몸을 구부려 줍는다[俯拾]’는 것은 땅 위의 물건을 주워 올리는 것처럼 매우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차히 화를 벗어났다고 몹시 부끄럽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외물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이해(利害)로써 마음을 쓰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의리(義理)를 견득(見得)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아아, 소후(蘇侯)여! 훌륭하십니다. 떠나십시오, 나의 벗이여. 내 또한 어찌 그대가 자득(自得)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술잔이 세 순배 돌아가고 소후가 일어나자 나도 일어나 감탄하며 말하기를 “나의 벗이 의리에 있어서 이미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천하에 의리는 무궁하지만 중용은 능히 실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천하와 국가는 고르게 다스릴 수도 있고, 관작과 봉록은 사양할 수도 있으며, 흰 칼날은 밝을 수도 있지만, 중용의 도는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²¹라고 하였습니다. 소후께서는 이 중에 세 개는 이미 거의 해내셨는데 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시니, 또 장차 중용에서 그 정수(精髓)를 더욱 구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소후께서 저와 함께 힘쓰는 것인데, 그렇게 한 후에야 바야흐로 부동심(不動心)에 이르게 되겠지요.”라고 하였다.

소후가 “그렇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글을 써서 서(序)로 삼고, 이어서 시를 지었다.

대장부의 마음 알기 쉽지 않으니	大丈夫心未易知
사생과 영욕이 어찌 바뀔 수 있을까	死生榮辱詎能移
큰 고을의 옥부절, 애초 즐거워하지 않고	雄州玉節初非樂

21 천하와……없다 : 이 구절은 《중용장구(中庸章句)》 제9장에 보인다.

장기 서린 비와 남쪽 안개, 또한 슬프지 않네 瘴雨蠻煙亦不悲
 원우당²²의 명성을 다만 지극히 바랄 뿐이요 元祐黨名惟至願
 용릉에서 밭에 피난 분, 바로 우리 스승이라네²³

春陵脚血是吾師

누가 이별의 정자에서 아녀자의 눈물 흘리는가 誰沾兒女離亭淚
 대장부 마음은 알기 쉽지 않네 大丈夫心未易知

-
- 22 원우당(元祐黨) : 원우는 송나라 철종(哲宗)의 연호로, 원우당은 당시 채경(蔡京)이 주도하는 정국에서 왕안석(王安石)의 신법을 반대하다 처벌을 받은 정이(程頤)·사마광(司馬光)·문언박(文彥博) 등 119인의 문인 학자들이 속한 당을 말한다. 여기서는 기사환국 당시 송시열(宋時烈)을 위시한 노론 계열을 가리키는 듯하다.
- 23 용릉(春陵)에서……스승이라네 : 용릉은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지명인데, 남송(南宋)의 채원정(蔡元定)이 도주(道州)로 귀양 가다가 죽은 곳이다. “밭에 피가 났다.[脚血]”는 말은 유배 감을 의미하는데, 채원정이 위학(僞學)으로 몰려 도주로 귀양 갈 때, 지팡이를 짚고 나막신을 끌며 3천 리 길을 걸어갔는데, 적소(謫所)에 도착하고 보니 밭꾼치가 온통 피투성이었던 일에서 유래하였다. 여기서는 송시열이 장기로 유배 간 사실을 가리키는 듯하다.

설說

점옹설

店翁說

오성(箕城)의 동쪽 50리에 산이 있는데, 동구산(東龜山)²⁴이라 한다. 그곳에 떡과 향아리 만드는 것을 업(業)으로 삼는 전방(塵房) 하나가 있었는데, 가게 이름을 묵점(墨店)이라 하고, 혹은 앵점(嬰店)이라고도 일컬었다. 그 오른쪽 가장자리에 땅 하나가 있는데, 대나무와 암석이 있었다. 기옹(棄翁)이 거기에 살았으므로 그 호(號)를 바꾸어 점옹(店翁)이라 하였다.

객이 찾아와서 따져 묻기를 “기옹이란 뜻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점(店)은 또 무엇을 취한 것입니까?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그윽한 골짜기로 들어갔으니,²⁵ 내 어찌 그대의 뜻을 알겠습니까?”라고 하였다.

24 동구산(東龜山) : 현재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과 동화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25 높은……들어갔으니 : 원문은 ‘하교입유(下喬入幽)’인데, 좋은 것을 버리고 나쁜 데로 들어감을 비유한 말이다. 《맹자(孟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는 그윽한 골짜기에서 나와서 높은 나무로 옮겼다는 말은 들었어도,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그윽한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吾聞出於幽谷遷于喬木者，未聞下喬木而入於幽谷者。〕”라는 구절이 있다.

이에 주인이 답하기를 “아! 대저 전방[店]은 참으로 숭상할 만합니다. 그대가 어찌 내가 이 의미를 취했는지 알 수 있겠소? 전방에는 모두 각각의 업(業)이 있는데, 그 업은 대개 부지런해야 하고, 그 사람들은 대개 미천합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들을 취하여 쓰고, 미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업신여깁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원망하고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전방은 원망하거나 화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편안해하면서 범상하게 여기니, 어찌 그들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이겠습니까? 다만 그 직업이 이와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나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나 자신은 스스로 뛰어나다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비록 나를 업신여기더라도 나 자신은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개 그 직업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그 직업을 편안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일찍이 그 직업에 부지런히 힘쓴 적이 없으니 그 직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이 그 우직함을 지킨 적이 없으니 그 직업을 편안히 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직업이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그 직업을 얻지도 못하게 하고 편안하게 여기지도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직업이여, 직업이여! 내 장차 그 직업을 바꾸려 하는데, 지금 사는 곳이 마침 전방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옹(店翁)으로 내가 호를 삼았고, 전방의 직업은 내가 편안히 여기는 것이니 또한 즐겁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객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은 그럴듯하긴 합니다. 전방 사람은 먹고 향아리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아 그 직업을 편안히 여깁니다. 지금 그대에게 일이 없다면 독서하면 되고 병이 있다면 약을 복용하면 되는

데, 떡이나 향아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그 이름을 빌린 것이니, 빌린 것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라고 하였다.

주인이 말하기를 “떡을 취하여 나의 글자를 쓰고, 향아리를 빌려 나의 약을 달이니, 이는 전적으로 떡과 향아리의 실재를 얻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모르겠습니까만 무엇이 빌린 것이고 무엇이 실제인지요. 이에 대해 반드시 분별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주인이 그 호를 고수하였다.

정전에 대한 사사로운 논의

私議井田

삼대(三代) 이후에 맹자(孟子)가 처음으로 정전법(井田法)의 대략을 말하였다.²⁶ 그 후에 여러 유자(儒者)들이 이것을 부연하고 증익하여 자세해지기도 하고 간략해지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모두 선왕(先王)의 유제(遺制)와 맹자의 대의(大意)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부자(朱夫子)가 일찍이 이것들을 합하여 유설(類說)을 만들었으니²⁷ 정전제(井田制)를 지금 또한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혹자(或者)가 묻기를 “정전제를 지금 시행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정백자(程伯子 정호(程顥))가 말하기를 “어찌 옛날에는 시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 시행할 수 없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혹자가 지금은 사람이 많고 땅이 적다는 점을 가지고 의심하자, 정백자가 말하기를 “하늘과 땅이 물(物)을 낼 적에는 항상 서로 대응하여 균형이 맞게 합니다.”라고 하였다. 정백자가 또 말하기를 “지형(地形)이 반드시 넓고 평평하지는 않지만 방형(方形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구획(區劃)할 수 있으니 다만 산법(算法)을 이용하여 지무(地畝)를 쪼개어 계산하여 백성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전법은 지금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장자(張子 장재(張載))가 개연(慨然)히 생각하

26 맹자(孟子)가……말하였다 :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 제3장에 정전제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27 주부자(朱夫子)가……만들었으니 : 《주자대전(朱子大全)》 권68에 수록되어 있는 〈정전유설(井田類說)〉을 가리킨다.

기를, 비록 이것을 천하에서 시행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한 고을에서 시험해 볼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바야흐로 학자들과 더불어 옛 법을 논의하고 구획하여 몇 개의 정전을 만들었다. 이것으로 죽히 선왕의 유법을 추진하여 당세(當世)에 시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아아! 천년 뒤에 그동안의 몇몇 선생의 뜻을 생각해 보니, 옛날을 참작하여 지금에 통하게 하고 오래된 것을 미루어 헤아려 새로운 것을 만들어 후세에 반드시 시행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 아, 또한 지극하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에서 한번 추변(推變)하고 나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극히 어리석고 고루함을 잊고서 삼가 몇몇 부자의 유의(遺意)를 따라서 감히 아래와 같이 사사로운 의론(私議)을 짓는다.

옛 정전법에 의거하여 손익을 추변하다

依古井田推辨損益

○ 먼저 왕전(王田)을 확립해 놓고 민전(民田)을 합하여 명분을 세우려 한다.

장자(張子 장재(張載))가 말하기를 “지금 민전을 취하여 빈부를 고르게 조절한다면, 이를 원하는 자는 많고 원하지 않는 자는 적을 것이다. 모름지기 상하층 모두 원망하거나 성내지 않게 해야 바야흐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세상에서 정전법은 시행하기 어렵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부자들의 토지를 급히 빼앗아야 한다는 것으로 구실을 삼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만일 이를 처리함에 방법이 있게 하여 몇 년을 기약하면 한 사람을 형벌하지 않고서도 옛 법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처리함에 방법이 있게 한다고 말한 것은 지금 또한 추변할 수 있다.

대개 인정(人情)은 부귀하고자 하지 않음이 없는데, 부귀한 사람은 자기 한 몸을 위해서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개 자손에게 물려주고 여러 대가 지난 뒤의 후손까지도 비호하고자 한다. 그러니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아울러 얻기는 어렵다.

만일 부유함을 귀함으로 바꾸게 한다면 부유한 자가 마땅히 즐거워 따르는 것은 귀함으로 부유함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요,

자손들을 넉넉하게 하는 것을 또 아울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또 누군들 이것을 원하지 않을 자 있겠는가.

다만 국조(國朝)에서 구황(救荒)함에 벼슬을 팔아서 영직(影職)²⁸을 두었고, 노인을 우대하여 품계를 주어 노직(老職)²⁹을 두었다. 그런데 지금의 영직과 노직은 그 명분만 있고 그 실체는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것 보기를 거의 부뚜막 아래에서 양(羊)의 위(胃)를 익히는 자가 기도위(騎都尉)가 되는 것³⁰만 못하게 여기니, 인정이 또한 어찌 실질적인 부유함(實富)을 국가에 돌려주고 공허한 귀함(虛貴)을 취하겠는가.

가만히 살펴보건대, 국조에서는 참으로 공로가 있는 자는 비록 하찮고 작은 공훈이라도 반드시 모두 녹훈(錄勳)하고 봉군(封君)하며, 음덕(蔭德)이 그 자손에게까지 미친다. 이들이 사대부와 공경(公卿)의 사이에 늘어서는 것은 비록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모두 조정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그 인품과 재능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 이는 참으로 부자가 자신이 가진 것과 관직을 바꾸면서도 원망하고 성내지 않을 것이고 기쁘고 즐거워할 자가 많을

28 영직(影職) :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산직(散職)으로, 직함만 있고 직사(職事)는 없는 허직(虛職)이므로 '영직'이라고 했다.

29 노직(老職) : 80세가 넘는 관원이나 90세가 넘는 백성에게 해마다 정월에 은전(恩典)으로 주던 관직을 말한다.

30 부뚜막……것 :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인물이 아주 쉽게 관직을 얻는 것을 말한다. 《후한서(後漢書)》〈유현열전(劉玄列傳)〉에, 관작(官爵)을 받는 자들이 모두 장사꾼들이고, 혹은 요리사까지 있었으므로, 장안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뚜막 아래에서 중랑장(中郎將)을 기르고, 양(羊)의 위(胃)를 익히는 자가 기도위(騎都尉)가 되며, 양의 머리를 익히는 자가 관내후(關內侯)가 된다.”라고 했다는 말이 있다.

것이다.

마땅히 부자들이 (국가에 귀속시킨)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 품계의 군(封)에 봉(封)하는 것을 허여하되 모두 차등 있게 한다. 게다가 그 자녀는 각기 사람 수대로 백 무(百畝)를 받는 것에도 차등 있게 더 보태 주면, 이른바 “처리함에 방법이 있어 한 사람을 형벌하지 않고 옛 법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말이 거의 이것에 가까울 것이다. 경전(經傳)에 이르기를 “백성에게 공로가 있는 것을 용(庸)이라 한다.”³¹라고 하였는데, 부자가 나라에 토지를 귀속시키면 정지(井地 정전법에 따라 구획된 땅)가 회복될 것이니, 그 공이 어찌 다만 용(庸)에 그치겠는가. 지위가 현재의 훈로(勳勞 훈공(勳功))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니, 결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사·농·공·고(士農工賈)의 사민(四民)이 귀천에 있어서 심한 차등이 없지만, 우리 동방은 이른바 양반(兩班)·평민(平民)·공사노비(公私奴婢)가 있고, 또 승도(僧徒)가 있는데, 각각 차등이 있다. 양반은 논할 것도 없고, 방외(房外)와 서얼(庶孽)도 모두 지금의 녹훈(錄勳)하는 예(例)에 의거하여 수봉(受封)한다. 평민 이하는 수봉을 따를 수 없기에 갑자기 조정의 반열(班列)에 들어서게 할 수 없으니 별도로 면역(免役)·복호(復戶)³²·면천(免賤)·유음(有蔭) 등의 법으로 논상(論賞)하고, 승도는 주지(主持)·승장(僧將)·총섭(揚攝) 등의 호칭으로 논상한다.

31 백성에게……한다 : 《주례(周禮)》〈하관(夏官) 사훈(司勳)〉에 나오는 말이다.

32 복호(復戶) : 조선 시대 국가가 호(戶)에 부과하는 조세(租稅)나 요역(徭役)을 충신·효자·군인 등 어떤 특정한 대상자에게 감면하거나 면제해 주던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정지(井地)를 바친 자 이외에 면역 이하의 것을 여러 방법으로 도모하여 얻어낸 자와 주지 이하의 호칭을 다른 방법으로 모수(冒受 법을 어기고 함부로 받음)한 자에 대해 논상하는 것을 영원히 금지한다면, 토지를 바친 자가 전적으로 좋은 것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찌 수봉자보다 못하겠는가.

왕자(王子)와 제궁가(諸宮家)와 공신가(功臣家)의 경우는 애초에 왕전(王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를 귀속시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사적으로 전장(田庄)을 마련한 경우라면 궁가(宮家)나 공가(功家)를 막론하고 그 전부를 정지(井地)에 귀속시킨다. 정전법 가운데 분전(分田)과 제록(制祿)³³이 특히 후하면, 비록 배상하는 것이 없더라도 또한 어찌 원망하고 성내겠는가.

○ 봉작(封爵)으로 민전(民田)을 바친 자에게 보상하려 한다.

부자로 전지(田地)가 가령 일 정(一井) 미만이고 자녀 7~8명이 있는 자는, 그 자녀들은 각기 구수전(口受田)³⁴으로 논할 것이 없다. 전지가 비록 몇 정지(井地)이지만 자녀가 없다면 마땅히 전지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데, 4대손[高孫]은 또한 논할 것이 없다. 가령 전지가 일 정(一井)이 되고 3명 이하의 자녀가 적서

33 분전(分田)과 제록(制祿) : 분전은 전지(田地)의 분배를, 제록은 곡록(穀祿, 곡물로 주는 녹봉)을 제정해서 신하들에게 급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34 구수전(口受田) : 사람 수를 헤아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토지, 즉 구분전(口分田)을 가리키는 듯하다.

(嫡庶)를 따지지 않는다.- 있는 자로 전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자는 마땅히 종이품(從二品)의 군(君)에 봉하되, 평민은 면역(免役)과 복호(復戶)로 논상하고, 공사천(公私賤)은 면천(免賤)과 복호로 논상하며, 승도는 총섭으로 호칭해야 한다. 자녀가 6명 이하인 자로 전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자는 정삼품(正三品)의 군에 봉하되, 마땅히 증설하여 주어야 한다.- 평민과 공사천과 승도는 위와 동일하다. 자녀가 8~9명 이상인 자는 논할 것이 없다.- 평민과 천민은 동일하다.- 자녀가 없는 자로 전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자는 살아 있으면 정이품(正二品)의 군에 봉하고, 죽으면 논할 것이 없다.

전지가 이 정(二井)이 되고 자녀가 7, 8, 9명 이상 있는 자로 전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자는 마땅히 정이품의 군에 봉하고, 자녀가 6명 이하인 자는 종일품의 군에 봉하며, 자녀가 4명 이하인 자는 정일품의 군에 봉해야 한다. 자녀가 15~16명 이상인 자는 논할 것이 없다. 자녀가 없는 자로 전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자는 살아 있으면 정일품의 군에 봉하고 채읍(采邑 공신(功臣)에게 내리던 식읍(食邑))을 가질 수 있는데, 죽으면 논할 것이 없다.- 평민과 공사천 중에 정이품의 군(君)에 견주어지는 자는 면역, 면천, 복호하는 이외에 더욱 혜택을 베풀어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한다. 종일품의 군에 견주어지는 자는 혜택이 손자에게까지 미치게 한다. 승도(僧徒)는 도총섭(都總攝) 이하가 동일하다.- 전지가 삼 정(三井)이 되는 자 중에 자녀가 16명 이상 있는 자로 전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자는 마땅히 정이품의 군에 봉하고, 자식이 7~8명 이하로 전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자는 종일품의 군에 봉해야 하며, 자식이 3~4명 이하로 전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자는 정일품의 군에 봉하고 채읍을 가질 수 있는데, 자녀가 없는 자는

위와 동일하다. -평민과 공사천과 정일품의 군(君)인 자는 위와 동일하고 혜택이 증손에게까지 미치게 한다. - 이것으로 사목(事目)을 만들어 반포하여 내린 후에 민전(民田)을 모아 거두어 왕전(王田)이라 명명한다.

- 정전(井田)을 설치하여 이를 관장(管掌)하려 한다.

정직하고 공명하고 재능과 도량이 있는 자를 1명 선택하여 정전을 관장하도록 한다. 그 나머지는 좌이(佐貳 참의(參議))와 낭료(郎僚 정랑(正郎))와 각 도의 어사(御使)가 정직하고 공명한 자를 스스로 선택하여 입계(入啓)하고 분장(分掌)하도록 하여한다.

- 호적(戶籍)의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

남자와 여자, 장정과 쇠약자, 노인과 어린아이를 모두 헤아리는데, 자세하게 하여 빠뜨리지 않는다.

- 어사를 분견(分遣)하고 한 지역을 선택하여 옛 정전을 구획하여 계산하는 준칙(準則)을 만들려고 한다.

어사로 하여금 순행(巡行)하여 각 고을에 이르게 하여 옛 정지(井地)를 구획할 만한 넓고 평평한 정방형의 전지(田地) 하나를 택하여 옛 정지에 의거하여 9백 무(畝)를 구획한다. 보(步)를 세워 무(畝)를 만드는데, 여섯 자를 1보로, 1백 보를 1무로, 1백 무를

1부(夫)로 한다. 정지(井地)의 둘레가 1리(里)인데, 이것은 9부(夫)이고 8가구(家口)가 이를 공유한다. 한 지아버와 한 지어미가 사전(私田) 100무와 공전 10무를 받으면 8가구가 받는 전지(田地)는 8백 8십 무가 된다. 나머지 20무에는 여사(廬舍)를 짓는다. 이것은 옛 정전(井田)의 형태로 만든 제도이다. 지금은 마땅히 산법(算法)으로 1백 무씩 쪼개어 계산하고 9백 무를 통틀어 계산하여 그 대소(大小)를 정하여 셈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1정(井) 안에서 경계와 봇도랑(溝)과 길(塗)에 수용된 땅을 제외하고, 각각에 1보 너비의 땅을 채워 넣어 정전을 정한다. 이후에 경계의 땅을 바로잡고, 1정의 지무(地畝 농토)를 헤아려 보며, 곡식을 심은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계문(啓聞)한다.

○ 전지(田地)의 모양이 넓든지 좁든지 뽀족하든지 경사지든지 구애되지 않고, 산법(算法)을 이용하여 농토를 쪼개어 계산하며, 시험 삼아 9백 무를 옥척(玉尺)-지금의 지척(指尺)-으로 구획하여 정전(井田)을 만든다.

농토는 좁은 것을 합쳐 넓히고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에 붙이는데, 정지(井地)에 준(準)한다. 농지는 요컨대 1백 무(畝)를 채우면 1부(夫)가 되고, 9부를 1정(井)으로 하는데, 그 농지의 품등(品等)의 차례에 따른다.-상·중·하(上中下)는 아래에 보인다.- 또한 경계로 수용된 것은 위의 경우와 같이 제외한다.

○ 논과 밭을 참작하여 그 많고 적음에 따라 고르게 정한다.

삼남(三南 충청·전라·경상) 지역은 논이 많다. 서쪽·북쪽·동쪽 지역은 거의 모두 밭인데, 서쪽과 동쪽 지역은 논이 그래도 열에 하나는 되지만 북쪽 지역은 논이 전혀 없다. 토지의 품질은 세속의 기호(嗜好)가 각기 다른데, 지금은 마땅히 옛 분류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논이 많은 곳은 논을 헤아려 밭에 들여보내어 밭이 논의 3분의 1이 되게 하고, 밭이 많은 곳은 밭을 헤아려 논에 또한 그렇게 하는데, 모두 그 지역의 관습에 따른 것이다. 농토의 품질은 그 차이에 따라 상·중·하로 하는데, 매마른지 습한지 비옥한가 척박한가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상·중·하의 세 품등으로 나눈다.

○ 상등급 농토의 일부(一夫)는 1백 무(畝)요, 중등급 농토의 일부는 2백 무요, 하등급 농토의 일부는 3백 무이다.

정지(井地)를 구획할 때는 특별히 더욱 증감(增減)을 자세히 살피고, 백성들의 말을 전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며 또한 생각에 따라 억지로 정해서도 안 된다. 하나의 정지(井地) 안에는 또한 좋고 나쁜 토지가 많으니, 모두 공정히 하는 데 달려 있다.

○ 시험 삼아 해 본 구획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백성의 수(數)를 정전의 수량에 분속(分屬)하고, 그 남거나 부족한 것을 살펴 구획을 정한다.

정자(程子)의 ‘하늘과 땅이 물(物)을 낼 적에는 항상 서로 대응하여 균형이 맞게 한다.’라는 견해에 따르면, 지금 백성의 수와 토지의 수량이 서로 맞아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다만 정전(井田)을

보무법(步畝法)으로 구획함에 척양(尺樣)의 크기와 재제(裁制)한 양이 같지 않은 것은 모두 사람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니, 가령 수량이 남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핑계 대기만 하고 변통할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에게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이를테면 사람이 많고 토지가 적으면, 혹 그 척양을 바꾸거나 혹 그 무(畝)의 수량을 줄여서 추이(推移)하고 변통(變通)하여 그 줄인 수량을 헤아려서 남은 것을 미루어 정전을 만드는 것인데, 정전은 반드시 백성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백성이 적고 토지가 많으면, 또한 척양과 무의 수량으로 추이하고 변통하여 증익(增益)한다. 또 백성을 정전의 수량에 준(準)하도록 하여, 요컨대 남은 정전을 모두 미루어 남겨 두었다가 백성 가운데 어린 자가 나이가 차서 전지(田地)를 받을 때를 기다린다.-나머지는 아래에 보인다.-

○ 백성의 수와 전지(田地)의 수량이 서로 비슷해진 후에 경계를 바로잡아 견고하게 쌓고 흙을 북돋아 나무를 심어 무너지지 않게 한다.

매양 한 구역을 빙 둘러 작은 경계를 정하고 또 한 정전(井田)으로 한정하여 큰 경계를 정하는데, 반드시 가로와 세로를 정방형(正方形)으로 할 필요는 없고 땅의 넓고 좁고 길고 짧음에 따르며 너비 4척 높이가 2척을 기준으로 한다. 도랑을 통하게 하고 길을 열며 흙을 북돋아 나무를 심어 견고하게 쌓아 파손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한다. 만일 남의 정전(井田)을 잠식하는 자가 있으면 응당 무거운 형벌이 있다. 정전의 구역에 고개를 넘고 개천을 지나

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따라 경계를 세우는데 비록 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아무[某] 정전의 아무 구역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하니, 사방에 꽃말을 세우고 나무에 글씨를 새겨 세월이 지나도 폐기되지 않게 한다.

○ 여사(廬舍) 20무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준다.

8가구에 각각 5무씩인데, 지금 백성들의 거처는 일정한 곳이 없으나 정전법을 시행한 후에는 또 반드시 일정한 곳이 있게 되어 전토(田土)를 따라 옮겨 가 살 마을이 있을 것이다. 매양 정전(井田) 밖의 거주할 만한 곳에는 각각 20무를 남겨 두고 정전 안에 들이지 않는다.

○ 규전(圭田)³⁵과 세록(世祿)을 합쳐 제록(制祿) 안에 귀속시킨다.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세록이란 토지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공전(公田)의 수입을 먹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예기(禮記)》〈왕제(王制)〉에 ‘규전에는 세금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마땅히 공전의 세록을 시기를 엿보아 그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35 규전(圭田) : ‘정결한 전지(田地)’라는 의미인데, 이 전지에서 제사용 곡식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지칭한 것이다. 규전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 여부(餘夫)³⁶ 또한 사람의 수에 따라 토지를 주는 것이 이와 같다.

맹자(孟子)의 말을 살펴보면, 여부에게는 25무(畝)를 준다고 하였는데, 이는 한 사람에게 10무를 주는 것에 상응하지 않는다. <식화지(食貨志)>에 이르기를 “또한 사람의 수에 따라 토지를 주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예를 지금 따른다.

○ 공경대부(公卿大夫)와 사인(士人)으로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옛 정전법에 의거하여 토지를 주려 한다.

정자(程子)는 말하기를 “일부(一夫)는 위로 부모가 있고 아래로 처자가 있으니, 다섯 식구와 여덟 식구를 기준으로 삼아 토지 백무(百畝)를 받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옛 정전법인데, 상하와 귀천을 막론하고 균등하게 토지를 받는 유법(遺法)이다. 다만 군자와 소인은 차이가 있으니 군자는 스스로 경작할 수가 없으므로, 주자(朱子)가 말하기를 “대저 옛날의 전록(田祿)³⁷은 모두 조법(助法)의 공전(公田)으로 채운다.”라고 하였다. 8가구가 이 때문에 규전(圭田)에 소속되는 것은 아마도 또한 이와 같다.

지금 마땅히 삼정승(三政丞)으로부터 사인(士人)에 이르기까지-조사(造士)·선사(選士)·생원(生員)과 진사(進士)·수사(秀士) 이외에는 모

36 여부(餘夫) : 나이 16세 이상으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내를 가리킨다. 그가 장성하여 혼인하고 가정을 꾸리면 일부(一夫)로 인정하고 그때 1백 무(畝)의 전답을 준다.

37 전록(田祿) : 관리에게 녹봉 대신으로 전토(田土)를 주는 것을 말한다.

두 사인(士人)에 들어갈 수 없다. ○조사와 선사에 대해서는 아래의 공거(貢擧)에 보인다.- 각각 1정전의 공전(公田)을 차등 없이 나누어 준다. 서민(庶民)은 수사(秀士)에 들어가지 않은 자 이하로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양인(良人)·서리(書吏)·관리(官吏 아전)·공사천(公私賤)을 막론하고 또한 다섯 식구나 여덟 식구를 기준으로 삼아, 전례대로 각기 사전(私田) 백 무와 공전 십 무를 받는데,-아래와 같다.- 또한 차등이 없게 한다.

모두 나이 20세로 가정이 있게 된 이후로 59세까지 토지를 받는데, 나이가 어리지만 부모가 없는 자와 자녀가 없는 자와 형제와 함께 사는 자, 이 세 사람은 일부(一夫)와 같이 백 무를 받는다. 자식이 4~5명이 있는 경우에는 혹 호인(戶人)을 기준으로 하여 여덟 식구의 가구는 자녀가 많아서 고공(雇工)이 되기를 원하는 부류이다.- 합쳐서 7, 8, 9명을 이룬 뒤에 백 무를 받는다. 여부(餘夫)는 15세 이하이고 아버지가 없는 자는 고아(孤兒)로 논한다.-아래의 네 가지 조목에 들어간다.- 16세 이상으로 의지할 만한 형제가 없는 자는 전례대로 25무의 별경(別耕)을 받고, 16세 이상으로 함께 사는 형제가 있으면 나이를 막론하고 10무로 논한다. 비록 여부인데 16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경작할 수 있다면, 모두 그 부모에게 10무를 준다.

공상인(工商人) 5부(夫)와 승도(僧徒) 열 사람은 바로 농부한 사람에게 해당한다. 사노비는 10세 이후부터 마땅히 주인집에서 역(役)을 살아 30세 이전까지 해야 하는데, 식구 수대로 5무씩을 그 주인에게 준다. 역(役)에서 벗어날 때에 이르면, 반드시 그 주인이 관부(官府)에 서류를 올려 토지 주는 것을 청하길 기다렸

다가, 나중에 예(例)에 따라 토지 주는 것을 허락한다. 그 역(役)을 행하지 않은 자도 그 주인이 관부에 서류를 올려 문서를 청하길 기다렸다가, 나중에 예에 따라 전토(田土)와 여사(廬舍) 20무를 준다. 지금 사람들은 반드시 전토에서 경작하지 않더라도 고을에 거주하거나 마을에 터를 잡고 합쳐서 5무 받는 것을 청하면 들어준다. 혹 전토를 따라 이주하길 원하고, 혹 관부에서 전토를 나누어 주어 백성을 이주시킬 때는 아울러 본인이 편한 대로 하도록 들어준다.

하씨(何氏)가 말하기를 “상전(上田)은 1년에 한 번 경작(耕作)하고, 중전(中田)은 2년에 한 번 경작하며, 하전(下田)은 3년에 한 번 경작한다. 비옥한 토지는 혼자서만 경작하여 즐거울 수 없고, 메마른 토지는 혼자서만 경작하여 괴로울 수 없으니, 3년에 한 번씩 토지를 교환하고 거주지를 바꾼다.”라고 하였다. 전지(田地) 안에는 나무가 있을 수 없는데, 오곡(五穀)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밭에는 토양에 알맞은 곡식을 심도록 허락하고, 논의 파종과 경작과 이앙(移秧)도 토양의 적합함에 맡긴다. 뽕나무를 심고 가축을 기르는 것을 관부에서는 더욱 이를 권면하고 감독하여 반드시 늙은이는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도록 기약한다. 낮에 띠풀을 베어다 밤에 새끼를 꼬고 지붕에 올라가고 울타리를 치고 남새밭을 가꾸며, 농기구를 수리한다. 농사지를 때가 되면 일찌감치 밭 갈고 파종하고 이앙하며, 몇 번 김매고 부지런히 관개(灌漑)해야 한다.

공전(公田)을 우선 경작하고 사전(私田)을 나중에 경작하는 따위의 일은 정장(井長 정전의 관리자)부터 이를 술선해야 하는데,

1정(井)을 통솔하여 규찰(糾察)하고 해야 할 일을 권면한다. 만일 그 집에서 법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부에 알리고, 작은 죄는 정장이 직접 판결한다. 정장이 맡은 임무를 능히 감당하면 연이어 1정(井)을 담당하게 하는데, 마땅히 농사지어야 하는 자는 돌려보내고, 그 자신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벌주고 교체한다. 겨울에는 같은 동네 부녀자들이 밤에 길쌈을 하여 한 달에 45일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서로 함께 하여 등유(燈油) 비용을 줄이고, 모여 익혀서 서툰 자가 잘하는 자를 배우게 한다.

○ 정전(井田)마다 정장(井長) 한 사람을 정하여 정전법(井田法)의 조약(條約)을 신칙(申飭)한다.

정전 안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고 지혜가 있으며 근신(勤愼)하는 자 한 사람을 뽑아 관부(官府)에서 일을 맡기는데, 경계를 침삭(侵削)하지 않고 구혁(溝洫) 논밭 사이의 도랑에서 이로움을 독점하지 않도록 신칙한다.

○ 공전(公田)에 수납(收納)하는 조약을 정한다.

매년 수확할 때에 정장(井長)이 관가(官家)에 정고(呈告)하면, 본관(本官)의 수령이 날을 정하여 몸소 상전(上田 상등(上等)의 정전) 가운데 곡식이 그다지 여물지 않은 공전(公田)에 가서 즉시 곡식을 베고 따게 하여 그 곡식의 수량을 파악한다. 관가에 보내는 곡식은 말려서 취하고 다시 말[斗]로 헤아려서 도정(搗精)한

다. 또 수령은 모든 것을 몸소 살펴서 공정하게 할 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그 상등 정전(井田) 중의 공전의 곡식 수확량을 정한다. -관인은 구종(驅從) 1인과 일산(日傘) 드는 1인을 거느리고, 관가에서 점심(點心)을 가져온다. 노비 2인은 스스로 밥과 일체를 가져와서 전부(田夫)에게 피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이를 범하는 자는 수령이 잡아다 추문(推問)한다. - 또 중등과 하등의 정전 중의 공전에 가서도 이와 같이 한다. 다른 공전의 곡식도 한결같이 그 수량에 따라서 혹 쌀이나 혹 벼를 포구(浦口)에 내어다 관가로 보내는데, 각 지역에서는 국가의 법령[國令]에 의거해 시행하여 정식(定式)으로 삼는다.

○ 무릇 정전(井田)을 함께하여 출입하면서 서로 벗한다.

마음과 뜻을 함께하고 서로 우애하여 서로 침해하거나 능욕하지 않는다.

○ 지키고 망볼 때 서로 돕는다.

함께 힘을 내어 도적을 막고, 타인의 환난을 서로 모른 채하지 않는다.

○ 질병에 걸리면 서로 보살피 준다.

견문(見聞)과 의약(醫藥)으로 서로 근심해 주고 구휼(救恤)한다.

○ 공전(公田)의 세입(稅入)을 경창(京倉 한양의 세곡 저장 창고)에 보내 저장하여 국가의 비용에 공급하려 한다.

〈유설(類說)〉³⁸과 〈반지(班志)〉³⁹를 살펴보니 “세(稅)는 종묘(宗廟)·백신(百神)의 제사, 천자의 봉양(奉養), 백관(百官)의 녹식(祿食), 모든 일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공상(工商: 기술자와 장사치)과 형우(衡虞: 산림이나 못의 관리인)의 세입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

○ 공전으로 제록(制祿)하려 한다.

〈반지〉를 살펴보니, 옛날에 천자의 경대부(卿大夫)는 채지(采地)가 실로 6천 4백 정(井)이었다. 이는 백 승(百乘)의 집안을 가리키는데, 그 토지가 병거(兵車) 백 승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라면, 이것에 의거하여 옛날 천자의 백관(百官)에 대한 제록(制祿)이 넉넉했음을 알 만하다. 그 후 역대의 제록은 비록 상고할 수 없지만, 한(漢)나라에서는 2천 석(石) 자사(刺史)가 있을 정도였으니 그 녹봉 또한 많았다고 한다.

우리 동방은 협소하여 비록 중국에 견줄 수 없지만, 고려조의 제록을 보면 일품(一品)이 또한 3~4백 석에 이르렀으니 중국이 번성했을 때와 견줄 만하였다. 우리 동방이 통합된 초기에는 모두

38 유설(類說) : 주자(朱子)가 지은 〈정전유설(井田類說)〉을 가리킨다.

39 반지(班志) : 반고(班固)가 저술한 《한서(漢書)》〈식화지(食貨志)〉를 가리킨다.

세금이 적었지만 오히려 녹봉은 이처럼 많았다. 이를테면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조종조(祖宗朝)의 세금이 30분의 1에 가까웠으니, 세금이 적으면 녹봉도 적은 것이 그 형세이다. 지금 정전법을 시행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를 시행한다면 삼대(三代 중국 의 하(夏)·은(殷)·주(周)나라)에서 녹봉제도를 본받아서 앞 시기보다 다섯 배로 행할 것이니, 성심으로 대하고 녹봉을 후하게 주는 뜻⁴⁰을 어찌 다만 시행하지 않겠는가.

또 <반지(班志)>를 살펴보니 “기내(畿內)는 사방 천 리(千里)로서 제봉(提封 제후로 봉할 때 주는 땅)이 백만 정(井)인데, 구덩이·성지(城池)·마을·동산·거리를 제외하면 정해진 출부(出賦)의 면적은 6십만 정이 된다.”라고 하였다. 우리 동방은 영토의 넓이가 혹 만 리에 가깝다고 하고, -정인지(鄭麟趾)의 《여사지리지(麗史地理志)》에는, 만 리에 가깝다고 하였다.- 혹 2천 리라고 한다.- 고려조의 백문보(白文寶)는 천 리인 것이 둘이라고 하였다.- 이 두 견해를 절충해 보면, 우리 동방의 영토는 3천여 리 정도인데, 천자의 기(畿)에 견주어 보면 비록 3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한 미만이라 말할 수도 없다. 정해진 출부의 정(井)은 1백 8십여만 정에 가까우니, 그 공전(公田)의 세입은 종묘(宗廟)와 백신(百神)의 제사, 궁궐을 보살피는데 소용되는 공급 이외에 본조의 내외(內外) 많은 관리들의 봉급과 산반(散班 일정한 직무 없는 벼슬아치), 잡색(雜色), 여러 일의 비용에 주어진다. 그러니 비록 수만 정(井)의 공전을 이용하더라도

40 성심으로……뜻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성심으로 대하고 녹봉을 후하게 주는 것은 선비들을 권면하는 것이다.[忠信重祿, 所以勸士也.]”라는 구절이 있다.

오히려 어찌 국가의 비용에 충분하겠는가.

지금 왕자(王子)와 군(君)으로부터 삼정승에 이르기까지 정일 품은 10정(井)으로 채지(采地)를 삼고, 그 공전의 세입으로 녹봉을 삼으려 한다.-녹봉을 받는 사람 자신이 죽으면 3년 후에 거두어들인다.- 종일품 이하로부터는 품계에 따라 강등(降等)하여 정하고, 정이 품 이하로부터는 공전을 식록(食祿)으로 삼았으니, 이와 같이 하면 채지(采地)로서의 명목이 없게 된다. 규전(圭田) 50무는 옛 제도에 의거하고 세록(世祿) 또한 50무로 정하는데, 모두 차등이 없게 한다. 세록은 3대로 한정하고 규전은 생전(生前)으로 한정하며 파산해도 거두어들이지 않는다. 경(卿) 이하의 근시(近侍)에게 체직(遞職)할 때 녹봉을 주는 것은 옛 제도에 의거한 것이다. 산반과 잡색도 모두 차등이 있다.

○ 무릇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은, 사대부는 생전(生前)으로 한정하고 서민은 60세로 한정한다.

서민으로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자는 부부가 모두 생존해 있지만 자식이 없는 자의 경우인데, 그대로 여사(廬舍) 2무 반을 남겨 두고 따로 전지(田地) 20무를 받는다. 나이 70에 가까운 자로부터 8~90세인 자에 이르기까지는 비록 모두 생존해 있더라도 흠아비나 과부와 동일하게 여기니, 특별히 규휼할 대상 안에 있다.

○ 환과고독(鰥寡孤獨)⁴¹과 폐질자(廢疾者)⁴²를 특별히 보살핀다.

매년 이 네 부류의 사람과 폐질에 걸리고 의탁할 데가 없는 자를 기록해 두었다가 매월 초하루에 사람 수를 헤아려 양식은 하루에 2되, 장(醬)은 반 홉[合], 건어(乾魚)는 1미, 잡것은 1되, 급염(給鹽)은 3홉을 주되, 달[月]로써 이것을 상례(常例)로 삼는다. 매년 9월 초하루에는 유의(襦衣)⁴³와 무릎 아래로 3치를 내려간다.- 유고(襦袴 솜을 넣어 만든 바지)를 주는데, 적삼과 바지 각각 한 벌을 갖추어 준다. 3월 초하루에는 홀바지저고리와 겹바지저고리를 각각 한 벌씩 주는데 해[年]로써 이것을 상례로 삼는다. 공전(公田)의 쌀과 벼를 마련하여 주는데, 문왕(文王)이 반드시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우선시한 법을 따른다.⁴⁴-비구니와 총사(叢祠)의 늙은 무녀(巫女)는 이 범위에 들이지 않아서 간사함과 미혹함을 억제한다.-

○ 사대부로 하여금 각자 여자(餘子)로서-아직 조세를 내지 않고 부역(賦役)을 하지 않은 자를 여자라 한다.- 집에 있는 자를 가르치게 한다.

41 환과고독(鰥寡孤獨) : 백성 가운데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편에, 환은 늙었는데 아내가 없는 홀아비요, 과는 늙었는데 남편이 없는 과부요, 고는 어린데 부모가 없는 고아요, 독은 늙고 자식이 없는 늙은이라 하였다.

42 폐질자(廢疾者) : 고칠 수 없고 불구가 되는 병에 걸린 자를 가리킨다.

43 유의(襦衣) : 조선 시대 수직군(守直軍)이 겨울 3달 동안 입었던 상의(上衣)로, 가운데 솜을 넣고 안팎으로 생무명을 바쳐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임란 이후에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입는 옷을 가리킨다.

44 문왕(文王)이……따른다 : 주나라 문왕이 인(仁)을 베푸는 정치를 펼치면서 가장 우선해서 했던 일이 사궁(四窮)인 ‘환과고독’ 네 부류의 백성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었다.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文王發政，必先鰥寡孤獨.”라는 구절이 보인다.

8살에 소학(小學)에 들어가 가례(家禮)·육십갑자(六十甲子)·오행(五行) 및 글씨 쓰기와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비로소 집안에서의 장유(長幼)의 절차와 관혼상제(冠昏喪祭)의 의례를 알게 된다. 15세에 대학에 들어가 선왕(先王)의 예악(禮樂)을 배우고, 대략 조정에서의 군신(君臣)과 존비귀천(尊卑貴賤)의 차등을 대략 알게 된다.-나머지는 아래의 공거편(貢舉篇)에 보인다.-

○ 비(比)와 여(閭)에 반드시 장(長 우두머리)을 두고 숙(塾)과 서(序)를 지어 학문을 권장하고 농사를 권면한다.

<정전유설(井田類說)>에 이르기를 “5가(家)가 비(比)가 되고 5비가 여(閭)가 되며, 5주(州)에 이르면 향(鄉)이 된다.”라고 하였지만 시대의 형편이 다르니 이것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5가로부터 15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가 되고,-여(閭)와 리(里)의 크고 작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16, 7가로부터 30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閭)가 되며, 30가로부터 1백여 가에 이르기까지는 여로 나누어 장(長)을 세운다. 각각의 여에 숙서(塾序 학교)를 짓는데, 모두 동서(東西) 양쪽 방(房) 중간에 당(堂)을 두고-정장(井長)으로 하여금 온돌방에 돌아가면서 머물게 한다.- 각 집의 입학하는 여자(餘子)로 하여금 이곳에 모여서 강(講)하고 학문하고 기숙(寄宿)하게 한다. 비(比)와 여(閭)의 장(長)이 사(師)가 된다.-자세한 것은 아래 공거(貢舉)의 조목에 보인다.- 매양 봄여름의 평조(平朝 새벽 3~5시)에 여서(閭胥 여의 일을 관장하는 자)는 우서(右序)에 머무르며 비(比)와 여(閭)의 주민들을 점고(點考)하고, 정장(井長)은 이들을 모

두 거느리고 나간 뒤에 좌서(左序)로 나아가는데, 저녁에도 이와 같이 한다.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땀나무와 꿀을 가져오는데, 가 법거나 무겁거나 서로 나누어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늙은이는 들고 다니지 않게 한다.

○ 정전(井田)에 의거하여 군부(軍賦)⁴⁵를 제정하다.

소자(邵子 소옹(邵雍))가 이르길 “정지법(井地法)은 낙서(洛書)와 구궁(九宮)⁴⁶을 모방하였다.”라고 하였다. 지금 <정전유설(井田類說)>을 상고해 보니, 사방 1리(里)는 9백 무로, 세로는 길이가 1리이고, 가로는 사방 9백 무인데, 리(里)의 수(數)는 아래와 같다.- 1정(井)이고, 9백 묘이다.- 10정이 1통(通)이고, 9천 무가 10정이다.- 10통이 1성(成)인데 1성은 사방 10리이고, 9만 무이고 백정(井)이다.- 10성이 1중(衆)이고, 9천정(井)이다.- 10중이 1동(同)인데 1동은 사방 1백 리이고, 만정(井)이다. 10동이 1봉(封)이고, 9십만 정(井)이다.- 10봉이 기(畿)인데 1기는 사방 천 리이니, 9백만 정(井)이다.- 모두 9수(九數)로 미루어 정하였다. 옛날에 발재(發財 재화를 냄)하여 출병(出兵)함에 모두 이 법을 이용하였다.-안성 유씨(安成劉氏)가 이르기를 “옛날에는 3백 보로 1리(里)를 삼았다.”라고 하였다.-

○ 사람 수를 헤아려 발재(發財)하려 한다.

45 군부(軍賦) : 군용으로 바치는 세금이나 부역을 말한다.

46 구궁(九宮) : 낙서에서 발전한 것으로, 구성에 팔괘(八卦)와 팔문(八門)이 짝을 지어 그 운행하는 아홉 방위의 자리를 이르는 말이다.

살펴보건대 옛날에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역(身役)이 있었으니, <정전유설(井田類說)>에 이른바 “사람 수를 헤아려 발재(發財)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1동(同)은 사방 1백 리(里)로서 제봉(提封)이 1만 정(井)인데, 산천·구덩이·성지(城池)·마을·동산·거리의 3천 6백 정을 제외하고 정해진 출부(出賦) 6천 4백 정과 용마(戎馬) 4백 필(匹)과 병거(兵車) 백 승(乘)을 내도록 하였으니, 이는 경대부(卿大夫)의 채지(采地) 가운데 큰 것으로서 이를 ‘백승지가(百乘之家)’라고 일컫는다. 1봉(封)은 3백 16리로서 제봉이 10만 정인데 정해진 출부 6만 4천 정과 용마 4천 필과 병거 1천 승을 내도록 하였으니, 이는 제후의 봉토 가운데 큰 것으로서 이를 ‘천승지국(千乘之國)’이라 일컫는다. 천자의 기내(畿內)는 사방 1천 리로서 제봉이 1백만 정인데 정해진 출부 64만 정과 용마 4만 필과 병거 1만 승을 내도록 하였으니, 이는 방기(邦畿) 천리의 법칙이다.

우리 동방의 영토 넓이를 천자의 방기에 견주어 보면, 정해진 출부의 정(井)이 마땅히 백여 만 정을 넘어야 한다. 그 정(井)으로 그 사람 수를 헤아려 보면, 남자 식구가 3명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8식구의 집에서 남자 한 명당 각기 면포(綿布) 1필을 내야 한다. -7승(升) 40척(尺)이다.-

○ 부세(賦稅)로써 출병(出兵)하려 한다.

토지 4정(井)이 읍(邑)이고, 4읍이 구(丘)이다. 1구는 16정으로 용마 1필과 소 3마리를 낼 수 있다. 4구는 전(甸)인데, 64정으로

음마 4필과 갑사(甲士)를 갖추어 주고, 아울러 목구(牧具)를 보낸다. 우리 동방은 병기(兵器)를 사용하고, 병거(兵車: 전차)를 사용하지 않으며, 연해(沿海) 지역에서는 전선(戰船)과 병선(兵船)이 조선(漕船)의 역(役)을 대신하는데, 병거에 견주어 각각 경중(輕重)의 차등이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 나누어 정한다. 산과 육지에서는 갑사의 인원(人員)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더하고 혹 보졸(步卒)도 참작한다.- 소 12마리와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소도 쓸모가 없지만, 우선 두어서 군사를 호계(犒饋)하는 데 대비한다.- 갑사(甲士) 3인과 날래고 용감하고 씩씩하고 성실한 자를 선정(選定)하는데, 이들 모두 농역(農役)이 면제되고, 오직 활과 포(炮)를 익힌다.- 보졸(步卒) 72인과 몇 명의 사졸(士卒)이 대개 병거 1승(乘)을 부리는데, 지금의 기병과 보병(騎步)도 이 인원수(人員數)에 의거해도 무방하다.- 무기를 마련하여 낼 수 있다. 이를 일컬어 ‘사마법(司馬法)’이라 한다.-여기 이상은 <정전유설(井田類說)>의 내용이다.-

1동(同)은 1백 리(里) 이하로 위의 발재(發財) 조목에 보인다. 발재하여 출병함은 대개 두 가지 일인데 하나로 꿰뚫은 것이니, 반드시 상하를 참고하고 양(量)을 살펴 나누어 정한다. 1구(丘)인 16정(井)과 1전(甸)인 64정으로부터 천 리인 64만 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전(井田)의 수량으로 군부(軍賦)를 제정한다. 그런데 옛날에 “부세(賦稅)로써 군사를 낸다.”라고 이른 것은, 대개 부세는 민간에서 병력과 군장(軍裝 군인의 장비)을 제공하여 명령을 기다려 출동하기 때문이고, 그 여부(餘賦)⁴⁷로써 상공(上貢)한다. 지금 만일 이를 시행할 수 있다면 관가에서 부세를 독촉해

47 여부(餘賦) : 정부(正賦) 이외로 부가하는 부세(賦稅)를 가리킨다.

서 거두어들여 사졸(士卒)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관가에서 만일 그 본래의 수량을 줄인다면 사졸이 상언(上言)하여 정죄(定罪)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10필(疋) 이상을 범하면 교수형이고, 10필 이하를 범하면 사형을 감해 주며, 차차(次次)로 조율(照律 법을 적용함)하여 용서하지 않는다.

○ 병사를 각 아문(衙門)에 분속하러 한다.

안으로는 어영청(御營廳)⁴⁸·수어청(守禦廳)⁴⁹·총융청(總戎廳)⁵⁰·훈련도감(訓練都監)⁵¹과 밖으로는 각 도의 수륙군(水陸軍)과 각 진보(鎭堡)의 조군(漕軍)⁵²에 모두 이 병사들을 분속(分屬)시킨다. 어영청 이하의 군영(軍營)의 소속 병사들은 기내(畿內)와 각 도의 기내 부근에 사는 자로 영구히 정하고, 조수군(漕水軍)과 진포군(鎭浦軍)은 각기 연해(沿海) 지역의 본래 군현(郡縣)의 군대에

48 어영청(御營廳) : 조선 후기 중앙에 설치된 오군영(五軍營) 중 왕을 호위하던 군영을 말한다.

49 수어청(守禦廳) : 조선 시대, 오군영의 하나로, 남한산성을 지키고 경기도 광주·죽산·양주 등지의 여러 진(鎭)을 다스렸다.

50 총융청(總戎廳) : 1624년(인조2) 이괄(李适)의 난에서, 그 반군이 수도 외곽인 경기도의 방어망을 쉽게 뚫고 서울을 점령하게 되는 취약성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설치된 군영이다.

51 훈련도감(訓練都監) : 1593년(선조26) 임진왜란 당시 기민(饑民) 구제와 정병(精兵) 양성을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되었다가 후에 상설기구가 되었다.

52 조군(漕軍) : 조선 시대에 조운선(漕運船)을 타고 물건을 실어 나르던 일에 종사하던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본업에 종사했지만, 유사시에는 수군의 보충 전력으로 투입되었다.

있는 자로 영구히 정하며, 그 나머지는 각 도 군현의 군대에 있는 자들을 모두 육군으로 정하여 기내의 병사들과 바꾸거나 내왕(來往)하지 않는다.

각 군영의 대장으로부터 각 도의 병사(兵使)와 수사(水使), 그리고 각 진(鎭)의 첨사(僉使)와 만호(萬戶)에 이르기까지 모두 토지를 나누어 주고 녹(祿)을 제정해 주어 군영의 병사들이 관여하는 부포(賦布 세금으로 내는 배)를 절대로 침탈하지 않게 한다. 병사는 사장관(四長官)⁵³ 중의 요해처(要害處)에 군영을 설치하고 수사와 첨사와 만호는 옛 제도에 의거하며, 진(鎭)과 포(浦) 안팎의 대장과 첨사와 만호는 병갑(兵甲 병기(兵器)와 갑옷)과 사도(士徒)의 비용이 발생하면 계청(啓請)하여 부고(府庫)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다.

○ 여분의 부세(賦稅)를 부고(府庫)에 모아 둔다.

부세는 거마(車馬)와 병갑(兵甲)과 사도(士徒)의 역(役)을 제공하는데, -이상은 <정전유설(井田類說)>의 내용이다.- 옛날의 이른바 부세란 이와 같은 데 불과하였다. 하지만 정전법에 근거하여 부세를 늘릴 수 없으니, 병갑과 사도의 이용에 혹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병거(兵車)를 이미 이용하지 않고, 바다에 다만 배가 있어서 육지에 배를 제공하는 부세가 있다. 사졸(士卒)에게도 혹 감액

53 사장관(四長官) : 도(道)의 으뜸가는 고을 네 곳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호남은 전주(全州), 나주(羅州), 광주(光州), 남원(南原)이다.

(減額)하여 부세를 거두면 반드시 남아서 쌓아 두는 것이 있어서 결코 부세를 늘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말세[叔季]처럼 부세를 거두들인다면 국가를 어지럽히거나 망하게 하는 데로 귀결될 것이다.

○ 학교와 공거(貢擧)⁵⁴를 정하려 한다.

상서(庠序)⁵⁵의 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바로 정전법 중의 큰 절목(節目)인데, 성주(成周) 시대 빈흥(賓興)⁵⁶의 예는 이미 폐기되었고 한나라의 향공(鄉貢)⁵⁷의 이름이 겨우 남아 있다. 수·당(隋唐) 시대 즈음에는 오로지 사장(詞章)으로 인재를 취하였으니, 향공법은 그 이름까지 아울러 사라졌다. 이에 과거로 인재를 취하는 고루한 관습이 도리어 역대의 규정이 되었다. 고루한 규정 중에 고질적인 폐단이 점점 일어났으니, 백대(百代) 동안 잘 다스려지

54 공거(貢擧) : 재능 있는 지방의 자제(子弟)를 뽑아서 서울로 올리던 일을 가리킨다.

55 상서(庠序) : 학교를 가리킨다. 향교(鄉校)를 은(殷)나라에서는 서(序)라 하고, 주(周)나라에서는 상(庠)이라 일컫은 데서 유래하였다.

56 빈흥(賓興) : 인재를 손님으로 예우하여 등용한다는 의미로, 주나라 때 인재를 선발하던 방식을 가리킨다. 즉 향대부(鄉大夫)가 그 고을의 소학(小學)에서 어질고 능력 있는 인재를 천거할 적에 그들을 향음주례(鄉飲酒禮)에서 빈객으로 예우하며 국학에 올려보낸 것에서 유래하였다.

57 향공(鄉貢) :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때에 인재를 뽑던 방법을 가리킨다. 한나라 문제는, 주(州)에서는 한 명의 수재(秀才)를, 군(郡)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일정 수의 효렴(孝廉)을 추천하게 하여 수도에서 시험을 치러 관리에 임명하는 찰거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가 바로 당나라 때에 주현(州縣)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던 향공의 기원이다.

지 않은 것은 오로지 이 때문이었다. 성조(聖朝)에서 지금 혹은 정전법을 시행한다면 상서(庠序)의 가르침에 마땅히 차례대로 거행하는 가운데 빈홍의 훌륭한 점이 점점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과거(科擧)의 인습은 또한 갑자기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니, 우선 두 제도를 병존(並存)시켜 나란히 시행하다가 옛 제도를 회복시켜 나중에 잘 시행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러므로 주부자(朱夫子)의 사사로운 논의를 삼가 우러러보아 이와 같이 증손(增損)하고 변통(變通)하였다.

○ 성균관(成均館) 대사도(大司徒)를 설치한다.

삼정승(三政丞)으로 하여금 이조(吏曹)·예조(禮曹)와 함께 마음을 다해 유신(儒臣)과 은일자(隱逸者) 가운데 덕행을 겸비한 자를 방문하여 스승이 될 만한 자 한 명을 예를 극진히 갖추어 초빙하여 특별히 대사도의 지위에 제수한다. 대사도는 대제학(大提學)과 함께 문형(文衡)을 맡고, 대제학이 담당하던 덕행과 교도(敎導)를 대사도가 담당한다. -대사도는 이조·예조와 함께 덕행이 있는 자 9명을 매우 정밀하게 선택하는데, 선택된 자들은 대사성(大司成)과 각 도의 사성(司成)이 된다.-

○ 덕행과(德行科)를 세우고 공거법(貢擧法)을 행한다.

대사도(大司徒)가 이것을 담당하여 과목을 만들고, 주자(朱子)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규정⁵⁸으로 강령(綱領)을 삼는다. 이

것으로 교도하고 이것으로 인재를 취하며, 옛날의 공거(貢擧)에 의거해서 시행하여 이 과(科)에 붙이는데, 다만 옛 제도를 전일하게 회복시키되 점진적으로 한다. 절목(節目)은 아래에 있다.

○ 공거의 조목(條目)을 정한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 ○ 국가를 존경하고 경모(敬慕)한다. ○ 처자를 예우한다. ○ 형제를 공경한다. ○ 친구를 신뢰한다.-이상은 다섯 가지 가르침이다.- ○ 독서하여 이치를 궁구하고, 경전(經傳)을 폭넓게 배운다. ○ 의심나면 반드시 물을 것을 생각하고, 도(道)를 갖춘 사람에게 나아가 질정(質正)한다. ○ 정밀하게 생각하고 깊이 이해하며,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다한다. ○ 시비를 분별하여 그 취하고 버림을 정한다. ○ 마음에 터득함이 있고, 행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널리 배우고, 자세히 따져 묻고, 신중히 생각하고, 명백히 구분하고, 독실하게 실행한다.-

58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의 규정 : 남송(南宋)의 유학자 주희(朱熹)가 백록동서원에 정한 학규(學規)로, 백록동서원 계시(揭示)라고 한다. 그 내용은 유교사회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설명한 것으로, '수신(修身)·처사(處事)·접물(接物)'의 세 방면에 걸쳐 있다. 백록동서원은 지금의 장시성(江西省) 싱즈현[星子縣] 북쪽의 여산 오로봉(廬山五老峯) 밑에 있었는데, 이곳은 당대(唐代)의 이발(李渤)이 은거하여 백록(白鹿)을 기르고 독서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백록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5대(代) 10국(國) 시대 이곳에 처음 학교를 설립하였고, 이후로 주희가 남강군(南康郡)의 지사(知事)가 되었을 때 재흥시켜서 스스로 백록동서원의 원장이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천하의 학자를 초청하는 등 유교의 이상 실현에 힘썼다.

○ 먼저 사서(四書)와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사자(士子) 벼슬하지 않은 선비)에게 시험 삼아 강론(講論)하고, 이들을 학교에 나누어 입학시킨다.

과거(科擧)의 식년시(式年試) 1년 전에 대사성(大司成)과 각 도(道)의 사성(司成)이 명을 받들어 시강(試講)한다. 서울에서는 대사성이 주관하고 지방에서는 각 도의 사성이 나누어 시행한다. 열읍(列邑)의 향교에서는 호적을 구비하여 유학(幼學)을 골라서 뽑는데, 위로 공경(公卿)의 자제로부터 아래로 서열(庶孽)에 이르기까지 초시(初試)에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개의치 말고 모두 사서와 《소학》과 《가례》를 임강(臨講)⁵⁹하게 한다. 24책에서 각각 1장(章)을 내면서 주해(註解)를 아우르는데, 문의(文意)를 자세히 묻고 혹 의리(義理)를 강(講)하게 한다. 문의와 의리에 모두 능통한 자는 상(上)이 되고, 의리를 대략 이해한 자는 그 다음이며, 단지 문의만 이해한 자는 또 그 다음이 된다. 비록 구두(句讀)에 능하더라도 문의에 완전히 어두운 자와 단지 사서만을 이해하고 2서(書)를 이해하지 못한 자는 모두 취하지 말고 이들로 하여금 후강(後講)을 기다리게 한다.

오직 3서를 강(講)하는 데만 못하고 3서 이하에 완전히 어두운 자로, 힘써 배우기를 요청하여 후강을 기다리는 자는 받아들인다. 다만 2서 이하를 읽는 자는 지방에서는 향교에 보낸다. 6서에

59 임강(臨講) : 조선 시대에 스승이나 시험관 앞에 책을 펴 놓고 읽으면서 그 뜻을 풀이하던 일을 말한다.

완전히 통하지 못한 자를 서울에서는 잡학(雜學)에 보내고 지방에서는 본관(本官)에 맡겨 고하(高下)를 자세히 구별하여 각기 그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나이가 40세 이상인 자로 강(講)에 응시할길 원하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고, 나이가 20세 이하인 자로 후강을 기다리길 원하는 자는 받아들인다.-

○ 강서(講書)⁶⁰한 유생들을 모아 놓고선 예우(禮遇)하고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게 하며, 이들을 나누어 학교에 들여보낸다.

서울에서는 대사성(大司成)이 강서에 통과한 유생들을 사학(四學)⁶¹에 모이게 한다. 다음 날 대사성이 새벽에 학당에 들어가 북쪽 벽 아래에 서 있으면 유생들이 나란히 서서-25명씩 나누어 차례로 한다.- 대사성을 향해 재배(再拜)한다. 대사성이 답례로 재배하고 자리를 정해 앉은 후에 대사성이 특별히 예모(禮貌)를 더 갖추어 조용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질문하게 한 뒤에 대사성이 이에 완벽하게 답변한다. 국가에서 덕행과(德行科)를 특별히 설치하고 아울러 문예과(文藝科)를 존치시켜서 유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게 하여 과거에 응시할 것인지 취사선택하게 한다. 이어서 덕행 과목을 취해 강설한 후에 유생들 각자에게

60 강서(講書) : 조선 시대의 과거시험 과목의 하나로, 강경(講經)이라고도 한다. 시험관이 제시하는 경서(經書) 가운데 지정된 부분을 읽고 해석한 뒤, 시험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61 사학(四學) : 나라에서 선비를 양성하기 위하여 서울의 중앙과 동·남·서쪽에 세운 네 개의 학교로, 중학(中學)·동학(東學)·남학(南學)·서학(西學)을 가리킨다.

그 뜻을 말해 보라 칭한다. 유생 가운데 문예과를 따르길 원하는 자는 수사(秀士)라 일컬어서 한 권의 서적에 기록하고, 과거에 응시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는 선사(選士)라 일컬어서 한 권의 서적에 기록한 뒤에, 이 두 권의 서적을 학(學)에 모두 보관해 두었다가 이후 과거를 볼 때 문예안(文藝案)에 들어 있는 자는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한다.

학당의 과시(課試)는 옛 제도와 동일하게 하고, 이 문안(文案)을 이용하여 구액(舊額 예전의 학당 유생)을 물러나게 한다.-신액(新額: 학당에 새로 들어온 유생)은 우선 인원수를 정하지 않는다.- 그 한 권의 서적을 대사성이 별도의 책에 베껴 써서 대사도에게 올리는데, 두 권의 서적을 쓴 후에 유생들이 물러날 것을 고하고 재배하면 대사성이 답배한다. 다음 날 다른 학교에서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지방에서는 사성이 강(講)을 마친 후 그 다음 날 모두 학규(學規)와 같게 한다. 문예과를 따르길 원하는 자를 한 권의 서적에 쓰는데, 이를 수사안(秀士案)이라 일컫는다. 이 문안에 인관(印官)을 찍어 위아래 사람이 살펴보는데, 오로지 앞 시기의 향교 문안의 예(例)에 의거한다. 과거를 볼 때 오로지 이 문안에 따라 성적을 낸다. 이외에 혹 자격이 없는 이가 함부로 들어올 경우 그 사람을 전가사변(全家徙邊)⁶²하여 수령이 정배(定配)한다. 강(講)을 통과한 자는 그 수가 구액보다 적더라도 또한 폐할 수

62 전가사변(全家徙邊) : 조선 시대 죄인을 그의 전 가족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한 형벌을 말한다.

없다면 취한다. 후강(後講)을 기다리길 원하는 자와 2서(書) 이상을 강(講)한 자는 예전처럼 교안(校案)을 만든다. 과거에 응시 하길 원하지 않은 자의 서적을 선사안(選士案)이라 일컫는데, 사성이 이를 맡아 한 건(件)의 문서를 만들어 대사도에게 올린다. 나머지는 학규(學規)와 같게 하는데, 매양 향교에서 일을 시행한다.

- 생원과 진사를 모아 놓고선 예우하고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게 하며 두 과(科)로 나누어 과거에 응시하게 한다.

서울에서는 대사성(大司成)이 생원과 진사를 성균관에 다 모이게 해 놓고, -성균관에 거처하는 원점자(圓點者)도 참여한다.- 새벽에 들어가 예를 행하며, -먼저 분향(焚香)을 시행하되, 방차(榜次: 과거에 합격한 순서)를 따르지 않고 나이 순서대로 들인다.- 어려운 부분을 위와 같이 조용히 질문하게 한다. 이후에 덕행과를 따르길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서적(書籍)에 써서 대사도에게 올린다. 나머지는 옛 규정에 의거한다. 지방에서는 사성(司成)이 향교에서 행하고 강회(講會) 등의 일은 과거를 보기 전에 마친다.

- 덕행과(德行科)와 공거(貢擧)의 조목(條目)을 반포하여 두루 알린다.

생진 선사(生進選士)와 유학 선사(幼學選士)는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른다. 우선 인원수를 정하기 어려우면 서울에서는 백

명으로 제한하고 팔도(八道)에서도 백 명으로 제한하는데, 모두 생진(生進 생원과 진사)과 유학이 절반씩 차지하도록 한다. 인원수가 적더라도 오히려 정원수를 줄이고 인원수가 많아도 정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번(番)을 나누어 재(齋)에 거처한다. 대사도는 사목(事目)을 만들어 계하(啓下)하고 덕행과(德行科)와 공거(貢擧)의 조목(條目)을 서울과 지방에 반포하여 두루 알리는데, 해서체(楷書體)로 상세히 유시(諭示)한다. 이어서 덕행과에 응시한 생진 선사는 성균관의 동재(東齋)와 서재(西齋)에 거처하게 하고, 유학 선사는 사학(四學)에 거처하게 한다.

지방에서는 생진 선사와 유학 선사(幼學選士)가 향교의 동재와 서재에 나누어 거처한다. 성균관에서는 이들의 원점(圓點)⁶³을 면제하고, -문예과(文藝科)는 전(前)에 대로 한다.- 사학(四學)에서는 이들의 과시(課試)를 면제하며, -문예과는 전에 대로 한다.- 향교에서는 이들의 재량(齋糧 양식을 가지고 음)을 면제해 준다.-문예과와 상동(上同)이다.- 그 녹봉을 넉넉하게 주어-공전(公田)을 헤아려 학교에 주면, 또한 양현(養賢)과 봉사(奉事)를 설치하여 초하루를 기준으로 받들어 차례로 행한다.- 모두 은혜를 받은 마음으로 학문을 하게 하고, 조목 가운데 오교(五教)⁶⁴와 오사(五事)⁶⁵를 마치 아버지와 스승이 앞에

63 원점(圓點) : 조선 시대 성균관과 사학(四學)에서 행한 출석 점수를 말한다. 유생의 출결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학생들이 식당에 들어갈 때 도기(到記)에 점을 찍고 서명하게 하여 점수를 매겼다.

64 오교(五教) : 오륜(五倫)의 가르침. 즉 《서경(書經)》〈순전(舜典)〉의 부의(父義)·모자(母慈)·형우(兄友)·제공(弟恭)·자효(子孝)를 이르는 말이다.

65 오사(五事) : 홍범구주(洪範九疇)의 하나로, 외모, 말,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을 이른다. 외모는 공손해야 하고, 말은 조리 있어야 하며, 보는 것은 밝아야

서 귀에 대고 간곡히 일러 주어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한다. 서울과 지방의 선사(選士)는 혹 대사도(大司徒)에게 나아가 배우기도 하고 혹 본인이 거처하는 곳에서 임의대로 하기도 한다.

○ 대사도가 국가의 교육을 주관한다.

문신과 남무(南武)⁶⁶로 뜻이 있는 자는 모두 와서 배우고, 선사로 덕행과에 응시하길 원하는 자는 날마다 와서 나아가 배운다. 비록 원점(圓點)의 생원과 진사, 그리고 수사(秀士)라도 도(道)를 듣고자 하는 자는 와서 배울 수 있다. 다만 덕행과에 나아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만일 후회하여 저쪽을 버리고 이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대사도가 그의 학행(學行)을 살펴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이후에 대사성과 사성이 계청(啓請)하여 입적(入籍)한다. 지방에서 와서 배우는 자는 모두 그렇게 한다. 다만 공거(貢擧)는 본도의 사성과 본관에서 천거한 자를 전적으로 따르는데, 경사(京師)에 나아가 배울 수 없고 곧바로 향거(鄉擧 향시(鄉試))가 허락된다. 매양 초하루와 보름날 분향(焚香)한 후에 대사도가 명륜당(明倫堂)에 자리를 정해 주면 선사(選士) 이상은 모두 문고 배우고 듣고 강(講)한다. 만약 학당이 좁아 집중할 수 없다면 수일 후에 학당에 앉아 유학 선사(幼學選士)에게 강(講)을 시작하는데, 선생과 제자가 한결같이 송조(宋朝)의 호선생(胡先生)

하고, 듣는 것은 분명해야 하며,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66 남무(南武) : 남행(南行)의 무관(武官)이라는 뜻으로, 곧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조상의 음덕(蔭德)으로 받은 무관 벼슬을 말한다.

이 태학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혹 때때로 선생의 집에 나아가
청간(請間)⁶⁷하고 청익(請益)⁶⁸하여 한결같이 옛날의 배우는 자처럼 한다.-

○ 대사성(大司成)과 각 도(道)의 사성(司成)이 공거(貢舉)를 주관
한다.

대사성은 분향한 후에 날마다 관학(館學) 성균관과 사학(四學)을 돌아다니며 선사(選士)에게 그 배운 것을 강(講)하게 하고 경전(經傳)을 토론하는데, 그 마음이 과연 오교(五教)와 오사(五事)에 있는지 아닌지, 과연 그 마음이 오로지 학문과 의리상에 있어서 이욕(利欲)과 명예에 동요되지 않는지를 집중하여 자세히 살핀다. 혹 때때로 초빙하여 일에 대해 문의하고 말을 참고하며, 혹 때때로 집까지 방문하기도 한다.

그 마음과 학문이 과연 위와 같이 할 수 있는 자는 상(上)이 되고, 그 마음과 학문이 비록 의리를 순수하게 보존하지 못했더라도 또한 오교와 오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이 된다. 식견에 그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지를 반복하여 살펴본 후에 그 사람을 취하는데, 비록 오교와 오사를 마음에 두었더라도 뜻을 세움이 독실하지 않고 행동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자는 취하지 않는다. 노력하여 발전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명분상으로는 비록 학문을 하지만, 그 뜻이 벼슬이 높아지는 것에 있고 이욕에 동요

67 청간(請間) : 남들이 없는 곳에서 사사로운 말을 하기 위해 틈을 내어 달라는 부탁을 말한다.

68 청익(請益) : 제자가 스승에게 더 배우기를 청하는 일을 말한다.

되며 몸가짐과 행실을 단속하지 않는 자는 그 적(籍)에서 삭제한다.

각 도의 사성은 순시(巡視)하여 열읍(列邑)의 향교에 이르러 선사(選士)와 더불어 예를 행하고, 처음과 같이 강학하고 토론하기를 위와 같이 한다. 이어서 며칠을 머무르며 밤에는 관가(官家)에서 자고 낮에는 향교에 가서 유생들을 교도(教導)하고 권면(勸勉)함에 지극정성으로 하고, 예로써 대우하고 앞장서서 이끄는 또한 매우 정중히 한다. 때때로 본관(本官)과 함께 더욱 자세히 살피고, 또 본관으로 하여금 유생들을 이바지(供億)하게 하되, 절대로 박정(薄情)하지 않게 한다. 며칠 후에 또 다른 향교에 이르러 또 이와 같이 한다.

1년 안에 3번 돌아다니는데, 혹 선사(選士)가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을 방문하여 오로지 그 문견(聞見)을 자세히 살피는 것을 일로 삼고, 또 이를 본관에게 맡겨서 날마다 더욱 자세히 살핀다. 한 해가 끝날 때쯤 이르면 본관과 더욱더 상의(商議)하여 취하기를 위와 같이 한다. 취하지 않고[勿取], 힘쓰기를 권면하고[勸進], 적에서 삭제하는[刊籍] 따위의 일도 위와 같이 한다.

열읍(列邑) 중에 선사와 공사가 있으면 혹 누락(漏落)되지 않게 하고, 없더라도 구차스럽게 채워 넣지 않는다. 서울에서 25명을 취하고 팔도에서 25명을 취하여-선사(選士)와 공사(貢士)를 골라 뽑을 때, 선사는 서울이 1백 명이고, 팔도가 1백 명이고, 공사는 서울이 25명이고 팔도는 인원을 똑같이 나누어 오로지 식년시(式年試) 동당(東堂)의 인원수와 같게 한다.- 그 이름을 기록하여 계문(啓聞)하고 사학(四學)에 이관(移關)한다.

다음 해 정월 본관은 예(禮)로써 이들을 진견(津遣)⁶⁹하고, 현차(縣次)⁷⁰와 속식(續食)⁷¹은 더욱더 정중히 예의를 차리며, 곧바로 사학에 이르게 한다. 계하(啓下)하면 대사성이 이를 받고 본관과 함께 서울로 들어가서 선사들이 머물 재사(齋舍)를 배정하고 그 이바지를 함께 한다. 이에 대사성은 각 도의 사성과 더불어 태학에 함께 모여 과거를 볼 서울과 지방의 공사들의 기록을 합쳐 하나의 책자(冊子)를 만들어 ‘공사안(貢士案)’이라 일컫는다. 임금이 계하하면 대사도에게 이관(移關)하고 대사도는 이를 받아서 태학에 올린다.

○ 덕행과(德行科)의 조사(造士)를 취한다.

대사도(大司徒)는 공사(貢士)가 말이 충실하고 신의(信義)가 있고 행동이 독실하고 정중하며 분노를 징계하고 욕심을 막고 잘못을 누우치고 착한 일을 하여서 과연 수신(修身)의 실질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핀다. 그 의(義)를 바르게 하고 이로움을 도모하지 않고 그 도(道)를 밝히고 공로를 따지지 않아서 과연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최선을 다하는지를 더욱 자세히 살핀다. 또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행하고도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을 반성하여 과연 물(物)을 접하

69 진견(津遣) : 행장을 꾸려 보낸다는 의미를 말한다.

70 현차(縣次) : 현의 관아에 마련되어 있는 방을 말한다.

71 속식(續食) : 지방의 과거 응시생들에게 서울로 올라가는 여정에 식량을 공급해 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는 요점을 알고 있는지를 더욱 자세히 살핀다. 오교(五敎)와 오사(五事)에 마음을 다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실제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대사도의 취사선택에 일임(一任)하여 다음 해 정월에 그 우열을 살펴서 그 차례를 정하고, 계문(啓聞)하여 윤택(允許)하면 덕행조사(德行造士)라는 명칭을 내려 주는데,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하여 태학에 있고, 조사(造士)는 창방(唱榜 합격자 발표)이 있는 후에 대사도가 이조(吏曹)에 합격자 명단을 보내면, 즉시 대간(臺諫)에 제배(除拜)⁷²하되 관직의 서열을 따르지 않는다. 조정의 논의를 통지(通知)하면, 지제교(知制敎) 이외에 홍문관과 이조에 제배한다.

다만 그 현능(賢能)한 자는 천거되고 천거되지 않음에 구애되지 말고 그 예우를 극진히 한다. 가령 결백한 행실과 변치 않는 절개가 없고 완전히 모릉(摸稜)⁷³에 빠져 구차한 일을 많이 행한다면, 대사도가 인피(引避)하고 별할 것을 청한다. 삼사(三司)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과연 족히 취할 것이 없다면, 논죄하여 삭출(削黜 관직을 빼앗고 내쫓음)하고 그 사성(司成)도 함께 처벌한다. 공사(貢士)로 태학에 있는 자에게는 예우와 이바지(供億)를 원점(圓點)의 생원·진사와는 특별히 다르게 하여 바로 벼슬길을 열어 준 뒤 온갖 일로써 시험해 보아 조사(造士)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게 한다.-이후는 위와 동일하다.-

72 제배(除拜) : 천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일을 가리킨다.

73 모릉(摸稜) : 결정을 짓지 못하여 가부(可否)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 덕행과의 급제자를 취한다.

대사도(大司徒)가 조사(造士) 중에 윤리(倫理)와 덕성(德成)과 행존(行尊)이 있는 자를 더욱 자세히 살펴서 다른 사람의 사표(師表)로 삼는다. 예로써 나아가고 의로써 물러가며 치체(治體 정치의 요체)를 환히 알고 있어 경륜(經綸)을 맡길 수 있는 자는, 대사도가 삼정승, 이조 당상(吏曹堂上)과 여러 차례 강론하고 정하여 다음 해 정월에 계문(啓聞)하여 덕행과 급제를 하사하는데,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창방(唱榜) 후에 급제자를 위로 삼정승으로부터 아래로 육경(六卿)과 대사도와 대제학에 이르기까지 관직의 서열에 구애되지 말고 비어 있는 관직에 따라 제배(除拜)하여 극진한 예로 대우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기용하여 경연(經筵)의 자리에 출입하게 하며 빈사(賓師)⁷⁴로서 존경한다. -과법(科法)에서는 관례적으로 해년(亥年)에 선사(選士)를 뽑고, 자년(子年)에 공사(貢士)를 뽑고, 축년(丑年)에 조사(造士)를 뽑고, 인년(寅年)에 급제(及第)를 뽑는데, 이것이 한 번 돌아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행한다. 이미 시행한 지 오래되어 과거 응시자가 많아지면, 차츰 정원(定員)을 늘린다. 다만 문예과의 경우는 폐지하면 옛 제도를 회복시킬 수 있다. -

74 빈사(賓師) : 빈객(賓客)으로 대우받는 학자를 가리킨다.

잡저 雜著

〈사의정전(私議井田)〉은 마땅히 여기에 있어야 한다.

역상해

易象解

○ 건괘(乾卦)

단괘 ‘건(乾)’이 하괘이고 단괘 ‘건’이 상괘이다. 즉 하늘의 반은 지상(地上)에 있고 반은 지하(地下)에 있어서 두루 돌며 순환한다. 하늘은 또한 굳세고 힘차게 운행하므로 굳자가 이를 배워 멈추지 않고 밝히니⁷⁵ 사람은 마땅히 강건해야 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강건해지고 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라고 하였다.

○ 곤괘(坤卦)

단괘 ‘곤(坤)’이 하괘이고 단괘 ‘곤’이 상괘이다. 즉 땅이 이미 두터운데 또다시 두터우니, 지극한 두터움이 중복되는 형세이다. 마땅히 그 두터운 덕을 체득하여 땅과 같이 만물을 자애롭게 품을 수 있는 관용

75 멈추지 않고 밝히니 : 원문의 ‘잡희(緝熙)’는 《시경》〈대아·문왕지십〉에 보이는 말이다. 즉 “거룩하신 문왕은 공경을 계속하여 밝히셨네. [穆穆文王, 於緝熙敬止.]”라고 하였다.

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덕을 두텁게 하여 만물을 보듬어 준다.”라고 하였다.

○ 둔괘(屯卦)

구름이 일고 우레가 치니 구름과 우레가 뒤섞여 하늘이 어두운데 우레의 일양(一陽)이 여러 음을 거느리고 다스리니, 마치 엉킨 실타래의 여러 실마리가 서로 뒤섞여 어지러운데 본 가닥을 잡아 실을 풀어 다스리면 어지러움을 풀 수 있는 것과 같다. 천하를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은 대개 이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대사를 경영하고 다스린다.”⁷⁶라 하였다.

○ 몽괘(蒙卦)

산에서 샘물이 솟는 것은 성(性)이 발하여 정(情)이 되는 것과 같으며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선(善)을 반드시 과감히 시행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선을 과감하게 행하고 덕성을 기른다.”라고 하였다.

○ 수괘(需卦)

상괘인 감괘는 술과 음식을 뜻하고 하괘인 건괘는 강건을 뜻한다. 술과 음식이 앞에 있으면 그것을 먹고 강건해야 한다. 사람이 험난한 상황을 만났는데 술과 음식을 먹지 못하면 비록 강건하더라도 곤란하게 되어 끝내는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곤란하지 않으려면

76 대사를 경영하고 다스린다 : 원문의 ‘경륜(經綸)’은 원래 실을 고르다는 의미였는데, 천하와 국가를 경영함을 비유하였다.

모름지기 먹고 마시며 연회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여 즐기다.”라고 하였다.

○ 송괘(訟卦)

하늘이 1로 물을 낳으니⁷⁷ 처음에는 똑같은 한 기운이었는데, 하늘은 위에 있고 물은 아래에 있어서⁷⁸ 끝내는 서로 어긋나게 되었다. 상괘가 하늘이고 하괘가 물인 상(象)으로 마땅히 그 시작을 본받아야 하니, 사람이 일을 할 때 끝을 잘 마치려면 시작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 시작을 잘 도모한다.”라고 하였다.

○ 동인괘(同人卦)

기(氣)가 상승하여 하늘과 불이 서로 동화(同化)하지만 불은 실제로는 하늘이 아니므로 본체가 각각 서로 다르다. 동화하였기 때문에 그 같은 것을 함께 묶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물을 구별해야 한다. 리(理)는 하나인데 분류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같은 종류를 함께 묶고 다른 사물을 구별한다.”라고 하였다.

77 하늘이……낳으니 : 생수(生數)는 오행상생(五行相生)의 수로 1, 2, 3, 4, 5이고, 성수(成數)는 오행상성(五行相成)의 수로 6, 7, 8, 9, 10이다. 《주역정강성주(周易鄭康成注)》에 “하늘의 1은 북쪽에서 수(水)를 낳고, 땅의 2는 남쪽에서 화(火)를 낳고, 하늘의 3은 동쪽에서 목(木)을 낳고, 땅의 4는 서쪽에서 금(金)을 낳고, 하늘의 5는 가운데서 토(土)를 낳는다.”라고 하였다.

78 하늘은……있어서 : 송괘의 하괘는 감괘(坎卦)로 물을 상징하고, 상괘는 건괘(乾卦)로 하늘을 상징한다.

○ 함괘(咸卦)

가장 높은 것은 산이고 가장 낮은 것은 호수이다. 높은 산으로써 호수의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니, 호수는 물건을 받아들이는 상(象)이 있고 산은 자신을 비우는 상이 있다. 그러므로 “겸허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한다.”라고 하였다.

○ 항괘(恒卦)

우레가 위에 있으니 곧 바람은 아래에 있다.⁷⁹ 항괘는 두 기(氣)가 그 자리를 바꾸지 않으며, 괘 가운데 3개의 양은 강건하게 자리 잡아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상(象)을 지녔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향을 확고하게 세워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돈괘(遯卦)

하늘이 비록 산을 감싸고 있으나 싫어하지 않는 상(象)- 오히려 서로 멀리 떨어져서-소인을 멀리하는 상- 침범하지 못하게 하니-위엄을 갖춘 상- 그러므로 “소인을 멀리함에 미워하지 않고 위엄을 지킨다.”라고 하였다.

○ 대장괘(大壯卦)

바르고 큰 기(氣)로 하늘만 한 것이 없는데 우레가 그 위에 있다. 바르고 큰 리(理)로 예 같은 것이 없는데 사람이 마땅히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가 아니면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79 우레가……있다 : 항괘의 하괘는 손괘(巽卦)로 바람을 상징하고, 상괘는 진괘(震卦)로 우레를 상징한다.

○ 진괘(晉卦)

태양이 지상으로 밝게 솟아오르는 것과 덕이 천하를 빛나게 덮는 것은 모두 스스로 밝히는 것이지 밖에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밝은 덕을 밝힌다.”라고 하였다.

○ 명이괘(明夷卦)

곤괘(坤卦)는 무리를 의미하고 리괘(離卦)는 불음을 의미하니, 즉 대중을 상대하는 상(象)이다. 밖으로는 어둡고 안으로는 밝으니 사물을 용납하는 덕이 있다. 그러므로 “대중을 상대할 때는 밝은 지혜를 감춤으로써 밝음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였다.

○ 가인괘(家人卦)

말은 안에서 나오는데 하괘인 리괘(離卦)의 밝음⁸⁰에서 근본하고, 행동은 밖으로 드러나는데 상괘인 손괘(巽卦)의 온순함에서 기인한다. 밝으면 성실하고 온순하면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말에 진실함이 있고 행동에 변치 않는 법도가 있다.”라고 하였다.

○ 규괘(睽卦)

불과 연못이 합쳐⁸¹ 형체를 이루었으니 천하에 합쳐지지 않을 사물이 없을 것이며, 불꽃과 물기는 본성이 다르니 군자는 구차하게 영합하는 이치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것을 취하면서도 다르게 행동한다.”

80 리괘(離卦)의 밝음 : 리괘는 불과 밝음을 상징한다.

81 불과 연못이 합쳐 : 규괘의 하괘는 태괘(兌卦)로 연못을 상징하고, 상괘는 리괘(離卦)로 불을 상징한다.

라고 하였다.

○ 건괘(蹇卦)

위태로움을 보고 그치는 것은 자신을 반성하는 상(象)이며, 가서 중(中)을 얻는다는 것은 덕을 닦는 상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반성하며 덕을 닦는다.”라고 하였다.

○ 해괘(解卦)

우레의 위엄에 호수에 비가 내리니⁸² 만물의 어려움이 풀어졌다. 허물이 있는데 지뢰(地雷) 복괘(復卦)처럼 회복하는 자⁸³는 마땅히 용서하고, 죄를 지어 위험에 빠진 자는 마땅히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허물을 용서하고 죄인을 너그럽게 대한다.”라고 하였다.

○ 손괘(損卦)

산과 호수의 상(象)이다.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면 아래는 마땅히 원망을 품고 위는 간혹 만족할 줄 모르는데, 태괘(兌卦)는 위를 받드는데 즐겁고 간괘(艮卦)는 아래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만둔다.⁸⁴ 그러

82 우레의……내리니 : 해괘의 하괘는 감괘(坎卦)로 비를 상징하고, 상괘는 진괘(震卦)로 우레를 상징한다.

83 지뢰(地雷)……자 : <복괘>의 상전(象傳)에서 “우레가 땅 속에 있음은 양기의 회복을 상징한다.”라고 하였으며, 초구(初九)에서 “미처 멀리 가기 전에 정도를 회복한다.”라고 하였으니, 전체적으로 양기를 회복하여 잘못이 더 크기 전에 원래의 선을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84 태괘(兌卦)는……그만둔다 : 손괘(巽卦)의 하괘는 태괘로 기쁨을 상징하고, 상괘는 간괘(艮卦)로 그만둘을 상징한다.

므로 “분노를 억제하고 탐욕을 막는다.”라고 하였다.

○ 익괘(益卦)

위를 덜어서 아래를 보태는 것은 건괘, 곤괘에서 근본하였다. 곤괘의 초육(初六)이 건괘의 아래에 자리 잡아 그 양강(陽剛)에 나아가고, 건괘의 구사(九四)가 곤괘의 아래에 자리 잡아 그 음유(陰柔)로 변화하였다.⁸⁵ 그러므로 “선행을 보면 그것을 따르고-양강에 나아가다.- 허물이 있으면 고친다.-음유로 변화다.”라 하였다.

○ 구괘(姤卦)

하늘의 호령은 바람을 통하여 펼쳐지는데,⁸⁶ 바람이 일어나면 만물이 모두 호응한다. 임금의 정교(政教)는 명령에 의해 시행되는데 명령이 이르면 사방이 모두 이에 따른다. 임금이 명령이 시행되는 것은 대개 구괘의 의미⁸⁷에서 취하였다. 그러므로 “명령을 시행하여 사방에 알린다.”라고 하였다.

○ 취괘(萃卦)

괘덕(卦德)으로 보면 온순하니 기뻐한다는 의미이다.⁸⁸ 온순하고 기

85 위를……변하였다 : 익괘의 하괘는 진괘(震卦)이고 상괘는 손괘이다. 전체 괘에서 진괘의 2, 3호와 간괘의 1호가 합쳐 곤괘가 되고, 나머지가 건괘가 된다. 이런 상태에서 곤괘의 1호는 간괘의 위에 있게 되고, 간괘의 3호는 곤괘의 아래에 있게 된다.

86 하늘의……펼쳐지는데 : 구괘의 하괘는 손괘로 바람을 상징한다.

87 구괘의 의미 : 기본적인 의미는 ‘남녀의 만남’이다.

88 괘덕(卦德)으로……의미이다 : 취괘의 하괘는 곤괘(坤卦)로 아랫사람이 온순함을 뜻하고, 상괘는 태괘(兌卦)로 윗사람이 기뻐한다는 의미이다.

빠하니 뜻밖의 근심에 대비하는 생각이 있다. 효(爻)의 위치로 보면
군세면서 순응한다.⁸⁹ 군세면서 순응하니 병장기를 미리 정비하는 상
(象)이다. 그러므로 “병기를 손질하여 뜻밖의 변란을 대비한다.”라고
하였다.

○ 승괘(升卦)

하괘인 손괘(巽卦)의 나무는 땅으로 들어가니 나무의 본성은 땅을 파
고든다. 상괘인 곤괘(坤卦)의 땅은 나무를 길러 주니 땅의 본성은 나
무를 기른다. 나무는 길러 주는 땅을 파고들고, 작은 것에서 자라 크
게 된다. 땅은 나무가 크는 것을 기르니 순응하여 성취해 준다. 그러
므로 “미덕을 순행(順行)하여 작은 것을 쌓아 높고 크게 한다.”라고
하였다.

○ 곤괘(困卦)

호수가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상이다.⁹⁰ 양(陽)이 음(陰)에 의해
가려지니 이윽고 괴롭고 궁핍하게 되어도 스스로 떨쳐 일어날 수 없
다. 그러나 위태로운데도 오히려 기뻐하니 능히 목숨을 바칠 수 있으
며, 군세면서도 중(中)을 얻었으니 실제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그
러므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89 효(爻)의……순응한다 : 즉 구오(九五)는 양괘가 와서 군세고, 육이(六二)는 음괘
가 와서 순응한다는 의미이다.

90 호수가……상이다 : 곤괘의 하괘는 감괘(坎卦)로 물을 상징하고, 상괘는 태괘(兌
卦)로 호수를 상징한다.

○ 정괘(井卦)

땅을 파서 물이 나오니 나무로 두레박을 만든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는데 두레박이 뒤집어지면 물이 우물로 쏟아지는 것이 정괘의 상(象)이다. 두레박으로 길어서 물을 올리는데, 물이 올라오면 그것으로 백성을 기르니 이것이 정괘의 덕(德)이다. 물을 길는 것이 비록 수고롭지만, 그 물은 실제 서로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군자가 백성을 부릴 때 처음에는 비록 수고롭지만 사람을 기르게 되면 실제로 서로 권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백성을 기르는 데 힘쓰며 서로 돕도록 권장한다.”라고 하였다.

○ 혁괘(革卦)

대개 이 괘는 둔괘(屯卦)에서 왔으니,⁹¹ 강(剛)과 유(柔)가 서로 변혁하였다. 우레의 목(木)⁹²이 위에서 변하여 불을 낳고,⁹³ 감괘(坎卦)의 물이 아래에서 막혀 호수를 이룬다.⁹⁴ 목·화·금·수는 네 계절의 순서이며 서로 생식(生息)하여 변혁하는 음양의 기이다. 역법(曆法)에서 날짜를 미뤄 계산하는 것은 이 이치를 말미암으니 그러므로 “역법을 만들어 사계절의 변화를 밝힌다.”라고 하였다.

91 이 괘는……왔으니 :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면 당연히 변혁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92 우레의 목(木) : 우레는 오행(五行)으로 보면 목(木)에 속한다.

93 우레의……낳고 : 둔괘의 하괘인 진괘(震卦)는 우레를 상징하며, 혁괘의 하괘인 리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94 감괘(坎卦)의……이룬다 : 둔괘의 상괘인 감괘는 물을 상징하며, 혁괘의 상괘인 태괘(兌卦)는 호수를 상징한다.

○ 정괘(鼎卦)

술은 반드시 발이 있어야 하니, 먼저 그 발을 바르게 자리 잡은 뒤에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익힐 수 있다. 사람은 반드시 지위가 있어야 하니 먼저 그 지위를 바르게 한 이후에 자신이 받은 명령을 완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가 부러져 음식을 쏟으니 부끄러울 일이고, 지위를 잃고 임무를 비워 두는 것을 면키 어렵다. 사람이 술의 상(象)을 본받을 수 있으므로 “지위를 바르게 하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였다.

○ 진괘(震卦)

정자(程子)의 《역전(易傳)》에서 설명을 다 하였다.⁹⁵

○ 간괘(艮卦)

간괘의 상(象)에서 그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하니, 두 산이 솟아 있는 것은 멈춤에 두터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95 정자(程子)의……하였다: 《역전(易傳)》에서의 정자의 설명을 들어 본다. “위아래가 모두 진괘(震卦)이다. 그러므로 중습(重襲)된 우레이다. 우레가 거듭하면 위엄이 더욱 강하다. 군자가 거듭된 우레가 위엄 있게 우는 상(象)을 보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닦아 삼가고 돌아보고 반성한다. 군자가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몸을 수양하여 바르게 하고, 그 과오와 허물을 생각하고 반성한다. 다만 우레와 천둥이 아니라도, 무릇 놀랍고 두려운 일을 만남은 모두 이와 같아야 한다.[上下皆震, 故爲洊雷. 雷重仍, 則威益盛. 君子觀洊雷威震之象, 以恐懼自脩飭循省也. 君子畏天之威, 則脩正其身, 思省其過咎而改之. 不唯雷震, 凡遇驚懼之事, 皆當如是.]”

○ 점괘(漸卦)

나무가 산에 있으면 그 성장이 급하지 않다.⁹⁶ 그러므로 “산 위에 나무가 있으니 점점 자란다.”라고 하였다. 땅이 비옥하고 나무가 무성함은 덕이 훌륭하고 풍속이 아름다운 것을 비유함이니 그러므로 “어진 덕을 쌓아서 풍속을 좋게 한다.”라고 하였다.

○ 귀매괘(歸妹卦)

주자의 《주역본의(周易本義)》에서 설명을 다 하였다.⁹⁷

○ 풍괘(豐卦)

우레와 번개가 칠 때 번개가 먼저 친 다음 우레가 진동한다.⁹⁸ 번개는 밝음을 취하고 우레는 위엄을 취하니, 우선 밝음으로써 사물을 비취 보고 뒤에 위엄으로써 법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옥사를 다스리고 형벌을 운용한다.”라고 하였다.

○ 려괘(旅卦)

불이 산에 있으니⁹⁹ 옥석(玉石)이 모두 탈까 조심해야 하며, 산이 불

96 나무가……않다 : 점괘의 하괘는 간괘(艮卦)로 산을 상징하고, 상괘는 손괘(巽卦)로 나무를 상징한다.

97 주자의……하였다 : 《본의(本義)》에서의 주희의 설명을 들어 본다. “우레가 치면 연못이 그에 따라 출렁이는 것이 귀매의 상이다. 군자가 그렇게 합쳐진 것이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끝내 폐단이 생길 것을 안다. 사물에 미루어 보면 그렇지 않음이 없다.[雷動澤隨，歸妹之象。君子觀其合之不正，知其終之有敝也。推之事物，莫不皆然.]

98 우레와……진동한다 : 풍괘의 하괘는 리괘(離卦)로 불, 번개를 상징하고, 상괘는 진괘(震卦)로 우레를 의미한다.

을 얻었으니 초목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형벌을 산처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불처럼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형벌을 쓸 때는 밝고 신중하게 처리하며 오래 옥에 머무르지 않게 한다.”라고 하였다.

○ 손괘(巽卦)

손(巽)은 바람의 상(象)인데, 바람은 사물에 침투한다. 바람이 바람을 따르면 기운이 바야흐로 깊게 들어간다.윗사람이 반드시 아랫사람을 명령하면 명령은 반드시 사람에게 받아들여진다. 명령을 거둬서 내리면 일은 시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명령을 거둬서 일을 시행한다.”라고 하였다. 구오(九五)의 효사에서, 십간은 갑(甲)이 처음이고 계(癸)가 끝이다. 경(庚) 앞의 3일에는 갑(甲)이 없으니 이것은 처음은 없는 것이요, 경(庚) 뒤의 3일에는 계(癸)가 있으니 이것은 마침은 있는 것이다.-모든 괘를 다 해석하지는 못하였다.-

99 불이 산에 있으니 : 려괘의 하괘는 간괘(艮卦)로 산을 상징하고, 상괘는 리괘(離卦)로 불을 상징한다.

송
암
집

부
록

行
狀

행장 行狀

선생의 휘(諱)는 정익(挺翼)이요, 자는 자량(子亮)이요, 성은 기씨(奇氏)이다. 본관은 행주(幸州)이니, 고려(高麗)의 권문세가이다. 우리 조정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시호(諡號) 정무공(貞武公) 휘 건(虔)은 선생의 9대조이다. 정무공의 현손(玄孫) 휘 대유(大有)는 진용교위(進勇校尉) 벼슬을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에 추증된 고흥군(高興君)이다. 고흥군의 아들 휘 효간(孝諫)은 일찍이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또 당숙(堂叔)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의 호) 선생에게 수학하여 학문이 정밀하고 덕행이 순수하였으나 덕행을 숨기고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추증되었고 금강(錦江) 선생이라고 호칭하였는데, 선생이 그의 현손(玄孫)이다. 증조(曾祖) 휘 계헌(啓獻)은 용양위 부사과(龍驤衛副司果) 벼슬을 지내고 호조 좌랑(戶曹佐郎)에 추증되었다. 할아버지 휘 처겸(處謙)은 벼슬하지 않았다. 아버지 휘 진탁(震鐸)은 18세에 국학 성균관에 뽑혀 학문과 덕행이 있었다.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벼슬을 지내고 예조 참의(禮曹參議)에 추증된 나주 나씨(羅州羅氏) 무춘(茂春)¹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어머니는 자애롭고 순

1 무춘(茂春) : 나무춘(羅茂春, 1580~1619)으로,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대년(大年), 호는 구봉(九峯)·구화(九華)·기지(耆之)이다. 1606년(선조39)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612년(광해군4)에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의 학유(學諭)·학록

종하는 부덕이 있고 천계(天啓) 7년 정묘년(1627, 인조5) 7월 11일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특이한 자질을 지녔는데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형이 공부할 때 선생은 나이가 어려 옆에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형이 모르는 곳이 있으면 문득 형을 가르쳐 주곤 하였다. 나이가 어렸을지라도 성인처럼 엄숙하였고, 아이들과 놀이할 때도 말이 간략하면서 신중하고 걸음걸이 하나하나도 차분하고 세심하였다. 때문에 선생의 큰형은 선생의 자(字)를 부르면서 “너는 어찌 그렇게 말을 더디게 하며 걸음은 왜 그렇게 느리냐?”고 놀려 댔다. 진사공(進士公)² 아버지는 항상 그를 사랑하고 기특하게 여기며 “우리 가문을 크게 할 자는 반드시 이 아이다.”라고 칭찬하였다.

선생은 7세에 처음 수학하였는데,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번거롭지 않았으며 학업에 부지런하였다. 조금 성장하여서는 학문에 뜻을 두고 부모를 섬기는 여가(餘暇)에는 사장(詞章)의 공부를 겸하였다. 선생은 신묘년(1651, 효종2) 이후로 연속하여 식년시(式年試)와 증광별시(增廣別試)에 아홉 번을 합격하였고 두 번이나 장원을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그 시험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매번 선생을 알아보고 인재를 얻었다고 칭찬하였다.

계사년(1653)에 이르러 아버지 진사공은 병들어 오래도록 낫지 않고 병석에 누워 있었다. 더위가 폭폭 찌는 때를 당하여 견디기 어려웠

(學錄)·학정(學正) 등을 지냈다. 이조 참의에 증직되었으며, 담양의 구산사(龜山祠)에 제향되었다.

2 진사공(進士公) : 기정익(奇挺翼)의 부친(父親), 기진탁(奇震鐸, 1607~1653)을 가리킨다.

는데, 선생은 온종일 간호하며 잠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가 혹여 병이 날까 염려되어 밖에 나가 바람을 쐬고 오라고 하면, 곧 “소자는 본래 더위가 두렵지 않으니 염려하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진사공은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선생은 곡읍(哭泣)하는 슬픔과 빈렴(殯斂)하는 절차와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예(禮)에 인정과 법도를 곡진하게 하니,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신해년(1671, 현종12)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상례를 전날의 아버지 상처럼 다스렸다. 하루는 집안의 사내종이 산에서 과일을 따서 가지고 와 건네주자 선생은 흐느끼며 먹지 못하고 “이 과일은 어머니께서 평소 즐겨 먹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생은 삼년상이 끝나자 오로지 성리학에만 정진하며 경전의 뜻을 넓게 궁리하였다. 이미 아는 바는 미루어 헤아리고, 모르는 바는 더욱 궁리하여 마음으로 증험하고 몸으로 체득하였다. 선생은 염락(濂洛)³의 여러 책 가운데 《주자대전(朱子大全)》 같은 경우에는 즐겨 읽고 뜻을 완미(玩味)하기를 대체로 침식(寢食)을 잊을 정도였는데, 친히 스승을 모시고 앉아 가르침을 받는 듯하였다.

선생은 만년에 《주역(周易)》에 정신을 쏟아 정밀하고 오묘한 뜻을 궁구하며 스스로 깨닫는 맛이 있었다. 일찍이 “《역(易)》의 이치는 무궁하나 《역》을 보는 방법에는 리(理)와 수(數)와 상(象) 세 가지가 있다. 리와 수는 송(宋)나라 때 여러 현인이 발명하여 다시 미진함이 없으나, 유독 상의 《역》은 전수(傳受)한 이가 없으니 지극히 한탄스럽다.”라고

3 염락(濂洛) : 송대(宋代) 성리학의 주요 학파로,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호(程顥)·정이(程頤), 관중(關中)의 장재(張載), 민중(閩中)의 주희(朱熹)를 가리키는 말이다.

말하였다. 드디어 64괘 상사(象辭)를 따라 두어 문장을 분주(分註)하여 발명하였으나 일을 마치지 못하였다. 천문(天文)과 지리(地理)와 복서(卜筮)와 의약(醫藥)에는 두루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다.

신유년(1681, 숙종7)에 선생은 우암(尤庵) 선생의 추천으로 제릉(齊陵)⁴ 참봉(參奉)으로 제수되고, 몇 해 뒤 다시 효릉(孝陵)⁵ 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처음 장성(長城) 소곡(小谷)에서 살았으며 중도에 영광(靈光) 박산(朴山)으로 이사하였다. 다시 동구점(東龜店)으로 옮겨 와 ‘점한(店漢)’이라고 스스로 호를 짓고 <점한설(店漢說)>을 지었다. 늘그막에 장성 열리곡(悅理谷)으로 돌아와 살면서 고반(考槃)으로 삼았다. 집 뒤에 소나무와 바위가 있었기 때문에 ‘송암(松巖)’이라고 호를 지었다. 선생은 하서(河西) 선생과 같은 고향에서 태어났으나, 항상 같은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유감이 남아 연보를 지어 덕을 사모하고 우러러보는 정성을 보였다. 양산(梁山) 군수 조영규(趙英圭 ?~1592, 자는 옥첨(玉瞻)) 역시 같은 고을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 부자(父子)의 충효를 칭찬하여 말하면서 세상에 없애지 않고 전해지지 않음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기었다. 선생은 동지들을 불러 모아 인술하여 사람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깨우치게 하였고, 조씨(趙氏) 부자를 나란히 모암서원(慕巖書院)⁶에 배향하였다.

4 제릉(齊陵) : 태조(太祖)의 원비(元妃)인 신의왕후(神懿王后) 한씨(韓氏)의 능으로, 경기도 개풍군(開豐郡) 상도면(上道面) 풍천리(楓川里)에 있다.

5 효릉(孝陵) : 인종(仁宗)과 그 비인 인성왕후(仁聖王后) 박씨(朴氏)의 능으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서삼릉(西三陵) 안에 있다.

6 모암서원(慕巖書院) : 조선 선조(宣祖) 때 전남 장성(長城)에 건립한 서원이다. 효와 충, 청백리로 알려진 칠현(七賢)인 서릉(徐稜)·정운룡(鄭雲龍)·김우급(金友偈)·조정로(趙廷老)·조영규(趙英圭)·최학령(崔鶴齡)·박수량(朴守良)을 배향하였다.

일찍부터 우암 선생의 문하에서 옷을 추켜들며⁷ 마음 깊이 존경하며 복종하고, 우러러 사모하는 정성은 백수(白首)에 이르도록 변하지 않고 매번 긴 편지로 의심난 곳을 질정하였다. 함께 교유하고 학문을 익히던 이는 모두가 당대의 명류(名流)로 인망(人望)이 있었다. 선생은 젊어서 유봉(酉峯)⁸과는 두터운 정을 나누었는데, 갑자년(1684, 숙종10)에 유봉이 스승을 배반하는 일로 서로 편지를 왕복할 때에 선생은 유봉에게 경계하는 편지를 써서 현석(玄石)이 우옹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가지고 힘쓰도록 하였다.⁹ 선생은 유봉과의 주고받는 서신이 끝나갈 즈음에 “(아들인) 범 충선공(范忠宣公 범순인(范順仁))은 혹 (아버지

7 옷을 추켜들며 : 원문의 ‘구의(擣衣)’는 옷자락을 치켜든다는 뜻으로, 스승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말한다. 《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의 “어른이 계신 방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옷자락을 공손히 치켜들고 실내 구석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가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응대를 받드시 조심성 있게 해야 한다.[擣衣趨隅 必慎唯諾]”라고 했다.

8 유봉(酉峯) : 윤증(尹拯, 1629~1714)의 호이다.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자인(子仁), 호는 명재(明齋)·유봉,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아버지는 선거(宣擧)이며, 어머니는 공주 이씨(公州李氏) 장백(長白)의 딸이다. 아버지와 유계(兪槩)에게 배우고 뒤에는 장인인 권시(權諤)와 김집(金集)에게 배웠다. 29세 때에는 김집의 권유로 당시 회천에 살고 있던 송시열(宋時烈)에게 《주자대전(朱子大全)》을 배웠다. 송시열의 문하에서 특히 예론(禮論)에 정통한 학자로 이름났다. 공조랑(工曹郞)·지평(持平)·대사헌(大司憲)·우참찬(右參贊)·좌찬성(左贊成)·우의정(右議政)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했다. 노론과 소론의 분립 과정에서 소론의 영수로 추대되어 활동하면서 송시열과 대립했다. 저서로 《명재유고(明齋遺稿)》·《명재의례문답(明齋疑禮問答)》·《명재유서(明齋遺書)》 등이 있다.

9 선생은……하였다 : 《송암선생문집(松巖先生文集)》 권2 〈서(書)·여윤자인(與尹子仁)〉에 보인다. 원문의 ‘현석(玄石)’은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호이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 또는 남계(南溪)이다. 조부는 형조 판서 박동량(朴東亮), 부친은 교리 박의(朴漪)이다. 숙종 초기에는 송시열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했으나, 만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윤증 등 소론계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인) 범 문정공(范文正公 범중엄(范仲淹))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였으나, 구양수(歐陽脩)가 도리어 알았다.¹⁰⁾고 운운하였고, 또 “끝내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다면, 여기에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이후부터는 선생이 유봉과 서로 찾아보며 왕래하지 않았다.

일찍이 선생은 내종(內從) 아우인 상사(上舍) 나이귀(羅以龜)¹¹⁾와 함께 대화하다가, 말이 사문난적(斯文亂賊) 윤휴(尹鑄)¹²⁾에 미치게 되

10 범 충선공(范忠宣公)은……알았다 : 범순인(范純仁)이 범중엄(范仲淹)의 비문 중에서 원한을 푼 일을 삭제한 우를 범하는 고사를 말한다. 이 고사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송(宋)나라 인종(仁宗) 때 범중엄과 여이간(呂夷簡)이 중간에 사이가 나빠졌다가 뒤에 다시 마음을 합쳐 정사를 함께 하였다. 범중엄이 죽은 뒤에 구양수(歐陽脩)가 그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었는데 “여공이 다시 재상이 되고 공도 재기하여 기용되었다. 이에 두 공이 환연(驩然)히 서로 약속하고 힘을 다해 국적(國賊)을 제거하였다.〔呂公復相，公亦再起被用。於是二公驩然相約，戮力平賊。〕”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자 범중엄의 아들 범순인이 자기 아버지는 원한을 푼 일이 없다고 하여 이 문구를 빼 버렸다. 이 말을 들은 구양수가 한탄하기를 “내가 일찍이 범공(范公)은 스스로 평생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고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고 그 사실이 범공의 문집에 들어 있다. 어찌 아버지는 스스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자식이 지하에 있는 아버지로 하여금 원한을 풀지 못하게 한단 말인가. 부자의 성격이 이다지도 다르단 말인가.”라고 했다. 《朱子書節要 卷7 答周益公》

11 나이귀(羅以龜) : 1635~?.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하징(夏徵), 유학(幼學)으로 담양에서 거주하였다. 원문의 ‘내제(內弟)’는 일반적으로 아내의 아우 곧 손아래의 처남을 이르나, 여기서는 내종제(內從弟)의 약칭이다.

12 윤휴(尹鑄) : 1617~1680. 본관은 남원(南原), 초명은 윤경(尹鎭), 자는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하헌(夏軒)이다. 숙종이 즉위한 뒤인 이듬해 정월에 유일(遺逸)로서 성균관사업(成均館司業)의 직을 받아 대사헌, 판서직을 몇 차례 거쳐 우찬성에 올랐다. 1680년(숙종6) 경신환국(庚申換局)의 정변으로 사사(賜死)되었다. 주요 저술은 <홍범설(洪範說)>·<주례설(周禮說)>·<중용설(中庸說)>·<효경장구고이(孝經章句攷異)>·<대학설(大學說)>·<중용장구보록서(中庸章句補錄序)>·<중용대학후설(中庸大學後說)>·<현종대왕행장(顯宗大王行狀)>·<가어주수설해(家語舟水說解)>·<어제주수도설후지(御製舟水圖說後識)>·<전례사의(典禮私儀)>·<제

자 “내가 그 하는 짓을 살펴보니, 그의 이름과 들어맞으니 국가의 우환이 됨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요사이 그 마음과 행적에서 드러나니 머지않아 반드시 패가(敗家)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상사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의 말이 과연 맞으니, 나 상사는 그 선견지명에 감복하고 말았다.

하루는 선생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면서 집안사람들에게 “나는 아마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집안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서 그 까닭을 물었다. 선생은 평온한 목소리로 “지난밤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불러 말한 것이 궤이하였다. 이것이 그 조짐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해 겨울 12월 25일에 병환이 생겨 드디어 집에서 죽으니 향년 64세요, 숭정(崇禎) 세차(歲次) 경오년(1690, 숙종16)이다. 다음 해에 장성읍(長城邑) 북마산(北馬山) 해좌원(亥坐原) 선영 옆에 장사하였다.

선생은 처음 참판(參判) 벼슬을 지낸 광산 김씨(光山金氏) 여옥(汝鉦)¹³의 딸을 아내로 맞으니, 효도하고 삼가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덕이 있고 4남 6녀를 낳았다. 장남 “호(灑)”는 일찍 죽고 자식이 없다. 세 아들은 성인이 못 되어 요절하였는데, 모두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였다.

진공고직장도설(製進公孤職掌圖說)·〈만필(漫筆)〉·〈통제사이충무공유사(統制使李忠武公遺事)〉·〈중간화담집서(重刊花潭集序)〉가 있으며, 저서는 《백호문집(白湖文集)》이 있고, 1974년에는 《백호전서(白湖全書)》로 출판되었다.

13 여옥(汝鉦) : 김여옥(金汝鉦, 1596~1662)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군수(君粹), 호는 미산(薇山)이다. 1624년(인조2)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 학유(學諭)·검열을 역임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왕을 호종했으며, 환도 후 봉교(奉教)·전적(典籍)·예조 좌랑·병조 좌랑·지평(持平)·장령(掌令)·정언(正言)·사간(司諫)·집의(執義)·필선(弼善) 등을 역임하고, 여산 군수(礪山郡守)로 나가 기민(飢民)을 구휼하는 데 힘썼다. 그 뒤 부총관(副摠管)·형조 참관을 거쳐 광주 부윤이 되었다.

막둥이 왕(汪)은 성년이 되자 학식이 매우 밝아 장차 원대한 뜻을 기대하였으나, 불행하여 단명하고 말았다. 장녀는 고필관(高必觀)에게 시집가고, 차례로 강덕주(姜德周), 박태헌(朴泰憲), 유익성(柳翊聖)에게로 시집갔다.

해주 오씨(海州吳氏) 집(輯)의 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아 두 아들을 낳았는데 ‘복(漙)’과 ‘득(得)’이라 이름 지었다. 선생은 왕(汪)이 죽자 부모는 늙었는데 아이가 없는 것을 지극히 한탄하여 처량한 목소리로 후처 오씨(吳氏)에게 “자식은 반드시 다시 낳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자를 ‘복견(復見)’과 ‘득견(得見)’이라고 지었으며, 관례(冠禮)의 나이에 미치자 ‘복(漙)’과 ‘득(得)’으로 이름을 지었다. 복과 득은 모두 순진하고 진실하여 아버지의 훌륭한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오씨가 자식을 훈육함에 법도가 있고 모든 집안의 일을 다스리니, 덕과 선을 쌓는 집안의 경사가 있을 징조였다. 또 외손자와 외손녀가 약간 명 있었다.

선생은 타고난 자질이 남달리 뛰어났고 효도하고 우애하며 지극히 순진하였다. 대문을 닫고 조용히 수양하는 도리를 지키면서 남몰래 대업을 가슴속에 품고, 마음으로 얹어 있으면 즐거워하고 근심을 잊었다. 그러므로 선생은 진실하고 순수한 기(氣)가 얼굴에 나타나 낮빛이 온화하고 말이 씩씩하며 정신이 안정되고 기(氣)가 태평하였다. 만약 학생이 경서를 들고 어려운 곳을 물어 오면, 즐겁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밤낮이 다 지나도 피곤해하지 않았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백록동 규약(白鹿洞規約)¹⁴을 가지고 알려 주곤 하였는

14 백록동 규약(白鹿洞規約) : 주희(朱熹)가 남강군 지사(南康郡知事)로 있을 때에

데, 학과의 규정이 효제(孝弟)의 도리를 근본으로 삼은 이유였다.

선생은 할머니 윤씨(尹氏)의 나이가 80세가 넘었는데도 저녁에는 이부자리를 살펴보고 새벽에는 문후를 여쭙었다. 거처하는 방은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뜻을 받들고 순종하여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 드렸다. 때문에 일찍이 할머니가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게 한 적이 없었고, 상례에 미쳐서는 애통해하기를 부모상과 다름이 없게 하였다. 또 선생은 형이 돌림병에 걸려 위태로운 지경이 되자 자기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나누어 주어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였다. 또 조카 형(澗)이 돌림병으로 죽자 친히 시신을 수습하였다. 선생이 이와 같이 여러 차례 위독한 돌림병을 범접하여도 별 탈이 없으니, 사람들은 모두 선생의 우애와 정성에 탄복하였다.

선생은 평소에는 일에 대해 가부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변고를 만나면 의리로서 결단하고 엄격하게 실행하였다. 행실은 이미 대방(大方)¹⁵하여, 남과 같이 행동하면서도 심신을 수렴하고 단속하는 경우에는 확연히 자기 지조를 지키었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이 “통달하여도 법도를 넘지 않고 맑고 개결(介潔)하여도 세속을 끊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니, 선생은 이 말에 가까웠다.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에서 강학하던 학규(學規)를 말한다. 첫째 오교(五教, 즉 오륜(五倫)을 말함)의 과목, 둘째 공부하는 차서, 셋째 몸을 닦는 요결(要訣), 넷째 처사(處事)의 요결, 다섯째 접물(接物)의 요결이다.

15 대방(大方) : 식견이 원대하고 대도(大道)에 통달한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장자(莊子)》〈추수(秋水)〉에서 하백(河伯)이 자신이 다스리는 하수(河水)의 물이 불어나자 의기양양하다가 북해(北海)에 이르러서는 그 끝없이 펼쳐진 물을 보고는 그만 탄식하면서 “내가 길이 대방지가(大方之家)에 비웃음을 사겠다.”라고 했다.

동토(童土) 윤순거(尹舜舉)¹⁶는 선생을 한번 만나 보고 그릇으로 쓰
이리라고 여겨¹⁷ 바로 호남의 제일인이라고 공경대부들에게 칭찬하였
다. 고창 현감(高敞縣監) 신계징(申啓澄)¹⁸은 또 일찍이 선생을 높이
평가하며 “만약 남도의 땅에서 제일의 인물을 논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
이 아니면 안 된다. 선생은 초연하여 당세에 뜻을 두지 않은 듯하고
가슴에는 세상을 다스리려는 깊은 뜻을 간직하였으니, 속세의 사람이
엿보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선생이 논의한 《정전의(井田
議)》 한 권이 있는데 그 규모와 구획이 자상함을 다하였다. 생각해 보건
대 그 법은 지금 세상에서 시행되어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선생의 유집(遺集)은 약간 권이 집에 소장되어 있다. 선생은 돌아가
신 나의 아버지에게 도의(道義)로 우정을 맺었고, 광일(光一)¹⁹ 또한
일찍이 선생의 문하에서 걸레질하고 비로 청소하는 심부름을 하였다.
선생의 장례 때에는 복(復)과 득(得)이 모두 어렸다. 지금 광일은 그

16 윤순거(尹舜舉) : 1596~1668.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노직(魯直), 호는 동토(童土)이다. 윤황(尹煌)의 아들로 윤수(尹燧)에게 입양되었으며, 저서로는 《동토집(童土集)》이 있다.

17 그릇으로 쓰이리라고 여겨 : 그 재주와 역량이 적소(適所)에 쓰인다는 말이다. 《논어(論語)》〈자로(子路)〉에 “사람을 부리는 데 있어서는 그릇의 정도에 따라 한다. [及其使人也, 則器之.]”라고 했다.

18 신계징(申啓澄) : 1632~?. 자는 성시(聖時), 호는 은곡(隱谷)이며, 신숙주(申叔舟)의 후손이다.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으로 1679년(숙종5)에 송상민(宋尙敏)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위원(渭原)에 장류(杖流)되었다가 이듬해에 풀려났다. 벼슬은 세마(洗馬)와 임실 현감(任實縣監)을 지냈다. 《숙종실록(肅宗實錄)》 1689년 3월 15일 기사 참조.

19 광일(光一) : 박광일(朴光一, 1655~1723)로,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사원(士元), 호는 손재(遜齋)이다. 조선 후기의 학자로, 송시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권상하(權尙夏)·정호(鄭澍) 등과 교유하며 학문 연구에 힘썼다. 저서는 《손재문집(遜齋文集)》이 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행장을 부탁받고 장차 훌륭한 글을 후세에 남기는 군자에게 부탁하려고 이를 사양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광일은 보고 들은 바를 이와 같이 논하고, 이를 채택하여 쓰는 데 준비하였다.

연 월 일, 평양(平陽) 박광일(朴光一)은 삼가 행장을 쓰다.

발 跋

《송암집(松巖集)》 3권²⁰은 고(故) 참봉(參奉) 기공(奇公)이 지은 책이다. 송암공(松巖公)은 대로(大老)²¹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학식이 넓게 통달하여 크게 칭송받았다. 이웃 고을 동지들과 성리학의 요지(要旨)를 궁구하였는데, 서로 만나면 대화로 강토(講討)하고 헤어져 지내면 편지를 주고받아 탐구하곤 하였다. 선생은 힘써 노력하고 부지런하기를 취미처럼 좋아하여 차마 하루도 잊지 못하였으니,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이록(利祿)이 있는 것도 몰랐다.

아! 나는 선배(先輩)들이 학문을 좋아하는 정성과 벗끼리 학문을 도와주는 정성을 상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공의 유풍(遺風)과 여운(餘韻)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세상에서 칭송하기를 “호남이 명현(名賢)을 배출했다.”는 말이 전하여 내려온 지 오래이나 지금은 오래도록 들리지 않는다. 아마도 전현(前賢)이 학문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벗을 이끌어 도와주는 공력이 점점 시간이 멀어져 그러한 것인가.

송암공이 남긴 글을 읽으면 개연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시 몇 수와 문체 몇 편은 분량이 매우 적다. 그러나 공의 문장은 바탕이 중후

20 송암집(松巖集) 3권 : 저본에는 '송암집삼권(松巖集三卷)'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전해지는 《송암집(松巖集)》은 건(乾)·곤(坤) 두 책뿐이다.

21 대로(大老) :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가리킨다.

(重厚)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의미가 시원하게 통하여 이치가 풍요롭다. 예를 들자면 공이 리(理)를 논한 학설은 정주학(程朱學)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깊이 스스로 터득한 맛이 있으니, 겉모습만 꾸며서 그럴듯하게 지은 것이 아니다. 이 역시 공이 지닌 것을 보여 준다.

아! 훗날 이 문집을 읽어 보고 사람들은 거의 감동하고 분발하여 일어날 것인데, 그 누가 글의 양이 적다고 하여 소홀히 여기겠는가! 공의 이름은 정익(挺翼)이요, 자는 자량(子亮)이니, 대대로 호남의 장성(長城)에서 살았다. 연이어 제릉 참봉(齊陵參奉)과 효릉 참봉(孝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공의 손자 일상(日相)이 나를 찾아와 책 뒤의 발문을 써 달라는 부탁이 매우 간절하였다. 나는 사양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삼가 발문을 썼다.

승정 기원 뒤 세 번째 무신년(1788, 정조12) 12월 하한에 해주(海州) 후손 오재순(吳載純)은 글을 쓰다.

원문
原文

序

我先祖文正公，門徒甚盛。其學邃德邵之士，多處兩湖，在南方松巖奇公之賢，最有稱焉。公以高峯族孫，生長于河西講道之鄉，襲其膾馥而蔚有隆望。今經百餘年，文行遺蹟，有不可泯也。曩余修正先稿，而觀其與公書。其所往復辨難，有非尋常答問而已，尙足以識公槩槩之工，弗明弗措也。於是乎欲一見公所著論者殊切。一日公之孫日相，以公遺稿二冊來示，使人甚喜看。而一繙過，益可想其篤學博識，有出於自究得，而不止於問辨審矣。自其性理之奧，卦象之蘊，以至儀文度數，經綸規畫，與夫星曆、卜醫之說，靡不載在編中。雖是數卷之少，而實非一嚮之比也。後之欲知公學問、志行之淺深始終者，盍於此徵諸？噫！公自蚤歲，悅服師教，至白首不衰，而當日賢師之所期待，同門諸公之相推許，固甚重矣。惟其長牘奉質者，於聖學大關頭，畧有未相契處。誠恐世之不知公者，不能無訝惑。然於此亦可見其實作之一端，有何損於篤信之誠哉。公與尹拯始甚情厚，及其操戈變起，爲書累幅，規責切切。縱未有截然斥絕語，而畢竟不復相通。師友間處義之正，有如是者，在公奚足爲特異事。而顧今積衰之俗，鶻¹圖於淑慝之際者滔滔。人之欽

1 鶻：지본에는 '鶻'로 되어 있으나 《성담선생집(性潭先生集)》 권13 <송암집서(松巖集序)>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慕公者，尤宜在茲，而無間然也。今公後承之屬托余者意甚勤，若其編摩之役，固非庸陋所能承當。而弁卷之作，則茲不避佛頭鋪糞之譏。庶有以粗伸景慕之私云爾。

時崇禎後三戊申冬，德殷宋煥篋序。

松巖先生文集

卷一

詩

詩

戊午立春

陽生今過四旬餘 天地陰寒未盡除
一夜春光潛透雪 明朝氣像問如何

月夜偶吟

楊柳川邊春日意 梧桐庭上月三更
此味千秋誰會得 伯淳胸裏最分明

偶吟

碎身粉骨休愁命 養性存心是坦途
鑪鐵毀成無奈者 淵珠明暗在工夫

其二

抱香爲愛芙蓉死 流臭終嫌椒櫟燕
曠日登臺知快活 雲山千里摠輸吾

次徐花潭來歸二韻

爲問君從何處來 答云來自生生來
生生本有消長理 不是生從死處來

爲問君從何處歸 答云歸盡又歸歸
歸歸若有還歸理 尼父如何不復歸

次子平韻 仍憶舍弟子瞻

我生元是百憂人 黃子平來意暫伸
回首長沙吾弟在 何緣一去見愚淳

戲題

黃相一衾九女呼 奇生七子一衣無

從知貴賤殊豐約 不是儒冠太拙迂

輓金千摠【天柱】

寧爲百長勝書生 況子提千更不輕
但恨未伸鳴劍志 聖朝猶愧畏天名

輓金公【亨福】

與吾先子本同庚 前後纔差一日生
半百八旬何適別 欲題哀輓句難成

次李君輔【世弼】韻

南來氣節未摧殘 始信工深夢覺關
肯今當日一黎頰 虧却胡公九仞山

次李晦叟黃橘韻

聖世那堪歌紫芝 青山只與店翁宜

雪裏黃昏誰識貴 感君把贈共嘗時

輓劉君【續吉】

公家三世連三喪 況是孫郎分最深
孤墳兩阡那忍矚 松山新月鎖寒林

次子立見贈韻

邇來意不適 不出前溪濱
兒大知年老 妻愁認屋貧
人誰乞米送 君幸寄詩頻
最戀浦山下 閑居且養神

輓柳伯仁【必壽】

東野失三子 千年誰更同
伯仁與子亮 慟哭呼蒼穹
嗟我生何忍 羨君死不聰
退之寬孟說 何足慰無窮

首尾 三首

其一

天下無人知我心 無人知處且長吟
爲磨寶鑑寧容隱 要識明珠不憚深
一善那堪如撻恥 半塗宜守及泉箴
元來此事誠難畢 天下無人知我心

其二

天下無人知我心 無人知處爲高吟
天空海闊恢恢度 月霽風光淨淨襟
生意滿襟吾與物 英華盍背古猶今
男兒能事惟茲在 天下無人知我心

其三

天下無人知我心 無人知處爲漫吟
神存羲易消長運 耳順詩經理亂音
佳興與同程氏仰 卷懷成美邵雍欽
救時安命皆先覺 天下無人知我心

輓金公【亭社】

大賢之後竟陵遲 天奪斯人又可悲

闡發幽光多少事 辛勤至意更誰爲
蒼龜已失君家厄 藥石今無我病危
厚意深情題未盡 空將哀淚灑靈輻

輓朴上舍〔光後〕

妙年湖右堂堂姿 豪氣剛腸兩屈奇
談論偉然驚俗耳 胸襟磊落喜軒眉
晚將行路難中事 擬向修身學上推
天意如何終不假 忍令子母葬同時

輓黃子平

小少悲歌行路難 衰遲始覺考槃安
昏冥只欲逃紛拏 麴蘖終違住渥丹
鯨背吟魂招不得 漁磯醉夢說無端
舊遊白髮情誰似 愴古傷今涕淚瀾

輓洪參奉〔相元〕

年來不勝渭陽思 哭我姨兄一倍悲

風樹幾同孤露感 幽明奄作死生離
小官靖節辭中事 高義康侯立後時
白首病深違執紼 空將哀淚灑哀詞

輓姜咸陽【弼周】

君才非古亦非今 英妙人稱直萬金
獨對丹墀知幾歲 空懷白首不平心
回看世上吟長苦 行路難中酒數斟
可惜身名休一郡 海亭鷗鷺怨何深

上尤庵先生

伏聞先生若有不釋然於蒙恩曲折者，此不可一二仰稟，謹呈四韻，而平生不識有韻之文，無以仰伸誠意，汗蹙以呈。

盛德初無爲免計 匡人何幸未違天
先生悔矣¹嚶鳴義 後學爭嚙狼跋篇
頭上明明難可□ 胸中白白孰能遷

1 矣：저본에서는 결자(缺字)이나, 《송암유고(松巖遺稿)》 권8 <시(詩)>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十²看更何人皆仰 只祝弘恩始末全

次石之珩韻 聯句

村南村北雪三尺 無酒無肴可奈何

子瞻

帶月青山今夜好 傷時白髮此中多

子亮

題詩不取才彫節 論劔難堪氣壯峨

太綏

回看神州消息渺 佇看他日一清河

大鳴

病後吟數句以自警

天以生爲心 非善曷有物

2 + : 저본에서는 결자이나, 《송암유고(松巖遺稿)》 권8 <시(詩)>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人稟天之心 不善何從出
天以氣賦形 清濁自然別
性善爲氣掩 賢愚乃懸絕
惟氣可以變 性固無生滅
聖賢千萬言 都訓變氣質

輓朴公尚淳

往在己丑間 與君宿京邸
永夜何所言 男兒氣太銳
孜孜滿腹經 鬱鬱軒眉計
我時年且少 逐浪味厲揭
忽焉二紀餘 風塵志多戾
斂我倦遊迹 白首門獨閉
君來慰窮愁 慷慨心猶勵
我言君且休 青雲難力逮
嘻然向我笑 直待盖棺歲
歸去因下帷 霜雪滿懸髻
功名固云好 天命有行廢
光陰不貸人 飄然流水逝
哀哀七帙書 草草六旬世
生平多少懷 臨輓空灑涕

輓朴汝固【行重】

一鄉有善士 平生字汝固
直諒天稟好 仁厚家風素
與我同里閭 一紀差年數
兩家世敦嫻 憐我荐禍故
匍匐不憚險 努力窮晨暮
惻怛真心存 益覺高識趣
何曾出言面 而我銘肝肺
此義有由來 前後難具諭
君今不得壽 值我衰病痼
報德百未一 虛牝黃金誤
況值茂實喪 凶禍天難籲
顧瞻梅谷里 悽慘驚風雨
我懷題不盡 痛哭舊山路

輓族叔察訪【震甲】

吾宗昔甚昌 今何日陵替
頎然八尺身 堂堂振末裔
興衰固非望 起廢因拔例
一官困弊郵 少試負多藝
弓劍非素志 抵謁如鑿柄

林泉一丈夫 偃息百年計
如何竹塢外 寂寞佳城閉
族姪挺翼者 命道還多盤
荒墜愧不孝 阡危增罪戾
暮年失相依 仰天揮吾涕
幽明多少恨 今日未品第

輓劉君湍

爾昔從吾兒 行年小參差
吾兒早有譽 爾却師事之
不幸兒短命 訣爾辭極悲
勗爾來學我 兒情爾當知
自我失吾兒 見爾如見兒
爾來在吾傍 淳實頗有奇
我時鰥且獨 夙夜勤扶持
誠深視猶父 豈獨文字爲
爾何病纏骨 我卽窮妙□
粗知生死氣 爾病實難醫
吾令爾歸家 不忍增險巖
遂負視猶子 慟矣今至斯
幽明無限意 有如一紙辭

輓金秀才【天瑞】

自吾哭三兒 不堪人喪子
君何不得年 又使乃翁燬
乃翁之燬與我同 一哭三哭幾何異
君歸正逢吾家兒 握手相說二爺悲
二爺悲 說不盡
風雪茫茫歲暮時

松巖先生文集

卷二

書

書

上尤庵先生

挺翼頓首再拜言。時運所關，大道難容，春陵脚血，固無損於涪州髭髮，慶元風色，竟又極於余嘉書疏，天不可問，鬼不可誣。而况伏聞伉儷之痛，又在此際，恒人平日，遭此不堪，先生斯憾，更是情理之尤難制者耶？伏不審先生道體，今復如何？哀傷得正，益恃中和而已。挺翼戊申執帚，己酉奉書之後，正欲一趨函丈之下，冀獲親炙之效，不幸一數年間，連喪二兒，辛亥夏奄失所恃，癸丑又哭長子，至乙丙莽功之喪，殆無虛歲。凶禍慘憾，實古今人所未遭者，既非木石，安保形骸？狂喪顛頓，病入膏肓，無由一伸情禮於座下，及至時艱道否之日，裹足陪後，寧欲後人？而賤疾無醫，難以自力，撫枕潛歎而已。幸自今年少有生意，時看古書，益欽師範，欲一奮身以候起居，且伸夙願之萬一，正小生銘鏤於心者，而逢寒還蟄，所謂未如之何矣。適因朴友之進，深羨求道之誠，已非病劣之比，而敢憑修敬，以候道體，不勝悚懼。餘伏祝益懋崇深，以應祚宋之天。

上尤庵先生

斯文有幸，天恩斯霈，先生道體，對時福慶，遙自奉慰，不能已已。小生之身世，不亦悶乎？生平嚮慕，不後於人，而中間十年，喪敗顛頓，不克供灑掃，有如前所陳者，而其後爻象又劇矣。及至今日，賤疾更劇，自春迄秋，殆就溝壑者數矣。書尺奉候，又未及於恒人，況勇意趨侍函丈之計，已矣莫伸，求道誠薄，天或使然，而顧厥身世，不亦悶乎？茲因金生之行，替候起居。別紙所稟，亦知僭易，而面稟之計乖違，敢先溷煩，伏乞下教如何？餘伏祝體道益福。不備。

別紙

《易繫》中，所謂“形而上者謂之道，形而下者謂之器”，大意不過形容理氣之妙也。而朱子曰：“陰陽皆形而下者，其理則道也。”程子亦曰：“有形皆器¹也，無形爲道云。”則據程、朱，而孔子之言意自可見。而但程、朱亦不曾明釋形而上下曲折，故今之學者，不能解見其意，至有以形而上者，爲乾之謂也，形而下者，爲坤之謂也，而以道器字，欲作乾坤看者，其鑿甚矣。有不足辨，而挺翼敢以臆見解之。【要以曉或人，故語意冗長。】曰：“形而上者，無形之謂也；形而下者，有形之謂也，何謂無形有形？曰：‘形而上，本無聲臭，故曰「無形」；形而下，皆可名狀，故曰「有形」’然則而上而下云者，何謂也？曰：‘上非上昇之上，下非下降之下；亦非在上之上，在下之下；亦

1 器：저본에는 '氣'로 되어 있으나, 《大易粹言》 권68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非半以上之上，腰以下之下；非上面之上，下面之下；非天上之上，地下之下也。有物於此。雖有形，而其理則無可形，故無可形之謂形而上也；雖無形，而其物則有可形，故有可形之謂形而下也。其意若曰‘無形而上，有形而下。’而若下有無字，則恐人索無形於有形之外，故只下一形字，以明道器不相離之妙，而又以上下字，分其有形無形也’云云。”曾以此解，質問於尹執義拯，尹答曰：“所示以爲‘非上面之上，下面之下。’此恐未安。上下二字，不以上面下面看，而何哉？”又曰：“‘無形而上，有形而下。’此亦未安。蓋形是物也，其上面虛底是道，下面實底是器云爾。然亦豈謂理上氣下，判爲二物，如彼之見哉？”【彼，指以道器，作乾坤看者。】挺翼又答曰：“朱子說理處，亦用上面、下面字，則兄所謂‘上面下面虛實云’者，當矣。然若以此解而上、而下字，則恐未安。然則經當曰‘形之上、形之下云云。’”近者，偶得一冊子於人家，乃《語錄解》，而其本乃以一字至六字，分類解之。而間引溪訓、眉訓、世傳先生所解，其中有解形而上下，曰：“未有形之前，只有理而已；既有形之後，有器之名云。”未知此果先生所解冊子耶？竊考諸解精當，恐非他人所及，則信得出自先生手也。謹竊詳味形而上下解，則極爲痛快，亦惠及後學之一端。而但其間不能無小疑，疑固思問，不可容隱。若如所解，則前後字乃訓上下者也。其意乃理先氣後者，而本於太極生兩儀，則固無可疑，豈不明快乎？然而以經及朱子解考之，下句之解，似欠十分妥貼。經所謂“形而下者謂之器”者，不以形器分先後，故經又曰：“形乃謂之器。”朱子之解，亦豈不以形器爲陰陽，而陰陽之理爲道也哉？今若曰：“有形之後，有器之名云。”則形與器，分明有先後，而與經之形而下者謂之器者，語意略不倫。伏望剖析下教如

何？若蒙反復開示，以去蔽惑，則僭易之論，不攻自破，而尹執義之見，亦必誤矣。并爲批誨如何？

凡經傳之旨，自經程、朱之闡發開示，明若日星，坦如大路。而末學一向昏蔽，南中又無師友，恒以是爲窘悶。間有與一二同志，往復論此事者，而亦不免所見之異同其名目不少。更與尹執義辨而歸一者，亦多矣，而其中氣數之論，則與尹終不合矣。今欲取正於先生，而除是許多名目，只氣數一論，亦成一小冊子。伏想今者靜養之餘，接應必煩，不敢以冗長說話，仰瀆尊嚴，此亦下學之至恨也。

上尤庵先生

國恤震越何喻？伏聞先生已赴恩命，竊念安車冒寒，道體如何？伏惟萬福。泰運重廻，不獨爲斗屋之賀，而君民丕責益切，門下之所私祝耳。小生病廢，依昔敗壞猶甚，執帚門外之計，自此益阻絕，只謀須臾不死，恭俟箴²一篇於華陽洞裏矣。前呈別紙，僭率已甚，伏自俟罪，而未得下教，今至累朔，益增惶悚。辭旣狂瞽，因人傳上，固不足降屈德音，而每考上書朱門者，苟有憤悱，則亦不拘焉。故又以疑鬱未釋者，作稟目欲付院儒之行者。彼聞先生之赴召，以宿春滯發，適有順便，敢此移付，憑伏候道體動靜。更祝隆寒爲道

2 箴：저본에는 '威'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바로잡았다.

爲國，萬福崇深。

別紙

光州 朴尙玄 景初者，挺翼之友也。曾與之論此事，既多且久。前稟中，形而上下之說，卽其一也。其中稱或人者，實指此友，其臆解一段，本爲此友發也。向者，敢以其說，呈稟之後，伏聞景初曾以此稟來已久云。卽於景初，索其所得先生說以來，伏而讀之，果與向所謂《語錄》者不同，而與挺翼僭說相合，欣幸無已，程子所謂“手舞足蹈”者，信不虛也。然其明白洞暢，萬萬非挺翼之所能髣髴，且以高妙重濁，解上下字，尤覺的確，比譬說，更一轉窮到，十分盡底，敢不奉以爲平生服膺之地乎？但未知《語錄解》緣何如此也？或少時，或他人，未能的知，伏望下示。且朴之前後所得先生語及其稟目錄成一冊子，因盡閱所錄，則其許多所稟，皆是與挺翼所嘗講，而未得歸一者也。【彼所不稟者亦多。】挺翼之所以辨彼所疑者，雖極猥瑣，亦不大悖經旨，與今先生所教，粗能相合，而人微言輕，終未取信。今伏見先生之諄諄善諭，若是明白親切，則爲尙玄者，其不爲時雨中物耶？與景初離索久矣。其所稟質若是富矣，而挺翼以十年間喪敗顛頓，不得側與於當日往復訓誨之末，甚矣賦命險斃！亦有害於函丈間盛事，可勝歎哉。但諸說中，未發之中一段，有可疑。先生之所以反復誨諭於景初者，前後累累不已。雖覺極精極密，無以加焉，而於妄意終未能盡合，反復究之，乍合乍離，畢竟未免黑窰窰地，可見下愚之難教也。終不敢蓄疑勉從，謹以一二詳稟于下，極知僭竊無所逃罪，而亦不得已。伏乞特寬其狂瞽之誅，而更賜披雲之日如何？朴之末終稟書中，所謂“與友人講《中庸》”者，指挺

翼而言也。其曰：“未發之中中字，固是性之德，則中與性，不可二而言也。人皆有性，中是性德，則是中也，亦豈非人人所同有者乎？未發之前，固無不中，而及其發後，是分和與不和。故子思立文，於未發之中，無他說，而至發乃下一皆字，其意自可見云云”者，挺翼終始所守也。其曰：“未發之中，固是性也。人莫不稟于天，而衆人則氣質雜糅，不能立大本。故不可謂人人皆有中也。”此則朴之終始所守者也。竊觀朴意，‘中雖性之德，而墮於氣質之後，物欲與濁氣用事，則性亦雜糅。故人雖有性，而中則非人人所能有也。’然則其見分明以中爲有無於性中，因人氣質之清濁，或有或無也，豈不大錯乎？始以中庸章句言之，絕無衆人無中之意，所謂大本者，直謂之天命之性，【朱子自言“前說以方圓爲天地之非。”則似不可以中和爲性情，而《中庸章句》，直以大本爲天命之性，則恐當以《章句》爲重。其說詳見于下。】又以未發爲性，則可見中與性之不可二而言也。蓋性之爲性，以其中也。故曰：“上帝降衷于民。”故曰：“民受天地之中。”故曰：“天然自有之中。”若非一箇中，則性不得爲性也。此中所以爲性之德，而性所以無不善也。然則性之有中，猶人之有性也，未有無性之人，未有無中之性。故曰：“莫不有性。”故曰：“人性皆善。”善者，中之揚名；而中者，善之別名也。雖於氣質物欲之中，是性也，未嘗不在；雖於昏昧雜糅之中，是中也，未嘗離性。中若離性，則性是一箇空脫無理底物事，何得曰善？何得曰德？曰具衆理也？性皆有中，人皆有性，此甚章章易見。而昏昧之時，中非昏昧也，其所昏昧者，氣也；雜糅之時，中非雜糅也，其所雜糅者，氣也。氣雖昏昧雜糅，一箇中之理，則渾然全具，而外無喜怒哀樂之感，則無所偏倚於喜怒哀樂。既無偏倚，則又無所過不及者，乃性之體段，而爲

天下之大本也。所謂立大本者，非本無此理而忽然立之也。子思曰：“中也者，天下之大本。”朱子釋之曰：“大本者，天命之性云云。”則性是固有底物，而所謂立者，只是變化氣質，濯去物欲，則本有之理，自然建立，所謂“不加毫末，而萬善足”者也。豈謂於性中更立此一中字云也？故立大本者，惟聖人能之。【三十二章，“立大本”註可見此意。衆人能盡敬畏工夫，則亦致中和，所謂“成功則一也。”】而有大本者，雖至愚下賤，皆然，不然則何以曰：“人皆有性，人性皆善也？”此挺翼斷以爲人皆有未發之中者也。謹考先生答景初書，有曰：“未發之時，何嘗有雜糅者？”又有曰：“性惡者，亦是於發時，隨其氣之或強或柔，而發之不中，亦非於未發之前，與善性相對而立也云。”又有曰：“若如來喻則【朴說有曰：“中者，聖人之性；和者，聖人之情。”】惟聖人獨有中和之德，而餘人不得與也。然則其上所謂‘戒懼慎獨’，凡爲學者設，皆爲無用之空言云。”此三條，則與妄見沕合，方信瞽說之不堪悖矣。其後先生所教衆人未嘗有靜時之說，又有三條，此三條，則又與先生上三條不同。有曰：“衆人未嘗有靜時，未嘗有靜時，故亦未嘗有未發也云云。”更以水被風盪爲比。又有曰：“始曰天命之性，率性之道，次言存養省察之要，然後乃言未發之說，則所謂未發者，分明以君子用工者而言，非謂人人皆如此也。”【此則與先生上所謂餘人不得與之說不同。】又有曰：“夫心終日煩惱於物欲，未嘗寧靜，雖夜氣亦不能清，而夢寐亦至顛倒，烏可以外物之不接爲未發也？夫所謂未發，必粹然而不亂，瑩然而不昏，雖鬼神莫能窺者然後，斯可得而名之云云。”此則與先生上所謂“凡爲學者設，皆爲無用之空言”不同。妄意於此三條，反生十分大疑。愚雖狂僭且妄，何敢遽以所教爲不可，而況此三條之說，皆本於延平及朱子與張、林所講中者乎？愚於是，

就考朱子與張、林所講者而思之，終未得其說，更取《中庸》首章章句，沈潛反復然後，恍然似得其要領，而於先生所教，不得無一二更稟者矣。以《中庸》首篇次第言之，首言天命之性，【即未發之中】率性之道，【即發而中節】然後即言戒懼慎獨，則戒懼慎獨，乃性道之工夫也。其下中和云者，非性道外別有一中和也。子思於此，提起中和者，只以明夫天命之性、既發之情體段如是，以證動靜各有工夫之意，然後方說下致中和。故朱子統論之曰：“首明道之大原出於天而不可易，實體備於己而不可離，次言存養省察之要，終言聖神功化之極云云。”【不復言中和。】詳此條貫、意味，則天命之性、未發之中，本非二物。故朱子以存養省察，直作性道之工夫，而不復言存養省察，然後乃得有中和之意，則延平所謂“先言慎獨然後及中和。”先生所謂“存養省察然後有未發之中。”者，【程子所謂“敬而無失，乃所以中云。”者，似直是致中云爾，非有中之意。】無乃有違於子思、朱子之意乎？《中庸》則以存養省察，爲致中和之工夫，而延平則反以爲有中和之工夫，似未免倒置失序。此所以謂衆人無中，而又爲發未發之論所縛得不脫也。以存養省察，爲有中和之工夫，而必待粹然瑩然，雖鬼神莫能窺者，謂之未發，則便是工夫盡，何必更言致中和也？愚以爲謂之性，則便是未發也。衆人未嘗有未發之說，恐非至論也。未嘗有未發，則是未嘗有性，未嘗有性，則凡喜怒哀樂不論中節不中節而發於何處也？【伏乞此處特詳批誨。】延平此說，終始可疑，而朱子取之何也？竊以其時歲考之，朱子與張林所講，皆一時語，而【與林書，每提起南軒，則可見其一時。】乃乾道七八年間也。此時朱子年甫四十餘歲，其後二十年，始定《章句》，略無一語與當時所講同其意思，則安知夫四十歲所見，猶未及於六十無疑之時乎？【朱子與南軒講

時，以心爲已發，後乃覺其非是，又論人心道心時，以人心爲有營爲謀慮而言，與《中庸序說》不同，且自云‘六十方得無疑。’則警說非敢無據勑立，且非以當時所論爲皆不可從耳。】今先生所錄示，朱子答徐彥章書，“未發只是未應物時，雖賤隸不無此等時節云”者，近之。此亦必是後來所見，而猶未及《章句》之直指全體也。故愚欲專以《章句》爲準的，而猶未知先生之意，乃敢忘其僭竊，有此縷縷溷煩。伏乞先生裁其語，逼延平之罪，猶以篤信《章句》，爲容恕之地耶？并爲斥正下教焉。

上尤庵先生

春日和煖，伏惟先生體候萬福神相。瞻望道德之光，何日夜敢忘？小生僅保危喘矣。去秋及仲冬間，連有仰稟，日望盛教，而迄今未得，固知因便仰瀆，不足回諭，還增惶悚。而古人有聞未行，惟恐有聞，況今未聞，何敢更請？疑晦山積，無由可去，此亦命耶？院儒今始進去，其說具在前書中，今又不敢更瀆。餘伏祝先生道體，爲國爲道，珍衛益慶。不備。

院生今所齎進二冊子，乃慕巖書院節孝徐先生言行及其配享趙梁山父子行狀也。徐先生所著，只有十訓，載卷中，其孝德至行，既著《三綱行錄》。又有朴思庵所撰碑，而士林猶以不得先生之發揮闡揚爲大恨，乞賜弁卷之文。趙梁山父子事，鄉人屬挺翼作狀，今其文字豈足傳後？伏乞先生一揮改正，如其不可，則痛加繩削於本草，并賜一語於卷首，千萬至祝。

上尤庵先生

挺翼再拜白。私家不幸，室人奄忽棄背，悲悼酸苦，不自堪忍。暮春間，伏承先生前後下書，伏審體候萬福，伏喜無任。伊後夏秋已盡，伏未審動靜節宣何如？瞻慕尊仰，未嘗少歇。挺翼歿咎既積，喪禍未殄，昨今兩年，連遭三憾，不獨荊妻之死爲可哀耳。前此所遭，比今尤慘，皆是十年間，並有之喪。則雖使木石當之，亦難冥然不動，以此神氣摧剝，方寸敗壞，雖欲勉強自愛，末由也已。曾所僭猥向學之志，今忽廢墜無餘，未知古人亦嘗遇此逆境慘狀，而有能保好工夫者耶？莊子不可學，而子夏又當戒，所謂“得性情之正”者，有何工夫可能此也？一敬字，固徹上下，貫終始，而竊嘗試之於憂傷之極，則或反爲憂傷之所撓奪，此是平日無積累而然也。知命，聖賢能事，則下學之所不敢言，而非此則亦無以節情，或欲勉強用功，而恐有凌躐之罪，亦不敢謂外敬而求之命，未知如何？伏乞下教。謹具別紙。不備。

別紙

挺翼前後以此學糟粕，仰質者，不已愚且僭耶？挺翼氣昏質濁，初不敢留意於斯學，直是科場間浪子，而及其孤露，喪敗顛頓，妄意塞悲，僭先致知，而既失門路，亦一醉夢，其於本原上居敬涵養之功，則蓋蔑蔑矣。正所謂無本失序，何足與論於初學之末哉？愚而益愚，不此之悔，而頃因友朋間論議，妄以性命之說仰瀆尊嚴，而亦未覺其言之益僭且妄，伏蒙先生之哀憐矜察，諄諄善諭，以涵養下學之功。於是乎瞿然自反，試取所呈鄙書草本而讀之，除是所論

之是非得失，而其辭氣之間，十分踰越，殆若大言無忌，此正平日頓無居敬、涵養之功之所致也。苟非先生之警發砭誨，則何能免半死之蠱哉？乃覺朱夫子所謂“平日闕却涵養，辭氣浮露淺薄云”者，乃所以深慮後學者發，而先生今日之爲愚生，對病投藥者，實前後一揆也。挺翼雖至愚無狀，敢不服膺而終身哉？但朱子亦言：“致知於下學工夫上，不明不措，實爲困知、勉行之功。”則前所稟未發之誨，不可不請益。伏乞終始賜教。

下教中，所謂若有恒性、習與性成、性無不善、性相近、誠無爲、其性鑿矣者，謹聞命矣。蓋小生之意，本以未發爲氣不用事，混然一理時節，故常去氣質中，單指理一邊爲說，而曰：“性無不善，性無不中，不可謂未有未發之時云爾。”則此正若有恒性、性無不善、誠無爲，而下教所謂“據初而言”者也。大抵發之者，氣也。未發時氣不用事，則未發之性，何可雜氣而言其或中或不中也？蓋中，是在中不偏不倚之名也。隨氣感發，則雖堯、舜之性，亦非中也；氣無所感，則雖衆人之性，亦不偏也。以此言之，則人皆有未發之中，但衆人之氣雜，常動未靜，常動則是氣專用事者也。理既乘氣，則不可謂未發，不可謂未發，則何可謂中也？此正習與性成、性相近、其性鑿矣，而下教所謂“性道有弊”者也。子思之所以着存養省察之工者，豈非爲此耶？以此言之，則不可謂皆有未發之中。但常動未靜者，乃氣也，非性之本體。故於常動未靜中，求其本體，則不偏不倚之理，何可謂無有也？若謂之無有，則今人之終日狂悖者，或能反而求之，則便有和底出來者，豈不自本體中出來耶？故朱夫子深取胡文定所謂“百起百滅，其體自若”之說矣。若以天道言

之，則元亨利貞之理，本無偏倚，而或有寒暑之失其中者，皆是氣之所爲，而非理之本然也。於其失中之時，求其本然之體，則何嘗不在，而亦何嘗不中也？小生常守此意，以爲人苟能存養省察，變化其氣，則可以立大本，致其中也。要以實人皆可以爲堯、舜之說，而下語措辭之間，反忽於存養省察、矯揉氣質之一大關鍵，則其疎脫謬妄之病，何可逃於先生眼底耶？自蒙下教，遂刻意反求，庶幾髣髴於下學之末，而苟其所知已錯，則亦無以救其冥行。伏乞更爲下教。下教中有曰：“性雖出於天，而不能無氣質人欲之蔽。故卽繼之以存養省察之功，既加以存養省察之功，然後性無不中。故又繼之以喜怒哀樂未發之謂中，其次序之井井不紊如此云云。”不能無蔽，故繼之以存省之功，則既得聞命矣。既加以存省之功，然後性無不中，故又繼之以未發之中云，則先生雖以氣質之性爲言，而似與朱子所謂【見《節要》十一卷《答呂子約》第三十書。】“須知上四句分別中和，不是說聖人事，只是泛說道理名色地頭如此，下面說致中和，方是說做工夫處，而惟聖人爲能盡之”之語，不相應。又與《中庸或問》駁呂氏之說，【見首章第一圈下。】不同，有曰：“呂氏但謂‘人雖受天地之中以生，而梏於形體，又爲私意小智所撓，故與天地不相似，而發不中節，必有以不失其所受乎天者，然後爲道。’則所謂道者，又在修爲之後，而反由教而得之，非復子思、程子所指人欲未萌自然發見之意矣云。”則先生所謂“存省然後，性無不中，故又繼之以未發之中云”者，恐微有呂氏之意，而似違於朱子兩款之說也。於是，弟子之惑滋甚焉。

小生前書中“立大本者，惟聖人能之，有大本，則雖至愚皆然之”見，不得容易濯去。伏乞哀憐其狂惑，特加善誘，謹百拜冀祝。下

教深責妄求上達，非不悚然欽服。而但朱子以致知爲下學工夫，今不能自己者，只自僭擬致知，非敢求上達。并乞恕察如何？又敢有所稟。謹按《儀禮》齊衰三年，父卒則爲母條疏說，引《內則》女子許嫁一節，以明父服將除遭母喪，猶不得伸三年之驗。而今據此，可以傍照，父在母喪，杖期畢後，雖是心喪，亦可許嫁之意矣。內則曰：“女子十有五而笄，二十而嫁，有故二十三而嫁云云。”賈疏之引此，辨明其年、月、時節極詳，而有曰：“假令女年二十，二月嫁娶之月，將嫁正月而遭父喪，并後年正月爲十三月小祥，又至後年正月大祥。女年二十二，欲以二月嫁，又遭母喪，至後年正月，十三月大祥。女是二十三而嫁云云。”據此，則此與父在母喪，杖期同，而其嫁不計心喪一節明矣。今世士大夫，或有依此行之者，果有所據也。但又考儀禮五服圖，有問《內則》此條於朱子，朱子答曰：“少遲不過一年，二十四而嫁，亦未晚也云。”朱子之言如此，則未知又如何？但朱子，則本據父卒母喪永感後言之耳。若父在母喪，則父在爲重，只據《內則》爲正耶？挺翼二十年來，荐遭重喪，昏嫁積滯，今又遭此妻喪，或慮有廢倫之變，此預稟，并乞詳教。

去年伏奉下書後，卽爲構草，終未得順便，稽滯至今。今未及改書，且以兩款語尾之未免重複，且甚支離，不勝罪悚之至。

與朴上舍【光後】

《河西年譜》，挺翼初非自當述作，朴掌令改製行狀時，更請遺事於

亨祉氏，亨祉氏屬挺翼草厥遺蹟，挺翼不得辭，而難其記錄之體。欲做朱子《濂溪事實記》、《伊川年譜》例，則既有前狀及補遺，不可架疊以增僭猥。故就考西崖公所製《退溪年譜》，則用綱目例，記事頗詳，遂效其體構草。伊時頗集可據文字，隨事考出成錄，而急應朴請，未及刪修。其後亨祉氏，以此草稿遍示諸人，又質於趙修撰根，因欲爲年譜。挺翼愕而止之曰：“此可付作者採用成書，則不敢辭，若直作年譜，則豈挺翼所敢安者？且其所錄，一時考據隨錄，文多不倫，不如徐待後之君子。”因略加刪正而未盡。其後又聞將欲入梓，方窘悶不已。今見兄駁正付標，可見容恕盛意。但標示處，止二十三段，其八直從所教，而以己意改定者亦數處，間有筆誤或集中本文，則當使之考正。不得從教者強半，或以文體不安，或以事實未妥。其中次花潭韻末句，依用先生所次韻無疑，其以下類從者，合在一歲之教，鄙意曾亦如是而未及改，今移錄戊申下。先祖諱名事，但曰“奇錦江”，本未安，所教亦恐未安。某若以述作者自處，又將以此文字，作傳後斷案，則竊考朱子作《延平行狀》，稱韋齋處曰“某先君子吏部府君”，繼稱他人，直用其名，則不可以他稱名而不諱其所諱也。又狀外大父祝確，又稱韋齋以先君子，則又不可壓尊而不諱其所諱也。且諱先似不可論其聞人與否也。此則不必多辨。且先生集中及行狀末，皆有先祖名，亦有先祖所著文、補遺亦稱其號，後人或可知，且恐人不知而不諱其祖，如何？但書云云者，不敢以此譜，爲傳後文字。故姑書姓號，以俟立言者改正耳。且年譜記事，皆有序跋，直書己名。若使此譜因行，則當改曰某先祖錦江公，而姑不敢以傳後自處。如有不然，更爲斥教。

答申按使【翼相】

曾見《石潭日記》，而其本逸其末卷，今此《經筵日記》二篇者，乃《石潭記》之所逸，而實一本二名者也。竊惟此記，乃先生之不得已也。有知我罪我之意，而其例則異於《麟經》筆法，托史官實錄之法，而其職終非史氏，則直是假當日日記，略寓史法，以爲野史之例耳。先生之爲此，有不得已，而其意不欲刊行於當世，故藏之石潭而不出，愚竊每疑其出太早。今若附之外集，刊行當世，則似非先生本意，而又無可據之例。竊恐不知者，起鬧構誣，累我先生大公至正之心也，又安知夫復有子光者，竊發構禍耶？只看義理，不顧禍福，雖君子之常，不密則失，“括囊無咎”，亦《大易》之訓，則主此役者，可不長慮却顧耶？愚意姑依先生本意，藏之石室，直待後日子雲，如何如何？此係斯文重事，不得不略陳所見，恭俟取舍。李漢編次《昌黎文集》，以《順宗實錄》爲列於史書，不收於集中，諸本因之。朱子非之以爲“據當時言之，未爲大然。況諸本去公之時益遠，比之當日事體不同，皆當收拾，使無失墜，不當以苟簡之論爲限斷，直有所遺也。”朱子之意，以爲“韓公爲當時史官，其直筆不必爲當時所苟諱，後來諸本尤無可諱云”耳。今先生若任史職，則後學當依朱子“無可諱”，而先生以當日宗匠，直依《春秋》遺意，述此日記，以爲異時斷案之意，而非敢自爲史氏之職，則亦所謂“戚矣”者也。地位、時勢，一若孔子，則今之刊行，庸何傷？但自從祀得請後，摺摭先生者，日益憎毒。故愚意不得不吹蠶，似不若淨寫數本，益加考訂，各藏本院中，以待他日任斯責者矣。未知如何？

答朴景初[尙玄]

陰陽消長說

陰陽消長圖與說，得之，而但說之屈伸以下，涉於佛氏輪廻之意味，未知如何？【屈伸以下，語圓而意滯。陰陽屈伸者，不是將已屈爲伸，只往者過，來者續。故非古又回來爲今，今又回去爲古，死非復回爲生，生非復回爲死。今日之往者爲消，明日之來者爲長，乃消長之理也。佛氏不識此理，故有輪廻之說。】

理說

理說，大槩得之，而“理也者，物之妙用云”者，恐未安。謂之物之主宰則是，而謂之妙用則不是。故其下體用之論，未見的確意味，如何？

道器說

形而上下之說，可一言而盡之矣。形而上者，無形之謂也；形而下者，有形之謂也。何謂無形有形？曰：“自形而上，無聲臭，故曰無形；自形而下，皆可名狀，故曰有形。”然則而上、而下云者，何謂也？曰：“上，非上昇之上，下，非下降之下；亦非在上之上，在下之下；亦非上面之上，下面之下。有物於此，雖有形，而其理則無可形，故無可形之謂形而上也；雖有³理，而其物則有可形，故有可形之謂形而下也。其意若曰無形而上，有形而下。而若下有無字，

3 有：저본에는 '是'로 되어 있으나 앞의 <上尤庵先生>의 '形而上下'에 관한 내용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則恐人索無形於有形之外，故只下一形字，以明道器不相離，而又以上下字分其無形有形。故程子曰：‘器亦道，道亦器。’又曰：‘有形，皆器也，無形，爲道。’今考之於經文，質之於先覺，明若日星，本無可疑者。而兄反以爲“形而上者乾之謂也，形而下者坤之謂也”者，有何意見也？以經文考之，元無意味於上下文勢；以字義推之，未有所據於古今論說，其亦惑矣。退之所謂“形於上者謂之天，形於下者謂之地云。”則以形字直稱之天地，故其言固無病。而今高明之見，則以道器爲乾坤，以乾坤直作天地之形者，何見也？乾坤者，天地之性情也。孔子何得以形而上下，稱乾坤乎？天地之性情，得以形稱，則人之性情，亦可以形言乎？況兄所謂“乾坤成列云”者，明是卦畫乾坤之稱，而兄欲援而爲天地之形體，而因以形而上下名之者，又何意也？兄蓋嘗坐於理會而上而下四字不得，生出此許多別見，深可歎也。譬說雖俚，而若形而上下之說，則似甚分曉，須勿以人廢言。而若以爲非是，則更以見教，千萬至仰。

人心道心說

朱子曰：“心之虛靈知覺，一而已云。”則朱子果以心爲兩心乎？若以或原、或生之語，作兩心看，則經所謂“人心道心云”者，亦可作兩心看耶？所以人屬形氣，道屬性命者，非謂有形氣性命兩箇心也。心則一，而指其動處，則有二名也。感形氣而動者，謂之人，人有形氣故也；感義理而動者，謂之道，道是義理故也。心本性命，而動有公私，故謂之私，謂之正。而所謂“二者雜於方寸云”者，正是公私二者也，其可以此謂有兩心乎？形氣之私，易流，故謂之危；性命之理，難見，故謂之微。着精一之工，然後危安微著者，有何名

義之錯也？先聖之所以授受者，不外於此；後聖之所以相傳者，亦賴於是。故朱夫子洞見而明釋之，曾未有一毫可疑者。而兄乃不是之信，敢爲別作有爲無爲之說者，何也？兄以有爲無爲者，自謂得千古不傳之妙，而愚未知果合於經旨而不背於心理耶？心未發之時，固未見其有爲無爲，而及其發也，則皆有爲也。孝爲父發，忠爲君發，仁義禮智莫不有爲而發，則道心果可謂之無爲乎？愚則以爲“人心道心，皆有爲而發，有公私者，理氣之所爲也。”此甚易知之理，而兄猶作如此見解者，何也？竊恐高明之於理會本體，尙隔一重膜子，故今不得來新意於兄見，而尤爲篤信於朱子說耳。張南軒曰：“無所爲而爲者，義也；有所爲而爲者，利也。”此則以行處言，而本非語心也。兄無乃誤認而主張之，援附於人道心之論耶？若然則不徒益乖於經旨，并與南軒之意而失之矣，兄豈如是也？圖以動屬人，以靜屬道，尤爲謬戾。而若其意象之俱失精當，則皆坐於錯會本旨，不必更加妄論，未知如何？

人道心補說

更以圖意及篇中“人心主動，道心主靜”等語考之，則所謂“有爲無爲云”者，乃直屬於動靜而言也。然則愚之所論有爲無爲處，反不能正中乎高明之病也，此亦愚之不能知言之過，而方覺高明之病，果出於羅整庵之見也。整庵始作如此見解，以人道心直屬之性情，盧蘇齋深取之，退溪、高峯既已力辨，則如愚者，不必更贅。而但兄既以道心屬之靜，人心屬之動，則又何以惟微惟危，分作一心之病也？然則人之一心動靜，皆有病，而所謂道者，元無干涉也，聖人何得以道着之心字上乎？若只以靜爲貴，而必着一道字，則是靜一

邊，方爲道，而動一邊，則元無道也。雖以聖人之心，必於靜時，乃得爲聖人之心，而既動之後，則與衆人一也，豈理乎？且精一執中，皆是動後工夫、功效，而兄以道心屬靜，則吾未知不動時精一執中之工，將何所着落也。程子曰：“不可求中於喜怒哀樂未發之時。”然則獨可下精一於此心不動之時乎？愚所謂“心則一，而指其動處則有二名，心本性命，而動有公私”等語，似無病於人道之解，而所謂精一執中之工方着落矣。幸深思之。且“理能知覺，氣不知覺云”者，是認理爲氣，認氣爲理，甚可慮也。諸說中語病，不止於此，而未暇隨處仰復，鄙說必其病尤多，而不能自知，可歎也已。

性說

聞性有體用，未聞其有迹。何謂體？有仁之理，有義之理，有禮之理，有智之理，統合之曰善而未發之謂體也。何謂用？感於父子而仁發，感於君臣而義發，感於夫婦而禮發，感於長幼而智發，發而爲萬善，而既發之謂用也。愚之所見者如是，而未聞有所謂迹者也。兄之論性，亦不甚錯，而必以仁義禮智爲性之迹者，何也？夫迹者，足痕之名也。性何嘗有迹也？仁義禮智，爲性之迹，則是性中本無仁義禮智之理，而至性發於事物然後，忽然見其爲仁義禮智也，其可乎？程子曰：“鬼神者，造化之迹也。”造化之妙，乘陰陽之氣，故其言乃如是。而今以性中所具之理，爲性之迹，則是以足當行之理，直爲足之痕也，豈理乎？又所謂“元亨利貞，道之迹”者，一齊不是，切宜改之。“元亨利貞，天道之常，仁義禮智，人性之綱。”至哉，言乎！若論四端，則仁義禮智，爲四端之體，而四端，爲仁義禮智之用也。若論衆善，則仁義禮智，爲衆善之綱，而衆善，爲仁義禮智

之紀也。四端、衆善，皆本於仁義禮智，而仁義禮智，只是一箇性耳。性雖一理，而一理之中，萬理俱備，而其中仁義禮智，獨爲四端之本，衆善之綱，靜爲體，動爲用，而天下萬事，無不自其中流出。以此推之，則兄所謂“仁義禮智之理，未嘗有四”者，是耶？非耶？兄只知性爲一理，而不復知一理之中便具萬理，可謂無星之衡，無寸之尺，其可乎？合而言之則一理，而分而言之則不徒四性。萬理俱備，無一毫欠缺者，性也。如是論性，未知如何？

論數

程子之論性曰：“論性不論氣，不備；論氣不論性，不明。”愚於左右與士佑論數之說，亦以爲“論數不論氣，不備；論氣不論數，不明。”蓋士佑之見，論氣不論數也；高明之見，論數不論氣也。故互爲偏倚，而不能相合耳。若如士佑之見，則子貢以英悟之資，終始親炙於孔子，而卒未入於聖人之域者，果如兄所論何？豈非數爲之局耶？若如高明之見，則子貢初嘗貨殖，而終於聞性與天道，一人之數，而初何事乎貨殖，終何至聞性與天道也？豈非氣有所變耶？蓋人物之生，莫非氣數，而數不可易，氣能有變。何謂氣有變也？曰：“理乘氣行，而氣承理運，則理爲氣之主，而氣聽命於理也。故人能循是理，而遏其欲，則氣稟之濁，漸變爲清。故打破家事者，終作君子；喜事田獵者，卒爲大賢。”然則數何爲不變也？曰：“氣依數行，而數以氣定，則氣雖有爲，而數不可變。故人物之生，一爲數之所局，則終不能易其數。故亞聖之賢，終於貧夭；天縱之聖，卒爲匹夫。”曰：“何以知氣可變而數不可易也？”曰：“春變爲夏，秋變爲冬，木火金水，互相推變，而一六之數，則局於一六，而不可變

爲二七，三八之數，則局於三八，而不可變爲四九。故一日之間，氣候萬狀，而十二時百刻之數，終不可變。”以此推之，則惡可變爲善，而命不逃其吉凶。如是論之，不亦備且明矣乎？

太極無極解

理，何謂太極也？曰：“太者，甚大也，極者，凡物之極高處，皆謂之極也。以理之極高，不可名狀，故曰太極也，其意若曰甚大之極也。”曰：“何謂無極也？”曰：“雖是甚大之極，而無形影，無聲臭，無有所謂極者，故曰無極也，其意若曰無形之極也。”無極太極之說，大槩如此，而兄乃以生生不窮爲無極者，何見也？以不窮字解無極字耶？然則極字爲窮字之義，太極亦可謂之太窮乎？何不深究朱夫子《太極圖註解》也？又朱夫子嘗教人，欲求經意，先求文義，解文義通透然後，可得經意，不得文義，則初未知聖人之言指爲何物也，其能得聖人之意乎？朱子之說，大槩如此，豈非讀經之至要乎？間嘗竊考兄讀經之說，大抵坐於識文字，文義未盡通透，而徑生別見，以爲得前人之所未得，而反爲正見之大疵累矣。《人心道心說》，則不察人與道字之義，《道器說》，則不察而上而下字之義，誤下迹字於《性說》中，今又以窮字解極字於《太極解》中。若悟不窮字之決不可爲無極字之解，則諸說之惑，終當漸解。兄試思之。太極果可解以太窮乎？太極可解以太窮然後，無極可解作無窮極之義。今若以太極、無極之極字，謂有異同，則決不敢承命也。

讀易

《易》，難讀，難究，難解，難言，非蒙學所敢妄議，而若兄所別解

者，則有一二可論者，不可遂已。蓋《易》，生於象數，而至理寓焉；用於占決，而變化出焉。故聖人之繫辭，若文王之彖、周公之爻、孔子之傳，各有其例，有直以義理言者，有但以象言者，有專以占決言者，有只以數言者，皆《易》中所具之至理，而不可偏廢者也。故《程傳》則直以義理解之，《本義》則專以占決釋之，康節則得其數者也，獨象易無傳焉，有王弼、荀《九家》者，而今未考焉。學《易》者，主《程傳》而得其義理，主《本義》而得其占決，主康節而得其數與占，皆足爲學《易》。故讀《易》，不可拘以一例，惟順於理，通於義，不拂經旨，則各以其所主者讀之，乃學《易》之方也。故程、朱之解，雖有不同處，而不害其爲至論也。然以程、朱讀之不通，則當仰思俯讀，終始不得然後，或可濯舊來新。而若徑先生疑於不當疑之處，以求所謂別樣新奇者，則最爲正學之害也。若先甲、後甲，愚亦未得其說，而兄所得者，亦未見其合於文義，則此正俯仰血誠以求者。《乾》之九三、《蠱》之初六，皆不當疑而疑者也。若《觀》象之以不作丕，正所謂新奇之病，一切不是。凡祭盥而未薦之時，誠意克一，既薦則誠意自不得如未薦時。故既灌不欲觀之之歎，雖爲魯君臣專無誠意者發，而尚曰“既灌以下”，則灌前猶有可觀之誠意者可知耳。且“有孚顒若”，正爲盥不薦時節之象，而兄以何見，生此作丕意思也？如此處不是小病痛，速改之如何？其餘所見，亦不害爲不拘一例也。然某當作某處太多，蓋皆好異之病耳。嘗見李啓玄者，爲象易而其解甚有理。愚嘗試以其例讀數卷，則或有所得者，而後以憂廢，今盡忘之。若其人者，時與論《易》，則當甚有益，豈非昔時籀籒者類耶？【然此人乃方外不羈者，故其論不本程、朱正路，景初之誤見，此人啓之耶？】

答朴景初

示諭性理書，未及潛玩體究，其中大旨，則謹已領得，實有與鄙意不合者，略此仰復一二，惟兄試察之。兄以孟子爲主陽而言，荀子爲主陰而言，楊子爲兼陰陽言者，恐未瑩。兄意以爲孟子則只見陽一邊，荀子則只見陰一邊，楊子則兼見陰陽而如是立言耶？然則兄之所見，畢竟與楊子合，而又以無主宰譏之者，何也？兄又以夫子繼善成性，爲論性之至矣盡矣，弟亦以爲至矣盡矣。而未知兄以爲繼善時獨有陽無陰，而至成性然後，始乃兼有陰陽耶？以陽主於生物，生物之理，豈非善之語究之，則兄決以爲生物之時，獨有陽而無陰也，豈理乎？弟則以爲陰陽具然後，乃能生物，而生物之陰陽俱善也，陽善陰惡而謂之俱善者，何也？天地生物之心，乃理也，理爲陰陽之主宰。故生物之陰陽，元無不善也。故夫子曰：“一陰一陽之謂道，繼之者善，成之者性也。”成性之後，有善惡者，何也？理是純善，而陰陽清濁，有萬不同。生物之始，理乘陰陽，則其陰陽者，亦生物之陰陽，故其氣亦善，所謂繼之者善也。及至物受之時，則正是各正性命之時，故其各稟之氣，清濁粹駁，紛紜不齊，故其人亦有善惡，所謂成之者性也。然氣雖不齊，而所乘之理，亦無不善，故氣質善惡之中，若單指其性，則元無有不善。故孟子之言性善，程、張之□□□論是也。以此推之，則兄所論性理大旨，皆可勘破矣。兄之所論若是語病，則固無大害，而若所見如此，則深可慮也。頃以前所問答者，問於尹執義拯，而說兄病處，不得不從實言之矣。欲送呈其紙於兄，而昏憤此甚，不得書寫，今以其草稿呈上，亦可解見旨意也。兄其受此盡言，勿視以詆毀，幸甚。

答朴景初

前後示喻二篇，宜卽奉復者，而別有以告於兄者，似緊於酬二篇者，故姑徐之。大抵學問之道無他，知行而已。知者，所以知此也；行者，所以行此也。徒知而不行，則其所知者，不過爲誦說之資而已；徒行而不知，則其所行者，不過爲凡陋之歸而已。故知行之於學問也，如兩輪、如兩翼，不可偏廢也。是以聖門之所謂博文約禮、所謂格致誠正、所謂知仁勇者，其言雖殊，皆所以尊德性、道問學，而以求盡乎知行者也。雖然所謂知者，必真知其所以然之理，窮到十分真的，無毫髮未盡底，使其精粗本末，不容有真妄之雜，然後所謂知者，方得爲知之實。而其行者，誠知其善之當爲、惡之不當爲，亦無毫髮自欺底，使其表裏、隱顯，不容有纖芥之累，然後所謂行者，又方得爲行之實矣。此則知行之所以必貴乎其實也。雖然，所謂知行者，雖貴乎其實，而所以實其知行者，豈無其本乎？是以聖人之所以教人，必先乎《小學》，使之習於誠敬，而其所以收放心、養德性者，無所不用其至，然後始乃進之乎《大學》，而以求其所謂格致誠正之工，則是知誠敬者，乃所以實知行之本，而不可不先用工者也。於此可見古人之爲學，必有次第，而從頭至尾，無一不主於誠敬也。夫如是，則所謂學問者，必以《小學》爲先，然後方有根基之可據，而後之學者，不幸而既失《小學》之教，及其長也，始欲直進乎《大學》者，不幾於無麵之不托乎？然而尙幸有可爲者，亦曰敬而已，亦曰誠而已。若能於此，先着其功，則亦無有所碍矣。愚嘗得此說於程、朱二夫子之訓，雖以愚之失學偃偃不肖無狀，亦嘗少試於此，而不敢以告於人者。今幸吾兄不鄙之，而與之論道理，

雖甚可愧，又不幸兄之所論，大相逕庭於愚見。不惟逕庭於愚見，又大相逕庭於聖賢，此甚可駭。前後往復之書、面講之說，不止一再，而兄猶堅執己見，無復從人底意思。故頃日奉話之日，潛察其辭氣意象，則不過其病坐於全不知誠敬字故也。愚自此日悉置其所爭論者，而始叩二字於兄，則兄果不能舉主一無適⁴、真實無妄之訓，寧不悶哉？以兄剛果之質，既能脫出於流俗之所不能者，則何獨於學問上，尙不知誠敬之先可求，而妄先馳騫於一知字也？苟能乎知，則行之不難，而知既大錯，行豈不謬？不知程朱，何理可知；輕視程朱，何道可行？雖然兄能一朝覺悟，能知誠敬，則始能知程朱，而無理不知；始能尊程朱，而無道不行，兄豈終不知誠敬而已者乎？然愚所謂“知行必本乎誠敬”者，亦非臆見翫說。程子曰：“致知以敬爲本。”孔子言達道、達德，而曰：“行之者一也。”此果足法。而若又以程子不足信，則請先試於孔子之所言者，如何？前後所示二篇，則待兄能用誠敬字然後，乃可條陳，方傾耳以竚之。

前日以兄說及鄙論，取辨於尹兄者，其答始來，考其日，則乃五月既望，而去月二十六日方到，可見勿滯之難也。呈其別紙，照破爲佳，而其所斥非兄見者，更峻於鄙說，至欲攻兄以異端，則不復聽弟之委曲救兄者，方知弟之論兄氣象處，反爲沮兄之資也。又其“鳴鼓”等語，使兄驟見，則豈不大駭？然自古論道者，若見異論之侮先師，則必其論之嚴乎斧鉞，衛道之

4 適：저본에는 ‘敵’으로 되어 있으나, 《송암집(松巖集)》과 다수의 용례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誠，不容已也，庸何傷乎？兄若不平乎此，則鄙所論誠敬之工者，可雪其恥，兄豈妄肆血氣乎？其所砭駁愚說者，亦多足見其見解精密，而若《道器說》中，無形有形之見非，則其論太固。又若病《氣數說》以二岐看，則反與兄見同其淺深，此甚可駭。方欲更辨歸一，而鄙說此無草本，曾所溷兄者，若不歸於毀除，則投付於晉卿之來，如何？

答景陽【姓名缺】

正心章說，前後所陳，自謂備盡，而今見龍安所論，則正是一家心法，高妙精深者如此，又何敢更容臆說？第以所聞有異於此，不得遂已，略潤前說，以求斤正。竊聞之經傳立言，蓋有準則，若以合體用一例言之，成湯所謂“上帝降衷，克綏厥猷”，《禮記》所謂“人生而靜，感物而動”，孔子所謂“寂然不動，感而遂通”，《中庸》所謂“天命率性及未發之中，中節之和及尊德性、道問學”，此等立言，正所謂合體用者也，未嘗如正心章先言心之病也。此病字，乃不得其正之謂，而病之屬動屬靜，不難辨得。試以人身之病言之。病是靜耶？動耶？愚意氣血和平者，靜也；客氣侵攻者，動也。所謂客氣者，不獨風寒暑濕之外感也，血氣之失和平者，皆可謂之動也。血氣之失和平，既謂之動，則正心章所謂心有所四者，不得其正，心不在三病，其可不謂之動而屬之用耶？既謂之動而屬之用，則其所以克去其病之術，又豈可不屬之動耶？正心之意，乃所以正其不正，以求正也。正其不正，以求正者，乃所以治病之術也。今若以正其不

正，屬之兼體，則正是治病者，見藥石之能治病，而以藥石兼謂之其身也，豈理乎？以此反復，則正心章之意，庶可見矣。此外發明，自謂前書盡之，而今竊矚龍安尊兄許多論議，則難以前說求正於左右，而况龍安兄以《語類》中所謂“心言統體，意是就其中發處，正心如戒慎不覩不聞，誠意如慎獨”數款，主張合體用甚力，如愚末學尤不敢容喙。第惟朱子此說，只以明夫心是意體，故誠意之後，繼以正心者，乃體用上俱有工夫之意云耳，非謂正心章，乃體上工夫；誠意章，乃用上工夫云也。故但言正心如戒懼，而不直言正心乃戒懼工夫云，則此處最宜活看。不然則正心章，當有戒懼意思，未知章內何說何字，帶戒懼意思也？朱子之意，正在誠正之功相繼云耳，非謂誠意正心，實同中庸分體用工夫云者，不啻明白矣。不然則朱子何以只言“惟子思說未發之中”云，而不復并舉正心章也？朱子常自言：“一生精力，盡於大學云。”而猶遺却正心章於言體用說上，愚竊未信。因此竊有獻焉。朱子嘗戒學者：“讀經，切勿左遮右攔，前拖後曳，隨語生解，節上生枝，理義太多，反蹉却本經旨意云”者，不啻勤勤懇懇累言不已【此訓，於後學工夫，可謂深切著明，而實中愚者今日之痼病。故嘗切敬誦，而今又奉而為獻。】非敢謂龍安兄亦有此病，只欲與足下相勉勵矣。向者左右論鄙前書中言用以及體曰：“如格致章，何嘗有及體處也？”愚今思之，則格致則心體明，此非言用以及體耶？並惟照察。

物格之說，自退溪、高峯，已有此論辨，雖以退溪之精詳，終亦未盡瑩，其後諸說，紛紜橫潰，往往有可笑處。蓋緣經之物格二字簡奧，而章句之物理之極處無不到之文義，令人未易解見故也。某幸

早得見栗谷物理無不到極處說，恍然得其要領，及見《或問》中各有以詣其極之說，尤覺朱子之意正如此也。尋常無疑於物格說，而但以《或問》及栗谷說，準之於《章句》，則終覺《章句》之文勢，硬硬未順，又考解格物欲其極處無不到，則其文勢與物格解無異。故愚意以爲物格解，則文勢雖如此，宜以或問解讀之，而至於格物解，則重在於窮至事物，當以吾所窮至者，欲其至於極處看者，何害於文同而旨異也？【此則與貴說中末端，或問上下句讀，分以厓伊，然後語意始暢云者，畧同。向者面談時，初頭畧舉此意，中間更欲詳陳，而語意未瑩，致尊疑吾變說，而因日暮終未分疏。今見小紙，猶有此疑，似又申東，可笑。】及聞向者妙論，則雖覺其文意俱順，而猶疑其不合於《或問》之解，及聞舉補亡章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之文，以準極處無不到之意，然後漸覺高明之見，果有所據，其旨意緊要，則與《或問》中詣其極之意，無不吻合，而文義俱順於讀《章句》，則此實高明之自得也。蓋朱子慮學者未易見得章句文義，故於《或問》中，更轉一語，使人易曉，如愚則只知《或問》之與章句無異，而未得《章句》之文勢無可疑也。如高明則特先見得《章句》之文勢，初無不順，愚於此深服高明解此之精當也。【格物解極處無不到者，亦可如右所說看之矣。】返旆後，雖未及見所述之說，而極幸爛熳同歸矣。承此所述之說，則尤見其直截明白，吁可尚已。但來說文義俱到，而其中有力無力字，意雖是，而言有病，以下得重下得輕，改有力無力字則似好，未知如何？

答李君輔【世弼】

古人苟同道，則雖不見面，亦相通書。挺翼慕峻節清風，固不後人，而賤疾危死者，數矣。既不得承教於旅邸，又不敢自附乎同道，未能以一書冒通姓名。適於朋友間，得聞瓊什一絕，諷詠之餘，覺得其所遭與澹庵相類，而其得失自別。故輒忘其不習詩工，率爾步之，而不敢以仰徹左右，幸李友傳誦而聞之，豈意足下不爲撫掌，而反賜辱教，如是諄諄也？且挺翼至愚極陋，性實朴直，尋常友朋間，雖未能切偲相助，而若阿諛巽懦，則自謂無是疾矣。只“仰當日操守”一款，誠不負掀天撼岳之全節，苟非用工於敬肆、理欲之間者不能，而又以愧夫前輩之失節，故拙句如是，而足下乃反諄諄不已，有若《詩》所謂“彼宜有罪女覆說之”者然。亦可見不忸小成，而直指遠道，此愚所以聞風而益自斂衽也。如愚鄙劣，何敢仰裨萬一？而足下之所以求藥借針，若是其勤者，何哉？不敢當不敢當。雖然彼澹庵，豈易論哉？其所學所造，不愧於正大高明，而猶未及夫精微堅確之地，故竟未免“雪消草生”，朱紫陽之責備，則未知足下今日自處之全體，與澹庵何如哉？愚以爲不近黎頰，則誠過之，而若全體造詣，則竊恐猶未及一步竿頭也。然則足下雖能澹庵之所未能，而澹庵之所能，足下誠未之能耶？以足下實若虛之志，一蹙而到不難，而若其所冀望，則不止於此。故今不以澹庵所至，爲足下祝，而足下亦當留心於切磋琢磨上，恒持“雪消草生”之戒，如何如何？挺翼志日益怠，病日益深，舊聞無存，新知如灰。雖蒙足下警惰策懦，要與相講，而自顧其中，恐難承當，奈何？然若有所教，時賜德音，而終不與絕，則其幸又可量哉？

與尹執義子仁【拯】

此有友人姓名朴尙玄者，居光州，既棄舉子業，從事於斯學，而其學以苦心思索爲主，必欲自得於經旨。故不必深信程、朱，往往以私意，作別樣訓解，先立己見，不入人言，以此爲自得之味，不惟發之於其口，又筆之於其書，此甚可駭。而觀其氣像意味，非必欲反程、朱而爲異端也，惟是稟質，穎悟不足，而剛果或過，淳厚無本，而輕率有病。故其讀經講解之際，初未嘗不本於朱子，而於其肯綮難會處，未易透見，則遽疑其道理不如此，強生別見。極力苦思，偶得一路略通，則遽信爲千古不傳之妙，不復知先師之不可背不可攻，率然爲各立不服之態，此其剛褊輕浮之稟，有以啓之。而若其立心操行，則清潔貞固，有非俗士之可擬。潛玩體究，亦多得力於經傳，故觀其讀《大學》，則又篤信《章句》，不翅若親炙之態。此則渠所體究者，初無疑於先覺而然耳。此其學問，雖有大病，而又不可以異端而斥之也。曾以其所著十餘篇，取質於尤齋老先生，先生未及遍閱回答，而奄爲侍史之所失，其後先生更索於渠，而渠未之再呈。又嘗以示弟，弟是躡於學者也，年廿餘歲時，雖嘗粗聞此事，而其後喪威以怵迫之，科場以馳逐之，醉生夢死於數十年間，至今爲白首腐儒，何敢有所議於論學文字乎？第其來示之意，不可虛負，偶得之見，不可苟同。故僭妄論答，以爲相益之地，而渠又揮斥，不少假貸。其後累度會合，每竟日論辨，而不得歸一，此乃挺翼之所論只口耳，故其言無力，不能回彼，而其所辨說者，必多以醉指醉者矣。方此自救之不暇，何能救人之誤而得其服乎？若非道兄明辨而斥正之，則不惟渠辛苦力學，爲枉費之可惜。而不幸湖南

寂寂，無一人能道此事者，或慮後生新進，浸浸從此，則其害豈淺淺乎？逐條攻破，披雲賜日，兄不得辭其責，而亦惟砭駁鄙說，以爲平生受用之地，千萬切仰。

答尹子仁

理說鄙辨得蒙印可，喜幸。而高明之更加攻破彼說，極精當，最合鄙意，尤幸。

性說槩以鄙說爲得，亦幸，而所謂不甚錯云者，弟亦未知當初下語之因何失實，而但以渠之論性，猶不失一理字耶？歸之薄責亦無妨，而辨理不當如是依違，深悔深悔。而紀當作目，來教甚當。金正郎曾聞其名，而未詳其學之淺深，今承所諭，亦可領其大略，攻破彼說纔說性處亦好。

道器說上面、下面之教，謹悉之。朱子說理處，亦用上面字，則高明之所謂“上面下面虛實”云者，當矣。而若泛稱道器處，則可以如是言之，若解形而上下字，則恐未安。如是則經當曰：“形之上”、“形之下”，而必下而字者，恐不如高明之說也。愚所謂“無形而上、有形而下”云者，敢添有無字於形上，雖似無據，然愚意必如此說下，然後其旨乃著，而而上而下字，方着落矣。且程子解此句，亦曰：“無形爲道，有形是器”云，則下有無字者，非愚之臆說。幸願以愚前說及此意，更加斤正，以祛蔽惑，至祝至祝。

人道心說并其補說，別無砭誨者，何也？彼說既以無爲有爲處，直屬動靜，則愚說中論有無爲處，皆失彼意，不但誤引南軒說而已。除是直論人道心及補說，論動靜處，無可砭誨耶？

數說 誨諭甚悉，不容議爲。而但“壽夭、窮達，皆可以數言之，而獨善惡不可歸之於數者，以理在故也，故曰‘有性不謂命也’云”者，【自善惡至此，正合鄙意。而但連上文讀之，便脫却一理字，壽夭窮達中，又似偏廢“有命不謂性”意思。】說得雖好，恐未盡善。若但如此說，則理獨不在於壽夭、窮達耶。孟子固曰“有性不謂命”，而又不曰“有命不謂性也”耶？蓋孟子未嘗以性命爲二，而猶曰“性也有命”、“命也有性”，而如是分而言之者，以前五者，爲不可易，而以後五者，爲可變，其亦異於兄之不欲分氣數也。愚亦非以氣數爲歧，而以其所主之不同也，又具長書，更加斤正以教。

長書 氣數之說，其來尙矣。而聖賢未嘗就氣數，指出其或變不變之妙。而挺翼之僭妄，率然創立其說，見之者，無不駭。況朴君者，棄其原論之是非得失，而專攻僭論之分氣數甚力，愚亦累辨。彼或語塞，而其心則尤不屈，愚甚悶之。今承砭誨，亦與朴君之意略同，愚何敢以至愚極陋之一時創見，又欲爭是非於高明之見哉？

但有不可已者，愚亦豈以氣數分在異處，各自變動，如攻者之說乎？愚雖至愚，亦知氣數之元不相離。而惟是以愚不肖之可變爲賢智，壽夭窮通之終不變者，能就考於經傳，則前後聖賢，雖未明言，若其辭旨，則分明有分別底意思。故不敢遽舍己見，而從吾兄之所教也，請以一二更溷於崇聽。蓋有理而後有氣，有氣而後有象，

有象而後有數者，誠有如來諭。而本其不離者言之，則不但氣數而已。理氣象數四者，皆混合無間，不可離析，故周子曰：“五行，【兼象數】一陰陽也，陰陽，一太極也。”夫豈有理外之氣，氣外之象，象外之數哉？據其不雜者言之，又不但氣數而已，理氣象數四者，皆理自理，氣自氣，象自象，數自數，不可混稱而無別，故孔子既分道器，而朱子亦曰：“太極者，象數未形，而其理已具之稱”夫豈有理雜氣，氣雜象，象雜數哉？理氣象數，元不相離，亦不相雜之妙，大槩如此。而試就所謂氣數者詳之。氣依數行，數因氣定，則氣固不離於數，數亦不外乎氣，而氣者，流行者也；數者，局定者也。流行者，本可變通；局定者，難以移易者，亦理之當然也。試以賦於人者言之。所謂氣與數者，合而成質，則智愚賢不肖之稟、壽夭窮通之命，初豈有判為二歧，而彼此相殊也？然而人之愚不肖之稟，則終可變而為賢智，而所謂壽夭窮通者，則未有或變者，何也？只有一理者，主乎其中，乘此氣數，而氣能流行，故理亦乘此流行而變之，【孟子“有性不謂命”之意。】數乃一定，故理亦乘其一定而局之。【孟子“有命不謂性”之意。】是知氣數之變不變，皆所以聽命於理。而氣所聽命，則濁可變清，駁可變粹也，數所聽命，則又還是一定之理也。故孟子曰：“人皆可以為堯、舜。”而終古聖賢必教人為善，則此非氣之可變者耶？孔子於伯牛之死曰：“命矣夫。”而又得不得，皆曰“命也”，則此非數之不可易者耶？此愚之所以不得不分言者。而今必欲渾淪而無分，則善惡之間，數亦一定，而聖人之教人為善者，皆駕虛之空言；壽夭之中，氣亦可變，而聖人之必曰有命者，實借設之妄談也，豈理乎？且愚之所以分言之者，豈終無據乎？程子誌其子墓曰：“吾兒得氣之精一，而數之局歟。”【愚既分論氣數，後得此說，示

朴君，朴君曰：正是不分之意。高明更作如何看？】此亦不得不分言之一驗也。妄言之可以無大過者，賴此明道之一語，而其理亦未嘗不然。故愚敢如是言之，其實皆聖賢之意，而非愚之鑿見也。兄之必以為非者，抑有說耶？此說固異於理氣互發之見，而與理無為氣有為、理無不善氣有善惡、理通氣局。【理具於象數之前故通，氣囿於象數之中故局。氣之局者，以數，而其能變者，流行故也；數之定者，以氣，而不能易者，界限故也。】等語，同其機括，兄偶未之深思，而槩言其不離之妙而已耶？不然則混合無間，無先後，無端始，莫如理與氣，而先賢之必以有為、無為，有善惡、無不善，局與通而分言之者，何也？如以為理氣與氣數之妙合，有不同者，則愚亦無說，如以為同，而猶以為不可分言之，則愚未知壽夭窮通之不易，於何責也。以兄意考之，則必欲同委之氣數，而無分別。然則氣數之獨能變其清濁粹駁，而不能變其長短通塞者，何也？愚則以為清濁粹駁，氣之所為，故可變；長短通塞，數之所定，故不可易。故曰：“君子謀道，【氣可變】不謀食。【數不變】學也，祿在其中，耕也，餒在其中，君子憂道，不憂貧。”若都是氣數，而無分，則食亦可謀，而何獨不謀？耕可不餒，而何獨反餒？貧亦可憂，而何獨不憂？又曰：“修身以俟命。”曰：“如不可求，【不易】從吾所好。”【變在學者言之，亦可以變言。】曰：“是求無益有益。”等訓，是皆分言底意思耶？渾言底意思耶？又竊考，朱子曰：“稟得高底貴，稟得厚底富，稟得長底壽，貧賤夭反是。”又以為“仁義禮智之性、貴賤壽夭之命，都是天所命。”此則只論一命字，故只說與人源頭，而無可分言變不變故也，而兄之欲無分別者，意蓋如此耶？愚亦曰：“都是天所命，而若論其變不變處，則又不可樂渾全而惡分析故也。”必欲更辨歸一，終始賜教，千萬至仰。【或疑所引學也耕也語，祿

在其中者，有違於貧富不易之論。曰：“此二句，最宜活看。上句重在學者，下一句重在餒字。”】

右所論辨，又極冗且陋，可謂枉費心力，實無真的意味。且所引許多聖賢語，皆高明所已默識體行者，則尤不宜更瀆視聽。而但愚所創立已見者，其意初不外此，高明之批誨有可疑者。故姑以愚所自見者陳之，以聽先覺之裁決而已，非敢為張皇眩耀之計也。且氣數，亦可以一而二，二而一言之。而兄直謂之一般，則愚恐與理氣一物之見同。雖是一，而所主者異，則實二也；雖是二，而不能相離，則實一也。子貢之晚進，正是變化氣質，則果可主其數而言之耶？顏子之蚤卒，正是脩短有數，則果可主其氣而言之耶？指溫煖涼寒，曰數，可乎？指一三三四，曰氣，可乎？愚所謂“所主之不同”者，如此。

無極太極解說 朱子亦以論道理，下語之難為歎。而僭妄當初論辨時，急於攻破其說，不復深思，臨書翫縷，故語多乖當輕率。“不識字義”云者，正自道其病也，追悔奈何？但曾見高峯太極說中有“甚大⁵極高”等語，而當日未得究竟其訓之當否。頃日作辨時，率然書之高峯說，今未得更考，其下語處，必不如愚之誤耳。但太之甚大，亦必非是耶？太之比大，尤有大意甚意，則訓太為甚大，亦似無病，極是至極標準之名，則太之加極，似是贊極。而兄必謂之極之至者，

5 大：지본에는 '太'로 되어 있으나 《명재선생유고》 권17 <답기자량(答奇子亮)>과 《송암집(松巖集)》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似乎語倒未順，又以太爲非贊極而加，則太在極上者，終是何意？彼說中“物之變化於太虛，猶冰之凝釋云”者，乃渠之得於橫渠而篤信之者，故渠之《陰陽消長說》中，亦有此意思。弟曾亦攻破其說者，數行語，適與兄今所論符合，私幸，而彼亦不服，奈何？

此等議論，初出於爲朴君私自辨論者，而終徹左右，自知其說孤陋，無以滿於大心胸、大眼力者所是非，而今蒙辱與之反覆批誨，幸甚。況因此伏奉先生訓語，尤爲歎服，敬玩無已。砭駁朴君至嚴，衛道之誠，當如是矣，何擇大小？但弟之私相區區者，其人亦有可取底，初年業科，至見漂海人赴北，慨然不出閉門求道者也。然既無師友，不得其門，初讀《啓蒙》，次讀《莊》、《老》，以豁然大覺爲先務，又治《正蒙》，以橫渠考索自力，竟失居敬優遊涵泳之味，畢竟生出許多大病痛。弟亦初未知其人，聞其如此，請與相見，因欲挽回歸正者，今四年矣。及其未入笠，而諸說又從而招之，今又放去，雖以兄之至教，無以回彼，奈何？

冊子幸蒙留置，教以更閱，感謝不鄙之至意。士佑，乃柳世翊也。居光州，爲人傑魁，初年業科時，頗欠溫純，中年留意於此事，見解頗進，言論、風旨，非俗流，不幸作故，今五年。年少時，曾一升謁於先先生門下矣。南中可與共學者，絕無僅有，此地有邊杰，光有柳益瑞、金震羽數人，皆有美質，不可謂無心於斯學，若金則孝行頗著，而但皆爲科業所病，不幸與挺翼同。南原有黃信龜，棄科專學，曾與柳晉錫、金之白二人論學，弟未及相面，近聞其所論，一二方欲通書以叩，而未及矣。

與尹子仁

宋朝濮議，當時諸賢，雖嘗備論爭辨，而終却未有收殺。其後只令濮之嗣王奉祀，而其稱號，則竟亦未正。故朱子以伊川代彭中丞奏議爲未爲允當，其不以亦無收殺耶？韓、歐諸人，皇考之稱，固不是，而但其所引《儀禮》本文、《五服年月勅》皆云“爲人後者，爲其父母之服者，不謂之父母，不知如何立文。”此一條，說得極好。溫公則專主不得顧私親，故又雖以此爲非，而朱子追論此條，而曰：“引此爲證。至今士大夫，猶以爲未然。蓋不知禮經中若不稱作爲其父母，別無箇稱號，只得如此說也云云。”以此觀之，則爲人後者，稱其所生父母，決不可去其父母字也明矣。而又答亞父問濮議曰：“今有爲人後者，一日，所後之父與所生之父相對，其子來喚所後父爲父，終不成又喚所生父爲父云云。”此則明其不可同稱父也。然則朱子亦只得正濮議是非，而亦未嘗正其名號，後學從何所折衷耶？竊意所生父之稱，自天子達庶人，似無異同。濮議之前，固難稽考；濮議之後，亦未適從。而古今爲人後者，稱其所生父母，終未有定號耶？“有物必有則”，天下道理，豈容如是？今人常語，皆渾稱父，而或稱所後父以養父，俚俗不足言也。竊以朱子意考之，雖不可同稱父，而亦不可去父母之號。國制，士大夫書四祖時，書所生父曰“生父”者，似爲允合。朱意既加生字，則其稱自別，存其父字，則私恩尚全，又況所生父字，本於《儀禮》耶？但國制，生父之稱，本於何人，而始於何時也？其或大明亦用此號，則必有所據矣。愚意今人平日號喚時，亦依此禮，有文告事，亦稱生父，上不違禮經本意，下無負朱子所論，未知如何？【所後父、所生父相對時，亦因俗語父主生父，

主生父，廟有文告事，亦以生父稱，亦無妨耶？】

朱子答亞父有曰：“先時，仁宗有詔曰：‘朕皇兄濮安懿王之子，猶朕之子也。’此意分明，當時只以此爲據足矣云。”未知英宗以此爲據，當如何？延陵季子左袒而旋其封，朱子曰：“便有老、莊之意。”袒旋，何以謂之老、莊意也？

蔡氏《洪範皇極》數，如何？

答尹子仁

流行者、局定者、可以變通者、難以移易者，無非氣也。

言其粗，則天下萬物，無非氣也；言其精，則天下萬物，莫不有理、有氣、有象、有數，而各有所主，故氣行【觀理氣，則理通氣局；兼觀氣數，則氣行數局，最宜活看。】象局數定，【兼觀象數，則象局數定。】而所以行、所以局、所以定者，理也。【此是各正性命以後事，極致最宜體驗。】如此看得，豈不明白？而兄必欲只舉一氣字，盡廢其餘者，恐理會只是粗耳。

或長、或短、或通、或局者，皆氣之所爲，而數具於其中。

數具於其中者，誠然，而獨曰“氣之所爲”，而不言“數之所主”者，何也？既曰“一物”，則何必更言數具；既曰“數具”，則天下豈有無所主

之物耶？

駁、濁、柔、愚之求變者，理也；壽、夭、窮、通之求變者，非理也。【止】不言耳。

愚以爲駁、濁、柔、愚，有可變之理，故求變；壽、夭、窮、達，無可變之理，故不求變。所以求變者，理也；所以不求變者，亦理也，此正不易之常理也。知乎此，則可見明道“引年”之語，本非語常理也。故又不以天地間一賊竊造化之機，爲正論乎。若引年乃常理，則明道豈反如是峻斥也？來喻似以爲其理正如此，而聖人故不言也。然則聖賢於理之當然者，故爲曲諱秘隱，而反以理之所無者，欺人罔世者也。

理氣不可謂一物，氣數則不可謂二物。

吾兄見解之差，全在此段。氣數莫備於《易》，《易》曰：“參天兩地而倚數，觀變於陰陽而立卦。”此亦作一物言耶？又曰：“大衍之數五十。”五十固可謂陰陽之數，而亦可謂陰陽之氣耶？河圖洛書者亦然。如此處，皆可作一物看耶？

稟氣之清而短者，其人賢而夭。【止】註語朴君之言。

兄欲以清而短者，解明道語，然則必抹去明道“數之”二字，然後庶幾，而短與局亦不同，奈何？

答尹子仁

一年僅作一書，而輒數月乃達，致使辱復，亦如之，無非僻陋之使然，而亦歎誠意之淺薄也。正月晦日書，今適來到，圭復喜抃，益感不遺之盛意，而况審那時道履萬迪，尤用慰豁。書後多日，想惟對時益福。弟病日益深，志日益頹，只是無所似人耳。氣數說，累蒙勸止之教，而只緣愚，固不知止，而終始垂教不已，亦可見無不容也。但既以氣數二字，各還其所，則數亦當有所主，而今又以弟所論“氣之有局、有變”，袞合爲一說，欲全歸氣一邊，而遺却數一字，不復析。局中有數，變中亦有數，則雖覺簡便無事，而無亦近於僮侗無分別耶？然才免數學之斥，而又承不急辨之教，則亦當各守，以俟堂上人耳。此去徐生乃鄉中好人，而因事上洛，當歷拜云，故扶病倩草。

此得《語錄解》一卷，世傳以爲尤齋先生所解”云，然耶？其中解形而上，曰：“未有形之前，只有理而已。”形而下，曰：“既有形之後，有器之名。”云云。此與兄解及弟見，并不同，未知如何？其解以一字至六字分類解之，而間引溪訓、眉訓矣。

邊紫霞，此間人，時亦未遠，而後生孤陋，不得詳聞其事蹟。於邊佺爲從曾祖，而其家亦無記述。曾於《牛溪集》中，見其有書示者，則始知其請學而先生云云矣。來教斷定以門人，必有所考也。其孫邊光載在洛中，可於其家求得其狀文矣。紫霞之先公，諱以中，號望庵。鄉人頗誦其行義，挺翼亦與有聞知者。於邊佺、光載爲曾高。邊佺家有厥狀草，且聞其來往於

生、沙兩門。兄若欲求此狀，則後當請於邊佺呈納。邊佺承問感謝，而今春因科上洛，歸路欲拜，適遭極忙未果，深恨云矣。

李一齋門人，皆所未聞。其孤陋已甚，從當尋問奉副矣。

南中可與共學者，不可謂全無，而若其得力者則未聞。前所白黃信龜甫，用工頗久。往往得聞其論議，每欲從遊而不得。近得其所述《大學筭疑》者觀之，則間雖有一二可疑者，而大抵見得甚精。始覺南中亦有此等人物。未知兄曾聞其名而或有往復事耶？

與尹子仁

私門不幸，又喪第三朴室女。弟之哭子，今至幾何？殃咎既積，天且不悔。摧痛悲念，尚誰怨尤？只有一死，可答彼蒼，白首哀淚，亦復何益？去秋因李君，獲承情問，憑審道況珍愆。示諭勤懇，拜嘉欣慰之餘，又感不遺之盛意也。外姑之喪，兄既聞知。葬在開月廿八，初欲會葬，當得歷拜，以伸至願，不幸亡女歸櫬，又在其時，不但悲哀交竝，又恨初意之莫遂也。

答尹子仁

挺翼殃極四窮，罪冠三千。若非鬼誅，必是天刑，非惟不足問，正是不可問。而兄猶不以爲然，卽賜情書，勤懇甚切，所謂無不容也。

苦無便信，迄稽敬謝，益用罪懼。欲有稟問者，除却漫說。近方得見崔愼斥兄疏大概，語令人驚駭。兄果信有此說，直斥尤翁，則豈以高明識見，有所不及於十思耶？傳聞“此說在兄抵玄石書中，而書爲人竊，傳播士林”云。然則此在與玄石相講中，未知玄石亦不以爲非耶？且未知兄之師事尤老，果受業其門，定厥分義，若古人之爲師弟子者耶？抑往來質疑問難，泛以師友待之耶？由前之說，則前古未有斥師以異端者；如後之說，則初合後離，古今何限？但曾聞先先生與尤老，初皆稱許尹鐫。尤翁旋覺其僞，卽棄絕之，勸先生息交，先生不肯。其後玄石誌先生，有“泰山北斗”語，尤翁不韙之，屢形諸文字。尤翁北遷時，玄石於餞席請益。答曰：“盍亟改魯西誌？”云云，此傳亦無增減耶？此可以與溫公、文定證之，而若是深斥，未知何意？使兄聞之，宜其驚懼慌惕，亦難自處於父師間。而爲兄計一者，分疏先志，終未回意，則退守所聞，以溫公、文定，上慰先志，下安吾心，有何不可？而兄必留吾不平，伺彼所失，發諸私書，被人上達。此亦爲先報怨，已非好道理，而況以永康欲指尤翁病處，則似太不着題，尤非以直報者。本領已差，何必更究？欲望兄更入細思，若覺分義終有所未安，而又其所言者，不是直斥師門，論事措語間，未免收司，則須急費力分疏，善爲彌縫，保厥平生學力，如何如何？不然而初既有意直斥，今又隨事遂非，則不但非弟所知，士林將不勝其紛紜。今若加射羿之說，則兄將何說以解？玄石於此云何？若不勉以此道理，則亦非弟所知也。且尤翁待兄家之薄，亦所轉聞而深疑者，故敢恃平日往復之義，方草一書，窮到以問，而無便未送。未前極俟辱復，而竊欲以《定性書》“廓然大公，物來順應”字，熟講於今日爻象間。未知兄亦聞此而以爲如何也？

此非細事，若不欲置而不答，則亟付於高、梁家伴，使之專伴急傳，如何？皆未滿一日程矣。走草傳付高大，免滯否？

與尹子仁

前月中得復，感荷盛教。繼而獲見兄抵玄石書及崔疏、朴疏，概知其前後曲折，然後始覺弟所聞多失，實愧忤孤陋。然其間許多，又多未詳，此難容易仰稟。而惟是兄以木事爲極地者，弟所未曉。蓋尤翁則必有所聞，而竟歸無根難究，則其不得爲公論之斷案明矣。兄之容忍於其前而終發於其後者，似欠於觀理之是非。且兄所謂情意既阻者，實出於此事，與所謂義不得不異於前者，恐不可分而二之，則兄之失於大節目者，直因此一事而已。主仁、主義，雖各異用，而亦未有義未盡之仁。欲望兄必用力於仁之盡義之至，而勿屑屑於區區之私意，千萬幸甚。如有不然，更望回教。煩不敢盡。

與尹子仁

去冬邊友回，伏承十月四日辱復。不惟不見疏，反覆優容，益見包荒之大度矣。見遇如此，宜卽更稟一二。但又以未悉心曲見諭，且未免有未安底事有傍及者，繼又具得往復書及金、趙三疏者，見之覺得此事已無收煞地。今不可以么麼淺見妄有煩瀆於其間，故遂此含嘿而已。久乃深思，則當初愚妄之論，本非冒入於是非叢中，只

以平日尊慕愛敬之心，欲竊附於友輔之義，則今以許多所碍，遽止優容寵報之餘者，非素心也，請更以一言，聽兄進退而後已焉。竊詳往復，謹悉首尾。此事葛藤病敗，雖累百千言辨詰，而其要歸則只在於江都事及絕鑄與否兩件事而已。此愚之所以不能無疑於尤翁，欲一稟問者，實有妄料之不能釋憂兄之不能善居變，而再度僭論之不容已者也，故初舉溫公、文定之事，而兄不以爲然，後論木川事，而兄又聽瑩，每以弟之未悉曲折見教。弟於是以為必有所謂別樣曲折者，故遂不得奉稟於尤翁，而謹俟備聞其曲折。今以往復中所得者思之，則其曲折實由於兩不能相悉。尤翁之意則專在不絕鑄，而往來行言，日益註誤，轉及江都事。兄則過慮江都謗，而不覺重在鑄事，情先阻而疑漸積，徒知入彼之爲鬼車，而未覺來此之爲貝錦，轉輾至此。寧不慨然？然此二件事，大要則亦無異同於前，請以前書之所未盡者申之。若以江都事言之，則無論尤翁之提起、他人之喧鬧，而先生之所以自處自靖，人皆仰之者，可質於天地鬼神，則愚意此非一時人言之所能撓，而亦非孝思之所可一二分疏也。此愚向所謂似欠於觀理是非之尤大段處也。況今尤翁既自謂引伏，則於兄孝思，寧不悛乎？若不絕鑄事，則初既略陳，而今爲尤翁疵病先生歸重之地，則此正後學，精思極慮以取正者也。聖賢不同道：夷、惠是也。故宋之諸賢，亦嘗不同，而不害俱爲百世師也。彼鑄之改註《中庸》與安石之擯斥《春秋》，何如也？當時明道猶不顯斥者，豈不以何傷於日月之意，而任其自絕也耶？及其倡起禮訟，行凶作惡，與安石變亂舊章幾危趙宋，何如也？其前溫公未覺其竟至此極，蓋其行已潔清，足以欺溫公。則其惡未著之前，溫公亦何能必覺也？文定之稱秦檜、栗谷之接汝立，皆此類也。故愚以爲先生之於鑄

也，明道爲心，溫公見欺。雖以心絕，未以事斥，固無損於盛德大節，而竊味兄意，必以爲顯絕致此葛藤。此則竊恐忠宣之或未悉於文正，而歐陽反有以得之者耶？然尤翁拒跋息邪之意嚴截，亦豈衛道之得已也？彼亦一道也，此亦一道也，亦何傷於不同道而皆歸於正也？兄若早守此義，則初無勞於分疏，而後何妨於無辨也？然此一款，今爲尤翁堅執，則亦不必更煩辭說，而只可爲孝思自安之地以待百世者也。若“竝用”、“雙行”之說，兄若見得於尤翁學問出處、節義言行上，則亦宜直據其事實，一一條陳以稟，以爲得聞之喜，而不然則兄亦自以爲“或爲私意所蔽”云者，不可謂無此理也。玄石所謂“摧謝”云者，似不可已，而又何獨憚於引伏也？以高明之學識德量，偶未見到於此，致此紛紜病敗，此愚之所以爲兄慨惜咄咄不已者也。讀兄爲先伸辨之語，不覺骨寒心惕，涕淚涔然；讀兄爲師慨歎之言，令人意沮言窒，神氣不平，【觸突無忌故也】未知兄以此二事委之於無奈何之地，不思所以改圖善處父師間兩無失之地耶？噫！前之指摘，後之觸突，可見所失者較重，猶不是欲背之意。而今尤翁之徑先絕兄，豈專在是也？【疑亦專在不甚攻鑿】噫！兄之見絕，雖間於背，而亦豈可安而受之，不復致力於其間耶？今欲兄以上二事，爲先自安；以下二事，反躬摧謝，而必欲極力分疏於不甚攻鑿之曲折，【每稱某人者，不可謂甚攻。】恒自引伏，則此翁亦豈終不回意耶？竊嘗歎無人爲兄家伸辨於尤門。今若得兄一言回諭，不至矛盾，則亦豈無其人耶？弟所謂仁盡義至者，今亦可以庶幾，而世路之大闢風頭，將必自霽矣，豈非大幸？然兄若固守前見，無意更合，則弟亦無如之何，當從此已矣。弟之前後二書，言短意促，觸犯甚重，傍生大論。罪斥不佞之說，逐日以至。而愚之爲兄憂愛眷眷之意，終

不自抑，冒恥強聒，不自知止，愚妄極矣。

答柳進卿

鹵莽不佞，安敢妄議禮也？因高明之爲伯仁定禮，冒入於是非叢中，不得不略陳所見。今承來示，尤覺瞿然。賈疏既爲禮家三尺，朴掌令又是當世名儒，吾何敢率易斥之？但三正及輅冕，皆聖王之制，而孔子各有取舍：孔子善殷之練後祔，而《書儀》及《家禮》則從周；朱子或不從伊川，東萊多駁非朱子。從古聖賢，固有因時取舍，而亦何妨於周而不比也？賈疏雖重，恐不如聖經；朴雖可尚，亦豈無正見之一差耶？謹按斬衰章經曰：“父爲長子。”聖人立文，無以議爲，而傳曰：“正體於上，又乃將所傳重”所謂正體於上者，指長子而言耶？指祖與父而言耶？若指祖父而言則已，如以爲指長子而言，則凡斬長子者，當論其長子之正不正、體不體也，又何必推究祖與父之正體與不也？又曰：“庶子不得爲長子三年，不繼祖也。”所謂不繼者，指庶子而言耶？指父祖而言耶？指父祖而言則已，如以爲指庶子而言，則凡不斬長子者，當論已之繼祖與不也，又何可推究祖父之繼其祖與不也？不待智者，而此理可見。故鄭註只言“爲父後者，然後爲長子三年”，而不復剩作父與祖正不正、體不體之說。傳註之說，止此足矣。賈疏所謂“父祖適適相承於上”及“祖父身三世，四世長子”云者，考之於經，未見其意；參之以傳、註，又無可據，則果不幾於生枝生葉也耶？高明以適適相承之說，爲“解鄭註‘正體於上’一句”云云者，似若以“正體於上”一句，爲指父與祖而言。

看文如此，則初無可論，若以正體字歸重於父祖身上看，則解斬長子立文時，其可不先歸重於長子之正體上，而反先歸重於父祖之正體與不正體耶？要據長子而言，則得爲父之長子，則此亦正體於上也；得爲祖之長孫，則此亦正體於上也。所謂“正體於上”者，此甚分白，安可捨長子之正體於上，而必先逆論父祖之正體於其上者，以承“何以三年”之下也？此則一握可笑。高明又以正體之解，詳在四種。四種說中所謂“體而不正”、“正而不體”云者，果指父與祖而言耶？愚則亦以爲指長子若孫而言也。此亦賈疏，則賈之意，亦可見也。高明所謂“解‘正體於上’一句”云者，竝與賈意而失之矣。且若四種，則經、傳雖無明文，而其理不舛，又烏可以其所短，竝其所長而不取也？夫禮本於天理，註、疏雖繁，惟看其合理不合理而取舍之，則夫孰云不可？今以斬衰者言之，則家之至尊者，父也；服之至重者，斬也。斬衰之重，本爲父也。故己之爲父斬時，固不敢論父之嫡不嫡也；子之爲己斬時，亦安敢論己之嫡不嫡也？由己而上推，雖百世皆然；由子而下推，至無窮亦同。夫如是則爲父斬時，己不敢論其父之嫡不嫡也，而至於斬長子時，乃敢追論父之嫡不嫡者，其於理何如？考之經、傳，旣如彼；推之以理，又如此，則生枝生葉之譏賈氏，恐不得自解也。愚見如是，而高明以輕議先儒，至證之以老先生謹慎之道。始覺妄言之罪，無所逃焉。而但先生收議中，固有“賈是名儒，勉齋收入”之說，似記其中亦有枝上枝之語。【年久未詳，或記憶之誤耶。】其意亦或指此一節也。不然則疏所稱者，豈不爲當日所爭之一大明證？而先生終不引此以證己見，則其意亦可見也。“枝說不發於看疏日”云者，彼不忘則此必忘，不必多辨。如有不合，更爲回示。

科事之論亦謹悉，未聞巡相關文時，私與一家弟姪及一二問字者，概論爲士者赴舉出處之義，而不許其赴今科也。開場七八日前，始聞有關文。人多傳說，而大抵傳說者，皆欲赴而未敢者也。及聞其關，皆諱言疏色外之說，每以關旨極峻爲言。且有一人公然言“近以北道霜災，前後疏頭，皆蒙放”云，故淵姪有欲赴之意，吾亦許之。然終不肯赴者，吾家有挺九子用，問字者有朴世大、金鳴鶴二人也。及諸人赴舉之後，始見揭關，則乃知有疏色外之說，而猶不揭榜云矣。然見其關而勇退者，親舊中有金器夏一人矣。愚則科儒歸來之後，始聞疏色見停事及疏頭蒙放之爲，萬萬孟浪。塊蟄病陋之弊，一至於此，將誰咎乎？且乙卯光獄，比之今日，則事體自不同。未暇消詳。

答柳進卿

每年此時，嗣音倍難，苦覺人間冗務，易絆身也。閉局看書，不是曾有明見，知有今日也。惟覺世間萬事，非實心者居多，況稠聚激論，終非聖賢獨善氣像，故不敢妄從事於如許等事。若今日塊處守拙，其勢使然，寧欲自附於超然者乎？過情之諭，還增汗背。高明今日自處，恐亦不易。然出處惟義而已。以義裁之，不先以實心從事，則所謂義者，終不能方外也。初既義所當爲，則吾亦爲之，義也；終見其非出實心，則只守吾實心而退，乃義也。如何？尤翁到忠，患病極重。天意人事，已無可爲，無計問慰，徒自痛慨。此見步其韻，結句最有味，令人賞歎。未聞趙也疏語耶？無奈何，奈何？

答柳進卿

近益無聊，嚴師不可望，而畏友益難得，每企高明垂誨者，蓋多日矣。今乃大得所圖，而其所砭藥者，切中所遭所處之失，則所謂畏友者此也。今而後庶幾免夫，良幸良幸。第遯世吾豈敢？而事係國家存亡，斯文興喪，則沐浴之請，遇遯之章，皆在家食之時，則忝士林有司之任，而其可睨視不願錄其名耶？晚見疏辭卑屈，故恨未及請削鄙名，而即移書士述相窘，其答未來。吾恐“進卿、士述諸人，未得辭其責”云，則人或謂余以有嫌。此指拙構妄視二友者也。來諭朴做無實者，亦指此耶？大概所見不同如此。若非面談，則無奈何矣。

答柳進卿

承審侍奉外，眷聚百福，慰豁萬萬。而兄既以“渠何知”三字，勒定罪案，又以“驕”之一字，貶駁疎性，而猶不忍斷然棄絕，又為諄諄教誨。包荒盛量，欣謝無已。但窺高明之意，則或未詳悉於事實之如何，而反欲以不受過之目，羈塞人分疏，隱然自歸好地。未知如何？“劉氏基”云者，字雖不差；而“兩墓”云者，語既歸訛，其間情實之不得其真，據此可知。高明亦疑未得其詳。故前書中示以疑訝者，似出於平心，而今乃奮然發出其未分明之語者，或似忿懣之失正。未知如何？大蓋其間事，初既真有所失者，故方自噬臍莫及。而若所砭二事，則彼乃詰之，而我皆謝之，絕無相較。於何聽聞，如是失實？

煩未敢陳，惟在得其實而更教之。若以非言責論之，則曾從大夫，方在山林，相居幾何？猶必爲異，則伊川年十八，上疏闕下，請面陳得失，花潭作擬上孝陵喪制不古之疏。天民之隱，聖世之逸，猶如此，豈其不考於此耶。據此則愚者之參疏，或非大謬耶。既參其疏，則當與知疏辭，而既不可過越不切，又不宜卑弱無實。故妄以己意，構出謬辭，不敢呈疏廳，求質於二友，則果是誠心待二友者，而高明既斥以龐大無用，此則亦果出於誠心待吾，庸何傷？及乎明者遵用卑屈之疏，則不顧有小嫌，敢致譏切於士述者，亦以名在疏中而疏忽大違於素心故也。“吾身可惜，人謗何恤？”明者聞此，乃反責以不宜參疏，又慮疏辭卑屈之合污。未知遵用卑屈者誰也？既斥龐構，誠荷明鑑，而又責其求質。所謂“示人以朴”者，未知所示者何人也？今有責人者曰：“我用妾婦之道，汝若從我，則恐汝亦爲妾婦。”云，則如何？又有人受人誠心求質之器，而反責之曰：“汝何示我以朴。”云，則又如何？且譏切士述之時晚，正如明者教我之時晚，則慤切爲貴，早晚何論？恐不可以彼誚此也。以此數段，反覆思之，則竊恐明者之言，未盡出於和平。故今不能無小疑於左右之本原上，無乃或涉於相稽耶？吾二人豈有是也？察邇之察，非謂是亦從非亦從之謂。故曰“執其兩端，用其中”。愚意藥雖可服，而必求治病之劑耳。蓋明者所見，則必閉門塞竇，持身心如新婦貌樣，方爲儒者，而愚見則不然，故有此矛盾耶？然見解之失，不必多憂，而本原之病，誠難醫治。更察。愚者或有崎嶇回護掩過之心術，則勿以驕字絕之，而終始教之，如何？將欲移北，未定。答李已久，或慮浮沉。

答柳進卿

愆陽將復，痼病猶舊。意外貴星，歷傳一札，頭風之痊，政謂此也。但審又遭堂憾。德門諸憂，已足關念，而又此喪威，令人驚歎。向者一夜談論，不易得者，而病裏狂言，隨事傾倒。追思之，氣象可怕，意思都沒。其中本領之不甚差失，無救檢制之乖方，咋噏無已，今得來書，無一言責誨。無乃頃所云云，正實所謂一驕字而然？留靈十六書，時未得見，想厥誨諭具在其紙耶。此有自號店漢說數行，而未及書呈矣。姪兒文筆俱優，頗勝小豚。頃所云云，無乃欲速之病耶？近觀學者，尙未分曉於格物物格之說，歧裂森豎，未滿一笑。此皆不曾踐履於格致上故耳。只聞其名，未見其實者，皆此類也。可歎可歎。

答吳玉汝【相玉】

承審托末契於麴生。此只是面朋，其如伐性何？勿謂之知己，而以損友待之，如何？此有一友：其名天理。其人平生不到齏，家尊若外絕紅友，則吾當勸送其人。所謂無入而不自得者，豈有左麾右却之勞耶？

答黃參奉【信龜】

伯氏兄近臨郵亭。因此一拜，自有其便。每於往來，友朋誇說預企，今獲一書，知是年前所賜。不以不相面爲嫌，而曲垂滿紙情眷。斯亦不佞之所感悚者。而況因傳書者，得知己同姜衾。曾所願聞，今忽得之，實欲疾趨盍簪。而亡女歸櫬，近當有日。悲撓未祛，事役難脫，姑未強焉。而倘得日期稍緩，則當不時馳進奉迎，信宿於筆院，以伸慕用至忱。未知盛意如何？

答柳伯仁【必壽】

弟方病寒纔解，而種種餘證，隨日以生，有時危劇，茲未修謝。兄之今日，弟之昔年，尙稽一慰，人情乎？示諭疑禮，儘有曲折。如弟無識，安敢妄論？但適適相承之說，本於賈疏，主張賈疏乃朴掌令世采也。申任實啓澄駁之，而未回其見。黃斯文信龜疑朴見，使柳普問於弟，弟以朴說似不可從答之。子周曾知其本末矣。其後進卿來到，弟略道其事，而且曰：“但賈疏如是明白，朴說亦不可謂無據耶。”因開示《儀禮》本章。進卿看畢，弟曰：“疏說元多可疑。止此而罷。”今進卿之率易斷定兄家之禮似疏，又推委於聞弟云，則進卿誤聞右所陳者而云然耶。然此皆經無明文，難以適從，而兄所謂經曰者，亦非經也，乃註疏也。餘當待奉復。進卿書亦數日前來到，而疾未復。扶起草此。

答曹君【根夏】

承諭反覆諄悉，知博雅好禮之盛心也，甚幸甚幸。但父在母喪，父主之，故凡祭奠，必父主之。若如所喻，則便是父爲妻祥後，因奉几筵也，如何？又如前所喻，祔後朔望，別出主設奠。則主之當以何人也？亦當父爲主，而特出妻主殷奠。於義如何？若曰“子當主之”，則非愚之所聞也。雖欲從厚，不得無嫌，如何？

狀上之狀，通用尊卑，外用狀上字，則尾用謹狀，有何異同？答人祖父母亡慰狀，不擇尊卑，而皆用狀字。若如來諭，則此狀字亦當改以疏字於尊處耶。

夙興設蔬果時，無參拜。不但正至朔望，時祭亦無。但時祭則奉主就位後，先參後降；參則先降後參。祭則祭爲重，故先參；參則參爲主，故先降耶。然此是【缺】也。得無汰哉之謂耶？

答曹君

《儀禮》經杖期條曰：“父在則爲母。”云，而傳又申明經意分明。《家禮》不著者，果因時王之制矣。十三月祥後，撤去几筵，則凡祭奠不得依他。三年行者，情雖不忍，而先王制禮，不敢過也。朔望參禮同於家廟之說得之。心喪節目及祥後服色，不見於《儀禮》及《禮記》。大抵心喪，心雖喪，而服則無。旣無服則其服色，聖人固無可言。然身雖無服，心實有喪。故雖十五日禫後，不可遽着純吉之服，直

至三年喪二十七月吉祭之期，然後復吉。此則沙老之意。所謂吉服者，古禮則玄冠、朝服乃純吉，織冠、素端、黃裳卽微吉。國俗，士夫無此制。平日無服者，玄冠、黑帶、白袍而已，則禫後之人，有何純吉微凶之辨也？只當以黪黑布笠、稍羸白袍，擬古之織冠、素端耶。

參禮之論，自謂前書盡之，高明其復之。大抵參禮參神乃一事。平日之參，只焚香參之。正至朔望則設酒果，參之時祭則設蔬果奉主後參之。一事兩參無義，故禮文如此矣。未知如何？未、末，曾見朱子書中多用未由字。作末俗失。朴說得矣。

與邊美卿【杰】

獲見謄示禮曹關矣。向者抵尹執義別紙妄論時，只聞友朋間相傳之說。適值尼山歸便之忙甚者，只據所聞，忙忙起草付去，而其後更得友朋所傳，則乃覺曾所聞者，太半繆誤，自知粗率妄作之罪，無所逃也。然妄論旨意，亦不失今日之所可言，則竊以爲彼必略其妄而取其意也。卽見謄示關文禮制，則雖未詳當初議禮時所定之意，而亦可知君臣上下變除之節矣。蓋《儀禮·喪服》杖期條，雖不言天子、諸侯，而其下本疏及不杖期條疏中，明有天子、諸侯不絕、降之意。又《禮經·小記》、《檀弓》、《服問》中，皆有明文。且以史策言之，《左氏》及《晉書》俱是可據，則朝廷豈不知不絕、降者，而有此服制已盡之禮也？今以關文所言思之，則所謂“殿下十三日衰服

除，後三十日服盡”云云者，必是用漢權制之意也。然則抵尹別紙中妄論，專爲不絕降而發者，又覺剩也。今且以用漢權制一節言之，姑舍其大本之不正，而漢文遺詔，今亦可考。故朱子曰：“漢文葬後三易服，三十六日而除，固賢於後世之自始遭喪，便計二十七日而除者。”漢制及朱子所論，皆指通喪而言，推及杖期，宜無不同。漢固不以葬前徑除其服，而朱子痛斥始遭喪便易月之尤無可據，則今必舍漢之葬後，而獨用後之始遭喪者，更有何據？使朱夫子論之，其將置之於差賢之列乎？若以爲“后妃之服，異於通喪，故用葬前除服之禮”云，則晉武帝葬元皇后于峻陽陵，帝及羣臣，除喪即吉，博士陳遼議以爲“今時所行，漢帝權制，太子無事，自宜終服”云云，則雖后妃，必待葬後，始用權制者，不啻分明。且其時博士，猶以爲未安，則雖后妃，葬前權制之非，不攻自破，而堂堂聖朝，獨無一陳遼者，豈不惜哉？夫如是則今日權制，設使純用漢制，固不足貴，而況乃降用後世之益偷，反爲漢文之不屑，則豈意聖明之世，有如此禮制也？今日朝廷，雖不敢論，而其如聖世典禮而何，其於天下後世而何？漢文短喪乃千古極罪。其後帝王襲謬踵訛，不能釐正。惟一宋孝宗，斷自作古，易月之外，猶執通喪。朱子以爲“超越千古之聖德”。其後寧宗繼統，易月之後，遂用漆紗，朱子具劄極論，帝亦從之。此後帝王雖不能盡用古制，而尚執通喪者，莫非孝宗及朱子之力也。疏愚至賤，雖不敢知祖宗朝故事，若以通喪言之，三百年來，未聞有用漢之陋制，況豈用漢後益偷衰薄之風也？但未知母后杖期之喪，則或自祖宗朝亦用今日之權制耶？宋神宗之喪未除，而百官將以冬至表賀，程子奏論之曰：“祖宗故事，固有不可改者，有當隨事損益者。若以爲皆不可改，則是昔所未遑，今不得復作；

前所未安，後不得復正，朝廷之事，更無損益之理。”然則今日禮制，雖是祖宗故事，苟有所未安，則爲人臣者，所當疏論歸正，不可但已。竊聞尤老先生辭以傷弓之鳥，而不肯有疏論辨”云，亦未知果然否？伏念先生曾以此事躬罹極禍，萬死生還，纔入修門，而又遭此事，聞虎色變，則辭以傷弓，斯亦人情之必然，而朝家大禮，畢竟差謬，則亦未知先生終不言耶？先生若終不言，則可以疏論者，尹執義、朴執義、李君輔，皆可矣。此三賢者，皆以世臣受國厚恩，其不仕則雖不敢議，而國有大禮，不可含默，而坐如一匹夫也。況此議禮，分不可辭，而前無可懲，後無所嫌，則一陳所見，復修初服，夫誰云不可？愚於朴、李二斯文，皆無雅分，獨與尹執義相識，故頃於別紙中及之，力勸其陳疏，而其中所言，未免傳聞之失實。彼將一晒而棄之矣。賢者已與玄江相知，則何不以此意別作一書稟問，且勸其疏論也？未知諸賢其可不言而得無後譏耶？吁！可歎也。

答邊美卿

考示諸禮，曾雖看見，未嘗細入思量，不敢容易仰復。況今國恤後，自依時行練祥，及卒哭後追行，分作儒賢角論，尤不敢率易說出也。然愚以爲《曾子問》經意甚分曉，不可以註脚之齟齬於經意者爲準。故曾於來問者，以是答之，而率皆以無禫爲言。愚意練祥大節則不可不追行，禫一節則過時不祭之意也，非復如沙老“不忍凶時行吉”之意也。

金哀無禫則明矣，而吉祭則國制卒哭後，竝許大小祀，且無嫌於過時。未知其必不可行也。更詳之。近又門族奇震相，其祥本在三月，而亦追行於今月。其禫適在於五月，愚以爲宜行禫於五月，未知如何？竝惟照察。

與金君【鳴夏】

前後垂問，必兼以瓊章與茶煙。情眷異常，非不知也，每達便信，一未修謝。衰病人事，固無足誅。賢者不以爲咎，今又依舊有賜，令人尤覺欣倒。且於韻文無工，而病昏近甚，不得奉和，非敢蹇慢也。惟願養真山中，和暢性情於吟詠間。豈非好事？

答金賚叔

庶子、衆子，本不同名。傳所稱庶子者，非以衆庶同名而混稱之也，以其遠別而特言庶子，則此庶字非卑賤之稱，而乃衆字之義。同號異實，何害於爲適妻所生？故本條內稱庶子，皆用此例，豈四種中庶子獨爲妾子也？

偶見不杖期章適孫條下鄭註曰：“凡父於將爲後者，非長子皆期也。”謹按注意，“凡子之將爲後”云者，第一長子，而此長子死，則當立適孫，無則庶孫，無則乃立子之第二，無則第三四五，無則乃立妾子。

此之謂將爲後者也。今日“非長子皆期”，可見第二長子以下及妾子，則雖將爲後者皆期也。若曰“只謂妾子”，則不當言皆；若曰“竝謂適庶孫”，則不當言父。賈疏之“雖承重，不得三年有四種”云者，本於此註，而立言者無疑。愚恐此禮當爲此禮之斷案，竊欲附見此註於尤議之下，毋令獨蒙惡聲焉。

庾疏所謂“庶子爲後，謂爲嫡母後”云者，乃解鄭註之文勢，而非曰“凡庶子爲後云者，皆以妾子爲嫡母後”云爾也。以此爲通例定論，深恐未安。更詳之。

經稱衆子者，凡期之喪，天子諸侯絕，大夫降，惟士服其當服，而於士竝妻妾所生子而同。經若言庶子，則疑只謂妾子，若但言子，則既未遠別，且欠竝稱，故直言衆子，遠別而兼適庶。經旨分明如此，鄭註“士未遠別”云者，本可疑；兄據此謂“四種中庶子不通於士”云者，亦可疑。若然則長子條傳、記所稱庶子者，亦不通於上下耶？凡註疏如此逕庭處不一，更乞批誨。

答高甥【必觀】

伴到意外，心頗驚疑，果有女兒之病。此雖不大端，呻痛久臥，其源甚長。蓋家兒輩飽經期喪之慘，每食素輒逾其期。計以時月，不啻若十數年之居喪者，其氣之虛憊，寧以老少而異也？今雖題送一藥，恐不可以此食效也。權變之道，非吾所可強，如何如何？禮說

初非孤陋之所可講論者，而近以病憂久廢觀書，每有所問，不曾考據，率意妄答，可謂汰中之汰也。但以來意觀之，則凡吉凶之祭，皆以右設爲是。然則饋食禮不必以右特言之，其所以特言之者，正虞前象生之義也。其曰“以虞易奠”，則可見始以神事而左設，亦其間之一節文也。且前所言“陰陽、吉凶、強弱、常變”云者，指各有所當而言也，不是指一事而盡以八字蔽之之意，而賢者必欲舉強弱字，以當襲斂之左右者，恐未然也。吾意則左衽猶未着落於無復解之意，不若以所謂常變者斷之。襲之右衽，未變常也；至斂始乃左，變常也。虞前右設，虞後左設，亦猶是也。四箇常變，皆有不忍死以神事之義，而不背於致生致死之道矣。所謂無復解者，在於不紐，而不在於左衽，則亦未敢斷然從之。頃日所見亦如是矣。適有客到，心忙走草。

答高甥

伴來前後無闕，而今又農劇中，走此壯力，得無妨於耕種耶？還增不安，而第以審安否爲幸耳。此中白首窮計，都付數間屋子，而拮据有日，入處尙遠。財力頓無餘地，心慮未免損壞，況二豎子者交亂於其間，雖皆向歇，尙多餘撓，樂土之況，爲此所壞耳，真是命也，奈何？禮說前書謹悉，而無回便，未有一二矣。窮理禮學，初無二致，而理未明，則禮不徒行。賢者徒見吾未曾學禮，而未知其窮理未瑩，可笑。窮理未瑩，則所見多窒；所見多窒，則如禮而何？所諭殷奠、上食，俱是象生，則三年之內，都無變常。孔子所謂“致

生不智”，亦不足恤耶？左衽不紐，固是一文，而所謂“無復解”者，只着落於不紐，而有何關涉於左衽也？左亦可解，右亦可解矣。左衽無可疑，則獨疑左設，更是何意⁶？陰陽、剛柔之論，只欲據依於《曲禮》陳饌，亦似偏矣。蓋賢者不務窮格上，正如吾不用力於禮學。同一病痛，所見之不合，亦宜也。須以前後所陳，反復思之，而猶未符合，則且置此事，更論他道理，如何？

“改葬服制，餘皆弔服加麻”云者，出於禮經，而“麻是總服之經帶”者，乃疏語也。又禮經：“居則經，出則否。”疏曰：“總之經帶，亦弔服也。”據此則麻是腰經，而非首經，甚明也。弔服則今制無定式。來諭所謂白衣者，似不失禮意。巾則白黑，於禮未考，以玄冠語推之，亦當用白。吾家改葬時，曾用白衣巾、加麻。當日竊有所據，而今未記其出處。病昏如此，可歎。

答高甥

昨書已照，今無可言，而得知數宵消息足矣。學者必先大其心量，然後方有進步處。若不大則其淺狹，無容受之物。嘉言善行，亦何所據依，而又無望乎麗澤之益。朋友乃倫紀中物，而無心量者，無朋友。故《易》以麗澤爲朋友之益，而澤取其容受之象也。賢者必深

6 意：저본에는 '疑'로 되어 있는데, 《송암집(松巖集)》 권3 <답고생(答高甥)>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思此義，然後學可爲而朋來矣。

答高甥

歲去頭白，寒緊病新，何幸侂書，少慰窮愁。女子書中告貧，貧甚矣，兒女不堪，固無可責，而丈夫處此，何以得中？得親歡心，則半菽無傷者，聖訓至矣。目前呼啼，得親歡難矣。吾之宿昔所難堪者，而至今雖欲得此，又何可得也？惟高明善思爲之。

松巖先生文集

卷三

祭文
行狀

祭文

告家廟文【灝娶時，使宗子澗告。】

堂弟灝今年廿七，未有室家，初因喪敗，後坐失時。澗又丁凶艱，未及練期，身及主昏，皆有禮禁。今欲守經，必將廢倫，推以不告，合宜有權。灝以來月戊戌，娶昌平縣前別坐金雱之女。禮固有變，情實未安，不勝惶懼，益切感慟。謹告。

慕巖書院配享趙梁山、趙處士告由文

嗚呼！德有大小，忠孝一本；時異前後，行義或近。曰惟趙公，其名英圭，生同鄴鄉，未及提撕，美質旁求。早悅孫、吳，發身以武，秉心用儒，歷典郡縣，政尚恬澹。伴犬候母，人稱孝感；罷官無儲，世服清白。粵在壬辰，島夷充斥。公時守梁，敵愾賈勇，彈丸無恃，誰仗爲重？往托萊府，宋公與同。訣母屬子，已分魚熊，挺身奮呼，潰圍入城。兩箇巡、遠，一心睢陽。天不助順，同日結纓。偉哉公節！天日可質，同忠異褒，公議久失。厥胤廷老，忠門孝子。蒼黃受命，奉輿故地，未及同赴，旋聞父死。孤城戰罷，無地湔讎；沙場骨亂，屍未克收。呼復哭歸，盡哀盡禮，服闋有期，俯從以制。哀雖去

身，喪猶在心，啜粥行素，含卹日深。築土冪身，造笠蔽顏，未復未及，誓不見天。一切貶損，終身以慕，若無所歸，惟此土宇，不出以終，至矣孝乎！公之父子，惟忠與孝，一般家國，百年綱常。鄉人敬服，記實克詳，屢以達朝，未蒙旌錄。慨我士林，鬱而不釋。先生有廟，魂必從依。與點呼參，千載同歸，故茲躋入，左右配食。鑑此明薦，庶幾歆格。

祭泓文

丁未十一月辛丑朔三日癸卯，父告訣于亡子泓之靈。嗚呼！汝何爲而至於斯耶？汝舍我而何去，汝離我而誰依？嗚呼哀哉！汝豈欲舍我離我？汝固不得已而然耶？使汝不得已者誰歟？非我也，非汝也。天乎天乎。何使汝生，而何使汝死？何使我生汝，而何使我喪汝？天乎天乎！吾不知天心之終若何也。嗚呼哀哉！汝之在母也，汝母夢得仙鳥喜甚，而其鳥旋斃。汝母甚悶之，每對我說是夢，而懼汝夭。吾聞之，不必爲然。吾今失汝之後，始有感於斯夢也。汝之初生，吾且少年，雖能知父子之情，而亦不能抱汝負汝，以盡慈愛之道。及汝稍長，質頗輕俊，吾每禁訶之。凡兒之情，若被父母怒詈，必乍有怨惡，而汝獨無幾微出於言面。是汝之質，固難易得也。及汝就學，纔讀《史記》一篇，便能自解句讀。自是吾未嘗教汝勞，而汝能自進，是汝之才而所罕見也。然吾每憂其輕俊無沉潛的確意味，故亦未嘗許其能也。中以喪敗顛頓，不安其居，吾不暇勸汝讀，而汝亦不能安靜修業。去年春初，吾與汝避厲，各在山寺。得見汝

送僧序文，讀之驚動，疑其非汝作也，聞知其果自製也。今其序當在汝遺帙中，而吾不忍搜見也。自此文義日就，吾猶以爲“士不務爲己之學，雖善奚爲”。汝頗欲是學，而不知發端處，吾始以《太極圖說》，授汝若汝弟。汝與汝弟，頗喜是說，遂同案講究，而汝能見解先到。自此始知有理氣之說，遂專心於《小學》書，因讀《論語》，博究程、朱、栗谷書，而益尊信《小學》及《擊蒙要訣》，嘗以一冊子自書《擊蒙要訣》，未半而病作。未病之前，已能修事親之道，定省燠寒，未嘗小怠。及其病後，猶不懈，祈寒盛暑，體無完衣，而必固執行之。汝病之原，太半因此而發。嗚呼慟哉！吾知汝病之沉痼，使止讀書。汝亦從之，而或得小平，則輒對方冊，收斂身心，亦日孜孜。嘗在余傍，遍考《疑禮問解》，而問亦以疑質我，我不能答也。一年之內，工夫進就儘多，氣質變爲安重。蓋其稟之清且秀者，久晦於詞章記誦之勞，而一入正路，其機自動。吾以是自負有子，而惟疾之憂也。嗚呼！孰謂未二紀而遽夭，使我失所望於今日，而抱無涯之痛哉？嗚呼！栗谷曰：“清者難堅，秀者難全。”吾嘗以是深有感於吾家。昔吾先君，稟質極清且秀，十五已通羣經子書，二十文與行，已能服世人，三四十凝然爲正人君子，而不得享壽，四十七而棄背。其後堂弟挺奎，自少聰明穎異，十五六歲而能文章，世方以遠大期之，今年年廿七而夭。自吾夙遭風樹之慟，叩叫無及，而得挺奎，共相考業講劘，庶幾不墜家業。挺奎又不幸短命，吾之所屬望者，實在汝身。汝自去年，聰明才識，將不相上下於挺奎。天若假之年，則不難成就。嗚呼！孰謂汝又至斯也耶？栗谷所謂“清者難堅，秀者難全”者，益驗於吾家，而汝母仙鳥之夢，實有所感應於汝生之終始。汝豈欲舍我離我？汝固不得已者此也，此固汝之不

得已，而使我不得已者天也。天乎天乎！汝於天何哉，吾於天亦何哉？始汝初病時，以吾稍知醫也，始投藥，而汝即信服之。既久不瘳，屢變其藥，汝不厭苦者，汝冀其萬一賴藥之靈，而吾所投藥，終始迷方。及其不勝藥而或未立飲，則吾輒怒訶之。至於病革，藥又爲人所撓，益失其方，而汝終不起。誠知其如此，雖汝終始拒藥不服，吾不忍一怒而訶之。况汝信服吾迷方之藥，而或加怒訶者，尤可慟也。嗚呼！汝年既二十，未冠未娶，不知妻子之樂，又無血屬之遺。地下人間，舍父母何依？故葬汝於相望之地，使汝魂庶幾朝夕來依，而又當擇地一處，使汝兄弟，終得葬汝於葬我之地，則他年父子庶無所憾。而人間事變，亦難預定。嗚呼慟矣！幽明異塗，若不能與我相依，則上事吾先君如事吾，下與挺奎講學如兄弟。此亦死生一理也。嗚呼慟矣！汝病，汝不欲離我，而我不忍見汝病；汝死，今將入地下，而我不忍視汝殯。汝其知也耶？嗚呼慟矣！吾於命何哉？嗚呼哀哉！

祭長子灝文

嗚呼！今日乃汝之死日耶。汝知父心之悲耶？始泓、濟之死也，吾猶賴汝之在，而天或可期也，理或可恃也，家運或可望也，吾身或可支也。汝獨彷徨憂悶，不以吾之所庶幾者爲然，而有不忍直道其情於吾前者矣。吾每怪之，潛察汝心，則今日之變，汝果鑿鑿明見，而不以其身之且死爲恨，以其父之身世爲至慟。吾以汝爲動於死生，而每加禁制，使之平心安命，則汝雖聽受，而猶未釋然於吾身

世之終極艱險者，終始如一也。嗚呼哀哉！孰知汝見之果若是明也？事至之後，吾乃知汝病之不可救，而天不可期也，理不可恃也，家運不可望也，吾身不可支也。豈惟是哉？凡事之是非，理之當否，汝言之而吾未信者，今頗有驗而不差矣。孰知汝見之果若是明也？嗚呼哀哉！泓也、濟也，質皆美而能孝友。於其死也，痛之甚惜之至也。以汝之平生視汝二弟，則其所稟者，各有所長，而若見事之明、料理之知，汝果加於人一等也。朱子所謂初不知其能道此語者近之。嗚呼哀哉！汝知父心之悲耶？死生常理，脩短有數，而吾於汝乃有無限之慟者，皆汝平日所先知者，不必待吾之說盡，而吾之能保不保，汝之有後無後，尤不外於汝之冥冥中默料也。吾又何說？嗚呼哀哉！汝知父心之悲耶？哭鯉、哭塾，聖賢不免，而各盡其理，死生無憾。吾獨於汝，未盡其理。嗚呼哀哉！汝知父心之悲耶？言不盡情。惟汝歆格。

祭宗子洞文

維年月日，仲父某病後益憊，不得躬往哭汝之終喪，遠具時差，使浩代告于亡姪秀才洞之靈。嗚呼哀哉！始吾讀韓愈退之《祭十二郎文》而悲之。又嘗教汝而讀之，汝亦知其言之悲也。嗚呼！豈意今者汝之死近之，而吾之悲同之耶？汝不知吾之悲，則庶記其文之悲，而知吾之悲耶。彼以從宦乖離之久，且不得從葬爲恨，此則吾之所無也；而吾以連喪三子，致汝驚散飄泊而歿爲痛，則彼之所無也。自餘曷極之悲，夫焉有一毫之減者耶？雖然，吾之悲又益悲於彼所

悲者存焉。彼以十歲之子不可冀其成立爲悲，而汝既無一塊嗣續以承吾先人，則吾所悲者，豈不益悲於彼所悲？而汝之所以自悲不暝者，又豈止若韓十二之悲也耶？嗚呼！汝之將死，欲以立後事屬吾，吾既往，而汝已不言矣。今雖欲從汝之志，而淵今未有子，涑未娶而涑幼。吾將於汝志而何？吾將冀成立者誰歟？嗚呼哀哉！嗚呼哀哉！淵既主汝之喪，而四世宗祀不可待後汝者生，則其勢淵且入承而待之。嗚呼！吾之益悲者，悲汝之志又未就也。嗚呼哀哉！韓之湘、滂乃十二之子，而滂又後於百川，而韓氏之後益昌。吾家將亦有湘、滂者能後汝，而益昌如韓氏也耶？此又難以逆睹，惟是之益悲。嗚呼哀哉！

祭亡室孺人金氏文

嗚呼哀哉！孺人之歿，今已一朞矣。挺翼之迄茲彷徨不能忘者，豈以義重情篤而然耶？夫義是伉儷，情是琴瑟。人孰於此焉忽之？此則吾與人固無甚異。顧吾之所以久未忘而銘諸心者，不專在此，而其重在孺人之德行也。嗚呼哀哉！孺人之在室也，父母順矣；既嫁也，舅姑安之。昆弟之言、族黨之稱，皆不可誣。而若其實心至情，則惟其處於隱微造端之間者，乃可眞知，而非他人之所得詳也。自孺人之歸吾也，常語吾曰：“父母，恩也；舅姑，義也，宜其情奪於恩，而顧妾之心，自無輕重。此必天理之所當然，而人情之所不已。妾之父母既貴，遠離顧慕，妾所不堪，而若其甘旨，非妾所急。夫子家不甚豐，且無祿俸，晨夕之奉，妾之憂也。”自此凡所規畫營辦，

必以奉舅姑爲心，力所可及者，至誠而謀之，竭情而備焉。不肖無能，未必與知，而顧吾父母得旨味者數矣。苟見其所欲，則必先意奉志，無不順適。或舅姑初未思量，而必周旋稟白，傾其所有而奉之。故孺人初歸，頗有錦帛，而費用無餘，略不顧惜於娣姒，亦無憾於共弊。人益以爲難。先祖妣年紀衰暮，孺人亦極善事。其所用心，殆不下乳姑之誠。嘗曰：“古人之行不難，而顧祖姑康而能飯，妾不敢耳。”祖妣常稱之以新婦之恩無以報矣，至屬纊，不離口。若其供執祭祀之節，尤能人之所難能者，歎俗人之不謹，益致其誠敬焉。值家罄竭，略無難色，預儲之物，臨時之辦，率皆如在，而冀所祭之必有以享之。嗚呼！孺人之孝於親，可謂至矣。吾甚悅之，而不能學焉。孺人初多子女。每娠輒用胎教，未嘗少違。既生，又必導之以正。孺人雖不讀書爲文，而古今書史，無不聞知。故教子之至訓義方，觸處洞然，日夜常誦而教之。至其言行之激烈處，未嘗不垂淚而三致意焉。嗚呼！既夭之三男賴此，或庶幾焉，非性然也。而天何不祿吾賢妻，忍夭厥三男也？嗚呼！孺人之教子，可謂得矣。吾甚悅之，而不能學焉。挺翼初雖讀古人書，而至其檢心操行，則全未也。苟非孺人之內助有以興感之，則殆無以自勵其萬一矣。挺翼性質多偏，而孺人每隨事諫之，見吾之忿懷，則解之以寬綽；聞吾之罵人，則告之以忠厚，慮吾吝性，而以慈惠爲勸；戒吾抗志，而以謙抑爲言，以不能親親爲憂，以不能容人爲悶，而唯以吾之稍有識見也，信之而無違；粗能敦確也，奉之而不怠；有所不爲也，悅而隨之；有所不取也，順而從之。其所從容親媚者，亦歸於正倫理篤恩愛也。嗚呼！孺人之爲婦道也，求古亦罕。吾甚悅之，而不能學焉。嗚呼！此皆孺人之存諸中，發於外見於事者，而其於綱倫

之重，小無憾矣。此挺翼之所不敢須臾忘者也。嗚呼！挺翼之賦命，不已險巇奇薄耶？既已早孤，痛迫靡怙，其後數十年，慈母之背、三男之歿，又相繼焉。人間三世，一身獨存，卽與孺人飄泊失所者，只爲餘存子女之地，而哀號感傷，孺人先病矣。前此孺人之偏親在京，母子隔絕，殆三十年，孺人之至誠求寧，天可泣而地可動。吾苟有一分事力，可以資送，則豈忍不一動其心而諧其至願乎？孺人亦知挺翼之心，不若是忍，而事勢危迫，已無奈何，故略無致愠於我，而終身之慕，未或間斷。及其病篤，千里承訃，未幾而朴女又從而死。嗚呼痛哉！吾之險巇奇薄，一至於此，而使孺人生死之際，痛無涯而目不瞑也。孺人之沒又幾何，而第五女又奄忽焉。嗚呼痛哉！至此極矣。女之未死，孺人夢余，欲其生之，宛若平生，而夢中蘊蘊。吾猶未信，直欲固守吾死生不貳者矣。嗚呼痛哉！孰謂是女之死，竟符其夢，而方覺惡死之情，幽明一樣？顧吾悼亡之心，又如何也？賴有孀婦，尙保殘骸，率吾二女，養吾弱子。而四箇餘肉，魂驚魄喪，請我移宅，不能自定。故報葬亡女，依爾母塚，而將此婦子，又一遷寓。自此孺人不復夢我，無乃默佑冥冥，永保詵詵，如平生之至願，而不復憂惱而然耶？抑無乃不我足於不信夢告，而雖有吉凶，不復告我也耶？由前之說，則孺人之平生至情；由後之說，則不是當日諭我之意。是未可知也。嗚呼哀哉！孺人之身世，不亦悲哉？糟糠剝膚，死喪割腸，疾病長年，憂苦終身。報施善人，理實難諶。誠心潔行，竟亦何歸？此吾所以愈久而未可忘者也。嗚呼哀哉！魂其知也耶？其不知也耶？

祭汪文

嗚呼哀哉！我之哭子，凡幾度而今至哭汝而無餘也。當其初哭也，賴有三焉，及其再哭也，猶且二矣，終至汝伯兄之死。其禍非復汝仲叔之比，而殆乎盡矣。吾無以寬其悲而抑其情也。只以汝年纔齠而氣甚清，仰惟天心不必滅吾類，而又恃其必不虛生。汝妙質故，既令避禍，旋又取來。止東野之悲，而全西河之明者，十年于茲矣。嗚呼！今日汝又舍我而何歸？天之禍吾家而不之悔耶？吾之命之薄而殃之極耶？抑鬼之至不仁而不銷亡耶？邪世陰慝之氣，有以害之耶？不然，何天之生汝，初不偶然，而錫汝遠大之吉夢，終不應耶？所謂吉夢者，云何也？方其孕也，汝母夢龍，而父夢聃。及其未生也。【缺】又夢麟之隱顯於汝母腹中。斯非遠大之吉應耶？若言汝之初生也，則二歲未言，便知長幼，嗔人犯上，累試必然。三歲知文，作字頗巧。母誤墮器，驚其傷手，號泣來扶，審免乃已。有時問余以天人之理，必窮底不已。余或不能答也。六七而能屬文，往往有驚人語。八歲讀史，至東漢誅宦寺事，傷其無鬚而誤死者，口號長言，以文成說，無慮數百言。大意“若得天下太平，則必無濫傷誤殺之弊”云。余時傍聽，文理洞明，而猶未及記，使汝書進，竟亦未盡記也。九歲避病于吾表叔，十一歲而歸來，則數年間，文亦不進，又無異事。余怪其失其聰明，試以莽三百註，則一聞便通，句讀甚詳。自謂了然，使之數三讀過。後恐其階級之差，姑奪其卷，則又取《啓蒙》書，畫出卦爻，能通方圓圖象。余又禁其太早，方覺向之數年無甚異者，作客悲苦，有以沮其方寸也，姑令讀書。自十三四歲，身始多病。余惕然，令廢讀書。自此瘦困成疾，自歎不能以禮

律身。然其心解領悟，雖余莫知其進，每聽吾論說，助我者甚多矣。及辛酉而母亡，不勝喪而益病，纍然其形，而炯然其知。余時方論未發中之說於友朋間。吾素不能書，每令汝代草，往往發吾未發，規其未精。推以應人接物，亦能吾所不能。吾每臨事誤着，得諫而改者亦多矣。今忽未二十而遽夭，茲豈天錫遠大之吉應也？嗚呼！汝已死矣，吾將曷歸？罪冠三千，殃極四窮，先汝欲死，恨其未能。汝知吾意，臨絕屬余，勸我後娶，切願再降。嗚呼！此雖非理之常而誠之至者，亦能感通。孔子曰“生生之謂易”，然則移易、變易，乃陰陽之理也。今汝洋洋在上之氣，實還陰陽造化之本，則以其至誠之感，而再化生於其父，豈無其理？斯可驗陰陽不測之神，而所謂生生、移易、變易者，正在於此矣。夫如是則後之稟生，尤極靈異，而前之數夢，始符其不虛生，而方遠大矣。天既悔禍，吾亦順命，鬼不能害，邪不能亂。顧汝極至之誠，豈偶然感發哉？但吾後娶，亦有時命。願汝感結之靈，益凝不貳之誠，待時以降，父子如初，則吾又何悲？慶莫大矣。茲以時差，用卒其哭，轉輾之懷，都在不言。靈其不昧，後必有驗。惟冀饗之。

祭亡女處子文

家之劇禍，而至於此。去年今日，汝又死矣。四男三女，孰非痛迫？哭斂葬祭，於汝益薄。汝與汪也，同時病極。左救右護，入燬出焚。汝絕汪劇，猶望一痊，欲親斂汝，恐添病傷，命婦視斂，賴族治壙。已矣死者，蒼黃救汪，撤家移竄，慘切難狀。主未及成，祭亦未遑，

汪又未起，有蒼者天，我無歸處，孤寓堪憐。於汪何厚，主而祭焉；
於汝何薄，尙忍埋沒？一筵有嫌，兩廳無力。已成不毀，未成不立，
忍至今日，又值國恤。家貧物薄，奠亦權設。顧惟家禍，未卜殄絕。
待一二年，家事或定，追立神主，亦非失正。因祔魂帛，汝姑安之。
汝盡誠孝，我未子之；汝保順貞，我未就之。一酌菲羞，淚盡腸摧。
魂其來格，照我肝脾。

行狀

梁山郡守趙公行狀〔處士公附〕

公諱英圭，字國敬。公自少氣像英偉，性且至孝，人皆異之。既長，又有膂力絕倫，急於榮養，登甲寅武科，時年纔二十。志操已不凡，不肯隨俗奔趨，故登第六年，始得訓練院哨官，歷司僕寺主簿、判官。出爲濟州判官及茂長縣監，在茂，丁父憂，解官。公雖以武藝發身，其處心律己，則以儒名者，亦皆不及。清白節儉，乃其天性，故其爲政，自得嚴明。在官致養，父母安之；罷官歸家，甌石空矣。後爲萬頃、靈巖、龍川、樂安、寧海等郡，前後皆然。其在邊郡，法不得將母，公每恨之。及到龍川。益傷門閭之望，雖盡心佯候，而以數勞弊官人爲憂。所畜一犬，時在床邊，聞公之憂，而乃彷徨俯仰，若欲聽公所命者。公乃裁書，繫其項曰：“汝能往之吾家，傳致此書，而又以老母書來耶？”犬卽領之而去，既而果能如公命。自龍川距長城，無慮千有餘里，自是受命往來不怠，公乃名之曰龍德。而人皆以爲孝感之致。萬曆壬辰，爲梁山郡守。未幾，倭賊大至，先陷釜山，僉使鄭撥死之。賊乃直擣東萊。時邊圉空踈，紀律蕩然，兵使李珣棄城走，賊來日衆。公獨在梁山，奮然爲死守計，而顧孤城隻手，莫可共事者，聞東萊府使宋公象賢，方城守多所規畫。公卽馳往見之，問曰：“國事至此，公將奈何？”宋公曰：“當堅守此城。”公

曰：“吾亦有一死計耳。請與公同守。”宋公即握手大喜。公又慨然曰：“吾與公死守，今已決矣。吾有老母在郡，請歸訣然後赴約。”宋公許諾。公即歸郡，泣辭母夫人焉，陳以大義所在，不得徇私恩，且白與宋公爲重，母夫人亦許之。公即命其子處士公廷老，奉歸長城，且授以避兵策，極周詳訖，即馳還東萊府，則城圍已急矣。公遂大呼，突圍一面，爲之稍開。宋公亦信公來，即開門迎納。公遂與宋公誓心天地，力戰數日，城陷賊入城。宋公方踞胡床，公在其邊，終不離頃步。而及宋公下床，北向再拜，公亦同拜，且舉張巡“生不討賊，死爲厲鬼”語，爲結纓時所祝。公與宋公遂同日死。城陷月餘，處士公始聞之，絕而甦哭，赴賊也。

處士公諱廷老，字台卿，梁山公之嫡子也。生于嘉靖己未。後鄉人慕其行義，稱之曰處士。處士公生而極孝，多行人所難能者。及長，事親一出至誠。每隨父在郡，伺父出坐，輒鎖衙門，曰：“不如是，內外不嚴。”及在梁山，泣受父命，奉祖母還長城，賊已彌滿兩南，晝伏夜行，觸冒危險月餘，始達長城，爲擇避兵所，匿其祖母，出探萊府緩急，則始有傳其城陷者。公絕甦，遂隻手徒行，誓心赴死。既至則賊已撤移，積尸盈城，未克收骸，只自招魂而歸，泣血三年。祭盡誠禮，既過祥禫，哭曰：“余以人子，未收父骸，未復父讎，苟延視息，尙戴一天，我則非人。”即又執心喪，啜粥面墨如初，遂築城土室，令僅容一身，而常處其中。又制作一笠，極令深邃，蒙蔽其面目，又取松枝，蓋覆其如廁路，以蔽天日，蓋不忍與賊共一天，而又深自貶損也。人或請見，則謝而不出。或不已，則着所制笠出，坐松簷下，不肯款接言語，人亦不敢久留。又不役其奴婢曰：“我未

修人子職，其可役人？”爲人有欲貨其京口宅基者，來歸其直，乃謝曰：“我所謂天地間一罪人，子欲重吾罪乎？”不肯見。公終始處土室，祈寒盛暑，猶不暫離。蚤蝨遍體，不以爲苦，惟值祭祀，則致齋潔，而極盡誠敬。萬曆壬子，以疾終于土室，享年五十四。嗚呼！自古徇國而死者非一，而或倉卒遇賊，戰不利而敗亡者有之；或兩陣相對，迫於督戰，不旋踵者有之。若梁山公之在郡也，距賊鋒尙遠，而必逆至萊府，要與宋公決死守，其非倉卒明也；歸訣母而再赴也，圍三匝而門閉，必突圍而入城，視死如歸，其非迫於人也，亦昭然矣。若處士公之孝，其誠其情，益可悲。昔王偉元終身，坐不西向，輒泣《蓼莪》，何子平平生啜粥，屋不許覆。以此二人者方吾處士，孰優孰劣？吾以爲土室，子平之所無；而見天日，偉元之不免也。噫！父子忠孝，古亦僅有，而其死之不苟如梁山公者幾何？孝亦有常變，處常之孝易，處變之孝難。處變而誠貫金石，節昭白日，如處士公者，蓋無幾矣。賊退後，朝家錄褒東萊死節人，宋公果首褒，餘皆次第旌錄。獨梁山公，初未登錄，不得蒙恩典。當時倉卒，記錄未詳，致令百歲暗昧，識者恨之，而長城人士，尤用痛惋，且以處士公之至孝，不可終泯，故竝爲聞官達朝者屢矣，竟不得施。至崇禎丁未，用多士議，竝配享於節孝徐先生之祠，其後己酉，同春宋先生以其事實陳啓筵席，得旌其閭。梁山公只一子：卽處士公。有一女：適進士申成準。處士公無子，有側室子：名思閭。思閭有子：仁傑、仁男、仁厚。仁傑子：德成、鳳成。男、厚皆無子。申成準子：淑。淑子：漢柱、漢相，直長。庶子：漢桂、漢樞、漢科、漢權。公父子事實，宜不止此，旣無嫡嗣，又無家乘，只有鄉人聞官草本，傳于世。一日友人邊傑美卿甫，袖其先人所記實一本，來示

余曰：“二公父子事，其可泯無傳耶？子其狀之，以圖不朽。”挺翼謝非其人，美卿強之，辭不獲已，謹次序其事如右，以俟夫立言之君子云爾。崇禎紀元後庚戌秋七月既望，德陽 奇挺翼謹狀。

海狂處士宋公行狀

公諱濟民，字以仁，後改名齊民，字士役。蓋初有經濟志而名焉，後不遂，遂改以今名。又遍遊江海，嘗自號海狂，而人以爲非狂。其先洪州人，中徙潭陽之大谷里。曾祖諱麒孫，官縣監，祖諱駒，官止司憲府監察，皆以蔭補至。考正字公諱廷篁，始以文辭顯，又有孝友行，河西金先生稱之。而初迕權貴，屈隸校書，人冤之，後改槐院。娶光山金氏【允敬之女，縣監珣之孫女。】以嘉靖己酉十二月二十六日生公，正字公聞其聲，而歎曰：“惜也！此兒賢遠於人而命道奇。”公重瞳有氣宇，自髻鬣已不羈，間有驚人事。至九歲，正字公暴逝於遠地，公號慟不寐馬即奔，奴即輔馬，追及十里外，已而奴馬俱病，遂徒步遠赴。比至，不食者已五日，而猶執喪如成人。既免，益卓犖豪逸，自以苟不義，斯須不居。

公之伯父，諱廷筍，亦以文科，補錦山郡守，嘗刻其考監察公碑，而用螭首，公以爲踰制，而欲改之。錦山公以爲不必然，公一日上塚，椎碎其螭首。錦山公聞而驚趨往視之，則公已緣百丈松樹枝。其意以爲碑既逾制，故椎¹之，伯父若怒而罰之，則寧欲墜松死

1 椎：저본에는 ‘推’ 자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椎’ 자의 오류이므로 바로잡았다.

也。錦山公知其意，寬容善誘，而令下之。既下，亦晏然無異色。

錦山公常撫養如己子，而知其異，不以俗例拘制其性。稍長，乃肆力於經史諸子，讀不過數遍，輒成誦，爲文章操紙筆立就。間遊於先輩長者，始知有儒學。於是專心聖賢書，而尤致力於易，從土亭李先生質焉，遂因往來師事。公初不屑舉業，爲人強勸，始入場屋，取舉子程式一覽，便得其體制，遂中發解。又不欲赴會試，其外舅勸之，路遇友人邁厲，遂止病所救療，終不入京赴試，後遂廢舉。從土亭久，土亭知其有得，一日謂曰：“有一字萬變之法，子其識之？”公初不省其旨，後遊瑞石山，始悟曰：“吾疇昔未惟老師之教，今乃覺之，乃〈洛書〉數也。”

性不喜生業，安其菲薄，而廬堵常蕭然，風雨飄搖，而不以爲意。又喜江海，乘輿輒往務安，縣有叢祠，祠有松甚古，公欲伐而爲舟，邑人以爲神，爭止之。公不聽乃伐，忽役夫多立死者。公卽爲文責之曰：“剝木爲舟，制自軒轅。”死者皆甦。卽剝而乘之，入海遍遊。雖得奇觀適意，或遇風浪，幾覆者數。百靈秘怪，恍惚迭出，島多猛虎，羣吼立前，公怡然而坐，神氣略不變。每見風止虎逝靈怪潛伏。

嘗舟敗，僅下島路絕，不食者七日，掘朮充腸，而亦不怖死。忽有一船自遠而至，得相濟焉，而公亦若以爲常，少無喜色。公之操守類如此，而有時蓬累而行，殆若良賈之藏，故人莫有知之者。至其義理之辨，正大之論，皆學力所得，而世尤莫得而測識。

至壬辰，倭奴入寇，大駕西遷，公遂慨然，首與錦城士人梁山龍·山璫等倡義，募得若干，而聞前府使金公千鎰亦倡起，遂往會焉。共推金公爲大將，公自署爲從事，乃率師北上，至水原府留屯。朝

廷聞之，拜金公爲判決事，賜號倡義，因使督戰。時都城賊勢尙熾，而又分據清鎮界，衆議以爲孤軍角賊，徒債事幾，不如更募湖西士馬，控制兩湖，以爲沮遏之勢，此非宋某不能。公遂往湖西，連結士天，號召義旅，二旬間，衆至二千。

又推前都事趙公憲，爲左義將，前察訪朴春茂，爲右義將，二人皆士亭門人，公深知其忠義可仗。公周旋兩營，措事未半，遽聞招討使高公敬命敗死於錦山。公益自慨然，遂旋馬南還，欲及高公義徒之未散，更爲召集之計。行到恩津，始知其軍已散無可爲矣。公乃移檄湖南，一以更唱已發，一以激動未發，語在本檄，未及收聚。聞趙公又死，倡義使追賊，至晉州又死，公彷徨歧路，徒自沫血飲泣。時金忠勇德齡丁憂在家，於公爲中表弟也。公以爲先國難，後私喪，惟此時爲然，急往勉起之，又入濟州，求駿馬，以授之。忠勇既起，賊不敢近，未幾忠勇又以讒死，公益無奈。

歲丁酉，賊聞忠勇死，乃敢大舉再入寇，欲先蹂躪湖南。天將總兵楊元，方守南原城，公又往見之，爲陳守禦策，楊疑其爲倭謀，將害之。公略不動，楊固異之。適會閔公拘來在營，急告楊曰：“此乃東國高士宋某也。”楊大驚，親自解縛，引坐問策，公曰：“兵貴得地形，而今此府，近水城卑，亟移陣形勝。”楊不聽，俄而果敗，賊遂大掠湖南。公之三子，皆陷沒，而公僅脫。

蓋公以一匹夫，當國家板蕩，無以自力，惟召募義旅，激勸金健齋·趙重峯，爲重冀效一分忠義，而不幸二公相繼而死。身旣離營募軍，未及同死。其後忠勇，又死於讒網，惟彼楊公不足與有爲，則於是公亦可止，猶不忍陵廟之變，通和之羞，悲憤慷慨，爲著《臥薪記》，成一冊子。適又聞有求言教，爲之草疏數萬言。首以國讎臣

恥，乃天經地義，萬世必報爲主，而上引禮及孔子，中述句踐，終止乎文王堯舜。其義正，而其事實，有非古今只憑口耳爲者。疏之末端，又言其所以著《臥薪記》之意，冀幸使之繕寫封進，以備乙覽。疏既成，請於方伯以進，而方伯以語多觸犯黜之。於是，公始乃更求山海之可棲者，優遊其中，以耕鑿教訓爲事。

其後《臥薪記》遭回祿，不傳于世。居數歲，公病革，以書托後事于表弟崔公尙重，命家人薄其襲斂，以不得伸志報國也。既乃扶坐整衣冠，北向長跪而卒，乃壬寅二月二十七日也，壽五十四，用其年葬于潭陽大谷里飛釵洞山，先塋之側，庚子改葬于光州瑞石山梨帖良趾之原。

公天資奇偉，早抱濟物之志，常自言曰：“使我得志，聖王之治，可做於今日。若不得志，則安於所遇，何用汲汲？卽飄然遠逝，托跡江湖，乃吾願也。”人聞其言，笑者頗多。公晚益自信，超脫物欲，無點埃滯介胸中，死生得喪，無一動其心，惟是仁民愛物，根於內，平生不妄殺物。常曰：“彼噍類亦天物，況吾同胞耶？苟存仁愛之心，當有一分之惠與！”諸友議設醫局，躬自出入海島，懋遷有無，供給救活，恒盡心焉。

其娶於金氏也，見其汲水小婢，徒行履霜，遂親自織屨而與之。當亂瘼歲飢，以所載海菜及雜穀及木實等物，救濟之，活人甚多，又平居貧無鞍馬，每出入徒步，或借乘而亦不計久。近有一知名之士，借公乘遠行，公周遊累月，其馬路斃。公又借乘歸，徑入其家，家在津頭。公未渡津，其人望見，其馬非去時所乘，招問馬之生死，公卽不答，而回鞭曰：“彼乃貴畜賤人，不先問我，而先及於馬。”因絕之。其後，公又借柳斯文珙之馬，而又值病死。歸見柳公，終日

談話，而不言馬死，柳亦不問，告別將上馬，始言之。因與柳益親信。

又嘗答內子預具襲斂之請，語極恢闊。人見其如此，則疑其爲莊老之流，又謂學士亭而誤也。顧其家行甚正，凡冠昏喪祭四禮，必依朱文公制，晨謁祠堂，當祭，親自供具，齊致如在之誠。事母夫人，和敬備，至及喪，哀毀致疾，及葬負土成墳，廬墓而啜粥三年。其出入與夫人相拜迎送，辨內外極嚴，男女奴亦不得相混，爲長廊以板隔截，高可丈，上設廣板，食時女奴置飯板上，男奴自外取食。

教子主嚴，雖女子，必使通《小學》·《孝經》·《列女傳》。第三女適權公鞅者，幼時當夜慢坐，忽驚惕曰：“不可以暗昧惰行。”崔校理尙重之母，乃公姑母，在南原地，常一月兩省。錦山公之女，適羅公德用，羅公患厲，人皆畏避，公往救療。公之家行，載人耳目者，又如此，則人亦信其非莊老，而或以爲士亭正脉也。

余以所聞，公可謂天不虛生者，而卒之志未伸，學未施，知者少，而不知者多，何哉？試以公前後名字及自號者，反覆論之。自古有抗疏論事者，有著書言志者，有慨然自號者，充其言與志，可以爲聖爲賢，下可以爲英雄俊傑。能擔當天下事，能自足了一世責者，而卒能踐其言，不變其志者，蓋寡。至於臨一利害死生榮辱，便失常操，或顛倒狼狽，與其言與志，素所自期者，不啻若燕越者，滔滔，何也？乃無其實，而徒自大，雖欲踐，而墮虛牝也。

今觀公疏，則其所言初非蹈襲，又非鑿空。其可以扶大倫，救當世者，若棋布盤，而手勢神筭，自有機軸，如藥對病，而妙劑奇方，各分佐使。又皆本之秉彝之衷，而非若人之大言無實。故當倭奴之充斥，曾已發憤倡義，鞠躬盡瘁，直欲死後已者，亦可見志行

一致之大槩矣。

使當時若能用公，則卒能踐言，可以有爲，而庶不負肇錫之嘉名。及其不用，浩然而歸，則又自是編戶之一民，以齊易濟，亦豈誣哉？至若放迹江海，自處以狂，又有微志，此皆公所雅言自期者，而又歷歷於疏中，則是固踐其言之一驗也。視彼大言而未踐者，其優劣，何如也？嘻！嚶嚶古人，夷考不掩者，初非公所期，已而已而，鳳歌楚澤者，又非公所願，則公之自謂狂者其意何哉？蓋竊有慕於尼父乘桴之志，而聖人則止於中正而不果，公乃果焉，則自謂狂者，其以此耶。故公嘗自言曰：“土亭學孔子，而誤者也，我則學土亭，而未及。”極其言，所謂未及者，乃公自道，而謂其爲正脉者，正知言也。

夫公初娶中原朴氏，訥齋先生祥之孫，監役敏古之女也。有一男二女，男曰柁，女壻梁愿容·金克純也。後娶蔚山金氏，務功郎大亨之女，牧使應斗之孫也。男三檣·楫·楫，女壻權鞞·梁孝容也。諸孫及外孫，不能盡記。柁·檣·楫，乃陷沒於倭奴者，而柁及檣，俱著義烈孝行，當時權鞞爲著〈名行記〉，權卽世所稱石洲者也。公知石洲不免，後果然。公以詞章害人心術，平生無所著。公歿之後，今至八十餘歲，而始得朴玄石傳，尤齋先生，又爲之撰其碑，皆據石洲所記者，而迄無行狀爲可惜。公之曾孫塾，以公爲挺翼之外旁親，又挺翼爲公姻婭之後，宜有益聞人所不聞者，來請狀。挺翼辭以不敢，終不得讓，謹狀。丁卯三月十二日。

霞谷鄭先生行狀

先生諱雲龍，字慶遇，河東人也。有諱遜位仕高麗朝，官至知禮部，至其孫淑瞻爲平章，自此爲世著姓。祖諱章孫監察，考諱緝主簿，妣陰城朴氏司藝諱鯤之女，以壬寅正月二十七日，生先生于長城縣社洞村。先生幼而喪所恃，被養於外氏，器度異凡，其舅懷齋朴公光玉，愛而教之，文詞日進。初俱中鄉解兩場，竟不赴會試。人問其故，曰：“科場身易毀傷，志易喪失，吾不爲也。”時年十八，人以爲難。時高峯奇先生在鄉，訓後進，公遂往從之，聞心學之要，乃就學焉。公遂勉學不怠，而聲譽亦著。

思庵朴相公，休告歸羅州，行到長城，明日遂謝去徒御，命馬乘，直詣公居于介川，至則公方靜坐，趣味極淡。思庵責以不來見，公正色曰：“相公爲國大臣，不肯下士，反何責不²來見爲？”思庵遂敬服。後拜參奉，公自以學未進，不起。因有四方之志，往見牛溪先生于坡山溪上。

先是，公得一勝地於長井兩邑間，構書室，與高峯先生蘆山草堂分區，蓋從高峯講學之意，而至是具道其景物於牛溪，牛溪詳記之，以爲寄想之資。思庵以詩美之曰：“風塵多少好男兒，誰免勞心逐物移。杳杳獨尋山路去，萬株松下一茅茨。”又以書勉之曰：“結茅雲林，靜坐講誦，此味知者鮮矣。歎君獨專也。”介川精舍，又極蕭灑，公自以爲樂，而思庵·牛溪兩先生，稱許有如此者。

公又善松江公，常戒其酒病，松江每以爲畏友。初公與汝立相

2 不 : 저본에는 '不' 자가 없는데, 문맥상 필요하여 첨가하였다.

知，至戊子年間，見其心跡詭秘，始欲絕之。適會汝立爲見李潑，歷介川訪之，先生避不見，汝立語家僮曰：“吾某日當還，告爾參奉留待之。”及其來也，先生又不見，汝立怒去。先生曰：“吾欲絕此人者久矣，今則可矣。”卽走書絕之曰：“公以文學自修，人皆仰之，今之所與，皆非正人，自今與公永絕。”使門人吳希吉書送。

未幾，地主李公啓謂先生曰：“公知鄭汝立耶？吾無雅分，而徵索極濫。”先生曰：“此人始與相知，而今已絕交，何必更論？”於是，相與言其心術不正。其後，先生從李公，請借其龍仁地小庄曰：“吾知汝立，必不令終。吾旣絕之，不可不遠避。”李卽許之。時賊之下士不已，而反狀猶未著。月沙公，卽李之胤子，亦疑先生之過計，或以語人，及汝立伏誅，人皆始服先生先見。宣廟親閱賊家書，得先生絕交文，問於首相朴□□，對曰：“此乃南中高士，而以學行見稱於流俗者也。”上下教嘉獎，而特拜王子師傅，公聞命肅謝，未幾還鄉。

壬辰倭寇卒至，大駕播越，時本道監司李洸，擁兵逗留，不肯勤王，而忌嫉義兵，多方沮撓。至僭軍逃竄，唱動訛言。當時湖兵之潰，皆以洸之所撓也。先生不勝憤慨，與進士朴宗挺·柳思敬等，抗疏極陳洸罪，辭甚痛切。募遣武人朴希壽，達于行宮，洸旣伏罪，人心肅然。自行朝特拜公高敞縣監，公以時事孔棘，黽勉赴任，翌年五月，忽感疾，終於公舍，享年五十二。

先生自二十時，已有志於學，又能從事於師友，其學以四書爲本，而兼通程朱諸書，一時名儒達士，皆與之。性又至孝，繼母李氏性嚴，待先生以非道，頗有人所不堪者，而公克執子道，未嘗小失。鷄鳴盥櫛，定省不怠，李竟感悟，語其已出德龍曰：“汝能學汝

兄，吾所望也。”德龍酗酒酖色，人皆輕賤之，先生克盡友愛，鄉黨稱其孝友兼至。先生即節孝公徐先生之外裔也，追慕其感天之孝，倡立祠宇於慕巖。而俎豆之時，又以其行蹟大槩，請銘於思相，刻立於古邑之東，斯役也，先生實亦有力云。

先生凡再娶，前夫人李氏，府使長榮之女，生一男二女，男曰聖一，不幸早世，女長適郡守丁弘祿，次適士人金克純。後夫人金氏，參奉士欽之女，生二男一女，男聖俞·聖敏，皆察訪，女適司果李時行。聖一初娶縣監柳亨進之女，後娶奉事崔宣之女，皆無後，取聖俞之子之翰爲嗣。聖俞初娶參奉金弘遠之女，有一男，即之翰，以文學名世。後娶主簿崔夢男之女，有二男之翕·之翮，皆有處士之行。庶出曰之翔，女適曹亨耆。聖敏娶楊士敏女，生二男之翮·之羽，女適金潤。庶出男之翮，女適李友樟。之翰娶羅暉之女，無後，後有男元伯·元恒·元柱，以元伯立爲嫡嗣。之翕娶進士金伯生女，生二男一女，男元龜·元喬，女適李長夏。之翮娶洪儁之女，生六男一女，男曰元弼·元瑞·元佐·元杓·元基·元昇，女幼。

葬于長城縣西八里慕巖先塋之東坐卯之原。噫！叔世人物，雖有生質之美，而能有志於學文者，蓋寡。雖名爲學，而能得其力者尤爲鮮，若先生則能孝友於嬴母傲弟，能操守於貴賤交際，以先見而絕罔世之陰賊，以效忠而斥負國之老奸。若此者，雖謂之非學力所得，吾不信也。抑所謂聞斯行之者非耶。必有篤論之君子辨之。先生歿後，全家陷沒於丁酉之亂，記述無傳，言行泯絕，迄此之久。

去甲辰年間，公之孫之翰，得焯焯流傳者，爲草稿，來示余。余謹就其中，文意未瑩處，略加改正，而歸之，迨今二紀餘。竊恐有謬誤，索其稿於其家，則之翰之子元伯，因請改其稿，以爲傳後之

資。不敢多讓，謹爲序次如左云爾。崇禎紀元後己巳四月十日。

先府君行狀

府君諱震鐸，字善鳴，其先幸州人。幸州之奇，實裔於殷師，而派別得姓。有諱純祐，仕高麗官平章事，是爲鼻祖。其後益蟬聯，曰平章事諱守全，曰上將軍諱弼善，至我朝，有曰判中樞貞武公諱處，皆最著。諱孝諫師事金河西，以學行聞於世，懲乙巳文網，闕光不仕，或欲薦拔勸起，終不應，卒贈戶曹參議。號錦江，於府君爲曾祖。祖諱啓獻蚤世，贈戶曹佐郎。考諱處謙，妣坡平尹氏，其先亦赫甚。以萬曆三十五年，丁未四月十六日，戊申【丑時】生府君於長城縣之小谷里。

府君，稟氣清明，聰悟絕人，自少讀書，日記數千萬言。十三四歲，已通四子·《詩》·《書》，及《少微通鑑》，皆一再讀過，便誦不忘。每見新曆，纔一閱，終年不復見，人問節序盈虛，不錯毫分。凡人貫系·吏歷及古今賢邪·是非·得失，貫穿無遺，未及成童已然。既而學《易》於曹數竹【弘立】，數竹時有能文聲，徒弟頗衆，而未嘗不爲府君稱歎，曰：“吾不可爲若師，其就鄭子容。”時畸翁遭昏朝，廢居昌平，與數竹從遊，論文也。畸翁亦屢叩府君文辭曰：“眞稀世奇才也。”

未幾，府君中甲子司馬，時畸翁起廢承擢，趣索府君試稿，讀曰：“此作甚善。”既榜出，不得高等，歎曰：“世無具眼也。”時府君年始十八，儕友同榜者，頗有自多者，府君獨默默處其中。既謝恩，卽屏去花童，匹馬還鄉，不作新恩得意態，至門始設宴榮之，人皆

稱異，許其爲遠器。蓋府君自少不好遊嬉，至長益自檢制絕，無嬉慢浮華之習。故妙年科名，不足動其心。其後益無躁進之念，未嘗專意科業，優遊靜裏，志行高潔，鄉之長老，咸敬憚之。

至己巳，先祖考罹劇病，彌歲不瘳，府君晨夕勞悴，奔走醫藥。自此親瘳，雖免危篤，而未離床席者，亦累年。故府君不得從遊於師友間。以親意例赴鄉試，雖屢獲選，輒屈於庭對，人皆嘆惜，顧自不以介意。至癸未冬丁憂，喪禮備盡，寢苦冷廳，以至虞事，一未嘗就溫房。舍人不堪其寒慄，而府君終無病焉。豈非神明所扶持者乎。旣服闋，益勵自修，亦不爲崖岸以求人知也。以慈夫人在堂，慨然赴丙戌別舉，果得選，以太學士出題觸犯，自上命罷其榜，故終未第。自此益知時命，遂不復赴舉，以恬靜頤養爲務，未嘗一到朱門，見士人求仕者，心甚鄙之。

壬辰冬，始感疾，癸巳轉沉綿，七月初三日，屬纊於寓舍，享年僅四十七。臨絕神氣益明，屬長子挺夏曰：“克盡誠敬於奉祀。吾所寄汝者，只此。”訣二弟曰：“吾以不得終養老親，不瞑目於今日。爾其善事老親。”言訖而逝。府君姿質秀朗，而器度端方，心氣和平，而容貌嚴整。未嘗以學問自任，而若其治心制行，則有非俗儒所能窺測。故當時從遊諸丈，未嘗不追歎其莫能涯涘也。

嘗曰：“心無邪，行必正，事求是，乃理也。吾所守，合於理，則無往而受屈，吾所爲，違於理，則無往而得伸。”又曰：“人之不善，必自犯上始，苟好犯上，則便是逆，德所執，雖善直，反爲曲，而終於悖妄。故有子曰：‘不好犯上，而好作亂者，未之有也。’”又曰：“好爲詭異者，其心必不正，這樣人，切不可友善，而衣服之詭制，亦不可近。”又曰：“人之作奸犯科者，必曰：‘親在故也。’親豈嘗使

爲不善？是以其不善，推委其親也，寧忍之乎？”又曰：“利欲之害，人無所不至。吾見骨肉間，爭利起訟者，則不忍正視也。”此所雅言，而訓戒不肖輩者也。且憂不肖輩昏惰，而慮其賊恩，不必嚴切之，見其開口於利欲上，則輒聲叱之，亦累日不降辭色。凡曉解若不經意，而未嘗強不知爲知，措爲率多合宜，而未嘗強不能爲能。人有恩於我，則終始不忘，而見其有非理，則亦不假貸。有質問者，必曉以義理，絕不曲意媚順於人，故常與世寡合，而人亦不敢嫉惡也。

常曰：“人不忠信，則事皆無實。吾常謹避世所奔趨之地，不知其實，而強冒行之可乎？且如古今所謂賢者，名實相副者，亦難，如古楊雄者，苟非《朱子綱目》特筆，則誰得以知之？我東烏川，忠誠義烈無可議，而治隱所樹立，亦可謂卓哉！此外，麗朝所謂，純儒者，有幾。本朝則退溪氣象地位，眞所謂有德者，實吾東理學之宗，高峯才識，或到得退溪未見解處，而觀其言論詞氣淺深，則若孔孟間耳。常稱河西天稟最高，雖未知所造如何，而氣象隣於明道”云云。

晚益慕栗谷，每言：“若論海東前後才德兼備可爲王佐才，則李文成一人而已。”指《擊蒙要訣》曰：“只此若干文字中，便具小大學，後學可常讀之。其中祭儀，斟酌古今，參以國俗，可依行之。”其後一一從其儀制。府君自己已親病後，未得讀書爲文，只於閒中考閱聖賢書，故曾所著，程式之文策二道，賦表若干首而已。居家，一任寒素，恩義兼行，而與先妣，相待如賓。

先妣姓羅氏，系錦城，祖德用夙以行義聞，而蚤世不仕。祖妣文科郡守宋廷筍之女，以貞烈旌閭。考諱茂春，登明經第，立節於

光海廢母時，削職。其後，纔爲監臺而卒。仁祖慣聞其節義，卽位特贈禮議。妣利川徐氏，先妣生於節行家，有柔嘉令德，年十七歸于府君，剛柔克配，敬執中饋無違，先妣以萬曆三十四年，正月十一日，【子時】生崇禎紀元後，辛亥四月十九日，以年六十六，猝然遘疾而歿，後府君十八年也。初府君之葬，不得地，被沙礫水泉，再遷其兆，因祔先妣，而方虞地，又不吉罔極。男四人，長挺夏，次挺翼·挺萬·挺九，女二人，長適房明燮，季適柳翼瑞。

嗚呼！府君行誼，宜不泯。不肖孤常欲自述，以求立言乞銘，而顧知識淺短，文辭蹇劣，懼有一毫失實溢美，得罪於冥冥。故謹俟見識稍進，可及未死爲之，不幸賦命險薄，慘遭家禍，竊恐風燭忽及，不得諧至願。故謹序次曾所銘心者若干事，以爲狀焉。壬戌五月既望，不肖孤挺翼謹狀。

嘉義大夫 行平安道觀察使 金公 行狀

公諱汝鈺，字君粹，光山人。初新羅王子有曰金興光，知宗社將亡，來卜光山西居之，子孫因家焉。而值高麗盛際，代有平章事，人號其洞平章，而平章之金，爲世名閥，公其裔也。興光之後，有平章事諱策，爲海東名臣，而諡曰文貞。其孫門下侍中諱良鑑，又以文行服一世，於熙寧甲寅，奉使大宋，摹寫太³學，而還蘇東坡作詩贈之，詩在《東坡集》中，諡曰文安。是公十八代祖，其前後，名卿代

3 太：저본에는 '大' 자로 되어 있는데, '太' 자의 오류이므로 바로잡았다.

不乏。曰文肅公周鼎，曰忠肅公深，又最著數世，而諱伯均入我朝爲節度使。又二世而諱崇祖，以文章名世，官止司諫，生弘文館典翰諱紀。於公爲高祖，出入侍從，眷眷甚至，不幸早世，特賜葬祭。是生工曹佐郎諱景愚，景愚生二男，長諱大成，贈左承旨，次諱大振，是生參奉諱友伋，贈兵曹參判。承旨公無嗣，以參判公爲後。是爲公考，早以文辭著名，晚中丙午司馬，益以行義稱，冠南服士林。

當昏朝癸丑，傳會廢母議者，競來推引，參判公每以峻辭拒之，彼必欲從己也。時其中鄉舉，赴殿試，削其籍于太學，卽走書來曰：“一者來見，削籍可解。”參判公卽書紙背，答曰：“生於母者，不宜有此說。”因歸家不復出，士論多之。仁祖朝拜穆陵參奉，以病不仕。娶瑞山柳景進女，卽錦湖林先生亨秀之外孫也。克執婦道，以萬曆丙申十一月二十三日，生公于光山蒼橋里。

公生而形容異凡，門族咸稱之。及長，知學才器，出等夷，參判公知其能業家，課率甚嚴，小有惰容，輒加箠楚，或至流血，而無怨色。年甫成童，文藝漸進，神氣秀朗，斯文尹八松煌，作宰靈光，聞其名，而來見之，亟加稱賞，而先輩知名，咸稱其金氏有後。戊午冠發解，其後連捷鄉舉，累屈覆試，人咸惜之。甲子始中司馬，因登其年明經丙科，分隸成均。時議皆以爲屈，公不少挫。丙寅以廣興內瞻寺奉事，因兼學錄，十二月以奉常奉事，轉入藝文館，爲檢閱，時天啓六年也。

翌年丁卯正月，北虜大舉充斥，朝野回惶失措。時鍾漏又有汗變，上憂懼轉深，宵旰靡寧，有一宰進曰：“鍾漏流汗，不足爲怪。去冬隆寒，到春方解，凍釋爲水，不是災異，何足爲異？”上默然。公

方以史官入侍，不勝憤慨，投筆伏地曰：“此真小人也。國都漢陽，今過二百餘年，豈無一年隆寒如去冬之日？而曾未聞鍾漏之凍釋爲水。此人敢爲指災爲祥，啓君父忽天戒之心，此真小人也。”上頷之再三，其人逡巡而退。是方主和議，擅國事者，每欲陰中公，而亦無隙可乘，然終始遏公，清顯皆出於其手。十一月例陞待教，至崇禎戊辰六月，以待教兼春秋，己巳五月，以奉教，轉成均館典籍。辛未拜禮曹佐郎，五月轉騎曹。壬申又拜騎曹者再，八月兼記注官，九月移拜騎曹正郎。癸酉以母夫人病，解官歸家，衣不解帶。六月丁憂，哀毀過制，以參判公在，及練，當撤几筵，公泣請於參判公曰：“子之平日行己，不能悉遵禮法，獨於父在母喪，暮而撤几筵一節，抑情從禮，實爲不安。然亦不可徑情違禮，請依禮申制，而得行三年上食。”參判公哀而許之。是雖過禮，不失爲寧戚，而蓋其孝性然也。

乙亥八月，制畢，九月拜司憲府持平，未幾病遞，十月又拜持平，歷成均直講，十二月移拜騎曹正郎，乞暇歸覲。崇禎九年丙子三月，又拜持平，被遞還鄉。其年十二月，北亂猝起，旋聞大駕出狩南漢，而賊鋒已塞漢南。公無官守，又旣路塞，難以獨身赴亂，方議收召義旅，以勤王室，而人推鄭斯文弘溟爲將，公實參謀。時鄭公方草檄文，若將受制於方伯。公曰：“此非義將威風。”請改之，鄭公不悅。又議多不合，公患之。翌年正月，體府從事官金公光燦，以公假宰咸平，公義不可辭，卽赴咸平，而累月空官，猝值兵亂，朝命隔閼，庶事搶攘。公旣到界，無一吏服公命者，公卽使衙奴，宣威布令，招撫安集，吏頗來集，民恃爲賴。公遂修舉軍政，練習兵器，捍禦之策，纔有頭緒，而亂遂定，公乃歸家。朝廷除公掌令，公

以王室新去亂，承命卽行。時三司方論江都失守之罪，而公又連入臺府，益奮直辭，論之不已。上竟允公啓，而慶徵伏誅。公又乞歸覲，九月又以掌令赴召，則臺劾尹昉未已。公意以爲當時尹昉受制於慶徵，而不得自由，今以尹昉不能授命之罪，同受慶徵僨事誤國之律，則殊失脅從罔治之旨。且臺評專斥江都之失守，而不知南漢主和之爲可羞。乃獨啓曰：“賊兵飛渡，一島瓦解，一朝左衽，百年爲戎。【政院刪此八字】尹昉身爲大臣，不能效金尙容之自決，其於舍生取義之道，誠有所可恥。而吾君二子，廟社妃嬪，一瞬息間，事將罔測，須臾未死，不失其所處變，情勢容有可恕。南漢江都，事勢雖異，畢竟名節，俱不得全。而區別彼此，一向攻斥，臣未知其可也”云云。臺諫以公爲彈劾君父，論以大不敬，兩司長官右公請出，臺官又劾長官。御批有曰：“南漢事，寡躬當之，金某此論，雖涉過重，臺閣之上，亦不可無此議論。”臺評罪公者，遂止。

其後齟齬者，竟謂公劾君，阻撻玉堂，公遂失職，連拜典籤。戊寅陞宗簿寺正，己卯拜司諫，病遞爲司藝，未幾又拜司諫，六月移拜司成。庚辰以宗正移拜執義，三月拜司諫，五月加通訓。十月出爲礪山郡守，以清白律身，簡約爲政，吏職民安，四年而政成。時值連歲凶歉，公方以振救爲急，時方伯爲叔母盛設壽宴，公略陳凶年設宴之爲未妥，不見聽，方伯果以此將被臺評。方伯疑公昌言其過，公曰：“在下位，不獲乎上，吾將去矣。”遂引疾請去不已。方伯遂發慍語，公卽投紱歸家，其年三月，丁外憂。

乙酉服闋，八月除弼善，以封世子慶，加恩陞通政階。丙戌四月除密陽府使，治績將著。翌年秋又與方伯不合，棄官而歸。時朝廷方準用棄官律，久而不敘。己丑四月陞嘉善，赴北京，七月又陞

嘉義，八月拜黃海道觀察。時孝宗初服也，國有大喪，北喝益肆。公受任於危亂之時，盡瘁去瘼，奏復不倦。上語大臣曰：“聞金某多病而近來陳啓，革弊甚勤，予甚嘉之。”朝廷方有女吳之役，責選諸道侍女，公慨傷時事。選女雖不得已，不忍嚴加搜括，民多不出女。故選進後於他道，幾不及期限，嚴教累下，卽爲馳啓曰：“鄉曲採薪之女，難望越娥之美，隨得粉面，上馬馳逐，而勢有不及，請罷臣職”云云。上大怒，卽命拿來，人皆爲公危之，而供辭，終不回撓。上命釋之，人謂公毀昏。庚寅又拜忠清道觀察使，辛卯朝廷講行大同新法，公議有不合者，遞去。其年十月，以護軍兼都揚府副揚管，十二月拜刑曹參判。壬辰五月拜廣州府尹，甲午復以護軍兼揚管者再，拜刑參者又再。乙未拜掌隸院判決事兼副揚，時自上以諸司奴婢多隱匿，繡衣四出，大加搜括，或以良族冒入，或以私賤混錄，愁怨盈路。上使掌隸院審覈，公多所平反，咸得其情，民以不冤。

丁酉除江華留守，戊戌以事遞歸，又拜判決。公嘗自謂“吾於國家無所裨，而獨聽訟猶人也。”至是再判，隸院適值詞訟煩劇，費神勞悴，病日侵尋。自是常忽忽不樂，若無意於斯世者然。己亥閏三月，除公爲平安道觀察使，命下之日，公益傷其無以耐煩，而自以兩朝累恩，不宜辭劇地，黽勉赴任。旣而病日益深，神日益耗。辛丑解歸坡庄以療病，入京。壬寅六月二十八日，屬纊于鑄字洞寓邸，享年六十七，訃聞命賜祭。以其年某月某日，葬于牛峯縣某向之原，將擇地改葬焉。

娶別坐南宮萇女，府使悌之孫，牛溪成先生渾之外孫，閩範克稱其家，今在堂康寧。生二男四女，男長曰再光，先公夭，次曰一光，女長適縣監高斗紀，次適士人徐文起，次適奇挺翼，次適尹拭

而早寡無嗣。再光娶宗簿主簿韓命吉女，生一男一女，男曰會英，女適奇挺奎。一光娶府使朴淳女，時無子。高有三男曰可翼·可寅，一幼，三女，長適尹禫，次適郭齊恒，次適白光瑚。徐有四男曰某·某·某，奇有四男，曰灝，曰泓，二十而夭，曰濟，一幼，六女皆幼。會英娶趙聖龜女，生一男一女，皆幼，奇挺奎夭而有一子幼。

公稟質粹美，而幼有庭訓，及委禽賢門，益資師友。心地潔清，而持身簡朴，操守堅確，而處事明快。參判公素多疾病，非魚肉，不能下咽，公每於朝夕，提網出川，得魚調進，退而讀書。偶獲江中一巖竅，竅潛錦鱗，網得而供旨。其後因記其巖，朝夕往輒有獲。蓋其巖竅，只容一魚，朝往取之，暮有別魚來宅，夕取之，朝又如之，他人莫得焉。公若宦遊，則指教兩弟，往取之如公。參判公下世後，公不復臨其巖，而今人日往窺之，終未得魚云爾。與其弟汝鏞汝鏞，和樂甚至，未嘗加以疾言忤色。祭祀必加嚴敬，喪事必盡哀戚，不爲修飾邊幅，而任其真，未嘗矜高驕逸，而常自卑。故人無賢愚，恒滿其室。鄉居常躬自執帚掃除庭宇，不留一塵，位至卿列猶然，人問，則曰：“此與人心地一般。”又喜以木履徒步於洞中，人遇之，不知其達官也。平坦簡易，類如此，蓋其性然耳。罷官，家無甌石，而京鄉無第宅，今其家累，無所居焉。挺翼以不肖無狀，出入門下，二十餘年，而竊矚公之平生。一光泣謂曰：“先君之下世，今七年矣。吾懼其處心行事之久而泯滅，苟往請焉。今之文人，不辭狀先君者多矣。然其詳而實者，宜莫如吾兄，兄其狀而致謹焉。”余惟無似，不足以狀公之行若事，而若其詳而實，則有不可辭焉。故忘其僭越，而悉編次其事跡。若夫裁正而發揮之，則以俟夫立言之君子云爾。

松巖先生文集

卷四

碑誌

序

說

雜著

碑誌

折衝將軍朴公墓碑

古者，張子房撰《赤霆經》，極道堪輿法，而推原上古羣聖人，其裔洞玄子微者述之，且闡其術。朱夫子稱道其善，蔡西山爲之發揮，則地術，固亦吾儒所宜道也。吾東則無聞者，而惟吾鄉朴公，最善於此，往往有符於《赤霆》及子微之遺法，儻使朱蔡見之，則其必莞爾也審矣。

公諱尙義，字宜甫，初未知名。當壬辰天將楊經理鎬，謂接伴李公德馨曰：“爾國有言青衣賊由東門入者，可相見乎？”李公啓使出見，蓋公於數年前言之，不見信，至是，人始驚服。楊與語大悅曰：“爾是狐山之精，當以術大鳴。”蓋狐是公祖地名。經理因留置軍中，咨決行事。一日軍行，有鳶飛在上。楊曰：“此何徵於師行？”公答曰：“不利，不敗。”已而果然，楊益奇之，自此術益聞。今簪纓家，蓋皆曾用其術，而迄乃驗，莫不稱神，而月沙李相公，最初知之。

萬曆戊戌，爲司宰監主簿，後帶軍職。丁巳以八耄陞折衝，至天啓辛酉二月初六日，考終于家，享年八十四。葬用公所自占府北龍門洞先塋下癸趾之原。公雖以藝術聞，而與其弟尙智友愛甚，及分家財多推與其弟，自取荒頓老羸，與古人所爲者同。後尙智感其義，還其美田若干於公之子。

考諱士珣禦侮將軍，祖諱守溫慶基殿參奉，曾祖諱宗元贈吏曹判書，妣延日吳氏學生世謙之女。娶河東鄭氏，生四女，李翰龍·金友玉·李潯·奇文獻，其婿也。而金·李·奇，皆無后，獨翰龍有后，生一男允鑑，宣教郎。允鑑初娶高興柳氏，再娶黃州邊氏，生四男四女，行簡·行敬·行敏·行重，其男，奇憬·金克杓·金起楊·朴垕，其婿也。長男女柳出，餘皆邊出，行文·行一，側出也。行簡有五子，鼎華·泰華·升華·謙華·晉華，行敬有一子，台華，行重有五子，至華·先華·始華·大華·亨華。先華後行敏，增華行文子也，處華行敬側出也。適曾孫鼎華，早夭無嗣，以升華子墜爲后。內外曾玄，多至百數十，不得盡錄。

公既藝且壽，多孫支，法宜銘。銘曰：“惟茲原，公自扞。初欲改，晚歸天。地而天，於術賢，學公者，宜所先。故刻此，詔萬年。”

淑人具氏墓誌

長城之故鄉先生望庵邊公有玄孫曰佺，挺翼友也。將葬其祖母淑人具氏，以狀授其從父弟進士脩曰：“人誌其先者，率欲美，而不要實，求諸遠而舍親所來往恪謹，蔑浮誇□者，非吾志也。隣友奇挺翼甫，雖未嘗應人爲誌碣，今誌若要實而不誇者，庶其人爾，其往請。”脩乃以其言來，挺翼辭不獲。

謹按其狀，淑人之系綾城也，以仁祖外貫，陞爲州。有曰三重大匡檢校上將軍，諱存裕，寔鼻祖，而贈左承旨，諱延壽，端川郡守，諱應瑞，於淑人爲曾祖若祖也。考諱義中，早世，妣李氏，參

奉諱質純之女。

淑人生于萬曆辛丑五月十三日，卒于崇禎紀元後，乙丑三月二十六日。淑人生而沉靜溫柔。參判具義綱，乃淑人從祖父，而又內外族黨，皆簪纓大家。淑人目習綺紈，而性本儉約，在室無私蓄。年十九歸于望庵公之孫，主簿諱某，執婦道，未嘗計有無爲經理地，姑許氏安之，而恒稱其德。事夫以敬，教子以義，皆主於和順，撫愛其庶出男女，無異己出，又未嘗虐使其臧獲，故雖悍婢頑僕，皆父母之。

主簿公攻舉業，有能文聲，而屢屈於禮部，初仕爲監役，李忠翼公時白，實舉之也。淑人隨往漢師，寓於主簿公從父弟郡守命益居。郡守之母夫人，乃延平君李貴之女，而於主簿公爲伯母也。淑人事之如母，無一機心遽色見於言面，李乃告於人曰：“姪婦心行極順，可與九世同居。”李夫人世稱其梱範，而猶且云然。淑人曾喪兩子，雖傷痛，而爲慰安其姑心，不肯夜哭。及姑歿後，遇主簿公喪，淑人年既七十，而猶血泣喪明，淑人可謂慎德苦行也。享年八十五，以五月初二日，祔葬于主簿公之墓下，用地勢異壙。

有四男二女，長世機早歿，次世老，次世樞，亦夭，次世耆，鄭載誠·金會慶，其壻也。內外曾玄，無慮四五十人，此未盡記，而適孫佗世機出也。乃爲銘曰：“經理與德行，孰貴孰賤。而淑人取舍，遐壽蕃裔。報施不差，而本於行也。淑人之行，我銘其竈，而以告來者。”

序

送蘇濟州[斗山]序

貴賤榮辱得失，無一動其心者，惟實得之君子爲然，而非外慕好名者之所可能也。余之識蘇侯，寔在庚子春，始余望見其論議於士林間，固已知其氣貌之非常人，猶未接款而罷。是年秋，余又遊洛，蘇侯已登上第，聲名動京華，一國爭知之，余不欲妄干于此。

時適其館與吾邸隣，吾友尹武叔，於侯亦故也。以侯言來而勸余見。余乃從武叔，而竊憫侯於其館，愿乎其容，若平生舊要，溫乎其言，若傾肝倒肺，□□□□□□□□□□有松柏後凋之姿，□□□□□□□□冠，而有芝蘭襲人之趣，遂相爲莫逆交，因同其館，日與之處。

其後余下第歸鄉，侯既出入臺省，而侯之仕爲親也，乞養而爲鰲山，越三年，仍牧羅州。余爲鰲民而居又隣羅，侯之前後榮養，余無一不知。其心志之養，口體之奉，俱極其至，而曾無一毫之病民也。繼以大資，年滿八耄，特恩超階。侯乃感君恩，而榮親壽，特設一筵，比舊尤侈，廣速簪纓，勤禮故舊。和氣祥光，盈溢春堂，尤齋老先生，實序其事而美之。吁！其至矣。然侯見親年之益高，不以此爲樂，而以驚汗爲戒，遂投紱徑歸，而翌年春，果丁憂，人尤以是多侯。

又其在羅也，以庸增秩，及乎服闋，又庸一秩，頂玉腰金則華矣，黑頭爲卿則榮矣。前後恩寵，孰不以侯爲得也，侯乃以其庸不

以爲功，大恨朝廷之失其賞典，益憂掎克之以爲口實，特欲具疏自劾，而無間可上，人或以侯爲過。

及今時事一變矣，侯之所嘗師事及同志，皆擯於外禍，且不測抵此文網者，將次第不免，而侯於是爲濟，濟是巖邑，侯是危蹤也。以侯牧濟，其於免禍，則庶幾。故不知者，雖憂其遠外，而識者，或賀之。侯乃慨然曰：“憂固不足言，而賀亦不知我也。士之生世，惟出處一節而已。我既與得罪諸人，同其志意，偕其進退，彼皆斥逐待死，我獨晏然在家，吾實恥之。今幸而□此絕島，乃吾之願，而猶恨帶職之爲可恥也。其可以巖邑爲吾憂，而以免禍爲吾賀耶。”

余於是起而歎曰：“侯能忘貴而與吾不怠，吾亦忘賤而察侯之平生，以爲貴賤榮辱得失無一動其心者也。伊今益可驗矣。孔子之所謂‘立身揚名以顯親’，侯能得之，而侯不以此爲足。詩人之所謂‘省郎京尹必俯拾’，侯已過之，而又不以此爲幸。至於衝風激浪，駭機伺發，死亡危辱，迫在朝夕，猶以苟免爲深恥，是豈外物動其中，而以利害爲心者之所可爲乎。吾以爲非實見得於義理者不能也。嗚呼蘇侯，其賢矣乎！行矣吾友，吾又何憂其不自得也。”

酒三行，且起，余又起而歎曰：“吾友之於義理，既知不自足者也。天下之義理無窮，而惟中爲最難能。故曰：‘天下國家可均也，爵祿可辭也，白刃可蹈也，中庸不可能也。’侯於三者，既將能之，而侯又不自足，則又將益求其精於中庸耶？此乃蘇侯之與我所共勉者也，而然後方爲不動心之至矣乎。”侯曰：“唯唯。”因書以爲序，繼之以詩曰：“大丈夫心未易知，死生榮辱詎能移。雄州玉節初非樂，瘴雨蠻煙亦不悲。元祐黨名惟至願，春陵脚血是吾師，誰沾兒女離亭淚，大丈夫心未易知。”

說

店翁說

箕城之東五十里，有山曰東龜山，有一店業墨若鬯，故名曰墨店，而或以鬯店并稱焉。其右畔有一地，竹樹巖石在。棄翁居之，因改其號曰店翁。

有客來詰曰：“棄猶不知，店又何取？下喬入幽，吾安知子之意也？”主人曰：“噫！夫店固可尚也，子惡知余意之有取也。店皆有業，而其業率勤，其人率賤，勤故世資之，賤故人侮之。人情資我，而侮我，則宜怨且怒。而店也，不惟不怨怒，而反安而爲常者，豈其智賢於人歟？惟其職如是，故人雖資我，而不自多，人雖侮我，而不欲較，蓋其職使之也。人不可不安其職，而吾未嘗勤其業，可謂得其職乎，未嘗守其愚，可謂安其職乎。吾職如何而不能使吾得而安之也。職乎，職乎！吾將改其職，而今居適與店隣，店翁吾號，而店職吾安，不亦樂乎。”

客曰：“子言則然矣。店人業墨與鬯，以安其職。今子無事則讀書，有病則服藥，有何關於墨鬯也？此則只假其名，假之與實不敵，尚矣。”曰：“資墨作吾字，借鬯煎吾藥。此可謂專得墨鬯之實者也，未知孰假孰實也。其必有辨之者矣。”於是主人，固守其號。

私議井田

三代以後，孟子始言井田大略。其後諸儒推演增益，互有詳略，而蓋皆不失先王遺制，孟子大意。故朱夫子嘗合而爲類說，則井田之制，今亦可詳矣。

或問：“井田，今可行否？”程伯子曰：“豈古可行，而今不可行？”或疑今人多地少，曰：“天地生物，常相稱。”又曰：“地形不必寬平，可以畫方。只可用算法，折計地畝，以授民，然則井田之法，今亦可行矣。”張子慨然以爲，縱不能行之天下，猶可驗之一鄉，方與學者，議古之法，畫爲數井，足以推先王之遺法，明當世之可行。

噫噫！千載之下，可想前後數夫子之意，而其所以酌古通今，推舊爲新，爲後世必可行者。吁亦至矣。若在我東，則又必一推變，而乃可。故忘其至愚極陋，而謹遵數夫子遺意，敢作私議如左。

依古井田推變損益

○擬先立王田，合民田立名。

張子曰：“今取民田，使貧富均，則願者衆，不願者寡。須使上下，都無怨怒，方可行。”又曰：“世之病難行者。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爲辭，然苟處之有術，期以數年，不刑一人，可復。”所謂處之有術云者，今亦可推變之。

蓋人情莫不欲富貴，而富貴者，不徒爲一身計，槩欲業子

孫而蔭後昆，則富與貴，人所同願，而二難得兼。苟使以富易貴，則富當樂從者，以貴可兼富，而其所以利益子孫者，又可以並得，則又誰有不願者哉。但國朝救荒，賣爵而有影職，優老賜秩而有老職，今之影職老職，有其名而無其實。故人之視之，殆不若竈下將爛羊尉，則人情又豈欲歸實富而取虛貴哉。

竊觀國朝，苟有功勞者，則雖微勳小功，必皆錄勳封君，蔭及其子孫，列於士大夫公卿之間，雖不得，人皆參預朝廷，而亦在其人品才調之如何，則此真可以易富人之所有，可以無怨怒而多喜悅者也。宜以富人之田地多少，許封各品之君，俱有差等，且其子女，各以口受百畝，更加差等，則所謂“處之有術，不刑一人，而可復”者，庶其在此。傳曰：“民功曰庸。”富人之歸田於國，俾復井地者，其功豈但止於庸，而位列於即今勳勞之班者，萬萬無少愧也。

且中國則士農工賈四民，貴賤無甚差等，而我東則有所謂兩班·平民·公私奴婢，又有緇徒，各有差等。兩班則勿論，房外·庶孽皆依今錄勳例受封，而平民以下，不可以率受封，遽列朝班，別以免役·復戶·免賤·有¹蔭等法論賞，緇徒則以主持·僧將·揚攝等號論賞，而納井地者外，永禁免役以下，雜路圖得，主持以下，他歧冒受者，則納田者，可以獨得專美，其所喜悅，豈下於受封者哉？若王子·諸宮家，及功臣家，則初既以王田畫給，不必歸田，而若其私置田庄，無論宮家·功家，一體歸井。井法中分田制祿特厚，雖無所償，亦豈怨怒哉？

1 有：저본에는 '宥' 자로 되어 있는데, 오류이므로 바로잡았다.

○擬以封爵償民田。

富人田若未滿一井，而有子女七八者，則其子女，各以口受田勿論。田雖滿數井，無子女，當歸，四孫者，亦勿論。若滿一井而有子女，【無論嫡庶。】三人以下者，宜從二君，平民則免役·復戶，公私賤，則免賤·復戶，緇徒則揚攝。有子女六人以下者，正三君，【宜增設以給。】平民及公私賤·緇徒，則上同。八九以上者，勿論。【平賤同。】無子女者，生則正二君，死則勿論。

田滿二井，而有子女七八九以上者，宜正二君，六人以下者，從一君，四人以下者，正一君，十五六以上者，勿論。無子女者，生則正一君，有采邑，死則勿論。【平民·公私賤，比正二君者，免役賤復外，更加宥及子。視從一君者宥及孫，緇則都揚攝下同。】田滿三井者，有子女十六以上者，宜正二君，七八以下者，從一君，三四以下者，正一君，有采，無子女，上同。【平民、公私賤、正一君者，上同，而宥及曾孫。】以此作事目，頒降後，合收民田，名以王田。

○擬設井田司掌之。

擇正直公明有才局者一人，領之。其餘，佐貳、郎僚，及各道御使，許令自擇正直公明者，入啓分掌。

○計戶籍民口數。

悉計男女壯弱老幼，纖悉無遺。

○擬分遣御使，擇一地，畫古井，爲筭量準則。

令御使巡到各邑，擇一寬平正方，可畫古井地，依畫九百畝。建步爲畝，六尺爲步，步百爲畝，畝百爲夫，井方一里，是爲九夫，八家共之。一夫一婦，受私田百畝，公田十畝，爲八百八十畝，餘二十畝以爲廬舍，是爲古井田形體之制。今當以筭法折計百畝，通計九百畝，定其大小，以爲筭量之準則，而一井中除經界溝塗所容，各廣一步地以備定井。後正經界之地，筭量一井地畝，當種穀幾許，啓聞。

○不拘田形寬狹尖斜，用筭法折計地畝，試畫九百畝以玉尺【今之指尺】作井田。

畝合狹爲廣，折長補短，以準井畝，畝要滿百爲一夫，以九夫爲一井，隨其田品等數。【上中下見下。】又除經界所容如右。

○參量水田旱田，從其多少均定。

三南則水田多，西北東則率皆旱田，而西東則水田猶十一，北則全無。土品俗尙自異，今當因舊分定。水田多處，則參入旱田，三之一，旱田多處，則參水田亦然，皆因土俗，而土品上中下隨異同，謹別燥濕厚薄，分爲上中下三品。

○上田夫百畝，中田二百畝，下田三百畝。

畫井時，特加詳審增損，不可一從民言，亦不可率意勒定。一井地中，亦多善惡，都在公正。

○待試畫畢，以民口分隸井數，審其盈縮定畫。

以程子天地²生物常相稱之說，則今之民地相稱必矣。但畫井步畝，尺樣之大小，及裁制多少之不同，皆由於人，則設有盈縮，不可諉於不相稱，而不思變通。其由於人者，若人多地少，則或變其尺樣，或損其畝數，推移變通，以其所減之數，筭計推剩作井，井必準民。若民少地多，則亦以尺樣畝數，推變增益，又使民準井數，要皆推留餘井，以待民口幼少，年滿受田時節。【餘見下。】

○口地相準，後正經界，堅築封植，俾勿壞。

每環一區，定小經界，又限一井，定大經界，不必縱橫正方，從地廣狹長短，以廣四尺高二尺爲準。通溝開塗，封土植木堅築，俾勿損壞。有侵削者 當有重律。井區有踰嶺過川處，則逐立經界，雖未相連，亦令知某井某區，四立標，木刻書，歲易勿替。

² 地：저본에는 ‘之’ 자로 되어 있는데, ‘地’ 자의 오류이므로 바로잡았다.

○廬舍二十畝，從民願分給。

八家各五畝，而今之民居，未有常處，井法後，又必有逐田移居之村。每於井外可居處，各留二十畝，勿入井中。

○圭田世祿，合歸制祿中。

朱子曰：“世祿者，授之土田，使之食其公田之入。”又曰：“〈王制〉云，圭田無征。今宜以公田世³祿，時參入其中。”

○餘夫亦以口授田如此。

按孟子言，餘夫二十五畝，與一口十畝 不相應。〈食貨志〉云：“亦以口受田如此。”此例也，今從之。

○擬自公卿大夫士至農民，倣古井受田。

程子曰：“一夫，上父母，下妻子，以五口、八口爲率，受田百畝。”此乃古之井田，不論上下貴賤，平均受田之遺法也。但君子小人有別，而君子則不可自耕，故朱子曰：“大抵古者田祿，皆以助法之公田充。”而八家因爲之屬圭田，恐亦如此。

今當自三公以至士，則【造士·選士·生進·秀士外，皆不得與士。

3 世 : 저본에는 '制' 자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오류이므로 바로잡았다.

○造·選士，見下貢舉。】各以一井之公田，分授無差等，庶民則自未參秀士以下至農民，無論良人·書吏·官吏·公私賤，亦以五口八口爲率，依各受私田百畝公田十畝，【下同。】亦無等差。

皆年二十有室後，至五十九受田，年少而無父母者⁴，未有子女者，與同己者，三人如一夫受百畝。至有子四五，或率戶人，【八口家多子女，願爲雇工之類。】合成七八九後受百畝。餘夫十五歲以下，無父者，論以孤。【入下四者條。】十六歲以上，無兄弟可依者，依受二十五畝別耕，有兄弟同室，則無論年歲，論以十畝。雖非餘夫十六歲以上，能耕，皆授十畝於其父母。

工商五夫，僧徒十人，乃當農夫一人。私奴，則自十歲後，當役於主家，至三十歲前，則口授五畝於其主。至放役時，必待其主呈官請授，後許授以例。其不役者，亦待其主呈請文書，後依例授田廬舍二十畝。今人不必在田耕種，請以邑居村基，合受五畝者聽。或隨田願移，或自官分田，徙民時，並聽自便。

何氏曰：“上田一歲一墾⁵，中田二歲墾⁶，下田三歲一墾⁷，肥饒不得獨樂，曉嶠不得獨苦，三年一換土易居⁸。”田中不得有樹，以妨五穀。旱田許種宜土之穀，水田之耕播移秧，亦任土宜，樹桑養牲，官加勸督，必期老者衣帛食肉。晝茅宵索，

4 者：저본에는 ‘者’ 자가 없는데, 문맥상 필요하므로 첨가하였다.

5 墾：저본에는 ‘懇’ 자로 되어 있는데, 오류로 목판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6 墾：저본에는 ‘懇’ 자로 되어 있는데, 오류로 목판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7 墾：저본에는 ‘懇’ 자로 되어 있는데, 오류로 목판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8 居：저본에는 ‘民’ 자로 되어 있는데, 오류로 목판본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乘屋藩圃，修治田器，及期早耕，播種移秧，數耘勤灌。先公後私等事，自井長先之，統領一井，糾察勸課。如其家有不如法者，告官，小罪則親決。井長勝任，連值一井，宜稼者復，其身不勝者罰遞。冬則婦女同巷，夜績女工，一月得四十五日功，相從而省費燈，合習而拙學工。

○每井定井長一人，申以井法條約。

擇井中年多有知謹慎者一人，自官差定，申以經界不得侵削，溝洫不得專利。

○定收納公田條約。

每年收穫時，井長呈告官家，本官守令定日，躬到上田中公田之不甚稔者，使卽刈擷，知其穀數。輸官乾取，更爲斗量舂精。又皆躬審，極令公正，定其上公田之數。【官率驅從一日傘一，持官點心。奴二人，自齋飯切，勿侵畧田夫。犯者，守令拿推。】又到中下田之公田，如之。令他公田穀，一依其數，或米，或租，出浦輸官，各區依國令，施行爲定式。

○凡同井出入相友。

同心志相愛，不相侵凌。

○守望相助。

同出力防盜，不相越視。

○疾病相扶持。

聞見醫藥，互相憂恤。

○擬以公田稅入，輸貯京倉，以供國用。

按〈類說〉·〈班志〉云：“稅給宗廟百神之祀、天子奉養、百官祿食、庶事之費。”【并工商衡虞之入同用。】

○擬以公田制祿。

按〈班志〉，古者，天子之卿大夫，采地實六千四百井，是謂百乘之家，其地可出兵車百乘者，則據此可知古者天子之百官制祿之優。其後歷代制祿，雖不可考，漢則至有二千石刺史，其祿亦云重矣。我東之徧少，雖不足擬於中國，麗朝制祿，一品亦至三四百石，以中國盛時參。以我東統合之初時，皆薄稅，而猶能重祿如此。若我聖朝，則祖宗稅法，近於三十而稅一，稅薄則祿薄勢也。今不用井田則已，用之則法實三代，而用徒⁹前時，忠信重祿之意，何獨不行乎。

又按〈班志〉曰：“畿方千里，提封百萬井，除坑塹·城池·邑

居·園囿·街路，定出賦六十萬井。”我東幅員，或云幾萬里，【鄭麟趾《麗史地理志》曰，幾於萬里云。】或云二千里。【麗朝，白文寶曰，千里者二。】折衷二說，則可三千餘里，比天子之畿，雖不可謂三倍，亦不可謂未滿。定出賦之井，幾於百八十餘萬，則其公田稅入，給宗廟百神之祀、宮禁奉養之需外、本朝內外千官之俸，及散班、雜色、庶事之費，雖用數萬井之公田，尙何足¹⁰於國用。

今擬王子、君至三公，正一品以十井爲采地，其公田之入以爲祿俸。【身死三年後收之。】自從一品以下，隨品降定，自正二品以下，食公田爲祿，如此而無采名。圭田五十畝依古，世祿亦定以五十畝，並無差等。世祿限三代，圭田限生前，罷產亦勿收。卿以下近侍，遞職付祿因舊，散班·雜色並有差。

○凡歸田，士大夫限生前，庶民限六十。

庶民歸田者，夫婦俱存而無子者，因存廬二畝半，改受田二十畝。自年近七十，至八九十者，雖俱存，與鰥寡同，在特恤中。

○特養鰥寡孤獨、廢疾者。

每年收錄四者，及廢疾無歸者，每月朔計口，給糧日二升、醬

9 菑：저본에는 '菑' 자로 되어 있는데, 오류이므로 바로잡았다.

10 足：저본에는 '足' 자 앞에 '不' 자가 있는데, 문맥상 '不' 자가 없어야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삭제하여 바로잡았다.

半合、乾魚一尾、雜醢一升、給鹽三合，月以爲常。每九月朔，授襦衣，【過膝下三寸】襦袴，具單衫袴，各一襲。三月朔，授單袂衣袴，各一襲，歲以爲常。以公田米租備給，以遵文王必先四者之法。【尼及叢祠巫媼，不在此限，以抑邪惑。】

○令士大夫，各教餘子，【未征役爲餘子。】在室者。

八歲入小學，學家禮¹¹、六甲、五行、書計，始知室家長幼之節，冠昏喪祭之禮。十五入大學，學先王禮樂，而略知朝廷君臣、尊卑貴賤之等。【餘見下貢舉篇。】

○比閭必有長，築塾若序，勸學課農。

〈類說〉曰：“五家爲比，五比爲閭，至五州爲鄉。”而時勢有異，不可拘焉。自五家至十五家，皆爲比，【閭里大小不同故也。】自十六七至三十，皆爲閭，自三十至百餘家，分閭立長，各築塾序，皆東西兩房中有堂，【使井長輪次溫突。】令各家餘子入學者，聚講學閭居宿於此。比閭長爲師。【詳見下貢舉條。】每春夏平朝，閭胥坐於右序點，井長畢領出而後，就左序，夕亦如之。入者必持¹²薪芻，輕重相分，班白不提挈。

11 學家禮：저본에는 '家禮學'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오류이므로 바로잡았다.

12 持：저본에는 '持' 자가 없는데, 문맥상 '持' 자가 있어야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첨가하여 바로잡았다. 《한서(漢書)》〈식화지(食貨志)〉에 “入者必持薪樵，輕重相分，班白不提挈.”라는 구절을 참조하였다.

○因井田而制軍賦。

邵子以爲“井地之法，放於洛書、九宮。”今以〈類說〉考之，方一里，【九百畝，縱則長一里，橫則方九百畝，里數下同。】爲井，【九百畝。】井十爲通，【九千畝，十井。】通十爲成，成方十里，【九萬畝，百井。】成十爲衆，【千井。】衆十爲同，方百里，【萬井。】同十爲封，【十萬井。】封十爲畿，方千里，【百萬井。】皆以九數推定。古者發財出兵，皆用此法。【安成劉氏曰：“古者以三百步，爲一里。”】

○擬計口發財。

按古者，人必有身役，〈類說〉所謂“計口發財”者，此也。一同百里，提封萬井，除山川·坑塹·城池·邑居·園囿·街路，三千六百井，定出賦六千四百井、戎馬四百匹、兵車百乘，此卿大夫采地之大者，是謂百乘之家。一封三百一十六里，提封十萬井，定出賦六萬四千井、戎馬四千匹、兵車千乘，此諸侯之大者，謂之千乘之國。天子畿方千里，提封百萬井，定出賦六十四萬井、戎馬四萬匹、兵車萬乘，此則邦畿千里之法也。我東幅員，比天子之邦畿，定出賦之井，當過百餘萬井，以其井計其口，八口之家，不下三男子，男一口，各出綿布一匹。【七升四十尺。】

○擬以賦出兵。

地四井爲邑，四邑爲丘，丘十六井，有戎馬一匹，牛三頭。四丘爲甸，六十四井，有戎馬四匹，【備給甲士，并歸牧具。我東用兵，不用兵車，沿海則代以戰船兵船‘漕船’之役，而比兵車，各有輕重差等，參量分定。山陸則加定甲士，或步卒，亦爲參量。】牛十二頭，【不用車，則牛亦無用，而姑存之以備餽軍。】甲士三人，【擇定驍勇壯實者，俱除農役，惟習弓炮。】步卒七十二人，【士卒之數，蓋亦兵車一乘之用，而今之騎步，亦依此數無妨。】干戈備具，是謂司馬之法。【此以上〈類說〉。】

一同百里以下，見上發財條，發財出兵，蓋兩事而一貫，必參考上下，審量分定。自一丘十六井，一甸六十四井，至千里六十四萬井，皆以井數制軍賦。而古云“以賦出兵”者，蓋賦在民間，以供兵力軍裝，待令以出，而以其餘賦上貢耳。今若能行，則自官督捧，均分於士卒。官若縮其本數，則許士卒上言定罪。犯十疋以上絞，以下減死，次次照律勿赦。

○擬以兵分隸各衙門。

內則御營、守禦、總戎、訓練，外則各道水陸軍¹³，各鎮堡漕軍，皆以此兵分隸，而御營以下軍兵，則以畿內及各道之附近畿甸者永定，漕水及鎮浦軍，則各以沿海本郡縣之在軍者永定，其餘則各道郡縣之在軍者，皆定以陸軍，勿爲換易來去內。自各營大將，至各道兵水使，及各鎮僉萬戶，皆在分田制祿，切勿侵漁軍兵干預賦布。兵使則設營於四長官中要害處，水使及

13 軍：저본에는 없는 글자인데, 문맥상 필요하므로 첨가하여 바로잡았다.

僉萬戶則依舊，鎮浦內外大將，及僉萬戶，有兵甲士徒之費，則啓請府庫之貯用之。

○收餘賦於府庫。

賦供車馬、兵甲、士徒之役，【以上〈類說〉。】古之所謂賦者，不過如此，而本於井法，不得增益，兵甲、士徒之用，脫有不足。車既不用，海獨有船，陸地供船之賦。士卒亦或減額而收賦，則必有餘貯，斷不加賦。與叔季同，歸亂亡矣。

○擬定學校、貢舉。

謹庠序之教者，乃井法中大節目，而成周賓興之禮既廢，漢氏鄉貢之名，僅存及乎。隋唐之際，專以詞章取人，則鄉貢之法，並其名而亡焉。於是科舉取人之陋習，反爲歷代之成規，陋規之中，痼弊漸起，百代無善治，職競由此。聖朝今日，倘行井法，則庠序之教，當在次第舉行中，而賓興之美，可以漸復，科舉之習，亦難卒革，姑當兩存而并行之，以冀復古而善後。故謹仰朱夫子私議，增損變通如此。

○置成均大司徒。

令三公同吏禮曹，悉心訪問儒臣及隱逸中德行兼備，可爲人師者一人，盡禮延聘，特拜大司徒位次。與大提學同文衡，大提

學掌之德行教導，大司徒掌之。【大司徒與吏禮曹，極擇有德行者九人，爲大司成及各道司成。】

○立德行科，行貢舉法。

大司徒掌之，作科目，以朱子白鹿洞院規，爲綱領。以此教導，以此取人，依行古之貢舉，付於此科，但純復古制有漸。節目在下。

○定貢舉條目。

愛敬父母。○尊慕國家。○禮遇妻子。○恭於兄弟。○信於朋友。【以上五教。】○讀書窮理，博學經傳。○疑必思問，就正有道。○精思涵泳，專心致志。○分別是非，定其取舍。○有得於心，行之無倦。【博學之，審問之，慎思之，明辨之，篤行之。】

○先以四書·《小學》·《家禮》，試講士子，分入學校。

科舉式年前一年，大司成及各道司成，奉命試講，京則大司成主之，外則各道司成分行。列邑鄉校俱以戶籍，抄出幼學，上自公卿之子，下至庶孽，無論初試入格未入格，皆以四書·《小學》·《家禮》臨講，而二十四冊，各出一章而兼註解，細問文意，或講義理。兼通文意義理者爲上，略解義理者次之，只解文意者又次之。雖能句讀，全昧文意者，及只解四書，而未解

二書者，皆勿取，俾待後講。惟講能三書，全昧三書以下者，請力學待後講者聽。惟讀二書以下，外則付校。及全不通六書者，京則歸雜學，外則委之本官，細別高下，各當其任。【年四以上，不願應講者聽，年二十以下，願待後講者聽。】

○會講書儒生，禮待問難，分入學校。

京則大司成，通於講書儒生，會於四學，明日大成晨入學堂，北壁下立，儒生以齒引立，【二十五人分次。】向大成再拜。大成答再拜定坐後，大成特加禮貌，從容問難後，大成備言。國家特設德行科，並存文藝科，令儒生從其願，應舉取舍之意因取，德行科目講說後，請各言其志。而願從文藝者，名以秀士，書一籍，不願應舉者，名以選士，書一籍，並留二籍於學。此後科舉時，以文藝案，許赴科舉。學堂課試舊制一，以此案用之，罷去舊額。【新額姑勿定數。】其一籍則大司成謄書別冊，呈於大司徒，書二籍後，儒生辭退再拜，大成答拜。明日他學，皆如之。

外則司成於罷講，明日皆如學規。而願從文藝者，書於一籍，名以秀士案，打印官上下司，一依前時校案例。科舉時一從此案都目。此外，或有冒入者，則當身全家徙邊，守令定¹⁴配。通講者數少舊額，亦不可廢則取。願待後講者，及講二書以上者，依舊作校案。不願應舉之籍，則名以選士案，司成掌之，爲一件，呈於大司徒。餘如學規，每行事於鄉校。

14 定：저본에는 '正' 자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 '定' 자의 오류이므로 바로잡았다.

○會生進，禮待問難，分兩科應舉。

京則大司成盡會生進於成均館，【居館圓點者，亦參。】晨入行禮，【先行焚香，勿用榜次，以年齒引入。】從容問難如右，後願從德行者，書一籍，呈於大司徒，餘依舊規。外則司成行於鄉校，講會等事，畢於科前。

○頒示德行科，貢舉條目。

生進·幼學選士，皆從自願，姑難定數，京限百人，八道限百人，皆生進·幼學參半。小猶減數，多不得過，分番居齋。大司徒作事日啓下，頒示德行科，貢舉條目於京外，楷書詳諭，因使應德行科生進選士，居於成均東西齋，幼學選士，居於四學。

外則生進·幼學選士，分居於鄉校東西齋。館免圓點，【文藝科依前。】學免課試，【文藝科依前。】校免齋糧。【文藝上同。】優其廩給，【以公田計給學校，亦置養賢奉事，準朔承敘。】皆惠心學問，以條目中五教·五事，如在父師前面命提耳。京外選士，或就學於大司¹⁵徒，或在本所任意。

○大司徒掌邦教。

文臣及南武有志者，皆來學，選士之願應德行科者，日來就學。

15 司：저본에는 '司' 자가 없는데, 문맥상 필요하므로 첨가하였다.

雖圓點生進及秀士，欲聞道者，亦可來學，但不許赴德行科。若後悔欲舍彼就此，則大司徒察其學行，許入後，大司成及司成，啓請入籍。外方來學者，皆然。而但貢舉則一從本道司成及本官所舉，不可以就學京師，徑許鄉舉。每朔望焚香後，大司徒定臯比於明倫堂，選士以上，皆問學聽講。若堂窄未專一，則數日後坐學堂，開講於幼學選士，先生弟子一如宋朝胡先生在太學時爲準。【或時就先生家，請問請益，一如古學者。】

○大司成及各道司成，主貢舉。

大司成於焚香後，逐日輪行於館學，與選士講其所學，討論經傳，專心審察其心果在於五教·五事不乎，果專在於學問義理上，而不爲利欲名譽所動乎。或時延請詢考，或時到家訪問。其心其學，果能如右者爲上，雖未純存義理，而亦能不怠於五教·五事者次之。反覆察識見其無可疑，然後取之，雖留心於五教·五事，而立志不篤，作止無常者勿取。勉進待後，名雖學問，志在榮進，動於利欲，行己無檢者，刊除其籍。

各道司成，巡到列邑鄉校，與選士行禮，如初講學討論如右。因留數日，夜宿官家，晝往校中，教導勸勉，用其至誠，禮待唱率，亦盡其敬。時與本官，共加審察，又使供億，切勿涼薄。數日後，又到他校，亦如之。一年之內，三度循環，或選士在家時，到家訪問，一以聞見審察爲事，又委本官，日加詳審。至年終，與本官更加商議，取之如右。勿取，勸進，刊籍等事，亦如之。

於列邑中，有勿或漏，無勿苟充。京取二十五人，八道取二十五人，【選士及貢士，選取時，選士則京百人，八道百人，貢士則京二十五人，八道同分額，一如式年東堂數。】錄其名啓聞¹⁶，移於四學。明年正月，自本官以禮津遣，縣次續食，極加禮敬，直到四學。啓下大司成受而同入於京中，選士齋舍安排，而同其供億。於是大司成，與各道司成，同會太學，合京外所舉錄，成一冊，名曰貢士案。啓下移於大司徒，大司徒受而升於大學。

○取德行科造士。

大司徒更察貢士之言忠信，行篤敬，懲忿窒慾，遷善改過，果有修身之實乎。正其義，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果盡處事之方乎。己所不欲，勿施於人，行有不得，反求諸己，果知接物之要乎。己能盡心於五教·五事上，則必得實效有如此者。一任大司徒之取舍，明年正月，審其優劣，定其次第，啓聞允下，賜德行造士，不得過二十五人。其餘則因在太學，造士唱榜後，大司徒移於吏曹，卽拜臺諫，不由階梯。通知朝議¹⁷，知制教外，因拜弘文吏曹。

惟其賢能，毋拘有薦無薦，盡其禮遇。若無潔行特操，而都沒摸稜，多行苟且者，則大司徒，引避請罪，三司覈實，果無足取，則論罪削黜，與其司成同罪。貢士之在太學者，禮待

16 聞：저본에는 '下' 자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오류이므로 삭제하고, 대신 문맥상 적합한 '聞' 자를 첨가하여 바로잡았다.

17 議：저본에는 '儀' 자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오류이므로 바로잡았다.

供億，特異於圓點之生進，直通仕路，試以百執事，待得參造士。【後上同。】

○取德行及第。

大司徒更察造士中有明察倫理·德成·行尊，而爲人師表。進禮退義，曉達治體，而足任經綸者，大司徒與三公，及吏曹堂上，累度講定，於明年正月，啓聞賜德行科及第，不得過三十人。唱榜後 上自三公，下至六卿·大司徒·大提學，勿拘階梯，隨闕隨拜，待之盡禮，用之盡誠，出入經席，尊以賓師。【科法例以亥年取選士，子年取貢士，丑年取造士，寅年取及第，周而復始行之。既久應舉者多，則漸廣額數，直至文藝科廢，則可以復古矣。】

雜著

私議井田當在此

易象解

乾

乾下乾上，即天之半在地上，半在地下，周而循環。天且由健，學而緝熙，人所當強，故曰：“自強不息。”

坤

坤下坤上，即地之既厚又厚，重複至厚之勢，宜體其厚德，同容載物，故曰，“厚德載物。”

屯

雲興雷奮，雜亂晦冥，而雷之一陽，統理衆陰，如亂絲衆緒，紛紜交錯，而由統引理，可以解棼。平治大業，蓋出於此，故曰：“經綸。”

蒙

山之出泉，如性發爲情，水之下流，如爲善必果，故曰：“果行善，育德性。”

需

坎爲酒食，乾爲剛健，酒食在前，需而剛健。人遇險難，不需酒食，則雖健致困，終必陷險。義不困窮，要飲宴，故曰：“飲食宴樂。”

訟

天一生水，始同一氣，而天上水下，終至相違天。水之象，宜則其始，人之作事，圖終惟始，故曰：“作事謀始。”

同人

氣之上升，天與火同，火實非天，體各有異，同故類其族，異故辨其物。理一分殊，故曰：“類族辨物。”

咸

莫高者山，莫卑者澤，以山之高，而處澤之下，澤有受物之象，山有虛己之象，故虛受人。

恒

雷在上則風在下，恒之爲卦，二氣不易其方。卦中三陽，有剛立不轉之象，故曰：“立不易方。”

遯

天雖包山，【不惡之象】猶相絕遠，【遠小人之象】不使侵犯【嚴之象也】故曰：“遠小人，不惡而嚴。”

大壯

氣之正大者，莫如天，而雷在其上，理之正大者，莫如禮，而人所當履，故曰：“非禮不履。”

晉

日之明出地上，德之光被天下，皆自明之，非自外得，故曰：“自昭明德。”

明夷

坤衆離麗，莅衆之象，外晦內明，容物之德，故曰：“莅衆，用晦而明。”

家人

言出乎內，而本於離明，行發乎外，而主於巽順。明則誠，順則常，故曰：“言有物而行有恒。”

睽

火澤同體，則天下無不同之物，炎潤異性，則君子無苟合之理，故曰：“同而異。”

蹇

見險止，反身之象，往得中，修德之象，故曰：“反身修德。”

解

雷威雨澤，解散萬物。過而雷復者宜釋罪，而陷險者宜寬，故曰：

“赦過宥罪。”

損

山澤之象，損下益上，下當懷怨，上或無厭，而兌悅奉上，艮止徵下，故曰：“懲忿窒欲。”

益

損上益下，本諸乾坤。坤之初六，居於乾下，而就其陽剛。乾之九四，居於坤下，而變其陰柔，故曰：“見善則遷，【就陽剛】有過則改。【變陰柔】”

姤

天之號令，因風以宣，而風之所起，萬物皆應。后之政教，依命以布，而命之所及，四方皆動，人君命令，蓋取諸姤，故曰：“施命誥四方。”

萃

以卦德，則順而悅，順悅則慮有不虞之患。以爻位則剛而應，剛應則預治戎器之象，故曰：“除戎器，戒不虞。”

升

巽木入土，而木性穿土。坤土覆木，而土性養木。木穿土升，而由小至大，土養木大而以順成之，故曰：“順德，積小以高大。”

困

澤上水下，陽爲陰掩，既困且窮，無以自振，而險而猶悅，則能致其命，剛而得中，則實遂其志，故曰：“致命遂志。”

井

穴地出水，作桶以木，以桶汲水，桶覆入水，井之卦象。而桶翻上水，水上爲養，井之卦德。汲之雖勞，用實爲相，君子使民，初雖爲勞，及其爲養，乃實勸相，故曰：“勞民勸相。”

革

蓋卦自屯來，剛柔相革。雷木上變而生火，坎水下塞而成澤。木火金水，四時之序，生息變革，陰陽之氣。曆法推算，原因此理，故曰：“治曆明時。”

鼎

鼎必有足，先正其足，然後能飪其所受之實。人必有位，先正其位，然後能凝其所稟之命。不然，則折足覆餗可羞，失位曠官難免。人可法鼎之象，故曰：“正位凝命。”

震

《程傳》盡之。

艮

思其艮象，留中不外。兩山之出，敦厚於止，故曰：“思不出其外。”

漸

木之在山，其長不驟，故曰：“山上有木漸。”土厚木茂，德賢俗美，故曰：“居賢德善俗。”

歸妹

《本義》盡之。

豐

雷電之時，先電後雷，電取其明，雷取其威，先明以照物，後威以用法，故曰：“折獄致刑。”

旅

火之在山，慎玉石之俱焚，山之得火，明草木之區別。慎刑如山，不留如火，故曰：“明慎用刑而不留獄。”

巽

巽是風象，風是入物。以風隨風，氣方深入。上必命下，命必入人，以命申命，事乃可行，故曰：“申命行事。”九五爻辭，十干甲爲初癸爲終，先庚三日無甲，是無初，後庚三日有癸，是有終。【諸卦未及盡釋】

松巖先生文集

附錄

行狀

行狀

行狀

先生諱挺翼字子亮，姓奇氏。系出幸州，高麗大姓。我朝判中樞府事諡貞武公諱虔，於先生爲九世祖也。貞武公有玄孫諱大有，進勇校尉贈戶曹判書高興君。高興有子諱孝諫，早遊河西金先生之門。又就堂叔高峯先生而講質焉。學精行純，隱德不仕。贈戶曹參議號錦江先生，先生其玄孫也。曾祖諱啓獻，龍驤衛副司果，贈戶曹佐郎。祖諱處謙不仕。考諱震鐸，十八登國庠有學行。娶羅州羅氏，司憲府監察贈禮曹參議茂春之女。慈順有婦德，以天啓七年丁卯七月十一日丁酉生先生。先生有異質，英悟絕人。伯氏受學，先生以幼稚在傍，耳聞而心記之，伯氏有不通處則輒開曉之。雖在髫齡，儼若成人，在羣兒嬉戲中，言語簡重，步趨安詳。伯氏呼其小字而戲之曰：“語何徐徐，行何遲遲？”進士公常奇愛之曰：“大吾門者，必此兒也。”七歲始受學。不煩教督而勤業焉。少長有志於學，而事親之暇，兼理詞章。自辛卯後，連捷式年試增廣別試者九，而爲壯元者再。掌其試者，皆以得公爲得人焉。癸巳，進士公邁疾，沉綿在床席。時當盛夏蒸鬱難堪，而先生終日執侍，暫不離側。母夫人，慮其生疾，令出戶而風，則曰：“小子，性不畏暑，勿慮焉。”進士公，竟不起疾，哭泣之哀，殯殮之節，葬祭之禮，曲盡情文，人莫不稱。辛亥丁內艱，執禮如前喪。一

日家僮，摘山果以進，先生感涕而不食曰：“此母氏平日所嗜也。”服闋，專精性理之學，博究經傳之旨。推測其所已知；益窮其所未曉，驗之於心；體之於身，至如濂洛羣書《朱子大全》，樂而玩之，殆忘寢食，如侍几席而親承訓誨。晚年留神於易，究其精蘊，頗有自得之味。嘗曰：“易理無窮，而觀易之道，有三理也·數也·象也。理·數則宋之羣賢，所發揮者，無復餘蘊，而獨象易無傳，極可歎也。”遂於逐卦象辭之下，分註數句以發明之，未克卒業焉。於天文·地理·卜筮·醫藥，靡不旁通。辛酉以尤菴先生薦，受齊陵參奉，後數年又除孝陵參奉，皆不就。初居長城之小谷中，移靈光朴山。又移東龜店，自號‘店漢’，作《店漢說》。晚歲還棲于長城悅理谷，以為考槃之所。屋後有松巖，因以‘松巖’號焉。先生於河西先生，生同一境，常有曠感之意，為作年譜，以寓景仰之誠。趙梁山英圭亦邑人也，謂其父子忠孝，不合泯沒而無傳也。倡率同志，通諭士林，並享於慕巖祠宇。早歲摳衣於尤菴先生之門，欽服景慕之誠，迄于白首而不衰，每以長書稟其所疑。所與交遊講劄，皆一世之聞人勝流也。少與西峯分厚，及甲子有往復背師事，而先生為書戒責，以玄石摧謝之意勉之。末後書有曰：“忠宣或未悉文正，歐陽反為得。”云云，而又曰：“終不合則當從此已矣”。自後不相通問。嘗與內弟羅上舍以龜，語及賊鐫曰：“吾觀其所為，與其名字相應，其為國家患，庸有極乎？近來心跡頗露，非久必敗”。羅不以為然，未幾其言果驗，羅於是服其先見。一日先生早起，逍遙于庭，謂家人曰：“我其死矣。”家人驚懼請其由。先生徐曰：“昨夜之夢，先君之召我而告之者異矣。此其兆也。”冬十二月二十五日疾作，遂卒于家，享年六十四，時崇禎歲次庚午也。明年葬于府治北馬山亥向之原先塋之側。先生初娶光山金氏參判汝鈺之女，有孝謹敬順之德，生

四男六女。男長曰：“灝”，早卒無子。三男未冠而夭，槩乎皆聰明特達之人。而其季汪年甫成童，學識通明，將期以遠大，不幸短命。女長適高必觀，次適姜德周，次適朴泰憲，次適柳翊聖。後娶海州吳氏輯之女，有二男曰：“復”，曰：“得”。汪之臨絕，以親老無兒爲至恨。以悽辭請其後娶曰：“子必復生。”故命其小字曰：‘復見’·‘得見’，而及冠，因以復·得名。復，得亦皆淳實，克肖典刑。吳氏教訓又有法，皆克家焉，德善之報可徵矣。外孫男女若干人。先生稟質魁偉，孝友純至。杜門守靜，潛心大業，有得於心，樂而忘憂。真純之氣，達於面目，色溫言厲，神定氣泰。若有學子執經，而問難則，樂與酬酢，窮晝夜不倦。生徒之聽講者，必以白鹿洞規告之，蓋以孝悌爲本也。祖母尹氏，年踰八旬，定省溫清。承順怡愉，未嘗失其歡心，及喪哀慼無異親喪。伯氏邁厲危韻，血指以掬，而無及焉。從子河又死於厲，先生親自殯斂。累犯危厲而無恙，人皆服之。平居無甚可否事，而及其臨事變，斷以義理則斬斬然矣。行己大方，若不甚異於人，而至於收束檢制處，確然自守，古所謂‘通不踰閑介不絕俗者’，先生庶幾焉。尹童土，一見先生而器之，乃以湖南一人，稱道於公卿間。申高敞啓澄，亦嘗推重曰：“若論南服第一人物，未必非此人也。先生超然，若無意於當世，而胸中經世之蘊，有非俗人所能窺測者也。有《井田議》一秩，其規畫詳盡。要之可行於今。”云。有遺集若干卷，藏于家。先生於先君子，托以道義之交，而光一亦嘗得供洒掃之役於門下矣。先生葬時，復·得皆幼。乃今屬光一狀其行，將以請於當世立言之君子，光一辭不獲。論其聞見，所及如此，以備採擇焉。

年月日，平陽朴光一謹狀。

跋

《松巖集》三卷，故參奉奇公之作也。公既受業於大老之門，學識博透，大被獎與。且與傍邑同志之士，究窮性理之旨，相遇則講討以言語；離居則反復以書牘。亶亶矻矻，如嗜好之，不忍一日忘，不知世之有榮名利祿者。噫！先輩好學之誠，麗澤之誠，有可以想見。然未知其遺風餘韻，今猶存否也。世稱‘湖南輩出名賢’，其來惟舊，而今久無聞。豈前賢倡明誘掖之功，寢遠而然哉？讀公遺文，不能不爲之慨然興歎也。詩若干首，文若干首，甚夥矣。然其文章質厚瞻暢而饒理致。若其論理之說，遵守洛閩之訓，有深體自得之意，不爲循外以苟然也。斯亦見公之所存焉。噫！後之覽斯集，庶幾有感發興起者，其孰以寡而少之也！公諱挺翼，字子亮，世居湖南之長城。以薦連授齊陵·孝陵參奉，皆不仕。公之孫日相，來請載純，書其卷後甚勤。辭不獲，謹爲之跋。

崇禎紀元後三 戊申十二月下澣，海州 吳載純書。

역자

김우재(한국고전번역원 번역전문위원)

엄찬영(조선대학교 문학박사)

윤세순(성균관대학교 강사, 문학박사)

최이호(한국고전번역원 번역전문위원, 고려대학교 번역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호남선현문집 국역총서 1

송암집 상 松巖集上

인쇄 2019년 1월 25일

발행 2019년 1월 31일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이종범)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기정익

역자 김우재 엄찬영 윤세순 최이호

편집제작 흐름

55019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59

전화 063-287-1231 팩스 063-287-1232

비매품

ISBN 979-11-966113-7-8 9391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호남한국학진흥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